

# 모택동선집

5



전 세계 무산자는 연합하라!

# 毛泽东选集

## 第五卷

一九七七年·北京

# 모택동선집

5

1977년·북경







毛泽东



## 출판 설명

위대한 령수이시며 도사이신 모택동주석의 저작은 불후의 맑스-레닌주의문헌이다. 중공중앙의 결정에 근거하여 《모택동선집》 제5권을 지금 출판한다. 다음 몇 권도 앞으로 륝속 출판할것이다.

이전에 출판한 《모택동선집》 제1권——제4권에는 신민주주의혁명시기의 중요한 저작들이 수록되어있다. 제5권과 다음 몇권에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시기의 중요한 저작들을 수록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후의 새로운 력사적시기에 모택동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진리와 혁명의 구체적실천을 결합시키는 일관적원칙을 견지하시면서 우리 당과 우리 나라 인민을 령도하시여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진행하는 투쟁에서, 고강-요수석, 팽덕회, 류소기, 립표, 왕홍문-장춘교-강청-요문원 수정주의로선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제국주의와 각국 반동파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쓰련수정주의반역자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맑스-레닌주의를 계승하시고 수호하시고 발전시키시였다. 이 시기에 있어서 모택동동지의 가장 위대한 리론적공헌은 우리 나라 및 국제 무산계급전정의 력사적경험을 체계적으로 총결하시고 대립물의 통일이

란 이 유물론적변증법의 기본적인관점을 운용하시여 사회주의사회의 모순, 계급과 계급투쟁을 분석하시였으며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의 발전법칙을 제시하시고 무산계급전정하에서의 계속혁명의 위대한 리론을 창립하신것이다. 무산계급혁명과 무산계급전정에 관한 모택동동지의 이러한 새로운 사상, 새로운 결론은 철학, 정치경제학 및 과학적사회주의 면에서 맑스-레닌주의의 리론보물고를 극히 풍부히 하였다. 이는 우리 나라 인민에게 무산계급전정을 공고히 하고 자본주의복벽을 방지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근본적인 길을 밝혀주었을뿐만아니라 또한 위대하고 심원한 세계적의의를 가지고있다.

《모택동선집》 제5권에는 1949년 9월부터 1957년까지의 중요한 저작들을 수록하였다. 모택동동지께서 제시하신, 생산자료소유제의 사회주의적개조가 기본상 완성된후에도 무산계급과 자산계급, 사회주의길과 자본주의길간의 투쟁이 의연히 장기적으로 존재하게 된다는데 관한 과학적론단,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적아모순과 인민내부모순이라는 이 성질이 부동한 두가지 모순을 정확히 구별하고 처리할데 관한 학설, 무산계급전정하에서 계속 혁명할데 관한 위대한 리론, 사회주의건설총로선에 관한 기본사상은 바로 이 제5권에 수록한 저작들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였다. 그후, 특히는 무산계급문화대혁명가운데서 모택동동지께서는 혁명의 실천적경험에 근거하여 이러한 빛나는 사상들을 부단히 충실히 하시고 발전시키시였다.

모택동동지는 현시대의 가장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다. 모택동사상은 단결하여 싸우며 계속 혁명하는 우리 당, 우리 군대, 우리 나라 인민들의 승리의 기치이며 국제무산계급과 각국의 혁명적인민들의 공동의 재부이다. 모택동동지의 사상과 학설은 영원할 것이다.

선집에 수록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 시기에 있어서의 모택동동지의 저작들은 그 일부분은 이미 공개적으로 발표되었던 것이고 일부분은 공개적으로 발표된적이 없는것인데 그중에는 모택동동지께서 기초하신 문건, 수고와 강화의 정식기록들도 들어있다. 강화기록에 대하여서는 편집할 때 필요한 기술적정리를 하였다.

**중공중앙 모택동주석저작편집출판위원회**

1977년 3월 1일



## 목 차

###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 시기(1)

중국인민은 일떠섰다(1949년 9월 21일).....	3~8
중국인민의 대단결 만세(1949년 9월 30일).....	9~11
인민영웅들은 영생불멸하리라(1949년 9월 30일).....	12
간고분투하는 작풍을 영원히 보전하자 (1949년 10월 26일).....	13
부농에 대한 책략문제에 관한 의견을 칭취한다(1950년 3월 12일).....	14~15
국가재정경제상황의 기본적호전을 위하여 투쟁하자(1950년 6월 6일).....	16~24
사면출격을 하여서는 안된다(1950년 6월 6일).....	25~29
완전한 혁명파로 되자(1950년 6월 23일).....	30~35
동무들은 전 민족의 모범인물이다 (1950년 9월 25일).....	36~37
중국인민지원군에 대한 명령(1950년 10월 8일).....	38~39
중국인민지원군은 조선의 일산일수, 일초일목을 애호하여야 한다(1951년 1월 19일).....	40
중공중앙 정치국확대회의의 결의요점 (1951년 2월 18일).....	41~46



1. 22개월간의 준비공작 .....	41	
2. 항미원조에 관한 선전교육운동 .....	41	
3. 토지개혁 .....	42	
4. 반혁명진압 .....	42	
5. 성시공작 .....	43	
6. 정당과 전당 .....	44	
7. 통일전선공작 .....	45	
8. 정풍 .....	46	
반혁명진압에 있어서 반드시 당의 균중		
로선을 실행하여야 한다(1951년 5월).....	47~50	
반혁명진압에 있어서는 온당하게, 면바로,		
호되게 처야 한다(1950년 12월—		
1951년 9월).....	51~56	
영화 《무훈전》에 대한 토론을 중시하여야		
한다(1951년 5월 20일).....	57~59	
3대운동의 위대한 승리(1951년 10월 23일).....		60~66
《3반》, 《5반》 투쟁에 관하여		
(1951년 11월—1952년 3월).....	67~75	
농업의 호조합작을 증대한 일로 삼고		
실시하여야 한다(1951년 12월 15일).....	76	
신년축사(1952년 1월 1일).....		77~78
서장공작방침에 관한 중공중앙의 지시		
(1952년 4월 6일).....	79~84	
공인계급과 자산계급간의 모순이 국내의		
주요한 모순이다(1952년 6월 6일).....	85	

단결하며 적아계선을 가르자 (1952년 8월 4일).....	86~90
중국인민지원군의 중대한 승리를 축하한다 (1952년 10월 24일).....	91~92
관료주의, 명령주의와 위법란기를 반대하자 (1953년 1월 5일).....	93~96
대한족주의를 비판하자(1953년 3월 16일).....	97~98
《다섯가지가 많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1953년 3월 19일).....	99~102
류소기와 양상곤이 기물을 파괴하고 제마음대로 중앙의 명의로 문건을 발부한데 대한 비평(1953년 5월 19일).....	103
총로선을 떠난 우경관점을 비판한다 (1953년 6월 15일).....	104~106
청년단의 공작에서는 청년의 특점을 들보아야 한다(1953년 6월 30일).....	107~115
국가자본주의에 관하여(1953년 7월 9일).....	116
과도기에 있어서의 당의 총로선(1953년 8월).....	117
당내의 자산계급사상을 반대하자 (1953년 8월 12일).....	118~130
자본주의적공상업을 개조함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1953년 9월 7일).....	131~134
항미원조의 위대한 승리와 금후의 임무 (1953년 9월 12일).....	135~142

량수명의 반동사상을 비판하자 (1953년 9월 16일—18일)·····	143~157
농업의 호조합작에 관한 두차례의 담화 (1953년 10월, 11월)·····	158~172
1. 10월 15일의 담화·····	158
2. 11월 4일의 담화·····	164
중화인민공화국헌법초안에 관하여 (1954년 6월 14일)·····	173~183
위대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분투하자(1954년 9월 15일)·····	184~186
홍투몽연구문제에 관한 편지 (1954년 10월 16일)·····	187~188
원자탄은 중국인민을 놀랄수 없다 (1955년 1월 28일)·····	189~191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에서 한 강화 (1955년 3월)·····	192~220
개 막 사·····	192
결 론·····	199
1. 이번 대표회의의 평가에 관하여·····	199
2. 제1차5개년계획에 관하여·····	202
3. 고강-요수석반당권맹에 관하여·····	204
4. 목권형세에 관하여·····	214
5. 당의 제8차전국대표대회 승리적소집을 위하여 투쟁하자·····	216
《여론이 일률적이다》라는것을 론박한다 (1955년 5월 24일)·····	221~225

《호풍반혁명집단에 관한 재료》의 서언과 평어(1955년 5월, 6월).....	226~236
서 언.....	226
평 어(선택하여 수록).....	229
농업합작화문제에 관하여(1955년 7월 31일).....	237~272
농업합작화에 있어서는 당원, 단원과 빈농, 하중농에 의거하여야 한다(1955년 9월 7일).....	273~276
농업합작화에 관한 변론과 당면한 계급투쟁 (1955년 10월 11일).....	277~313
1. 농업합작화와 자본주의적공상업의 개조와의 관계.....	278
2. 합작화문제에서의 쟁론에 대한 총결.....	285
3. 전면적규획을 세우고 령도를 강화할 문제에 관하여.....	289
4. 사상투쟁에 관하여.....	295
5. 기타 약간의 문제.....	301
《중국농촌에서의 사회주의고조》 서언 (1955년 9월, 12월).....	314~323
서 언 1.....	314
서 언 2.....	319
《중국농촌에서의 사회주의고조》의 평어 (1955년 9월, 12월).....	324~375
농업17조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1955년 12월 21일).....	376~381

수공업에 대한 사회주의적개조를 가속화하자 (1956년 3월 5일).....	382~386
10대관계에 대하여(1956년 4월 25일).....	387~421
1.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과의 관계.....	388
2. 연태공업과 내지공업과의 관계.....	391
3. 경제건설과 국방건설과의 관계.....	393
4. 국가와 생산단위와 생산자개인과의 관계.....	394
5.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399
6. 한족과 소수민족과의 관계.....	403
7. 당과 비당과의 관계.....	405
8. 혁명과 반혁명과의 관계.....	407
9. 시비관계.....	412
10. 중국과 외국과의 관계.....	415
미제국주의는 종이범이다 (1956년 7월 14일).....	422~427
당의 단결을 강화하며 당의 전통을 계승하자(1956년 8월 30일).....	428~446
우리 당의 약간의 역사적경험 (1956년 9월 25일).....	447~456
손중산선생을 기념하여(1956년 11월 12일).....	457~459
중국공산당 제8기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한 강화(1956년 11월 15일).....	460~487
성, 시, 자치구당위서기회의에서 한 강화 (1957년 1월).....	488~541
1. 1월 18일의 강화.....	488

2. 1월 27일의 강화.....	503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 문제에 관하여(1957년 2월 27일).....	542~599
1. 성질이 부동한 두가지 모순.....	542
2. 숙반문제.....	560
3. 농업합작화문제.....	564
4. 공상업자문제.....	569
5. 지식분자문제.....	572
6. 소수민족문제.....	575
7.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고루 돌보며 적당히 안배하는 문제.....	576
8. 백화제방, 백가쟁명, 장기공존, 호상감득에 관하여.....	578
9. 소수인이 소동을 일으키는 문제에 관하여.....	588
10.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변할수 있는가?.....	591
11. 절약에 관하여.....	594
12. 중국의 공업화의 길.....	596
중국공산당 전국선전공작회의에서 한 강화 (1957년 3월 12일).....	600~624
계속 간고분투하며 균중과 밀접히 련계하자 (1957년 3월).....	625~630
사태는 변화되고있다(1957년 5월 15일).....	631~641
중국공산당은 전 중국 인민의 령도적 핵심이다(1957년 5월 25일).....	642
력량을 조직하여 우파분자들의 창렬한 진공에 반격을 가하자(1957년 6월 8일).....	643~646

문회보의 자산계급방향은 응당 비판하여야 한다(1957년 7월 1일).....	647~655
자산계급우파의 진공을 물리치자 (1957년 7월 9일).....	656~681
1957년 하기의 형세(1957년 7월).....	682~696
혁명의 촉진파가 되자(1957년 10월 9일).....	697~719
군중의 대다수를 굳게 믿어야 한다 (1957년 10월 13일).....	720~744
당내단결의 변증법적방법 (1957년 11월 18일).....	745~749
일체 반동파는 모두 종이범이다 (1957년 11월 18일).....	750~752

#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 시기 (1)





## 중국인민은 일떠섰다\*

(1949년 9월 21일)

대표선생 여러분, 전국 인민이 갈망하던 정치협상 회의는 오늘 개막되었다.

우리의 회의에는 전 중국의 모든 민주당파, 인민단체, 인민해방군, 각 지구, 각 민족 및 국외화교를 대표하는 600여명의 대표들이 망라되어있다. 이것은 우리의 회의가 전국 인민의 대단결의 회의라는것을 보여준다.

전국 인민의 이와 같은 대단결이 이룩될수 있는것은 우리가 미국제국주의의 원조를 받는 국민당반동정부를 전승하였기때문이다. 3년 남짓한 동안에 세계에서 보기 드문 영웅한 중국인민해방군은 미국의 원조를 받는 국민당반동정부의 수백만 군대의 모든 진공을 물리치고 반공과 진공으로 넘어갔다. 지금 인민해방군의 수백만 야전군은 이미 대만, 광둥, 광서, 귀주, 사천 및 신강에 가까운 지역까지 쳐나갔으며 중국인민의 대다수가 이미 해방되었다. 3년 남짓한 동안에 전국 인민은 굳게 뭉쳐 인민해방군을 원조하여 적들을 반대하

-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차전체회의에서 하신 개막사이다.

였고 기본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 기초우에서 오늘  
의 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우리의 회의를 정치협상회의라고 하는 까닭은 3년  
전에 우리가 장개석국민당과 함께 정치협상회의를 연  
일〔1〕이 있기때문이다. 그 회의의 결과는 장개석국민당  
과 그 졸개들에 의하여 파괴되었지만 이미 인민들속에  
사라질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겨놓았다. 그 회의는 제  
국주의의 주구인 장개석국민당 및 그 졸개들과는 결코  
인민에게 유익한 그 어떤 과업도 함께 수행할수 없  
는것을 증명하였다. 설혹 억지로 결의를 짓는다 하  
더라도 일단 시기가 성숙되면 그들은 모든 결의를 파  
기하고 가혹한 전쟁으로써 인민을 반대할것이기때문  
에 그것은 무익한 일인것이다. 그 회의의 유일한 수  
확은 제국주의의 주구인 장개석국민당 및 그 졸개  
들과는 타협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것, 이 적들을 때  
려었느냐 아니면 이 적들한테 학살당하고 압박받  
느냐 하는 이 량자간의 어느 하나일뿐이고 다른  
길은 없다는것을 알도록 인민들을 심각히 교  
육한것이다. 중국인민은 중국공산당의 령  
도밑에서 3년 남짓한 동안에 신속히 각성  
하였으며 조직되어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  
료자본주의 및 그의 집중적인 대표자 국민  
당반동정부를 반대하는 전국적규모의 통  
일전선을 결성하고 인민해방전쟁을 원조  
하여 기본적으로 국민당반동정부를 타도  
하였고 중국에서의 제국주의의 통치를 전  
복하였으며 정치협상회의를 회복하게 되  
었다.

오늘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완전히 새로운 기

초에서 열렸다. 이 정치협상회의는 전국 인민을 대표하는 성질을 띠고있으며 전국 인민의 신임과 옹호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자기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의 직권을 행사한다는것을 선포한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자기의 의정에 의하여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조직법을 제정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조직법을 제정하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공동강령을 제정하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전국위원회를 선거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위원회를 선거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와 국장을 제정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수도의 소재지를 결정할것이며 세계 대다수 나라들과 같은 기년을 사용하기로 결정할것이다.

대표선생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공작이 인류의 역사에 기재될것이며 인류총수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사람은 이로부터 일떠섰다는것을 보여주리라는 하나의 공통한 느낌을 가지고있다. 중국사람은 예로부터 위대하고 용감하고 근로한 민족이다. 다만 근대에 와서 락오하였을뿐이다. 이렇게 락오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외래제국주의와 자국반동정부의 압박과 착취로 말미암은것이다. 100여년이래 우리의 선배들은 불요불굴의 투쟁으로 국내외압박자들을 반대하였으며 종래로 투쟁을 멈춘적이 없었다. 이 투쟁에는 중국혁명의 위대한 선구자인 손중산선생이 평도한 신해혁명이 포함되어있다. 우리의 선배들은 자기들의 유지를 실현하라고 우리에게 지시하였다. 우리는 오늘 그렇게 하

였다. 우리는 단결하여 인민해방전쟁과 인민대혁명을 거쳐 국내외압박자들을 타도하였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선포하게 되었다. 우리 민족은 이로부터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각 민족 대가정의 일원으로 되어 용감하고도 근로한 자태로 일하면서 자기의 문명과 행복을 창조할 것이며 동시에 또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촉진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다시는 모욕당하는 민족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일떠섰다. 우리의 혁명은 이미 전 세계 광범한 인민들의 찬성과 환호를 받고 있다. 우리의 빛은 전 세계 어디에나 다 있다.

우리의 혁명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인민해방전쟁과 인민혁명운동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 우리는 계속 노력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자와 국내반동파들은 결코 저들의 실패를 달가와하지 않을 것이며 의연히 최후발악을 할 것이다. 전국이 평정된후에도 그들은 각종 방식으로 파괴하고 교란할 것이며 매일 매시각마다 중국에서 복벽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것은 필연적인 것이며 추호도 의심할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자기의 경각성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인민민주전정의 국가제도는 인민혁명의 승리의 성과를 보호하며 국내외적들의 복벽음모를 반대하는데 있어서의 유력한 무기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 무기를 단단히 틀어쥐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와 인민들, 우선 소련 및 각 신민주국가들과 단결함으로써 인민혁명

의 승리의 성과를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국내외적들의 복벽음모를 반대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을 고립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인민민주전정을 견지하고 국제벗들과 단결하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승리하게 될것이다.

인민민주전정, 그리고 국제벗들과의 단결은 우리의 건설사업을 신속히 성공되게 할것이다. 우리앞에는 이미 전국적규모의 경제건설사업이 나서고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4억 7,500만 인구와 960만평방키로메터의 국토는 극히 유리한 조건으로 되고있다. 우리앞에는 곤난이 있을뿐만아니라 또 매우 많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곤난이 전국 인민의 영웅한 투쟁에 의하여 다 극복되리라하는것을 확신한다. 중국인민은 곤난을 이겨낸 극히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있다. 우리의 선배들과 우리 자신이 극히 어려운 기나긴 세월을 지나오면서 강대한 국내외의 반동파들을 전승할수 있었다면 무엇때문에 승리한후에 튕성발전하는 국가를 건설할수는 없겠는가? 간고분투하는 작풍을 계속 보전하기만 하면, 일치 단결하기만 하면, 인민민주전정을 견지하고 국제벗들과 단결하기만 하면 우리는 경제전선에서 신속히 승리할수 있는것이다.

경제건설의 고조가 닥쳐옴에 따라 불가피적으로 문화건설의 고조가 나타날것이다. 중국사람들이 문명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우리는 높은 문화를 가진 민족으로 세계에 나타나게 될것이다.

우리의 국방은 공고화될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국

토에 대한 그 어떤 제국주의자들의 재침략도 허용되지 않을것이다. 시련을 겪은 영웅한 인민해방군에 기초하여 -우리의 인민무장력은 반드시 보존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우리는 강대한 육군을 가지게 될뿐만아니라 강대한 공군과 강대한 해군도 가지게 될것이다.

국내외의 반동파들을 우리앞에서 벌벌 떨라고 하라. 우리를 보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고 지껄이겠거든 지껄이라고 하라. 중국인민은 기필코 굴함없는 노력으로 온전하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것이다.

인민해방전쟁과 인민혁명에서 희생된 인민영웅들은 영생불멸하리라!

인민해방전쟁과 인민혁명의 승리를 축하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축하한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성공을 축하한다!

## 주 해

[1] 본 선집 제4권의 《자위전쟁으로 장개석의 진공을 분쇄하자》의 주해 [2]를 참조하라.

## 중국인민의 대단결 만세\*

(1949년 9월 30일)

전국 동포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차전체회의는 이미 자기의 임무를 승리적으로 완수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전 중국의 모든 민주당파, 인민단체, 인민해방군, 각 지구, 각 민족, 국외화교와 기타 애국민주분자들의 대표가 망라되어있다. 이 회의는 전국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고있으며 전국 인민의 전례없는 대단결을 보여주었다.

전국 인민의 이러한 대단결은 중국 인민과 인민해방군이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서 장기간에 걸쳐 영웅하게 투쟁하여 미제국주의의 원조를 받는 장개석국민당반동정부를 전승한데서 이룩된것이다. 지난 100여년 동안 중국인민의 선진분자들——그중 걸출한분으로는 신해혁명을 령도한 위대한 혁명가 손중산선생 같은 분도 있다——은 제국주의와 중국반동정부의 압박을 뒤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차전체회의의 위탁을 받고 기초하신 회의선언이다. 《인민의 령수 모택동주석의 령도밑에서》라는 구절은 회의에서 이 선언을 통과할 때에 대표들의 제의에 의하여 첨가한것이다.



없으려고 광범한 인민을 령도하여 굴함없는 즐기찬 투쟁을 부단히 진행하여왔으며 오늘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 우리가 이 회의를 열게 된 오늘 중국인민은 이미 자기의 환수를 전승하였고 중국의 면모를 개변시켰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우리 4억 7,500만 중국사람이 이제는 일떠섰으며 우리 민족의 앞길은 무한히 광명하다.

인민의 령수 모택동주석의 령도밑에서 우리의 회의는 한마음한뜻으로 신민주주의원칙에 좇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조직법을 제정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조직법을 제정하였으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공동강령을 제정하였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를 북경으로 정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를 오성붉은기로 정하였으며 의용군행진곡을 현시기의 국가로 채택하였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년법은 세계에 통용되고있는 기원을 쓰기로 결정하였으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를 선거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위원회를 선거하였다. 이로부터 중국력사에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전국 동포들, 중화인민공화국은 지금 그 창건을 선고하였고 중국인민은 이미 자기의 중앙정부를 가지게 되었다. 이 정부는 공동강령에 좇아 전 중국 경내에서 인민민주전정을 실시할것이다. 이 정부는 인민해방군을 지휘하여 혁명전쟁을 끝까지 진행함으로써 나머지 적군을 소멸하며 전국 령토를 해방하고 중국을 통일하는 위업을 완수할것이다. 이 정부는 전국 인민

을 령도하여 모든 곤난을 극복하고 대규모적으로 경제 건설과 문화건설을 진행함으로써 낡은 중국이 남겨놓은 빈곤과 몽매 상태를 쓸어버리고 점차적으로 인민의 물질생활을 개선하며 인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 정부는 인민의 이익을 수호하며 모든 반혁명분자들의 음모활동을 진압할 것이다. 이 정부는 인민의 료해공군을 강화하여 국방을 공고히 하고 령토와 주권의 완정을 수호하며 온갖 제국주의국가의 침략을 반대할 것이다. 이 정부는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인민들과 연합하고 무엇보다 먼저 소련 및 각 신민주국가들과 연합하고 그들을 자기의 동맹자로 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전쟁도발음모를 공동으로 반대하며 세계의 항구한 평화를 쟁취할 것이다.

전국 동포들, 우리는 한층 더 조직되어야 한다. 우리는 전 중국의 절대다수 사람들을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및 기타의 여러가지 조직에 묶어세워 구중국의 산만하고 무조직적이던 상태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민군중의 집체력량으로 인민정부와 인민해방군을 옹호하며 독립적이고 민주적이고 평화적이고 통일되고 부강한 새 중국을 건설하여야 한다.

인민해방전쟁과 인민혁명을 위하여 희생된 인민영웅들은 영생불멸하리라!

중국인민의 대단결 만세!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중앙인민정부 만세!

## 인민영웅들은 영생불멸하리라\*

(1949년 9월 30일)

3년래 인민해방전쟁과 인민혁명에서 희생된 인민  
영웅들은 영생불멸하리라!

30년래 인민해방전쟁과 인민혁명에서 희생된 인민  
영웅들은 영생불멸하리라!

지금으로부터 1840년에까지 거슬러올라가 그때로  
부터 국내외의 원수들을 반대하며 민족의 독립과 인민  
의 자유행복을 쟁취하기 위한 모든 투쟁에서 희생된 인  
민영웅들은 영생불멸하리라!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인민영웅기념비를 위하여 기초하신 비문  
이다.

## 간고분투하는 작품을 영원히 보전하자

(1949년 10월 26일)

연안의 동지들 및 섬감녕변구의 동포들!

동무들의 축하편지를 받고 나는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하게 생각하는바이다. 연안과 섬감녕변구는 1936년부터 1948년까지 중공중앙의 소재지였으며 중국 인민해방투쟁의 총후방이었다. 연안과 섬감녕변구의 인민은 전국 인민에게 위대한 기여를 하였다. 나는 연안과 섬감녕변구의 인민이 계속 한결같이 단결하여 전쟁의 상처를 재빨리 가시고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을 발전시킬것을 축원한다. 나는 또 전국의 모든 혁명공작 인원들에게 지난 10여년동안 연안과 섬감녕변구의 공작 인원들이 가지고있는 간고분투하는 작품을 영원히 보전할것을 바란다.

모택동

1949년 10월 26일

## 부농에 대한 책략문제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다\*

(1950년 3월 12일)

동무들이 지금 진행하고있는 각 성 책임동지회의에서 부농에 대한 책략문제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여 우리에게 전보로 알려주기 바란다. 즉 금년겨울부터 남방의 몇개 성 및 서북의 일부 지구들에서 시작되는 토지개혁운동에서는 자본주의적부농을 다치지 않을뿐만 아니라 반봉건적부농도 다치지 않고 두었다가 몇해 후에 가서 다시 반봉건적부농문제를 해결하자는것이인데 이렇게 하는것이 유리하지 않겠는지 고려하여보기 바란다. 이렇게 하자는 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토지개혁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서 지나치게 좌적으로 나아가는 편향이 생기기 쉬운데 만일 우리가 지주만 다치고 부농을 다치지 않으면 지주를 더욱 고립시키고 중농을 더 잘 보호할수 있을것이고 또 함부로 때리고 죽이는 편향도 방지할수 있을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지하기 어려울것이다. 둘째로, 과거 북방에서 토지개혁을 할 때는 전쟁시기여서 전쟁의 분위기가 토지개혁의 분위기를 압도하였지만 기본상 전쟁이 없어진 오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중공중앙 중남국 그리고 화동국, 화남분국, 서남국, 서북국에 보내신 통지이다.

늘에 있어서는 토지개혁이 각별히 돌출하여보이고 사회에 주는 진동도 특히 크며 지주들의 아우성소리도 특히 날카롭게 들릴것이다. 그런만큼 반봉건적부농을 잠시 다치지 않고 두었다가 몇해후에 가서 다치면 우리는 보다 더 충분한 이유를 가지게 될것이다. 다시말하면 정치상에서 더욱 주동권을 가지게 될것이다. 셋째로, 오늘 우리와 민족자산계급과의 통일전선이 정치상에서나 경제상에서나 조직상에서나 이미 결성되었는데 민족자산계급은 토지문제와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있는 만큼 민족자산계급을 안정시키기 위하여서는 잠시 반봉건적부농을 다치지 않는것이 비교적 타당할것 같다.

부농을 잠시 다치지 않을데 관한 문제는 작년 11월의 정치국회의에서 내가 제기한바 있다. 단지 상세한 분석을 하지 않았고 결정을 짓지 않았을뿐이다. 지금은 결정을 지을 때가 되었다. 결정을 지은후에는 토지법 및 토지개혁과 관련한 기타의 문건들을 수정하고 반포하여야 하며 그리하여 신태방구 각 성의 토지개혁간부들이 학습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금년가을후에 토지개혁을 시작하는데 유리하다. 그렇지 않으면 때를 놓치어 피동에 빠지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중남국의 동지들뿐만아니라 화동국, 화남분국, 서남국, 서북국의 동지들도 이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며 동시에 이 전보를 소속 각 성의 성위, 각 시의 시위들에 전달하여 토론하게 하고 중앙에서 결재할 때에 고려할수 있도록 찬성 또는 반대 의견들을 수집하여 속히 중앙에 전보로 알려주기 바란다. 이것은 극히 요긴한 일이다.

## 국가재정경제상황의 기본적 호전을 위하여 투쟁하자\*

(1950년 6월 6일)

목전의 국제형세는 우리에게 유리하다. 쏘련을 위수로 하는 세계평화민주전선이 작년보다 더 강대하여졌다. 평화를 쟁취하며 전쟁을 반대하여 싸우는 세계 각국의 인민운동이 발전되었다. 제국주의의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민족해방운동이 광범하게 발전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시할만한것은 미국의 점령을 반대하여 싸우는 일본인민과 독일인민의 군중운동이 일어났으며 동방의 피압박민족들의 인민해방투쟁이 발전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동시에 제국주의나라들간의 모순, 주로는 미국과 영국간의 모순도 심화되었다. 미국자산계급내부 각파간의 분쟁과 영국자산계급내부 각파간의 분쟁도 증대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쏘련과 각 인민주국가들은 호상관계에 있어서 단결이 잘되고있다. 위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중쏘조약〔1〕은 두 나라사이의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였으며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국내의 건설사업을 대담하게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제7기중앙위원회 제3차전체회의에서 하신 서면보고이다.

그리고 비교적 빨리 진행할수 있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와 민주를 쟁취하며 전쟁과 압박을 반대하여 싸우는 전 세계 인민들의 위대한 투쟁을 추동하고있다. 제국주의진영으로부터 오는 전쟁위협이 의연히 존재하고있으며 제3차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의연히 존재하고있다. 그러나 전쟁의 위험을 제지하며 제3차세계대전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싸우는 력량이 급속히 장성되고있으며 전 세계 대다수 인민들의 각성정도가 바야흐로 제고되고있다. 전 세계 공산당이 모든 가능한 평화민주력량을 계속 단결하며 또 그 력량을 더 크게 장성시킨다면 새로운 세계전쟁은 제지할수 있는것이다. 국민당반동파가 퍼뜨린 전쟁의 요언은 인민을 기만하기 위한것이며 근거가 없는것이다.

목전 우리 나라의 정형은 이러하다. 즉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및 각급 지방인민정부가 이미 수립되었다. 소련, 각 인민민주국가 및 약간의 자본주의나라들이 선후하여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전쟁은 대륙에서는 이미 기본적으로 끝났고 대만파 서장만이 아직 해방되지 않고있는데 이것은 중대한 투쟁임부로 남아있다. 국민당반동파는 대륙의 일부 지구들에서 토비식유격전쟁의 방식을 취하고있으며 일부분 낙후분자들을 선동하여 인민정부와 맞서게 하고있다. 국민당반동파는 또 숨어있는 많은 특무분자와 간첩분자들을 시켜서 인민정부를 반대하며 인민들속에서 요언을 퍼뜨림으로써 공산당과 인민정부의 위신을 깎아내리며 각 민족,



각 민주계급, 각 민주당파, 각 인민단체들의 단결과 합작을 파괴하려 시도하고있다. 특무와 간첩들은 또 인민경제사업을 파괴하는 활동을 감행하고있으며 공산당파 인민정부의 공작인원들에 대하여 암살수단을 취하고있으며 제국주의와 국민당반동파를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있다. 이 모든 반혁명활동들은 다 제국주의, 특히는 미제국주의가 배후에서 책동하고있다. 이런 토비와 특무, 간첩들은 다 제국주의의 주구이다. 인민해방군은 1948년 겨울에 료십, 회해, 평진 3대전역의 결정적승리를 거두고 1949년 4월 21일에 도강작전에 들어서서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13개월반동안에 서장, 대만 및 기타 일부 섬들을 제외한 국토전체를 점령하였고 국민당반동파의 군대 183만명과 토비유격대 98만명을 소멸하였으며 인민공안기관은 대량의 반동특무조직과 특무분자들을 사출체포하였다. 지금 인민해방군은 의연히 신해방구에서 잔여토비를 계속 숙청할 임무를 가지고있으며 인민공안기관은 적들의 특무조직을 계속 타격할 임무를 가지고있다. 전국의 대다수 인민들은 공산당파 인민정부와 인민해방군을 열렬히 옹호하고있다. 인민정부는 최근 몇달동안에 전국적범위에서 재정경제공작의 통일적관리와 통일적령도를 실현하였으며 재정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쟁취하였으며 통화팽창을 제지하였으며 물가를 안정시켰다. 전국 인민은 량곡을 바치고 세금을 내고 공채(2)를 사는 등의 행동으로 인민정부를 지지하고있다. 지난해 우리 나라에는 널리 재해가 들어 약 1억 2,000만무의 경작지와 4,000

만명의 인민들이 같지 않은 정도로 수재와 한재를 입었다. 인민정부에서는 리재민들에 대한 구제공작을 대규모적으로 조직하였으며 많은 지방들에서 수리건설 사업을 대규모적으로 진행하였다. 올해농사는 지난해보다 나으며 여름걷이작물은 일반적으로 잘된것 같다. 가을걷이작물까지 잘되면 명년의 형편은 올해보다 더 나으리라고 예견된다. 제국주의와 국민당반동파의 장기간에 걸친 통치로 하여 사회경제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조성되었고 방대한 실업자군이 조성되었다. 혁명이 승리한 뒤 전체 낡은 사회경제구조가 각이한 정도로 재조직되고있으므로 실업자수가 또 늘어나고있다. 이것은 큰 문제이다. 이 문제를 철차있게 해결하기 위하여 인민정부에서는 이미 실업자들을 구제하며 안치하는 대책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인민정부에서는 문화교육사업을 널리 전개하고있으며 광범한 지식분자들과 청년학생들이 새 지식 학습에 참가하였거나 혁명공작에 참가하였다. 인민정부에서는 공상업을 합리하게 조절하며 공사관계와 로자관계를 개선하는 면에서도 이미 약간의 공작을 하였으며 지금 이 공작에 계속 큰 힘을 기울이고있다.

중국은 나라가 크고 정황이 매우 복잡하여 혁명이 부분적지구에서 먼저 승리하고 연후에 전국에서 승리하게 된다. 이러한 정황에 상응하여 로해방구(약 1억 6,000만 인구가 있음)에서는 토지개혁이 이미 끝나고 사회질서가 안정되었으며 경제건설사업이 궤도에 들어서고있으며 대다수 로동인민의 생활이 일정하게 개

선되었으며 실업공인과 실업지식분자 문제가 해결되었거나(동북에서) 거의 해결되고있다(화북 및 산동에서). 특히 동북에서는 이미 계획적인 경제건설이 시작되었다. 신히방구(약 3억 1,000만 인구가 있음)는 해방된지가 몇달, 반년 혹은 1년밖에 안되기때문에 편벽한 지방들에 아직 숙청되지 않은 토비가 40여만명이나 널려있으며 아직 토지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있으며 공상업이 합리하게 조절되지 못하고있으며 실업현상이 엄청하게 존재하고있으며 사회질서가 안정되지 못하고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경제건설을 계획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조건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있다. 그러므로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적이 있다. 즉 오늘 재정 수입과 지출이 거의 균형잡히고 통화팽창이 정지되고 물가가 점차 안정되고있는것과 같은, 경제전선에서 이미 달성된 우리의 승리들이 재정경제정황이 호전되기 시작하였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은 하지만 그것이 아직 근본적인 호전은 아니다. 재정경제정황의 근본적인 호전을 가져오자면 세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즉 (1) 토지개혁이 완수되어야 하며, (2) 현유의 공상업이 합리하게 조절되어야 하며, (3) 국가기구에서 쓰는 경비가 대량으로 절약되어야 한다. 이 세가지 조건을 쟁취하자면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할것이다. 대략 3년이란 시일이 걸리거나 혹은 그보다 좀더 걸릴것이다. 전당과 전국 인민들이 세가지 조건을 창조하기 위하여 힘써 분투하여야 한다. 나와 여러 동무들이 다 확신하다싶이 이러한 조건들은 3년좌우의 시일을 들이면 쟁취할 파악이 완전히

있는것이다. 그때에 가면 우리 나라의 전반 재정경제 상황이 근본적인 호전을 가져오게 될것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전당과 전국 인민들은 일치단결 하여 아래의 각항 공작을 잘하여야 한다.

(1) 절차있고 절서있게 토지개혁공작을 진행하여야 한다[3]. 전쟁이 대륙에서 이미 기본적으로 끝나서 1946년부터 1948년까지의 정황(인민해방군이 국민당반동파와 판가리싸움을 하고있었고 아직 승패가 결정되지 않았었다.)과는 완전히 달라졌으니 국가에서 대부금을 주는 방법으로 빈농들의 곤난을 해결해줌으로써 빈농들에게 토지가 좀 적게 차례지게 되는 그 결함을 미봉할수 있다. 그러므로 부농을 대하는 우리의 정책을 개변하여야 한다. 즉 부농의 여유 토지와 재산을 징수하던 정책을 부농경제를 보존하는 정책으로 개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촌의 생산을 하루속히 회복하는데 유리하게 하며 지주를 고립시키고 중농과 소토지소작주를 보호하는데도 유리하게 하여야 한다.

(2) 재정경제공작에 대한 통일적관리와 통일적령도를 공고히 하고 재정 수입과 지출의 균형 및 물가의 안정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 이 방침밑에서 세금을 조절하고 인민의 부담을 적당히 덜어주어야 한다.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고루 돌보는 방침밑에서 경제에 존재하는 맹목성과 무정부상태를 점차 소멸하고 현유의 공상업을 합리하게 조절하며 공사관계와 로자관계를 착실히 타당하게 개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여러가지 사회경제성분이 사회주의성질을 띤 국영경제의 령도

밑에서 분공합작하며 각기 자기의 적당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함으로써 전반 사회경제의 회복과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좀더 일찌기 자본주의를 소멸하고 사회주의를 실시하여도 된다고 여기는데 이러한 사상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그릇된 사상이다.

(3) 인민해방군은 대만, 서장을 해방하는데와 국방을 공고히 하며 반혁명을 진압하는데 필요되는 총족한 력량을 보장하는 조건하에 주력을 보존하면서 1950년에 그 일부를 복원시켜야 한다. 이 복원공작을 신중히 진행하여 복원군인들이 고향에 돌아가 생산에 안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계통에 대한 정돈개편공작도 필요한것인데 역시 개편하고 남은 인원들을 적당히 처리하여 그들에게 공작과 학습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원래의 학교교육사업과 원래의 사회문화사업에 대한 개혁공작을 철차있게 신중히 진행하여야 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지식분자들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책취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서 시일을 끌면서 개혁하지 않으려는 사상도 옳지 못하거니와 너무 성급히 조포한 방법으로 개혁하려는 사상도 옳지 못하다.

(5) 실업공인과 실업지식분자들에 대한 구제공작을 참답게 진행하여야 하며 실업자들의 취업문제를 점차 해결해주어야 한다. 계속 리재민에 대한 구제공작을 참답게 진행하여야 한다.

(6) 진지하게 각계 민주인사들과 단결하고 그들의

공작문제와 학습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하며 통일전선공작에서의 관문주의경향과 융화주의경향을 극복하여야 한다. 각계 인민들을 함께 일하도록 단결시킬수 있는 각계인민대표회의를 잘 열어야 한다. 인민정부의 모든 중요한 공작은 다 인민대표회의에 넘겨 거기서 토론하고 결정짓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대표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에게 충분한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인민대표의 발언을 압제하는 행동은 그 어떤것이나 다 그릇된것이다.

(7) 인민에게 해를 주는 모든 토비, 특무, 악패와 기타 반혁명분자들을 견결히 숙청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진압과 판대처리를 결합시키는 정책, 즉 수악자는 반드시 징벌하고 협종한자는 추궁하지 않으며 공을 세운자는 표창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그중 어느 하나라도 홀시하여서는 안된다. 전당과 전국 인민은 반혁명분자들의 음모활동에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8) 중앙에서 내린, 당의 조직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킬데 관한 지시, 당과 인민군중과의 련계를 강화할데 관한 지시, 비평과 자아비평을 전개할데 관한 지시, 전당적으로 정풍을 진행할데 관한 지시를 견결히 집행하여야 한다. 우리 당이 이미 450만 당원을 가지고있는 정형에 비추어 앞으로는 반드시 당조직을 신중하게 발전시키는 방침을 취하여야 한다. 투기분자가 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견결히 막아야 하며 투기분자들을 적당히 처리하여 당에서 몰아내야 한다. 각성한 공인들을 철차있게 당에 받아들여 당조직의 공인성분을 증가

하기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로해방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농촌에서의 당원흡수를 중지하여야 한다. 신태방구에서는 투기분자들이 기회를 타서 당에 혼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개혁이 끝나기전에는 일반적으로 농촌에서 당조직을 발전시키지 말아야 한다. 전당적으로 1950년 여름, 가을, 겨울 세 계절에 각각 공작임무와 분리시키지 않고 밀접히 결합시키는 조건하에서 대규모의 정풍운동을 한차례 진행하되 약간의 지정된 문건들을 열독하고 공작을 총결하며 정황을 분석하며 비평과 자아비평을 전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부들과 일반당원들의 사상수준과 정치수준을 높이며 공작중에서 범한 착오를 시정하며 공신으로 자처하는 교오자만정서를 극복하며 관료주의와 명령주의를 극복하며 당과 인민간의 관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 주 해

[1] 1950년 2월 14일에 체결된 중소우호동맹조약을 가리킨다.

[2] 1950년에 중앙인민정부에서 발행한 인민승리실물환산공채를 가리킨다.

[3] 1950년 겨울부터 전국의 신태방구들에서 대규모의 토지개혁운동을 독속 전개하였는데 1952년 겨울에 이르러 일부 소수민족지구들 제외하고는 토지개혁을 기본적으로 끝내었다. 전국의 신태방구에서 땅이 없거나 적은 3억좌우의 농민들이 약 7억무의 토지를 분배받았다.

## 사면출격을 하여서는 안된다\*

(1950년 6월 6일)

7기2중전회이래 우리 당이 령도하는 신민주주의혁명  
은 전국적범위에서 승리를 달성하였고 중화인민공화  
국이 창건되었다. 이것은 위대한 승리이며 중국에서 예  
로부터 있어본적이 없는 대승리이며 또한 10월혁명이후  
에 있어서의 세계성을 띤 대승리이다. 쓰말린동지나 많  
은 외국동지들이 다 중국혁명의 승리는 극히 위대하다  
는것을 느끼고있다. 그런데 우리의 허다한 동지들은 이  
투쟁속에 잠겨있었으므로 도리어 그러한 느낌을 가지지  
못하고있다. 중국혁명의 승리가 가지는 위대한 의의에  
대하여 우리는 당내에서와 균중가운데서 계속 광범히  
선전하여야 한다.

위대한 승리를 거둔 형세하에서 우리앞에는 의연  
히 매우 복잡한 투쟁이 나서고있으며 많은 곤난이 가  
로놓여있다.

우리는 이미 북방의 약 1억 6,000만 인구를 가진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제7기중앙위원회 제3차전체  
회의에서 하신 강화의 일부분이다. 이 부분의 강화는 《국가재정  
경제상황의 기본적조건을 위하여 투쟁하자》란 서면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고 보고의 전략사상화 책략사상을 해석하신것이다.



지구에서 토지개혁을 완성하였다. 우리는 이 위대한 성과를 긍정하여야 한다. 우리의 해방전쟁은 주로 이 1억 6,000만 인민에 의거하여 승리하였다. 토지개혁의 승리가 있었기때문에 장개석을 타도하는 승리를 전취할수 있었다. 금년가을이면 우리는 인구가 약 3억 1,000만이나 되는 광대한 지역에서 토지개혁을 시작하여 전체 지주계급을 전복하게 될것이다. 토지개혁에서 우리의 적은 강하고도 많을것이다. 첫째로, 제국주의가 우리를 반대할것이다. 둘째로, 대만과 서장의 반동파가 우리를 반대할것이다. 셋째로, 국민당잔여, 특무, 토비들이 우리를 반대할것이다. 넷째로, 지주계급이 우리를 반대할것이다. 다섯째로, 제국주의가 우리나라에 설립한 교회학교와 종교계내의 반동세력 및 우리가 넘겨받은 국민당문화교육기구내의 반동세력이 우리를 반대할것이다. 이들은 모두가 우리의 적이다. 우리는 이러한 적들과 투쟁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광대한 지역에서 토지개혁을 완성하여야 한다. 이것은 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매우 치렬한 투쟁이다.

이와 동시에 혁명의 승리는 사회경제의 재조직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재조직은 필요한것이기는 하나 당분간 우리에게 무거운 부담도 가져다준다. 사회경제의 재조직과 전쟁이 초래한 공상업의 이러저러한 파괴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불만을 품고있다. 지금 우리와 민족자산계급과의 관계는 매우 긴장하다. 그들은 불안에 싸여있으며 불만이 대단하다. 실업한 지식분자와 실업한 공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불만스러

워하며 그밖에 일부 소수공업자들도 우리에게 대하여 불만스러워하고있다. 대부분 농촌에서는 아직 토지개혁을 실시하지 않은데다가 또 공량을 받아들이므로 농민들도 의견을 가지고있다.

우리의 목전의 총적방침은 무엇인가? 그것은 국민당잔여, 특무, 토비를 숙청하며 지주계급을 전복하며 대만과 서장을 해방하며 제국주의와 끝까지 투쟁하는것이다. 당면한 적들을 고립시키고 타격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들가운데서 우리에게 대하여 불만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옹호하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에 있어서 이것이 비록 곤란한 일이기는 하나 우리는 어쨌든 각종 방법을 다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는 공상업을 합리하게 조절하여 공장들이 생산을 시작하게 하고 취업문제를 해결하며 동시에 20억근의 량식을 내어 실업공인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실업공인들이 우리를 옹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가 감조감식을 실시하며 토비를 숙청하고 악패를 반대하며 토지개혁을 실시하면 광범한 농민들은 우리를 옹호할것이다. 우리는 소수공업자들에게도 출로를 열어주어 그들이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족자산계급에 대하여서는 공상업과 세금의 합리한 조절을 통하여 그들과의 관계를 개선하여야 하며 너무 긴장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지식분자에 대하여서는 각종 훈련반을 꾸리며 군정대학이나 혁명대학을 꾸리며 그들을 사용함과 동시에 그들을 교육하고 개조하여야 한다. 그들이 사회발전사, 역사적유물론 등과 같은 몇

가지 과목을 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그 유심론자들에게 대하여서도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게 할 방법이 있는것이다. 그들은 그들대로 하느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원숭이로부터 사람으로 되었다고 하면 된다. 어떤 지식분자들은 늙었고 70여세가 되었으니 그들이 당과 인민정부를 옹호하기만 하면 그들을 먹여살려야 한다.

전당적으로 통일전선공작을 착실하고 신중하게 잘 하여야 한다. 공인계급의 명도하에 공농련맹을 기초로 하여 소자산계급, 민족자산계급을 단결하여야 한다. 민족자산계급은 장래에 가서는 소멸하겠지만 지금은 그들을 밀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주위에 묶어세워야 한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들과 투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과 단결하여야 한다. 간부들에게 이 도리를 똑똑히 말해주어야 할뿐만아니라 민족자산계급, 민주당파, 민주인사와 지식분자들을 단결하는것이 옳은 일이며 필요한 일이라는것을 사실로써 증명하여주어야 한다. 그들중의 적지 않은 사람들은 과거에는 우리의 적이던것이 오늘 적측으로부터 분화되어 우리측으로 넘어왔다. 단결할 가능성이 다소라도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도 우리는 역시 단결하여야 한다. 그들을 단결하면 로동인민에게 유리하다. 지금 우리는 이런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소수민족을 단결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전국의 소수민족은 약 3,000만에 달한다. 소수민족지구에서의 사회개혁은 중대한 일이므로 신중히 대하여야 한다.

우리는 여하튼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 조급해하면 탈이 생길수 있는것이다. 조건이 성숙되기전에는 개혁을 하여서는 안된다. 한가지 조건이 성숙되었더라도 기타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으면, 역시 중대한 개혁은 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개혁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공동강령의 규정에 의하면 소수민족지구의 풍속습관은 개혁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이런 개혁은 반드시 소수민족이 자체로 해결하게 하여야 한다. 균중조건이 없고 인민의 무장력이 없고 소수민족 자신의 간부가 없는 정황하에서는 그 어떤 균중성을 띤 개혁공작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소수민족자신의 간부를 훈련시켜주어야 하며 소수민족의 광범한 균중들을 단결시켜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는 사면출격을 하여서는 안된다. 사면출격을 하여 온 나라를 긴장하게 만드는것은 매우 좋지 못하다. 우리는 절대로 적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는 안된다. 한 방면에 대하여서는 양보하며 완화시키고 력량을 집중하여 다른 한 방면을 진공하여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공작을 잘하여 공인, 농민, 소수공업자들이 다 우리를 옹호하게 하며 민족자산계급과 지식분자들중의 절대다수가 우리를 반대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국민당잔여, 특무, 토비가 고립되고 지주계급이 고립되고 대만과 서장의 반동파가 고립될것이며 제국주의가 우리 나라 인민들속에서 고립될것이다. 우리의 정책이 바로 이러하며 우리의 전략, 책략 방침이 바로 이러하며 3중전회의 로선이 바로 이러하다.

## 완전한 혁명파로 되자\*

(1950년 6월 23일)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시기의 경험을 총결지었고 각항 방침들을 결정하였다.

경험을 총결지으며 방침을 결정하는 이 공작은 우리들이 다같이 한 것이며 각 민족, 각 민주계급, 각 민주당파, 각 인민단체, 각계 민주인사의 대표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한 것이다. 이 토론에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의 위원들이 참가하였을뿐 아니라 또한 중앙인민정부, 각 대행정구 인민정부(군정위원회)<sup>(1)</sup> 및 각 성, 시 인민정부의 많은 공작인원들도 련석으로 참가하였고 각 성, 시의 각계인민대표회의 협상위원회의 대표들도 련석으로 참가하였으며 특별초청을 받은 많은 애국인사들도 련석으로 참가하였다. 이리하여 우리는 지난날의 공작을 검사하고 금후의 방침을 결정함에 있어서 여러 방면의 의견을 집중시킬수 있었다. 나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 방법을 취하기 바라며 또 각 대행정구 인민정부(군정위원회)와 각 성, 시 인민정부에서도 이 방법을 취하기 바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전국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하신 폐막사이다.

란다. 우리의 회의는 당분간은 건의를 제기하는 성질을 띤 회의이다. 그렇지만 실지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회의에서 지은 결정들은 중앙인민정부에서 물론 채납하고 실시할 것이며 또 마땅히 채납하고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국위원회의 공작보고와 중앙인민정부의 각항 공작보고에 대하여 한결같이 동의하였다. 여기에는 토지개혁공작, 정치공작, 군사공작, 경제 및 재정 공작, 세금징수공작, 문화 및 교육 공작, 법원공작 등에 관한 보고들이 망라되어있는데 이 보고들은 다 훌륭하다. 이 보고들에서는 지난 시기의 공작경험을 적절히 총결짓고 금후의 공작방침을 규정하였다. 우리의 이번 회의에 의제가 이처럼 많게 된것은 우리의 새 국가가 창건된 뒤 여러 면의 공작이 모두 새로 시작되고있고 발전되고있으며 전국 인민들이 각 전선에서 바야흐로 진정한 인민혁명의 위대한 투쟁을, 군사전선에서나 경제전선에서나 사상전선에서나 토지개혁전선에서나 할것없이 예로부터 있어본적이 없는 극히 위대한 투쟁을 즐기차게 전개하고있으며 어느 공작에서나 다 총결을 짓고 방침을 제시할것을 요하기때문이다. 때문에 우리의 의제가 이처럼 많게 된것이다. 우리의 회의는 법적규정에 의하면 해마다 두번씩 열기로 되어있는데 한번은 의제가 많은 회의이고 다른 한번은 의제가 비교적 적은 회의이다. 중국은 실지인구가 4억 7,500만을 초과하는 큰 나라이고 또 인민혁명의 위대한 력사적시기에 처하여있다. 이런 정형이 이렇게 할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있으며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고있다. 나는 우리가 하고있는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번 우리 회의의 많은 의제들가운데서 중심적의제는 원래의 낡은 토지제도를 개혁하는 문제이다. 여러분은 중공중앙에서 제의한 토지개혁법초안〔2〕에 찬동을 표시하였고 또 토지개혁법초안에 대하여 약간의 유익한 수정과 보충을 가하였다. 이것은 매우 잘한것이다. 나는 새 중국의 수억만 농촌인민들이 번신할 기회를 가지게 되고 나라가 공업화의 기본조건을 가지게 되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축하한다. 중국은 주요한 인구가 농민이며 혁명이 농민들의 원조에 의거하여서야 승리할수 있었고 국가의 공업화도 농민들의 원조에 의거하여야만 성공할수 있다. 그러므로 공인계급은 농민의 토지개혁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며 성시소자산계급과 민족자산계급도 이런 개혁을 찬조하여야 하거니와 각 민주당파, 각 인민단체들은 더구나 이러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전쟁과 토지개혁은 신민주주의력사시기에 있어서 전 중국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당파들을 고택하는 두 《고비》이다. 혁명적인민의 편에 서있는 사람은 혁명파이고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의 편에 서있는자는 반혁명파이다. 말로만 혁명적인민의 편에 서있고 행동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로만 혁명하는 구두혁명파이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에서도 혁명적인민의 편에 서있는 사람은 완전한 혁명파이다. 전쟁고비는 이미 기본상 넘었다. 이 고비는 우리모두가 훌륭하게 넘었으며 따라서 전국 인민이 흠

축해하고 있다. 이제는 토지개혁고비를 넘어야 하는데 나는 이 고비도 우리모두가 전쟁고비를 넘을 때처럼 훌륭하게 넘게 되기를 바란다. 모두가 많이 연구하고 토의하여 사상을 타개하고 보조를 맞추어 위대한 반봉건적통일전선을 결성한다면 인민을 령도하며 방조하여 이 고비를 순조롭게 넘을수 있을것이다. 전쟁고비와 토지개혁고비를 넘기만 하면 나머지 한 고비는 쉽게 넘을수 있을것이다. 그 고비란 바로 사회주의고비, 전국적으로 사회주의적개조를 실시하는 고비이다. 오직 혁명전쟁에서와 토지체도의 혁명적개혁에서 공헌이 있고 또 앞으로 다년간 진행될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에서 공헌이 있는 사람이라면 장차 사영공업을 국유화하고 농업을 사회화할 때(이것은 먼 장래의 일이다.)에 가서 인민은 그들을 잊지 않을것이며 그들의 전도는 광명할것이다. 우리 나라는 이렇게 온당한 걸음으로 전진하고 있다. 즉 전쟁을 거쳤고 신민주주의적개혁을 거치고있으며 장차 국가의 경제사업과 문화사업이 크게 흥성되고 여러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지고 전국 인민이 충분히 고려해보고 모두가 동의한 뒤에는 여유있게 그리고 원만하게 사회주의의 새로운 시기에 들어서게 될것이다. 나는 이 점을 똑똑히 말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신심을 가지게 될것이며 어느때 가서 나를 버리게 되겠는지 인민을 위하여 힘을 바치려 하여도 기회가 없을것 같다고 하면서 부질없이 근심하는 일이 없게 될것이다. 아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것이다.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여 힘을 바



치려 하며 인민이 곤란에 직면하고있는 시기에 확실히 도움을 주었고 좋은 일을 하였으며 또한 중도에서 그만두지 않고 일관적으로 그런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인민과 인민정부는 그를 배척할 이유가 없으며 그에게 생활할 기회와 힘을 바칠 기회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원대한 목표를 위하여 우리는 국제적으로는 소련과 각 인민민주국가 및 전 세계의 모든 평화민주력량과 굳게 단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주저하거나 동요하여서는 안된다. 국내적으로는 각 민족, 각 민주계급, 각 민주당파, 각 인민단체 및 모든 애국민주인사들과 단결하여야 하며 우리가 이미 결성한 이 위신있는 위대한 혁명적통일전선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 어떠한 사람이나 이 혁명적통일전선을 공고히 하는 사업에 공헌이 있다면 그것은 옳은 일을 한것이므로 우리는 그를 환영할 것이며 이 혁명적통일전선을 공고히 하는 사업에 손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그릇된 일을 한것이므로 우리는 그를 반대할것이다. 혁명적통일전선을 공고히 하자면 비평과 자아비평의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방법을 취할 때에 준하여야 할 표준은 주로 우리의 오늘의 근본대법, 즉 공동강령이다.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공동강령에 근거하여 비평과 자아비평의 방법을 취하였다. 이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며 진리를 견지하고 착오를 시정하도록 우리를 추동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며 인민국가의 전체 혁명적인민들이 자아교육과 자아개조를 진행하는데 있

어서의 유일정확한 방법이다. 인민민주전정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적에 대하여서는 전정의 방법을 쓴다. 즉 필요한 기간 그들을 정치활동에 참여시키지 않고 인민정부의 법률에 복종하도록 강박하며 그들을 로동에 종사하도록 강박하는 동시에 로동과정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개조하는것이다. 인민에 대하여서는 이와 반대로 강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민주적방법을 쓴다. 즉 반드시 그들을 정치활동에 참여하게 하며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강박하는것이 아니라 민주적방법으로 그들을 교육하며 설복하는 공작을 진행한다. 이런 교육공작은 인민내부에서의 자아교육공작이고 비평과 자아비평의 방법은 바로 자아교육의 기본방법이다. 나는 전국 각 민족, 각 민주계급, 각 민주당파, 각 인민단체와 모든 애국민주인사들이 다 이런 방법을 취하기 바란다.

## 주 해

〔1〕 당시 전국은 동북, 화북, 화동, 중남, 서남, 서북 등 6개 대행정구로 나뉘어있었다. 각 대행정구들에는 중공중앙의 대표기관인 중앙국이 설치되어있었다. 화북을 제외한외의 기타 5개 대행정구에는 대행정구의 행정기구가 설치되어있었는데 동북에서는 인민정부라고 불렀고 화동, 중남, 서남, 서북에서는 군정위원회라고 불렀다. 1952년 11월에 각 대행정구의 행정기구를 일물로 행정위원회라고 고치였으며 화북에도 행정위원회가 성립되었다. 1954년에 각 대행정구의 행정위원회를 철폐하였다.

〔2〕 1950년 6월 14일에 중공중앙에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 전국위원회 제2차회의의 토론에 교부한 《중화인민공화국토지개혁법초안》을 가리킨다. 이 초안은 이 회의에서 토론하고 동의한후 또 중앙인민정부위원회에서 통과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토지개혁법》은 이해 6월 30일에 중앙인민정부 모택동주석께서 공포하시였다.

## 동무들은 전 민족의 모범인물이다

(1950년 9월 25일)

전국전투영웅대표회의 및 전국공농병로동모범대표회의의 대표동지들!

중공중앙은 동무들의 회의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동무들의 공작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동무들은 적을 소멸하는 투쟁에서, 공농업생산을 회복발전시키는 투쟁에서 많은 간난신고를 이겨내었으며 무비의 용감성과 지혜와 적극성을 보여주었다. 동무들은 전체 중화민족의 모범인물이며 각 방면의 인민사업의 승리적전진을 추동하는 골간이며 인민정부의 믿음직한 기둥이며 인민정부가 광범한 군중과 련계하는데 있어서의 교량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전당의 당원들과 전국인민들에게 동무들을 따라배울것을 호소하며 동시에 동무들에게, 친애하는 전체 대표동지들과 전국의 모든 전투영웅, 로동모범동지들에게 계속 전투속에서 학습하며 광범한 인민군중에게서 학습할것을 호소한다. 절대 교오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꾸준히 학습하여야만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중공중앙을 대표하여 전국전투영웅대표회의 및 전국공농병로동모범대표회의에서 하신 축사이다.

앞으로도 위대한 중화인민공화국에 훌륭한 공헌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동무들의 영광스러운 칭호를 계속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반드시 강대한 국방군을 가져야 하며 반드시 강대한 경제력량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두가지 중대한 일이다. 이 두가지 일은 동지들이 인민해방군의 전체 지휘원, 전투원들과 함께 그리고 전국의 공인, 농민 및 기타 인민들과 함께 한결같이 뭉쳐 다같이 노력하여야만 수행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을 기념하는 첫 국경절이 곧 닥쳐오는 이때 동무들이 여기에서 회의를 가지게 된 것은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동무들의 회의의 성공을 축원하며 금후의 공작에서 동무들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기를 축원한다.

## 중국인민지원군에 대한 명령\*

(1950년 10월 8일)

중국인민지원군 각급 령도동지들!

(1) 조선인민의 해방전쟁을 원조하고 미제국주의 및 그 주구들의 진공을 반대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조선인민과 중국인민 및 동방 각국 인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중국인민지원군에게 즉시 조선경내로 출동하여 조선동지들과 함께 침략자와 싸우며 영광스러운 승리를 전취할것을 명령한다.

(2) 우리 중국인민지원군은 조선경내에 들어간 뒤 반드시 조선인민, 조선인민군, 조선민주정부, 조선로동당, 기타 민주당파 그리고 조선인민의 령수 김일성동지에 대하여 우애와 존중을 표시하여야 하며 군사기물과 정치기물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것은 군사임무의 수행을 담보하는데 있어서의 극히 중요한 정치적기초이다.

(3) 봉착할 가능성이 있거나 틀림없이 봉착하게 될 여러가지 난관들을 심각히 예견하고 고도의 열정, 용기, 세심성과 그 어떤 곤난도 견디어내는 억센 정신으로

---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중국인민지원군에 '내리신 명령의 절록이다.

이런 난관들을 이겨낼 준비를 하여야 한다. 목전의 총적 국제형세와 국내형세는 우리에게 유리하고 침략자에게 불리하다. 동지들이 견결하고 용감하며 당지 인민들과 잘 단결하고 침략자와 잘 싸우기만 한다면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속할것이다.

중국인민혁명군사위원회 주석 모택동

1950년 10월 8일 북경에서

## 중국인민지원군은 조선의 일산일수, 일초일목을 애호하여야 한다

(1951년 1월 19일)

중조 두 나라 동지들은 친형제처럼 단결하여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공동의 적을 전승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야 한다. 중국동지들은 우리가 국내에서 인식하고 실천하여오던것처럼 조선의 일을 자기 일처럼 간주하여야 하며 조선의 일산일수, 일초일목을 애호하며 조선인민의 바늘 하나, 실 한오리도 다치지 않도록 지휘원과 전투원들을 교육하여야 한다. 이것은 승리를 위한 정치적기초이다. 이렇게 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최후의 승리를 달성하게 될것이다.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중국인민지원군에 내리신 지시이다.

# 중공중앙 정치국확대회의의 결의요점\*

(1951년 2월 18일)

중앙에서는 2월중순에 각 중앙국 책임동지들이 참석한 정치국회의를 소집하고 여러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토론하였는데 이에 결의요점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 1. 22개월간의 준비공작

《3년간 준비하여 10년간 계획적경제건설을 한다》는 사상을 성, 시급이상 간부들이 모두다 알도록 하여야 한다. 준비기간은 지금부터 아직 22개월이 남아있는데 여러 면으로 공작을 다그쳐야 한다.

## 2. 항미원조에 관한 선전교육운동

전국적범위에서 이 운동을 계속 전개하되 이미 전개하고있는 곳에서는 더 심입시키고 아직 전개하지 않고있는 곳에서는 보급시킴으로써 전국적으로 어더서나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중공중앙을 위하여 기초하신 당내통보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교육을 꼭 받도록 하여야 한다.

### 3. 토지개혁

1. 농망기에는 일몰로 중지하고 경험을 총결하여야 한다.

2. 올해 풍작을 이루도록 힘써야 한다.

3. 현 농민대표회의 및 훈련반에 의거하여야 한다.

4. 적극적으로 조건을 창조하여야 한다.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면 어느때 어느곳에서든지 억지로 하여서는 안된다.

5. 토지개혁이 완성되면 즉시 생산과 교육, 이 2대사업으로 넘어가야 한다.

6. 몇기로 나누어 소작보증금을 되돌리게 하고있는 화동의 방법에 동의한다.

7. 육체적형벌을 가하지 않는것이 유리하다는것을 농민들에게 설득시켜야 한다.

8. 토지개혁후에는 구, 향을 증설하여 구, 향의 행정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 4. 반혁명진압

1. 사형에 처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균중을 거쳐야 하며 또 민주인사들도 참여하여 듣게 하여야 한다.

2. 엄밀히 통제하여 함부로 하거나 잘못하지 않도록

록 하여야 한다.

3. 《중중》<sup>[1]</sup>에 주의를 돌려 유용인원과 새로 받아들인 지식분자들중의 숨어있는 반혁명분자들을 신중하게 청리하여야 한다.

4. 《내중》에 주의를 돌려 당내에 기여든 반혁명분자들을 신중하게 청리하며 보밀공작을 충분히 강화하여야 한다.

5. 그리고 간부들을 교육하는 동시에 그들을 지지 해주어야 한다.

## 5. 성 시 공 작

1. 각 중앙국과 분국 및 성, 시, 구 당위들에서는 금년에 성시공작회의를 두번 소집하되 의정은 중앙에서 통지한대로 하며 중앙에 전문적인 보고를 두번 하여야 한다.

2. 성시공작에 대한 당위의 정도를 강화하며 7기 2중전회의의 결의를 실행하여야 한다.

3. 간부들을 교육하여 공인계급에 의거한다는 사상을 똑똑히 수립하게 하여야 한다.

4. 공장에서는 생산계획의 실현을 중심으로 당, 행정, 공회, 청년단의 통일적령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생산의 증가에 기초하여 공인들의 생활을 점차 개선하도록 힘써야 한다.

6. 성시건설계획에는 생산을 위하여, 공인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관점이 관철되어야 한다.

7. 전국총공회 및 각 상급공회들에서는 하부의 구체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치중하여야 한다.

8. 당위와 공회에서는 전형적경험을 창조하는데 중시를 돌려며 그 경험을 각지에 신속히 보급시켜야 한다.

## 6. 정당과 전당

1. 우리의 당은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정확하다. 이것은 주되는 면으로서 반드시 긍정하여야 하며 각급 간부들에게 똑똑히 말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도 존재하므로 반드시 정돈하여야 하며 신해방구의 전당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이 면에 대하여서도 똑똑히 말해주어야 한다.

2. 정당, 전당에 대하여서는 중앙과 각 중앙국에서 엄격히 통제하여야 하며 아래에서 제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

3. 정당은 3년동안에 끝내야 한다. 그 절차는 1년 동안(1951년)에 공산당원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교육을 보편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모든 당원들이 공산당원의 표준을 알게 하여야 하며 또 조직공작인원들을 훈련하여야 한다. 동시에 전형을 골라서 시험해보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 경험에 비추어 정당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성시에서는 1951년에 정당을 할수 있다. 정당에서는 우선 《제4부류의 사람》[2]들을 축출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제2부류의 사람》과 《제3부류의 사람》에 대하여 구분하고 그중에서 교육을 거

친 다음에도 확실히 당원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은 퇴당하도록 권고하되 어디까지나 그들이 자원적으로 나가도록 하여야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돌을 들어낸다》〔3〕던 1948년의 경험을 되풀이하여서는 안된다.

4. 성시 및 신해방구의 건당에 있어서는 신중히 하는 방침을 취하여야 한다. 성시에서는 산업공인들속에서 당조직을 건립하는데 치중하여야 한다. 농촌에서는 토지개혁이 끝난 뒤에 가서 교육을 거쳐 당원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을 받아들여 당의 지부를 건립하여야 하며 첫 두해동안에는 일반적으로 농촌지부의 당원이 10명을 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성시에서나 농촌에서나 할것없이 당의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적극분자들에게 공산당원으로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교육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런 교육을 거친후 그중 확실히 당원조건에 부합되는 사람들을 당에 받아들여야 한다.

## 7. 통일전선공작

1. 각 중앙국과 분국 및 성, 시, 구 당위들에서는 1951년에 회의를 두번 소집하여 통일전선공작을 토론하고 중앙에 두번 이 방면에 관한 전문적인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간부들에게 어째서 통일전선공작을 강화하여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똑똑히 말해주어야 한다.

3. 지식분자, 공상업가, 종교가, 민주당파, 민주

인사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기초우에서 그들을 단결하며 교육하여야 한다.

4. 각 소수민족들속에서의 공작을 참답게 하여야 하는데 그 중심공작으로 되는것은 구역자치를 실시하는것과 소수민족자신의 간부를 훈련하는 이 두가지이다.

## 8. 정 풍

한해에 한번씩 겨울에 진행하되 시간은 짧아야 하며 임무는 공작을 검사하고 공작경험을 총결하여 성적을 발양하고 결함과 착오를 시정하며 그로써 간부를 교육하는것이다.

## 주 해

[1] 반혁명진압공작에서는 외층, 중층, 내층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외층》을 청리한다는것은 사회에 숨어있는 반혁명분자를 사출하는것을 가리키며 《중층》을 청리한다는것은 우리의 군정기관내부에 숨어있는 반혁명분자를 사출하는것을 가리키며 《내층》을 청리한다는것은 우리 당내에 숨어있는 반혁명분자를 사출하는것을 가리킨다.

[2] 1951년의 정당에서는 당원을 다음과 같은 네 부류로 구분하였다. 1. 당원조건을 구비한자, 2. 당원조건을 완전히는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비교적 엄중한 결함이 있어 개조하고 제고하지 않으면 안될자, 3. 당원조건을 갖추지 못한 소극적이고 락후한 분자, 4. 당내에 혼입한 계급이기분자, 변질분자, 무기분자, 퇴화변질분자 등.

[3] 《들을 들어낸다》는것은 1948년에 해방구에서 토지개혁과 정당을 할 때 류소기가 제기한것이다. 그는 광범한 농촌간부들을 농민의 머리를 깎아주는 《들》이라 중상하고 그들을 철적시키거나 숙청하려 하였다.

## 반혁명진압에 있어서 반드시 당의 군중로선을 실행하여야 한다\*

(1951년 5월)

(1) 지금 전국적으로 진행되고있는 반혁명진압운동은 위대하고 치렬하고 복잡한 투쟁이다. 전국 각지에서 실행되고있는 효과적인 공작로선은 당의 군중로선이다. 그것은 즉 당위가 명도하며 전당이 동원되고 군중이 동원되며 각 민주당파 및 각계 인사들을 참가시키며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통일적으로 행동하며 체포할자와 사형할자의 명단을 엄격히 심사하며 매개 시기의 투쟁책략에 주의를 돌리며 선전교육공작을 광범히 진행하며(각종 대표회의, 간부회의, 좌담회, 군중회의를 열고 회의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소하게 하며 죄증을 전시하며 영화, 환등, 극, 신문, 소책자, 뼈라 등을 통하여 선전을 진행함으로써 집집마다, 사람마다 다 알게 한다.) 관문주의와 신비주의를 타파하며 경솔히 처리하는 편향을 견결히 반대하는 것이다. 완전히 이 로선대로 하면 완전히 정확한 것이다. 이 로선대로 하지 않으면 잘못이다. 대체적으로만 이 로선대로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제3차전국공안회의의 결의를 수정하실 때 써넣으신 몇단락의 지시들이다.

하고 완전히는 이 로선대로 하지 않으면 대체적으로만 정확하고 완전히는 정확하지 못한것이다. 이 공작로선은 반혁명진압공작을 계속 심입시키며 원만한 승리를 취득할수 있게 하는 담보라고 우리는 인정한다. 앞으로 반혁명진압공작은 완전히 이 공작로선대로 하여야 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것은 체포할자와 사형할자의 명단을 엄격히 심사하며 선전교육을 광범히 하는것이다. 이 두가지를 잘하기만 하면 착오를 범하지 않을수 있다.

(2) 사형하는 반혁명분자의 수효는 반드시 일정한 비율로 한정하여야 한다.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혈채가 있거나 기타의 가장 엄중한 죄가 있어서 죽이지 않고서는 민분을 풀어줄수 없는자와 국가리익을 가장 엄중하게 해친자에 대하여서는 전결히 사형으로 판결하고 즉시 집행하여야 한다. 혈채가 없고 민분이 크지 않으며 국가리익을 엄중히 해쳤으나 가장 엄중한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은자로서 그 죄로 보아 사형에 처하여야 할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유예하여 강제로동을 시키면서 그 표현을 보는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이밖에 또 체포하여도 되고 체포하지 않아도 될자는 절대 체포하지 말아야 하고 체포하면 착오를 범한다는것과 죽여도 되고 죽이지 않아도 될자는 절대 죽이지 말아야 하고 죽이면 착오를 범한다는것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3) 반혁명진압운동의 고조속에서 《좌》적편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6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지방에서,

지금까지 사형에 처한 수효가 극히 적은 지방을 포함하여, 체포비준권은 일률로 지위, 전원공서급에서 회수하며 사형비준권은 일률로 성급에서 회수하고 성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곳은 성급에서 대표를 파견하여 처리하기로 결정한다. 어떠한 지방에서든지 이 결정을 개변시킬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4) 《중총》과 《내총》의 반혁명분자에 대하여서는 지금부터 계획적으로 사출하여야 한다. 류용인원과 새로 받아들인 지식분자들에 대하여 중앙의 지시에 좇아 금년 여름과 가을 두 계절에 정풍의 방식으로 보편적이고 초보적인 심사를하기로 결정한다. 그 목적은 정황을 똑똑히 알아내며 가장 돌출한 문제들을 처리하려는데 있다. 그 방법은 반혁명진압운동에 관계되는 문건들을 학습시키고 류용인원과 새로 받아들인 지식분자들에게 문제있는 사람(모든 사람이 아니다.)은 성실한 태도로 자기 역사를 똑똑히 말하며 숨기고있는 문제를 탄백하도록 호소하는것이다. 이런 탄백운동은 반드시 수장이 책임지고 장악하며 자원의 원칙을 취하여야 하고 강박하지 못한다. 매개 단위에서는 오래 끌지 말고 시일을 짧게 하여야 한다. 그 책략은 다수를 쟁취하고 소수를 고립시킴으로써 겨울에 가서 가일층 사출하는것이다. 수뇌기관, 공안기관 및 기타 요해부문들에서 먼저 심사하여야 하며 거기서 경험을 쌓아 보급시켜야 한다. 정부계통, 학교, 공장들에서 이러한 심사공작을 진행할 때에는 당외인사를 심사공작의 위원회에 참가시켜야 하며 공산당원이 고립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전국 각지에서는 반혁명을 진압하는 이 위대한 투쟁과정에 군중의 치안보위위원회를 보편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이 위원회는 농촌에서는 향을 단위로, 성시에서는 기관, 학교, 공장, 가도를 단위로 인민의 선거를 통하여 조직되어야 한다. 위원수는 최저 3명, 최고 11명으로 하되 믿음직한 당외애국분자를 흡수하여 통일전선적인 치안보위조직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이 위원회는 기층정부와 공안기관의 평도를 받으며 인민정부를 협조하여 반혁명을 숙청하며 간세와 간첩을 방지하며 국가와 공중치안을 보위할 책임을 진다. 나쁜 사람이 틈을 타서 혼입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위원회는 농촌에서는 토지개혁이 끝난후에, 성시에서는 반혁명진압공작이 전개된후에 일정한 평도하에서 조직하여야 한다.

# 반혁명진압에 있어서는 온당하게, 면바로, 호되게 쳐야 한다\*

(1950년 12월—1951년 9월)

## 1

반혁명분자를 진압함에 있어서 온당하게, 면바로, 호되게 치도록 주의하기 바란다.

(1950년 12월 19일)

## 2

호남성서부의 21개 현에서 약간의 토비두목, 악패, 특무들을 사형하였는데 금년에 지방에서 또 얼마간 사형할 예정이다. 나는 이러한 처단은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적의 기업을 꺾을 수 있고 인민의 사기를 크게 북돋울 수 있다. 만일 우리가 결단성이 없이 그저 무원칙하게 그자들을 방임한다면 인민에게 화를 끼치게 될 것이며 군중을 탈리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중공중앙을 위하여 기초하신 반혁명진압 운동에 관한 일부분의 중요한 지시들이다.

하게 될 것이다.

이른바 온당하게 친다는것은 책략에 주의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면바로 친다는것은 잘못 죽이지 말아야 한다는것이다. 호되게 친다는것은 죽여야 할 모든 반동분자들을 단호히 사형하여야 한다는것이다(죽이지 말아야 할자는 물론 죽이지 않는다). 우리가 잘못 죽이지만 않는다면 자산계급이 아무리 떠들어대여도 무서울것 없다.

(1951년 1월 17일)

### 3

산동성의 일부 지방에는 기세가 높지 못한 편향이 존재하고 일부 지방에는 경솔하게 처리하는 편향이 존재한다. 이것은 대체로 전국 각 성, 시에 다 존재하는 두가지 편향인바 그 시정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특히 경솔하게 처리하는 편향이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기세가 높지 못한것은 설복교육을 하면 여하튼 기세가 높아질수 있는것이고 또 반혁명분자를 며칠 일찌기 죽이거나 며칠 늦게 죽여서는 별로 큰 문제가 없지만 경솔하게 처리하여 사람을 잘못 체포하거나 잘못 죽이기만 하면 영향이 대단히 나쁘기때문이다. 반혁명진압공작에 대하여 엄격히 장악함으로써 반드시 신중하게 처리하며 일체 경솔하게 처리하는 편향을 반드시 시정하기 바란다. 우리는 모든 반혁명분자를 반드시 진압하여야 하지만 절대로 잘못 체포하거나 잘못 사형하여서

는 안된다.

(1951년 3월 30일)

## 4

중앙에서는 공산당내에서, 인민해방군내에서, 인민정부계통내에서, 교육계에서, 공상계에서, 종교계에서, 각 민주당파 및 각 인민단체내에서 사출해낸 반혁명분자들에 대하여서는 그중 죽을죄까지는 짓지 않아서 유기도형 혹은 무기도형에 처하여야 하거나 관제감시하여야 할자를 제한의에 무릇 죽여야 할자도 혈체가 있는자 그리고 많은 부녀를 강간하였거나 많은 재물을 약탈한것과 같은 군중의 분개를 일으키는 기타의 엄중한 죄행이 있는자 및 국가의 리익을 가장 엄중하게 해친자들만을 사형하고 그 나머지는 일률로 사형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유예하여 집행유예기간에 강제로동을 시키면서 그 표현을 보는 정책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정책은 착오를 범하지 않게 할수 있는 신중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광범한 사회인사들의 찬동을 받을수 있다. 이 정책은 반혁명세력을 분화시킬수 있어 반혁명을 철저히 소멸하는데 유리하다. 이 정책은 또 대량의 노동력을 보존하게 되므로 국가의 건설사업에 유리하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정책이다. 집작컨대 상술한 당, 정부, 군대, 교육계, 공상계, 인민단체 등 각계에서 사출해낸 죽여야 할 반혁명분자들중 혈체가 있거나 또는 군중의 분개를 일으키는 기타 죄행이 있거나 또

는 국가의 리익을 가장 엄중하게 해치는 극소수로서 대략 10~20%에 불과할것이고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할자가 아마 80~90%를 차지할것이다. 그러니 죽을죄를 지은자들중 80~90%는 죽이지 않고 남겨둘 수 있다. 그들은 농촌의 비적두목, 상습비적, 악패와는 다르며 또 성시의 악패, 비적두목, 상습비적, 대류망두목 및 회도문의 대두령과도 다르며 국가의 리익을 가장 엄중하게 해친 특무들과도 다르다. 죽 군중들의 커다란 분개를 일으키는 혈채나 기타의 엄중한 죄행이 없다. 그들이 국가의 리익을 해친 정도가 엄중하기는 하지만 가장 엄중한것은 아니다. 그들은 죽을죄를 지었지만 군중들이 직접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만일 우리가 이런자들을 사형한다면 군중들이 잘 리해하지 못할것이고 사회인사들이 그리 찬동하지 않을것이며 또 술한 로동력을 잃게 될것이고 적들을 분화시키는 작용도 일으키지 못하게 될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에서 착오를 범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므로 중앙에서는 이런자들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하여 강제로동을 시키면서 그 표현을 보는 정책을 취하기로 결정한것이다. 만일 이런자들중에서 개조하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하는자가 있다면 그때에 가서 여전히 죽일수도 있는것으로서 주동권은 우리 손에 장악되어있다. 각지의 당, 정부, 군대, 교육계, 공상계, 인민단체내에서 사출해낸 반혁명분자들에 대하여 각지에서는 상술한 원칙에 좇아 처리하기 바란다. 그중 사형을 집행하여야 할 극소수(대략 죽을죄를

지은 분자중의 10~20%를 차지한다.)에 대하여서는 신중성을 기하여 일률로 대행정구 또는 대군구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통일전선에 관계되는 중요한 분자에 대하여서는 중앙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밖에 농촌중의 반혁명분자에 대하여서도 죽이지 않으면 민분을 풀어줄수 없는자들만 죽이고 인민들이 죽일것을 요구하지 않는자는 일률로 죽이지 말아야 한다. 그중의 어떤 분자들에 대하여서는 역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하는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인민들이 죽일것을 요구하는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며 그리하여 민분을 풀어줌으로써 생산에 리롭게 하여야 한다.

(1951년 5월 8일)

## 5

《집행유예 2년》이라는 정책을·혈책이 있거나 기타 엄중한 죄행이 있어 인민들이 사형할것을 요구하는 범 죄자에 대해서도 사형하지 않는다는것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된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죄악이 극히 엄중하고 민분이 아주 커서 죽이지 않고서는 민분을 풀어줄수 없는자는 반드시 사형하여 민분을 풀어주어야 하며 민분이 크지 않고 인민들이 사형할것을 요구하지 않으나 죽을죄를 지은 그런자들에 한해서만 사형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유예하여 강제노동을 시키면서 그 표현을 본다는것을 구, 촌 간부와 인민

군중들에게 똑똑히 설명 해주어야 한다.

(1951년 6월 15일)

## 6

전반 반혁명진압공작은 반드시 각급 당위의 통일적  
령도하에 두어야 하며 공안기관과 반혁명진압에 관계  
되는 기관의 모든 책임동지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당  
위의 령도를 견결히 접수하여야 한다.

(1951년 9월 10일)

## 영화 《무훈전》에 대한 토론을 중시하여야 한다\*

(1951년 5월 20일)

《무훈전》에 의하여 제기되고있는 문제는 근본적 성질을 띠고있다. 무훈 같은 인간은 청조말엽 중국인민이 외국침략자와 국내의 반동적봉건통치자를 반대하여 싸우고있는 그런 위대한 투쟁의 시대에 처하여있으면서도 봉건적경제기초 및 그 상층건축에 대하여서는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도리어 봉건적문화를 열광적으로 선전하며 나아가서는 봉건적문화를 선전하기 위한, 자기에겐 없는 지위를 얻으려고 반동적인 봉건통치자들앞에서 굽실거리며 온갖 비굴한것을 다 하였는데 그래 이런 추악한 행위를 우리가 찬미하여야 한단 말인가? 인민군중앞에서 이런 추악한 행위를 찬미하며 그것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였다》는 혁명적기발까지 내걸고 찬미하며 심지어 혁명적농민투쟁의 실패를 대조시키기까지 하면서 찬미하는것을 그래 우리가 용인할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찬미하는것을 시인하거나 용인하는것은 농민혁명투쟁을 모독하고 중국력사를 모독하고

- 
-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인민일보》를 위하여 쓰신 사론의 절록이다.



중국민족을 모욕하는 반동적선전을 정당한 선전으로 시인하거나 용인하는것과 같다.

영화 《무훈전》이 나오게 된것, 특히 무훈과 영화 《무훈전》에 대한 찬미가 이렇게까지 많다는것은 우리나라 문화계의 사상이 얼마나 혼란에 빠지고있는가 하는것을 말하여준다!

많은 필자들은 력사의 발전이란 새 사물에 의하여 낡은 사물이 교체되는것이 아니라 온갖 노력을 다하여 낡은 사물을 사멸되지 않도록 보전하는것이며 뒤엎어야 할 반동적인 봉건통치자를 계급투쟁으로 뒤엎는것이 아니라 무훈처럼 피압박인민들의 계급투쟁을 부인하고 반동적인 봉건통치자에게 투항하는것이라고 인정한다. 우리의 필자들은 지난날의 력사에서 중국인민을 압박한 원수들이 어떤자들이며 이러한 원수앞에 투항하고 그들을 위하여 복무한자들에게 도대체 찬양할 만한 점이 있는가 하는것을 연구하지 않는다. 우리의 필자들은 또한 1840년 아편전쟁이래의 100여년동안 중국에서 낡은 사회경제형태 및 그 상층건축(정치, 문화 등등)에 대하여 투쟁하는 어떠한 새로운 사회경제형태, 새로운 계급력량,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사상들이 나타났는가 하는것을 연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런것들을 연구하지도 않고서 어떤것을 찬양 또는 찬미하여야 하고 어떤것을 찬양 또는 찬미하지 말아야 하며 어떤것을 반대하여야 하는가를 결정하려고 한다.

특히 주목하여야 할것은 맑스주의를 습득하였다고 자처하는 일부 공산당원들이다. 그들은 사회발전사——

역사적유물론을 배우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인 역사적사건, 구체적인 역사적인물(폐컨대 무훈), 구체적인 반역사적사상(폐컨대 영화 《무훈전》 및 무훈에 관한 기타 저작들)에 부딪치면 그만 비판능력을 잃어버리며 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반동사상에 투항하기까지 한다. 자산계급의 반동사상이 전투적인 공산당에 침입하였다는 이것이 그래 사실이 아니란 말인가? 일부 공산당원들이 제딴에는 습득하였다고 하는 그 맑스주의가 대체 어디로 갔는가?

상술한 여러가지 원인때문에 영화 《무훈전》 및 무훈과 관계되는 기타 저작들과 론문들에 대한 토론을 전개함으로써 이 문제에서의 혼란한 사상을 철저히 숙청하여야 한다.

## 3대운동의 위대한 승리\*

(1951년 10월 23일)

위원 여러분, 여러 동지들!

우리의 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 전국위원회 제3차 회의를 이제부터 시작한다. 이 회의에는 전국위원회의 위원들이 출석한외에 초청에 의하여 중국인민지원군, 인민해방군, 공업로동모범, 농업로동모범, 로근거지의 대표, 교육공작자, 문예공작자, 공상업가, 각종 전문가, 종교계, 소수민족, 화교, 부녀, 청년, 성 또는 시 협상위원회 및 기타 방면의 대표인물들이 련석하였으며 많은 정부공작인원들도 련석하였다. 이번 회의에 출석 또는 련석한 사람들속에는 인민들이 공인하는 많은 전투영웅, 로동모범, 모범공작자들이 있다. 이번 우리 회의의 이러한 규모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여러 전선에서 거대한 성과와 진보를 가져왔다는것을 충분히 보여주고있다.

지난 한해동안에 우리 나라에서는 항미원조, 토지개혁, 반혁명진압의 세가지 대규모적인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대륙에 남아있는 반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 전국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하신 개회사이다.

혁명잔재는 멀지 않아 기본상 숙청될 것이다. 토지개혁은 소수민족이 살고있는 일부 지구를 제한외에는 1952년에 전부 완성될 것이다. 전 중국 인민은 항미원조운동중에서 전례없이 광범하게 단결되어 미제국주의침략세력에 대하여 전결한 투쟁을 진행하였다. 중국인민의 위대한 뜻을 대표하는 중국인민지원군은 조선인민군과 더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강점하고 나아가서 중국대륙에 침입하려는 미제국주의의 망령된 계획을 짓부셨으며 그리하여 조선, 중국, 아세아 및 전 세계의 평화애호인민들을 고무하였으며 평화를 보위하고 침략을 물리칠수 있다는 그들의 신심을 북돋아주었다. 우리는 영웅한 중국인민지원군과 조선인민군에게 축하와 경의를 드려야 한다!

상술한 3대운동에서 거둔 승리로 하여, 각급 인민정부와 각계 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으로 하여 우리나라는 전례없는 통일이 실현되었다. 서장문제는 이미 평화적방법에 의하여 해결되었다. 국방력은 이미 증강되었다. 인민민주전정은 이미 공고히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금융과 물가는 계속 안정상태를 유지하고있으며 우리의 경제건설사업과 문화교육사업의 회복발전공작도 한걸음 크게 전진하였다.

공업 및 농업 전선에서 발전되고있는 애국증산운동은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새 기상이다. 농촌에서 토지개혁이 실현되고 공장, 기업에서 민주개혁이 실현된 뒤에는 공인과 농민들이 애국증산의 적극성을 크게 높이며 자기들의 물질생활과 문화생활을 개선할 가

능성을 가지게 될것이다. 오직 우리가 공인, 농민과 잘 단결하고 그들을 잘 교육하고 그들에게 잘 의거한다면 우리 나라에는 틀림없이 보편적으로 앙양된 애국증산운동이 나타나게 될것이다.

우리 나라의 문화교육전선과 온갖 지식분자들속에서는 종양인민정부의 방침에 따라 자아교육 및 자아개조 운동이 널리 전개되고있는데 이것 역시 우리 나라의 경사스러운 새 기상이다. 전국위원회 제2차회의가 폐막될 때 나는 비평과 자아비평의 방법으로 자아교육 및 자아개조를 진행할데 관한 건의를 제출하였었다. 오늘 이 건의는 이미 점차 현실로 변하고있다. 사상개조, 무엇보다도 온갖 지식분자들의 사상개조는 우리나라의 각 방면에서 민주개혁을 철저히 실현하며 공업화를 점차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아교육 및 자아개조 운동이 온건하게 전진하면서 더욱 큰 성과를 가져오기를 축원한다.

모든 사실이 증명하다싶이 우리의 인민민주전정의 제도는 자본주의나라의 정치제도에 비하여 거대한 우월성을 가지고있다. 이 제도의 기초우에서 우리 나라 인민은 무궁무진한 힘을 발휘할수 있는것이다. 이러한 힘은 그 어떠한 적들도 전승할수 없는것이다.

항미원조의 위대한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있으며 반드시 미국정부가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할 그때까지 계속되어야 할것이다. 우리는 그 어떠한 나라도 침범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만 우리 나라에 대한 제국

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할뿐이다. 미국군대가 우리 나라의 대만을 강점하지 않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침략하지 않았고 우리 나라의 동북변경에까지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중국인민이 미국군대와 싸우지 않았으리라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그러나 미국침략자가 이미 우리를 향하여 진공한 이상 우리는 반침략의 기치를 들지 않을수 없다. 이것은 전적으로 필요한것이고 또 완전히 정의적인것이다. 전국 인민은 이 필요성과 정의성을 다 알고있다. 필요하고 정의적인 이 투쟁을 계속 견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항미원조공작을 계속 강화하여야 하며 생산을 증가하고 절약을 려행하여야 하며 그리하여 중국인민지원군을 지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중국인민의 오늘의 중심임무이며 따라서 이번 우리 회의의 중심임무이기도 하다.

조선문제는 응당 평화적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일찍 표시한바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표시한다. 미국정부가 더는 과거처럼 갖은 비렬한 수단으로 담판의 진척을 파괴 또는 저애하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초우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조선의 정전담판은 성공될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성공될수 없을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후 2년동안에 우리는 각 방면의 공작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승리는 우리가 단결할수 있는 모든 력량에 의거함으로써 달성한것이다. 국내적으로 우리는 공인계급과 공산당의 령도하에서의 각 민족, 각 민주계급, 각 민주

당파, 각 인민단체 그리고 모든 애국민주인사들의 튼튼한 단결에 의거하였다. 국제적으로 우리는 쏘련을 위수로 하는 평화민주진영의 튼튼한 단결과 세계 각국의 평화애호인민들의 깊은 동정에 의거하였다. 이렇게 하였기때문에 우리는 각 방면의 공작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적들이 예견하지 못하였던것이다. 우리의 적들은 방금 창건된 중화인민공화국앞에는 곤난이 첩첩하므로 이제 저들이 침략전쟁으로 우리를 반대하기만 하면 우리가 곤난을 극복할수 없고 침략자를 반격할수 없으리라고 생각하였던것이다. 적들의 상상외로 우리는 자기의 곤난을 극복하였고 침략자에게 반격을 가하였으며 또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우리의 적들은 근시안이여서 우리의 이러한 국내국제적으로 되는 위대한 단결의 힘을 보지 못하며 외국제국주의가 중국인민을 모욕하던 시대는 이미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으로 하여 영원히 종말을 고하였다는것을 보지 못한다. 그들은 또한 제국주의의 세계제패의 시대는 사회주의쏘련의 창건으로 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으로 하여, 여러 인민민주국가의 창건으로 하여, 우호호조동맹조약에 기초한 위대한 중쏘두 나라의 튼튼한 단결로 하여, 전체 평화민주진영의 튼튼한 단결과 이 위대한 진영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광범한 평화적인민들의 깊은 동정으로 하여 영원히 종말을 고하였다는것을 보지 못한다. 우리의 적들은 이런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중화인민공화국을 침해하려고 하며 세계를 제패하려고 한다. 그러나 동지들, 여기서

나는 단언한다. 그들의 이런 생각은 망녕된 것이며 부질없는 것이며 목적을 달성할수 없는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중화인민공화국은 침해하지 못하며 쏘련을 위수로 하는 위대한 평화진영은 침범하지 못하며 전 세계 평화적인민들은 기만하지 못한다. 동지들, 쏘련의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이 승리한 그때로부터 세계에서 인민이 승리할 국면은 확정적인것으로 되었으며 오늘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과 여러 인민민주국가의 창건으로 하여 이 국면은 발전되고 공고화되었다. 하기는 제1차 세계대전과 로씨야10월혁명 이후의 력사시기에 독일, 이태리, 일본 세 제국주의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려 시도한 사실이 발생하였었는데 이 사실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많은 인민민주국가들이 아직 창건되기전에 발생하였던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그래 이 세 제국주의나라의 시도가 망녕된것이고 부질없는것이라는것이 증명되지 않았는가? 그때 그들의 념원과와는 정반대로 제패를 꿈꾸던 제국주의가 도리어 라도당하는 결과를 보지 않았는가? 지금의 국면은 완전히 달라졌다. 위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되었으며 많은 인민민주국가들이 창건되었으며 세계인민의 각성정도가 높아졌으며 전반 아세아와 북아프리카에서 민족해방투쟁이 발랄히 일어나고있으며 전반 제국주의체계의 력량이 매우 약화되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극히 중요한것은 우리의 가장 친밀한 동맹국인 쏘련의 력량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때에 또 지난날 독일, 이태리, 일본 세 나라 침략자들이 걸은 옛길을 다시 걸으



려는 제국주의나라가 있다면 그 결과는 완전히 상상할 수 있는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총괄한다면 금후의 세계는 절대로 더는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이 제멋대로 횡행하는 세계가 아니라 반드시 인민의 세계로 되어야 하며 세계 각국은 반드시 각국 인민자신이 자신을 관리하게 되어야 한다. 나는 우리 나라 인민들에게 우리자신이 잘 일치단결하며 또 우리의 동맹국인 소련과 잘 일치단결하며 모든 인민민주국가들과 잘 일치단결하며 우리를 동정하는 세계의 모든 민족 및 인민들과 잘 일치단결하여 반침략투쟁의 승리를 향하여, 위대한 우리 나라 건설의 승리를 향하여, 항구한 세계평화 보위의 승리를 향하여 계속 전진할것을 희망한다. 동지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승리는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속할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 《3반》, 《5반》 투쟁에 관하여\*

(1951년 11월—1952년 3월)

### 1

탐오를 반대하고 랑비를 반대하는것은 전당적인 중대한 일이므로 우리는 이 일에 커다란 주의를 돌리라고 이미 동무들에게 말한바 있다. 우리는 한차례 전당적으로 대청리를 진행함으로써 일체 대, 중, 소 탐오사건들을 철저히 폭로할 필요가 있다. 그러되 치중하여 대 탐오범을 타격하고 중, 소 탐오범에 대하여서는 다시 범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개조하는 방침을 취하여야 한다. 그래야 많은 당원들이 자산계급에게 부식당하는 극히 위험한 현상을 제지할수 있으며 7기2중전회에서 일찍 예측하였던 그런 정형들을 극복하며 부식을 방지할데 대한 7기2중전회의 방침을 실현할수 있다. 부더 이에 주의를 돌리기 바란다.

(1951년 11월 30일)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중공중앙을 위하여 기초하신 중요한 지시들이다.

## 2

간부들이 자산계급에게 부식당하여 엄중한 탐오행위들이 발생되고있는 사실에 커다란 주의를 돌려 잘 발견하고 폭로하고 처벌하여야 하며 한차례의 중대한 투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1951년 11월 30일)

## 3

반탐오, 반랑비, 반관료주의 투쟁을 반혁명진압투쟁과 마찬가지로 중요시하여야 하며 그와 마찬가지로 민주당파와 사회 각계 인사들을 포함한 광범한 군중들을 발동하여야 하며 그와 마찬가지로 성세호대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그와 마찬가지로 수장이 책임지고 직접 나서서 지휘하면서 탄백 또는 검거할것을 호소하며 경한자에 대하여서는 비평교육하고 중한자에 대하여서는 철적, 징벌하거나 도형에 처하고(로동개조) 약간의 가장 엄중한 탐오범들에 대하여서는 총살까지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1951년 12월 8일)

## 4

전국의 모든 성시, 우선 대성시와 중성시들에서

공인계급에 의거하고 준법자산계급과 기타 시민들을 단결하여 위법자산계급에 향하여 그들이 퇴물을 먹이며 탈세루세하며 국가재산을 절취하며 품과 원료를 속이고 빼먹으며 경제정보를 절취하는것을 반대하는 단호하고 철저하고 대규모적인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당, 정, 군, 민 내부에서 진행되고있는 반탐오, 반랑비, 반판료주의 투쟁에 배합하는것은 지금에 있어서 극히 필요하며 아주 적시적이다. 이 투쟁에 있어서 각 성시의 당조직들은 계급과 군중의 력량을 주밀하게 포치하여야 하며 모순을 리용하며 분화를 시키며 다수를 단결하며 소수를 고립시키는 책략에 주의를 돌려 투쟁과정에서 《5반》의 통일전선을 신속히 형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일전선은 대성시에서는 《5반》운동을 맹렬히 전개한후 약 3주일이면 형성될수 있다. 이 통일전선이 형성되기만 하면 최악이 극히 큰 반동적자본가들이 고립될것이며 국가에서는 그들에게 리유당당하게 순조롭게 여러가지 필요한 징벌, 폐컨대 체포, 도형, 총살, 몰수, 벌금 등등의 징벌을 가할수 있을것이다. 전국의 각 대성시(각 성 소재지도 포함하여)들에서는 모두 2월상순에 《5반》전투에 들어서야 한다. 속히 포치하기 바란다.

(1952년 1월 26일)

## 5

(1) 《5반》운동중에서 공상호를 처리하는 기본원칙

은 다음과 같다. 즉 과거의것에 대하여서는 관대히 처리하고 금후의것에 대하여서는 엄격히 처리하며(폐건대 물지 않은 세금은 일반적으로 1951년도의것만 물게 한다.) 다수는 관대히 처리하고 소수는 엄격히 처리하며 탄백하면 관대히 처리하고 항거하면 엄격히 처리하며 공업에 대하여서는 관대히 처리하고 상업에 대하여서는 엄격히 처리하며 일반상업에 대하여서는 관대히 처리하고 투기상업에 대하여서는 엄격히 처리한다. 각급 당위에서는 《5반》운동에서 이 몇가지 원칙을 장악하기 바란다.

(2) 《5반》의 목표하에서 사인공상호를 준별호, 기본준별호, 반준별반위별호, 엄중위별호, 완전위별호 등 다섯가지 부류로 획분하여야 한다. 대성시를 놓고 말하면 첫 세 부류가 약 95%좌우를 차지하며 마지막 두 부류가 약 5%좌우를 차지할것이다. 각 대성시들간에 차이가 좀 있겠지만 대체로 비슷할것이다. 그러나 중성시는 이 비례보다 차이가 비교적 클것이다.

(3) 이 다섯가지 부류에는 자산계급과 자산계급이 아닌 독립수공업호 및 가정상업호가 포괄되고 로점상은 포괄되지 않는다. 각 대성시들에서는 로점상은 당분간 처리하지 않아도 되지만 독립수공업호와 가정상업호에 대하여서는 좋기는 처리하는것이 좋다. 각 중성시들에서는 《5반》운동에서 좋기는 독립공상호와 로점상을 다 처리하는것이 좋다. 공인, 점원을 고용하지 않은(그러나 어떤 호에서는 학도공을 가지고있다.) 독립공상호가 우리 나라의 각 대성시, 중성시들에 아주

많다. 그중 많은 호들은 준법호이며 또 많은 호들은 기본준법부분위법호이며(즉 탈세루세한것이 약간 있다. 말하자면 소위 작은 문제가 있다.) 또 소수는 반준법반위법호에 속한다. 즉 탈세루세한것이 비교적 많다. 우리는 이번 《5반》운동에서 많은 소자본가를 처리하고 그들에게 결론을 지어주어야 할뿐만아니라 될수 있는 한 수효가 소자본가와 대략 상등한 독립공상호들도 처리하고 그들에게 결론을 지어주기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은 목전의 《5반》운동에 대하여서나 앞으로의 경제건설에 대하여서나 다 유리하다. 이 두 부류의 공상호는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므로 그들에게 결론을 지어주는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결론을 지어주면 우리는 광범한 군중의 옹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만일 기타 공상호에 대하여 먼저 결론을 지어주고 독립공상호에 대하여서는 결론을 후에 가서 지어주는것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개별적성시에서는 그렇게 하여도 무방하다.

(4) 성시의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전에 공상호를 네 부류로 규정하였던것을 다섯 부류로 고치기로 결정한다. 즉 준법호란 한 부류를 두 부류로 나누어 준법호와 기본준법호로 하고 기타 세 부류는 변경하지 않는다. 북경에 있는 5만호의 공상호(독립공상호를 포괄하고 로점상은 포괄하지 않는다.)중에서 준법호는 약 10%좌우, 기본준법호는 약 60%좌우, 반준법반위법호는 약 25%좌우, 엄중위법호는 약 4%좌우, 완전위법호는 약 1%좌우를 차지한다. 완전준법호와 작

은 문제가 있는 기본준별호를 가르고 또 기본준별호중에서 탈세무세한것이 비교적 적은 호와 좀 많은 호를 구별있게 취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교육적작용이 클것이다.

(5) 각 대, 중 성시들중 어떤 시위에서는 각종 부류의 공상호의 정황을 기본상 모르고있으며 이 공상호들을 어떻게 구별있게 취급할것인가 하는 책략적관점도 명확하지 못하면서 공회와 정부의 공작대(혹은 검사조)를 대충 조직훈련하여가지고 창졸하게 《5반》운동을 발동한 결과 혼란이 좀 일어나고있는데 이러한 시위들에서는 주의를 일으켜 이를 급속히 극복하기 바란다. 이밖에 위법공상호를 검사하는데 있어서는 시위와 시정부에서 엄밀히 통제함으로써 각 기관에서 합부로 사람을 파견하여 검사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더우기는 제마음대로 자본가를 기관에 붙잡아다가 심문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3반》에서나 《5반》에서나 육체적형벌로 꺾박하여 공술을 받는 방법을 취하여서는 안되며 자살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방지하여야 한다. 이미 이런 현상이 발생한 곳에서는 즉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3반》, 《5반》운동이 옳은 궤도에서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원만한 승리를 쟁취하여야 한다.

(6) 현, 구, 향에서는 지금은 일물로 《3반》, 《5반》을 하지 않으며 앞으로 어느때 어떻게 진행할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중앙에서 따로 통지할것이다. 개별적으로 현소재지에서 《5반》을 시험적으로 진행하고있거나 구

에서 《3반》을 시험적으로 진행하고있는 곳에서는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준경이나 경제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중성시들에서도 《5반》을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진행하지 말고 몇번에 나누어 진행하여야 하며 또한 엄격한 통제하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1952년 3월 5일)

## 6

이번 《5반》투쟁에서와 《5반》투쟁이후에 우리는 아래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1) 자산계급을 단결하고 통제하며 국가의 계획적 경제를 실시하는데 유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인공상업의 실정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실정을 똑똑히 모르고서는 계획적경제를 실시할수 없다.

(2) 공인계급과 자산계급과의 계선을 똑똑히 가르며 공회내의 탐오현상과 균중을 탈리하는 관료주의현상을 숙청하며 공회내의 자산계급주구를 축출하여야 한다. 각지의 공회에서 다 이런 주구들이 나오고있으며 직공측과 자본가측사이에서 동요하는 중간분자들이 나오고있는만큼 우리는 투쟁과정에서 중간분자를 교육하고 쟁취하여야 하며 죄행이 엄중한 자본가주구는 제명하여야 한다.

(3) 동업공회와 공상련합회를 재조직하고 《5독》(1)을 다 가지고있는자와 이미 위신을 몽땅 잃어버린자들을 이러한 단체의 명도기관에서 제명하고 《5반》투쟁에



서 표현이 비교적 좋은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완전위법자들을 제한외의 각 부류의 공상업자들이 모두 자기의 대표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4) 민주건국회의 책임자들을 도와 그들이 민주건국회를 정돈하여 《5독》을 다 가지고있는자와 신망을 다 잃은자들을 제명하고 비교적 좋은 사람들을 증가시킴으로써 민주건국회가 자산계급, 주로는 공업자산계급의 합법적리익을 대표하며 공동강령과 《5반》의 원칙으로 자산계급을 교육하는 정치적단체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이러저러한 자본가들의 비밀결사, 려컨대 《목요일취찬회》〔2〕 같은것은 대책을 취하여 해산시켜버려야 한다.

(5) 《5독》을 숙청하고 투기상업을 소멸하여 전체 자산계급으로 하여금 국가법령에 복종하게 하고 국제민생에 유익한 공상업을 경영하게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사인공업을 발전시키고(오직 자본가가 하려 하고 공동강령에 부합되지만 한다면) 점차적으로 사인상업을 축소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사영제품에 대한 도거리판매 및 주문 계획을 해마다 더 증가시키고 사영공상업에 대한 계획성을 해마다 더 강화하여야 하며 사인자본의 리윤액을 다시 규정하여 사인자본측이 리익을 볼수 있다는것을 느끼게 하는 한편 그들이 폭리를 얻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비밀장부를 폐지하고 경제를 공개하며 공인과 점원이 생산과 경영을 감독하는 제도를 점차 세워야 한다.

(7) 보충납부, 반환, 벌금, 몰수 등을 통하여 국가 및 인민이 받은 경제적손실을 대부분 되찾아내야 한다.

(8) 일체 대, 중 사영기업의 공인, 점원들중에 당 지부를 건립하고 당의 공작을 강화하여야 한다.

(1952년 3월 23일)

## 주 해

[1] 《5독》이란 뇌물을 먹이며 탈세무세하며 국가재산을 절취하며 품과 원료를 속이고 메먹으며 경제정보를 절취하는 등 자본가들의 다섯 가지 위법행위를 가리킨다.

[2] 《목요일취찬회》란 중경의 일부 자본가들의 비밀결사이다. 이 비밀결사는 엄중하게 법에 위반되는 일련의 지하활동을 진행하였으므로 《5반》운동에서 적발되고 취체당하였다.

## 농업의 호조합작을 중대한 일로 삼고 실시하여야 한다\*

(1951년 12월 15일)

이에 농업생산호조합작에 관한 결의초안을 발부하니 인쇄하여 현위와 구위에까지 내려보내기 바란다. 그리고 즉시 당내, 당외에서 이 초안에 따라 해설하고 실시하기 바란다. 토지개혁을 끝낸 모든 지구들에서 다 이렇게 해설하고 실시하여야 할것이니 동무들이 이를 중대한 일로 삼고 실시하기 바란다. 이 결의초안은 아직 초안인만큼 당내간행물에는 발표하여도 무방하나 당외의 출판물에는 발표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농업합작화를 반대하는 류소기를 문박하기 위하여 모택동동지께서 기초하신 중대한 역사적의의물 가지는 당내통지이다. 1951년 7월에 류소기는 농업생산호조합작을 발전시킬데 관한 산서성위의 보고에 대하여 모택동동지와 당중앙 물태 개인의 명의로 평어를 써서 합부로 비난하는 동시에 그것을 각지에 발부하였다. 이 평어에서 류소기는 모택동동지의 농업의 사회주의적개조에 관한 로선을 반대하면서 그것을 《그릇되고 위험하고 공상적인 농업사회주의사상》이라고 증상하였다. 이해 9월에 모택동동지의 직접적인 장악하에서 《농업생산호조합작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의(초안)》가 작성되었다. 12월 15일에 모택동동지께서는 이 결의초안을 발부하기 위하여 이 통지를 쓰시였으며 농업의 호조합작을 중대한 일로 삼고 실시할것을 전당에 지시하시였다.

## 신년축사

(1952년 1월 1일)

우리전체——인민정부의 공작인원, 인민지원군과 인민해방군의 지휘원과 전투원, 각 민주당파, 각 인민단체, 각 소수민족과 전국 인민들이 여러 사업전선에서 달성한 승리를 축하한다!

항미원조전선에서 달성한 우리의 승리를 축하한다!

국방전선에서 달성한 우리의 승리를 축하한다!

토지개혁전선에서 달성한 우리의 승리를 축하한다!

반혁명진압전선에서 달성한 우리의 승리를 축하한다!

경제 및 재정 전선에서 달성한 우리의 승리를 축하한다!

문화 및 교육 전선에서 달성한 우리의 승리를 축하한다!

사회 각계, 우선 지식분자들의 사상개조전선에서 달성한 우리의 승리를 축하한다!

나는 또 우리가 새로 개척한 전선에서 승리를 달성할것을 축원한다. 즉 우리 나라 전체 인민과 일체 공작인원들에게 한결같이 일떠나서 기세드높이 신속히 대규모적인 반탐오, 반랑비, 반관료주의 투쟁을 전개

함으로써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이런 오물과 독소를 깨끗이 씻어버릴것을 호소한다.

동지들, 1951년에 우리는 상술한 모든 전선에서 이미 승리를 달성하였다. 그중에는 극히 위대한 승리가 적지 않다. 우리는 1952년에 우리의 공동의 노력으로 이 모든 공작에서 더욱 큰 승리를 달성하기를 희망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 서장공작방침에 관한 중공중앙의 지시\*

(1952년 4월 6일)

중앙은 서장공작위원회와 서장군구에 보낸 서남국, 서남군구의 4월 2일부 전보지시에 기본상 동의하며 이 전보에 제기된 기본방침(서장군대를 재편성하는 문제는 제외하고)과 많은 구체적절차는 정확한것이라고 인정한다. 이대로 하여야 우리 군대가 서장에서 불패의 지반에 설수 있다.

서장은 정황이 신강과 다르다. 서장은 정치면에서나 경제면에서나 다 신강만 훨씬 못하다. 그런데도 우리의 왕진부대는 신강에 진주하자 우선 면밀히 계획하고 자력갱생하며 생산자급하는데 모든 힘을 경주하였다. 지금 그들은 이미 발을 든든히 붙이였으며 소수민족의 열렬한 옹호를 받고있다. 지금은 한창 감조감식을 실시하고있는데 금년겨울에 토지개혁을 하게 되면 군중들은 우리를 더욱 옹호할것이다. 신강과 관내사이에는 자동차가 거침없이 통하여 물질적복리면에서

---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중공중앙을 위하여 기초하신 당내지시로서 서남국과 서장공작위원회에 보내는 동시에 서북국, 신강분국에도 보내였다.

소수민족들에게 많은 리득을 주고있다. 서장에서는 적어도 2~3년내에는 소작료를 낮출수 없을것이며 토지개혁을 실시할수 없을것이다. 신강에는 한족이 수십만이나 있지만 서장에는 한족이 전혀 없으나 다름없으므로 우리 군대는 판판 다른 민족구역에 처하여있다. 우리는 오직 두가지 기본정책에 의거함으로써 군중을 쟁취하고 자기를 불패의 기반위에 서게 하여야 한다. 첫째는 면밀히 계획하고 생산자급하며 이로써 군중에게 영향을 주는것인데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환절이다. 공로가 개통된다 하더라도 량식을 대량적으로 실어들일수는 없다. 인도측에서 교환조건으로 량식과 물자를 서장에 수출하는데 동의할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립각점은 앞으로 만일 인도측에서 량식과 물자를 주지 않을 경우에도 우리 군대가 능히 지탱해나갈수 있도록 하는데 두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노력과 적당한 방법으로 달케 및 그 상층집단의 대다수를 쟁취하고 소수의 나쁜분자들을 고립시킴으로써 비류혈적인 방법으로 여러해동안에 점차 서장의 경제, 정치를 개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나쁜분자들이 서장군대를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켜 우리를 습격하는데 대처할 준비도 하여 그런 경우에도 우리 군대가 서장에서 의연히 지탱하며 견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에도 다 면밀히 계획하고 생산자급하는데 의거하여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이 정책에 기초하여야만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 둘째는 할만하고 또 반드시 하여야 할것인데 그것은 즉 인도 및 내지와의 무역을

개혁하고 서장의 수입수출을 균형이 잡히게 하며 우리 군대의 진주로 하여 서장인민들의 생활수준이 조금이라도 낮아지는 일이 없게 하며 또한 그들의 생활이 일정하게 개선되도록 하는것이다. 우리가 생산과 무역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존재할수 있는 물질적기초를 잃게 될것이고 나쁜분자들이 매일과 같이 락후한 군중과 서장군대를 선동하여 우리를 반대할 밀천을 가지게 될것이며 다수를 단결하고 소수를 고립시키는 우리의 정책도 무력하게 되어 실현할수 없을것이다.

서남국의 4월 2일부 전보의 전체 의견중에서 한가지만은 좀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즉 단지 일내에 서장군대를 재편성하는것과 군정위원회를 성립하는것이 가능하겠는가, 책략적이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의 의견은 아직은 서장군대를 재편성하지 말며 형식상에서 군분구를 성립하지도 말며 군정위원회도 성립하지 말자는것이다. 당분간 모든것을 종전대로 두고 미루었다가 1년 혹은 2년후 우리 군대가 확실히 생산자급을 할수 있고 군중의 옹호를 받게 되었을 때에 가서 이 문제를 연구하는것이 좋겠다. 이 한두해동안에 두가지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한가지는 다수를 단결하고 소수를 고립시키는, 상층에 대한 우리의 통일전선정책이 효력을 발생하고 서장군중들도 점차 우리를 가까이하게 되어 나쁜분자들과 서장군대가 감히 폭동을 일으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이며 다른 한가지는 나쁜분자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서장군대를 거



느리고 폭동을 일으키므로 우리 군대가 자위투쟁에서 반격하여 타격을 가하게 되는 경우이다. 상술한 두가지 경우는 어느것이나 다 우리에게 유리하다. 서장상층집단은 지금 '협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서장군대를 재편성한다'는것은 이유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여기고있다. 몇해 지나면 다들것이다. 그때면 그들은 협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서장군대를 재편성할수밖에 없다고 여기게 될것이다. 만약 서장군대가 폭동을 일으켰다가, 혹은 그것도 한차례가 아니라 여러차례 일으켰다가 모두 우리 군대에게 평정된다면 우리는 서장군대를 재편성할 이유가 더 충분하게 된다. 보건대 두쓰룬〔1〕뿐만아니라 달레와 그 집단의 다수도 협정을 마지못해 접수하였다는 생각을 가지고있으며 그것을 실시하려는 의향이 없는것 같다. 우리는 지금 협정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물질적기초가 없을뿐만아니라 그러한 군중기초도 없으며 또 그러한 상층기초도 없으므로 억지로 실시한다면 해로운 점이 더 많을것이다. 그들이 협정을 실시할 의향이 없는 한 지금은 실시하지 말고 좀더 지나서 보는것이 좋을것이다. 시간을 끌수록 우리는 이유가 더 충분해지고 그들은 이유가 더 없게 된다. 시간을 끌어도 우리에게 그리 해로운것은 없으며 혹은 오히려 더 유리할수도 있다. 그들이 인민을 해치고 도리에 어긋나는 악행을 하겠으면 하라고 내버려두고 우리는 우리대로 생산, 무역, 도로수축, 의약, 통일전선(다수를 단결하며 꾸준히 교육하는것) 등 유익한 일만 하면서 군중을 쟁취하며 협정의 전면적

실시 문제를 제기할 시기가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만약 그들이 소학교도 꾸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소학교를 걸어치워도 좋다.

최근 라싸에서 일어난 시위는 단지 두 쓰룬 등 나쁜분자들이 한것으로만 볼것이 아니라 달레집단의 대다수가 우리에게 한 태도표시로 보아야 한다. 그 청원서는 내용이 아주 책략적인데 결렬을 표시하는것은 아니고 그저 우리더러 양보해달라는것이였다. 거기에는 청조매의 방법을 회복시키자는것, 즉 해방군을 주둔시키지 말것을 암시한 조목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본의가 아니다. 그들도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것을 빨리 알고있다. 그들의 시도는 이 조목으로 다른 조목들을 흥정하자는데 있다. 그들은 달레가 정치상에서 이번 시위의 책임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청원서에서 달레14세를 비평하였다. 그들은 서장의 민족리익을 보호한다는 허울을 쓰고나왔다. 즉 그들은 자기들이 군사력량면에서는 우리보다 약하지만 사회세력면에서는 우리보다 강하다는것을 알고있는것이다. 우리는 응당 사실상에서(형식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번 청원을 접수하고 협정의 전면적인 실시를 연기하여야 한다. 그들이 벤첸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때를 선택하여 이번 시위를 일으킨것은 많이 생각하고 한것이다. 벤첸이 라싸에 도착하면 그들은 그를 바싹 끌어당기여 자기들의 집단에 가담시키려고 할것이다. 만일 우리가 공작을 잘해서 벤첸이 그들의 궤계에 넘어가지 않고 무사히 시카즈에 도착하게 된다면 그때에는 형

제가 우리에게 비교적 유리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물질적기초가 결핍한 정황이 당분간은 개변될수 없고 사회세력면에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한 이 정황도 당분간은 개변될수 없기때문에 달레집단이 협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려 하지 않는 정황도 당분간은 개변되지 않을것이다. 목전 우리는 형식상에서는 공세를 취하여 이번 시위와 청원에 대하여 도리가 없다(협정을 파괴하였다.)고 견책하여야 하지만 실제상에서는 양보할 준비를 하며 조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리면서 장차 진공할(즉 협정을 실시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동무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고려해본 다음 전보로 알려주기 바란다.

## 주 · 해

[1] 《쓰문》은 달레필에 있는 최고의 행정판이다. 당시의 두 쓰문은 반동농노주인 무강화와 뒤쌩자시였다.-

## 공인계급과 자산계급간의 모순이 국내의 주요한 모순이다\*

(1952년 6월 6일)

지주계급과 관료자산계급을 타도한후에 중국내부의 주요한 모순은 공인계급과 민족자산계급간의 모순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민족자산계급을 중간계급이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

-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중공중앙 통일전선공작부에서 기초한 어느 한 문건에 쓰신 평어이다. 여기서 모택동동지께서는 민족자산계급을 중간계급으로 간주하는 이 부의 책임자의 그릇된 편집을 비판하시였다.

## 단결하며 적아계선을 가르자\*

(1952년 8월 4일)

지난해에 우리는 한편으로 작전하고 한편으로 담판하며 한편으로 안정을 도모하여왔다.

조선전쟁의 국세는 작년 7월후에 확정되었으나 국내의 재정경제상황이 안정될수 있겠는가 하는것은 당시에는 아직 파악이 없었다. 과거에는 그저 《물가가 기본상 안정되고 수입과 지출이 거의 균형잡혀간다》고 말하였는데 그것은 물가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수입과 지출이 아직 균형잡히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수입이 적고 지출이 많은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중공중앙에서는 작년 9월에 회의를 열고 생산을 증가하고 절약을 려행할것을 제기하였다. 10월에 나는 또 정치협상회의 제1기전국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증산절약문제를 제기하였다. 증산절약운동에서 상당히 엄중한 탐오, 량비, 관료주의 문제가 적발되었으므로 12월부터 《3반》운동을 전개하고 뒤이어 또 《5반》운동을 전개하였다. 지금 《3반》, 《5반》운동의 승리적결속과 함께 문제가 완전히 푼뚝해졌으며 나라가 안정되었다.

---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제38차회의에서 하신 강화의 요집이다.

작년에는 항미원조전쟁의 비용이 국내건설의 비용과 대체로 상등하여 절반절반이었다. 금년에는 다르다. 전쟁비용이 작년의 절반밖에 들지 않을것으로 예견된다. 지금 우리의 부대는 감소되었다. 그러나 그대신 장비가 강화되었다. 우리는 과거 20여년동안 전쟁을 하였으나 종래로 공군이 없었으며 그저 남의 폭격을 당하기만 하였다. 지금은 공군도 있으며 고사포, 대포, 땅크도 다 있다. 항미원조전쟁은 하나의 큰 학교이다. 우리는 거기에서 대연습을 진행하고있는데 이 연습은 군사학교를 꾸리는것보다 더 낫다. 명년에 한해 더 싸우게 된다면 전체 육군이 다 번갈아 한번씩 훈련을 받을수 있게 될것이다.

이번 전쟁에 있어서 본래 우리에게는 1. 싸울수 있는가, 2. 막아낼수 있는가, 3. 먹을것이 보장될수 있는가 하는 3개 문제가 존재하고있었다.

싸울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는 2~3개월사이에 해결되었다. 적들은 우리보다 대포는 많지만 사기가 낮다. 말하자면 철물은 많아도 사기가 낮다.

막아낼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작년에 해결되었다. 방법은 굴을 파고 들어가는것이였다. 우리는 두층으로 공사를 파고 적이 쳐들어오면 갱도에 들어갔다. 때로 적들이 지상을 점령하여도 지하는 의연히 우리의것이였다. 적들이 지상의 진지에 들어가면 우리는 곧 반격하여 막대한 살상을 주곤 하였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토방법으로 양무기를 로획하였다. 적들은 우리를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먹는 문제, 말하자면 급양을 보장하는 문제는 오래도록 해결되지 못하였다. 당시에는 곡을 파고 량식을 곡축에 저장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다. 지금은 그것을 알게 되었다. 매개 사마다 모두 3개월분의 식량을 가지고있으며 창고도 있고 강당도 있어 생활이 매우 좋다.

지금은 방침이 명확하고 진지가 공고하고 공급이 보장되고있으며 매개 전사들이 다 끝까지 견지하여야 한다는 도리를 알고있다.

대체 언제까지 싸워야 하며 어느때까지 담판하게 되겠는가? 내가 보기에는 담판도 할것이고 싸움도 할것이며 결국은 강화를 하게 될것이다.

어째서 결국은 강화를 하게 되는가? 전쟁이 30년이나 100년동안 지속되지는 않을것이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싸우면 미국에 매우 불리하기때문이다.

1. 사람이 죽게 된다. 그들은 포로 1만여명을 송환하지 않기 위하여 싸우다가 3만여명이 죽었다. 여하튼 그들은 사람이 우리보다 펴 적다.

2. 돈을 쓰게 된다. 그들은 1년에 100여억딸라가 든다. 우리는 그들보다 돈이 훨씬 적게 드는데 금년에는 또 작년보다 절반이나 줄었다. 《3반》, 《5반》 운동에서 청리하여낸 돈이면 1년반은 싸울수 있다. 그러니 중산절약에서 나온 돈은 그전부를 국내건설에 쓸수 있다.

3. 그들에게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극복하기 어려운 모순이 존재하고있다.

4. 그리고 또 전략문제가 있다. 미국의 전략적중점은 구라파이다. 그들은 군대를 풀어 조선을 침략할 때 우리가 출병하여 조선을 원조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우리의 일은 비교적 처리하기 쉽다. 국내의 일이면 완전히 우리가 결정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참모장이 아니다. 미국의 참모장은 그들 자신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조선전쟁을 계속 하겠는가 안하겠는가 하는데 대하여서는 우리와 조선측은 절반밖에 결정할수 없다.

요컨대 미국을 놓고보면 대세가 기울어져서 강화를 하지 않으면 불리한것이다.

제3차세계대전이 곧 일어난다고 하는것은 사람을 놀래우자고 하는 말이다. 우리는 10년이란 시간을 쟁취하여 공업을 건설함으로써 튼튼한 기초를 닦아야 한다.

모두가 잘 단결하며 적아계선을 갈라야 한다. 오늘 우리가 강유력한것은 전국 인민이 단결되어있기때문이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협력하기때문이며 각 민주당파, 각 인민단체들이 협력하기때문이다. 단결하는것과 적아계선을 가르는데는 매우 중요한것이다. 손중산선생은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령도한 신해혁명은 왜 실패하였는가? 그 원인은 1. 토지를 분배하지 않았으며, 2. 반혁명을 진압할줄 몰랐으며, 3. 제국주의를 반대함에 있어서 날카롭게 반대하지 못한데 있다. 적아계선을 가르는데 외에 또 내부에서는 시비계선문



제가 있다. 량자를 비교하면 시비계선은 두번째계선이다. 례컨대 탐오분자의 대다수는 의연히 시비문제에 속하는자로서 개조할수 있다. 그들은 반혁명분자와는 다르다.

각 민주당파와 종교계에서는 제국주의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적측에 서지 않도록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불교를 놓고보면 그것은 제국주의와는 먼계가 적으며 기본상 봉건주의와 련계를 가지고있다. 봉건주의를 반대할 때 토지문제로 하여 중까지 반대하게 되었는데 타격을 받은것은 주지, 장로따위들이다. 이러한 소수의 사람들이 타도되고 《로지심》이 해방되었다. 나는 불교를 믿지 않으나 불교련합회를 조직하는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련합하여 적아계선을 갈라야 하는것이다. 통일전선을 그 어느날 취소하게 되는가? 나는 취소할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 어떤 사람이나 진정으로 적아계선을 가르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면 우리는 그와 단결할것이다.

우리 나라는 전도가 있으며 유망하다. 과거에 우리는 국민경제를 3년동안에 복구할수 있겠는가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2년반동안 분투한 결과 국민경제는 이미 복구되었으며 또한 이미 계획적인 건설이 시작되었다. 모두가 단결하며 적아계선을 가름으로써 우리 나라가 온건하게 전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중국인민지원군의 중대한 승리를 축하한다\*

(1952년 10월 24일)

우리 지원군은 조선인민군과 협동하여 9월 18일에 전 전선에 걸쳐 적군에 대한 전술적반격작전을 개시한후 한달동안에 적군을 3만명이상 섬멸 또는 격상함으로써 중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중앙과 군사위원회는 동무들과 전체 지휘원, 전투원동지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이런 작전은 몇개의 선정된 전술적요지에 아군의 우수한 병력과 화력을 집중하여 돌연적인 동작으로 용근 패, 용근 련, 용근 영의 적군에게 전부 또는 대부분을 섬멸하는 타격을 가하며 그런 다음 적들이 아군을 반격할 때 또 반복적인 작전과정에 적에게 대량적인 살상을 주며 그런 다음 우리에게 공략된 거점에 대하여 정황을 보아 지켜낼수 있는것은 고수하고 지켜내지 못할것은 포기하면서 자기의 주동권을 확보함으로써 이후의 반격을 준비하는것이다. 이런 작전방법을 계속 실시해나가면 틀림없이 적을 궁지에 몰아넣을수 있을것이며 틀림없이 적으로 하여금 타협적인 방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중공중앙과 중앙군사위원회를 위하여 기 초하신 중국인민지원군 책임자에게 보내는 지시이다.

법을 취하여 조선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안되게 할수 있을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아군이 역센 진지작전을 시작한 이래 적군에게 손실을 준 수량은 지난해 7월이전의 여러차례의 운동전에서 적군에게 손실을 준 수량을 훨씬 초과하였다. 그러나 아군의 손실은 크게 감소되었다. 그중 인원의 손실은 지원군만 놓고보더라도 지난해 7월이래의 15개월동안에는 그이전의 8개월에 비하여 월평균 3분의 2이상이 감소되었다. 이런 정황은 진지에 의거하여 상술한 작전방법을 실시한 결과이다. 그런데 9월 18일부터 시작된 이 기간에는 이런 작전방법이 더 조직적이고 더 전 전선에 걸쳐 실시되고있다. 그러므로 이 작전방법에 특히 중시를 돌려야 할것이다.

지원군출국작전 2주년을 맞이하는 이때 경험을 총결함으로써 더욱더 조직성을 강화하고 전술을 제고하고 탄약을 아끼며 조선동지들 및 조선인민들과 더 친밀하게 단결하여 금후의 작전에서 더 큰 승리를 달성할것을 동무들에게 희망한다.

## 관료주의, 명령주의와 위법관기를 반대하자\*

(1953년 1월 5일)

관료주의를 반대하며 명령주의를 반대하며 위법관기를 반대하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 각급 령도기관의 주의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우리 당은 《3반》에서 중앙, 대행정구, 성과 시, 지구 4급의 허다한 공작인원들 가운데 존재하는 탐오와 량비 두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였으며 많은 령도자들이 자기가 령도하는 기관일군들을 탈리하는 이 면의 관료주의문제도 기본상 해결하였다. 그러나 인민군중의 고통을 알지 못하며 자기가 공작하고있는 기관에서 좀 멀리 떨어져있는 하부의 정확을 알지 못하며 현, 구, 향 3급 간부들중에 명령주의를 부리며 위법관기하는 나쁜 사람, 나쁜 일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있다는것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이런 나쁜 사람, 나쁜 일들에 대하여 다소 알고는 있으면서도 본체만체하며 분개하지 않으며 문제가 엄중하다고 느끼지 않기에 때문에 좋은 사람을 지지하고 나쁜 사람을 징벌하며 좋은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중공중앙을 위하여 기초하신 당내지시이다.

일을 발양시키고 나쁜 일을 없애버리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러한 면에서의 관료주의는 많은 지구, 많은 방면, 많은 부문들에서 아직 기본상 해결되지 못하고있다. 인민래신을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보고에 의하면 어떤 성인민정부에서는 처리하지 않고 깔아둔 편지가 7만여건이나 된다고 하니 성아래의 각급 당조직과 정부조직에서 깔아둔 인민래신은 얼마나 되겠는지 모르기는 하겠지만 아마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이 인민래신들은 그 대부분이 존재하는 문제의 해결을 요구한것들이며 그중에는 간부들의 무법천지로 횡행한 범죄행위를 고발한것으로서 속히 처리하여야 할것들이 적지 않다.

우리 당과 정부에 대하여 말하면 관료주의와 명령주의는 오늘 큰 문제로 되고있을뿐아니라 앞으로도 오래동안 큰 문제로 남아있을것이다. 그 사회적근원으로 말하면 이것은 인민을 대하는데 있어서의 반동적통치계급의 반동적작풍(반인민적작풍, 국민당의 작풍)의 잔재가 우리의 당과 정부내에 반영되어 생긴 문제이다. 우리 당조직과 정부조직의 령도임무와 령도방법으로 말하면 이것은 공작임무를 맡길 때 정책계선과 공작작풍을 같이 설명해주지 않았기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다시말하면 중하급간부들에게 공작임무를 줄 때 이와 함께 정책계선과 공작작풍을 반복적으로 제시해주지 않았기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이것은 각급 간부, 특히는 현, 구, 향 3급 간부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았거나 심사공작을 잘 하지 못하였기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이것은 현, 구,

향 3급에 대하여 아직 정당공작을 전개하지 않았고 정당가운데서 명령주의를 반대하며 위법란기분자를 숙청하는 투쟁을 아직 전개하지 않았기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이것은 우리의 지구급이상의 고급기관공작인원들에게 아직까지 인민군중의 고통을 모르거나 관심하지 않으며 기층조직의 정황을 모르거나 관심하지 않는 그런 관료주의가 존재하는데 아직 그것과 투쟁하지 않았고 그것을 숙청하지 않았기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만일 우리의 령도임무가 강화되고 우리의 령도방법이 개선된다면 군중을 해치는 관료주의와 명령주의가 점차 적어질 것이며 우리의 많은 당조직과 정부조직들이 보다 빨리 국민당작풍에서 벗어날수 있을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당조직과 정부조직에 혼입한 많은 나쁜 사람들을 하루속히 숙청할수 있을것이며 지금 존재하는 많은 나쁜 일들도 하루속히 없애버릴수 있을것이다.

그러므로 1953년에 정당건당 및 기타 공작에 결합하여 우선 인민래신을 처리하는데로부터 착수하여 관료주의, 명령주의와 위법란기분자의 정황을 한차례 검사하고 그들과 견결히 투쟁하기 바란다. 관료주의, 명령주의, 위법란기의 전형적실례들은 신문을 통하여 널리 폭로하여야 한다. 법을 엄중하게 위반한자들에게 대하여서는 법적제재를 가하여야 하며 당원일 경우에는 당의 기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각급 당위에서는 결단성있게 군중이 몹시 증오하는 위법란기분자들을 징벌하고 당조직과 정부조직에서 쫓아내며 가장 엄중한 위법란기분자는 극형에 처함으로써 민분을 풀어주며

이로써 간부와 인민군중을 교육하여야 한다. 그러나 나쁜 사람, 나쁜 일을 반대하는 광범한 투쟁이 일정한 계단에 이르렀을 때에는 각지에 있는 전형적인 좋은 사람, 좋은 일에 대하여 조사분석하고 표양함으로써 전당이 이런 좋은 전형을 따라배워 옳은 기풍을 발양하고 나쁜 기풍을 꺾어버리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각지에 이런 전형적인 좋은 사람, 좋은 일이 틀림없이 적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 대한족주의를 비판하자\*

(1953년 3월 16일)

어떤 지방들에서는 민족관계가 아주 비정상적이다. 공산당인에 대하여 말하면 이러한 정형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당내의 많은 당원과 간부들에게 존재하는 엄중한 대한족주의사상, 다시말하면 민족관계에서 표현되는 지주계급과 자산계급의 반동사상, 즉 국민당사상을 심각히 비평하여야 하며 즉시 이 방면의 착오를 시정하는데 착수하여야 한다. 여전히 차별시당하고 고통받는 소수민족동포들에 대한 만강의 동정심을 가지고있고 민족정책을 아는 동지가 령솔하는 방문단을 소수민족이 사는 모든 지방들에 파견하여 방문하게 하여야 한다. 이 방문단은 말타고 꽃구경하는 식으로 방문할것이 아니라 참답게 조사연구하며 당지의 당조직과 정부조직을 도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적지 않은 재료에 근거하여 중앙은, 소수민족이 있는 지방에는 대개 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남아있으며 그중에는 대단히 엄중한 문제도 더러 있다고

---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중공중앙을 위하여 기초하신 당내지시이다.



인정한다. 겉으로 보기에에는 아무런 일도 없는것 같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문제가 대단히 엄중하다. 최근 2~3년동안에 각지에서 발견된 문제들은 대한족주의가 거의 어디에나 다 존재하고있다는것을 증명하여준다. 만일 우리가 지금 시기를 바싹 틀어쥐고 교육을 진행하여 당내와 인민들가운데 존재하는 대한족주의를 단호히 극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 민족관계에서 많은 지방의 당내와 인민들가운데 존재하는 문제는 결코 대한족주의의 잔재문제인것이 아니라 엄중한 대한족주의문제이다. 즉 이런 동치들과 인민들이 자산계급 사상에 지배되고있으면서 아직 맑스주의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중앙의 민족정책을 잘 학습하지 못한데서 생긴 문제이다. 그러므로 참답게 교육함으로써 이 문제를 일보일보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사실적 근거가 있는 글을 신문에 많이 발표하여 공개비판을 진행함으로써 당원과 인민들을 교육하여야 한다.

## 《다섯가지가 많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1953년 3월 19일)

(1) 우리 당조직과 정부조직들에는 농촌공작에서 엄중하게 농민군중을 탈리하고 농민과 그 적극분자들의 리익을 해치는 문제, 즉 이른바 《다섯가지가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다섯가지가 많은》 문제란 임무가 많으며 회의와 집중훈련이 많으며 공문, 보고, 통계표가 많으며 조직이 많으며 적극분자들의 검적이 많은것을 말한다. 이러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존재한 문제이다. 그중 어떤 문제들에 대하여는 일찍 중앙에서 지시를 내려 이에 중시를 돌리며 해결할것을 각급 당위에 요구하였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기는 고사하고 점점 더 엄중하여지고있다. 그 원인은 전반 문제를 체계적으로 제기하지 못한데 있으며 더우기 중요한 원인은 중앙, 대행정구, 성(시), 지구, 현 이 5급의 당과 정부 령도기관에서 분산주의와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지 않은데 있다. 그것은 구와 향에 존재하는 《다섯가지가 많은》 문제는 기본상 구와 향에서 생긴것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중공중앙을 위하여 기초하신 당내지시이다.

이 아니라 우에서 조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현이상의 각급 당과 정부 령도기관에 존재하는 엄중한 분산주의와 관료주의로 하여 조성된 것이다. 어떤것은 과거 혁명전쟁과 토지개혁 시기의 산물인데 오늘까지 개변되지 못한채 남아있는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1953년내에 관료주의를 반대하며 명령주의를 반대하며 위법란기를 반대할데 관한 중앙의 지시를 집행할 때 령도기관의 관료주의와 분산주의를 치중하여 극복하며 과거에는 필요하였지만 오늘에 와서는 필요없게 된 제도와 방법들을 개변하여야 한다.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금후 각급 령도기관에서 임무를 규정하는 문제, 회의를 소집하며 사람들을 불러다 집중훈련하는 문제, 공문과 통계표를 내려보내며 하급에 보고를 요구하는 문제, 구와 향의 조직형태를 규정하는 문제 및 향과 촌의 적극분자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죄다 현이상의 당위와 정부의 주요책임동지가 실제에 맞고 집행할수 있는 적당한 규정을 지어야 하며 어떤것은 중앙에서 통일적규정을 지어야 한다. 각급 당, 정부, 군중 조직의 많은 공작부문들에서 저마다 독자적으로 하급에 임무를 맡기며 하급인원들과 농촌적극분자들을 마음대로 불러다 회의를 하거나 훈련하며 공문과 통계표를 람발하고 하급 혹은 농촌에 대하여 마음대로 보고를 요구하는 등 과거의 좋지 못한 제도와 방법들을 전결히 폐지하고 그대신에 령도가 있고 통일적이며 정확에 부합되는 제도와 방법을 내와야 한다. 그리고 농촌의 향마다 여러가지 위원회가 많고 적극분

자들에게 결적이 너무 많은것도 모두 생산을 방해하고 군중을 탈리하는것이므로 전결히, 그러나 철차있게 개변하여야 한다.

(2) 중앙급의 당, 정부, 군중 조직의 관계부문에 대하여 중앙은 중앙조직부, 중앙인민정부 정무원 및 정무원소속 재정경제, 문교, 정법 3개 위원회의 주관동지들에게 자기 과거에 《다섯가지가 많은》 문제를 초래한 사항들을 신속히 청리하고 적당한 제도와 대책들을 세워 중앙에 보고할 책임을 맡긴다.

(3) 각 대행정구와 성, 시에서는 각 중앙국, 분국, 성위와 시위 및 해당급 행정기관의 주관동지들이 책임지고 《다섯가지가 많은》 문제를 청리하고 자기의 해결대책을 규정하여 중앙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중앙국, 분국, 성위와 시위에서는 전문적으로 《다섯가지가 많은》 문제를 료해하기 위한 검사조를 파견하여 한두개 소속 구와 향(성시에서는 한두개 구와 가도)의 정황을 검사하고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고자료로 삼기를 바란다.

(4) 지구급과 현급의 《다섯가지가 많은》 문제는 성위에서 책임지고 지도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5) 농촌에서는 농업생산이 일체를 압도하는 공작이고 기타의 공작은 모두 농업생산을 둘러싸고 진행되며 농업생산에 복무하는 공작이다. 농민들이 생산하는데 방어로 될수 있는 소위 공작임무와 공작방법은 최대한 피하여야 한다. 목전 우리 나라의 농업은 아직 기본상 구식농구를 사용하는 분산적인 소농경제이다.

이것은 기계를 사용하는 집체화한 쓰련의 농업과는 많이 다르다. 그렇기때문에 목전 과도기에 처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농업방면에서 국영농장을 내놓고는 아직 통일적이고 계획적인 생산을 할수 없으며 농민에 대하여 너무 많이 관계하여서는 안된다. 아직은 가격정책 및 필요하고도 가능한 경제공작과 정치공작으로 농업 생산을 지도하며 농업을 공업과 잘 배합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계획에 끌어넣는수밖에 없다. 이 한계를 벗어난 소위 농업《계획》, 농촌에서의 《임무》는 필연코 실현될수 없고 또 필연코 농민들의 반대를 받게 될것이며 따라서 우리 당이 전국 인구의 80%이상을 차지하는 농민군중을 팔리하게 될것이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른바 구와 향의 공작에서의 《다섯가지가 많은》 문제는 그 많은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이 농민을 너무 많이 관계하고있는 표현이며(다른 한 부분은 혁명전쟁과 토지개혁에 필요하기때문에 생겼고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것이다.) 그것이 이미 농민들의 불만을 자아내고있으므로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

# 류소기와 양상곤이 기물을 파괴하고 제마음대로 중앙의 명의로 문건을 발부한데 대한 비평\*

(1953년 5월 19일)

## 1

이제부터 중앙의 명의로 발부하는 문건, 전보는 모두 내가 본 다음에야 발부할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은것은 무효이다. 이에 주의하기 바란다.

## 2

(1) 작년 8월 1일부터(8.1이전의것은 검사하였다.) 금년 5월 5일까지 중앙과 군사위원회의 명의로 발부한 전보와 문건중 나에게 보이지 않은것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내가 시찰나갔을 때와 병으로 휴가를 맡은 기간의것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책임지고 검사하여 그 결과를 나에게 알려주기 바란다.

(2) 과거 수차에 걸쳐 중앙 회의의 결의를 나에게 보이지 않고 마음대로 발부한것은 잘못이며 기물을 파괴한것이다.

---

\* 이것은 모택동등지께서 류소기, 양상곤에 대하여 하신 두차례의 서면비평이다.

## 총로선을 떠난 우경관점을 비판한다\*

(1953년 6월 15일)

과도기〔1〕에 있어서의 당의 총로선과 총임무는 10년 내지 15년 혹은 더 오랜 기간에 국가의 공업화와 농업, 수공업, 자본주의적공상업에 대한 사회주의적개조를 기본적으로 완수하는것이다. 이 총로선은 우리의 각항 공작을 밝게 비춰주는 등대이다. 이 총로선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떠나면 《좌》경적 또는 우경적 착오가 생기게 된다.

어떤 사람은 과도기가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데서 조급정서가 생기고있다. 이러면 《좌》경적착오를 범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민주혁명이 성공된후에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있다. 혁명의 성질이 전변되었다는것을 모르는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신민주주의》를 계속 하면서 사회주의적개조는 하지 않고있다. 이러면 우경적착오를 범하게 된다. 농업을 놓고 말하면 사회주의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중공중앙 정치국회의에서 하신 강화의 일부분이다. 이 강화에서 모택동동지께서는 류소기 등이 제기한 《신민주주의적사회질서를 확립한다》는 등의 우경기회주의관점을 비판하시였다.

길이 우리 나라 농업의 유일한 길이다. 호조합작운동을 발전시키며 농업생산력을 부단히 높이는것은 농촌에서의 당의 중심공작이다.

우경적표현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마디 말이 있다.

《신민주주의적사회질서를 확립한다.》 이렇게 제기하는것은 해로운것이다. 과도기에 있어서는 날마다 변동이 일어나고있으며 날마다 사회주의요소가 새로 생기고있다. 소위 《신민주주의적사회질서》라는것을 어떻게 《확립》한단 말인가? 《확립》하기는 아주 어려울것이다! 이를테면 사영공상업은 지금 개조되고있고 금년 하반기에는 일종의 질서를 《세우게》 될것이지만 명년에 가서는 그 질서가 《확고》한것이 못될것이다. 농업의 호조합작도 해마다 변하고있다. 과도기는 모순과 투쟁으로 가득차있다. 우리가 오늘 하고있는 혁명투쟁은 지어 과거의 무장혁명투쟁보다도 더 심각하다. 이 혁명은 자본주의제도와 모든 착취제도를 철저히 매장하는 혁명이다. 《신민주주의적사회질서를 확립한다》는 그 생각은 투쟁의 실정에 맞지 않는 생각이며 사회주의사업의 발전에 방해되는 생각이다.

《신민주주의로부터 사회주의를 향하여 나아간다.》 이렇게 제기하는것은 명확하지 못하다. 향하여 나아가간다고만 하였으니 해마다 향하여 나아가며 15년이 되도록 그냥 향하여 나아가간다고만 하겠는가? 향하여 나아가간다는것은 도달하지 못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제기하는것은 얼핏 보기에는 무방할것 같지만 자세히 분석하여보면 부적당한것이다.



《사유재산을 확보한다.》 중농들이 《뽕족해보일가 봐》 겁을 내며 《공산할가 봐》 겁을 내기때문에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이 구호를 내놓은것이다. 사실 이것은 옳지 않은것이다.

우리는 점차적으로 사회주의에로 과도하다고 제기하는데 이렇게 제기하는것이 비교적 좋다. 점차적이라고 하는것은 과도하는 기간을 15년으로 나누며 1년은 또 열두달로 나뉘어있다는 말이다. 너무 빨리 나아가면 《좌》경이 되고 나아가지 않으면 너무 우경이 된다. 《좌》경도 반대하고 우경도 반대하면서 점차적으로 과도하며 나중에는 전부 과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 해

[1] 여기에서 말하는 《과도기》란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되어서부터 사회주의적개조가 기본적으로 완수되기까지의 시기를 가리킨다. 이 과도기에 있어서의 당의 총로선과 총임무는 상당히 긴 기간에 국가의 공업화와 농업, 수공업, 자본주의적공공업에 대한 사회주의적개조물 기본적으로 완수하는것이다. 이 과도기는 모택동동지께서 1962년 9월 당의 8기10중전회에서와 그후에 언급하신 과도기와는 합의가 같지 않다. 후자는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 과도하는 전반 역사적시기를 가리킨다.

## 청년단의 공작에서는 청년의 특점을 돌보아야 한다\*

(1953년 6월 30일)

청년단이 당에 대하여 독립성을 부리던 문제는 이미 과거사로 되었다. 지금은 독립성을 부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청년단의 독립적인 공작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청년단은 당의 중심공작에 배합하여야 하지만 당의 중심공작에 배합하는 과정에 자기의 독립적인 공작이 있어야 하며 청년의 특점을 돌보아야 한다. 1952년에 나는 청년단중앙의 동지들과 담화할 때 당은 청년단의 공작을 어떻게 평도할 것인가, 청년단은 어떻게 공작할 것인가 하는 두가지 제목을 내어 청년단중앙에서 연구하도록 하였다. 이 두가지 제목에는 모두 어떻게 청년의 특점을 돌볼 것인가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각 지방의 당위들에서는 청년단의 공작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반영하고 있는데 만족스러운 점은 바로 당의 중심공작에 잘 배합하는데 있다고 한다. 이제 나는 만족스럽지 못한 점을 말하겠는데 그것은 청년

---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중국신민주주의청년단 제2차전국대표대회 주석단성원들을 접견하실 때 하신 담화이다.

단의 공작이 아직 청년의 특점에 맞지 않고 독립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과 청년단의 평도기관에서는 청년단의 공작을 평도할줄 알아야 한다. 즉 당의 중심임무를 둘러싸고 청년의 특점을 돌보면서 광범한 청년군중들을 잘 조직, 교육하여야 한다.

청년단은 당의 평도밑에서 각 방면의 혁명공작에 적극 참가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공장, 농촌, 군대, 학교 그 어디에서나 청년들이 없이는 혁명사업이 승리할수 없다. 중국의 청년들은 기를성이 강한바 당에서 맡겨준 여러가지 임무를 다 완수하고있다. 조선전쟁이 정지되고 토지개혁이 끝난 오늘 국내에서의 공작은 그 중점이 사회주의적개조와 사회주의건설에로 옮겨지고있다. 때문에 학습이 필요하다. 청년단은 청년들이 성년들과 함께 농촌에서는 농업생산을 잘하고 성시에서는 공업생산을 잘하고 학교에서는 학습을 잘하고 기관에서는 공작을 잘하고 군대에서는 국방군을 현대화한 군대로 잘 훈련하도록 청년들을 평도할줄 알아야 한다.

열네살부터 스물다섯살까지의 청년들은 학습도 하고 공작도 하여야 하지만 청년시기는 발육기이므로 만일 청년들의 신체발육에 중시를 돌리지 않는다면 매우 위험하다. 청년들은 성년들이 이미 알고있는 많은것들을 배워야 하므로 성년들보다 더 학습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학습과 공작에서 그들의 부담이 지나쳐서는 안된다. 더우기 열네살부터 열여덟살까지의 청년들은 로동강도가 성년들과 같아서는 안된다. 청년들은 좀

많이 놀고싶어하고 좀 많이 오락하고싶어하며 뛰놀고 싶어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또 연애도 하며 결혼도 하게 된다. 이 모든 면이 다 청년과 다르다.

나는 청년들에게 몇마디 말하려 한다. 첫째로, 신체단련을 잘할것을 축원한다. 둘째로, 학습을 잘할것을 축원한다. 셋째로, 공작을 잘할것을 축원한다.

나는 학생들의 수면시간을 한시간 더 증가시킬것을 제의한다. 지금 수면시간이 8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6~7시간밖에 안되므로 보편적으로 수면부족을 느끼고있다. 지식청년들은 신경이 쇠약해지기 쉽고 흔히 잠이 잘 들지 못하며 잘 깨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수면시간을 9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더 토론할것 없이 강박적으로 집행하도록 명령을 내려야 한다. 청년들이 잠을 잘 자야 할뿐더러 선생님도 수면이 보장되어야 한다.

혁명은 좋은 점을 많이 가져다주었지만 한가지 나쁜 점도 가져다주었는데 사람들이 하도 적극적이고 열성적이어서 너무 피로하게 되는 그것이다.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들의 신체건강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인, 농민, 전사, 학생, 간부들의 신체건강을 다 보장하여야 한다. 물론 신체가 건강하다고 하여 반드시 학습도 잘하는것은 아니다. 학습을 하는데는 방법이 좀 있어야 한다.

지금 초중학생들의 상학시간도 좀 많은데 적당히 줄이도록 연구하는것이 좋겠다. 적극분자들의 회의가

너무 많으니 이것도 줄여야 한다. 한 방면으로는 학습을 하여야 하고 다른 한 방면으로는 오락도 하고 휴식도 하고 잠도 차야 하는만큼 이 두 면을 충분히 고루 돌보아야 한다. 공농병청년들은 공작가운데서 학습하고있으므로 역시 공작하고 학습하는것과 오락하고 휴식하고 잠자는 이 두 면을 충분히 고루 돌보아야 한다.

두 면을 다 잘 틀어줘야 한다. 즉 학습과 공작도 잘 틀어줘거니와 수면, 휴식, 오락도 잘 틀어줘야 한다. 과거에는 한 면만 틀어주고 다른 한 면은 잘 틀어줘지 못하였거나 틀어줘지 않았다. 이제 오락도 좀 하자면 시간이 있어야 하고 설비가 있어야 하는데 이 면도 잘 틀어줘야 한다. 당중앙에서는 이미 회의차수와 학습시간을 줄이기로 결정하였는데 동무들이 그 집행을 감독하여야 하겠다. 집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왜 집행하지 않느냐고 따져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여 청년들로 하여금 신체단련을 잘하고 학습을 잘하고 공작을 잘하게 하여야 한다. 청년들의 몸은 돌보지 않고 청년들에게 일만 시키는 정도자가 있으면 동무들은 이 말을 가지고 들이대면 된다. 리유는 아주 충분하다. 즉 청년세대를 보다 훌륭히 자라나도록 보호하기 위하여서이다. 우리 세대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돌보지 않아서 손해를 보았다. 어른들에게는 식사할 때 밥상이 있어도 아이들에게는 없었다. 아이들은 울면 뺨이나 얻어맞았지 집에서 발언권이 없었다. 오늘 새 중국에서는 방침을 고쳐 청소년들을 관심하여야 한다.

청년간부를 청년단중앙위원으로 선거하여야 한다. 3국시대에 조조가 대군을 거느리고 동오를 치러 강남으로 간 일이 있다. 그때 동오의 통수는 《청년단원》인 주유였다. 정보 등 로장들이 불복하였으나 후에 그들을 설복하여 그냥 주유를 동오의 통수로 하였는데 결국 승전하였다. 오늘 주유를 청년단중앙위원으로 선거하려 하면 모두들 찬성하지 않는다! 청년단중앙위원을 나이 많은 사람들만 선거하고 젊은 사람들을 너무 적게 선거해서야 되겠는가? 물론 나이만 볼것이 아니라 능력도 보아야 한다. 청년단중앙위원 후선인명단가운데 서른살이하가 원래는 9명밖에 안되었는데 당중앙의 토론을 거쳐 지금은 60명으로 증가되었다. 그래도 4분의 1 남짓밖에 안된다. 서른살이상이 아직 거의 4분의 3이나 되는데 어떤 동지들은 그래도 적다고 한다. 나는 적지 않다고 본다. 60명명의 청년들이 모두 책임을 잘 감당하겠는지 파악이 없다고 하는 동지들이 있다. 청년들을 충분히 믿어야 한다. 그들의 절대다수는 책임을 감당할수 있을것이다.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있겠지만 앞으로 개선해서 바꾸면 될것이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는것이 기본방향에서는 틀림이 없을것이다. 청년들이 우리만 못하지 않다. 로년들은 경험이 있어 물론 청년들보다 낮지만 생리적기능이 점차 쇠퇴되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손발도 청년들처럼 민첩하지 못하다. 이것은 자연법칙이다. 그러므로 찬성하지 않는 동지들을 설복하여야 한다.

청년단은 청년의 특점을 돌보아야 하고 자기 계통의 공작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또 각급 당위의 평도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은 결코 그 어떤 새로운 발명인것이 아니라 벌써부터 있던것이며 맑스주의는 일관적으로 이렇게 주장하여왔다. 이것은 실제에서 출발한것이다. 청년은 어디까지나 청년이다. 그렇지 않다면 청년단은 해서 무엇하겠는가? 청년은 성년과 다르며 여성청년은 또 남성청년과 다르다. 이런 특점을 돌보지 않는다면 균중을 탈리하게 된다. 동무들이 청년의 특점에 주의를 돌리지 않으면 오늘의 900만 단원가운데서 동무들을 옹호할 사람은 100만뿐이고 800만이 옹호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청년단의 공작에서는 다수를 돌보아야 하며 그와 함께 선진적청년들에게도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일부 선진분자들은 만족감을 느끼지 않을수도 있으며 그들은 전체 단원들에게 다같이 엄격할것을 요구할것이다. 이렇게 하는것은 그리 적당하지 않으므로 그들을 설복하여야 한다. 단장초안에 규정된 의무는 많고 권리는 적은데 다수 사람이 따라서게 하기 위하여 좀 무르게 하는것이 좋겠다. 소수 사람만 보지 말고 다수 사람들에게 중점을 두어야 한다.

동무들의 단장초안에는 4개월동안 조직생활에 참가하지 않으면 자원탈퇴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너무 엄하다. 당장에도 6개월로 규정하였는데 동무들도 6개월로 규정하면 안되겠는가? 할수 없는 일이거나 또는 겨우 100만명이 할수 있고 800만명은 할

수 없는 일은 단장에다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 원칙성을 명활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응당 그렇게 해야 하는데 실지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사이에 는 거리가 있다. 일부 법률조문도 제대로 실시되자면 몇해가 걸린다. 폐컨대 혼인법가운데의 많은 조문들은 강령성을 띠고 있는데 이것들이 철저히 실시되자면 적어도 3차의 5개년 계획기간이 필요하다. 《배후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목은 원칙적으로는 옳은것이지만 단장에 써넣을 필요는 없다. 자유주의를 반대하는것은 장기적인 일이다. 당내에도 아직 자유주의가 적지 않다. 배후에서 한마디도 욱하지 못하게 한다는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너무 구속하지 말아야 하며 주로 적아 계선을 똑똑히 갈라야 한다.

위신은 차츰차츰 수립되는것이다. 지난날 군대내에 가요를 지어 욱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금지하지도 추궁하지도 않았지만 군대는 무너지지 않았다. 우리가 큰것들, 폐를 들면 3대기물, 8항주의 같은것들을 틀어쥐자 대오는 점차 제 궤도에 들어서게 되었다. 령도자에 대한 군중의 진정한 신망은 그들이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 령도자를 료해하였을 때에 생긴다. 깊은 료해가 있어야만 믿게 되는것이다. 지금 청년단중앙의 위신은 상당히 높다. 아직 청년단중앙을 신망있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차차 그렇게 보게 될것이다. 령도직위에 방금 오른 젊은 사람이 위신이 높지 못하다고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비평을 좀 듣고 욱을 좀 먹는것쯤은 피하기 어려운것이다. 《뒤끝목방



송》이 있게 되는것은 《정면방송》이 발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민주생활이 제대로 되어 직접 맞대고 허물을 적발하게 되면 《뒤꽂목방송》을 하라고 하여도 시간이 없다, 휴식하겠다고 하면서 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있을것이며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것이니 대번에 다 해결할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말아야 한다.

과도기에 있어서의 당의 총임무는 3차의 5개년계획을 거쳐 사회주의적공업화와 농업, 수공업, 자본주의적공상업에 대한 사회주의적개조를 기본적으로 완수하는것이다. 3차의 5개년계획이란 15년간이다. 해마다 자그만큼씩 한걸음 내디디고 5년에 크게 한걸음 내디디어 세번 크게 내디디면 비슷할것 같다. 기본적으로 완수한다는것은 전부 완수한다는 말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완수한다고 하는것은 신중히 한 말인데 세상일은 언제나 좀 신중히 하는것이 좋다.

오늘 중국의 농업은 그 대부분이 개체경제이므로 절차있게 사회주의적개조를 진행하여야 한다. 농업의 호조합작운동을 발전시킴에 있어서의 자원의 원칙을 전지하여야 한다. 농업의 호조합작운동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자본주의길을 걷게 될것이니 이것은 우경이다. 너무 급격하게 발전시켜도 안되는데 그렇게 하는것은 《좌》경이다. 준비있고 절차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준비가 없고 자신이 없는 싸움은 하지 않으며 준비만 있고 자신이 없는 싸움도 하지 않는다. 지난날 장개석과 싸울 때 시초에는 일부 사람들이 주

관주의적착오를 범하였으나 후에 정풍을 거쳐 주관주의를 없애버리자 승전하게 되었다. 지금은 사회주의적공업화와 농업, 수공업, 자본주의적공상업에 대한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수하기 위한 사회주의전투를 하고있다. 이것은 전국 인민의 총적임무이다. 청년단이 이 총적임무를 어떻게 집행할것인가에 대하여 동무들은 청년의 특점에 비추어 적당한 규정을 지어야 할것이다.

## 국가자본주의에 관하여\*

(1953년 7월 9일)

오늘 중국의 자본주의경제는 그 절대대부분이 인민 정부의 관리밑에 있는, 그리고 여러가지 형태로 사회주의적국영경제와 련결되어있고 공인들의 감독을 받는 자본주의경제이다. 이런 자본주의경제는 이미 일반적인 자본주의경제가 아니라 특수한 자본주의경제, 즉 새로운 형태의 국가자본주의경제이다. 그것은 주로 자본가의 리윤을 위하여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인민과 국가에 필요되는것을 공급해주기 위하여 존재한다. 물론 공인들이 자본가를 위하여 일부 리윤을 생산하고있는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전체 리윤중의 소부분, 대략 4분의 1좌우를 차지할뿐이고 그외의 4분의 3은 공인을 위하여(복리비), 국가를 위하여(소득세), 생산설비의 확대를 위하여(그중에는 자본가에게 리윤을 생산하여 주는 일소부분이 포함되어있다.) 생산하고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새로운 형태의 국가자본주의경제는 상당한 정도로 사회주의성질을 띠고있으며 공인과 국가에 유리한것이다.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1953년 여름의 전국재정경제공작회의의 한 문건에 쓰신 펴어이다.

## 과도기에 있어서의 당의 총로선\*

(1953년 8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되어서부터 사회주의적개조가 기본적으로 완수될 때까지가 하나의 과도기이다. 이 과도기에 있어서의 당의 총로선과 총임무는 상당히 긴 기간에 국가의 공업화와 농업, 수공업, 자본주의적 공상업에 대한 사회주의적개조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이 총로선은 우리의 각항 공작을 밝게 비춰주는 등대로 되어야 한다. 어떠한 공작에서나 이 총로선을 떠나면 우경적 또는 《좌》경적 착오를 범하게 된다.

이 총로선의 많은 방침, 정책들은 1949년 3월 당의 2중전회의 결의에 이미 제기되었고 또 거기서 원칙적인 해결을 보았다. 그런데 많은 동지들은 2중전회의 규정에 따라 공작하기 싫어하고 도리어 일부 문제들에서 2중전회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게 달리하기를 좋아하며 지어는 공공연히 2중전회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1953년 여름의 전국제정경제공작회의에서 한 주은태동지의 결론을 심열하시면서 쓰신 중요한 지시이다.

## 당내의 자산계급사상을 반대하자\*

(1953년 8월 12일)

이번 회의는 아주 성과적이었으며 주총리가 한 결론도 훌륭하다.

지금 우리는 《3반》, 《5반》 운동후 당내에 두가지 성질의 착오가 있다는것을 알수 있게 되었다. 한가지는 일반적인 착오, 이를테면 《다섯가지가 많은》 착오인데 이것은 누구나 다 범할수 있고 수시로 범할수 있는것이다. 《다섯가지가 많은》 착오는 《다섯가지가 적은》 착오로 변할수도 있다. 다른 한가지는 원칙적인 착오, 이를테면 자본주의적경향이다. 이것은 자산계급사상이 당내에 반영된것이며 맑스-레닌주의와 배치되는 럽장 문제이다.

《3반》, 《5반》 운동은 당내의 자산계급사상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그때에는 탐오와 럽비 이방면의 자산계급사상에 기본적인 타격을 주었을뿐이고 로선문제에서 반영된 자산계급사상은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자산계급사상은 재정경제공작뿐아니라 정법, 문교 및 기타의 공작에도 존재하며 중앙의 동지들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1953년 여름의 전국재정경제공작회의에서 하신 강화이다.

에게나 지방의 동지들에게나 다 존재한다.

재정경제공작에서의 착오에 대하여서는 작년 12월에 박일파동지가 《공사일물평등》이라는 새로운 세금제도를 내여놓은 때로부터 이번 회의에 이르기까지 엄숙한 비평을 하여왔다. 새로운 세금제도를 그냥 실시해나간다면 필연코 맑스-레닌주의에서 벗어나고 과도기에 있어서의 당의 총로선을 떠나 자본주의에로 발전하게 될것이다.

과도기는 사회주의에로 발전하는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에로 발전하는것인가? 당의 총로선에 근거하면 사회주의에로 과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상당히 장기적인 투쟁을 거쳐야 한다. 새로운 세금제도의 착오는 장자선(1)의 문제와는 다르다. 이것은 사상문제이며 당의 총로선을 떠난 문제이다. 당내에서 자산계급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사상상태로 말하면 당내에는 세가지 사람이 있다. 일부 동지들은 견정하고, 동요하지 않으며 맑스-레닌주의사상을 가지고있다. 일부 동지들은 사상이 기본상 맑스-레닌주의적이지만 비맑스-레닌주의사상도 약간 섞여있다. 소수 사람은 좋지 못한 사람들이며 사상이 비맑스-레닌주의적이다. 박일파의 그릇된 사상을 비판할 때 어떤 사람은 박일파의 착오를 소자산계급적개인주의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말하는것은 타당하지 않다. 자본주의에 유라하고 사회주의에 불리한 그의 자산계급사상을 주로 비판하여야 한다. 이렇게 비판하여야만 옳은것이다. 우리가 일찍 말한바이지만 《좌》경기회주의착오는

소자산계급적열광성이 당내에 반영된것이며 그것은 자산계급과 결렬한 시기에 생기는것이다. 자산계급과 합작한 세 시기, 즉 제1차국공합작시기, 항일전쟁시기와 오늘의 이 시기에는 다 자산계급사상이 당내의 일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그들을 동요하게 하였다. 박일파의 착오는 바로 이런 정황에서 범한것이다.

박일파의 착오는 결코 고립적인것이 아니다. 이 착오는 중앙에 있을뿐아니라 대행정구급과 성, 시급에도 있다. 각 대행정구와 성, 시에서도 회의를 소집하고 7기2중전회의 결의와 이번 회의의 결론에 비추어 자기의 공작을 검사하며 이를 통하여 간부들을 교육하여야 한다.

최근에 나는 무한, 남경 등지를 돌아보았는데 많은 형편들을 알게 되었으며 유익한 점이 적 많았다. 나는 북경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들을수 없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의지를 좀 나가다녀야 하겠다. 중앙의 령도기관은 사상제품을 만드는 공장인데 만일 하부의 정황을 모르며 원료도 없고 반제품도 없다면 어떻게 제품을 만들어낼수 있겠는가? 어떤것은 지방에서 이미 완제품으로 만들어내놓았으므로 중앙의 령도기관에서는 그것을 전국에 보급시키면 된다. 폐를 들면 구《3반》파 신《3반》<sup>(2)</sup>은 지방에서 먼저 한것이다. 중앙의 각 부들에서 함부로 지시를 내리고있다. 도리대로 말하면 중앙의 각 부에서는 상등품을 내놓아야 할것인데 지금은 등외품을 내놓고있으며 그중 많은 제품은 아무런 사용가치도 없어서 대량으로 폐기되고있다. 대행정

구와 성, 시의 령도기관은 사상제품을 만들어내는 지방공장인것만큼 역시 상등품을 만들어내야 한다.

박일파의 착오는 자산계급사상의 반영이다. 이 착오는 자본주의에 유리하고 사회주의와 반사회주의에 불리하며 7기2중전회의의 결의에 배치되는것이다.

우리는 누구에게 의거할것인가? 공인계급에 의거할것인가 아니면 자산계급에 의거할것인가? 일찍 7기2중전회의의 결의에서는 《전심전의로 공인계급에 의거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말하였다. 결의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생산을 회복발전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국영공업생산이 첫째이고 사영공업생산이 둘째이고 수공업생산이 셋째라는것을 확정하여야 한다. 중점은 공업이고 공업에서의 중점은 중공업이다. 이것은 국영에 속하는것이다. 목전 우리 나라의 다섯가지 경제성분중에서 국영경제가 령도적성분이다. 자본주의적공상업은 점차 국가자본주의에로 이끌어야 한다.

2중전회의의 결의에서는 생산의 발전에 기초하여 공인과 로동인민의 생활을 개선한다고 하였다. 자산계급사상을 가지고있는 사람은 이 점에 주의를 돌리지 않는 데 박일파가 바로 그 대표인물이다. 우리는 중점을 생산을 발전시키는데 두어야 하지만 그러나 생산을 발전시키는것과 인민의 생활을 개선하는것을 고루 돌보지 않으면 안된다. 복리는 돌보지 않을수 없으며 많이 돌봐도 안되고 돌보지 않아도 안된다. 지금도 인민의 생활을 돌보지 않으며 인민의 생사에 무관심한 간부들이 적지 않게 있다. 귀주에 있는 어느 탄이 농민의 농토를



대량으로 점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인민의 이익을 엄중하게 침범한 행위이다. 인민의 생활을 돌보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지만 중점은 여전히 생산건설에 두어야 한다.

자본주의경제를 리용하고 제한하고 개조하는 문제에 관하여서도 2중전회에서는 명백히 말하였다. 결의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사인자본주의경제에 대하여는 활동범위, 세금정책, 시장가격, 노동조건 등 면에서 제한하여야 하며 제멋대로 범람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 사회주의경제와 자본주의경제와의 관계는 령도와 피령도와와의 관계이다. 제한과 반제한은 신민주주의국가내부의 계급투쟁의 주요한 형태이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세금제도는 《공사일물평등》을 주장하고있다. 이것은 국영경제가 령도성분이라는 로선에 배치되는것이다.

개체적인 농업경제와 수공업경제를 합작화할문제에 관하여 2중전회의 결의에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쓰여있다. 《이러한 합작사는 사유제를 기초로 하는, 무산계급이 령도하는 국가정권의 관리하에 있는, 노동인민군중의 집체적경제조직이다. 중국인민이 문화적으로 낙후하고 합작사를 꾸린 전통이 없기때문에 우리가 합작사운동을 보급, 발전시키는 면에서 퍼그나 곤란을 느끼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조직할수 있고 조직하여야 하며 보급, 발전시켜야 하는것이다. 다만 국영경제만 있고 합작사경제가 없다면 우리는 노동인민의 개체경제를 점차 집체화어로 나아가도록 령도할수 없으

며 신민주주의국가로부터 장래의 사회주의국가에로 발전할수 없으며 국가정권에서의 무산계급의 령도권을 공고화할수 없다.» 이것은 1949년 3월에 지은 결의이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동지들이 이에 주의를 돌리지 않았으며 이것을 새로운 소식으로 여기고있는데 기실 이것은 묵은 소식이다. 박일파는 《농촌에서의 당의 정치공작을 강화하자》는 글을 썼다. 그는 이 글에서 개체농민이 호조합작을 거쳐 집체화에 이르는 길은 《순전한 공상이다. 왜냐하면 목전의 호조조는 개체경제에 기초한것이고 호조조가 이러한 기초우에서 점차 집체농장으로 발전될수는 없으며 이러한 길을 거쳐 전반적규모에서 농업을 집체화한다는것은 더구나 불가능하기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당의 결의에 위반되는것이다.

지금 두개의 통일전선, 두개의 련맹이 있다. 하나는 공인계급과 농민과의 련맹인데 이것이 기초이다. 하나는 공인계급과 민족자산계급과의 련맹이다. 농민은 착취자가 아니라 로동자이며 공인계급과 농민과의 련맹은 장기적인 련맹이다. 그러나 공인계급과 농민간에는 모순도 있다. 우리는 자원의 원칙에 좇아 농민을 개체소유제로부터 집체소유제에로 점차 인도하여야 한다. 앞으로 국유제와 집체소유제사이에도 모순이 있을것이다. 이런 모순은 모두 비대항적모순이다. 공인계급과 자산계급간의 모순은 대항적모순이다.

자산계급은 틀림없이 사람들을 부식시킬것이며 사랑포탄을 쏠것이다. 자산계급의 사랑포탄에는 물질적인것도 있고 정신적인것도 있다. 정신적사랑포탄이 박

일파라는 이 파벌을 맞이였다. 박일파의 착오는 자산계급사상의 영향을 받은것이다. 새로운 세금제도를 선전하는 사론에 대하여 자산계급이 박수를 보내니 박일파는 기뻐하였다. 새로운 세금제도에 대하여 박일파는 사전에 자산계급의 의견을 들었고 자산계급과 군사협정을 맺었지만 중앙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당시 상업부, 공소합작총사는 이에 찬성하지 않았고 경공업부도 불만을 표시하였다. 재정경제무역계통의 110만 간부와 직공중 절대다수는 좋으며 좋지 않은 사람은 소수이다. 좋지 않은 사람도 또 두 부류로 나눌수 있다. 한 부류는 반혁명분자들인데 이자들은 숙청하여야 한다. 한 부류는 착오를 범한 혁명자들로서 그들속에는 당원과 비당공작인원이 포함되어있는데 그들에 대하여서는 비평교육하는 방법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업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전당적으로, 우선 중앙과 대행정구 및 성, 시 3급의 당, 정, 군, 민의 령도기관에서 우경기회주의적인 그릇된 경향, 즉 당내의 자산계급사상을 반대하여야 한다. 각 대행정구와 성, 시에서는 적당한 시기에 지위서기와 전원이 참가하는 회의를 소집하고 비평과 토론을 전개하여 사회주의길과 자본주의길에 관한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업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체령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분산주의를 반대하고 주관주의를 반대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는 주관주의를 반대함에 있어서 맹목적

으로 너무 급격히 나아가는 주관주의도 반대하여야 하거니와 보수적인 주관주의도 반대하여야 한다. 과거 신민주주의혁명시기에 주관주의적착오를 범한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적인것도 있었고 《좌》적인것도 있었다. 진득수, 장국도는 우적이었으며 왕명은 처음에는 《좌》적이었고 후에는 우적이였다. 연안정풍때에는 집중적으로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부대적으로 경험주의를 반대하였는데 이 두가지는 다 주관주의에 속한다. 리론과 실재를 결합시키지 않고서는 혁명에서 승리할수 없다. 정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우리가 과거를 징계하여 금후를 삼가하게 하며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하는 방침을 취하는것은 옳은것이다. 이번에 박일파에 대하여 견결히, 철저히 비평하는것은 착오를 범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시정하게 하기 위하여서이며 사회주의의 승리적진척을 담보하기 위하여서이다. 지금은 사회주의혁명시기이지만 주관주의는 역시 있다. 조급해서 너무 급격히 나아가거나 보수하는것은 모두가 일을 실정에 맞게 처리하지 않는것이며 모두가 주관주의이다. 주관주의를 없애버리지 않고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성공할수 없다. 민주혁명시기에는 주관주의적착오를 정풍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전당의 동지들을, 정확한 로선을 집행한 동지들과 착오를 범한 동지들을 다 단결시켰다. 그리하여 모두가 연안에서 각 전선으로 달려나가 전당이 한결같이 뭉쳐 싸움으로써 전국적인 승리를 전취하였다. 지금은 간부들이 비교적 성숙되었으며 수준이 높아졌다. 그러므로 그리 길지 않은 시일내에 령도

공작중의 주관주의를 기본상 청산해버리고 주관과 객관이 합치되게 하기 위하여 힘쓰기 바란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의 관건은 집체령도를 공고히 하고 분산주의를 반대하는것이다. 우리는 줄곧 분산주의를 반대하여왔다. 1941년 2월 2일에 중앙에서는 각 중앙국, 각 장령들에게 보내는 지시에서 전국적의의를 띤 통전, 선언과 내부지시는 사전에 중앙에 청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5월에 중앙은 각 근거지의 대외선전을 통일할데 관한 지시를 발표하였다. 이해 7월 1일 당창건 20주년기념일에 중앙은 당성을 강화할데 관한 결정을 발표하였는데 거기에서는 치중하여 분산주의를 반대하였다. 1948년에는 분산주의를 반대할데 관하여 중앙에서 내린 지시가 더욱 많았다. 1월 7일 중앙에서는 보고제도를 확립할데 관한 지시를 내렸고 3월에는 또 보충지시를 내렸다. 이해 9월 정치국회의에서는 중앙에 대한 청시보고제도에 관한 결의를 지었다. 9월 20일에는 중앙에서 당위제를 진전히 할데 관한 결정을 지었다. 1953년 3월 10일 정부의 각 부문이 당중앙의 령도를 탈리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에서는 정부사업에 대한 령도를 강화할데 관한 결정을 지었다.

집중과 분산은 항상 모순된다. 성시에 들어온 이후 분산주의가 심해졌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주요하고 중요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먼저 당위에서 토론결정한후 정부에서 그것을 집행하여야 한다. 폐를 들면 천안문광장에 인민영웅기념비를 세우는

문제, 북경의 성벽을 허무는 문제와 같은 큰 문제는 중앙에서 결정한후 정부에서 집행하였다. 차요한 문제는 정부부문의 당조에서 처리할수 있다. 모든 문제를 다 중앙이 도맡아서 안된다. 분산주의를 반대하는것은 사람들이 제일 찬성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당내의 대다수 동지들은 집체령도를 관심하기때문이다. 집체령도에 대한 태도에서 당내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부류의 사람은 집체령도를 관심한다. 둘째부류의 사람은 그다지 관심하지 않으며 당위가 자기에 대하여 관리하는것도 좋지만 관리하지 않는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한다. 《관리하지 않는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은 당성이 없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고 《관리하는것도 좋다》는 생각은 그래도 당성이 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우리는 《관리하는것도 좋다》는 면을 틀어쥐여야 하고 당성이 없는 면에 대하여서는 설복교육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각 부가 자기 자기대로 하여 중앙이 각 부를 관리할수 없고 부장이 사장, 국장을 관리할수 없고 처장이 과장을 관리할수 없고 이렇게 아무도 서로 관리할수 없게 되면 결국은 술한 왕국이 생기고 800명의 제후가 분립한 격으로 될 것이다. 셋째부류의 사람은 극소수인데 그들은 집체령도를 전철히 반대하며 영원히 관리하지 않았으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한다. 당성을 강화할데 관한 결정에는 민주집중제의 기틀, 즉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고 개인은 조직에 복종하고 하급은 상급에 복종하고 전당은 중앙에 복종하는(이것은 다수가 소수에 복종하는것인데 이

소수는 다수를 대표하는것이다.) 기물을 엄격히 실시할것이 강조되어있다. 의견이 있으면 제기하여야 할것이다. 당의 단결을 파괴하는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다. 집체의 정치적경험과 집체의 지혜에 의거하여야만 당과 국가의 정확한 정도를 담보할수 있고 당내렬의 반석같은 일치단결을 보장할수 있다.

이 회의에서 류소기는 자기에게 착오가 좀 있다고 하였고 소평동지도 자기에게 착오가 좀 있다고 말하였다. 누구나 착오를 범하였으면 검토하여야 하고 누구나 당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각급 당위의 정도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당의 임무를 완성하기 위한 주요한 조건이다. 전국적으로 무정부상태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다. 박일파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는 정치상, 사상상에서 좀 부화하였으므로 그를 비평하는것은 전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태도, 배우려 하는 태도 및 동요없이 억세게 싸워나가는 정신을 제창하여야 한다.

동요없이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례를 들면 항미원조에서 우리는 미제국주의를 호되게 족쳐 그들로 하여금 무서워서 쫄쫄매게 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건설에 유리하며 우리의 건설을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가장 중요한것은 우리의 군대가 단련을 거쳐 병사는 용감해지고 간부는 슬기로워진것이다. 물론 우리도 인적손실을 보았고 돈을 썼고 대가를 내었다. 그러나 우리는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지 않으면 몰라도 일단 시작하면 끝까지 하고야만다. 호종남이 섬감녕변

구를 진공하였을 때 우리는 현소재지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었다. 그러나 우리는 나무잎을 먹어가면서라도 견디어낼 억센 정신을 가지고 변구에서 물러서지 않았었다.

배워야 하고 교오하지 말아야 하며 남을 깔보아서는 안된다. 계사니알이 닭알을 깔보고 흑색금속이 회유금속을 깔보는것과도 같이 남을 깔보는 태도는 비과학적이다. 중국은 큰 나라이고 중국의 당은 큰 당이지만 그렇다고 작은 나라, 작은 당을 깔볼 리유는 없다. 형제나라 인민들에 대하여 언제나 그들에게서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있어야 하며 진정한 국제주의정신이 있어야 한다. 대외무역면에서 어떤 사람은 교만하며 더무니없이 자고자대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전당적으로, 특히 출국인원들에게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고심히 배우고 고심히 일하여 15년 혹은 좀더 긴 기간에 사회주의적공업화와 사회주의적개조를 기본적으로 완수하여야 한다. 그때에는 우리 나라가 강대하여질것이지만 그래도 겸손하여야 하며 배우려는 태도를 영원토록 가지고있어야 한다.

7기2중전회에서 규정을 짓고서 결의에는 써넣지 않은것이 몇가지 있는데 첫째는 생일을 쇠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일을 천다 하여 장수하게 되는것은 아니다. 공작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둘째는 폐물을 주고받고 하지 않는다는것이다. 최저한도로 당내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는 축배를 드리지 않는다는것이다. 일정한 경우에는 드릴수도 있다. 넷째는 박수를 적게 쳐야 한다는것이다. 금지하지는 말아야 하며 군



중의 열정에서 나온 박수에 랭수를 끼이지는 말아야 한다. 다섯째는 사람의 이름으로 지명을 달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섯째는 중국의 동지를 맑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과 병렬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생과 선생과의 관계이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규정들을 준수하는 것이 겸손한 태도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겸손한 태도, 배우려 하는 태도 및 동요없이 억세게 싸워나가는 정신을 견지하며 집체령도제도를 견지하여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수하고 사회주의의 승리를 달성하여야 한다.

## 주 해

[1] 장자선은 일찍 중국공산당 원진지위 서기로 있었는데 자산계급에게 부식당하여 큰 탐오범으로 타락하였으므로 《3반》운동에서 사형당하였다.

[2] 구《3반》이란 1951년에 전개된, 탐오, 낭비, 관료주의를 반대한 투쟁을 가리키며 신《3반》이란 1953년에 전개된, 관료주의, 명령주의, 위법관기를 반대한 투쟁을 가리킨다.

## 자본주의적공상업을 개조함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

(1953년 9월 7일)

국가자본주의를 거쳐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개조를 완수한다.

(1) 지난 3년 남짓한 동안 이 방면의 공작을 다소 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일에 바빠서 힘을 많이 들이지 못하였다. 이제부터는 이 공작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다.

(2) 3년 남짓이 쌓은 경험에 비추어 이제는 국가자본주의를 거쳐 사영공상업에 대한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수하는것이 비교적 건전한 방침이며 방법이라는것을 긍정할수 있게 되었다.

(3) 공동강령 제31조<sup>[1]</sup>에 규정된 방침을 이제는 명확히 하며 점차 구체화하여야 한다. 소위 《명확히 한다》는것은 중앙과 지방의 령도자들이 우선 국가자본주의는 자본주의적공상업을 개조하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점차 완성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

---

모택동동지께서는 1953년 9월 7일에 민주당과 및 공상계의 부분적대표들과 담화를 하시였다.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쓰신 담화요점이다.

이라는것을 사상적으로 긍정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이 점은 공산당측도 그렇고 민주인사측도 그렇고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있다. 이번 회의의 목적은 이 점을 해결하려는데 있다.

(4) 온건하게 전진하여야 하며 너무 조급히 하여서는 안된다. 전국의 사영공상업을 기본상 국가자본주의의 궤도에 끌어들이자면 적어도 3년 내지 5년의 시일이 걸려야 할것이므로 놀라거나 불안해할것은 없다.

(5) 공사합영, 원료를 전부 대주고 제품전부를 접수하는 가공주문, 대부분 제품만 접수하는것——이것이 사영공업에 있어서의 국가자본주의의 세가지 형태이다.

(6) 사영상업에 대하여서도 국가자본주의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저 《배제》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이 방면에서는 경험이 많지 않으므로 더 연구하여야 하겠다.

(7) 약 380만명의 공인과 점원을 가지고있는 사영공상업은 나라의 큰 재부이며 국제민생에서 아주 큰 역할을 논다. 사영공상업은 국가에 제품을 제공할뿐 아니라 자금을 축적해주며 간부를 훈련하여줄수 있다.

(8) 일부 자본가들은 국가와 아주 멀리하며 리윤만 추구하는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있다. 일부 공인들은 너무 빨리 나아간다. 즉 자본가가 리윤을 좀 얻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두 방면의 사람들에 대하여 교육함으로써 그들이 점차로(그러나 될수 있는대로 빨리) 국가의 방침정책, 즉 중국의 사영공상업을 기본적으로는 국제민생에 복무하게 하되 부분적으로는 자본

가의 이익도 도모하게 하여야 한다——이렇게 하면 국가자본주의의 궤도에 들어서게 된다——는 방침정책에 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자본주의기업의 리윤분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일람표가 있다.

소득세	34.5%
복리비	15 %
공적금	30 %
자본가측 리윤	20.5%
합 계	100.0%

(9) 자본가들에게 계속 애국주의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시야가 넓고 공산당과 인민정부에 접근하려는 자본가를 계획적으로 일부분 배양하여야 하며 그들을 통하여 대부분의 자본가들을 설복하여야 한다.

(10) 국가자본주의의 실시는 필요성과 가능성에 근거하여야(공동강령) 할뿐아니라 자본가의 자원에 근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합작하는 사업이고 합작하는 이상 강박할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이 지주에 대한 취급과 다르다.

(11) 전국의 각 민족, 각 민주계급, 각 민주당파, 각 인민단체들은 지난 몇해동안에 커다란 진보를 가져왔다. 이제 3년 내지 5년이 더 지나면 그 진보가 더욱 클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3년 내지 5년내에 사영공상업을 기본상 다 국가자본주의의 궤도에 끌어들이수

있을것이다. 국영기업이 우세를 차지하는것은 이 임무를 완성하기 위한 물질적담보로 된다.

(12) 전반 과도기에 대하여 말한다면——여기에는 국가공업화를 기본적으로 완수하며 농업, 수공업, 자본주의적공상업에 대한 사회주의적개조를 기본적으로 완수하는것이 포함된다——그것은 3년 내지 5년에 완수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몇차의 5개년계획의 시일이 걸려야 한다. 이 문제에서는 아득한 장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상도 반대하여야 하거니와 조급해서 너무 급격히 나아가려는 사상도 반대하여야 한다.

(13) 하나는 령도자이고 하나는 피령도자이며 하나는 사리를 도모하지 않는자이고 하나는 아직 일부의 사리를 도모하는자인것 등등 이러한것들이 서로 다른 점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조건하에서는 사영공상업이 기본상 국계민생에 복무한다(리윤분배를 두고 말하면 약 4분의 3좌우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국영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증산절약을 하며 로동경쟁을 전개하며 로동생산물을 높이며 원가를 낮추며 량과 질을 제고하도록 공인들을 설복할수 있으며 설복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공, 사, 로, 자 각측에 다 유리하다.

## 주 해

[1] 공동강령 제31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있다. 《국가자본과 사인자본이 합작하는 경제를 국가자본주의성질의 경제라고 한다. 필요하고 가능한 조건하에서 사인자본을 국가자본주의방향으로 발전하도록 격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국가기업을 위하여 가공하거나 국가와 합영하거나 혹은 차대형식으로 국가의 기업을 경영하며 국가의 부원을 개발하도록 하는것 등이다.》

## 항미원조의 위대한 승리와 금후의 임무\*

(1953년 9월 12일)

항미원조는 3년간에 걸쳐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으며 지금은 한단락을 지었다.

항미원조의 승리는 무엇에 의하여 이룩되었는가? 방금 여러분은 정확한 평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평도가 하나의 요인이기는 하다. 정확한 평도가 없이는 일이 잘될수 없다. 그러나 주로는 우리의 전쟁이 인민전쟁이기 때문이며 전국 인민의 지원이 있고 중조 두나라 인민이 어깨걸고 싸웠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제국주의라는 적과 싸웠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몇배나 더 나은 무기를 가지고있으나 우리는 그들을 타승할수 있었으며 그들이 강화를 접수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무엇때문에 강화를 할수 있었는가?

첫째, 군사면에서 미국침략자는 불리한 상태, 언어맞는 상태에 빠졌다. 강화를 접수하지 않으면 그들의 전선전체가 격파되고 서울이 조선인민의 손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다. 이런 형세는 작년여름에 벌써 보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제24차회의에서 하신 강화이다.

이기 시작하였다.

작전 쌍방은 다 자기의 전선을 금성철벽이라고 한다. 우리측의 전선은 확실히 금성철벽이다. 우리의 전사와 간부는 슬기롭고 용감하며 죽음을 겁내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침략군은 죽음을 겁내며 군관들도 그리 평활하지 못하고 비교적 둔하다. 그들의 전선은 금성철벽인것이 아니며 견고하지 못하다.

우리측에 생긴 문제는 처음에는 싸울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고 후에는 막아낼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고 그다음에는 급양을 보장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고 마지막에는 세균전을 격파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 네가지 문제는 하나하나 다 해결되었다. 우리의 군대는 싸울수록 강하여졌다. 금년여름에 이르러 우리는 이미 한시간내에 적의 정면진지를 21키로메터 격파할수 있고 포탄을 수십만발 집중발사할수 있고 18키로메터를 진격할수 있게 되었다. 만일 이런 식으로 두번, 세번, 네번쯤 더 싸운다면 적의 전선은 몽땅 격파될것이였다.

둘째, 정치면에서 적들내부에는 해결할수 없는 모순이 수두룩하며 전 세계 인민이 강화할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셋째, 경제면에서 적들은 조선침략전쟁에 드는 돈이 너무 많아 국가예산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잃게 되었다.

이 몇가지 원인이 종합되어 적들로 하여금 강화를 접수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그중 첫째원인이 주요한 원인이다. 이 원인이 없으면 그들과 강화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미제국주의자는 매우 오만하여 시비곡직을 무시할수만 있다면 꼭 무시해버리며 시비곡직을 좀 고려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막부득이한 경우에 한한다.

조선전쟁에서 적은 109만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물론 우리도 대가를 내었다. 그러나 우리의 사상자수는 원래 예견하였던것보다는 훨씬 적으며 갯도를 판후에는 더욱 적어졌다. 우리는 싸울수록 강하여졌다. 미국 사람은 우리의 진지를 돌파하지 못하였을뿐아니라 도리어 번마다 우리에게 먹히우고말았다.

방금 여러분이 평도라는 이 요인을 제기하였는데 나는 평도가 하나의 요인이기는 하지만 군중이 방법을 강구하는것이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간부와 전사들은 여러가지 전투방법을 생각해내었다. 한가지 예를 들겠다. 싸움이 시작된 첫달에 우리는 자동차를 많이 손실보았다. 어떻게 할것인가? 평도자도 대책을 강구하였지만 주로는 군중들이 방법을 생각해내었다. 자동차길 량옆에 만여명이 보초를 서서 비행기가 오면 신호총을 쏜다. 그러면 운전수가 비행기를 피하면서 달리거나 혹은 적당한 곳에 자동차를 은폐한다. 동시에 자동차길을 넓히고 또 새길을 많이 닦아 자동차가 거침없이 오가게 하였다. 이렇게 한 결과 자동차의 손실이 초기의 40%로부터 0점 몇%로 줄어들었다. 후에는 지하에다 창고도 짓고 강당도 지어 우에서는 적의 폭탄이 터져도 우리는 밑에서 대회를 하였다. 북경에 있는 우리의 일부 사람들은 조선의 전쟁



더를 생각만 해도 상당히 위험한감을 느낀다. 물론 위험한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사람이 방법을 강구하면 그렇게 대단한것도 아니다.

인민에 의거하고 또 비교적 정확한 령도가 있으면 련세한 장비를 가진 우리가 우세한 장비를 갖춘 적을 전승할수 있다는것이 우리의 경험이다.

항미원조전쟁의 승리는 위대하며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첫째, 조선인민과 함께 '38선까지 다시 쳐나갔으며 38선을 지켜내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것이다. 만일 38선까지 다시 쳐나가지 않고 전선이 그냥 압록강, 도문강에 있다면 심양, 안산, 무순 등지의 인민들이 마음놓고 생산에 종사할수 없을것이다.

둘째, 군사적경험을 얻었다. 우리 중국인민지원군의 육군, 공군, 해군 그리고 보병, 포병, 공병, 땅크병, 철도병, 방공병, 통신병 그리고 또 위생부대, 후군부대 등등은 미국침략군과 싸운 실전경험을 얻었다. 이번에 우리는 미국군대의 실력을 떠보았다. 미국군대와 맞붙어보지 않으면 그것을 무서워할수 있다. 우리는 33개월간의 전투를 통하여 그들의 실력을 잘 알게 되었다. 미제국주의도 그저 그런것이지 무서워할것이 없다. 우리가 쌓은 이 경험은 대단한 경험이다.

셋째, 전국 인민의 정치각오가 높아졌다.

우에 말한 세조목에 의하여 네번째조목이 생겼는데 그것은 즉 제국주의의 새로운 중국침략전쟁을 지연시켰고 제3차세계대전을 지연시킨것이다.

오늘 이미 조직되어 일떠선 중국인민에 대하여서는 건드릴수 없으며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이 난다는 것을 제국주의 침략자들은 알아야 할것이다.

금후에도 적은 우리와 싸우려 들것이다. 싸우려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특무를 파견하여 파괴활동을 감행하는 등 갖은 방법을 다하여 교란할것이다. 그들은 대만, 향항, 일본 등지에 방대한 특무기구를 설치하여놓았다. 그렇지만 우리는 함미원조에서 경험을 얻었다. 군중을 발동하고 인민에 의거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들을 대처할수 있는것이다.

오늘 우리의 정황은 1950년 겨울의 정황과는 달라졌다. 그때 미국침략자가 38선 저쪽에 있었는가? 아니다. 그들은 압록강, 도문강 저쪽에 있었다. 우리에게 미국침략자와 싸운 경험이 있었는가? 없었다. 미국군대를 잘 알고 있었는가? 잘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정황이다 바뀌어졌다. 만일 미제국주의가 새로운 침략전쟁을 미루지 않고 싸우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앞에서 든 첫 세조목으로 그들에 대처할것이다. 만일 그들이 싸우지 않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네번째조목이 있게 된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인민민주정정의 우월성을 증명하여준다.

우리가 남을 침략하러 가는가? 우리는 아무데도 침략하러 가지 않는다. 그러나 남이 우리를 침략하면 우리는 기어코 싸워야 하며 끝까지 싸워야 한다.

중국인민에게는 평화를 찬성하지만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느것이든 다 할수 있다는 원칙이 있다.

우리에게는 인민의 지지가 있다. 항미원조전쟁에서 인민들은 참군할것을 앞다투어 지원하였다. 지원자들의 선발은 백명에서 한명을 뽑는 정도로 매우 엄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위감을 고르는것보다 더 엄하다고 하였다. 만일 미제국주의가 더 싸우려 하면 우리는 그들과 계속 싸워나갈것이다.

싸우자면 돈이 든다. 그러나 항미원조전쟁에서 쓴 돈이 그리 많지는 않다. 몇해 싸웠는데 쓴 돈이 1년동안의 공상업세만치도 안된다. 물론 싸우지 않아도 되어 이 돈을 쓰지 않을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것이다. 그것은 지금 건설에 돈이 필요하며 농민들의 생활도 아직 곤란하기때문이다. 작년, 재작년에 농업세가 좀 과중하였다. 그래서 일부 벗들이 말이 많았다. 그들은 마치 자기가 농민의 리익을 대표하는듯이 《인정을 실시하라》고 요구하였다. 우리는 이런 의견에 찬성하는가? 찬성하지 않는다. 그때에는 항미원조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농민을 놓고 말할 때, 전국 인민을 놓고 말할 때 생활이 잠시 좀 곤란하더라도 승리를 전취하는것이 유리하였는가, 아니면 항미원조를 하지 않고 그만한 돈을 쓰지 않는것이 유리하였는가? 물론 항미원조의 승리를 전취하는것이 그들에게 유리하였다. 항미원조에 돈을 써야 하기때문에 작년과 재작년에 우리는 농업세를 좀더 징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금년은 정형이 다르다. 우리는 농업세를 증가시키지 않고 그 액수를 안정시켰다.

《인정을 실시하라》는데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인정을 실시하려 한다. 그런데 어떤것이 최대의 인정인가? 그것은 항미원조이다. 이 최대의 인정을 실시하자면 희생은 내게 되고 돈을 쓰게 되며 농업세를 좀더 징수하게 된다. 농업세를 좀더 징수하자 어떤 사람들은 왠작고아대면서 자기들은 농민의 리익을 대표해서 말한다느니 뭐니 하였다. 나는 이런 의견에 찬성하지 않는다.

항미원조를 하는것이 인정을 실시하는것이고 오늘 공업건설을 발전시키는것도 역시 인정을 실시하는것이다.

인정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는 인민의 당면한 리익을 위하는것이고 또 한가지는 항미원조, 중공업건설과 같은 인민의 장원한 리익을 위하는것이다. 전자는 작은 인정이고 후자는 큰 인정이다. 이 량자를 다 돌보아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것은 잘못이다. 그러면 어디에 중점을 들것인가? 큰 인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인정을 실시하는 중점을 중공업건설에 두어야 한다. 건설하자면 자금이 필요하다. 그렇기때문에 인민의 생활을 개선하기는 해야 하지만 당분간은 많이 개선할수 없다. 다시말하면 인민의 생활을 개선하지 않아서는 안되지만 많이 개선할수는 없으며 돌보지 않아서는 안되지만 많이 돌볼수는 없다. 작은 인정을 돌보느라고 큰 인정을 방해하는것은 인정을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편향이다.

어떤 벗은 작은 인정을 편면적으로 강조하고있는데 기실인즉 항미원조전쟁을 하지 말며 중공업건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그릇된 사상

을 반드시 비평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상은 공산당내에도 있는데 일찍 연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1941년에 섬감녕변구에서 공량 20만섬을 징수하였을 때 확장 고아대면서 공산당이 농민을 관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공산당의 개별적령도간부들도 소위 인정을 실시할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때 나는 이러한 사상을 비평하였다. 그때 최대의 인정이 어떤 것이었는가?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는 것이었다. 만일 공량을 적게 징수하자면 팔로군, 신사군을 축소하여야 하였고 그렇게 하면 일본제국주의에게 유리할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견은 실지에 있어서 일본제국주의를 대표한 것이며 일본제국주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지금 항미원조는 한 단락을 지었다. 만일 미국이 더 싸우려 한다면 우리도 계속 싸울 것이다. 싸우자면 량곡을 징수하여야 하며 농민들속에서 물건을 좀 내어놓도록 설득하는 공작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농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다. 확장 고아대는 것은 실지에 있어서 미제국주의를 대표하는 것이다.

도리에는 큰 도리와 작은 도리가 있다. 전국 인민의 생활수준을 해마다 한층 더 높여야 하지만 너무 높여서는 안된다. 만일 너무 많이 높인다면 항미원조전쟁을 진행할 수 없거나 것처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철저히, 본격적으로, 전력을 다하여 싸워야 한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면 조선전선에서 요구하는 대로 무엇이든 다 공급하여야 한다. 이 몇해동안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여왔다.

## 량수명의 반동사상을 비판하자\*

(1953년 9월 16일—18일)

(1) 량수명선생은 《주대있는 사람》인가? 그는 평화담판에서 어떤 역할을 놀았는가?

량선생은 《주대있는 사람》이라고 자처하고있으며 항항의 반동신문들도 량선생을 대륙에서 《가장 주대있는 사람》이라 하고있다. 대만의 방송도 당신을 대단히 취올리고있다. 당신이 정말 《주대》있는가? 만일 당신이 《주대》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역사를, 과거 어떻게 공산당을 반대하고 인민을 반대하였으며 어떻게 붓으로 사람을 죽였으며 한복구, 장동손, 진립부, 장군파는 도대체 어떠한 관계였는가 하는것을 여러 사람들앞에 그대로 내놓아야 할것이 아닌가! 그들은 모두가 다 당신의 친근한 벗이다. 나에게는 그렇게 많은 벗이 없다. 그들은 당신에게 그렇게도 환심을 가지고있어 나에게 대해서는 《토비》라고 욕하나 당신에 대해서는 선생이라고 부른다. 당신은 어느 당, 어느 파인가! 나는 의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제27차회의 기간에 하신 량수명에 대한 비판의 주요부분이다. 이 회의는 1953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북경에서 열리었다. 이 회의에는 북경에 있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였다.

심된다. 나뿐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다.

방금 주총리가 한 발언을 통하여 모두가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와 국민당사이에 진행된 두차례에 걸친 평화담판의 긴요한 고비에 량선생은 전적으로 장개석을 방조하는 립장에 서있었다. 장개석이 평화담판을 동의한것은 가짜였다. 오늘 이 자리에는 평화담판을 하러 북경에 왔던 대표도 있는데 그들은 장개석이 부르짖은 <평화>가 도대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다 알고있다.

까놓고 말하면 장개석은 총으로 사람을 죽였고 량수명은 붓으로 사람을 죽였다. 사람을 죽이는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한가지는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것이고 한가지는 붓으로 사람을 죽이는것이다. 아주 교묘하게 위장하고 피도 나지 않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붓으로 사람을 죽이는것이다. 당신이 바로 이런 살인범이다.

량수명은 극히 반동적이다. 그런데 그는 이 점을 승인하지 않으며 자기는 아주 아름답다 한다. 그는 부작의선생과는 다르다. 부선생은 자기가 극히 반동적이라는것을 공개적으로 승인하였다. 그런데 부선생은 북경을 평화적으로 해방할 때 인민을 위하여 공을 세웠던것이다. 량수명, 당신의 공로는 어디에 있는가? 당신은 한평생 인민에 대하여 무슨 공로가 있는가? 조금도 없으며 털끝만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자기자신을 서시보다도 아름답고 왕소군보다도 아름답고 양귀비와도 비길수 있는 대단한 천하일색으로 묘사하고있다.

(2) 량수명은 이른바 《구중천과 구중지옥》이라는 것을 들고나오면서 《공인은 구중천위에 있고 농민은 구중지옥아래에 있으며》, 《공인에게는 의거할만한 공회가 있지만 농회는 의거할수 없고 당, 단, 부련회 등도 의거할수 없으며 그것들이 질적으로나 량적으로나 다 형편없어 공상연합회보다도 못하니 신심이 없다》고 말하고있다. 이것이 《총로선을 찬성하는것》인가? 아니다! 이것은 에누리없는 철저한 반동사상이다. 이것은 합리화전의가 아니라 반동화전의이다. 인민정부가 이런 건의를 채택할수 있겠는가? 나는 채택할수 없다고 생각한다.

(3) 량선생은 《계획의 내용을 좀더 알려줄것을 요구한다》. 나는 역시 찬성하지 않는다. 좀더 알려주기는 고사하고 량선생 같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기밀을 적게 알려주어야 한다.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량수명이란 사람은 믿을수 없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밀을 좀더 알려줄수 있어도 당신만은 안된다. 비교적 소형적인 민주당파회의에도 량수명 당선이 참가할 필요는 없다.

(4) 량선생은 또 자기는 진보적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비진보적인 부류에 넣지 말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있다. 이 요구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할것인가? 응당 신중하여야 하며 경솔히 응낙하여서는 안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잘못하면 속임수에 넘어가게 될것이다.

(5) 량선생은 자기를 대단히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즉 그는 수십년전에 벌써 계획적건국의 위대한  
 몽상을 가지고있었다는것이다. 그리고 그자신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신민주주의 또는 사회주의에 매우 가까  
 운것이였다고 한다.

과연 그렇게 아름다운가? 그렇지 않다. 나는 그를  
 비교적 잘 아는 처지인데 그를 만나서 그의 그릇된 사  
 상을 비평하지 않은적이 없다. 나는 당신의 그따위것들  
 을 종래로 믿지 않는다고 맞대놓고 말한적이 있다. 그  
 에게는 《중국에는 계급이 없다》느니 《중국은 문화가 균  
 형을 잃은것이 문제》라느니 《무색투명정부》〔1〕라느니  
 《중국의 혁명에는 외부적원인은 있어도 내재적원인은  
 없다》느니 하는것들이 있었다. 이번에는 또 《구중천과  
 구충지옥》이니 《공산당은 농민을 버렸다》느니 《공산당  
 은 공상연합회보다 미덥지 못하다》느니 뭐니 하는 이  
 러루한 고명한 문조들이 그에게서 들려오고있다. 이  
 모든것이 나를 설득시킬수 있겠는가? 설득시킬수 없  
 다. 나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적이 있다. 중국은  
 반식민지, 반봉건이라는 특점을 가지고있는데 당신이  
 이 점을 승인하지 않는다는것은 바로 제국주의와 봉건  
 주의를 방조하고있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아무도 당  
 신의 그따위것들을 믿지 않으며 인민은 모두가 공산당  
 을 믿고있는것이다. 반동분자나 머리가 일떨떨한 사람  
 들밖에는 당신의 책을 보거나 당신의 말을 듣는 사람  
 이 없다. 량선생은 장개석을 반대하는것 같지도 않다.  
 도대체 량선생이 장개석 및 그의 반동적인 국민당을 반  
 대한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한적이 있는지, 나는 그의

모든 글과 담화를 다 보거나 듣지 못하였으니 여러분이 연구하여보기 바란다.

이러한 사람으로서 인민의 국가에 향하여 자기에 게 더욱 많은 계획과 기밀을 알려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보기에는 그럴 자격이 없다. 우리가 그의 이런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가? 들어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6) 량선생은 또 우리에게 자기를 비진보파 혹은 반동파의 부류에 넣지 말고 진보파 혹은 혁명파의 부류에 넣어달라는 요구를 제기하였다. 이것은 《성분을 획분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상술한 그런 형편에서 우리가 그를 진보적인 혹은 혁명적인 류형에 넣을수 있겠는가? 그의 진보한 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가 언제 혁명에 참가한적이 있는가? 그렇기때문에 이 요구도 경솔하게 들어줄것이 못되므로 차차 보아야 하겠다.

(7) 이 몇해동안에 나는 공산당은 어째서 반동분자와 합작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 약간의 인민태신을 받았고 또 그런 의론을 좀 들었다. 그들이 말하는 반동분자란 종래로 신문지상과 공개적인 장소에서 제국주의, 봉건주의, 장개석 및 그의 반동적인 국민당을 반대한다고 표시하기 싫어하는 그리고 국가공작인원으로서의 최저한도의 립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특히 장개석을 반대하기 싫어한다. 그렇기때문에 대만의 방송과 향항의 신문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대하여 특히 호감을 표시하고있으며

종래로 욱한적이 없을뿐아니라 그들을 대륙에서 《가장 주대있는 사람》이라 하고있다. 바로 그속에 량수명이 들어있다. 그런데 일부 벗들에 대하여서는 사정없이 중상하며 욱절하고있다. 대만에서 욱을 하지 않거나 취올리는 사람은 물론 소수이지만 그러나 대단히 주의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부 사람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한다는 말은 그래도 하지만 지금까지 장개석을 반대한다는 말은 죽어도 하려 하지 않는다. 신문지상에서나 공개적인 언론에서 그들은 과거에 대하여 감히 말하지 못하며 과거에 대하여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있다. 내가 보건대 이런 사람이 몇사람 잘된다.

애국주의에는 세가지가 있다. 한가지는 진짜애국주의이고 한가지는 가짜애국주의이고 한가지는 진짜 절반에 가짜 절반인 동요하는 애국주의이다. 누구나 속으로는 짐작이 있을것인데 량수명도 속으로는 짐작이 있을것이다. 제국주의 및 대만측과 정말 관계를 끊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그가 아무리 락후하더라도 우리는 환영한다. 이 부류는 진짜애국주의이다. 가짜애국주의는 절은 빈틈없이 치장하였지만 속은 떠판이다. 다른 한가지는 동요분자로서 절반은 진짜이고 절반은 가짜이며 형세를 보아가며 처사한다. 만일 제3차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고 장개석이 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공산당을 계속 따르게 된다. 만일 제3차세계대전이 일어나면 그들은 떠 궁리를 하게 된다. 다수 사람들은 어느 부류인가? 다수 사람들은 진짜애국주의이다. 수년래 진짜

애국주의는 많아졌으며 진짜 절반에 가짜 절반인 애국주의는 소부분으로 되었으며 가짜애국주의는 매우 적어지기는 하였으나 아직 있다. 이런 분석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여러분이 연구하는것이 좋겠다.

(8) 량수명은 마땅히 한가지 일을 하여야 할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일은 그가 《농민을 대표하여》 인민정부에 《해방을 호소하는》것이 아니라 자기의 반인민적반동사상의 역사적발전과정을 똑똑히 내놓는 그것이다. 그가 과거에는 어떻게 지주를 대표하여 공산당과 인민을 반대하였고 지금은 또 어떻게 지주를 대표하던 립장으로부터 《농민을 대표하는》 립장으로 돌아섰는가 하는 이 변화과정을 설명할수 있고 또 사람들을 납득시킬수 있게 되었을 때에야 그를 어느 부류에 넣을것인가 하는것을 확정할수 있다. 그가 나에게 준 인상은 그는 종래로 자기의 반동립장을 개변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것이다. 그러나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그에게 반성할 시간을 줄것과 이 일을 이번에는 결론짓지 않고 정치협상회의에 넘겨 처리하도록 할것을 나는 건의한다.

(9)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사람마다 다 있다.》<sup>[2]</sup>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일은 잘못된다. 농민문제에 대한 량선생의 견해가 공산당의 견해보다 고명하다고 해서야 누가 곧이들겠는가? 이것은 로반앞에서 주제넘게 목수재간을 부리려 드는 격이다. 례를 들어 말하면 《모택동이 매란방선생보다 극을 더 잘 놀며 지원군보다 갱도를 더 잘 판다거나 홍

군영웅 조보동보다 비행기를 더 잘 본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수치를 모르는 한심한 말이겠는가? 그러므로 량선생이 제기한 문제는 엄숙한 문제이면서 또 엄숙하지 못한 문제이기도 한바 그것은 아주 우습강스러운 일이다. 그는 자기가 공산당보다 농민을 더 잘 대표한다고 하고있으니 이것이 과연 우습강스럽지 않겠는가?

《농민대표》가 이처럼 많이 나왔는데 그들은 대체 누구를 대표하는가? 정말 농민을 대표하는가? 내가 보기에는 그런것 같지 않으며 농민들이 보기에도 그런것 같지 않을것이다. 그들은 지주계급을 대표하며 지주계급을 도와준다. 그가운데서도 가장 돌출하고 감언리설을 늘어놓으면서 실제상 적을 도와주고있는자는 량수명이다. 그밖에 사상이 모호하여 모호한 언사를 좀 던진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그들은 그래도 애국주의자이며 그래도 중국을 위하려는 마음이 있다. 이러한 사람이 한 부류이다. 량수명은 다른 부류에 속한다. 그리고 또 《농민대표》로 가장한, 량수명과 비슷한 사람이 있다. 가장하는 일은 사실 있는데 바로 지금 그것을 보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우꼬리가 있으므로 사람들이 알아내게 되는것이다. 손오공은 일흔두가지 둔갑을 하지만 꼬리를 잘 변화시키지 못하는 곤난이 있었다. 손오공이 절간으로 둔갑하고 꼬리를 기대로 변화시켰으나 결국은 양이랑이 그것을 알아냈다. 무엇을 보고 알아내었는가? 바로 그 꼬리를 보고 알아냈다. 사실 이런 사람이 있다. 그들이 아무리 잘 위장한다 하더라도 꼬리는 감추지 못한다.

량수명은 야심가이며 위군자이다. 그가 정치를 불문한다는것은 거짓말이며 벼슬을 하려 하지 않는다는것도 거짓말이다. 그는 소위 《농촌건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농촌건설》인가? 그것은 지주의 건설이고 농촌의 파괴이며 나라의 멸망이다!

(10) 이 사람과 교섭하는데는 정식으로 할수 없는 것이다. 그는 논리성이 없이 허튼소리밖에 할줄 모르기때문에 그와는 영원히 아무 문제도 똑똑히 의론할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 문제를 정치협상회의 격주좌담회의 토론에 교부할것을 제의한다. 그러면서 나는 또 여러분에게 정말 문제를 해결할 가망이 있으리라고는 절대 믿지 말것을 경고하는바이다.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에 가서는 여전히 《토론은 하나 결정짓지 못하며 결정은 지어도 집행하지 못하며 결과가 없이 헤어지고말게》 될것이다. 이러하다 하더라도 나는 역시 여러분에게 격주좌담회를 열어 시험해 볼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두어사람 파견하여》 그의 설교를 듣는것보다 나을것이다.

(11) 우리가 이 기회를 리용하여 그와 관계를 끊고 앞으로는 그와 대왕하지 않으려는것이 아닌가? 그런것도 아니다. 그자신이 우리와 대왕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계속 그와 대왕하려 한다. 나는 또 제2차정치협상회의 전체회의에서도 그가 위원으로 선거되기를 희망한다. 그 원인은 아직도 일부 사람들이 그에게 기만당하기를 원하고있고 그를 묘해하지 못하고있으며 그가 아직 산 교재로서의 역할을 늘수 있기때문이다. 그러

니만큼 그 자신이 정치협상회의의 연단을 빌어 자기의 반동사상을 퍼뜨릴 생각을 그만두기전까지는 여전히 위원으로 선거될 자격이 있는것이다.

앞에서 말하였지만 량수명은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좋은 점도 없다. 그래 그에게 공상계에서 제품을 공급하고 소득세를 바치는것과 같은 그런 좋은 점이 있는가? 없다. 그에게 생산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번영시키는 좋은 점이 있는가? 없다. 그가 기의한적이 있는가? 없다. 그가 언제 장개석을 반대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한적이 있는가? 없다. 그가 언제 중국공산당에 배합하여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타도한적이 있는가? 없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공로가 없다. 이 사람은 함미원조와 같이 이렇게 위대한 투쟁에 대하여서도 고개를 끄덕인것이 아니라 도리를 저었다. 그런데 어째서 또 그가 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의 위원으로 될수 있었는가? 중국공산당은 어째서 그를 위원으로 추천하였는가? 그것은 그가 아직도 일부 사람들을 기만할수 있으며 기만적역할을 좀 놀수 있기때문이다. 그는 바로 사람을 기만하는 자격에 의거하고있다. 그는 바로 사람을 기만하는 자격을 가지고있는것이다.

량수명에게 있어서는 그를 옳다고 승인하는 사람은 《아량》이 있는 사람이고 그를 옳다고 승인하지 않는 사람은 《아량》이 없는 사람인것이다. 이러한 《아량》은 우리에게 있는것 같지 않다. 그렇지만 당신 량수명을 계속 정치협상회의위원을 시킬 그만한 《아량》은 역시 가지고있다.

(12) 공자의 결점에 관하여 말하면 민주적이 못하고 자아비평정신이 없는것이 그의 결점이였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은 량선생과 좀 비슷하다. 《나에게 자료가 있게 된후로부터 육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게 되었다》〔3〕, 《세번 가득찼다가 세번 텅 비었다》〔4〕, 《석달만에 소정묘를 죽였다》〔5〕 하였으니 이 얼마나 악패작풍이 많으며 파썸냄새가 풍기는가. 나는 벗들이, 특히 량선생이 공자의 이런것들을 따라배우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만 되면 나는 매우 기쁘겠다.

(13) 량선생이 제고시킨 그 강령대로 한다면 중국은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없을뿐만아니라 당(공산당 및 기타)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게 될것이다. 그의 로선은 자산계급로선이다. 박일파의 착오는 자산계급사상이 당내에 반영된것이다. 그러나 박일파는 량수명보다 낫다.

량수명은 공인들은 《구중천우》에 있고 농민들은 《구중지옥아래》에 있다고 말하고있다. 사실은 어떠한가? 차이는 있으며 공인들의 수입이 농민들보다 좀 많기는 하다. 그러나 토지개혁이후에 농민들은 토지가 있고 집이 있으며 생활이 나날이 좋아지고있다. 어떤 농민은 공인보다도 생활이 낫다. 공인도 어떤 사람은 생활이 아직 곤난하다. 무슨 방법으로 농민들의 수입을 더 높일것인가? 량수명, 당신은 방법이 있는가? 당신의 의사는 《적은것이 걱정이 아니라 고르지 않은것이 걱정이라》〔6〕는것이다. 만일 당신의 방법대로 한다면 농민자신의 로동생산에 의하여 그들의 수입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들의 공자를 농민들에게 일부분 떼주어 농민들의 수입과 균등하게 만들어야 할것인데 그렇게 하면 중국의 공업을 궤멸시키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떼내면 나라가 망하고 당이 망하게 된다. 당이 망하게 된다는 이것을 다만 공산당이 망하게 된다는것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거기에는 민주당과도 한몫 있다.

당신은 공인들이 《구중천우》에 있다고 하는데 그레량수명, 당신은 어느 천우에 있는가? 당신은 십중천, 십일중천 우에, 아니 십이중천, 십삼중천 우에 있다. 당신의 봉급은 공인들보다 훨씬 많지 않은가! 당신은 자기의 봉급부터 낮추자고 하지 않고 공인들의 공자부터 낮추자고 하는데 내가 보건대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공정하게 하자면 당신의 봉급부터 낮추어야 할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구중천우》보다 더 높은데 있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공농련맹을 30몇년동안이나 주장하여왔다. 맑스-레닌주의는 바로 공농련맹, 공농합작을 주장한다. 중국에는 지금 두가지 련맹이 있다. 하나는 공인계급과 농민계급과의 련맹이고 하나는 공인계급과 자본가, 대학교수, 고급기술인원, 기의장군, 종교수령, 민주당과, 무당파민주인사와의 련맹이다. 이 두가지 련맹은 다 필요한것이며 또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것이다. 어느 련맹이 기초이고 가장 중요한것인가? 공인계급과 농민계급과의 련맹이 기초이고 가장 중요한것이다. 량수명은 공농련맹이 파괴되었다느니 국가전설은

가망이 없게 되었다느니 뭐니 하고 있다. 그 뜻인즉 만일 량수명의 의견을 채택하지 않으면 공농련맹을 잘할 가망이 없으며 국가건설을 잘할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주의도 가망이 없다는 것이다! 량수명이 말하는 그런 《공농련맹》은 확실히 가망이 없다. 당신의 로선은 자산계급로선이다. 당신의 로선을 실시하면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고 중국은 다시 반식민지반봉건의 옛길로 되돌아가게 되며 북경에서는 장개석과 아이젠하워를 환영하는 대회를 열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절대 당신의 로선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

량수명은 우리가 성시에 들어오자 농촌을 《잊어버렸다》으므로 농촌은 《공허》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리간을 붙이는 것이다. 지난 3년동안 우리는 주요한 력량을 농촌공작방면에 들렸던 것이다. 금년에 비로소 많은 주요한 간부들이 성시공작방면으로 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다수 간부들은 여전히 현, 구, 향에서 공작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농촌을 잊어버렸다고 말할수 있는가!

량수명은 또 우리의 농촌공작이 《락후》하다느니 하급간부들이 《위법란기》한다느니 하고 공격하고 있다. 지금 농촌에는 소위 락후한 향이 확실히 있다. 얼마나 되는가? 10%밖에 안된다. 어째서 락후하게 되었는가? 주로는 반동분자, 현병, 특무, 회도문두목, 류망악당, 지주부농들이 혼입해들어와 간부로 되어 농촌의 정권을 틀어쥐었으며 어떤자들은 공산당에까지 기여들어왔기 때문이다. 엄중하게 위법란기하는 간부들중에서 이

러한자들이 80% 내지 90%를 차지하고 기타 일부는 퇴화변질한 간부이다. 그러므로 락후한 항에서는 반혁명분자를 타격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퇴화변질한 간부에 대하여서도 청리하여야 한다. 전국적으로 좋은 항과 비교적 좋은 항이 얼마나 되는가? 90%나 된다. 이러한 실정에 대하여 우리는 마음속에 파악이 있어야 하며 량수명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14) 충고를 거부하고 잘못을 엄폐하는것이 아닌가? 만일 량선생의 그런 의견도 《충고》라고 할수 있다면 나는 확실히 《충고를 거부한다》는것을 성명한다. 그러나 잘못을 엄폐하는것은 없다. 우리는 일체 문제에 대한(공인, 농민, 공상업자, 각 민족, 각 민주당파, 각 민중단체, 공업, 농업, 정치, 군사, 요컨대 일체에 대한) 무산계급의 평도권을 견지하며 단결도 하고 투쟁도 한다. 만일 내막을 알려고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내막이며 근본적인 내막이다. 그래 이것이 작은 일인가?

(15) 그의 문제는 전국성을 띤것이므로 박일과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전당적으로, 전국적으로 토론하여야 한다. 전형을 찾아서 비평과 자아비평을 하여야 한다. 전국적으로 총로선을 토론하여야 한다.

비평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아비평이고 하나는 비평이다. 량수명, 당신에 대하여 우리는 어느것을 취하는가? 자아비평을 취하는가? 아니다. 비평을 한다.

량수명에 대한 비판은 그 개인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의 문제를 통하여 그가 대표하고 있는 그러한 반동사상을 폭로하자는 것이다. 량수명은 반동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의 문제를 사상개조의 범주에 넣는다. 그가 개조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딴 문제이다. 그는 개조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개조하지 못해도 문제 없다. 그저 그 한사람에 불과하니까! 그러나 그와 변론하는것은 유익한 일이다. 그것을 무슨 하찮은 일을 가지고 며들어대는것으로 여기거나 변론할 가치가 없는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그와 변론을 하면 문제를 똑똑히 해명할수 있다. 그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저 이 한 점뿐이다. 지금 변론하고있는것은 무슨 문제인가? 다름아닌 총로선 문제가 아닌가? 이 문제를 똑똑히 해명하는것은 우리들에게 유익하다.

## 주 해

[1] 량수명의 소위 《무색투명정부》란것은 정부가 당파색채를 띠어서는 안되고 초계급적《무색투명체》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설교한것이다.

[2] 《맹자.교자장구상》에 있다.

[3] 《사기.중니제자열전》을 참조하라.

[4] 왕충의 《문정.강서》에 있다.

[5] 《사기.공자세가》를 참조하라.

[6] 《문어.계씨제16》에 있다.

## 농업의 호조합작에 관한 두차례의 담화\*

(1953년 10월, 11월)

### 1. 10월 15일의 담화

농업생산합작사를 잘 꾸리면 호조조의 대발전을 추동할수 있다.

신해방구에서는 큰 현, 중등현, 작은 현을 막론하고 금년겨울과 명년봄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 합작사를 하나 내지 두개씩 꾸려야 한다. 적어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하나 내지 둘, 많아서 셋을 넘지 말되 공작이 잘되고 못된데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꾸려야 할 수효를 배당하고 뜯어말겨야 한다. 더 많이 꾸리면 너무 급격히 나아가는것이고 적게 꾸리면 우경이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자류방임이다. 셋을 넘어서는 안되는가? 조건에 맞고 장정, 결의에 부합되고 자원적이고 강한 령도공간(주로 두가지 조건을

---

1953년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의 기간에 중공중앙에서는 제3차농업호조합작회의를 소집하였다.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회의전과 회의기간에 중공중앙 농촌공작부 책임자들과 하신 두차례의 담화이다.

보아야 한다. 즉 공정하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이 있고 잘 꾸려나갈수만 있다면 그것은 한신이 군사를 거느리는 격으로 많을수록 좋다.

정력을 기울여 반드시 잘 꾸리도록 지위와 현위에 책임지워야 한다. 중앙국과 성위, 시위의 농촌공작부에서는 이 사업을 단단히 틀어쥐어야 하며 공작중점을 이 문제에 두어야 한다.

통제수자가 있어야 하며 아래에 배당하여야 한다. 배당하면서도 강박하지 않으면 명령주의라고 할수 없다. 10월에 회의를 연후 11월, 12월, 명년 1월, 2월까지 할수 있고 북방은 또 3월까지 할수 있으므로 4~5개월간 할수 있다. 명년초에 회의를 열고 검사하겠다는것을 이번 회의에서 똑똑히 말해두어야 한다. 명년초에 완성정황이 어떤가를 검사해보아야 한다.

소수민족지구이고 또 토지개혁이 끝나지 않은 개별적지방에서는 꾸리지 않아도 된다. 개별적인 현, 공작이 정말 잘되지 못한 현, 이를테면 락후한 향이 30~40%를 점하고 현위서기가 매우 약하여 꾸리기 시작하면 혼란이 생길 현은 잠시 빼놓고 수효를 배당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그들이 공작을 정돈하고 조건을 준비하여 명년추수가 끝난후 겨울에는 꾸릴수 있도록 성위, 지위에서 책임지고 도와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호조조를 거쳐 합작사로 넘어가는것이 법칙으로 되어있지만 직접 합작사를 꾸리는것도 시험해보게 할수 있다. 끈은길을 택하여 옳게 걸으면 보다 빠를수 있는데 왜 못하게 하겠는가? 하게 해야 한다.

각급의 농촌공작부는 호조합작이란 이 사업을 극히 중요한 일로 간주하여야 한다. 개체농민으로서는 많이 증산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호조합작을 발전시켜야 한다. 농촌의 진지는 사회주의가 점령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자본주의가 점령하게 된다. 그래 자본주의길로도 나아가지 않고 사회주의길로도 나아가지 않는다고 할수 있겠는가?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도 증산할수는 있지만 시간이 걸리며 또 그 길은 고통스러운 길이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하지 않는다는것은 확정된것이다. 만일 사회주의를 하지 않으면 필연코 자본주의가 범람하게 될것이다.

총로선, 총강령, 공업화 및 사회주의적개조에 대하여 10월에 열린 회의에서 말하여야 한다.

《사유재산을 확보한다》느니 《4대자유》이니 하는것은 모두가 부농과 부유중농에게 유리한것이다. 그렇다면 법률에다는 왜 써넣었는가? 법률에는 사유재산을 보호한다고 하였지 《확보》한다는 말은 없다. 지금 농민이 토지를 팔고있는데 이것은 좋지 않다. 법률적으로는 금지되어있지 않지만 공작을 하여 농민이 토지를 팔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그 방법은 합작사를 꾸리는것이다. 호조조로서는 아직 농민이 토지를 파는것을 막아낼수 없으므로 합작사를 꾸리며 큰 합작사를 꾸려야 한다. 큰 합작사는 또 농민들이 토지를 소작출 필요가 없게 할수도 있다. 100~200호나 되는 큰 합작사에서 환과고독을 몇호씩 책임지면 문제가 해결될것이다. 작은 합작사에서도 좀 책임질수 없겠는지 연구하

기 바란다. 호조조도 환과고독을 도와주어야 한다. 합작사는 큰것을 꾸릴수 없으면 중등정도의것을 꾸려야 하고 중등정도의것을 꾸릴수 없으면 작은것을 꾸려야 한다. 그러나 중등정도의것을 꾸릴수 있으면 중등정도의것을 꾸려야 하고 큰것을 꾸릴수 있으면 큰것을 꾸려야 하며 큰것만 보면 불쾌히 여겨서는 안된다. 100~200호되는 사이면 큰 사라 할수 있을것이며 지어 300~400호가 되어도 될것이다. 큰 사밀에 분사를 몇개 두는것도 일종의 창조이니 큰 사를 해산시켜야 하는것은 아니다. 이른바 잘 꾸린다는것도 완전무결할것을 요구하는것은 아니다. 여러가지 경험을 다 섭취하여야 하며 모두다 한틀에다 맞추려 하지 말아야 한다.

로해방구에서는 더 많이 발전시켜야 한다. 일부 신태방구에서는 일부 로해방구에서보다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데 예를 들면 관중이 섬북보다 빠를수 있고 성도평원이 부평 등지보다 빠를수 있다. 신태방구는 틀림없이 늦어진다는 관념을 타파하여야 한다. 동북은 기실 로해방구가 아니다. 남만은 관내의 후에 해방된 지방과 비슷하다. 강소, 항주-가흥-호주일대가 아마 산동, 화북의 산간지대에 있는 로해방구를 롱가하게 될것이며 또 롱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태방구는 천천히 해야 한다고 말할수 있지만 간부가 강하고 인구가 집중되어있고 지세가 평탄한 일부 지방들에서는 전형을 몇개 잘 꾸려놓으면 단번에 비교적 빨리 발전될수 있다.

화북에는 지금 합작사가 6,000개 있는데 2배로 증



가시키려면 그 수효를 배당하고 3배로 증가시키려면 상의하는것이 좋겠다. 수효를 합리하게 배당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작할 때 파악이 없게 될것이다. 동북에서는 2배, 2배반 혹은 3배로 발전시킬수 있고 화북에서도 그렇게 할수 있다. 통제수자를 너무 높게 제기할 필요는 없다. 지방에서 통제수자를 초과하여도 무방하다. 초과완성하면 열정이 더 높아진다.

합작사를 발전시킴에 있어서도 량이 많고 질이 높고 원가가 낮도록 하여야 한다. 이른바 원가가 낮게 한다는것은 폐품을 내지 않는다는것이다. 폐품을 내면 농민의 정력이 량비되고 영향이 매우 나쁘고 정치적으로 밀지며 량곡산량도 줄어들게 된다. 종국적으로는 량곡, 면화, 사탕수수, 채소 같은것을 많이 생산하게 되어야 한다. 량곡을 많이 생산하지 못하면 전도가 없으며 국가에 대하여서나 인민에 대하여서나 다 불리하다.

성시의 교구에 있어서는 채소를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채소를 많이 생산하지 못하면 역시 전도가 없고 역시 국가에 대하여서나 인민에 대하여서나 다 불리하다. 성시의 교구는 토지가 비옥하고 평탄하며 게다가 공유지이므로 먼저 큰 사를 꾸릴수 있다. 물론 세밀하게 꾸려야 한다. 채소농사는 목식농사와 달라서 거칠게 꾸려서는 더구나 안된다. 그러므로 너무 급격히 나아가지 말고 먼저 시험적으로 전형을 꾸려야 한다.

성시의 채소공급은 개체농민이 성시에 들어와 채

소를 파는데 의거하여서는 안된다. 생산면에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소합작사에서도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성시는 지금 채소의 공급과 수요사이의 커다란 모순이 있다.

양식, 면화의 공급과 수요사이에도 커다란 모순이 있으며 고기, 기름의 공급과 수요사이에도 멀지 않아 커다란 모순이 생길것이다. 수요량은 크게 증가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

공급과 수요사이의 모순을 해결하는데로부터 출발하여 소유제와 생산력간의 모순부터 해결하여야 한다. 개체소유제여야 하는가 집체소유제여야 하는가? 자본주의적소유제여야 하는가 사회주의적소유제여야 하는가? 개체소유제의 생산관계는 대량적공급과 전적으로 충돌된다. 개체소유제는 반드시 집체소유제에로, 사회주의에로 넘어가야 한다. 합작사에는 토지를 입고 하는 저급사와 토지를 공유——합작사의 공유로 하는 고급사가 있다.

총로선은 소유제문제를 해결하는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국유제는 확대되어야 한다. 즉 국영기업을 신진, 개진, 확진하여야 한다. 개인소유제에는 로동인민소유제와 자산계급소유제 두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집체소유제와 국영(공사합영을 거쳐 사회주의에 통일된다.)으로 개변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생산력을 제고할수 있고 국가공업화를 완성할수 있다. 생산력이 발전되어야 공급과 수요사이의 모순을 해결할수 있다.

## 2. 11월 4일의 담화

무슨 사업을 하나 다 실제에 부합되어야 하며 부합되지 않으면 잘못된다. 실제에 부합되게 하자면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아야 한다. 가능성에는 정치조건, 경제조건, 간부조건이 포함된다. 농업생산합작사를 발전시키는것은 오늘 필요할뿐아니라 가능한 일이며 또 잠재력이 매우 많다. 만일 그것을 파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걸음은 온건하나 전진하지 않는것으로 된다. 발은 걸으라는것인데 그냥 서있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조건이 구비되어 세운 합작사를 억지로 해산시킨다면 그것은 옳지 않으며 어느해에 그렇게 했든지간에 다 잘못이다. 《조급해서 너무 급격히 나아가는것을 시정한다》는것은 어쨌든 바람으로 된것이 아닌가, 이 바람이 내리불어서 넘어뜨리지 말아야 할 농업생산합작사들을 좀 넘어뜨렸다. 넘어뜨리지 않을것을 넘어뜨린것은 조사해서 잘못되었다고 푹푹히 승인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곳의 향간부와 적극분자들은 잔뜩 불만을 가지게 될것이다.

사회주의를 하여야 한다. 《사유재산을 확보한다》는것은 자산계급적관념이다. 《진종일 한데 모여 쓸데없는 허튼소리만 하고 작은 혜택만 베풀기를 좋아하니 어려운 일이다.》 《쓸데없는 허튼소리만 한다》는것은 사회주의를 말하지 않는다는것이며 사회주의를 하지 않는다는것이다. 농업대부금을 내주고 구제량을 내

주고 비물에 따라 징수하고 벌에 좇아 감하거나 면제하고 소형수리시설을 건설하고 우물과 수로를 파고 심경밀식하고 합리하게 비료를 내고 신식쟁기, 수차, 분무기, 농약을 보급시키는 등등은 모두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에 의거하지 않고 단지 소농경제에 기초하여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농민들에게 작은 혜택을 베푸는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좋은 일들을 총로선, 사회주의에 련계시킨다면 그때에는 정형이 다르다. 그것은 작은 혜택이 아니다. 반드시 사회주의를 하여 이런 좋은 일들이 사회주의와 련계되게 하여야 한다. 《사유재산을 확보》하는것이나 《4대자유》를 하는것은 더구나 작은 혜택이며 그뿐만아니라 부농과 부유중농에게나 베풀어지게 되는 혜택이다. 사회주의에 의거하는것이 아니라 소농경제에서 방법을 찾고 개체경제에 기초하여 작은 혜택이나 베푸는것으로써 량곡을 대량적으로 증산하여 량식문제를 해결하고 국제민생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벼리를 당기면 그물눈이 벌어진다》는 옛말이 있다. 벼리를 당겨야 그물눈이 벌어질수 있으므로 벼리가 주제이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모순 그리고 이 모순을 점차 해결하는것, 이것이 주제이고 벼리이다. 이 벼리를 쳐들면 농민을 방조하는 여러가지 정치공작, 경제공작 등 모든것이 다 통솔되게 된다.

농업생산합작사는 대내로, 대외로 다 모순이 있다. 지금의 농업생산합작사는 그래도 반사회주의적인것이지

만 합작사밖의 개체농민은 완전한 사유제에 속하므로 이 량자간에는 모순이 있다. 호조조는 농업생산합작사와는 달라서 집체로 로동할뿐이고 사유제는 아직 건드리지 않았다. 지금의 농업생산합작사는 아직 사유제의 기초우에 서있고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 역축, 대농구는 입고하였으므로 합작사내에도 사회주의적요소와 사유제사이에 모순이 있다. 이 모순은 점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장차 오늘의 이런 반공유반사유제로부터 집체소유제로 넘어가면 이 모순이 해결된다. 우리가 취하는 절차는 온건한바 사회주의의 맹아인 호조조에서 반사회주의적인 합작사에로, 다시 완전한 사회주의적인 합작사(이것도 집체농장이라고 부르지 말고 농업생산합작사라고 부르자.)에로 넘어간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호조조는 여하튼 농업생산합작사의 기초이다.

한때 몇몇 문건에는 호조합작이 언급되지 않았었다. 그래서 나는 호조합작을 발전시켜야 한다거나 혹은 필요하고 가능한 정치공작, 경제공작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말을 첨부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소농경제에서 방법을 찾아보려 하기때문에 농민들에 대하여 너무 많이 관계하는것을 특히 반대한다. 그때는 확실히 너무 많이 관계하는 점도 있었다. 우에서 《다섯가지가 많아》 계통별로 내리먹이니 아래의 일이 펴 혼란하였었다. 아무때든 《다섯가지가 많아》서는 안되며 농촌에서 그래서 안될뿐아니라 공장, 군대에서도 그러서는 안된다. 중앙에서는 너무 많이 관계하는것을 반대하여 몇개 문건을 발부하였는데 이것은 유익한 일이었다.

너무 많이 관계하는것이란 무엇인가?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지 않고 실제에 부합되지 않는 주관주의적인 계획 혹은 계획은 실제에 부합되더라도 명령주의의 방법으로 내리먹이는것을 가리켜 너무 많이 관계하는것이라고 한다. 주관주의와 명령주의는 만년후에도 있어서는 안된다. 분산적인 소농경제에 대하여서뿐만아니라 합작사에 대하여서도 주관주의와 명령주의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할 필요성이 있으며 할 가능성이 있는 일을 그리고 그 방법도 명령주의적이 아닌것까지 너무 많이 관계하는것이라고 하여서는 안된다. 공작을 검사할 때 이 표준에 준하여야 한다. 주관주의적이고 실제에 부합되지 않는것은 어느것이나 다 잘못이다. '명령주의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것은 어느것이나 다 잘못이다. 온건하나 전진하지 않는것은 우경이고 실지 할 수 있는 정도를 초월하여 억지로 하는것은 《좌》경이며 둘 다 주관주의이다. 너무 급격히 나아가는것도 잘못이며 너무 느리게 나아가는것을 꾸리지는 않는것도 잘못이며 강박적으로 해산시키는것은 더구나 잘못이다.

《농촌은 구차하고 형편이 좋지 못하며 조치가 소농경제에 맞지 않는다》는 이런 말이 당내당외에 다 떠돌고있다. 농촌이 좀 구차하기는 하지만 적절하게 분석해보아야 한다. 기실 농촌이 그렇게까지 구차한것은 아니다. 그저 결량호가 10%가량 있을뿐이다. 그중의 절반은 로동력이 없어 매우 곤란한 환과고독이다. 이들에 대하여서는 호조조와 합작사에서 다소간 도와줄수 있다. 그들은 어쨌든 국민당시기보다는 생활이 많

이 퍼이였으며 어쨌든 분배받은 토지가 있다. 리재민들이 구차하기는 하지만 역시 구제량이 발급되었다. 일반농민의 생활은 좋으며 향상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80~90%의 농민은 대단히 기뻐하며 정부를 옹호한다. 농촌인구중에서 7%좌우를 차지하는 지주, 부농이 정부에 불만을 가지고있다. 《농촌은 기막히게 구차하다》고들 하는데 나는 종래로 그렇게 보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농촌이 구차하다는것을 말하면서 또 농촌이 산만하다는것도, 즉 소농경제의 분산성도 말하고있다. 그러나 그들은 분산성을 말하는 경우에 합작사를 꾸릴데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있다. 개체경제에 대하여 사회주의적개조를 실시하여 호조합작을 하며 합작사를 꾸리는것은 방향일뿐아니라 당면한 임무이다.

7, 8월의 재정경제회의가 없었더라면 많은 동지들에게 있어서는 총로선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을것이다. 7, 8월의 재정경제회의는 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것이였다. 박일파에 대한 비평은 총로선을 떠난 그의 착오에 대한 비평이였다. 총로선은 한마디로 개괄하면 점차적으로 국가의 사회주의적공업화와 농업, 수공업, 자본주의적공상업에 대한 사회주의적개조를 실현하는것이다. 전번에 량곡의 계획적수매와 계획적공급을 실시한것은 사회주의에 대하여 역시 커다란 추동으로 된다. 뒤이어 또 이번의 호조합작회의를 열었는데 이것도 또 한차례의 커다란 추동으로 된다. 금년에 반년이상이나 호조합작운동이 수축되어있던데 비추어 이번 회의에서는 좀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

여야 한다. 그러나 정책을 명백히 알려주어야 한다. 정책을 알려주는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적극적으로 령도하고 온건하게 발전시킨다》는 말은 아주 적절하다. 반년이상이나 수축되었고 온건하나 전진하지 않은 이것은 그리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좋은 점도 있다. 전쟁에 비유하면 한번 싸우고는 휴식정돈한후 다시 두번째전역을 벌리는것과 같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진지에서 너무 퇴각한데 있다. 또 어떤데서는 너무 퇴각한것이 아니라 원래는 발전시켜도 될것을 발전시키지 않고 발전하지 못하게 하고 비준하지 않아서 그것이 비법적인것으로 되었다. 세상에서는 술한 새로 나타난 정확한 사물들이 흔히 비법적인것으로 인정된다. 과거에는 바로 우리가 《비법》적이고 국민당이 《합법》적인것으로 되어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 비법적인 합작사들이 견지되었고 잘 운영되고있는데 그래도 인정해주지 않을수 있겠는가? 결국은 그것을 합법적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안된다. 결국은 이 합작사들이 승리한것이다.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령도하고 온건하게 발전시킨다고 말은 하였지만 그래도 문제가 좀 생기리라는것을 예견하여야 한다. 말로는 적극적으로, 온건하게라고 하지만 정작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령도하지 않게 될수도 있으며 또는 그 발전이 온건하지 못할수도 있다. 적극적으로, 온건하게 한다는것은 통제수자가 있고 임무를 맡기며 그런후에 또 그 완성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완성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완성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그렇게 하는것은 사회주의에 대하여 열성이 없는것이다. 검사해본바에 의하면 지금 5% 내지 10%의 합작사가 감산되었고 그리 잘 운영되지 못하고있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령도하지 못한 결과이다. 물론 소수의 합작사들이 잘 운영되지 못하여 감산되는것은 도저히 피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만일 20% 지어는 그보다 더 많은 합작사가 감산되었다면 그것은 문제이다.

총로선은 생산관계를 점차적으로 개변시키는것이다. 생산관계의 기초는 소유제라고 쓰말린은 말하였다[1]. 동지들은 이 점을 명백히 리해하여야 한다. 오늘 사유제와 사회주의적공유제가 다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유제는 점차 비합법적인것으로 될것이다. 3무의 땅에서 《사유재산을 확보하며》 《4대자유》를 실시하면 결국은 소수의 부농을 발전시키게 될것이고 자본주의길로 나아가게 될것이다.

현의 간부와 구의 간부들의 공작은 점차 농업생산의 호조합작방면으로, 사회주의를 하는데로 옮겨져야 한다. 그들은 사회주의를 위한 일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겠는가? 개체경제를 위한 일을 하겠는가? 현위서기, 구위서기는 사회주의를 위한 일을 중대한 일로 간주하여야 한다. 반드시 서기가 책임져야 한다. 나는 중앙의 서기이다. 중앙국서기, 성위서기, 지위서기, 현위서기, 구위서기 등 각급 서기가 다 책임지고 직접 나서야 한다. 중앙에서는 지금 70~80%의 정력을 농업에 대한 사회주의적개조에 기울이고있다. 자본주의적공상업을 개조하는것도 사회주의를 하는것이다. 각급

농촌공작부의 동지들과 회의에 참석한 동지들은 농업에 대한 사회주의적개조의 전문가로 되어야 하며 이론도 알고 로선도 알고 정책도 알고 방법도 아는 전문가로 되어야 한다.

성시의 채소공급은 주로 계획적공급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성시와 신흥성시에는 인구가 대단히 집중되어있는데 채소가 없어서야 되겠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성시의 교구에 호조조를 조직하여서는 채소의 생산과 공급 문제를 잘 해결할수 없으므로 호조조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반사회주의적인 합작사거나 지어는 완전한 사회주의적인 합작사를 조직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이 문제를 연구해보는것이 좋겠다.

생산합작사를 발전시킬 계획이 제출되었는데 계획에 의하면 금년겨울과 명년봄에 그리고 명년가을전까지 3만 2,000여개로 발전될것이며 1957년이면 70만개로 발전될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돌연적으로 발전될수 있으며 100만개 혹은 100만개이상으로 발전될수도 있다는것을 예견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여 많이 꾸려야 하거니와 잘 꾸려야 하며 적극적으로 령도하고 온건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이번 회의는 성과적이였다. 지금 열지 않고 명년 1월에 가서 열었더라면 때를 놓치게 되어 금년겨울을 헛되이 보내게 되었을것이다. 명년 3월 26일에 다시 회의를 열고 이번 계획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다음 회의의 날자를 정하고 그 회의에서 이번 회의 결의의 집행정황을 검사하기

로 결정하였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다. 명년가  
울에 또 한번 회의를 열고 명년겨울의 임무를 토론결정  
하여야 한다.

## 주 해

[1] 쓰탈린의 《변증법적유물주의와 역사적유물주의에 대하여》를 참  
조하라.

## 중화인민공화국헌법초안에 관하여\*

(1954년 6월 14일)

이 헌법초안은 확실히 사람들의 옹호를 받고있는 것 같다. 북경에서 진행된 500여명의 토론이나 각 성, 시 여러 방면의 적극분자들의 토론을 통하여, 다시말하면 전국적으로 대표성을 띠고있는 8,000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광범한 토론을 통하여 알수 있는바와 같이 헌법초안의 초고는 비교적 훌륭하며 사람들의 찬동과 옹호를 받고있다. 오늘 발언한 많은 사람들도 모두가 다 이렇게 말하였다.

어째서 토론을 이처럼 광범하게 조직하는가? 그렇게 하면 몇가지 좋은 점이 있다. 첫째, 소수의 사람들이 상론해서 작성한것을 광범한 사람들이 찬동하는가 어떤가? 헌법초안초고의 기본조문, 기본원칙들을 모두가 찬동한다는것이 토론을 통하여 실증되었다. 초안의 초고에 있는 정확한것들이 죄다 그대로 남아있다. 소수 령도자들의 의견이 수천명의 찬동을 받고있는것으로 보아 그것은 도리가 있고 적합하며 실시할만하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심을 가지게 되

---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제30차회의에서 하신 강화이다.

였다. 다음으로, 토론을 통하여 5,900여건에 달하는 의견(의문으로 제기된것은 포함되지 않았다.)이 수집되었다. 이 의견들은 세 부류로 나눌수 있다. 그중 한 부류의 의견은 정확하지 못한것이다. 다른 한 부류의 의견은 아주 그릇된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합당치 못한것인데 이런 의견은 채납하지 않는것이 좋다. 채납하지 않으면서 수집하기는 왜 하는가? 이런 의견들을 수집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소용이 있다. 8,000여명의 사람들이 헌법에 대하여 즉으로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있다는것을 료해할수 있고 비교해볼수 있는 것이다. 셋째부류의 의견은 채납한것이다. 이러한 의견은 두말할것없이 아주 훌륭하고 아주 필요한것이다. 만일 이러한 의견들이 없었더라면 이 헌법초안은 초고가 비록 기본적으로 정확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고 결함들이 존재하며 주밀하지 못한것으로 되었을것이다. 지금의 이 초안도 아직 결함들이 있고 완전하지 못할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전국 인민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할것이다. 그러나 지금 보아서 이 초안이 비교적 완전한것 같은데 이것은 합리적인 의견들을 채납한 결과이다.

이 헌법초안이 사람들의 옹호를 받게 된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헌법초안을 작성할 때 령도기관의 의견과 광범한 군중들의 의견을 결합시키는 방법을 취한것이 그 이유의 하나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헌법초안은 소수 령도자들의 의견과 8,000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결합시켰으며 공포한후에는 또 전국 인민들의

토론에 불임으로써 중앙의 의견과 전국 인민들의 의견을 결합시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명도자와 군중을 결합시키고 명도자와 광범한 적극분자들을 결합시키는 방법이다. 우리는 지난날에도 이 방법을 써왔거니와 앞으로도 이 방법을 써야 한다. 모든 중요한 법률은 다 이 방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이번에 우리는 이 방법을 썼기때문에 비교적 훌륭하고 비교적 완전한 헌법초안을 내놓을 수 있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광범한 적극분자들이 어째서 이 헌법초안을 옹호하는가? 어째서 그것을 훌륭하다고 인정하는가? 주로는 두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로는 경험을 총결하였고 둘째로는 원칙성과 명확성을 결합시켰기때문이다.

첫째로, 이 헌법초안은 역사적경험, 특히는 최근 5년동안의 혁명과 건설에서 쌓은 경험을 총결하였다. 이 헌법초안은 무산계급이 명도하는,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와 관료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인민혁명에서 쌓은 경험을 총결하였으며 최근 몇해동안에 사회개혁, 경제건설, 문화건설 및 정부사업에서 쌓은 경험들을 총결하였다. 이 헌법초안은 또 청조말년이후로 헌법문제에서 얻은 경험들, 즉 청조말년의 《19신조》<sup>[1]</sup>로부터 민국 원년의 《중화민국임시약법》<sup>[2]</sup>, 북양군벌정부의 몇개 헌법과 헌법초안<sup>[3]</sup>, 장개석반동정부의 《중화민국헌정시기약법》 그리고 장개석의 위헌법에 이르기까지의 헌법문제에서 얻은 경험도 총결하였다. 이러한 것들에는 적극적인 것도 있고 소극적인 것도 있다. 췌컨대 민국 원년의

《중화민국립시약법》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비교적 훌륭한 것이었다. 물론 그것은 완전하지 못하고 결함이 있으며 자산계급적성질을 띤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혁명적, 민주적 성질을 띤 것이었다. 이 약법은 아주 간단하다. 듣는바에 의하면 그것은 아주 창졸하게 기초되었는데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하여 통과하기까지 한달밖에 안 걸렸다 한다. 그밖의 몇개 헌법과 헌법초안들은 통털어 말하여 다 반동적인 것이다. 우리의 이 헌법초안은 주로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의 경험을 총결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자국의 경험과 외국의 경험을 결합시키기도 하였다. 우리의 헌법은 사회주의헌법의 유형에 속한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위주로 하면서 소련과 여러 인민민주국가들의 헌법가운데 있는 훌륭한 것들도 참고하였다. 헌법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자산계급이 먼저 만들어낸 것이다. 영국에서나 불란서에서나 미국에서나 자산계급은 모두 자기의 혁명시기가 있었는데 헌법은 바로 그들이 그때 처음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는 자산계급의 헌법은 역사적으로 아무런 자리도 차지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자산계급의 민주를 완전히 말살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의 자산계급헌법은 전혀 좋지 못한 것이고 나쁜 것이며 제국주의국가의 헌법은 더구나 다수사람들을 기만하고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헌법은 새로운 사회주의유형의 헌법으로서 자산계급유형의 헌법과는 다르다. 우리의 헌법은 그들의 혁명시기의 헌법보다도 훨씬 진보적이다. 우리의 것은 그들보다 우월하다.

둘째로, 우리의 헌법초안은 원칙성과 평활성을 결합시켰다. 원칙은 기본적으로 두가지이다. 즉 민주원칙과 사회주의원칙이다. 우리의 민주는 자산계급의 민주가 아니라 인민의 민주이다. 다시말하면 그것은 무산계급이 평도하는, 공농련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전정이다. 인민민주의 원칙은 우리의 헌법 전반에 일관되어있다.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원칙이다. 우리 나라에는 이미 사회주의가 있다. 헌법에는 반드시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수하고 국가의 사회주의적공업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원칙성이다. 사회주의원칙을 실시한다고 하여 전국적으로 무엇이든 다 하루아침에 사회주의를 실시할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는것은 형식상으로는 아주 혁명적인것 같지만 평활성이 결핍하여 도저히 실현될수 없을것이며 반대를 받게 되고 실패를 당하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잠시 가능성이 없는 일은 점차적으로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국가자본주의는 점차적으로 실시해야 하는것이다. 국가자본주의에는 단지 공사합영이라는 한가지 형태만 있는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 즉 《점차적으로》 실시하며 《여러가지》 형태를 취한다. 다시말하면 여러가지 형태의 국가자본주의를 점차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주의적전민소유제에 도달한다. 사회주의적전민소유제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도달하자면 평활성을 결합시켜야 한다. 평활성이란 국가자본주의이며 그것도 한가지 형태로가 아니라 《여러가지》 형태로, 하루동안에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실시한다는것이다. 이렇게 하



면 령활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 실시할수 있는것이면 써 넣고 실시할수 없는것이면 써넣지 않는다. 례를 들어 공민권리의 물질적보장은 앞으로 생산이 발전되면 틀림 없이 지금보다 증대될것이지만 지금은 역시 《점차적으로 증대시킨다》고 썼다. 이것도 령활성이다. 또 통일전선을 례로 들면 그것이 공동강령에도 써여있고 오늘의 헌법초안의 서언에도 써여있다. 《각 민주계급, 각 민주당파, 각 인민단체의 광범한 인민민주통일전선》이 있으면 각 계층을 안정시킬수 있고 민족자산계급과 각 민주당파를 안정시킬수 있으며 농민과 성시소자산계급을 안정시킬수 있다. 이밖에 소수민족문제도 있는데 소수민족은 공통성도 가지고있고 특수성도 가지고있다. 공통적인것은 공통적인 조문이 적용되고 특수적인것은 특수한 조문이 적용된다. 소수민족은 정치, 경제, 문화 면에서 다 자기의 특점을 가지고있다. 소수민족의 경제적특점은 무엇인가? 헤컨대 제5조에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의 생산자료소유제는 네가지 종류가 있다고 써여있으나 기실 우리 소수민족지구에는 지금 다른 소유제도 있다. 원시공동체소유제가 아직 남아있는가? 어떤 소수민족에게는 아마 남아있을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아직 노예주소유제도 남아있고 봉건주소유제도 남아있다. 노예제도, 봉건제도, 자본주의제도는 지금 보면 다 좋지 못하지만 기실 력사적으로는 모두 원시공동체제도보다 진보적이었던것이다. 이런 제도들은 처음에는 진보적이었으나 후에 와서 좋지 않은것으로 되였기때문에 다른 제도에 의하여 대체되

였다. 헌법초안 제70조에는 소수민족지구들에서는 《당지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특점에 근거하여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이 모든것은 다 원칙성과 명확성이 결합된것이다.

이 헌법초안이 여러 사람들의 옹호와 호평을 받게 된것은 그것이 첫째로는 경험을 정확하게, 적절하게 총결하였기때문이며 둘째로는 원칙성과 명확성을 정확하게, 적절하게 결합시켰기때문이다. 만일 이렇지 않다면 아마 여러분은 그것을 찬성하지 않을것이며 좋다고 하지 않을것이다.

이 헌법초안은 전적으로 실시할수 있는것이며 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것이다. 물론 그것이 지금은 아직 초안에 불과하지만 몇달후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되면 정식헌법으로 된다. 우리는 지금부터 실시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통과된 다음에는 전국 인민이 누구나 다 집행하여야 한다. 특히는 국가기관의 공작인원들이 솔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우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부터 집행하여야 한다. 집행하지 않으면 헌법을 위반하는것으로 된다.

우리의 헌법초안은 공포된후 전국 인민의 한결같은 옹호를 받게 될것이며 전국 인민의 적극성을 높이게 될것이다. 한 단체에 장점이 있어야 하듯 나라에도 장점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이 바로 총장점이며 근본대법이다. 헌법과 같은 이런 근본대법의 형식으로 인민민주 및 사회주의 원칙을 고정시킴으로써 전국 인민들을 뚜렷한 궤도에 올려세우고 전국 인민들로 하여금 뚜렷

하고 명확하고 정확한 길이 제시되어있다는것을 느끼게 한다면 전국 인민의 적극성을 높일수 있다.

이 헌법초안이 공포된 다음 국제적으로 반향이 없겠는가? 민주진영에서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모두 반향이 있을것이다. 민주진영에서는 우리에게 뚜렷하고 명확하고 정확한 길이 제시되어있는것을 보고 기뻐할것이다. 중국사람들이 기뻐할뿐더러 그들도 기뻐할것이다. 자본주의나라에서 압박과 착취를 받고있는 인민들도 이것을 보게 되면 역시 기뻐할것이다. 물론 기뻐하지 않을 사람도 있다. 제국주의와 장개석은 기뻐하지 않을것이다. 장개석이 기뻐할수 있겠는가? 그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아도 그가 기뻐하지 않을것은 뻔한 일이다. 우리는 장개석을 잘 알고있다. 그는 절대 찬성하지 않을것이다. 아이젠하워총통도 기뻐하지 않으며 이 헌법을 나쁘다고 할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이 헌법이 뚜렷하고 명확하기는 하나 아주 나쁜 길이고 그릇된 길이며 사회주의요, 인민민주요 하는것은 그릇된것이라고 할것이다. 그들은 령활성도 찬성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사회주의를 다 실시하여 천하가 온통 뒤죽박죽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되면 아주 기뻐할것이다. 그들은 또 중국에서 통일전선을 결성하는것도 찬성하지 않으며 우리가 《일색화》할것을 바라고있다. 우리의 헌법은 우리 민족의 특색을 가지고있지만 국제적성질도 가지고있다. 우리의 헌법은 민족적현상이며 또한 일종 국제적현상이기도 하다. 우리가 받았던것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및 봉건주의의 압박

을 받고있는 나라는 아주 많으며 그 인구는 세계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혁명적인 헌법, 인민민주적인 헌법이 있게 되고 뚜렷하고 명확하고 정확한 길이 있게 되면 그것은 이러한 나라들의 인민에게 도움이 될것이다.

우리의 총적목표는 위대한 사회주의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분투하는것이다. 우리 나라는 6억 인구를 가진 큰 나라인데 사회주의적공업화를 실현하고 농업의 사회주의화, 기계화를 실현하자면, 위대한 사회주의나라를 건설하자면 도대체 얼마만한 시일이 걸려야 하겠는가? 지금 꼭 적어 말할것은 아니지만 대략 3차의 5개년계획, 즉 15년좌우이면 기초를 닦을수 있을것이다. 그때에 가면 아주 위대하게 되겠는가? 그렇지 못할것이다. 우리가 위대한 사회주의나라를 건설하자면 내가 보진대는 대략 50년, 즉 10차의 5개년계획기간이면 비슷할것이고 팬찮게 될것이며 몰라보게 될것이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것들을 만들어낼수 있는가? 책상, 걸상을 만들어낼수 있고 차잔이나 주전자를 만들어낼수 있고 양복을 생산할수 있으며 밀가루를 가공해낼수 있고 종이를 만들어낼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비행기, 망크, 트랙또르는 한대도 만들어내지 못하고있다. 그러니만큼 너무 허풍을 치지 말아야 하며 꼬리를 쳐들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한대를 만들수 있게 되면 꼬리를 약간 쳐들고 열대를 만들수 있게 되면 꼬리를 좀더 쳐들어도 되며 이렇게 그 수량이 증가됨에 따라 꼬리를 점점 더 높이 쳐들어

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그래서 안된다. 50년후에 가서 괜찮게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겸손하여야 한다. 만약 그때에 가서 교오하면서 남을 업신여긴다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 100년후에도 교오하지 말아야 한다. 영원히 꼬리를 쳐들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이 헌법은 사회주의류형의 헌법이기는 하지만 아직 완전한 사회주의적헌법은 아니고 과도기의 헌법이다. 우리는 지금 전국 인민을 단결하여, 단결할 수 있는 그리고 단결하여야 할 모든 력량을 단결하여 위대한 사회주의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분투하여야 한다. 이 헌법은 바로 이러한 목적에서 쓴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문제를 해석하려 한다. 어떤 사람은 헌법초안가운데서 개별적조문들이 삭제된것은 일부 사람들이 너무 겸손하기때문이라고 말하고있다. 그렇게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그것은 겸손하여서가 아니라 그렇게 쓰는것이 적합하지 않고 합리하지 못하며 과학적이 못되기때문이다. 우리 나라와 같은 이러한 인민주국가에서는 그런 적당하지 못한 조문들을 써넣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본래는 써넣어야 될것을 겸손하기때문에 써넣지 않은것이 아니다. 과학에는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가 나서지 않는다. 헌법을 제정하는것은 과학을 하는것이다. 우리는 과학을 제외한 다른 어떤것도 믿지 말아야 한다. 다시말하면 미신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사람에 대하여서나 외국사람에 대하여서나 죽은 사람에 대하여서나 산 사람에 대하여서나 옳은것은 옳다고 하고 틀린것은 틀렸다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것을 가리켜 미신이라고 한다. 미신을 타파하여야 한다. 고대의것이나 현대의것이나 정확한것은 믿고 정확하지 않은것은 믿지 말아야 하며 믿지 말아야 할뿐만아니라 또한 비평하여야 한다. 이것만이 과학적태도이다.

## 주 해

[1] 1911년 11월에 발표된 청정부의 《중대한 신조 19조》를 가리킨다.

[2] 《중화민국임시약법》은 손중산이 신해혁명후 중화민국 임시대통령으로 있을 때 발표한것이다.

[3] 원세개정부의 1913년의 천단헌법초안과 1914년의 약법, 조문정부의 1923년의 헌법, 단기서집정부의 1925년의 헌법초안을 가리킨다.

## 위대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분투하자\*

(1954년 9월 15일)

대표 여러분!

중화인민공화국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는 오늘 우리 나라의 수도 북경에서 열리었다.

대표총수는 1,226명인데 회의에 온 대표가 1,211명이고 병고와 사고로 인하여 청가를 하고 회의에 오지 않은 대표가 15명이며 병고와 사고로 인하여 오늘 임시 결석한 대표가 70명이다. 오늘 회의에 실지 출석한 대표는 1,141명이므로 법정인수에 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는 중대한 임무를 지니고있다.

이번 회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헌법을 제정하며,

몇가지 중요한 법률을 제정하며,

정부사업보고를 통과하며,

국가경도일군들을 새로 선거한다.

우리의 이번 회의는 위대한 역사적의의를 가지고

- 
-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에서 하신 개막사이다.

있다. 이번 회의는 1949년 건국 이래 우리 나라 인민들이 이룩한 새로운 승리와 새로운 발전을 보여주는 리정표이다. 이번 회의에서 제정되는 헌법은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사업을 대대적으로 촉진하게 될것이다.

우리의 총적임무는 전국 인민을 단결하고 모든 국제벗들의 지원을 쟁취하여 위대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분투하며 국제평화의 보위 및 인류의 진보적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분투하는것이다.

우리 나라 인민들은 공작에 힘쓰며 쏘련 및 여러 형제나라들의 선진적경험을 힘써 학습하며 성실하고 근면하며 서로 고무하고 서로 도우며 과장하거나 교오하는 그 어떠한 현상이든지 극력 경계하면서 몇차의 5개년계획기간에 오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뒤떨어져있는 우리 나라를 공업화하고 높은 현대적문화수준을 가진 위대한 나라로 건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사업은 정의의 사업이다. 정의의 사업은 그 어떤 적들도 격파할수 없는것이다.

우리의 사업을 령도하는 핵심적력량은 중국공산당이다.

우리의 사상을 지도하는 리론적기초는 맑스-레닌주의이다.

우리는 모든 간난신고를 이겨나가면서 우리 나라를 위대한 사회주의공화국으로 건설할 신심으로 충만되어있다.

우리는 전진하고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전사람들이 종래로 하여본적



이 없는 극히 영광스럽고 위대한 사업을 하고있다.

우리의 목적은 틀림없이 달성되어야 한다.

우리의 목적은 틀림없이 달성될수 있다.

전 중국 6억 인구는 단결하여 우리의 공동의 사업을 위하여 힘써 분투하자!

우리의 위대한 조국 만세!

## 홍루몽연구문제에 관한 편지\*

(1954년 10월 16일)

유평백을 론박하는 글 두편을 이 편지와 함께 보내니 읽어보기 바란다. 이것은 이른바 홍루몽연구에 있어서의 권위저자의 그릇된 관점에 대한 30여년래 처음으로 되는 본격적인 불질이다. 필자는 두 청년단원이다. 그들은 처음에 《문예보》에 편지를 써서 유평백을 비평하여도 좋은가고 물어보았으나 《문예보》는 묵살해 버렸다. 그들은 하는수없이 자기들의 모교인 산동대학의 선생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지지를 받게 되었으며 《홍루몽략론》을 론박하는 그들의 글이 이 학교의 잡지 《문사철》에 실리게 되었다. 문제는 다시 북경으로 돌아왔다. 즉 어떤 사람이 이 글을 《인민일보》에 전재함으로써 쟁론이 일어나며 비평이 전개되도록 할것을 요구하였는데 또 일부 사람들이 가지가지의 리유(주로는 《작은 인물의 글이다》, 《당보는 자유변론의 장소가 아니다》라는 리유)를 달아 이를 반대하여나섰기때문에 그 요구가 실현되지 못하였다. 결국에는 타협이 이루어져 《문예보》에 이 글을 전재하는것이 허락되었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중공중앙 정치국의 동지들과 기타 관계 있는 동지들에게 보내신 편지이다.

다. 그후에는 또 유평백의 저서 《홍루몽연구》를 논박하는 이 두 청년의 글이 《광명일보》의 《문학유산》란에 발표되었다. 보아하니 고전문학령역에서 30여년동안이나 청년들을 해친 호적파의 자산계급유심론을 반대하는 투쟁이 전개될수 있을것 같다. 일은 두 《작은 인물》이 벌려놓았다. 그런데 《큰 인물》은 흔히 이에 주의를 돌리지 않으며 그것을 저애한다. 그들은 유심론면에서 자산계급작가들과 통일전선을 도모하면서 자진하여 자산계급의 포로로 되고있다. 이것은 영화 《청궁비사》〔1〕와 《무훈전》이 상영될 때의 정형과 거의 같다. 애국주의 영화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기실은 매국주의영화인 《청궁비사》는 전국에서 상영된후 지금까지도 비판되지 않고있다. 《무훈전》에 대하여 비록 비판은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교훈을 섭취하지 못하고있다. 그런데 또 유평백의 유심론을 용인하며 《작은 인물》의 극히 생기있는 비판문을 막아버리는 기괴한 일까지 나타났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주의를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유평백과 같은 그런 자산계급지식분자들에 대하여서는 물론 단결하는 태도를 취하여야 하지만 그러나 청년들을 해치는 그들의 그릇된 사상은 비판하여야 하며 그들에게 투항하여서는 안된다.

## 주 해

〔1〕《청궁비사》는 의화단에국운동을 증상하고 제국주의에 투항할것을 고취한 반동영화이다. 류소기는 이 매국주의영화를 《애국주의》영화라고 불어대었다.

## 원자탄은 중국인민을 놀랄수 없다\*

(1955년 1월 28일)

중국과 분란은 우호적인 나라이다. 우리 두 나라의 관계는 평화공처5항원칙의 기초우에 설정되어있다.

중국과 분란사이에는 종래로 충돌이 생긴적이 없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구라파나라들가운데서 영국, 불란서, 독일, 짜리로씨야, 이태리, 오지리-항가리제국, 화란 등 나라들하고만 전쟁을 한 일이 있는데 그 어느 전쟁이나 다 그러한 나라들이 머나먼 곳에서 달려와 중국을 침략하였기때문에 일어난것이였다. 예를 들면 영불련합군이나 미국, 일본을 포괄한 8개국련합군이 중국을 진공한것이 그러한것이였다. 조선침략전쟁에는 16개 나라가 참가하였는데 그중에는 토이기, 룩셈부르그와 같은 나라들이 있다. 이런 침략국들은 모두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들로 자처하면서 도리어 조선과 중국 두 나라를 침략국이라고 역설한다.

오늘 세계전쟁이 일어날 위험성과 중국에 대한 위협은 주로 미국의 호전분자들로부터 온다. 그들은 중

---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제1임 중국주재 분란대사 슌드스트롬이 국서를 봉정할 때에 하신 담화의 요점이다.

국의 대만 및 대만해협을 강점하고있으며 또한 원자전쟁을 발동하려 하고있다. 우리에게는 두개의 원칙이 있다. 즉 첫째로, 우리는 전쟁을 요구하지 않으며 둘째로, 그 누가 우리를 침략한다면 우리는 그를 단호히 반격한다. 우리는 이렇게 하도록 공산당원과 전국 인민들을 교육하고있다. 미국의 원자폭탄은 중국인민을 놀랄수 없다. 우리 나라는 6억 인구에 960만평방키로메터의 땅을 가지고있다. 미국의 고까짓 원자탄으로는 중국사람을 소멸할수 없다. 가령 미국의 원자탄이 그렇게도 위력이 커서 중국에 떨어져 지구를 꿰뚫고 지구를 폭파시킨다 하여도 태양계에 대하여서는 큰일일수 있겠지만 우주전체를 놓고보면 아무것도 아닐것이다.

우리에게는 좁쌀에 보총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은 비행기에 원자탄을 가지고있다. 그렇지만 비행기에 원자탄을 가진 미국이 중국에 대하여 침략전쟁을 일으킨다면 좁쌀에 보총을 가진 중국이 꼭 이기게 될것이다. 전 세계 인민들은 우리를 지지할것이다. 제1차세계대전의 결과 로씨야에서 짜리, 지주 및 자본가를 깡그리 쓸어버렸다. 제2차세계대전의 결과 중국에서 장개석과 지주를 뒤엎었고 동구라파나라들과 아세아의 일부 나라들도 해방되였다. 만약 미국이 제3차세계대전을 일으킨다면 가령 8년이나 10년 동안 싸운다고 하여도 결국에 가서는 미국, 영국 및 기타 추종국들에서 통치계급이 일소될것이고 세계의 대부분 지역이 공산당이 령도하는 나라로 될것이다. 세계대전의 결과는 호전분자들에게 유리한것이 아니라 공산당과 세계의 혁명적인

민들에게 유리하게 된다. 호전분자들은 전쟁을 일으키려거든 우리가 혁명하는것을, 다시말하면 그들이 말끝마다 외우는것처럼 우리가 《전복활동》을 하는것을 원망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호전분자들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래도 지구에서 좀더 오래 존재할수 있을것이다. 그들은 전쟁을 일찍 일으킬수록 그만큼 일찍 지구에서 소멸되고말것이다. 그때에는 인민의 련합국을 세우게 될것이며 그 소재지는 상해에 들수도 있고 구라파의 어느곳에 들수도 있을것이며 만일 그때가 미국의 호전분자들이 깡그리 소멸된후이라면 그냥 뉴욕에 들수도 있을것이다.

##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 에서 한 강화

(1955년 3월)

### 개 막 사

(1955년 3월 21일)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의 여러 대표동지들!

우리의 이번 전국대표회의의 의사일정은 세가지이다. 즉 첫째, 국민경제발전제1차5개년계획과 이 계획에 관한 보고, 둘째, 고강-요수적반당련맹에 관한 보고, 셋째, 중앙감찰위원회를 성립할데 관하여 등이다.

중앙위원회는 과도기에 관한 레닌의 학설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창건이래의 경험을 총결하고 우리 나라 국민경제회복계단이 곧 끝나게 된 때에, 즉 1952년에 과도기에 있어서의 당의 총로선을 내놓았다. 이 총로선은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려는 목적으로 대략 3차의 5개년 계획기간에 국가의 사회주의적공업화를 점차 실현하며 그와 동시에 농업, 수공업, 자본주의적공업에 대하여 사회주의적개조를 점차 실현하는것이다. 당의 총로선과 그리고 이 총로선

을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당의 각종 중요한 정책과 방법들은 정확하다는 것이 이미 실증되었다. 전당 동지들과 전국 인민들의 노력에 의하여 우리의 공작은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공작에는 결함과 착오도 있다. 우리가 취하는 많은 대책들이 모든 면에서 다 아주 적절하게 규정되기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실행과정에서 새로운 경험들에 근거하여 보충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민경제발전제1차5개년계획은 당의 총로선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중대한 절차'이다. 이번의 당의 전국대표회의에서 실제적경험에 비추어 이 계획초안을 진지하게 토론함으로써 그 내용이 보다 더 합당하고 실제정황에 맞는 계획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정황이 복잡한데다가 본래 국민경제도 매우 낙후한, 이렇듯 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는 아마 3차의 5개년계획을 경과하면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적공업화수준이 높은 강대한 나라를 건설하자면 몇십년동안의 간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테면 50년이라는 시일, 즉 본 세기의 하반기가 다 걸려야 한다. 우리앞에 나선 임무는 우리 나라의 인민내부의 관계——특히 공인계급과 농민간의 관계를 잘 처리하며 우리 나라의 여러 민족들간의 관계를 잘 처리하며 이와 동시에 위대한 선진적사회주의국가 쏘련 및 여러 인민민주국가들과의 친밀한 합작을 계속 잘 발전시키며 자본주의세계의 모



든 평화애호국가 및 인민들과의 합작도 발전시킬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있다.

우리가 공작에서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하여 교오자만하여서는 안되며 계속 겸손한 태도를 취하면서 선진적인 나라들을 따라 배우고 군중을 따라 배우고 동지들사이에서도 서로 배워야 하며 그리하여 착오를 덜 범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항상 말하여왔다. 나는 이번의 당대표회의에서도 이 말을 다시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강, 요수석의 반당사건에 비추어 보면 우리 당내에 확실히 교오자만정서가 존재하고있으며 일부 동지들에게서는 엄중한 정도에까지 이르고있다. 이런 정서를 극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 이 위대한 임무를 완성하는데 지장이 있게 될것이다.

동지들이 다 알다싶이 고강-요수석반당련맹이 나타나게 된것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나라 현계단에 있어서의 치렬한 계급투쟁의 첨예한 표현이다. 이 반당련맹의 최악적목적은 우리 당을 분렬시키고 음모적수단으로 당과 국가의 최고권력을 탈취하며 반혁명복벽을 위한 길을 개척하려는데 있다. 전당은 하나로 굳게 뭉친 중앙위원회의 령도하에 이 반당련맹을 이미 철저히 분쇄하였다. 이로 하여 우리 당은 더욱 단결되었고 공고하여졌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주의사업을 위하여 분투하는 가운데서 이룩한 중대한 승리이다.

우리 당을 놓고 말하면 고강-요수석사건은 중요한

교훈으로 된다. 전당은 이것을 거울로 삼아 모름지기 이런 사건이 당내에서 또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고강과 요수석은 당내에서 음모를 꾸미고 비밀활동을 하며 동지들의 배후에서 리간을 붙이면서 공개적장소에서는 저들의 활동을 위장하고있었다. 그들의 이런 활동은 순전히 지주계급과 자산계급이 력사상에서 늘 하여온 그런 추악한 활동이다. 맑스와 엥겔스는 《공산당선언》에서 《공산당인들은 자기의 관점과 의도를 은폐하는것을 수치스러운 일로 본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공산당인인만큼 정치적으로 광명정대하여야 하며 어느때나 자기의 정치적견해를 공개적으로 언명하며 온갖 중대한 정치문제에 대하여 찬성한다든가 반대한다든가 하는 자기의 태도를 표시하여야 할것이며 절대 고강, 요수석처럼 음모수단을 써서는 안된다. 당의 고급간부들은 더구나 그렇다.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중앙위원회는 새로운 치열한 계급투쟁시기에 당의 기를 강화하며 온갖 위법란기현상과의 투쟁을 강화하며 특히는 고강-요수석반당련맹처럼 당의 리익을 엄중하게 해치는 일이 거듭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에 있어서 당장에 쫓아 과거의 기물검사위원회대신 중앙감찰위원회를 내오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여러가지 력사적교훈에 비추어, 그리고 개인의 지혜는 반드시 집체의 지혜와 결합되어야만 비교적 좋은 작용을 발휘할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공작에서 착오

를 덜 범하게 될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중앙과 각급 당위에서는 반드시 집체령도의 원칙을 견지하고 개인독재의 편향과 분산주의의 편향을 계속 반대하여야 한다. 집체령도와 개인책임제 이 두 측면은 서로 대립되는것이 아니라 서로 결합되는것이며 개인책임제는 집체령도의 원칙에 배치되는 개인독재와는 전혀 다르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의 국제조건은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사업에 유리하다. 소련을 위수로 하는 사회주의진영은 강대하며 그 내부가 단결되어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진영은 취약하며 극복할수 없는 첩첩한 모순과 위기에 싸여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제국주의세력이 의연히 우리를 포위하고있으므로 우리는 일어날수 있는 돌연적사변에 대처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제국주의가 만일 전쟁을 발동할 경우에는 제2차 세계대전때와 마찬가지로 돌연적습격을 들이댈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다 준비되어있어야만 돌연적사변이 발생한 경우에 미처 손쓸 사이 없게 되지 않을수 있다. 이것이 한 방면이다. 다른 한 방면에 있어서 국내의 반혁명잔여세력이 의연히 창궐하게 활동하고있으므로 우리는 계획적으로, 분별있게, 실사구시적으로 그들을 몇차례 더 타격하여 숨어있는 반혁명세력을 훨씬 더 약화시켜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사업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만일 우리가 상술한 두 면에서 타당한 대책을 강구한다면 적이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해독을 피할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착오를 범하게 될 것이다.

동지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역사적시기에 처하여 있다. 동방에 자리잡고있는 6억 인구를 가진 나라가 사회주의혁명을 진행하여 이 나라에서 역사의 방향과 나라의 면모를 개변시키자면, 대략 3차의 5개년계획기간에 나라를 기본적으로 공업화하고 농업, 수공업, 자본주의적공공업에 대한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수하자면, 대략 몇십년동안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자본주의국가들 따라잡거나 능가하자면 우리가 민주혁명시기에 많은 곤난에 봉착하였던것처럼 아무튼 곤난에 봉착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며 그보다도 더 큰 곤난에 봉착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동지들, 우리 공산당인은 곤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이름이 났다. 우리는 전술상에서 일체 곤난을 중시하여야 한다. 매 하나의 구체적곤난들에 대하여 우리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필요한 조건을 창조하며 대책을 강구하여 그것들을 하나하나, 한부분한부분씩 극복해나가야 한다. 우리의 수십년간의 경험에 의하면 우리가 봉착한 모든 곤난들은 과연 하나하나 다 극복되고말았다. 실로 《높은 산도 머리숙이고, 강물도 길을 피한다》는 말과 같이 온갖 곤난들이 공산당인들앞에서는 뒤걸음질을 칠수밖에 없었다. 여기에서 하나의 경험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곤난을 떨치하여도 된다는것이다. 이것은 전략적면에서, 총적면에서 하는 말이다. 아무리 큰 곤난이라도 우리는 대뜸 그 내막을 꿰뚫어볼수 있다. 곤난이라는것은 별

다른것이 아니라 사회의 적들이 아니면 자연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것이다. 제국주의와 국내의 반혁명분자 그리고 우리 당내에 있는 그들의 대리인 같은것들은 그 어느것이든 다 사멸되어가는 력량에 불과하고 우리는 신생력량이며 진리는 우리에게 있다는것을 우리는 알고있다. 적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종래로 타승할수 없는 력량인것이다. 우리자신의 력사를 돌이켜보면 이 도리를 리해할수 있을것이다. 1921년에 방금 당을 창건하였을 때 우리는 몇십명밖에 되지 않아 보잘것없었지만 후에는 발전되어 결국 국내의 그 강대한 적을 타도하게 되었다. 자연계라는 이 적도 정복할 방법이 있는것이다. 자연계에서나 사회에서나 일체 신생력량은 그 성질로 말하면 언제나 불패적인것이다. 그러나 일체 낡은 세력은 그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간에 결국은 소멸되고마는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세상에서 봉착하게 되는 그 어떤 거대한 곤난도 《대수롭지 않은것》으로 취급하여 멸시할수 있으며 또 멸시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락관주의이다. 이런 락관주의는 과학적근거가 있는것이다. 우리가 맑스-레닌주의를 더 많이 알고 자연과학을 더 많이 알기만 한다면, 한마디로 말하여 객관세계의 법칙을 더 많이 알고 주관주의적착오를 적게 범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혁명공작과 건설공작은 틀림없이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것이다.

## 결 론

(1955년 3월 31일)

동지들!

여러 동지들의 발언은 이미 끝났다. 나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즉 이번 회의의 평가에 관하여, 5개년계획에 관하여, 고강-요수석문제에 관하여, 목전형세에 관하여, 8차대회에 관하여 몇마디 말하려 한다.

### 1. 이번 대표회의의 평가에 관하여

절대다수 동지들이 이번 회의는 아주 성과적으로 열렸으며 연안정풍이래 또 한차례의 정풍회의로서 민주를 발양하고 비평과 자아비평을 전개함으로써 우리들 호상간에 료해가 더 깊어지고 사상이 가일층 통일되고 공통한 인식을 가지게 하였다고 인정하고있다. 우리에게는 본래 공통한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일부 문제들에서는 갈지 않은 의견도 있었는데 이번 회의를 통하여 인식이 통일되었다. 이런 기초우에서, 말하자면 사상, 정치 및 많은 정책 면에서 공통한 인식을 가져온 기초우에서 우리 당은 더욱 굳게 단결할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은래동지가 말한바와 같이 당의 제7차대표대회와 그에 앞서 전당적으로 진행된 사상 및 정치 면에서의 정풍이 우리 당의 사상적통일을 위한 기초를

뒹아놓았고 이에 기초하여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민주혁명의 승리가 달성되었다고 한다면 이번 회의는 우리로 하여금 사회주의의 승리를 달성하게 할것이다.

이번 회의가 실증하다싶이 우리 당의 수준은 현저히 제고되었다. 10년전에 있는 7차대회시기에 비하여 커다란 진보를 가져왔을뿐아니라 1949년에 있는 2중전회시기와 1950년에 있는 3중전회시기에 비하여서도 커다란 진보를 가져왔다. 이 정황은 좋은것이다. 이번 회의는 우리가 진보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들어섰다. 즉 우리가 지금 종사하고있고 사고하고있고 연찬하고있는것은 사회주의적공업화이고 사회주의적개조이고 현대화한 국방이며 그리고 또 우리가 원자력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력사적 새 시기에 들어섰다. 전당적으로 보면 연찬정도가 깊은 동지도 있고 깊지 못한 동지도 있다. 이 자리에 있는 동지들도 역시 그러하다. 그것은 의사와 흡사하다. 어떤 의사는 수술할줄 알지만 어떤 의사는 할줄 모른다. 어떤 의사는 정맥주사를 놓을줄 아나 어떤 의사는 정맥주사는 놓을줄 모르고 피하주사밖에 놓지 못한다. 어떤 의사들은 피하주사도 감히 놓지 못하고 피부표면에 머물러있다. 비록 일부 동지들은 파고 들지 못하였지만 대다수 동지들은 파고들고있다. 보아하니 많은 사람들은 확실히 파고들어갔고 능수가 된것 같다. 이번 회의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정형을 볼수 있었다. 이것은 극히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는 사회주의적공업화, 사회주의적개조, 새로운 국방건설, 기타 여러 면의 새로운 공작 등과 같은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고있기때문이다. 이 새로운 정황에 적응하여 파고들어가 능수로 되는 이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그러므로 파고들지 못하는 사람들, 피부표면에 머물러있는 사람들을 교육하여 모두가 다 능수로 되게 하여야 한다.

고강-요수석반당련맹을 반대하는 투쟁은 우리 당을 앞으로 한걸음 크게 전진시킬것이다.

우리는 당내외의 500만 지식분자와 각급 간부들 속에서 변증법적유물론을 선전하며 이 선전을 통하여 그들이 변증법적유물론을 장악하고 유심론을 반대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강대한 리론대오를 육성하게 될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극히 필요한것이며 또 하나의 대단히 좋은 일이다.

우리는 수백만명이 맑스주의의 리론적기초인 변증법적유물론과 력사적유물론을 학습하며 각종 유심론과 기계적유물론을 반대하는 이런 강대한 리론대오를 육성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금 우리는 리론공작에 종사하고있는 간부들이 많지만 아직 리론대오, 더우기 강대한 리론대오는 육성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우리 전당의 사업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공업화, 사회주의적개조, 현대화한 국방건설, 원자력의 연구에 있어서 이 대오가 없어서는 안되며 이 대오가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동지들에게 철학을 학습할것을 권고한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철학에 취미를 붙이지 못하고 있으며 철학을 학습하는 습관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소책자나 단편적인 글들을 보면서 취미를 붙인 다음 7만~8만자에 달하는 책을 보고 그런후에 다시 수십만자에 달하는 책을 읽으면 될것이다. 맑스주의에는 맑스주의적철학, 맑스주의적경제학, 맑스주의적사회주의——계급투쟁학설 등 몇가지 학문들이 포함되어있는데 그 기초로 되는 것은 맑스주의철학이다. 이것을 습득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공통한 언어가 있을수 없고 공통한 방법이 있을수 없으며 아무리 옥신각신 다루어도 명확한 결론을 얻지 못할것이다. 변증법적유물론의 사상을 소유한다면 일이 훨씬 쉽게 될것이며 착오도 훨씬 덜 범하게 될것이다.

## 2. 제1차5개년계획에 관하여

동지들이 인정하다싶이 5개년계획을 토론하면서 대다수 동지들이 아주 훌륭한 발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모두가 만족을 느끼고있다. 그중에서도 일부 동지들의 발언은 특히 훌륭하다. 그들은 문제를 투철히 설명하였으며 전문가 같은감을 주었다. 그러나 중앙 각부문의 발언가운데서 일부 발언은 내용이 좀 빈약하며 분석과 비판이 부족하였다. 지방에서 온 동지들의 발언가운데서도 일부 발언은 좀 빈약하며 분석과 비판이 부족하였다. 그밖에 어떤 동지들의 발언에서는 엄중한 장비문제와 다른 착오들에 대하여 현상을 폭로하는데

그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발언들에 대하여 일부 동지들은 만족해하지 않고있다. 그들이 만족해하지 않는것은 당연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모든 성위서기, 시위서기, 지위서기 그리고 중앙 각 부문의 책임동지들이 모두다 분발노력하여 자기의 맑스-레닌주의수준을 높임으로써 정치공작 및 경제공작에 정통한 전문가로 될것을 희망하는바이다. 한편으로는 정치사상공작을 잘하고 한편으로는 경제건설을 잘하여야 한다. 우리는 경제건설을 정말 할줄 알게 되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에서 중앙에 해결하여줄것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중앙에서 이미 규정을 지은것들은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어야 한다. 기타의 문제들은 비서처에서 문제를 제기한 동지들과 함께 해결방법을 연구한 다음 중앙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앙 각 부문에서 지방의 협작을 요구하는 일도 적지 않게 제기되었다. 각 지방에 있는 중앙 각 부문의 사업들은 지방당위의 감독과 방조를 받아야 하며 특히는 정치사상공작면에서의 감독과 방조를 받아야 한다. 지방당위는 지방에 있는 중앙의 사업들이 임무를 완수하도록 도와줄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지방에서 중앙에 요구하는것이 있을뿐아니라 중앙에서 지방에 요구하는것도 있다. 오직 중앙 각 부문과 지방당위가 일심협력하고 분공협작하여야만 제1차5개년계

회이 원만히 실현될수 있다.

### 3. 고강-요수석반당련맹에 관하여

첫째문제. 어떤 사람은 도대체 이 련맹이 있는가 없는가, 혹은 련맹이 아니고 두개의 독립국이나 두개의 개체호가 아닌가고 묻는다. 어떤 동지는 그들이 련맹을 맺었다면 아무튼 협정이 있을것이고 협정은 또 문자로 쓰여지기 마련인데 그런 문건은 본 일이 없다고 말한다. 확실히 문자로 된 협정은 없으며 그런것을 찾아볼수 없다. 우리는 고강, 요수석에게 련맹이 있다고 본다. 이것은 어떤 점들에서 알게 된것인가? 첫째로는, 재정경제회의기간의 고강, 요수석의 공동활동에서 알아냈다. 둘째로는, 조직회의기간에 요수석이 장수산과 배합하여 반당활동을 진행한데서 알아냈다. 셋째로는, 요수석의 말에서 알아냈다. 요수석은 《앞으로 중앙조직부는 괄봉을 핵심으로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조직부는 요수석이 부장인데 고강의 심복인 괄봉이 핵심으로 된다니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좋은가! 아주 긴밀히 단결되어있지 않는가! 넷째로는, 안자문이 사사로이 작성한 정치국위원명단을 고강, 요수석이 도처에 산포한 사실로부터 알아냈다. 이 일로 하여 안자문은 경고처분을 받았다. 고강, 요수석 등은 이 명단을 조직회의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게 산포하였을뿐 아니라 남방의 각 성들에도 산포하였다. 무슨 심사로 그렇게 도처에 산포하였는가? 다섯째로는, 고강이 두번이

나 나에게 요수석을 보호하겠다고 표시하였고 요수석도 마지막까지 고강을 보호하려 한 이 사실로부터 알아냈다. 고강은 요수석이 지금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있다고 하면서 나더러 그를 건져달라고 하였다.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무엇때문에 요수석을 대신해서 말하는가? 나도 북경에 있고 요수석도 북경에 있는데 그는 어째서 직접 나를 찾아오지 않고 당신을 내세우는가? 서장에 있다 하여도 전보를 칠수 있을 터인데 하물며 요수석은 북경에 있으며 또 제 발이 있지 않는가. 고강은 자기가 적발되는 전날까지도 재차 요수석을 보호하겠다고 표시하였다. 요수석은 마지막까지도 고강을 보호하려 하였으며 고강이 애매하다고 하였다. 고강을 적발하는 중앙회의에서 나는 북경에는 두개 사령부가 있는데 하나는 나를 위수로 하는 사령부로서 그것은 정당한 바람을 일으키며 정당한 불을 달고있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사령으로 하는 사령부로서 그것은 음흉한 바람을 일으키며 음흉한 불을 달고있으며 한갈래의 지하수를 이루고있다고 말하였다. 대체 정령이 한곳에서 나오고있는가 아니면 여러곳에서 나오고있는가? 위에서 말한 많은 사실로부터 보면 그들은 서로 상관없는 두개의 독립국이거나 개체호인것이 아니라 하나의 반당련맹이다.

명문으로 된 협정이 없기때문에 어떤 동지들이 의심을 가지면서 아마 련맹은 아닐것이라고 하는 점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음모분자들로 구성된 반당련맹을 공개적이고 정식적인 일반 정치련맹이나 경제련

맹과 동등시하며 그것을 같은것으로 보는데서 온것이다. 그들은 음모를 꾸미고있지 않았는가! 음모를 꾸미는데도 명문으로 된 협정을 체결하는가? 만일 명문으로 된 협정이 없는것은 련맹이 아니라고 한다면 고강과 요수석 이 두 반당집단내부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볼것인가? 고강과 장수산, 장명원, 조덕존, 마홍, 팍봉사이에도 조약을 맺은것이 없지 않은가! 우리는 그들에게서도 명문협정을 보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그들의 반당집단마저도 부정하겠는가! 그리고 요수석과 향명, 양범사이에서도 그들이 조약을 맺은것을 보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명문으로 된 협정이 없는것은 련맹으로 인정할수 없다고 하는 견해는 틀린 견해이다.

둘째문제. 고강, 요수석의 영향을 받은 동지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은 동지들은 각기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가? 영향을 받은 동지들가운데도 그 정도가 각기 다르다. 어떤 동지들은 그들에게 슬쩍 스치운 정도의 일반적영향을 받았고 소수의 몇몇 동지들은 영향을 받은 정도가 비교적 깊은데 그들과 많은 문제를 의논하였으며 아래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들의 말을 퍼뜨려주었다. 이 량자는 구별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중 대다수 동지들은 그 받은 영향이 열든깊든간에 이번 회의에서 이미 태도를 표시하였다. 어떤 동지들은 태도표시가 좋아 만장의 환영을 받았다. 어떤 동지들은 태도표시가 꽤참아 대부분 동지들의 환영을 받았으나 결합은 있다. 어떤 동지들은 태도표시를

그리 잘하지 못하였으므로 오늘 다시 보충하였다. 어떤 동지들은 그 발언전체로 보면 괜찮지만 타당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아무튼 이 몇 부류의 사람들이 이미 태도를 표시하였으니만큼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일률로 환영하여야 한다. 어쨌든 태도표시가 있는셈이 아닌가! 이밖에 발언할것을 요구하였으나 미처 하지 못한 동지들도 개별적으로 있는데 그들은 중앙에 서면 보고를 하면 된다. 아직 발언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슬쩍 스치운 사람으로서 약간의 일들을 알지만 말하지 않았을뿐 문제가 엄중하지는 않다. 그리고 이미 발언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직 꼬리를 남겨놓은것이 더러 있지 않겠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결정한다. 즉 5개년계획에 관한것이건 고강-요수석반당편맹문제에 관한것이건 모든 발언과 보고를 다 도로 가져다 수정하되 글자마다, 구절마다 따져가면서 완전하지 못하거나 타당하지 못한 부분들을 닷새안으로 다시 수정할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말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였다 하여 그것을 틀어쥐고 앞으로 그를 난처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수정할것이 있으면 더 수정할수 있다. 그러면 수정한 마지막원고를 표준으로 하겠다.

우리는 이런 동지들에게 착오를 시정할것을 희망하면서 그들을 두고보아야 할뿐만아니라 도와주는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다시말하면 시정하는가 시정하지 않는가를 두고보아야 할뿐만아니라 시정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사람에게서는 방조가 필요하다. 련꼴이 아름답다 해도 푸른 잎사귀가 받쳐주어야 한다. 울바자도

말뚝 몇을 박아야 설수 있고 호한도 조력군 몇이 받들어주어야 한다. 혼자 하는것은 좋지 못하다. 어쨌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런 문제에서는 더구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들이 시정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두고보는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단지 두고보기만 하는것은 소극적인것이므로 두고보는외에 그들을 도와도 주어야 한다. 영향을 받은 사람에게 대하여서는 그 영향이 깊은열든간에 우리는 그들이 시정하는것을 일률로 환영하여야 하며 두고볼뿐만 아니라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착오를 범한 동지를 대하는 적극적인 태도이다.

영향을 받지 않은 동지들은 교오하지 말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 말한 그런 동지들중에는 속아넘어간 사람도 있고 비교적 깊이 빠져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그들은 착오를 범한 까닭에 경각성이 높아져서 앞으로는 이런 착오를 범하지 않게 될수 있다. 한번 앓고나면 면역력이 생긴다. 우두를 한번 맞으면 예방이 된다. 그러나 장담할수는 없다. 그래도 천연두에 걸리는수가 있다. 그러므로 3년이나 5년만에 우두를 한번 더 맞는것이 좋다. 즉 우리의 이번 회의와 같은 회의를 여는것이 좋다. 그러니 기타의 동지들도 교오하지 말며 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교강과 요수석이 이런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은것은 무엇때문이었는가? 여기에는 몇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경우는 그들이 원주로 보는 사람들에 대한것인데 이런 사람들에

게 전파하지 않을것은 물론이다. 둘째경우는 그들이 짚보는 사람들에 대한것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하찮게 여기면서 장차 《천하가 결정》되면 저절로 따라올것이므로 지금은 그들에게 전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던것이다. 셋째경우는 그들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대개 면역력이 비교적 강하여 보기에 될것 같지 않으므로 비록 이런 동지들을 저들의 원쑤나 하찮은 인간으로 보지는 않지만 감히 건드리지 못하였던것이다. 넷째경우는 시간적여유가 없었던것이다. 이런 온역을 퍼뜨리는데도 시간이 필요한것이다. 지금 폭로되지 않고 1년만 더 지난다면 어떤 사람들은 위태하다. 그러므로, 보라, 동무들은 좀 걸려들지 않았는가, 그렇지만 나는 정말 깨끗하다라고 하면서 우쭐대지는 말아야 한다. 1년만 더 폭로되지 않고있었더라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영남없이 그들의 영향을 받았을것이다.

우에서 말한것이 고강과 요수석의 영향을 받았거나 받지 않은 두 부분의 동지들이 주의를 돌리지 않으면 안될 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셋째문제. 동지들사이에서 원칙적문제에 있어서는, 당의 원칙에 배치되는 언론, 행동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간격을 두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그들에게서 당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고 우리의 눈에 거슬리는 그런 언론과 행동이 나타났을 때 그런 문제, 그런 정황에 한해서는 그들과 한데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다른 문제, 당의 원칙에 부합되는 문제, 례하면 5개년



계획, 고강-요수석반당련맹에 관한 결의와 보고 그리고 각종 정확한 정책과 정확한 당내법규에 부합되는 이러한 언론과 행동에 대하여서는 물론 적극적으로 지지하여야 하며 한데 휩쓸리어야 한다. 당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것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시말하면 계선을 똑똑히 나누고 즉시 막아버려야 한다. 오랜 벗, 오랜 상급, 오랜 부하, 오랜 동료, 동창생, 한고향사람이라 하여 간격을 없애서는 안된다. 이번의 고강-요수석반당사건가운데나 과거의 당내의 로선투쟁가운데는 이러한 경험이 적지 않게 있었다. 즉 관계가 아주 오래고 인연이 깊어 말하기 거북하다고 생각하여 일정한 간격을 두지 않고 막아버리지 않고 계선을 나누지 않으면 앓을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며 그들의 《도깨비》에 홀리게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태도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넷째문제. 어떤 동지들은 《고강과 요수석이 한 나쁜짓들을 다소 알고는 있으나 그들의 음모는 간파하지 못하였다》고 말하고있다. 나는 두가지 경우를 갈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가지는 고강과 요수석이 당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말을 하는것을 많이 들었고 지어는 고강과 요수석이 반당활동에 관한 일부 문제를 자기들과 상론한 일도 있는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응당 그들의 음모를 간파했어야 할것이다. 다른 한가지는 그들이 한 나쁜짓들을 일반적으로는 알고있으나 음모를 간파하지 못한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 음모를 간파하기

가 어려운것이므로 탓할것이 못된다. 중앙에서도 1953년에 와서야 그들의 반당음모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재정경제회의와 조직회의를 거치면서 그리고 재정경제회의전에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들을 통하여 그들이 정상적이 아니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재정경제회의기간에 그들의 비정상적인 활동을 발견하고 그때마다 그들에게 면박을 주었다. 그러자 그후부터 그들은 완전히 비밀활동으로 넘어갔다. 이 음모, 이 음모가, 이 음모집단을 우리는 1953년 가을과 겨울에 와서야 발견하였다. 오래동안 고강과 요수석이 나쁜 사람이라는것을 간파하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정강산시기에 변절분자 몇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이 변절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였다. 아마 여러 동무들에게도 다 이런 경험이 있을것이다.

우리는 이로부터 가상에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경험을 얻어내야 한다. 우리의 어떤 동지들은 험히 가상에 미혹된다. 어떠한 사물이나 다 그 현상과 본질사이에는 모순이 있다. 사람들은 현상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하여서만 사물의 본질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과학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직관을 통하여 대뜸 본질을 알수 있다면 과학은 해서 무엇하겠는가? 연구는 해서 무엇하겠는가? 연구를 하여야 하는 까닭은 현상과 본질사이에는 모순이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가상은 어디까지나 가상이기때문에 일반적현상과는 구별이 있다. 그러므로 되도록 가상에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경험이 도출된다.

다섯째문제. 교오정서가 있으면 위험하다. 우쭐대지 말아야 한다. 사업이란 다수 사람이 하는것이고 소수인의 작용은 한도가 있는것이다. 소수인의 작용, 즉 령도자와 간부의 작용은 승인하여야 하지만 그러나 별로 대단한 작용이 있는것은 아니다. 대단한 작용을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군중이다. 간부와 군중간의 정확한 관계는 이러하다. 즉 간부가 없어도 안되지만 일은 광범한 군중들이 하는것이고 간부는 령도작용을 일으킬 따름이므로 간부의 이런 작용을 과장하여서는 안된다. 네가 없으면 큰일이 나는가? 네가 없어도 별일이 없다는것은 력사에 의하여 증명되었으며 각종 사실에 의하여 증명되었다. 헤켄대 고강과 요수석이 없으면 큰일이 나는가? 그들이 없어도 별일이 없지 않은가! 프로프끼, 장국도, 진독수가 없어도 별일이 없지 않았는가! 이런 자들은 모두가 나쁜 자들이다. 공자가 없어진지 오래고 우리 중국에는 공산당이 나타났는데 공산당은 어쨌든 공자보다 좀 고명하지 않은가. 공자가 없으니 일이 더 잘되어가지 않은가! 그러면 좋은 사람은 어떤가, 역시 그가 없어서 안될것은 없다. 그가 없다 하여 지구가 돌지 않겠는가? 지구는 여전히 돌것이고 사업은 여전히 진척되어나갈것이며 더 잘 진척될수도 있을것이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한 부류는 경력이 오랜 사람들이다. 이 자리에도 매우 오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 다른 한 부류는 신생력량인데 그것은 젊은이들이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가운데서 어느 부

류의 사람들이 더 유망한가? 은태동지도 오늘 이 문제를 언급하였지만 두말할것없이 신생력량이 더 유망하다. 어떤 동지들은 로혁명자라고 교오하고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옳지 못하다. 대비적으로 말하여 만일 교오하는것이 허용된다면 청년들이 도리어 교오할만할것이다. 40~50세이상되는 사람은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을수록 더 겸손하여야 한다. 젊은이들이 우리에게 확실히 경험이 있다는것을 보고서 《이 선배들에게는 확실히 경험이 있다. 그들을 알아보아서는 안된다. 보라, 얼마나 겸손한가!》 하고 느끼도록 되어야 한다. 40~50세되는 사람으로서 경험이 많다 하여 교오한다면 어찌 끝불견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되면 젊은이들은 《당신들의 그까짓 경험은 있으나마나하다. 아이들과 다름없지 않은가!》고 공론할것이다. 애들이 좀 뽀내는것쯤은 그래도 다소 사리에 맞는것이다. 나이가 있는 사람이 경험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냥 교오하며 꼬리를 그렇게 높이 쳐든다는것은 당치않은것이다. 《꼬리를 사리고 사람행실을 하라》는 속담이 있다. 본래 사람은 꼬리가 없는데 어째서 꼬리를 사리어야 한다고 하는가? 이를테면 개는 꼬리를 쳐들 때도 있고 꼬리를 사릴 때도 있다. 대체로 몇배 얻어맞으면 꼬리를 사리고 성과를 좀 올리면 꼬리를 쳐든다. 나는 우리의 모든 동지들이, 누구보다도먼저 나이 많은 동지들이 꼬리를 쳐들지 말고 사리며 교만성과 조급성을 삼가하며 겸손하게 계속 향상하려는 정신을 영원히 보전할것을 희망한다.

여섯째문제. 《좌》경도 경계하고 우경도 경계하여야 한다. 어떤 사람은 《〈좌〉경은 우경보다 낫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동지들이 많다. 기실 속으로는 《우경이 〈좌〉경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런데 그것을 입밖에 내지 않고있으며 성실한 사람들만이 입밖에 내놓는다. 이상과 같은 두가지 의견이 있다. 《좌》경이란 무엇인가? 시대를 초월하고 당면정황을 초월하여 방침, 정책 면에서, 행동면에서 너무 급격히 나아가며 투쟁문제에서, 쟁론이 일어난 문제에서 마구 투쟁하는것이 《좌》경이다. 이것은 좋지 못하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당면정황에 뒤떨어지고 투쟁성이 결핍한것이 우경이다. 이것 역시 좋지 못하다. 우리 당내에는 《좌》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뿐더러 우경을, 또는 중간에서 우경으로 좀 기울어지는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는데 어느것이나 다 좋지 못하다. 우리는 두 전선에서 투쟁을 진행하여 《좌》경도 반대하고 우경도 반대하여야 한다.

고강-요수석반당련맹문제에 관하여서는 이만큼 말 하겠다.

#### 4. 목전형세에 관하여

국제형세, 국내형세, 당내형세 이 세가지 형세는 어떠한가? 광명한 편이 우세를 차지하는가 아니면 암흑한 편이 우세를 차지하는가? 국제형세거나 국내형세거나 당내형세거나를 막론하고 다 광명한 편이 우세를

차지하고 암흑한 면이 열세를 차지한다는것을 긍정하여야 하겠다. 우리의 이 회장을 놓고보아도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자아비평을 하였다 하여 암흑하다고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이런 동지들은 자기의 결점과 착오를 치중하여 말하고 자기의 우점은 말하지 않았다. 어느해에 혁명에 참가하였고 어디에서 승전하였으며 어디에서 공작에 성과가 있었다는것들은 하나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의 검토만 보면 암흑하게 생각될것이다. 기실 이것은 한개 측면이다. 많은 동지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차요한 측면이다. 이 정황은 고강, 요수석 및 다섯 맹장인 장수산, 장명원, 조덕존, 마홍, 팍봉의 정황과는 다르다. 그들에게는 광명한 면이 우세를 차지한다는 평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강에게 광명한 면이 우세를 차지한다고 할만한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에게는 온통 암흑뿐으로 천지가 캄캄하며 일월이 빛을 잃고있다. 우리의 동지들을 놓고보면 그렇지 않다. 그들에게는 암흑면이 다소 있을뿐이다. 이것은 깨끗이 씻어버릴수 있는것이며 비누로 몇번 더 씻으면 되는것이다.

무엇때문에 돌연적사변에 대처할 준비를 하며 반혁명복벽에 대처할 준비를 하며 고강-요수석사건이 재차 발생되는데 대처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가? 그것은 어쨌든 가능한 최악의 경우로부터 착안하면 손해가 없다는것을 말하자는것이다. 어떠한 공작이거나를 막론하고 우리는 가능한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 최악의

경우란 극상해야 다음과 같은 극히 나쁜 일들일 것이다. 즉 제국주의자가 새로운 세계대전을 발동하며 장개석이 다시 북경에 들어왔으며 고강-요수석반당연맹과 같은 사건이 재차 발생하며 그것도 한가지만이 아니라 열가지, 백가지 생기는 것이다. 그런 일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전에 만단의 준비를 갖추게 되면 겁날 것 없는 것이다. 그런 일이 열가지라고 하여도 그것은 다섯쌍에 불과하니 대단할 것이 없으며 죄다 우리가 예견하고 있는 일이다. 제국주의가 우리를 공갈하는데 쓰고 있는 원자탄과 수소탄도 무서울 것 없다. 세상일이란 하나가 하나를 이기기 마련이고 진공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봉신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격파하지 못할 《법보》가 어디 하나라도 있는가? 그렇게 많은 《법보》가 다 격파되고 말았던 것이다. 오직 인민에게 의거하기만 하면 세상에는 격파하지 못할 《법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 5. 당의 제8차 전국대표대회의 승리적 소집을 위하여 투쟁하자

중앙은 1956년 하반기에 당의 제8차 전국대표대회를 열기로 결정하였다. 대회의 의사일정에는 (1) 중앙위원회의 사업보고, (2) 당장수정, (3) 새로운 중앙위원회의 선거 등 세가지가 있다. 대표선거공작과 문건준비공작은 명년 7월전으로 끝내야 한다. 이 한해 남짓

한 동안에 우리는 경제, 문화교육, 군사, 당사업, 정치사상, 군중단체, 통일전선, 소수민족 등 여러 면의 공작이 모두 한걸음 크게 발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는 이 기회에 소수민족공작에 관한 문제를 좀 말 하겠다. 대한족주의를 반대하여야 한다. 한족이 소수민족을 도와주었다고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소수민족도 한족에게 커다란 방조를 주고있는것이다. 일부 동지들은 언제나 우리가 당신들을 도와주었다고 불어대면서 소수민족이 없어서는 안된다는 점은 보지 못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50% 내지 60%의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있는가? 한족이 살고있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이 살고있는가? 50% 내지 60%의 지역에는 소수민족이 살고있다. 거기에는 물산이 풍부하고 보물이 아주 많다. 오늘 소수민족에 대한 우리의 방조는 아주 적다. 어떤 점에서는 아직 방조를 주지 못하고있으며 오히려 소수민족이 한족을 방조하고있다. 어떤 소수민족들은 먼저 우리가 방조를 주지 않으면 안되고 그런 연후에야 그들이 우리를 방조할수 있다. 소수민족은 정치적으로 한족에게 커다란 방조를 주었다. 그들이 중화민족이란 이 대가정속에 들어온 그자체가 바로 한족에 대한 정치적방조인것이다. 소수민족이 한족과 굳게 뭉치고있으므로 전국 인민이 다 기뻐하고있다. 그러므로 소수민족이 정치, 경제, 국방 등 면에서 온 나라와 중화민족전체에 준 방조는 매우 큰것이다. 소수민족은 한족을 도와준것이 없고 한족이 소수민족을 도와주었을뿐이라는 관점이나 소수민족에 대한 약



간한 방조를 대단한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점은 그릇된것이다.

우리가 이 한해동안에 여러 면의 공작에서 한걸음 크게 발전하여야 한다는것은 바로 이미 폭로된 결함이나 착오를 시정하여야 한다는것을 두고 말하는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시정하겠다고 다짐한 그러한 결함이나 착오들이 명년에 8차대회를 열 때에 가서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8차대회의 소집을 위하여 투쟁한다는것은 바로 결함과 착오를 시정하여야 한다는것, 폐진대 때벌려랑비하는것이라든가 궁궐식지붕을 만드는것이라든가 하는것들을 책임지고 참답게 시정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시정할것을 다짐하고서 돌아가서는 두다리를 쭉 펴고 잠을 자서는 안된다.

이러한 회의를 1년 또는 2년에 한번씩 열어 동지들간에 호상 감독하게 할것을 진의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고려해볼만한것이라고 생각한다. 누가 우리 같은 사람들을 감독하는가? 호상 감독하는것은 훌륭한 방법으로서 당과 국가의 사업을 급속히 발전하도록, 천천히가 아니라 급속히 발전하도록 촉진할수 있다. 당의 대표대회를 10년동안이나 열지 못하였다. 전 5년은 전쟁을 하고있었고 게다가 7차대회가 있은후이므로 물론 소집하지 말아야 하였다. 후 5년간에는 소집할수 있었으나 소집하지 않았다. 소집하지 않은데는 좋은 점도 있었다. 그것은 즉 8차대회를 고강-요수석문제가 밝혀진 다음에 열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

있더라면 그들이 8차대회를 리용하여 크게 활동하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5개년계획도 제 5개년 계획에 들어섰고 과도기의 총로선도 나왔으며 또 이번 대표회의를 거쳐 모두들 사상적으로 더욱 통일되었다. 이리하여 당의 제8차대표대회를 소집하기 위한 조건이 마련되었다. 당의 제8차대표대회에서 저마다 검토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공작중의 결함과 착오들에 대하여서는 의연히 공개적인 비평과 자아비평을 하여야 한다. 맑스주의의 이 원칙을 실시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비평은 날카로워야 한다. 내가 보건대 이번의 일부 비평들은 남의 미움을 살가봐 두려워서인지 그렇게 날카롭지 못한 것이었다. 날카롭게, 따끔하게 지적하지 않으면 아파하지 않을 것이며 주의하지 않을 것이다. 성명을 밝혀야 하며 어느 부문인가를 지적하여야 한다. 동무가 잘하지 못해서 내가 불만을 느껴 그러니까 미워하겠거든 미워하라고 생각하면 된다. 미움을 살가봐 두려워하는 것은 기껏해서 선거표를 얻지 못할가봐, 그리고 또 공작가운데서 상대하기 거북할가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투표해주지 않는다 하여 밥통이 떨어지겠는가? 그럴 리 없다. 기실 문제를 털어놓고 날카롭게 제기하면 오히려 상대하기가 좋게 된다. 모를 죽여버려서는 안된다. 소는 왜 뿔이 있는가? 소가 뿔이 있는 것은 싸우기 위해서이다. 죽 방어도 하고 진공도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늘 동지들에게 머리에 《뿔》이 있는가고 물어보는데 여러 동지들도 만져보기 바란다. 내가 보건대 어떤 동지들에게는 《뿔》이 있으며 어떤 동지

들에게는 《빨》이 있기는 하나 그리 날카롭지 못하며 어떤 동지들에게는 아예 《빨》이 없다. 나는 어쨌든 《빨》이 있는것이 좋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것은 맑스주의에 부합되기때문이다. 맑스주의에는 비평과 자아비평이라는 원칙이 하나 있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비평과 자아비평을 전개하는 이것은 동지들간에 서로 감독하고 당과 국가의 사업을 급속히 발전하도록 촉진하는 좋은 방법이다. 각 성위, 시위의 동지들에게 건의하는바이지만 동무들도 이렇게 할수 없겠는지 고려해보기 바란다. 동무들은 중앙을 따라배우려 하지 않는가? 내가 보건대 이 점은 따라배울만한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동지들이 그리고 또 전당 동지들이 주의력을 다음의 목표로 기울여주기 바란다.

1956년에 당의 제8차전국대표대회를 승리적으로 소집하기 위하여 투쟁하자!

제1차5개년계획을 승리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하자!

## 《여론이 일률적이다》라는 것을 논박한다\*

(1955년 5월 24일)

호풍이 《여론이 일률적이다》라고 한것은 반혁명분자들로 하여금 반혁명적의견을 발표하지 못하게 하는것을 두고 한 말이다. 확실히 그렇다. 우리의 제도는 그 어떤 반혁명분자들에게도 언론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인민내부에서만 이런 자유를 허용한다. 우리는 인민내부에서는 여론이 일률적이 아닌것을 허용한다. 다시말하면 비평할 자유, 각이한 의견을 발표할 자유, 유신론이나 무신론(즉 유물론)을 선진할 자유를 준다. 사회는 어느때를 물론하고 언제나 선진적인 사람과 낙후한 사람, 선진적인 의견과 낙후한 의견이 모순되면서 존재하고 투쟁하며 언제나 선진적인 의견이 낙후한 의견을 극복하게 되는데 《여론이 일률적》이 되기를 기한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또 부당한것이다. 선진적인것을 충분히 발양하여 낙후한것을 극복하여야만 사회를 전진하게 할수 있다. 그러나 국제국내적으로 계급과 계급투쟁이 아직 존재하는 시대에 있어서 국가권력을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호풍반혁명집단을 비판하여 쓰신 글이다.

탈취한 공인계급과 인민대중은 혁명에 대한 일체 반혁명적 계급과 집단 및 개인의 반항을 진압하고 그들의 북벌활동을 제지하며 일체 반혁명분자들이 언론자유를 반혁명목적에 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여야 한다. 그래서 호풍따위 반혁명분자들은 《여론이 일물적인》것이 저들에게 불편하다는것을 느끼게 된것이다. 그들이 불편을 느끼는것이 바로 우리가 목적인바이며 바로 우리에게 편리한것이다. 우리의 여론은 일물적이기도 하고 일물적이 아니기도 하다. 인민내부에서는 선진적인 사람들이 민주와 설복의 방법으로 낙후한 사람들을 교육함으로써 낙후한 사상과 낙후한 제도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진적인 사람들과 낙후한 사람들이 우리의 신문, 잡지, 연단 등등을 자유로이 리용하여 경쟁하는것을 허용한다. 한가지 모순이 극복되면 또 새로운 모순이 산생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이렇게 경쟁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사회가 부단히 전진하게 된다. 모순이 존재한다는것은 일물적이 아니라는것을 의미한다. 모순을 극복하면 당분간은 일물적인것으로 된다. 그러나 미구에 또 새로운 모순이 생기게 되고 또 일물적이 아닌것으로 되며 또 그 모순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인민과 반혁명과의 모순에 있어서는 인민이 공인계급과 공산당의 령도하에서 반혁명에 대하여 전정을 실시한다. 여기서는 민주적방법을 쓰는것이 아니라 전정, 즉 독재의 방법을 쓴다. 다시말하면 그들이 순순히 복종만 하고 함부로 지껄이거나 행동하지 못하도록 한다. 여기서는 여론이 일물적일뿐아니라 법률도 일물적

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호풍따위 반혁명분자들은 마치 충분한 근거라도 있는듯이 지껄여대고있으며 사리에 밝지 못한 일부 사람들도 이런 반혁명적론조를 듣고서는 마치 자기에게 도리가 없는듯이 생각하며 보라, 《여론이 일률적이다》라든가 《여론이 없다》든가 《자유를 압제한다》든가 하는 말들이 얼마나 듣기 거부한가고 한다. 그들은 인민의 내부와 외부라는 갈지 않은 두 범주를 가르지 못하고있다. 내부에 있어서 자유를 압제하며 당과 정부의 착오 및 결점에 대한 인민들의 비평을 압제하며 학술계의 자유로운 토론을 압제하는것은 범죄적행위이다. 이렇게 취급하는것은 우리의 제도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합법적인 행위로 되고있다. 외부에 있어서 반혁명들이 함부로 지껄이거나 행동하도록 내버려두는것은 범죄적행위이며 그들에 대하여 전정을 실시하는것이 합법적행위이다. 이렇게 취급하는것은 우리의 제도이다. 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는 이와는 정반대로 자산계급전정을 실시하여 혁명적인민들을 순순히 복종만 하고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하게 한다. 착취자와 반혁명분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다 소수이고 피착취자와 혁명자는 언제나 다수이다. 그렇기때문에 후자의 전정에는 충분한 도리가 있고 전자의 전정에는 어쨌든 도리가 없는것이다. 호풍은 또 《절대다수의 독자들이 다 이러저러한 조직체내에서 생활하고있는데 그곳의 분위기는 사람을 강박하는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인민내부에 있어서 우리는 강박명령의 방법을 반

대하고 민주와 설복의 방법을 견지하고있으므로 그곳의 분위기는 응당 자유로와야 하며 《사람을 강박하는 것》은 잘못이다. 《절대다수의 독자들이 다 아러져려한 조직체내에서 생활하고있는》 이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이런 좋은 일은 지난 수천년동안 있어본적이 없다. 오직 공산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장기적인 간고한 투쟁을 한후에야 인민은 비로소 반동과의 착취와 압박에 리롭던 자기들의 분산상태를 단결상태로 개변할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또한 혁명이 승리한후 몇해동안에 이런 인민의 대단결이 실현되었다. 호풍이 《사람을 강박하는것》이라고 한것은 반혁명측의 사람을 강박하는것을 두고 말한것이다. 그들은 확실히 《새 며느리 마냥 늘 얻어맞을가봐 겁을 내며》 《기침을 한번 하여도 목음을 하는 사람이 있을가봐》 가슴을 조이고있다. 우리는 이것도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좋은 일도 지난 수천년동안 있어본적이 없다. 오직 공산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장기적인 간고한 투쟁을 한후에야 비로소 이런 나쁜놈들이 이처럼 괴로와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인민대중이 기뻐하는 날인즉 바로 반혁명분자들이 괴로와하는 날이다. 우리는 해마다 국경절이면 무엇보다먼저 이것을 경축한다. 호풍은 또 《문예문제에 있어서도 실로 제일 공력이 들지 않는것은 기계론이다》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말한 《기계론》이라는것은 변증법적유물론에 대한 반어이며 《제일 공력이 들지 않는다》는것은 그의 허튼소리이다. 세상에서 제일 공력이 들지 않는것은 유심론과 형이상학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객관실체에 근거하지 않고 객관실체의 검사도 받지 않고 아무렇게나 허튼소리를 쳐도 되기때문이다. 유물론과 변증법은 객관실체에 근거하며 객관실체의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공력을 들여야 한다. 공력을 들이지 않으면 유심론과 형이상학에 빠지게 된다. 호풍은 이 편지에서 원칙성을 띤 세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우리는 이에 대하여 상세하게 논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편지에서 호풍은 또 《지금 반항의 정서가 도처에 있으며 진일보의 요구가 도처에 있다》고 하였다. 이 말은 그가 1950년에 한 것이다. 그 당시 대륙에서는 장개석의 주요군사력이 방금 소멸되고 토비로 변한 많은 반혁명무력이 아직 숙청되지 않았고 대규모의 토지개혁운동과 반혁명진압운동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문화교육계의 정돈공작도 아직 진행되지 않고있었다. 호풍의 말은 확실히 그 당시의 정황을 반영하였다. 다만 완전하게 말하지 못하였을 따름이다. 완전하게 말한다면 지금 혁명에 대한 반혁명의 반항정서가 도처에 있으며 혁명에 대한 반혁명의 온갖 교란의 성질을 띤 진일보의 요구가 도처에 있다고 말하여야 할 것이다.



## 《호풍반혁명집단에 관한 재료》의 서언과 평어

(1955년 5월, 6월)

### 서 언

(1955년 6월 15일)

광범한 독자들의 요구에 응하여 우리는 1955년 5월 13일부터 6월 10일까지의 기간에 세차체에 걸쳐 《인민일보》에 발표된 호풍반혁명집단에 관한 재료와 1955년 6월 10일부 《인민일보》 사론을 한데 묶어 《호풍반혁명집단에 관한 재료》라는 제목으로 인민출판사에 넘겨 출판한다. 우리는 독자들이 이 반혁명량면파를 연구하는데 자원으로 삼도록 호풍의 《나의 자아비판》도 이 책에다 넣었다. 그러나 그것을 부록으로 고쳐 서무의 그 《재료》 뒤에다 넣었다. 세편의 《재료》의 평어와 주해에 대하여 우리는 약간의 문자적수정을 가하였다. 제2편의 《재료》에서 우리는 일부 주해들을 수정하였고 일부 주해들을 첨가하였으며 평어도 둘을 더 첨가하였다. 제1편과 제2편의 제목에 《반당집단》이라고 한것은 통일을 기하여 모두다 제3편에 쫓아 《반혁명집단》이라고 고쳤다. 이밖에는 다 원래의것과 같다.

이 재료들이 《인민일보》에 발표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책도 출판된 후 두 방면의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것이라고 짐작된다. 즉 한 방면으로는 반혁명분자들이 주의를 돌릴 것이며 다른 한 방면으로는 광범한 인민들이 더욱 주의를 돌릴 것이다.

반혁명분자들과 이러저러한 반혁명적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호풍분자들 사이에 오간 편지들을 보고 공명을 일으킬 것이다. 호풍과 호풍분자들은 확실히 모든 반혁명적 계급과 집단과 개인의 대변인이다. 이 책을 입수할 수 있는 모든 반혁명분자들은 혁명을 타매한 그들의 욕설과 그들의 활동책략을 찬미할 것이며 거기에서 어떤 반혁명적인 계급투쟁의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을 멸망에서 구원하지는 못할 것이다. 호풍분자들의 이런 문건도 그들의 뒤심인 제국주의와 장개석국민당이 중국인민을 반대하여 쓴 모든 반혁명 문건과 마찬가지로 결코 성공의 기록인 것이 아니라 실패의 기록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자신의 집단을 멸망에서 구원하지 못하였다.

광범한 인민군중들에게는 이와 같은 재료가 매우 필요하다. 반혁명분자들이 어떻게 양면파적수법을 쓰고 있는가? 그들이 어떻게 가상으로 우리를 속이면서 암암리에 우리가 예상 못할 것을 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수천수만의 선량한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 많은 반혁명분자들이 우리의 대오속에 뚫고들어오게 되었다. 우리의 사람들은 눈이 밝지 못하여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잘 식별할 줄 모른

다. 우리는 정상적인 정황하에서 활동하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식별할줄 알지만 특수한 정황하에서 활동하는 그런자들은 식별할줄 모른다. 호풍분자들은 위장하고나선 반혁명분자들이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가상을 보이고 진상을 덮어감추고있다. 그러나 그들이 반혁명을 하는 이상 그 진상을 아주 철저하게 덮어감출수는 없다. 한 집단의 대표적인물인 그들과 우리사이에는 해방전과 해방후에 이미 여러차례 론쟁이 있었다. 그들은 언론이나 행동이 공산당인들과 다를뿐더러 광범한 당외의 혁명자들 및 민주인사들과도 다르다. 최근의 대폭로는 그들의 많은 확실한 증거를 틀어쥔것에 불과하다. 호풍분자들중의 많은 개개인을 놓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기만당한것은 우리의 당조직, 국가기관, 인민단체, 문화교육기관 또는 기업기관들에서 그들을 받아들일 때 엄격한 심사를 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또한 과거 우리가 혁명의 대폭풍우시기에 처하여있었으므로, 그리고 우리가 승리자여서 여러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접근하게 되었으므로 불가피적으로 불순분자들도 그 틈에 끼여들게 되었는데 우리는 미처 그것을 철저하게 청리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그리고 또 나쁜 사람을 식별하고 청리하는 이 일은 령도기관의 정확한 지도와 광범한 군중의 높은 각오가 서로 결합되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일인데 이 면에서 과거 우리의 공작에 결합이 있었기때문이다. 이 모든것은 다 교훈이다.

우리가 호풍사건에 중시를 돌리는것은 이 사건으로써 광범한 인민군중, 무엇보다도먼저 열독능력이 있

는 공작간부와 지식분자들에게 교육을 주며 그들에게 이 《재료》를 추천함으로써 그들의 각오정도를 높이기 위한것이다. 이 《재료》는 극히 침예하고 선명한 특징을 가지고있어 자못 사람들의 주목을 끈다. 반혁명분자들이 이 《재료》에 주의를 돌리고있는것은 물론이지만 혁명적인민들은 더구나. 이 《재료》에 주의를 돌리고 있다. 광범한 혁명적인민들이 이 사건과 재료에서 일정하게 배우는것이 있고 그리하여 그들의 혁명적열정이 앙양되고 식별능력이 높아지기만 한다면 숨어있는 온갖 반혁명분자들은 우리에게 점차 사출되고말것이다.

## 평 어(선택하여 수록)

(1955년 5월, 6월)

### 1

종파를 우리의 조상들은 《붕당》이라 하였고 지금 사람들은 《동아리》라고도 하고 《패거리》라고도 한다. 우리는 종파라는 말을 귀에 익도록 들었다. 그런데 이런것을 하는 사람들은 저들의 정치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흔히 남들을 보고 종파가 있다고 하면서 종파가 있는 사람은 정파답지 못하고 자기들은 정파다우며 정파다운 사람에게는 종파가 없다고 한다. 호풍이 령도하는 사람들은 듣는바에 의하면 모두가 《청년작가》들이고 《혁명작가》들이는데 《자산계급리론》을 가지고있고 《독

령왕국을 이루고있는》 공산당이런 종파에게 《적대시》 당하고 《박해》를 받고있으므로 복수를 하려 한다고 한다. 그리고 《문예보》문제는 《돌파구를 하나 찾아내는데 불과하며》 이 《문제는 고립적인것이 아니》므로 이로부터 《전면에 넓히여》 《이것이 종파주의가 통치하고있는 문제》이며 또한 《종파 및 군벌 통치》이라는것을 《밝혀놓을》 필요가 있다는것이다. 문제가 이처럼 엄중하기때문에 그것을 소탕하기 위하여 그들은 적지 않은것들을 《내놓았다》. 이렇게 되자 호풍일당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잘 조사해본 결과 그들은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은 집단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과거에는 《작은 집단》이라고 하였는데 그렇지 않다. 그들의 사람은 정말 적지 않다. 과거에는 단순한 문화인들이라고 하였는데 그렇지 않다. 그들의 사람은 정치, 군사,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부문에 기여들었다. 과거에는 그들을 공개적인 혁명당 같다고 하였는데 그렇지 않다. 그들의 사람은 대개 다 엄중한 문제가 있다. 그들의 기본적인 성원은 제국주의와 국민당의 특무거나 드로즈끼분자거나 반동군관이거나 공산당의 반역자들이다. 이런자들이 골간으로 되어 혁명진영에 숨은 반혁명파벌을 이루었으며 지하독립왕국을 이루었다. 이 반혁명파벌과 지하왕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뒤엎고 제국주의와 국민당의 통치를 회복하는것을 저들의 임무로 삼고있다. 그들은 저들의 파괴활동의 구실로 삼으려고 언제 어디서나 늘 우리의 결점을 찾고있다. 어디나 그들의 사람이 있는 곳이면 거

기에서는 괴상한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 이 반혁명집단은 해방후에 더 발전되었는데 만일 제지하지 않는다면 계속 발전할것이다. 지금에 와서는 호풍따위들의 내막을 알아내었으므로 많은 현상들을 합리하게 해석할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활동을 제지할수 있게 되었다.

## 2

공격으로 방어하는 로전의 이 책략은 그후 파연 호풍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호풍이 북경에 와서 공작시켜줄것을 요구한것이거나 자기의 문제를 토론해줄것을 요구한것이거나 30만자에 달하는 인사소를 쓴것이거나 나중에는 《문예보》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들이댄것이 그것이다. 각종 착취계급대표인물들은 자기들이 불리한 형편에 처하여있을 때에는 오늘의 생존을 보호함으로써 앞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흔히 공격으로 방어하는 책략을 쓴다. 말하자면 더무니없는 사실을 꾸미고 눈앞에서 요언을 날조하거나 약간의 표면적현상을 틀어쥐고 사실의 본질면을 공격하거나 일부분 사람을 취올리고 다른 일부분 사람을 공격하거나 문제를 외곡하고 과장하면서 《이러저러한 돌파구를 뚫어》 우리를 어려운 처지에 빠뜨린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한번 성사해보려고 언제나 우리에게 대처할 책략을 연구하며 《기회를 노린다》. 때로 그들은 《죽은채하고있다가》 때가 되면 《반격으로 넘어간다》. 그들에게는 장기간의 계급투쟁경험이 있다. 그들은 자

종 형태의 투쟁——합법적인 투쟁과 비합법적인 투쟁을 할줄 안다. 그들을 전승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혁명당인들은 반드시 그들의 이러한 술책을 알아야 하며 그들의 책략을 연구하여야 한다. 서생티에 사로잡혀 복잡한 계급투쟁을 너무 단순하게 보아서는 절대 안된다.

### 3

우리 혁명당인들이 교오자만하면서 경각성을 늦추었거나 업무만 돌보면서 정치를 망각한탓으로 많은 반혁명분자들이 우리의 《간장속》에까지 《깊이 들어오게》 되었다. 결코 호풍분자들만이 아니라 더욱 많은 기타 특무분자 또는 나쁜분자들도 기여들어왔다.

### 4

공산당원이 자유주의적경향으로 하여 비판을 받게 되면 호풍분자들은 《타격을 받았다》고 한다. 만일 그 공산당원이 《투지가 좀 약하다》면, 즉 자유주의립장을 견지하지 않고 당의 비판을 접수하여 정확한 립장에 돌아서려 한다면 호풍집단은 그를 끌어갈 가망을 잃게 된다. 만일 그 공산당원이 자유주의립장을 견지하는 《투지》가 《좀 약한것》이 아니라 《좀 강하다》면 그는 끌려갈 위험성이 있다. 호풍분자들은 한번 《끌어보려고》 벌써 그를 《동지》라고 부르고있다. 이런 정황을 그때

교훈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말인가? 사상 및 정치 면에서 착오를 범한 모든 공산당원들은 비평을 받았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가? 여기에는 선택할수 있는 두 길이 있다. 하나는 착오를 시정하고 훌륭한 당원으로 되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타락하며 지어는 반혁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는 길이다. 후자의 길은 확실히 존재하고있는데 반혁명분자는 거기서 오라고 손짓하고있을것이다!

## 5

우리가 국제국내계급투쟁에서의 역량대비의 형세를 경상적으로 평가하고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적들도 이런 형세를 경상적으로 평가하고있다. 그러나 우리의 적들은 낙후하고 부패한 반동파이고 멸망하고야말 운명에 처한자들이며 객관세계의 법칙을 모르고있으며 사물에 대한 사고방법이 주관주의적이고 형이상학적이기때문에 그들의 평가는 언제나 틀린다. 그들은 계급적본능에 의하여 언제나 자신은 대단하고 혁명세력은 어쨌든 보잘것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의 역량을 과대평가하고 우리의 역량을 과소평가한다. 우리는 청조정부, 북양군벌, 일본군국주의, 무솔리니, 히틀러, 장개석과 같은 수많은 반혁명들이 하나하나 거꾸러지는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그들은 사상 및 행동 면에서 착오를 범하였으며 또 범하지 않을수도 없었던것이다. 오늘의 모든 제국주의도 틀림없이 이러한



착오를 범하게 될것이다. 그야말로 우스운 일이 아니겠는가? 호풍분자의 말을 빈다면 공산당이 령도하는 중국인민혁명력량은 《시들어버린 잎》과 《씩어빠진 시체》에 불과한것이여서 《끝장을 보게》 되리라는것이다. 그렇다면 호풍분자들이 대표하고있는 반혁명력량은 어떠한가? 비록 《약간의 어린 싹들은 눌러서 죽어버릴수 있겠지만》 수많은 싹들은 도리어 그 무엇을 《깨끗고 나오고있으며》 《진실하게 자라날》것이라 한다. 만일 불탄서자산계급의 국민의회에 보황당의 대표인물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한다면 지구에서 모든 착취계급이 철저히 멸망된후에도 오래동안 장개석왕조의 대표인물들이 각지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많다. 그들중 가장 악질적인 완고통은 영원히 저들의 실패를 승인하지 않을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남을 기만하여야 할뿐 아니라 자기자신까지도 기만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살아나갈수가 없기때문이다.

## 6

이 편지에서 《그러한 봉건적잠재력이 미친듯이 사람들을 살해하고있다》고 한것은 바로 우리 나라 인민의 혁명력량이 반혁명력량을 진압하는 위대한 투쟁에 대하여 호풍반혁명집단이 공포를 느끼고있는 표현이다. 이러한 느낌은 혁명을 반대하는 모든 계급, 집단 및 개인들의 느낌을 대표하고있는것이다. 그들이 공포를 느끼는 일이 바로 혁명적인민대중이 기쁘게 생각하

는 일이다. 《력사에 류례가 없었다》고 하는것도 옳은 말이다. 이전의 혁명에서 노예제가 원시공동체제도를 대체한 그 혁명만이 착취제도로 비착취제도를 대체한의 기타의 혁명은 모두 한 착취제도가 다른 한 착취제도를 대체하는것으로 끝났다. 그 혁명들에서는 반혁명을 철저히 진압하는 일을 할 필요도 없었거니와 또 할수도 없었다. 오직 우리의 혁명만이, 오직 무산계급과 공산당이 령도하는 인민대중의 혁명만이 모든 착취제도와 모든 계급을 종국적으로 소멸하는것을 목표로 하는 혁명이다. 그러므로 소멸당하는 착취계급들은 어쨌든 저들의 반혁명적인 정당, 집단 혹은 어떤 개인을 통하여 반항하게 되고 인민대중은 반드시 단결하여 그러한 반항세력들을 견결히, 철저히, 깨끗이, 모조리 진압하게 된다. 오직 이때에야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것이다. 《투쟁은 필연적으로 심화된다》라고 한 말도 역시 조금도 틀리지 않는다. 단지 《봉건적잠재력》이라는 몇글자를 잘못 말하였을 따름인데 이 말은 그들이 말하는 《기계론》이 《변증법적유물론》의 반어인것과 마찬가지로 《무산계급 및 공산당이 령도하는, 공농련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전정》의 반어인것이다.

## 7

확실히 장중효란 이자의 반혁명적감각이 상당히 예민하다. 이자에 비하여 일부 공산당원들을 포함한

우리 혁명대오내의 적지 않은 사람들은 계급각오와 정치적후각 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있다. 이 대비에서 우리의 적지 않은 사람들은 호풍집단내의 사람들보다 훨씬 못하다. 우리의 사람들은 반드시 학습을 하여야 하며 계급적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정치적후각이 더욱 예민해져야 한다. 만일 호풍집단이 우리에게 적극적인 그 무엇을 가져다줄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놀라운 투쟁을 통하여 우리의 정치적각오와 정치적인민감이 크게 높아져 온갖 반혁명분자들을 견결히 진압하고 우리의 혁명적전진을 대대적으로 공고화하게 되는 그것이다. 이것은 혁명을 끝까지 진행하여 위대한 사회주의국가건설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리한것이다.

# 농업합작화문제에 관하여\*

(1955년 7월 31일)

## 1

전국의 농촌에 새로운 사회주의적근중운동의 고조가 곧 닥쳐올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일부 동지들은 마치 전족녀인처럼 이리빠뛰저리빠뛰 걸으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걸음이 너무 빠르다, 빠르다 하고 원망하기만 한다. 그들은 지나치게 론난시비하며 부당하게 원망하며 한없이 근심하며 수없이 많은 금제와 계를 만들어놓는것이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적근중운동을 지도하는 정확한 방침인듯이 생각하고있다.

그렇지 않다. 이러한것은 정확한 방침이 아니라 그릇된 방침이다.

오늘 농촌에서 합작화하는 사회개혁의 고조가 일부 지방들에는 이미 닥쳐왔으며 또 전국적으로도 곧 닥쳐올것이다. 이것은 5억이 넘는 농촌인구의 대규모적인 사회주의적혁명운동으로서 극히 위대한 세계적의의를 가지고있다. 우리는 갖은 방법으로 이 운동을 뒤로

---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소집한 성위, 시위, 자치구당위서기회의에서 하신 보고이다.

잡아당길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운동을 령도하여야 한다. 운동과정에 약간의 편차는 면할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리해할수 있는 일이며 또 시정하기도 어렵지 않은것이다. 간부와 농민들 가운데 존재하는 결함이나 착오는 오직 우리가 그들을 적극적으로 방조하여주기만 하면 극복 또는 시정될수 있는것이다. 간부와 농민들은 당의 령도하에서 전진하고있으며 운동은 기본상 건전하다. 일부 지방에서는 그들이 공작과정에 약간의 착오를 범하였다. 례를 들면 일면으로는 빈농들을 합작사에 받아들이지 않고 빈농들의 곤난을 돌보아주지 않으며 또 다른 일면으로는 부유중농들을 강박적으로 합작사에 끌어들이고 그들의 리익을 침범하고있다. 이러한것들에 대하여서는 단순히 그들을 책망이나 할것이 아니라 교육을 주어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순히 책망이나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이것저것 겁만 내지 말고 운동을 대담하게 지도하여야 한다. 간부와 농민들은 자신의 투쟁경험을 통하여 자신을 개조할것이다. 그들에게 공작을 맡겨 공작하는 과정에서 교훈을 섭취하여 공작능력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우수한 일꾼들이 대량적으로 양성될수 있다. 이것저것 겁만 내는 태도로는 간부를 육성할수 없다. 단기훈련을 받은 간부를 상급으로부터 대량적으로 농촌에 파견하여 합작화운동을 지도하며 방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급으로부터 파견된 간부들도 운동속에 들어가야 공작을 할줄 알게 된다. 그저 훈련반에 들어가서 교원이

강의하는것을 몇십조목 들었다고 하여 공작할줄 알게 되는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령도가 군중운동의 뒤에 떨어져서는 안된다. 그런데 지금은 군중운동이 령도를 앞서서 나아가고 령도가 운동을 따라가지 못하고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정황은 반드시 개변되어야 한다.

## 2

지금 전국의 합작화운동이 대규모적으로 진전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합작사가 발전될수 있는가, 공고화될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변론하여야 하는 형편이다. 일부 동지들에게 있어서는 현유의 반사회주의적인, 일반적으로 소형적인(매개 합작사는 평균 20명 호밖에 안된다.) 수십만개의 합작사가 공고화될수 있는가 없는가를 우려하는것이 문제의 중심인것 같다. 만일 공고화될수 없다면 발전에 대하여서는 물론 운운할 여지도 없을것이다. 일부 동지들은 지난 몇해동안의 합작화의 발전력사를 제눈으로 보고서도 믿지 않으면서 1955년도의 발전정황이 어떻겠는가를 더 두고보려 한다. 그들은 아마 1956년에도 한해를 더 두고보려 할는지 모른다. 그래서 만일 더 많은 합작사들이 공고화되면 그때에 가서야 농업합작화가 가능하다는것을 진정으로 믿으며 또 우리 당중앙의 방침이 정확하다는것을 믿게 될것 같다. 그러므로 이 두해동안의 공작은 매우 중요한것이다.

농업합작화의 가능성과 농업합작화에 대한 우리 당중앙의 방침의 정확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여기서 우리 나라 농업합작화운동의 역사를 말하는것도 무익한 일은 아닐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되기전에 우리 당은 이미 22년간에 걸친 혁명전쟁과정에서 토지개혁에 뒤이어 농민들을 령도하여 사회주의적맹아형태의 농업생산호조단체를 조직한 경험을 가지고있었다. 그 당시 강서성에는 로동호조사와 경전대가 있었고 섬서성북부에는 변공대가 있었고 화북, 화동, 동북 각지에는 호조조가 있었다. 그 당시 반사회주의적 또는 사회주의적 농업생산합작사도 개별적으로 조직되였었다. 예를 들면 항일전쟁시기에 섬서성북부의 안새현에는 사회주의성질을 띤 농업생산합작사가 하나 조직되였었다. 그러나 이러한 합작사가 그 당시에는 아직 보급되지 않았다.

우리 당이 농민들을 령도하여 농업생산호조조를 더욱 광범히 조직하고 또 호조조의 기초우에서 농업생산합작사를 대량적으로 조직하기 시작한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이후의 일이다. 그후 오늘까지 또 근 6년이란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1951년 12월 15일 우리 당중앙이 우선 지방당조직들에 발부하였고 또 각지에서 시험적으로 실시하여보게 한 첫번째의 농업생산호조합작에 관한 결의초안을 작성하였을 때는(이 문건은 1953년 3월에 가서야 정식 결의로서 선문에 발표되었다.) 이미 300여개의 농업생산합작사가 있었다. 그때로부터 2년이 지난 1953년 12

월 16일 우리 당중앙이 농업생산합작사에 관한 결의를 발표할 당시에는 농업생산합작사가 이미 1만 4,000여개로 발전되었다. 두해동안에 46배가 더 증가되었다.

이 결의에서는 1953년 겨울부터 1954년 추수때까지 농업생산합작사를 1만 4,000여개로부터 3만 5,800여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1배반만 더 증가시킬 예산이었다. 그런데 실지결과는 이 한해동안에 합작사가 10만개로 발전되어 본래의 합작사 1만 4,000여개의 7배이상에 달하였다.

1954년 10월에 우리 당중앙에서는 10만개의 합작사에다 5배를 더 증가시켜 60만개에 달하게 할것을 결정하였는데 실지결과는 67만개로 발전되었다. 1955년 6월까지 초보적인 정리공작을 진행하여 2만개를 줄이고 65만개를 남겨두었는데 계획수자보다 5만개 초과되었다. 합작사에 가입한 농호수는 도합 1,690만호인데 매개 합작사에 평균 26호이다.

이 합작사들은 그 대부분이 북방의 비교적 일찌기 해방된 몇개 성들에 있다. 비교적 늦게 해방된 전국 대다수의 성들에도 매개 성에 이미 얼마간의 농업생산합작사들이 조직되었는데 안휘성과 절강성에 비교적 많고 기타 각 성들에는 아직 그다지 많지 못하다.

이 합작사들은 일반적으로 소형적인것이다. 그러나 그가운데는 한개 합작사에 70~80호, 100여호 또는 수백호에 달하는 대형적인것도 더러 있다.

이 합작사들은 일반적으로 반사회주의적인것이다. 그러나 그가운데는 사회주의적인 고급합작사로 발전한



것도 더러 있다.

농민들의 농업생산합작화운동의 발전과 함께 우리나라에는 소수의 사회주의적국영농장도 있게 되었다. 1957년에 가서는 국영농장이 3,038개에 달할 것이며 그 경지면적은 1,687만무에 달할것이다. 그가운데서 기계화농장은 141개(1952년에 이미 있던것과 제1차5개년계획기간에 증가될것까지 포함하여)에 달할것이고 그 경지면적은 758만무에 달할것이며 기계로 경작하지 않는 지방국영농장은 2,897개로서 그 경지면적이 929만무에 달할것이다. 국영농업은 제2차 및 제3차 5개년계획기간에 대규모적인 발전을 가져올것이다.

1955년 봄에 우리 당중앙에서는 농업생산합작사를 100만개로 발전시킬것을 결정하였다. 이 수자는 원래의 65만개보다 35만개, 즉 반배 남짓이 증가하는데 불과하다. 내 생각에는 좀 적은것 같다. 아마 원래의 65만개 합작사를 2배좌우로, 즉 130만개가량으로 증가시켜 전국의 20몇만개 향들에서 일부의 변강지구를 제외하고는 매개 향에 반사회주의성질을 띤 소형적인 농업생산합작사를 한개 내지 몇개씩 세움으로써 그것을 본보기로 하는것이 필요할것이다. 이 합작사들은 한두해 지나면 경험이 있게 되고 자리가 잡히게 되어 남들이 따라배우게 될것이다. 지금부터 1956년 10월 추수이전까지는 아직 14개월이나 있으므로 이만한 정도의 합작사건립계획은 완성할수 있어야 할것이다. 각 성 및 자치구의 책임동지들은 돌아가서 연구한후 실정에 알맞는 계획을 작성하여 두달내로 중앙에 보고하여주기 바

란다. 그때에 우리는 다시한번 토론하여 최후로 결정을 지으려 한다.

문제는 공고화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이다. 어떤 사람은 작년의 50만개의 합작사건립계획이 너무 컸고 너무 급격히 나아갔으며 금년의 35만개의 합작사건립계획도 너무 크고 너무 급격히 나아가는것이라고 말하고있다. 그들은 합작사를 이렇게 많이 세워서 능히 공고화할수 있겠는가고 의심하고있다.

그러면 도대체 공고화할수 있는가 없는가?

물론 사회주의적공업화나 사회주의적개조나 다 쉬운 일은 아니다. 약 1억 1,000만이나 되는 농호를 개체경영으로부터 집체경영으로 전변시키며 한걸음 더 나아가 농업의 기술개혁을 완성하는데는 확실히 곤란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당이 균중을 평도하여 이러한 곤란을 능히 극복할수 있다는것을 믿어야 한다.

농업합작화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믿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1) 빈농, 신중농중의 하중농과 구중농중의 하중농은 자기들의 경제적처지가 곤란하거나(빈농) 또는 자기들의 경제적처지가 해방전보다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부유하지 못하기(하중농)때문에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려는 적극성을 가지고있으며 합작화에 관한 당의 호소를 적극 받들고있다. 특히 그들가운데서 각오가 비교적 높은 사람들은 이러한 적극성이 더욱 높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믿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2) 당은 전국 인민을 평도하여 사회주의사회로

들어갈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인민민주혁명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여 공인계급을 위수로 하는 인민민주전정을 건립하였으니만큼 반드시 전국 인민을 령도하여 약 3차에 걸친 5개년계획기간에 사회주의적 공업화와 농업, 수공업, 자본주의적공상업에 대한 사회주의적개조를 기본적으로 완수할수 있을것이다. 농업면에 있어서도 다른 면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설복력 있는 유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첫번째의 300개 합작사, 두번째의 1만 3,700개 합작사, 세번째의 8만 6,000개 합작사들을 보라. 세번에 걸쳐 조직된 이상의 10만개 합작사들은 1954년 가을이전에 건립된것으로서 모두다 이미 공고화되었는데 무엇때문에 1954년부터 1955년까지에 네번째로 조직된 합작사(55만개)와 1955년부터 1956년까지에 다섯번째로 조직될 합작사(잠시 통계수자를 35만개로 정하였는데 아직 최후로 확정하지 않았다.)는 공고화될수 없겠는가?

우리는 응당 균중을 믿어야 하며 우리는 응당 당을 믿어야 한다. 이것은 두개의 근본원리이다. 이 두원리를 의심한다면 아무런 일도 해낼수 없다.

### 3

전국의 농촌에서 합작화를 점차적으로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현유의 합작사들을 잘 정돈하여야 한다.

합작사의 질적면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하면서 단지 합작사의 수효와 가입한 농호의 수효만을 추구하는 편

향을 반대하고 합작사의 질적면에 중시를 돌리도록 강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합작사를 정돈하는 공작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합작사의 정돈공작은 한해에 한번만 할것이 아니라 두번 내지 세번 하여야 한다. 금년 상반기에 정돈공작을 한번 진행한데서는(어떤 곳에서는 큰 힘을 들이지 않아서 정돈공작이 아주 거칠게 된것 같다.) 금년 가을과 겨울에 정돈공작을 다시한번 진행하고 명년 봄과 여름에 제3차로 진행할것을 나는 건의한다. 현유의 65만개 합작사중에서 55만개는 작년겨울과 금년봄에 건립된 새 합작사들인데 그가운데는 비교적 공고화된 이른바 «1류합작사»<sup>[1]</sup>들도 얼마간 있다. 여기에다 이미 공고화된 기유의 10만개 합작사들을 합친다면 이미 공고화된 합작사수는 적지 않다. 이미 공고화된 이러한 합작사들이 앞으로 공고화되어야 할 나머지 합작사들을 점차 공고화되도록 이끌어줄수 없겠는가? 그렇게 할수 있다고 긍정하여야 한다.

우리는 농민과 간부들의 사회주의적적극성에 대하여 그것이 아무리 작은것이라 하더라도 소중히 여겨야 하며 그것을 꺾어버려서는 안된다. 우리는 합작사의 사원들과 간부들 및 현, 구, 향 간부들과 운명을 같이하고 호흡을 같이하여야 하며 그들의 적극성을 꺾지 말아야 한다.

결정적으로 해산시켜야 할 합작사는 전체 사원 또는 거의 전체 사원들이 계속 꾸려나갈것을 견결히 거부하는 그러한 합작사들뿐이다. 만일 한 합작사내에서

단지 일부 사람들만이 계속 꾸러나갈것을 전결히 거부한다면 그들만 나가게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서 계속 꾸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 꾸러나갈것을 전결히 거부하고 단지 소부분의 사람들만이 계속 꾸러나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나가게 하고 소부분의 사람들은 남아서 계속 꾸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여도 그것은 좋은것이다. 하북성에 6호밖에 안되는 아주 작은 합작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중 3호의 구중농은 기어이 그만두려 하기때문에 나가게 내버려두었으며 3호의 빈농(2)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속 꾸러나가려 하므로 그들을 남겨두었고 합작사조직도 그대로 보존하였다. 기실 이 3호의 빈농이 보여주고있는 방향이 바로 전국의 5억만 농민들의 방향인것이다. 개체경영을 하는 모든 농민들은 결국 이 3호의 빈농이 전결히 선택한 길을 걸게 될것이다.

절강성에서는 소위 《전결히 수축하는》 방침(절강성위에서 결정한것은 아니다.)을 취하여 5만 3,000개의 합작사중에서 40만호의 농호를 망라한 1만 5,000개의 합작사를 단번에 해산시켰기때문에 군중과 간부들의 커다란 불만을 일으켰다. 이것은 아주 부당한 일이다. 《전결히 수축하는》 이런 방침은 당황망조한 정서에 지배되어 나온것이다. 이렇게 큰일을 중앙의 동의 없이 한것도 부당한 일이다. 그리고 1955년 4월에 벌써 중앙에서는 《1953년에 합작사를 대량적으로 해산시킨 그러한 착오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다시 범한다면 또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지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승리앞에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좋지 못한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1)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두뇌가 잔뜩 팽창되어 《좌》적착오를 범하는것인데 이것은 물론 좋지 못한 일이다. (2) 승리에 질겁한 나머지 《전격히 수축하여》 우적착오를 범하는것인데 이것도 좋지 못한 일이다. 지금의 정황은 후자에 속한다. 일부 동지들은 수십만개의 소형합작사에 질겁하고있다.

## 4

합작사를 건립하기전의 준비공작을 착실히 잘하여야 한다.

처음부터 합작사의 질적면에 중시를 돌려야 하며 단순히 수량만을 추구하는 편향을 반대하여야 한다.

준비없는 싸움은 하지 않고 자신없는 싸움은 하지 않는다. 이것은 지난 혁명전쟁시기의 우리 당의 유명한 구호이다. 이 구호는 사회주의건설사업에도 적용할수 있다. 자신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준비가 있어야 하며 또한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한 성, 한 지구, 한 현에서 새로 농업생산합작사를 한차례 건설하자면 반드시 사전에 많은 준비공작들을 원만히 진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준비공작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그릇된 사상을 비판하고 공작경험을 총결하여야 한다. (2) 농민군중속에서 농업합작화에 관한 우리 당의 방침, 정책 및 방법을 계통적으로, 반복적으로 선전하여야 한다. 농민들에게 선전할 때에는 합작화의 우월성을 말하여줄뿐만아니라 합작화과정에 봉착할수 있는 곤난도 설명하여줌으로써 농민들이 충분한 정신적준비를 가지게 하여야 한다. (3) 실정에 알맞게 농업합작화의 발전을 위한 전 성, 전 지구, 전 현, 전 구, 전 향의 전면적규획을 작성하고 그에 근거하여 또 년간규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4) 단기훈련의 방식으로 합작사를 꾸리기 위한 간부를 양성하여야 한다. (5) 농업생산호조조를 보편적으로, 대량적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가능성만 있다면 여러 호조조를 련합하여 호조조의 련합조를 조직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한층 더 련합하여 합작사를 건립할수 있는 기초를 닦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구비되면 합작사발전에 있어서의 량과 질의 통일문제를 기본상으로 해결할수 있다. 그러나 합작사를 한차례 건립한후에는 또 뒤이어 정돈공작을 진행하여야 한다.

합작사들이 건립된후 그것이 공고화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첫째로, 합작사를 건립하기 이전의 준비공작이 잘되었는가 못되었는가에 달리며 둘째로, 합작사가 건립된후 정돈공작이 잘되는가 못되는가에 달린다.

합작사를 건립하는 공작과 정돈하는 공작은 향의

당지부와 청년단지부에 의거하여야 한다. 그렇기때문에 협작사를 건립하는 공작과 정돈하는 공작은 농촌에서의 건당전단공작 및 정당정단공작과 긴밀히 결합되어야 한다.

협작사를 건립하는 공작에서나 정돈하는 공작에서나를 막론하고 모두 당지의 농촌간부들을 주요력량으로 하고 그들을 고무격려하며 그들이 책임지고 일하게 하여야 한다. 상급에서 파견한 간부들은 모든 일을 도맡아할것이 아니라 보조적력량이 되어 지도하며 방조하는 역할을 늘아야 한다.

## 5

농업생산협작사는 생산에 있어서 개인영농호나 호조조보다 농작물의 산량이 높아야 한다. 늘 개인영농호나 호조조와 산량이 같아서는 결코 안된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실패인데 협작사를 해선 무엇하겠는가? 산량이 떨어져서는 더구나 안된다. 이미 건립된 65만개의 농업생산협작사들중 80%이상의 사가 농작물의 산량을 높였는데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이러한 사실은 농업생산협작사사원들의 생산적극성이 높으며 협작사는 호조조보다 우월하고 개인영농호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것을 증명하여주고있다.

농작물의 산량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1) 자원 및 상호리익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하며, (2) 경영관리(생산계획, 생산관리, 노동조직 등)를 개선하여야 하며,



(3) 경작기술을 높여야 하며(심경제작하며 소주밀식하며 다모작면적을 증가하며 우량종을 도입하며 신식농구를 보급하며 병충해와 투쟁하는것 등), (4) 생산자료(토지, 비료, 수리시설, 역축, 농구 등)를 증가하여야 한다. 이러한것은 합작사를 공고화하며 증산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몇가지 조건들이다.

자원 및 상호리익의 원칙을 견지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1) 역축과 대농구는 한두해 미루었다가 합작사에 들여놓게 하는것이 적당하지 않겠는가? 그 값을 공정하게 매겼는가? 지불기간이 너무 길지 않은가? (2) 토지에 대한 보수와 로동에 대한 보수의 비례가 적당한가? (3) 합작사에 필요되는 자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모을것인가? (4) 일부 사원들이 자기의 일부분 로동력으로 그 어떤 부업생산에 종사할수 있는가?(우리가 현재 세우고있는 농업생산합작사는 일반적으로는 반사회주의 성질을 띤것이기때문에 상술한 네가지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데 주의를 돌려야만 빈농과 중농간의 상호리익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을수 있으며 오직 상호리익의 기초우에서만 자원의 원칙이 실현될수 있다.) (5) 사원의 자유지는 얼마나 남겨주어야 하겠는가? (6) 사원의 구성성분문제 등등이다.

여기에서 사원의 구성성분문제를 말해보자. 목전의 한두해동안, 합작사가 이제 방금 보급되기 시작하였거나 보급된지 그다지 오래지 않은 모든 지구들에서는, 즉 목전의 대다수 지구들에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할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1) 빈농, (2) 신중농중의 하중농, (3) 구중농중의 하중농——이 몇 부류의 사람들중의 적극분자들이 우선 조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몇 부류의 사람들가운데서도 아직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억지로 끌어들이 필요없다. 그들이 각오정도가 제고되고 합작사에 대하여 흥미를 느끼게 될 때에 가서 몇차례로 나누어 합작사에 받아들이는것이 좋다. 이 몇 부류의 사람들은 경제적 지위가 비슷하다. 그들의 생활을 보면 일부는 아직도 곤란하며(빈농, 그들은 토지를 분배받아 해방전보다는 생활이 펴 나아졌지만 아직도 인력, 축력, 농구 등의 부족으로 하여 생활이 의연히 곤란하다.) 일부는 아직도 부유하지 못하다(하중농). 그렇기때문에 그들에게는 합작사를 조직하려는 적극성이 있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그들의 적극성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정도가 여전히 같지 않다. 어떤 사람은 매우 적극적이고 어떤 사람은 아직 그다지 적극적이지 아니며 어떤 사람은 좀더 두고보려 한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아직 당분간 합작사에 가입하려고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빈농이나 하중농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교육할 시간을 가져야 하며 자원의 원칙을 위반하면서 그들을 억지로 끌어들이지 말고 그들이 각성하기를 참을성있게 기다려야 한다.

신중농중의 상중농과 구중농중의 상중농, 즉 일체 경제적으로 비교적 부유한 중농들에 대하여서는 그중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려는 각성이 있고 정말 자원적으로

합작사에 가입하려는 일부 사람들만 가입시키고 그 나머지는 당분간 가입시키지 말아야 하며 더군다나 그들을 억지로 끌어들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아직도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려는 각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직 농촌에서 대다수 농민들이 모두 합작사에 가입하였거나 혹은 합작사의 단위면적산량이 이들 부유중농의 단위면적산량과 같게 되거나 나아가서는 더 높아져서 계속 개체로 영농하여서는 어느 면으로 보나 자신에게 불리하며 합작사에 가입하여야 더 유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합작사에 가입할 결심을 내리게 될것이다.

이와 같이 우선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아직 부유하지 못한 농민들(대략 농촌인구의 60% 내지 70%를 차지한다.)을 그 각성정도에 따라 여러차례로 나누어 몇년내에 합작사에 묶어세운 다음에 부유중농들을 받아들여야 할것이다. 이렇게 하면 명령주의를 범하지 않을수 있다.

최근 몇해동안은 아직 기본적으로 합작화하지 못한 모든 지구들에서는 지주와 부농을 절대 합작사에 가입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미 기본적으로 합작화한 지구에 있어서는 이미 공고화된 합작사들에서만 오래전에 착취행위를 버렸고 로동에 종사하며 정부의 법령을 준수하는 원래의 지주분자와 부농분자들을 일정한 조건부로 차례와 기를 나누어 합작사에 가입시켜 집체로동에 참가시킬수 있으며 그리하여 로동가운데서 그들을 계속 개조하여야 한다.

## 6

발전문제에 있어서 목전에 비평하여야 할 문제는 너무 급격히 나아가는 문제가 아니다. 오늘 합작사의 발전이 《실제적가능성을 초월하였다》, 《군중의 각성 정도를 초월하였다》고 하는것은 옳지 못하다. 중국의 정황을 놓고보면 인구는 많은데 기경지가 부족하며(전국의 농토는 매년 평균 3무밖에 안되며 남방 각 성의 많은 지방들에서는 매년당 1무 또는 몇푼밖에 안된다.) 때로는 재해가 들며(해마다 많은 농토가 부동한 정도로 수재, 한재, 풍재, 상재, 박재, 충재를 입는다.) 또 경영방법이 낙후하기때문에 광범한 농민들은 비록 토지개혁이후에 전보다는 생활이 다소 개선되었거나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그러나 그중의 적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생활이 곤란하고 적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부유하지 못하며 부유한 농민은 비교적 소수를 차지하고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농민들은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려는 적극성을 가지고있다.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공업화의 건설과 그 성과는 그들의 이러한 적극성을 나날이 촉진하고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회주의 이외에는 다른 출로가 없다. 이러한 상태에 처하여있는 농민이 전국 농촌인구의 60% 내지 70%를 차지하고있다. 이것은 바로 전국의 대다수 농민들이 반곤에서 벗어나 생활을 개선하려면, 그리고 재해를 이겨내려면 련합하여 사회주의의 큰길로 나아가야만 한

다는것을 말한다. 이러한 느낌은 이미 광범한 빈농과 부유하지 못한 농민들사이에서 신속히 자라나고있다. 부유하거나 또는 비교적 부유한 농민은 전국 농촌인구의 20% 내지 30%를 차지하고있을뿐이다. 그들은 동요하고있으며 그들중의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려 애쓰고있다. 우에서 이미 말한바이지만 빈농과 부유하지 못한 농민들 가운데도 각오가 높지 못한 관계로 아직 당분간 두고보려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도 흔들리고있다. 그러나 부유한 농민에 비하면 그들은 사회주의를 쉽게 접수한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정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부 동지들은 이러한 정황에 주의를 돌리지 못하고 방금 조직된 수십만개의 반사회주의적인 소형농업생산협작사를 벌써 《실제적가능성을 초월하였다》, 《군중의 각성정도를 초월하였다》고 인정한다. 이것은 수효가 비교적 적은 부유한 농민들만 보고 수효가 가장 많은 빈농과 부유하지 못한 농민들을 망각한것이다. 이것은 첫째종류의 그릇된 사상이다.

이러한 동지들은 농촌에 있어서의 공산당의 령도력량에 대해서와 광범한 농민들이 공산당을 열렬히 옹호하고있는 정황에 대하여서도 평가가 부족하다. 그들은 우리 당은 수십만개의 소형협작사도 공고화하기 어려운데 크게 발전시킨다는것은 더구나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당이 농업협작화공작을 령도하고있는 현상태를 비판적으로 묘사하면서 《간부의 경험수준을 초월하였다》고 생각한다. 사실 사

회주의혁명은 새로운 혁명이다. 과거 우리는 자산계급 민주혁명의 경험을 가지고있었을뿐 사회주의혁명의 경험은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어떠한 방법으로 얻겠는가? 가만히 앉아있는 방법으로 얻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혁명의 투쟁속에 들어가 그 투쟁속에서 배우는 방법으로 얻겠는가? 5개년계획을 실시하지 않고 또 사회주의적공업화공작에 착수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공업화의 경험을 얻을 수 있겠는가? 5개년계획가운데는 농업합작화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있는데 우리가 농민을 평도하여 매개 향, 매개 촌에다 농업생산합작사를 한개 또는 몇개씩 꾸리지 않는다면 《간부의 경험수준》을 어디서 얻어오며 또 어디서 제고시키겠는가? 소위 현재의 농업생산합작사의 발전상태가 《간부의 경험수준을 초월하였다》고 생각하는 사상은 분명히 그릇된 사상이다. 이것은 둘째 종류의 그릇된 사상이다.

이러한 동지들은 문제를 보는 방법이 옳지 못하다. 그들은 문제의 본질면, 주류면을 보지 않고 비본질면, 비주류면을 강조한다. 비본질면, 비주류면의 문제도 홀시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야 하지만 이러한것들을 본질과 주류로 보고 자기의 나아갈 방향을 잃어서는 안된다는것을 지적하여야 하겠다.

우리는 (1) 광범한 농민들은 당의 평도하에서 점차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며 한다는것, (2) 당은 농민들을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도록 평도할수 있다는것을 믿

어야 한다. 이 두가지는 사물의 본질이며 주류이다. 만일 이러한 신심이 결핍하다면 우리가 대략 3차에 걸친 5개년계획기간에 사회주의를 기본상 건설한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 7

쑨련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한 위대한 력사적경험은 우리 나라 인민을 고무하고있으며 우리 나라 인민들로 하여금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충만한 신심을 가지게 하고있다. 그러나 이 국제적경험문제에 있어서도 각이한 견해들이 존재하고있다. 어떤 동지들은 우리 나라 농업합작화의 보조를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공업화의 보조에 적응시켜야 한다는 우리 당중앙의 방침에 찬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방침은 이미 쑨련에서 그 정확성이 증명되였다. 그들은 공업화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규정된 속도대로 나아가도 좋지만 농업합작화문제에 있어서는 공업화의 보조에 적응시킬 필요가 없이 특히 느린 속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있다. 이것은 쑨련의 경험을 무시하는것이다. 이러한 동지들은 사회주의적공업화는 농업의 합작화를 떠나 고립적으로 진행할수 없다는것을 모르고있다. 우선,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 있어서 상품량과 공업원료의 생산수준은 아직 매우 낮은데 그 반면에 이런 물자에 대한 국가의 수요는 해마다 증대되고있다. 이것은 첨예한 모순이다. 만일 약 3차의 5개년계획기간

에 농업합작화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즉 농업에서 축력농구를 사용하는 소규모적경영으로부터 국가에서 이민을 조직하여 기계로 황무지를 대규모적으로 개간하는것(3차의 5개년계획기간내에 황무지를 4억무 내지 5억무 개간할 예정이다.)도 포함한, 기계를 사용하는 대규모적경영으로 약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상품량과 및 공업원료에 대한 해마다 증대되는 수요와 현재 주요한 농작물의 산량이 일반적으로 매우 낮은 것간의 모순을 해결할수 없을것이며 우리의 사회주의적공업화사업이 극히 큰 곤난에 봉착하게 될것이며 사회주의적공업화를 완수할수 없게 될것이다. 이 문제는 쏘련이 사회주의건설과정에서 일찍 봉착하였던것이다. 쏘련은 농업합작화를 계획적으로 령도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우리도 그러한 방법으로써만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의 일부 동지들은 또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일을 연계시켜 생각하지 않는다. 즉 사회주의적공업화의 가장 중요한 부문인 중공업에서 생산되는 트랙토르, 기타 농업기계, 화학비료, 농업용의 현대적운수도구, 농업용의 석유와 전력 등등 이 모든것은 농업이 합작화의 대규모적경영으로 넘어간 기초우에서라야만 그 사용이 가능하거나 또는 대량적으로 사용될수 있다. 현재 우리는 사회제도면에서 사유제로부터 공유제에로 이행하는 혁명을 진행하고있을뿐만아니라 기술적면에서 수공업적생산으로부터 현대화기계에 의한 대규모적생산에로 이행하는 혁명도 진행하고있는데 이 두가지 혁명은 한



데 결합되어 있다. 농업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조건하에서는(자본주의나라에서는 농업을 자본주의화한다.) 먼저 합작화가 된후에야만 대형기계를 사용할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공업과 농업, 사회주의적공업화와 농업에 대한 사회주의적개조라는 이 두가지를 절대 분리시켜보거나 서로 고립시켜보아서는 안되며 또 절대 일면만 강조하고 다른 일면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는것을 알수 있다. 쯔련의 경험은 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방향을 가리켜주었는데 우리의 일부 동지들은 이 점에 주의를 돌리지 않고있으며 그냥 이 문제들을 서로 련계시키지 않고 고립시켜서 보고있다. 다음으로, 우리의 일부 동지들은 또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일을 련계시켜 생각하지 않는다. 즉 국가공업화와 농업에 대한 기술적개조를 완성함에 필요한 대량의 자금은 그 상당한 부분이 농업에 의하여 축적된다. 그것은 직접적인 농업세에 의하여 축적되기도 하지만 그밖에 농민들에게 필요한 대량의 생활자료를 만드는 경공업생산을 발전시켜 그 경공업품을 가지고 농민들의 상품량과 경공업원료와 교환함으로써 농민과 국가 이 쌍방의 물자수요도 만족시키고 국가의 자금도 축적하게 된다. 그리고 경공업을 대규모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중공업이 발전되어야 할뿐아니라 농업도 발전되어야 한다. 그것은 경공업의 대규모적인 발전은 소농경제의 기초우에서는 실현될수 없고 오직 대규모적농업의 기초우에서만,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합작화된 사회주의적농업의 기초우에서만 실현될수 있기때문이다. 또 그

것은 오직 이러한 농업이 있어야만 농민으로 하여금 지금보다 몇배나 될지 알수 없을 정도로 높은 구매력을 가지도록 할수 있기때문이다. 이러한 경험도 쓰련이 이미 우리에게 제공하여주었는데 우리의 일부 동지들은 이 점에 주의를 돌리지 않고있다. 그들은 언제나 자산계급이나 부농이나 또는 자연발생적자본주의경향을 가지고있는 부유중농의 립장에 서서 소수인을 위하여 타산하고있고 공인계급의 립장에 서서 전반 국가와 전체 인민을 위하여 타산하지는 않는다.

## 8

일부 동지들은 또 쓰련공산당의 력사에서 근거를 찾아가지고 우리 나라에서 현재 진행되고있는 농업합작화공작이 조급해서 너무 급격히 나아가고있다고 비평하고있다. 《쓰련공산당(불쉐위크)력사간략독본》에서는 쓰련의 수많은 지방당조직들이 합작화속도문제에서 한동안 조급해서 너무 급격히 나아가간 착오를 범한 일이 있었다는것을 우리에게 말하여주고있지 않는가? 그래 우리는 이 국제적경험에 주의를 돌리지 말아야 한단 말인가?

나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우리는 응당 쓰련의 이 경험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우리는 농민군중의 작성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조급해서 너무 급격히 나아가려는 사상을 반드시 반대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일부 동지들이 자기들의 파

행주의사상을 엄호하기 위하여 쓰련의 이 경험을 리용하는것을 용허하여서는 안된다.

우리 당중앙은 중국에서 농업합작화를 진행할데 대하여 어떠한 결정을 지었는가?

첫째로, 당중앙에서는 18년동안에 이 계획을 기본적으로 완수하기로 예정하였다. 1949년 10월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1952년까지의 3년 남짓한 시간은 우리 나라의 경제를 복구하는 임무를 완성하는데 바치였다. 이 시기에 우리는 농업방면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농업생산을 복구하는 임무를 수행한외에 또 모든 로해방구에서 농업생산호조조직을 대대적으로 보급시켰으며 반사회주의적농업생산합작사도 조직하기 시작하여 일부의 경험을 얻었다. 그뒤를 이어 1953년부터 시작된 제1차5개년계획을 이미 거의 3년 동안 실시하였는데 이동안 우리의 농업합작화운동은 벌써 전국적범위에서 보급되었으며 우리의 경험도 많아졌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되어서부터 제3차5개년계획이 끝날 때까지는 18년간이다. 우리는 이 기간에 사회주의적공업화를 기본적으로 완수하며 수공업과 자본주의적공상업에 대한 사회주의적개조를 기본적으로 완수하는 동시에 농업방면에서의 사회주의적개조도 기본적으로 완수하려고 한다. 이렇게 할수 있는가? 쓰련의 경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바에 의하면 이것은 완전히 가능한 일이다. 쓰련은 1920년에 국내전쟁을 끝낸후 1921년부터 1937년까지의 17년동안에 농업합작화를 완수하였는데 쓰련의 합작화에 있어서의 주요한 공작은 1929

년부터 1934년까지의 6년 동안에 완수된 것이다. 이 기간에 쓰련의 일부 지방당조직들에서는 《쓰련공산당(불쉐위크) 력사간략독본》에 지적되어 있는 바와 같이 소위 《승리로 인한 현훈증》의 착오를 범하였었지만 그것은 재빨리 시정되었다. 쓰련은 매우 큰 노력을 들여 드디어 전반 농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를 승리적으로 완수하고 농업방면에서의 강대한 기술적 개조까지 완수하였다. 쓰련이 걸은 이 길이 바로 우리의 본보기이다.

둘째로, 우리는 농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면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제1보로는 농촌에서 자원 및 상호리익의 원칙하에 약간의 사회주의적 맹아를 가지고 있는데 불과한, 몇호 내지 10여호의 농호를 망라한 농업생산호조조를 조직하도록 농민들에게 호소한다. 그다음 제2보로는 이 호조조의 기초우에서 여전히 자원 및 상호리익의 원칙하에 토지입고 및 통일적 경영을 특징으로 하는 반사회주의 성질의 소형적인 농업생산합작사를 조직하도록 농민들에게 호소한다. 그다음 제3보에 가서 비로소 이 반사회주의적인, 소형적인 합작사의 기초우에서 역시 자원 및 상호리익의 원칙하에 가일층 연합하여 완전한 사회주의 성질을 띤 대형적인 농업생산합작사를 조직하도록 농민들에게 호소한다. 이러한 절차를 취하면 농민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사회주의적 각성 정도를 점차적으로 제고하게 할 수 있고 그들의 생활방식을 점차적으로 개변하게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활방식이 들연적으로 개변되는 듯한 감을 덜

느끼게 할수 있는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취하면 한동안(레컨대 1년 내지 2년 동안) 농작물이 감산되는것을 기본적으로 방지할수 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절차는 해마다 증산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보장할수 있는것이다. 지금 있는 65만개의 농업생산합작사가운데서 80%이상의 합작사들은 증산하였으며 10%의 합작사들은 증산하지도 못하였고 감산되지도 않았으며 몇%의 합작사들은 감산되었다. 마지막 두 부류의 합작사의 정확은 좋지 못한것이며 특히 감산된것은 가장 좋지 못한것이므로 반드시 큰 힘을 들여 정돈하여야 한다. 80%이상의 합작사들은 증산하였기때문에(증산폭도는 10% 내지 30%이다.), 또 10%의 합작사들은 비록 첫해에는 증산하지도 못하였고 감산되지도 않았지만 정돈공작을 통하여 이듬해부터는 증산할수 있기때문에 그리고 또 감산된 그 몇%의 합작사들도 정돈공작을 통하여 이듬해부터는 증산하게 되거나 또는 원래의 산량을 보장할수 있기때문에 전반적으로 말하여 우리의 합작화는 건전하게 발전되고있으며 기본적으로 증산을 보장하고 감산되지 않게 할수 있는것이다. 이러한 절차들은 간부를 훈련하는 아주 좋은 학교로 되는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합작사의 수많은 관리인원들과 기술인원들을 점차 훈련해낼수 있다.

셋째로, 해마다 실제정황에 비추어 농업합작화발전의 통제수자를 정하며 또 합작화공작에 대하여 몇차례 검사한다. 이렇게 하면 정황의 변화와 성적여하에 근거하여 각 성, 각 현, 각 향에서의 매년의 구체적발

전절차를 결정할수 있다. 어떤 지방에서는 잠시 멈추고 정돈공작을 진행하는것이 좋을것이고 어떤 지방에서는 발전시키는 한편 정돈공작을 진행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어떤 합작사의 부분적사원들에 대하여서는 퇴사하게 하여도 좋을것이며 개별적합작사들에 대하여서는 잠시 해산시켜도 좋을것이다. 어떤 지방에서는 대대적으로 새 합작사들을 건립하여야 할것이고 어떤 지방에서는 다만 세운지 오랜 합작사들에서 농호수를 확대하는것이 좋을것이다. 각 성, 각 현에서는 합작사를 한차례 발전시킨후에는 발전을 중지하고 정돈공작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며 그런후에 합작사들도 한차례 발전시켜야 한다. 중단이 있어서는 안되며 간헐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상은 그릇된것이다. 합작화운동의 검사공작에 대하여 말한다면 중앙 및 각 성 위, 자치구당위, 시위, 지위는 이 공작을 단단히 틀어쥐고 해마다 한차례가 아니라 몇차례씩 진행하여야 한다. 문제가 쌓이고쌓인후에 그것을 한번에 총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로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평은 제때에 하여야 하고 사후에 비평하기만 좋아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금년에 들어와서 7개월동안에 중앙에서 지방책임동지들을 소집하여 농촌합작화문제를 토론한 회의만 하여도 이번 회의까지 합쳐서 세차례나 된다. 당지 실정에 알맞게 제때에 지도하는 이러한 방법을 쓰면 우리는 공작에서 착오를 덜 범할수 있으며 또 착오를 범했다 하더라도 신속히 시정할수 있다.

우에서 말한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농업합작화 문제에 대한 우리 당중앙의 지도방침이 정확하며 따라서 운동의 건전한 발전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다고 말할수 없단 말인가? 나는 이렇게 말할수 있으며 또 이렇게 말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방침을 《너무 급격히 나아가는것》이라고 평가하는것은 완전히 그릇된것이다.

## 9

일부 동지들은 자산계급, 부농 또는 자연발생적 자본주의경향을 가지고있는 부유중농의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농련맹이라는 이 극히 중요한 문제를 그릇되게 관찰하고있다. 그들은 지금 합작화운동이 매우 위험한 정황에 있다고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지금의 합작화의 길에서 《당장 말에서 내리라》고 권고하고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당장 말에서 내리지 않으면 공농련맹을 파괴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는 반대로 당장 말을 타지 않으면 공농련맹을 파괴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여기서 보기에는 단 한마디의 차이, 즉 하나는 말에서 내리라 하고 하나는 말을 타라고 하는 차이뿐인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두 로선간의 분기를 보여주는것이다. 누구나 다 잘 알고있는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공농련맹이 있다. 이것은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고 지주의 수중에서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요 농민들을 봉건적소유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러한 자산계급민주혁명의 기초우에 건립된것이다. 그러나 이 혁명은 지나갔고 봉건적소유제는 소멸되었다. 지금 농촌에 존재하고있는것은 부농의 자본주의적소유제와 망망한 대해와도 같은 개체농민의 소유제인것이다. 모두가 보다싶이 최근 수년간에 농촌에서는 자연발생적 자본주의세력이 나날이 자라나고있어 신부농이 도처에서 나타나고있고 많은 부유중농들이 부농으로 되려고 애쓰고있다. 그리고 많은 빈농들은 생산자료가 부족하기때문에 여전히 가난한 처지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밭을 지고 어떤 사람들은 토지를 팔거나 토지를 소작주고있다. 이러한 정황을 발전되도록 내버려둔다면 농촌에서의 양극분화현상은 필연적으로 나날이 더 엄중하여질것이다. 토지를 잃은 농민들과 여전히 가난한 처지에 있는 농민들은 자기들의 곤난을 해결하여주지 않고 죽든말든 내버려둔다고 우리를 원망하게 될것이다. 자본주의방향으로 발전하고있는 부유중농들도 우리에게 불만을 품을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려 하지 않는 이상 이런 농민들의 요구는 영원히 만족시켜줄수 없기때문이다. 이러한 형편에서 공인과 농민의 동맹이 계속 공고할수 있겠는가? 그럴수 없다는것은 뻔한 일이다. 이 문제는 새로운 기초우에서만 해결될수 있다. 새로운 기초란 사회주의적공업화를 점차적으로 실현하며 수공업과 자본주의적공상업에 대한 사회주의적개조를 점차적으로 실현하는 동시에 전반 농업에 대한 사회주의적개조를 점



차적으로 실현하여, 즉 합작화를 실시하여 농촌에서 부농경제제도와 개체경제제도를 소멸하고 전체 농촌인민을 다같이 부유하게 만드는것이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공인과 농민의 련맹이 공고화될수 있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련맹은 파괴될 위험성이 있다. 우리를 《말에서 내리라》고 권고하는 그런 동지들은 이 문제에서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있는것이다.

## 10

멀지 않아 농촌에는 전국적인 사회주의적개조의 고조가 나타날것이며 이것은 불가피적이라는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예견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차5개년계획의 마지막해가 끝나고 제2차5개년계획의 첫해가 시작되는 때, 즉 1958년 봄에 가서는 전국적으로 약 2억 5,000만의 인구——약 5,500만의 농호(평균 네사람반을 한호로 계산하여)가 반사회주의성질을 띤 합작사에 가입하게 될것이다. 그것은 전체 농촌인구의 반수에 해당된다. 그때에 가면 많은 현들과 일부의 성들에서 농업경제의 반사회주의적개조가 기본적으로 완수될것이며 동시에 전국 각지에 반사회주의적인것으로부터 완전한 사회주의적인것으로 넘어간 일부의 합작사가 있게 될것이다. 우리는 제2차5개년계획의 전반기, 즉 1960년에 가서는 그 나머지 반수의 농촌인구를 망라한 농업경제에 대하여 반사회주의적개조를 기본적으로 완수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가서는 반사회주의적인 것으로부터 완전한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전변된 합작사의 수효가 더 늘어날 것이다. 제1차, 제2차 5개년계획기간에 농촌에서의 개혁은 의연히 사회개혁을 주로 하고 기술개혁은 부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대형적인 농업기계들이 틀림없이 증가될 것이지만 그리 많지는 못할 것이다. 제3차5개년계획기간에 농촌에서의 개혁은 사회개혁과 기술개혁이 동시에 병진될 것이며 대형적인 농업기계들이 해마다 더 많이 사용될 것이고 사회개혁은 1960년 후에 가서는 점차적으로 차례와 기를 나누어 반사회주의적인 것으로부터 완전한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발전될 것이다. 중국은 오직 사회경제제도면에서 사회주의적개조가 철저히 완수되고 또 기술적면에서 기계작업을 할 수 있는 모든 부문과 곳에서 다 기계작업이 실시되어야만 사회경제면모의 전반적인 개변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조건으로 말미암아 기술개혁기간은 사회개혁기간보다 좀 길 것이다. 전국적범위에서 농업방면에서의 기술개혁을 기본적으로 완수하자면 대략 4차 내지 5차에 걸친 5개년계획, 즉 20년 내지 25년의 시일이 걸려야 하리라고 짐작된다. 전당은 반드시 이 위대한 임무의 실현을 위하여 분투하여야 한다.

## 11

전면적규획을 세워야 하며 또 령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전국적, 전 성적, 전 지구적, 전 현적, 전 구적, 전 향적인 계단별합작화실시계획을 세워야 한다. 동시에 실제공작의 발전정황에 근거하여 자기의 계획을 부단히 수정하여야 한다. 성, 지구, 현, 구, 향의 각급 당조직 및 청년단조직은 농촌문제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하며 농촌공작에 대한 자기의 령도를 착실히 개선하여야 한다. 지방의 각급 당위원회 및 청년단위원회의 주요책임동지들은 농업합작화공작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야 하며 그 공작에서 능수로 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피동이 되지 말고 주동이 되어야 하며 령도를 포기하지 말고 령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 12

1954년 8월에(이것은 벌써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제출된 중국공산당 흑룡강성위의 보고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농촌에서 합작화의 양양되는 형세가 형성되고 발전됨에 따라 농촌의 각종 호조합작조직들과 각 계층의 군중들은 부동한 정도로 보편적으로 동하고 있다. 현유의 농업생산합작사들에서는 사원들을 더 받아들이고 계획과 온양을 하고있으며 합작사로 발전시킬 대상으로 되고있는 농업생산호조조들에서는 호수를 확충할 계획과 온양을 하고있으며 조건이 부족한 농업생산호조조들에서도 그들자신에 대한 가일층의 발전과 제고를 요구하고있다. 군중들가운데는 새로 조직되는 합작사에 들어갈 차비를 하고있는 사람도 있고 본래

있는 협작사에 들어갈 차비를 하고있는 사람도 있다. 금년도에 협작사에는 들어갈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호조조에는 들어가려고 적극적으로 온양하고있다. 동한면이 매우 넓으며 이미 균중적인 운동이 형성되었다. 이러한것은 농업협작화의 대규모적인 발전을 말하여주는 새로운 돌출한 특징이다. 그렇지만 일부 현, 구의 일부 령도동지들이 이 새로운 특징에 적응하여 제때에 령도를 강화하지 못하였기때문에 부분적인 촌, 튼(주: 흑룡강성의 촌은 행정단위로서 관내 각 성의 향에 해당된다. 흑룡강성의 튼은 행정단위가 아니고 관내 각 성의 촌에 해당된다.)들에서는 균중이 자기로 대상을 고르는 과정에서 <너너한 사람은 너너한 사람을 골라잡고 가난한 농민을 배척하며>, <골간을 쟁탈하고 사원을 쟁탈하여 부단결을 자아내고있으며>, <골간이 맹목적으로 집중되며>, <부농과 자본주의사상이 비교적 엄중한 부유한 농민들이 이 기회를 타서 저급조 혹은 부농사를 조직하는> 등등의 건전하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상의 사실들은, 농업협작화가 대대적으로 발전하고있는 정황하에서는 단지 협작사를 새로 건립하는 그러한 범위와 각도로부터 출발하여 당의 정책을 관철집행하며 이 운동을 령도해나가는것을 고려하는것만으로는 이미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전 촌적범위(주: 즉 전 향적범위)와 농업협작화운동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각도에서 출발하여 본래 있던 협작사의 확대도 고려하고 새로운 협작사의 건립도 고려하며 협작사의 발전도 고려하고 호조조의 제고도 고려하며 금

년도 고려하고 명년, 나아가서는 후년도 고려하여야 한다는것을 충분히 설명하여주고있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당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현하여 농업합작화운동을 건전하게 발전시킬수 있는것이다.»

여기에서 《일부 현, 구의 일부 령도동지들이 이 새로운 특점에 적응하여 제때에 령도를 강화하지 못하였다》고 한것은 단지 흑룡강성에만 있는 일인가? 일부 현이나 구에만 있는 일인가? 내가 보기에는 령도가 운동의 뒤에 떨어지는 이러한 엄중한 정황에 대하여서는 전국의 허다한 령도기관내에서 그 대표적인물을 찾을수 있을것 같다.

흑룡강성위의 보고에는 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쌍성현 회근촌에서는 촌을 단위로 하고 령도와 군중의 자원을 결합시키는 방법을 취하여 전면적규획을 작성하였다. 이것은 합작화의 대규모적인 발전을 령도함에 있어서 하나의 발기인것이다. 그 중요한 작용을 보면, 첫째로는 규획을 통하여 농촌에서의 당의 계급로선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고 빈농과 중농과의 단결을 강화하였고 부농경향에 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농업의 전면적합작화의 리익으로부터 착안하여 골간력량을 적절하게 배비하였다. 합작사와 합작사간, 합작사와 호조조간의 관계를 조절하고 긴밀히 하였으며 그리하여 농업합작화운동을 계획적으로, 전면적으로 추진시켰다. 둘째로는 이러한 규획을 통하여 농업합작화의 대규모적인 발전공작을 기층령도와 광범한 군중속에 구체적으로 포치함으로써 촌당지부로 하여

금 어떻게 령도할것인가를 알게 하였으며 이미 건립된 합작사로 하여금 어떻게 발전할것인가를 알게 하였으며 새로 건립되는 합작사로 하여금 어떻게 합작사를 세울것인가를 알게 하였으며 호조조로 하여금 자체를 제고할 구체적방향을 알게 하였다. 그리하여 촌당지부와 광범한 군중의 주동성과 적극성을 가일층 발휘시켰으며 당지부에 의거하고 군중의 경험과 지혜에 의거하는 정확한 원칙을 충분히 체현하였다. 셋째로는 바로 이러한 계획을 통하여 농촌실정을 더욱 똑똑히 파악하고 당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전면적으로 관철집행할수 있었다. 그렇기때문에 조급해서 너무 급격히 나아가는것을 방지할수 있었으며 또 보수적이고 자유방임하는것도 방지할수 있었으며 따라서 <적극적으로 령도하며 온건하게 전진하라>는 중앙의 방침을 정확하게 실현할수 있었다.»

흑룡강성위의 보고 가운데 제기된 일부 《전진하지 못한 현상》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성위의 보고는 이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인 해답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성위의 보고 뒤에 첨부된 쌍성현위의 보고가 이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주고있다. 그 보고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당지부의 령도와 군중의 자원을 결합시켜 전면적규획을 작성한 결과 빈곤한 농호를 가입하지 못하도록 배척하는 편향이 시정되었으며 골간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골간을 쟁탈하고 사원을 쟁탈하는 현상이 없어졌으며 합작사와 호조조간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으며 부농사 또는 저급조를

조직하려는 부농과 부유중농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당지부의 계획이 기본적으로 실현되었다. 두개 로합작사가 사원을 40% 확대시켰으며 여섯개의 새 합작사가 초보적으로 조직되었으며 정돈을 거쳐 두개의 호조조가 조직되었다. 잘하면 명년(주: 즉 1955년)에 전 촌이 합작화될수 있으리라고 예견된다. 지금 전 촌의 군중들은 금년도의 농업합작화발전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증산 및 수확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있다. 촌간부들은 <다행히도 이렇게 하였으니 말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란판이 되어 올해 일이 잘되지 못할뿐만아니라 래년까지 그 영향이 미칠 번했다>고 보편적으로 인정하고있다.»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

전면적규획을 세우고 령도를 강화하는것——이것이 바로 우리의 방침이다.

## 주 해

[1] 당시에는 농업생산합작사의 운영이 잘되고있는가, 보통정도로 되고있는가, 잘되지 못하고있는가에 따라 보통 1류합작사, 2류합작사, 3류합작사라고 불렀다.

[2] 여기서 말한 세호의 톨농이란 하북성 안평현 남왕장의 왕옥곤, 왕소기, 왕소방이다. 그들이 꾸린 농업생산합작사는 오늘의 남왕장인민공사 남왕장대대의 전신이다.

## 농업합작화에 있어서는 당원, 단원과 빈농, 하중농에 의거하여야 한다\*

(1955년 9월 7일)

《빈농(원래 빈농이었던 신중농도 전부 포함하여)에 의거하며 중농과 튼튼히 단결하자》는 구호는 지금에 있어서도 의연히 기본상 정확하다. 그러나 (1) 신중농속에서 부유중농(즉 상중농)이 출현되었는데 이런 사람들가운데서 정치각오가 비교적 높은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당분간 합작사에 가입하려고 하지 않는다. (2) 구중농중의 하중농은 그 경제적지위로 보아 본래부터 부유하지 못하기때문에, 그리고 일부는 토지개혁때 부당한 침범을 좀 당하였으므로 그 경제적지위에 있어서 신중농중의 하중농과 대체로 비슷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합작사에 가입하는데 대하여 일반적으로 흥취를 가진다. 이상의 두가지 원인으로 하여, 합작화가 아직 고조에 이르지 않았고 부유중농이 아직 각성하지 못하고있는 모든 지방들에서는 우선 (1) 빈농, (2) 신중농중의 하중농(모택동동지의 보고의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중공중앙을 위하여 기초하신 당내지시이다.



수정본에서는 중농을 너무 세분하여 구분하기 어렵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상중농과 하중농 두 부분으로만 나누고 중중농은 제기하지 않았다. 지금 말하는 하중농은 실제상 원래 말하던 신중농중의 하중농과 중중농 두 부분을 포함한다.), (3) 구중농중의 하중농,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합작사에 가입시키는것이 좋다(그 각성정도에 따라 여러차례로 나누어서 받아들여지되 각성정도가 비교적 높은 사람들을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아직 합작사에 가입하려 하지 않는 부유중농, 즉 신구중농중의 상중농은 억지로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 지금 많은 지방들에서는 부유중농들의 역축과 농구를 바라보고 그들을 강박적으로 합작사에 가입시키는 현상들이 발생되고있는데(값을 너무 낮게 매기고 상환기한을 너무 길게 정한다.) 이것은 사실상 그들의 리익을 침범하는것이며 《중농과 튼튼히 단결하는》 원칙에 위반되는것이다. 이 맑스주의적원칙에 대하여 우리는 그 어느때든지 위반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부유중농중에서 자본주의사상이 농후한 사람들에 대하여 말한다면 지금 합작사가 처음 조직되었거나 아직 우세를 차지하지 못한 모든 지방들에서는 그들을 끌어들이는것이든 또는 그들자신이 합작사에 파고들어와 령도적지위를 차지하려고(진정한 정치각오가 있어서 그러는것이 아니라) 시도하는것이든 흑룡강성 쌍성현에서 발견된것처럼 저급사를 조직하려고 시도하는것이든 모두다 빈농과 하중농의 령도적지위를 수립하는데 아주 불리하다(물론 공정하고 유능하며 정치각오가 높

은 개별적인 부유중농은 이런 계에 들지 않는다). 그런데 모든 합작사들에서는 반드시 빈농과 하중농의 정도적지위를 수립하여야 한다. 어떤 사람은 지금의 제기법은 《빈농에 의거하며 중농과 튼튼히 연합하자》는 구호를 포기하는듯하다고 말하고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이 구호를 포기하는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황에 따라 구체화하고있는것이다. 즉 신중농중에서 이미 부유중농으로 상승한 사람들을 의거대상의 한 부분으로 삼지 않고 구중농중의 하중농을 의거대상의 한 부분으로 삼는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경제적지위에 따라 그리고 합작화운동에 대하여 그들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가 어떤가에 따라 확분한것이다. 다시말하면 빈농과 두 부분의 하중농은 구빈농에 해당하므로 의거대상으로 삼으며 두 부분의 상중농은 구중농에 해당하므로 튼튼히 단결할 대상으로 삼는바 목전에 있어서 그들을 단결하는 방법의 하나는 그들을 합작사가 가입하도록 강박하지 않는것이며 그들의 리익을 침범하지 않는것이다.

농촌에서 어떤 사람에게 의거할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몇가지를 더 똑똑히 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선 당원, 단원에 의거하여야 한다. 우리의 구위이상의 정도기관 또는 농촌에 파견되어 공작을 지도하고있는 간부들이 우선 농촌의 당원과 단원들에게 의거하지 않고 당원, 단원을 비당원, 비단원, 군중과 혼동시하는것은 옳지 않다. 다음으로는 비당군중가운데서 비교적 더 적극적인 사람들에게 의거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람들

이 농촌인구의 약 5%를 차지하여야 한다(이를테면 인구가 2,500명가량 되는 향에는 이러한 적극분자가 125명가량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훈련해 내기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들에 대하여서도 일반군중과 혼동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다음에 가서 일반빈농과 두 부분 하중농의 광범한 군중들에게 의거하여야 한다. 어떤 사람에 의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의거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똑똑히 알지 못한다면 합작화운동에서 착오를 범하게 될 것이다.

## 농업합작화에 관한 변론과 당면한 계급투쟁\*

(1955년 10월 11일)

우리의 이번 회의는 대변론의 회의였다. 이 대변론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과도하는 기간에 있어서의 우리 당의 총로선이 완전히 정확한가 어떤가 하는 문제에 관한 대변론이었다. 이번의 전당적인 대변론은 농업합작화의 방침문제로부터 일어났으며 동지들의 토론도 이 문제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번 변론은 관련되는 범위가 매우 넓다. 그것은 농업, 공업, 교통, 운수, 재정, 금융, 무역, 문화, 교육, 과학, 위생 등 부문들의 공작에 관련되며 수공업 및 자본주의적공상업에 대한 개조에 관련되며 반혁명진압에 관련되며 또 군대에도 관련되고 외교에도 관련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 정, 군, 민 각 방면의 공작에 관련된다. 이러한 대변론은 한번 하는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총로선이 발표된 이래 우리 당에 이러한 변론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이 변론을 농촌에서 전개하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제7기중앙위원회 확대된 제6차전체회의에서 하신 결론이다.

고 성시에서도 전개함으로써 각 방면의 공작을 그 속도에 있어서나 질적면에 있어서나 다 총로선에 규정된 임무에 적응되도록 하여야 하며 모두다 전면적인 계획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제 나는 아래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려 한다.

## 1. 농업합작화와 자본주의적 공상업의 개조와의 관계

농업합작화와 자본주의적공상업의 개조와의 관계 문제, 즉 대략 3차의 5개년계획기간에 농업의 사회주의적개조를 기본적으로 완수하는것과 동일한 기간에 자본주의적공상업에 대한 사회주의적개조를 기본적으로 완수하는것과의 관계문제는 말하자면 농업합작화와 자산계급과의 관계문제이다.

농업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철저히 실시하는 과정에 공인계급과 농민과의 련맹이 새로운 기초, 즉 사회주의의 기초우에서 점차 공고화되어야만 성시자산계급과 농민과의 련계를 철저히 끊어버릴수 있고 자산계급을 철저히 고립시킬수 있으며 그래야만 자본주의적공상업을 철저히 개조하는데 유리하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우리가 농업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실시하는 목적은 농촌이라는 이 가장 광활한 땅우에서 자본주의의 태원을 근절하려는데 있다.

지금 우리는 농업합작화를 아직 완성하지 못하였

고 공인계급이 아직 새로운 기초우에서 농민과의 견고한 련맹을 결성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공인계급과 농민과의 련맹이 아직 흔들리고있다. 과거 우리가 토지혁명의 기초우에서 농민과 결성하였던 그 련맹에 대하여 지금은 농민들이 만족스러워하지 않고있다. 그때에 얻은 리익에 대하여 그들은 더러 잊고있다. 지금은 그들에게 새로운 리익을 가져다주어야 할것인데 사회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 농민들이 아직 다같이 부유해지지 못하고있으며 량곡과 공업원료가 아직도 여간 부족하지 않다. 이런 정황하에서 자산계급은 이 문제에서 우리의 흠을 잡아가지고 우리를 진공할것이다. 몇해가 지나면 우리는 공인계급과 농민이 새로운 기초우에서 과거보다 더 견고한 련맹을 결성한 완전히 새로운 형세를 보게 될것이다.

지주를 반대하고 토호를 치고 토지를 분배하던 이전의 그 련맹은 일시적인 련맹으로서 한동안 공고하였으나 이제는 또 공고하지 못하게 되었다. 토지개혁후에 농민들은 분화되었다. 만일 우리가 농민들에게 새로운것을 주지 못한다면, 농민들이 생산력을 제고시키고 수입을 증가시켜 다같이 부유하여지도록 도와주지 못한다면 가난한 농민은 우리를 믿지 않을것이며 공산당을 따라가는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게 될것이다. 토지를 분배받아도 그냥 가난한대로 있다면 그들이 무엇때문에 공산당을 따르려 하겠는가? 부유한 농민도, 부농으로 변한 농민이나 또는 대단히 부유해진 농민도 우리를 믿지 않을것이며 공산당의 정책이 어쨌든 자기네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것이다. 결국에는 량쪽이다 우리를 믿지 않게 된다. 즉 가난한 농민도 부유한 농민도 다 우리를 믿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공농련맹은 매우 견고하지 못할것이다. 공농련맹을 견고하게 하려면 우리는 농민들을 사회주의길로 이끌어 농민군중이 다같이 부유해지게 하여야 한다. 가난한 농민을 부유해지게 하고 모든 농민이 다 부유해지게 하여야 하며 뿐만아니라 그 부유한 정도가 지금의 부유한 농민을 훨씬 초월하게 하여야 한다. 합작화하기만 하면 농촌의 전체 인민이 해마다 더 부유해질것이며 따라서 상품량곡과 공업원료도 많아질것이다. 그때에 가면 자산계급은 말문이 막히게 될것이며 자기들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것을 발견하게 될것이다.

우리에게는 지금 두개의 련맹이 있다. 하나는 농민과의 련맹이고 다른 하나는 민족자산계급과의 련맹이다. 은래동지도 말하였지만 이 두 련맹은 다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것이다. 자산계급과의 련맹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우리는 농산물을 바꾸어오기 위한 공업품을 더 많이 얻어올수 있다. 10월혁명이후 한시기 레닌이 바로 이런 타산을 하였었다. 국가에서 교환을 위한 공업품을 내놓지 않으면 농민들이 량곡을 내놓지 않으며 돈만 가지고 사려고 하여서는 그들이 량곡을 팔려하지 않기때문에 레닌은 공업품을 증가시키는것으로써 농촌의 자연발생적세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무산계급의 국가정권과 국가자본주의와의 련맹을 결성하려고 하였었다〔1〕. 지금 우리가 자산계급과의 련맹을 결성하

며 당분간 자본주의적기업을 몰수하지 않고 그에 대하여 리용, 제한, 개조의 방침을 취하고있는것도 더 많은 공업품을 얻어서 농민들의 수요를 만족시킴으로써 그들이 량곡을, 지어는 기타의 일부 공업원료까지도 잘 팔려고 하지 않는 현상을 개변시키기 위한것이다. 이것은 자산계급과의 련맹을 리용하여 농민들이 잘 팔려고 하지 않는 현상을 극복하려는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농민과의 련맹에 의거하여 량곡과 공업원료를 얻어가지고 자산계급을 제어한다. 자본가들에게는 원료가 없고 국가에는 원료가 있다. 따라서 그들은 원료를 얻기 위하여서는 공업품을 국가에 팔지 않으면 안되며 국가자본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는 원료를 주지 않고 어쨌든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면 자산계급이 자유시장을 벌리며 원료를 자유로 얻어들이며 공업품을 자유로 판매하려 하는 그 자본주의길을 막아버리게 되며 정치상에서도 자산계급을 고립시키게 된다. 여기서 말한것은 이 두 련맹의 상호작용이다. 이 두 련맹중에서 농민과의 련맹이 주요하며 기본적인것이고 자산계급과의 련맹은 일시적이며 부차적인것이다. 이 두 련맹은 경제적으로 락후한 우리 나라에 있어서 지금은 다 필요하다.

토지개혁에 의하여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초우에서 농민과의 련맹을 결성하였으며 농민들은 토지를 얻었다. 농민이 토지를 얻는다는 이것은 자산계급민주혁명의 성질에 속하는것으로서 단지 봉건적소유제를 파괴



할뿐이고 자본주의적소유제와 개체소유제는 파괴하지 않는다. 이 련맹은 자산계급으로 하여금 처음으로 고립감을 느끼게 하였다. 1950년에 나는 3중전회에서 사면출격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말한바 있다. 그 당시에는 전국의 많은 지방들에서 아직 토지개혁이 실시되지 않았고 농민들이 아직 우리에게로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기때문에 당장 자산계급에게 불질을 하여서는 안되었다. 토지개혁이 실시되어 농민들이 우리에게 완전히 돌아선 때에 와서는 우리가 《3반》, 《5반》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 필요하게 되었다. 농업합작화는 우리로 하여금 자산계급민주주의의 기초우에서가 아니라 무산계급사회주의의 기초우에서 농민과의 련맹을 공고히 할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되면 자산계급이 철저히 고립되어 자본주의를 종국적으로 소멸하는데 유리하다.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야말로 량심이 없다고 할수 있다! 맑스주의는 아주 모질고 량심이 적다. 즉 제국주의를 멸종시키며 봉건주의를 멸종시키며 자본주의를 멸종시키며 소생산도 멸종시키려 한다. 이 면에서는 량심이 적은것이 좋다. 우리의 일부 동지들은 너무 인자하며 사납지 못하다. 다시말하면 그리 맑스주의적이 못된다. 6억 인구를 가진 중국에서 자산계급, 자본주의를 멸종시키는것은 아주 좋은 일이며 큰 의의를 가지는 좋은 일이다. 우리의 목적은 바로 자본주의를 멸종시키며 그것을 이 지구에서 멸종시키고 역사적인것으로 만들어버리려는데 있다. 역사적으로 생겨난 물건은 결국 소멸되기 마련이다. 세상의

사물은 역사적으로 생겨나지 않은것이 없으며 생이 있으면 사가 있는 법이다. 자본주의란 이 물건도 역사적으로 생겨난것이므로 역시 사멸하고말것이다. 그에게는 아주 좋은 곳이 마련되어있다. 그것은 즉 저 땅속에 들어가 《잠》드는것이다.

현재의 국제환경은 우리가 과도기의 총임무를 완수하는데 유리하다. 우리는 3차의 5개년계획기간에 사회주의적공업화와 사회주의적개조를 기본적으로 완수하려 한다. 우리는 이 평화적건설의 시간을 반드시 쟁취하여야 한다. 15년에서 이미 3년이 지났으니 이제 12년을 쟁취하면 될것이다. 쟁취할수 있을것 같으니 극력 쟁취하여야 한다. 우리는 외사공작면에서와 국방건설면에서 더욱더 노력하여야 한다.

이 15년동안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계급투쟁이 매우 긴장할것이다. 우리는 계급투쟁이 매우 긴장해진것을 이미 보고있다. 계급투쟁에서 우리는 이미 많은 승리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거둘것이다. 지난 한해동안의 국내의 계급투쟁을 놓고보면 우리는 주로 네가지 일을 하였다. 한가지는 유심론을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하는것이였으며 한가지는 반혁명을 진압하는것이였으며 한가지는 량식문제를 해결하는것이였으며 한가지는 농업협작화문제를 해결하는것이였다. 이 네가지 문제에서의 투쟁은 모두 자산계급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성질을 띤것으로서 자산계급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고 또 계속 궤멸적인 타격을 주고있다.

유심론을 반대하는 투쟁은 《홍루몽》과 관련한 문제

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문예보》도 비평하고 나중에는 또 호적과 량수명도 비판하면서 이미 1년동안 진행되었다. 우리는 유심론을 착실히 반대하려 하며 이것도 3차의 5개년계획을 할 예산이다. 유심론을 반대하는 투쟁과정에서 맑스주의의 변증법적유물론을 소유한 간부대오를 육성하여 우리의 광범한 간부와 인민들이 맑스주의의 기본적인 이론으로 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반혁명진압은 금년과 명년 1년을 할 예정이며 국영공장, 국영산업, 합작사, 현, 구, 향 등 각종 조직을 망라하고 군대의 간부, 공장의 공인까지 포함하여 도합 1,200만명가량 되는 범위내에서 숙반공작을 진행하려고 한다. 반혁명에 대하여 말하면 그리 많지 않은것 같고 눈에 보지도 않으나 들춰보면 확실히 있으며 지금 벌써 일부를 사출하여냈다. 량식문제에서도 큰 싸움을 하였다. 자산계급이 량식문제를 구실로 우리를 진공하는가 하면 우리 당내에도 허튼소리가 떠돌고있었으므로 우리는 비평을 전개하였다. 농업합작화문제에서 우리는 많은 투쟁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하였다. 이 네개 문제에서 우리는 거대한 투쟁을 전개하여 자산계급의 반항과 진공에 타격을 가하고 주동을 쟁취하였다.

자산계급은 우리가 이 몇개 문제에서 그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을 두려워하며 특히 반혁명진압을 두려워한다. 우리의 반혁명진압공작은 잘되었다. 이 공작에서는 규격을 강조하여야 한다. 규격이 없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 표준에 부합되는자만을 반혁명으로 처

야 한다. 다시말하면 반혁명이 아닌 사람을 반혁명으로 잘못 잡아내지 말고 진짜반혁명을 잡아내야 한다. 반혁명이 아닌 사람을 반혁명으로 잘못 잡아낼수도 있다는것을 예견하여야 한다. 그럴수 없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반혁명이 아닌 사람을 반혁명으로 잘못 잡아내는 일이 적게 생기도록 하며 될수 있는대로 생기지 않도록 할것을 요구한다. 규격에 완전히 부합되고 명실이 부합되고 틀림없는 진짜반혁명을 붙잡아내야 하며 좋은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진짜반혁명을 좀 놓칠수도 있다. 이번에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잡아내기는 어려우며 더러 놓치는것은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될수 있는 한 적게 놓쳐야 한다.

## 2. 합작화문제에서의 쟁론에 대한 총결

농업합작화문제에서 군중들의 많은 발명은 많은 미신들을 타파하였고 많은 그릇된 관점들을 분쇄하였다. 몇달전만 하여도 많은 사람들에게 명확하지 못하던 허다한 문제들이 이번 토론에서 해결되었다.

첫째, 대규모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이 좋은가 아니면 소규모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이 좋은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주요한 문제로서 쟁론이 대단하였는데 지금은 해결되었다. 군중들이 대규모적으로 발전시킬것을 요구하고있으며 과도기의 총임무가 농업이 공업에 적응할것을 요구하고있는만큼 소규모적으로 발전시킬것

을 주장하는 관점은 그릇된 것이다.

둘째, 늦게 해방된 지구에서 발전시킬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와 산간지대, 낙후한 향, 재해 지구들에서 발전시킬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도 지금 해결되었다. 다 발전시킬수 있는 것이다.

셋째, 소수민족지구에서 합작사를 꾸릴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이다. 지금 증명된바에 의하면 조건이 성숙된 지방들에서는 어디서나 다 합작사를 꾸릴수 있다. 부분적지방, 이를테면 서장이나 대량산, 소량산 같은 지방들에서는 아직 조건이 성숙되지 못하였으므로 꾸려서는 안된다.

넷째, 자금이 없고 수레가 없고 소가 없고 부유층농이 참가하지 않으면 합작사를 꾸릴수 없는가 하는 문제이다. 지금 증명된바에 의하면 역시 꾸릴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합작사를 꾸리기는 쉬워도 공고히 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미신도 타파되었다. 합작사를 꾸리기가 아주 쉬운것도 아니며 공고히 하기가 꼭 그렇게 어려운것도 아니다. 합작사를 꾸리기는 쉬워도 공고히 하기는 어렵다고 기어이 주장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합작사를 꾸리지 말자고 주장하거나 또는 적게 꾸리는것이 좋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여섯째, 농업기계가 없이 합작사를 꾸릴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이다. 꼭 기계가 있어야 합작사를 꾸릴수 있다는 공기가 이제는 그리 농후하지 않으나 아직도 그러한 관점이 있다. 이 미신도 완전히 타파할수

있는것이다.

일곱째, 잘 꾸러지지 못하고있는 합작사를 죄다 해산시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물론 확실히 계속 꾸러나갈수 없는 소수의 합작사들은 호조조로 물러서게 하여도 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소위 좋지 못한 합작사는 정돈을 하면 좋아질수 있으므로 해산시키지 말아야 한다.

여덟째, 소위 《당장 말에서 내리지 않으면 공농련맹을 파괴하게 된다》는것은 아마도 중앙농촌공작부에서 내려보낸 《도리》인것 같다. 중앙농촌공작부에서는 허튼소리를 내던졌을뿐만아니라 많은 《도리》까지 내놓았다. 내가 보기에는 이 말이 대체로 《정확》한것 같다. 단지 한마디만 고쳐서 《말에서 내리라》를 《말을 타라》로 하면 될것이다. 동무네 농촌공작부에서도 비판할것은 없다. 나는 동무들이 한 말을 다 그대로 채납하고 단 한마디를 고쳤을뿐이다. 단 한마디가 다르다. 우리의 쟁론의 초점은 하나는 말에서 내리라고 하고 하나는 말을 타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있다. 《당장 말을 타지 않으면 공농련맹을 파괴하게 된다.》 확실히 파괴하게 될것이다.

아홉째, 소위 《부림소가 죽게 되는것은 합작사탓이다》라는 말은 실제정황과 꼭 맞는 말은 아니다. 부림소가 죽게 되는 주요한 원인은 합작사에 있는것이 아니라 수재가 들었거나 소가죽값이 너무 비싸거나 사료가 부족한데 있다. 그리고 어떤 소는 늙어서 응당 잡아야 할것들이다.

열째, 소위 《농촌이 긴장하게 된 근본적원인은 합작사를 너무 많이 꾸린데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잘못이다. 금년봄에 우리 농촌정황이 긴장하게 된것은 주로 량식문제로 인하여 초래된것이다. 소위 량식이 모자란다는것은 그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며 지주, 부농과 그리고 부유중농들이 떠든것이다. 이 문제에서 우리는 광범한 농민들에게 미처 충분한 교육을 주지 못하였으며 동시에 우리의 량식공작에도 결함이 있었다. 작년에 도대체 량곡을 얼마 구매하여야 적당한가 하는 문제에서 우리는 당시 실정을 잘 료해하지 못하였기때문에 70억근을 더 구매하였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조절하여 70억근을 덜 구매할 예정이다. 게다가 금년에 풍년이 들었으므로 농촌의 정황은 완화될것이다.

열한째, 《합작사는 3년밖에 우월성이 없다》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비판주의이다. 내가 보기에 합작사의 우월성은 결코 3년동안에 그치지 않을것이며 사회주의는 장기간 지속될것이다. 앞으로 사회주의가 우월성을 대표하지 못할 그때에 가서는 또 공산주의의 우월성이 그것을 대체할것이다.

열두째, 최근시기에 고급사를 더러 꾸리는것이 적당한가 응당하지 않은가? 이 문제는 이전에 똑똑하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동무들이 제기하였다. 고급사를 더러 꾸려야 한다. 얼마나 꾸릴것인가 하는것은 동무들이 연구하기 바란다.

열셋째, 소위 《뚫배나 우마차는 합작사를 조직할 수 없다》고 하는것도 틀린 말이다. 지금 보건대 뚫배,

우마차 등으로 운수업에 종사하고있는 수백만의 노동자들도 합작사를 조직하여야 한다.

동무들의 토론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이것은 이번 중앙위원회전체회의의 중대한 수확이다.

### 3. 전면적규획을 세우고 평도를 강화할 문제에 관하여

전면적규획에는 첫째, 합작사의 규획, 둘째, 농업생산규획, 셋째, 전반적경제규획 등이 포괄되어야 한다. 농촌의 전반적경제규획에는 부업, 수공업, 다종경영, 종합적경영, 멀리 않은 곳에서의 황무지개간과 이민, 공소합작, 신용합작, 은행, 기술보급참 등등에 대한 것이 포괄되며 또 민중산과 마을을 특화할데 대한것도 포괄된다. 나는 특히 북방의 민중산들은 특화하여야 하며 또 완전히 특화할수 있다고 본다. 북방의 동지들은 이렇게 할 용기가 있는가? 남방의 많은 지방들에서도 아직 특화를 더 하여야 한다. 여러해 지나서 남북의 각지가 특화된것을 보게 되면 좋겠다. 특화는 농업에 대하여서나 공업에 대하여서나 각 방면에 대하여 다 유리하다.

또 어떤 규획이 있는가? 또 문화교육규획이 있다. 이 규획에는 문맹을 퇴치하는것, 소학교를 꾸리는것, 농촌수요에 알맞는 중학교를 꾸리며 중학교에 농업과 목을 증설하는것, 농민들의 수요에 알맞는 통속독물과



서적을 출판하는것, 농촌방송망과 이동영사대를 발전 시키는것, 문화오락을 조직하는것 등등이 포괄된다. 그리고 또 정당과 건당, 정단과 건단, 부녀공작에 관한것도 있으며 반혁명진압에 관한것도 있다. 전반 계획에 이러한 부분이 다 있어야 한다.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가 있어야 한다. (1) 향과 촌 합작사의 계획이다. 매개 합작사에서는 작은 사까지도 포함하여 모두 계획을 세워야 하며 그들이 계획을 세울줄 알게 하여야 한다. (2) 전 향의 계획이다. 우리 나라에는 전국적으로 22만여개의 향이 있으므로 22만여개의 향계획을 세워야 한다. (3) 전 현의 계획이다. 현마다 계획을 세우기 바란다. 지금 어떤 현들에서는 벌써 아주 훌륭한 계획을 작성하였는데 그것을 보면 참 그럴듯하다. 그들은 사상이 해방되어 하늘도 땅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어떤 족쇄나 수감의 속박도 없이 계획을 아주 생동하게 작성하였다. (4) 전 성(또는 자치구, 각 시의 교구)의 계획이다. 여기서 전 향의 계획과 전 현의 계획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 두 환절을 틀어쥐고 약간의 계획, 례컨대 한개 성에서 3~4개 현의 계획을 신속히 작성하여 발부함으로써 각지에서 그것을 본받도록 하여야 한다.

합작화계획은 지구에 따라 각이한 발전속도를 규정하여야 한다. 세 부류의 지구로 나눌수 있다. 첫째 부류는 다수 지구이고 둘째부류는 일부분 소수 지구이며 셋째부류는 다른 한 부분의 소수 지구이다. 다수 지구에서는 세차례의 고조, 세 겨울과 봄이 수요된다.

세차례의 고조는 금년겨울과 명년봄, 명년겨울과 후년봄 그리고 후년겨울과 래후년봄에 있게 될것이다. 세겨울과 봄에 세차례의 고조가 있게 되는데 한차례의 고조가 채 사라지기전에 또 한차례의 고조가 일어나게 하되 마치 두 산사이에 골짜기가 있고 두 파도사이에 파곡이 있는것처럼 그 중간에 간헐이 있어야 한다. 이런 지구에서는 1958년 봄까지면 반사회주의적합작화를 기본상 완성할수 있다. 둘째부류의 지구에서는 두겨울과 봄의 두차례의 고조면 충분할것이다. 례컨대 화북, 동북 그리고 또 일부 시의 교구가 그러하다. 이 부류의 개별적지구에서는 명년봄이면 기본상 합작화를 실현할수 있는바 단 한차례의 고조이면 될것이다. 셋째부류의 지구, 즉 다른 한부분의 비교적소수의 지구들에서는 넷, 다섯 심지어 여섯 겨울과 봄이 있어야 할것이다. 여기서 또 일부 소수민족지구, 례컨대 대량산, 소량산과 서장 및 기타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일부 소수민족지구들은 제외하여야 한다.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곳에서는 해서는 안된다. 반사회주의적합작화를 기본상 완성하였다는것은 어떤것인가? 그것은 농촌인구의 70% 내지 80%가 반사회주의적합작사에 가입한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일정한 신축성이 있다. 합작사에 가입한 인구가 70%거나 75%거나 80%거나 또는 그보다 좀더 되어도 다 반사회주의적합작화를 기본상 완성하였다고 할수 있다. 약간 남아있는 부분은 그후에 하면 되는것이다. 너무 느리게 해도 나쁘고 너무 급하게 해도 나쁘다. 너무 느리게 하는것이나 너무 급하게 하

는것이나 다 기회주의이다. 기회주의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느린 기회주의이고 하나는 급한 기회주의이다.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비교적 험히 리해한다.

성(시, 자치구), 지구, 현 세급에서는 제때제때에 운동의 발전정황을 장악하여야 하며 일단 문제가 생기면 즉시로 해결하여야 한다. 절대로 문제가 쌓인 다음에 총결을 하여 행차뒤의 나발이 되게 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의 많은 공작들이 그렇게 되었다. 공작과정에 문제가 있어도 해결하지 않고 문제가 쌓이도록 내버려두었다가 마감에 가서 총결을 하고 한바탕 비평하는것이였다. 일부 동지들이 《3반》, 《5반》 운동때에 이러한 착오를 범했던것이다. 사후의 비평만 좋아해서는 안된다. 사후에라도 비평은 하여야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그 즉시로 비평하는것이 가장 좋다. 사후의 비평만 좋아하고 립기응변적인 지도를 하지 않는것은 좋지 않다. 만일 일이 잘못되어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것인가? 일이 잘못되어가면 즉시 제동하여야 한다. 달리말하면 즉시 정거하여야 한다. 그것은 마치 차를 타고 가파른 고개길을 내려가다가 어떤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를 멈춰세우는것과 같은것이다. 성, 지구, 현에는 모두 차를 멈춰세울 권리가 있다. 《좌》경을 방지하는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좌》경을 방지하는것은 기회주의가 아니라 맑스주의이다. 맑스주의는 결코 《좌》경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다. 《좌》경기 기회주의는 맑스주의가 아니다.

앞으로 합작사발전공작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비겨야 하는가? 질과 규격을 비겨야 한다. 수량 또는 속도는 앞에서 말한 그 규정대로 하면 될것이고 중점은 질을 비기는데 두어야 한다. 그러면 질의 표준은 어떠한것인가? 생산을 증가시켜야 하며 역축을 죽이지 말아야 한다는것이다. 어떻게 하여야 생산을 증가시키며 역축을 죽이지 않을수 있는가? 그렇게 하자면 자원 및 상호이익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면적규획을 세워야 하며 령활한 지도가 따라가야 한다. 이 몇가지만 구비되면 합작사의 질이 비교적 좋아질수 있으며 생산을 증가시킬수 있고 역축을 죽이지 않을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조선에서 범하였던, 역축을 대량적으로 죽인 그런 착오를 반드시 방지하여야 한다. 판전은 금후 2년에 달렸으며 주로는 앞으로의 다섯달, 즉 금년겨울과 명년봄에 달렸다. 금년 11월부터 명년 3월까지 동무들은 절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가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서 트락또르가 아주 적으므로 소가 보배이며 농업생산에서의 주요한 공구로 되어있다.

앞으로 다섯달동안에 성, 지구, 현, 구, 향 등 다섯급의 주요간부들, 우선 서기와 부서기들은 반드시 합작사문제를 깊이 연구하여 합작사의 각종 문제들에 익숙해져야 한다. 시간이 너무 짧지 않은가? 나는 다섯달동안 착실하게 연구하기만 한다면 될수 있다고 본다. 성급의 동지들이 참답게 연구하는것이 아주 중요한 것은 물론이지만 특히 현, 구, 향의 동지들이 만일 깊이 연구하지 않아서 많은 합작사를 조직하면서도 그자신

이 합작사에 대하여 모른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하다. 만일 그냥 깊이 연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다면 공작을 바꾸어야 한다. 5개월후에, 즉 명년 3월후에 중앙에서 이번과 같은 회의를 아마 또 한차례 소집하게 될것이다. 그때에 가서 우리는 절을 비기게 될것인데 동무들의 발언은 이번에 한 말을 되풀이하지 말고 새로운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즉 전면적 계획에 관한 문제, 경영관리에 관한 문제, 령도방법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여야 한다. 합작사를 보다 빨리, 보다 많이, 보다 좋게 꾸리자면 어떤 좋은 방법들이 있는가 하는것을 말하여야 한다. 다시말하면 질 문제를 말하여야 한다.

령도방법은 아주 중요하다. 착오를 범하지 않으려면 령도방법에 주의를 돌려야 하며 령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령도방법에 관하여 몇가지 건의하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고려하기 바란다. 그것은 즉 지금 우리모두가 하고있다싶이 큰 회의나 작은 회의를 1년에 몇번씩 열고 당면의 발생된 문제들을 해결하는것이다. 만일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개별가운데서 보편성을 찾아내야 한다. 모든 참새를 몽땅 잡아다가 해부한 다음에야 《참새는 작아도 오장육부가 다 있다》는것을 증명하려 하여서는 안된다. 종래로 과학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몇개 합작사만 똑똑히 료해하면 적절한 결론을 내릴수 있는것이다. 회의를 여는 방법외에 또 전보를 치며 전화를 걸며 나가서 순시하는 이러한 방법들도 역시 아주 중요한 령도방법이다. 이밖에 각 성에서는 책임자

를 선택하여 출판물을 잘 꾸리며 개진함으로써 신속히 경험을 교류하여야 한다. 또 한가지 건의가 있는데 어떻겠는지 동무들이 한번 시험해보기 바란다. 나는 열 하루동안에 수정도 하고 평어도 쓰면서 120여편의 보고를 보았다. 이리하여 나는 공자보다도 더 널리 《렬국을 돌아다녔으며》 운남, 신강까지 다 《다녀보았다》〔2〕. 매개 성, 매개 자치구에서 1년 또는 반년에 책을 한권씩 편집하되 현마다 한권씩 넣어 각 현의 경험이 교류되게 할수 없겠는지? 이것은 협작화운동을 신속히 보급시키는데 유익하다. 또 한가지 방법은 속보를 내는 것이다. 현위에서는 지위에, 지위에서는 성위나 자치구 당위에, 성위와 자치구당위에서는 중앙에다 협작사를 꾸린 진도가 어떠한가, 무슨 문제들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보고하는 속보를 올려보내야 한다. 각급 령도에서 이러한 속보를 받고 정황을 장악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경우에 처리할 방법이 있게 된다. 이상은 령도 방법에 관한 몇가지 건의인데 동지들이 고려해보기를 바란다.

#### 4. 사상투쟁에 관하여

종래의 경험이 말하여주다싶이 사상투쟁은 반드시 적절하게 하여야 한다. 지금 사상적접전을 하여야 한다는 말이 흔히 쓰이고있다. 싸움에 비기면 저쪽도 칼을 휘두르고 이쪽도 칼을 휘두르면서 맞다들어 서로 찌르는것을 접전이라고 한다. 사상적접전을 하지 않

으면 명확성과 철저성이 없게 되는데 그것은 좋지 않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는 사상상에서 접전을 하여 명확성과 철저성이 있게 되었다. 이 방법의 좋은 점은 우선 대다수 동지들에게 문제를 똑똑히 해명하도록 도움을 줄수 있는것이며 다음으로 착오를 범한 동지들에게 착오를 시정하도록 도움을 줄수 있는것이다.

착오를 범한 동지들에 대하여서는 두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첫째로 본인이 혁명하려 하여야 하고 둘째로 다른 사람들도 그가 혁명을 계속하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본인이 혁명을 계속하려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례컨대 진독수가 혁명을 계속하려 하지 않았고 장국도가 혁명을 계속하려 하지 않았으며 고강, 요수석이 혁명을 계속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극소수이다. 대다수 사람은 혁명을 계속하려 하는것이다. 그런데 또 한가지가 있어야 한다. 즉 다른 사람이 혁명하는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우리는 《아Q정전》에 나오는, 아Q가 혁명하려는것을 못하게 한 가짜외국놈이 되지 말아야 하며 또 《수호전》에 나오는, 남이 혁명하려는것을 못하게 한 백의수사 왕륜으로도 되지 말아야 한다. 남이 혁명하려는것을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것이다. 백의수사 왕륜은 남이 혁명하려는것을 못하게 막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혁명을 당하고말았다. 고강도 남이 혁명하려는것을 못하게 막으려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혁명을 당하지 않았는가?

력사적경험이 증명하다싶이 교조주의적착오나 경

협주의적착오를 범한 사람들중 절대다수는 고칠수 있는것이다. 그렇게 되자면 두가지가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엄숙한 비평이 있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 이 후자가 없다면 좋지 않다. 그 관계부더가 정상적이 못될것이다. 착오를 조금도 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누구를 물론하고 크고작은 구별은 있겠지만 어쨌든 착오를 좀 범하게 되는것이다. 구할수 없는 사람, 폐킨대 진독수, 장국도, 고강, 요수석 그리고 진광, 대계영 같은 사람은 언제나 극소수이다. 이러한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한 기타 사람들은 다 구할수 있으며 동지들의 방조를 통하여 착오를 시정할수 있는것이다. 우리는 응당 이렇게 하여야 하며 또 그러한 신심을 가져야 한다. 착오를 범한 본인도 그러한 신심이 있어야 한다.

중앙농촌공작부의 일부 동지들은, 우선 등자회동지는 착오를 범하였다. 그가 이번에 범한 착오는 그 성질로 보아 우경적인 착오이며 경험주의적성질의 착오이다. 등자회동지는 자아비평을 하였는데 비록 각 소조회의에서 일부 동지들이 그의 자아비평이 아직 철저하지 못하다고 하였지만 우리 정치국의 동지들과 기타 일부 동지들은 의논해본 결과 기본상 잘됐다고 인정한다. 지금 벌써 그가 이러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꽤참은것이다. 등자회동지는 과거 장기간에 걸친 혁명투쟁에서 많은 공작을 하였으며 성적이 있었다. 이 점은 응당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성적을 보따리로 삼아서서는 안된다. 이 점에 관하여서는 그자신도 경



력이 오래다는 재세를 좀 부렸다고 승인하였다. 사람은 좀 허심하여야 한다. 허심해서 동지들의 방조를 접수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그가 자기의 착오를 능히 시정하리라고 믿는다.

이전에 등자회동지에게는 상인에 의거한다(즉 자산계급에게 의거한다.)든가 《4대자유》라든가 하는 강령적인 제기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릇된것이다. 그것은 확실히 자산계급성질의 강령이고 자본주의성질의 강령이며 무산계급성질의 강령이 아니다. 그것은 자산계급을 제한할데 관한 7기2중전회의 결정에 배치되는것이다. 지금 우리는 성시의 자산계급과 농촌의 자산계급(부농)에 대하여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따라서 노동력고용, 무역, 대차, 소작을 제한하지 않는 그런 《4대자유》는 문제가 있는것이다. 나는 《4소자유》는 있다고 본다. 여기에는 크고작은 구별이 있다. 제한하는만큼 자산계급의 이런 자유는 아주 작은것이다. 우리는 조건을 마련하여 자산계급의 이 소자유를 없애 버리려 한다. 성시자산계급에 대하여 우리는 리용, 제한, 개조한다. 리용은 하여야 하지만 국제민생에 불리한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제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좌》적인것도 아니고 우적인것도 아니다. 전혀 제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 우적이다. 아주 제한해버려 그들로 하여금 전혀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너무 《좌》적이다. 레닌은, 한 정당이 만일 천백만 소생산자가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자본주의를 한꺼번에 몽땅 없애치우려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

은짓일뿐만 아니라 자살이라고 하였다(3). 그러나 등자 회동지의 제기법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중앙의 제기법과는 달리, 2중전회의 제기법과는 달리 제한에 관하여서는 제기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동지들은 당의 결의와 장기간에 걸쳐 당이 제창해온 정책에 대하여 본적도 들은적도 없는듯이 전혀 도외시하나 다름없는데 무슨 영문인지 모를 일이다. 폐건대 호조합작운동은 오래전부터 중앙혁명근거지에서나 연안에서나 그 어느 근거지에서나 다 진행해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지도 듣지도 못한체한다. 1951년 겨울에 중앙에서는 농업생산호조합작에 관한 결의를 지었는데 이것도 역시 못본체한다. 그러면서 1953년까지도 쓸데없는 허튼소리만 하고 작은 혜택만 베풀기를 좋아하였다. 쓸데없는 허튼소리만 한다는것은 사회주의를 말하지 않는다는것이며 작은 혜택만 베풀기를 좋아한다는것은 《4대자유》란 작은 혜택만 베풀기를 좋아한다는것이다. 다시말하면 어떤 동지들은 당의 결의 또는 장기간에 걸쳐 제창해온 일부 정책들과 강령들에 대하여서는 전혀 도외시하면서 자기대로 해나간다. 그들은 대체 이와 같은 성질의 문제를 이전에 어떤 사람이 말한적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말하였는가 하는것을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어떤 력사학자들은 귀갑이나 금석문이나 땅속에서 파낸 기타 고물에 대하여서까지도 연구하는데 이런 동지들은 우리의 그리 오래되지 않은것에 대하여서도 전혀 도외시하며 찾아보기도 싫어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일이야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4대자유》요 뭐요 하는따위들이나 쓰고 말하다가 나중에는 그만 코방아를 찧고 만다.

어떤 동지들은 또 언제나 분산주의를 좋아하며 독립성을 부리며 심지어 독립왕국을 꾸리면서 독재에 아주 흥미를 가진다. 본래는 편해보려고 왕국을 꾸려가지고 왕으로 자처하였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에는 비평을 받게 되었으니 아주 편하지 못하게 되었다. 《대등전》이란 극이 있지 않는가? 거기에 나오는 설평귀는 아주 편하게 왕질을 하였는데 그때 그는 자아비평이라는것이 없었다. 이 점은 좋지 않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어쨌든 남과 상의하기를 싫어한다. 적지 않은 동지들은 말로는 집체령도를 찬성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개인독재를 아주 좋아한다. 마치 독재를 하지 않으면 령도자답지 않은것처럼 여긴다. 령도자라고 해서 독재를 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라는것을 알고있는가! 자산계급에게는 자산계급민주가 있으며 그들은 계급의 독재를 중시한다. 무산계급, 공산당도 역시 계급의 독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개인독재를 실시한다면 그것은 좋지 않다. 일이 있으면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고 한 집체내에서 통과하여 다수인의 지혜를 집중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비교적 좋다.

또 한가지 말하여야 할것이 있다. 많은 동지들은 언제나 사무속에 파묻혀가지고 문제를 연구하지 않는다.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사무는 꼭 처리하여야 한다. 사무를 처리하지 않아서

는 안되지만 사무만 처리하고 문제를 연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험하다. 간부들과 접촉하지 않고 군중들과 접촉하지 않으며 혹시 그들과 접촉할 때에는 《동무 보기에는 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의견을 말해주십시오》 하고 그들과 상의하며 의견을 교환하는것이 아니라 언제나 훈계만 한다면 후각이 무디어지고 정치감기에 걸려서 정치적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다. 코가 막혀서 어떠한 때에 어떠한 냄새가 나는지 맡지 못한다. 오늘 진의동지는 사물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즉시 그것을 틀어잡을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사물이 이미 대량적으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데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감각이 너무나 무딘것이다. 이러한 정황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전적으로 사무만 처리하고 문제를 연구하지 않으며 군중 및 간부들과 잘 접촉하지 않고 그들과 상의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것은 대단히 좋지 못한것이다.

## 5. 기타 약간의 문제

아래에서 말하려는 몇가지 문제들은 대부분이 동무들이 제기한것이다.

첫째, 합작사에 있어서의 부유중농의 령도지위를 변경시키는데 있어서는 절차와 방법에 주의를 돌려야 하며 그들을 한꺼번에 다 철환해버리지는 말아야 한다. 부유중농이 령도자로 되는것이 부당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로동자이다. 마땅히 정황을 분별하여야 한

다. 즉 그들의 공작표현여하를 보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령도지위에 그냥 남아있는것이 확실히 타당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바꾸어버려야 할것이다. 그러되 그가 확실히 계속 령도자로 남아있을 사람이 못된다는것을 군중들(폐를 들면 합작사사원들)이나 그 부유중농자신이 다 알도록 하여야 한다.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즉 그를 대신할만한 비교적 훌륭한 사람이 마련되고 비교적 훌륭한 사람이 배양된 다음에야 그 직무를 변경시킬수 있다는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아비평을 거쳐 착오를 시정하게 한 다음 원래의 직무를 계속 맡길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직이나 위원으로 바꾸어놓을수 있다. 본래 공작을 훌륭히 하여온 사람이라면 부유중농이라 하더라도 물론 철환하는 범위에 들지 않는다. 부유중농을 부농처럼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부유중농은 부농이 아니다. 그들을 단번에 몽땅 철환하지 말아야 한다. 이 문제를 신중히 대하여야 하며 잘 해결하여야 한다. 우에서 말한 몇가지 방법들이 타당하겠는지 각 성, 각지에서 연구해보는것이 좋겠다.

둘째, 이번에 우리가 하중농과 상중농을 두개의 부동한 계층이라고 하는것은 계급을 다시 획분하는것이 아니라 사실상 합작사에 대한 각 계층의 태도에 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 하는 구별이 있으며 한 계층 내부의 개인들사이에도 이러한 구별이 있기때문이라는것을 지부와 군중속에서 해석해주어야 한다. 폐를 들면 빈농가운데도 당분간 합작사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점을 가지고 그 부유중농들을 설복시킬수 있

는 것이다. 즉 보라, 빈농, 하중농 가운데서도 비교적 소극적인 사람이 있고 그들이 합작사에 들어오기 싫어하는 경우에는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데 당신네 부유중농도 지금 들어오기 싫으면 들어오지 않아도 좋다는 말로 설득시킬수 있다. 우리는 먼저 열성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제2부분의 사람들에게 선전하여 열성이 있게 되면 받아들이며 그리고나서 또 제3부분 사람들에게 선전한다. 기와 차떼를 나누어 받아들여야 한다.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합작사에 들게 된다. 그러므로 결코 계급을 다시 획분하는 것이 아니다.

셋째, 지주와 부농을 합작사에 가입시키는 문제에 관하여.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할수 있지 않겠는가고 생각한다. 현과 향을 단위로 하여(현만을 단위로 하여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어떤 현이 기본상 합작화되었다 하여도 그 현에 아직 합작사가 없는 향이 여러 있을수 있기때문이다.) 현이나 향이 기본상 합작화되었다면, 즉 70% 내지 80%의 농호가 합작사에 가입하였다면 그곳의 이미 공교화된 합작사에서는 지주, 부농의 표현여하에 따라 차떼와 기를 나누어 처리할수 있다. 이전부터 그냥 표현이 좋았고 성실하고 국법을 지키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사원칭호를 줄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합작사의 로동에 참가시킬수 있고 보수도 주되 사원이라고는 부르지 않는다. 실지는 후보사원인셈이다. 만일 그들이 잘하는 경우에는 사원으로 고쳐줄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들에게 노력목표가 있게 된다. 제3부

분의 사람들은 당분간 합작사에 가입시키지 않고 앞으로 형편을 보아 분별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이러한 지주, 부농들이 합작사에 가입한후 그들에게 합작사의 직무를 맡기지 말아야 한다. 지주, 부농 가정출신의 청년 지식분자로서 고찰을 거친 일부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농촌에서 문화교원 같은 공작을 줌 시키는것이 어떻겠는지? 어떤 지방에서는 다른 지식분자가 매우 적으므로 당지부, 합작사관리위원회의 령도와 감독하에 그들에게 문화교원공작을 맡길 필요가 있다. 지금 소학교교원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 그들은 겨우 십칠팔세밖에 안되고 고급소학교나 초중을 졸업한 청년인데 지주, 부농 가정출신이라고 하여 문화교원마저도 담임하지 못하게 한다는것은 내가 보기에는 불필요할것 같다. 우리는 그들을 리용하여 농민들에게 글을 가르쳐주며 문맹을 퇴치할수 있다. 이렇게 하는것이 좋지 않겠는지 동무들이 연구해보기 바란다. 그러나 회계 같은 일을 맡기는것은 좀 위험하다.

넷째, 고급사의 조건에 대하여서와 고급사를 얼마나 꾸려야 하는가에 대하여서는 오늘 나는 말하지 않겠다. 조건문제는 역시 동무들이 연구하기를 바라며 명년에 가서 보기로 한다. 각 지방에서는 정황에 따라 실지로 꾸려보는것이 좋겠다. 총적으로 말하면 조건이 성숙된 곳에서는 꾸려도 되고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곳에서는 꾸리지 말아야 하며 처음에는 적게 꾸리고 앞으로 점차 증가시켜야 한다.

다섯째, 합작사를 조직하는 시간은 꼭 매년 겨울과 봄에만 집중하지 말고 여름과 가을에도 합작사를 더러 조직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어떻겠는가, 지금 일부 지방에서는 실제상 그렇게 하고있다. 그러나 싸움을 할 때 두 전역사이에 휴식정돈이 필요한것과 마찬가지로 두 고조사이에 반드시 휴식정돈할 시간을 가져야 하며 합작사를 한차례 발전시킨후에는 반드시 정돈하고나서 다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은 지적해두어야 하겠다. 휴식정돈을 허용하지 않으며 간헐을 허용하지 않으며 숨돌릴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것은 전적으로 잘못이다. 일찍 군대내에는 휴식정돈을 하지 말며 숨도 돌리지 말고 오로지 진격만 하며 그냥 싸우기만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사람은 잠을 자야 한다. 오늘 우리의 회의도 만일 산회하지 않고 그냥 계속한다면 나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할것이다. 사람은 작은 중간휴식정돈은 그만두고라도 매일 한차례씩 대휴식정돈을 하여 7~8시간, 적어도 5~6시간은 자야 한다. 합작사를 조직하는 이런 큰일에서 휴식정돈이 필요없다는것은 아주 유치한 론조이다.

여섯째, 《근검하게 합작사를 운영하자》는 구호는 아주 훌륭하다. 이것은 아래에서 제기한것이다. 엄격히 절약하고 낭비를 반대하여야 한다. 지금 성시에서는 낭비를 대대적으로 반대하고있으며 농촌에서도 낭비를 반대하고있다. 근검하게 살림을 꾸리며 근검하게 합작사를 운영하며 근검하게 나라를 건설할것을 제창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는 부지런하고 검소할것을 요하며 게으르고 호화로운것은 요하지 않는다. 게으르면 쇠퇴해지므로 좋지 않다. 근검하게 합작사를 운영하자면 로동생산물을 높이며 엄격히 절약하며 원가를 낮추며 경제혁신을 실시하며 떠벌려랑비하는 현상을 반대하여야 한다. 로동생산물을 높이며 원가를 낮추는것은 그 어느 합작사에서나 다 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다. 경제혁신을 말하면 그것은 점차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합작사가 커짐에 따라 경제혁신이 없어서는 안될 것이므로 점차 배워서 경제혁신을 할줄 알게 되어야 한다.

일곱째, 이번에 국영농장문제를 말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것은 결함이다. 중앙 농촌공작부와 농업부에서 국영농장문제를 연구하기 바란다. 앞으로 국영농장의 비중이 해마다 커질것이다.

여덟째, 대한족주의를 계속 반대하여야 한다. 대한족주의는 일종의 자산계급사상이다. 한족은 그 수효가 많아서 소수민족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지 않고 그들을 깔보기 쉽다. 그러므로 대한족주의를 엄격히 반대하여야 한다. 물론 소수민족가운데 협애한 민족주의가 생길수도 있는데 그것도 반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두가지중에서 주요하고 선차적으로 반대하여야 할것은 대한족주의이다. 오직 한족동지들이 태도가 정확하며 소수민족을 확실히 공정하게 대하며 민족정책에 있어서, 민족관계를 대하는 립장에 있어서 완전히 맑스주의적이고 자산계급의 관점을 가지고있지 않다면, 즉 대한

족주의가 없다면 소수민족가운데 존재하는 협애한 민족주의관점은 비교적 쉽게 극복될수 있는것이다. 지금도 대한족주의가 정말 적지 않다. 예를 들면 도맡아처리하며 소수민족의 풍속습관을 존중하지 않으며 자기만 옳다고 하며 남을 깔보며 남을 이터저러하게 락후하다고 하는 등등이 그것이다. 금년 3월에 있는 전국당대표회의에서도 내가 말한바이지만 중국은 소수민족이 없어서는 안된다. 중국에는 수십개 민족이 있다. 소수민족이 살고있는 곳은 한족이 살고있는 곳보다 면적이 넓으며 각종 물질적부원이 매우 풍부하다. 우리의 국민경제는 소수민족의 경제가 없어서는 안된다.

아홉째, 문맹퇴치운동. 내가 보기에는 문맹퇴치를 하는것이 좋겠다. 어떤 지방에서는 문맹퇴치운동을 퇴치해버렸는데 이것은 좋지 않다. 합작화가운데서 문맹퇴치운동을 퇴치할것이 아니라 문맹을 퇴치하여야 하며 문맹퇴치를 퇴치할것이 아니라 문맹을 퇴치하여야 한다.

열째, 어떤 사람은 《좌》경이란 무엇이고 우경이란 무엇인가고 묻는다. 과거 우리는 사물은 공간과 시간속에서 운동한다고 말한바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시간을 놓고 말하는것인데 사물의 운동에 대한 사람들의 관찰이 실제정황에 부합되지 않을 때, 시간이 채 되기 전에 시간이 되었다고 본것을 가리켜 《좌》경이라 하고 시간에 뒤떨어진것을 가리켜 우경이라 한다. 합작화운동을 폐로 들면 본래는 군중의 적극성, 호조조의 보편적인 존재와 당의 령도력량, 이러한 성숙된 조건들이

있는데도 어떤 동지들은 아직 없다고 말하고있으며 합작화운동이란 이 사물이 지금 이 시기에(몇해전이 아니라 지금) 이미 대대적으로 발전할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불가능하다고 말하고있는데 이것을 가리켜 우경이라 한다. 만일 농민의 각오정도와 당의 령도력량, 이러한 조건들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짧은 시일내에 전국적으로 80%의 합작화를 하자고 한다면 그것을 《좌》경이라고 한다. 중국에는 《참외가 익으면 딱지가 떨어진다》, 《물이 흐르면 풀이 생긴다》는 속담이 있다. 우리는 구체적조건에 근거하여 일을 하여야 하며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배를 들어 아이를 낳자면 아홉달이 다 차야 낳는데 일곱달만에 의사가 늘러서 지체 낳게 한다면 그것은 좋지 않다. 그것을 《좌》경이라고 한다. 만일 아홉달이 다 차서 아이가 정말 태어나려고 하는데도 태어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을 가리켜 우경이라 한다. 한마디로 말하여 사물은 시간속에서 운동하고있는만큼 어떤 일을 할 때가 되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것을 가리켜 우경이라 하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하려 하는것을 가리켜 《좌》경이라 한다.

열한째, 어떤 사람은 《좌》경적착오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고 묻는다. 우리는 가능성이 완전히 있다고 대답한다. 만일 향지부, 구위, 현위, 지위, 성위를 물론하고 어느 지방의 령도층에서 군중의 각오정도와 호조조의 발전정황에 주의하지 않고 또 계획도,

통제도 없고 기와 차례도 나누지 않고 전적으로 수량만 추구하면서 절은 넘두에 두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엄중한 《좌》경적착오가 생길것이다. 군중의 열조가 일어나서 모두들 합작사에 가입할것을 요구할 때에는 여러가지 곤란과 있을수 있는 모든 불리한 정황을 예견하고 군중들에게 털어놓고 이야기해주어 군중들이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고 두려워하면 그만두어야 한다. 물론 사람들을 질겁하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 나는 오늘 동무들이 질겁하게 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여러날 회의를 하였기때문이다. 적당한 때에 가서 사람들의 두뇌를 한번 압축하여 지나치게 팽창되지 않도록 하는것은 필요한 일이다.

우리는 한없이 근심하는것을 반대하며 수없이 많은 금제와 계물을 만들어놓는것을 반대한다. 그렇다면 근심할 필요가 전혀 없겠는가? 금제나 계물이 하나도 필요없겠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필요한 근심, 해야 할 근심이라면 누가 하지 않겠는가? 필요한 금제와 계물도 있어야 한다. 금제나 계물이 조금도 없어서야 어찌되겠는가? 필요한 근심, 필요한 금제와 계물, 필요한 중지, 간헐, 제동, 금지는 완전히 옹당한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하나 있다. 즉 금방 교오하려 하며 금방 교리를 쳐들기 시작할 때에 인차 그에게 새로운 임무를 제출하여(이를테면 지금 우리는 절을 비길것을 제출하였다. 명년에 모여서는 절을 비기게 되는데 그 때에는 수량문제는 2차적인것으로 된다.) 미처 교오

할 시간이 없게 하는것이 그것이다. 이 방법은 우리가 이전에 시험하여보았던것이다. 군대에서 한차례 승전을 한후 어떤 동지들이 주위사람들과 한창 신이 나서 말하며 꼬리를 잔뜩 쳐들 때면 인차 그에게 다음 전투의 새로운 임무를 제출하였다. 새로운 임무가 제출되면 그는 곧 문제를 생각하게 되고 준비공작을 하게 되어 쳐들었던 꼬리를 사리고 미처 교오하지 못하게 되는것이였다.

열두째, 어떤 동지는 현급에 10%의 기동권을 허용할수 없는가고 제기하고있다. 례하면 합작사를 조직하는데 있어서 10%를 덜 할수도 있고 10%를 더 할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것이다. 이 전의는 채납할수 있는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좋겠다. 너무 기계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동무들이 더 고려해보기 바란다.

열셋째, 변안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는가? 변안하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들은 합작사는 성공할수 없으며 우리가 지금 하고있는것들은 장차 쪼다 뒤엎어야 할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우리를 맑스주의가 아니라 기회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대세가 이미 결정되였으므로 그것을 뒤엎을수는 없는것이다.

열넷째, 어떤 사람은 앞으로의 추세는 어떠할것인가고 묻는다. 앞으로의 추세는 대략 3차의 5개년계획기간에 사회주의적공업화와 농업, 수공업, 자본주의적공상업에 대한 사회주의적개조를 기본적으로 완수하게 될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추세는 바로 이러하다.

그런데 더 보충할것은 전번 당대표회의에서도 말한바이지만 대략 50년 내지 75년이란 시일내에, 즉 10차의 5개년계획 내지 15차의 5개년계획 기간내에 강대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해낼수 있다는것이다.

50년 내지 75년동안에 국제, 국내, 당내에는 틀림없이 많은 엄중하고 복잡한 충돌과 투쟁이 발생하게 될것이며 우리는 틀림없이 많은 곤난에 봉착하게 될것이다.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우리의 이 세대는 이미 무력적이거나 평화적인, 류혈적이거나 비류혈적인 많은 충돌을 겪어왔는데 금후에는 없으리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꼭 있을것이며 적은것이 아니라 많을것이다. 여기에는 세계대전이 일어나며 우리 머리우에 원자탄이 떨어지며 베리야가 나타나며 고강이 나타나며 장국도, 진독수가 나타나는 일들도 있을것이다. 많은 일들은 지금은 예측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우리 맑스주의자로서는 일체 곤난은 극복할수 있는것이며 강대한 사회주의중국이 틀림없이 출현하리라는것을 긍정할수 있다. 이것이 틀림없겠는가? 내가 보기에 는 틀림없다. 맑스주의에 의하면 이것은 틀림없는것이다. 자산계급은 이미 자기의 무덤을 팔 사람을 마련해놓았고 그 무덤까지 다 파놓았는데 그가 죽지 않을수 있겠는가? 추세에 대하여 말하면 대체적으로 말해서 바로 이러한 추세에 있다.

열다섯째, 동무들은 결의와 장정 이 두 문전에 대하여 많은 수정의견을 제기하였는데 대단히 좋다. 우리는 그것을 종합하여 연구해보려 한다. 결의는 오늘

통과된후에 며칠내로 정치국에서 수정하여 공포할수 있다. 장정은 좀더 시일이 걸리게 될것이다. 민주인사들과 상의하여야 하고 립법수속을 거쳐야 하는데 아마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하게 될것이다. 즉 먼저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토론한 다음 국무원에 넘겨 공포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각 지방에서 한시기 그대로 시험해보게 할것이며 그렇게 하다가 명년에 가서 다시 인민대표대회에 교부하여 통과시킬것이다.

끝으로, 이 기회에 나는 동무들에게 글을 쓰는데 주의를 돌려달라는 문제에 대하여 좀 말하려 한다. 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국문교원》으로 되기 바란다. 동무들의 글은 혹시 결함이 좀 있을수도 있겠지만 아주 훌륭하게 씌여지고있다. 동무들은 문풍을 고치도록 사람들을 잘 도와주어야 한다. 지금 적지 않은 동지들이 쓴 글은 빈말만 잔뜩 늘어놓은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것은 비교적 적고 주되는 결함은 고문이 많아서 반문언문반백화문맛이 많은것이다. 글을 쓸 때에는 논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즉 전문장, 전 문설의 구성에 주의를 돌려 서두, 중간, 결말이 일정한 관계를 가지며 일정한 내재적연관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고 서로 모순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문법에도 주의를 돌려야 한다. 허다한 동지들은 생략하지 말아야 할 주어, 보어를 생략하거나 또는 부사를 동사로 쓰며 지어는 동사를 생략해버리기까지 하는데 이렇게 하면 문법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수사에도, 어떻게 쓰면 좀더 생동하겠는가 하는데도 주

의를 돌려야 한다. 총적으로 말하면 논리에 맞아야 하며 문법에 맞아야 하며 수사가 잘 되어야 하니 동무들은 글을 쓸 때 이 세가지에 유의하기 바란다.

## 주 해

[1] 레닌의 《현물세에 관하여》를 참조하라.

[2] 여기에서는 모택동동지께서 농업합작화에 관한 각지의 보고를 보시고 《농업생산합작사를 어떻게 꾸려야 하는가》를 편집하신 일을 가리킨다. 이 책에 있는 《중국농촌에서의 사회주의고조》 서언을 참조하라.

[3] 레닌의 《현물세에 관하여》를 참조하라.



## 《중국농촌에서의 사회주의 고조》 서언

(1955년 9월, 12월)

### 서 언 1

(1955년 9월 25일)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어로 과도하는 시기에 있어서의 중국공산당의 총로선은 국가의 공업화를 기본적으로 완수하는 동시에 농업, 수공업, 자본주의적공상업에 대한 사회주의적개조를 기본적으로 완수하는것이다. 이 과도기는 3년간의 회복기에 3차의 5개년계획기간을 합하여 약 18년이 걸릴것이다. 우리 당내에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선 총로선의 제기법과 그 시간의 규정에 대하여 모두가 동의하는것 같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다른 견해들이 있다. 이러한 다른 견해들은 목전에 있어서는 주로 농업에 대한 사회주의적개조, 즉 농업합작화에 관한 문제에서 표현된다.

이 몇해동안 농업합작화문제에서 겨울에는 발전시킬것을 제창하는데 봄만 되면 너무 급격한 전진을 반대하여나서는 사람이 있는것이 법칙으로 되어있는듯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데는 원

인이 있는것이다. 그것은 이른바 너무 급격한 전진을 반대하는것을 수차 보았기때문이다. 례를 들면 1952년 겨울에 한차례 발전시키자 1953년 봄에는 너무 급격한 전진을 반대하는 일이 생겼고 1954년 겨울에 한차례 발전시키자 또 1955년 봄에 너무 급격한 전진을 반대하는 일이 생겼다. 이른바 너무 급격한 전진을 반대한다는것은 합작사를 더 조직하지 못하게 할뿐만아니라 이미 조직된 합작사도 대량으로 강제해산시키는 것이었는데(《찍어버린다》고도 한다.) 이것은 간부와 농민군중의 불만을 자아냈다. 화가 나서 밥을 먹지 않는 농민이 있는가 하면 자리에 드러누워서 일어나지 않는 농민도 있으며 열며칠동안이나 일하러 나가지 않는 농민도 있었다. 그들은 《합작사를 꾸리라고 한것도 당신들이고 해산하라고 하는것도 당신들이다》라고 말하고있다. 합작사를 해산하라고 하면 부유중농은 좋아하고 빈농은 근심에 싸인다. 호북성의 빈농들은 합작사를 더 발전시키지 않는다거나 해산시킨다는 소문을 듣고 《락심천만》이 되었으나 어떤 중농은 《한번 목란산에 참배를 한셈이다》(호북성 황파현에 목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는 농민들이 즐겨 참배하는 목란묘가 있다.)고 말하는것이였다.

어째서 보통사람들도 전혀 생기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보는 이런 동요가 일부 동지들에게서 생기게 되는가? 그것은 그들이 일부 중농의 영향을 받았기때문이다. 일부 중농, 특히 자본주의적경향이 엄중한 부유중농들은 합작화초기에는 사회주의적개조에 대하여 저축정서를

가진다. 여기에는 합작화운동에서의 중농에 대한 당의 정책과 공작방법 문제가 있다. 우리가 빈농에게만 유리하고 중농에게는 불리한 정책이 아니라 빈농계층과 중농계층에 다 유리한 정책을 실시하며 게다가 우리의 공작방법이 옳기만 하면 경제적지위가 비교적 낮고 정치각오가 비교적 높은 많은 중농, 주로 신중농가운데의 하중농과 구중농가운데의 하중농들은 합작사에 가입할것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정책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일부의 중농들은 《한두해를 자유롭게 보내는것도 좋겠다》고 하면서 의연히 당분간 합작사밖에 남아있으려 한다. 이런 정황은 완전히 리해할수 있는것이다. 왜냐하면 합작화는 농민의 생산자료사유제도와 경영방법 전반을 변경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에 대하여 말하면 근본적인 변화이므로 그들이 당분간은 결심을 쉽사리 내리지 못하고 신중하게 고려하려 할것은 물론이기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일부 동지들은 당의 정책과 공작방법에 착안하여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아니라 부유중농들의 떠드는 소리를 듣고 또 공작가운데 약간의 편차가 있는것을 보고는 그만 경황실색하여 《너무 급격히 나아가는것》을 버쩍 반대하여나서며 마치 이 악성종양을 시급히 잘라버리지 않으면 사람이 당장 죽게 되기라도 할듯이 걸핏하면 합작사를 《찍어버리》려고 대든다. 실제정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의 공작가운데 결합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 운동은 건전하다. 광범한 빈농과 하중농들은 합작사를 환영한다. 일부 중농들이 두고보려고 하면 우리는 두고보게

하여야 한다. 부유중농에 대하여는 자원하는 사람외에는 더구나 좀더 오래 두고보게 하여야 한다. 목전에 이 문제에서의 주요한 결함은 많은 지방에서 당의 령도가 이 운동을 따라가지 못하고있는 그것이다. 즉 그들은 전반 운동에 대한 령도를 틀어쥐지 못하고있으며 전 성, 전 현, 전 구, 전 향의 완전한 계획이 없이 좀스럽게 일하고있으며 그들에게는 주동적이며 적극적이며 기빠하며 환영하며 전력을 다하는 그런 정신이 없다. 이리하여 아주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운동이 광범하게 진행되는데 우에서는 거기에 주의를 잘 돌리지 않고있으니 탈이 생길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탈이 생긴것을 보고서는 령도를 강화하고 계획성을 강화하는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운동의 전진을 정지시키려고 시도하거나 또는 급급히 일부 합작사를 《찍어버리》고만다. 이렇게 하여서는 물론 옳지 않으며 불가피적으로 탈이 더 많이 생기게 될것이다.

우리는 《농업생산합작사를 어떻게 꾸려야 하는가》<sup>(1)</sup> 하는 책 한권을 편집하였다. 이 책에는 각 성, 시, 자치구의 실패 도합 120여편을 수록하였다. 이 자료는 절대대부분이 1955년 1월부터 8월까지의것이고 소부분은 1954년 하반기의것이다. 이 자료의 절대대부분은 각 성, 시, 자치구의 당내간행물에서 뽑은것이고 몇편은 신문에서 뽑은것이고 몇편은 하급당위 또는 하급에서 공작하는 동지들이 상급당위에 한 보고이며 한 편은 초청을 받고 북경에 와서 한 한 합작사사장의

담화기록이다. 이 자료들에 대하여 우리는 문자상에서 다소 수정하였을뿐이고 내용은 다치지 않았다. 부분적 자료에는 우리가 평어를 달았다. 일부 자료에 원 간행물의 편집자가 쓴 평어와 구별하기 위하여 우리가 쓴 평어는 《이 책 편집자》의 평어라고 밝혔다. 이 모든 자료의 필자들이 보여준 관점은 정확하거나 기본상 정확하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독자들은 이 자료들을 통하여 전국 합작화운동의 규모, 방향과 발전전망을 볼 수 있을것이다. 이 자료들은 운동이 진전하게 발전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으며 탈이 생긴 곳은 모두 당위가 잘 지도하지 못한 곳들이고 일단 당위가 중앙의 방침에 쫓아 시급히 나서서 적당히 지도하자 문제가 즉시 해결되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 자료들은 설복력이 강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이 운동에 대하여 소극적태도를 취하고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되게 할것이고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합작사를 어떻게 꾸려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합작사를 꾸리는 방법을 알게 할것이며 더우기는 걸핏하면 합작사를 《찍어버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말문이 막히게 할것이다.

수역의 농민가운데서 농업에 대한 사회주의적개조를 실시하는것은 대단한 사업이다. 전국을 놓고 말하면 아직 시일이 그리 길지 않으며 경험도 그리 많지 못하다. 특히는 우리가 아직 광범하고 힘있는 선전공작을 전당적으로 전개하지 않았기때문에 많은 동지들이 이 문제에 주의를 돌리지 못하고있고 이 운동의 방침, 정책 및 방법을 잘 모르고있으며 따라서 당내의 의사

가 아직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오래지 않아 열리는 우리 당의 6중전회에서는 이 문제를 토론하고 이 문제에 관한 새로운 결의를 짓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결의에 좇아 광범하고 힘있는 선전공작을 전개하여 전당의 의사를 통일시켜야 한다. 이 책의 출판은 아마 이번의 선전공작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서 언 2

(1955년 12월 27일)

이 책은 농촌에서 공작하는 동지들에게 보이기 위한 재료집이다. 원래는 9월에 이 책의 서언[2]을 써놓았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그 서언이 이미 때가 지난 것으로 되었으므로 다시 쓰지 않을 수 없다.

사정은 이러하다. 이 책은 두번 편집하였는데 한번은 9월에 편집하였고 한번은 12월에 편집하였다. 처음 편집할 때는 재료 121편을 수록하였다. 이 재료들에 반영된 정황은 대다수가 1955년 상반기년의 것이고 소수는 1954년 하반기년의 것이었다. 그때 이 재료들을 전본으로 찍어 1955년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중국공산당 제7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확대회의)에 참가한 각 성위, 시위, 자치구당위 및 지위의 책임동지들에게 발급하여 보고서 의견을 제기하도록 하였었다. 그들은 재료를 좀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회의가 끝난 후 대다수의 성, 시, 자치구들에서 보충 재료들을 보내어왔다. 이 재료들 가운데는 1955년 하

반년의 정황을 반영한것이 적지 않았다. 그리하여 다시 편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우리는 원래의 재료 121편 가운데서 30편을 빼고 91편을 남겨두었으며 새로 수집한 재료가운데서 85편을 골라넣어 도합 176편, 약 90만자로 지금의 이 책을 편집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재료들은 죄다 편집을 책임진 몇몇 동지가 문자상에서 약간의 수정을 하였으며 알기 어려운 명사들에는 주해를 달았고 또 문제의 성질에 따라 류별로 색인을 만들어넣었다. 이밖에 우리는 일부 그릇된 사상들을 비판하고 이러저러한것들을 건의하기 위하여 부분적 재료에다 평어를 달았다. 그리고 일부 재료에 원.간행물의 편집자가 쓴 평어와 구별하기 위하여 우리가 쓴 평어는 《이 책 편집자》의 평어라고 밝혔다. 이 평어들은 9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쓴것이기때문에 어조에도 약간의 차이가 생겼다.

문제는 단순히 재료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문제는 1955년 하반기에 중국의 정황이 근본적으로 변화된데 있다. 중국의 1억 1,000만 농호가운데서 오늘——1955년 12월하순——에 이르기까지 이미 60%이상의 농호, 즉 7,000여만호가 중공중앙의 호소를 받들고 반사회주의적인 농업생산합작사에 가입하였다. 1955년 7월 31일에 한 농업합작화문제에 관한 보고에서 나는 합작사에 가입한 농호수가 1,690만호라고 하였는데 몇달동안에 5천몇백만이나 되는 농호가 합작사에 가입하였다. 이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다. 이 사실은 1956년 한해동안이면 농업면에서의 반사회주의적합작화를 기본적으로

로 완수할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3년 내지 4년만 더 지나면, 즉 1959년 또는 1960년에 가면 반사회주의적합작사가 완전한 사회주의적합작사로 기본상 다 넘어갈수 있을것이다. 이 사실은 중국의 수공업과 자본주의적공공업에 대한 사회주의적개조도 좀 앞당겨 완수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여야 농업발전의 수요에 적용할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 사실은 중국의 공업화에 있어서나 과학, 문화, 교육, 위생 등 사업의 발전에 있어서나 그 규모와 속도를 완전히 원래 생각하였던 그대로 할수는 없고 적당히 확대하며 가속화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농업합작화의 이렇듯 빠른 진도는 건전한 상태에서 달성된것인가? 전적으로 그렇게 달성된것이다. 모든 지방의 당조직들이 다 이 운동을 전면적으로 영도하였다. 농민들은 그야말로 열정적이고도 아주 질서있게 이 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들의 생산적극성은 전례없이 높아졌다. 가장 평범한 군중들이 처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똑똑히 내다보게 되었다. 3차의 5개년계획이 완수되는 때이면, 즉 1967년에 가서는 량곡과 기타 많은 농작물의 산량이 인민공화국이 창건되기전의 최고년산량보다 100% 내지 200% 증가될것이다. 문맹은 보다 짧은 시일(폐컨대 7년 내지 8년)내에 퇴치될수 있다. 인민들에게 가장 심한 해를 끼치는 많은 질병, 폐컨대 지난날에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여기던 혈흡충병과 같은 병들도 지금은 대처할 방법이 있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군중들은 이미 자기들의 위대한 전도를 내



다보고있다.

지금 전당과 전국 인민 앞에 나선 문제는 농업에 대한 사회주의적개조의 속도면에서 우경보수사상을 비판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 자본주의적공상업에 대하여 업종별로 전면적공사합영을 실시하는 속도면에서의 문제도 아니다. 이 문제도 이미 해결되었다. 수공업에 대한 사회주의적개조의 속도문제는 1956년 상반기에 연구하여야 하겠지만 이 문제도 쉽게 해결될것이다. 지금의 문제는 이러한 면에 있는것이 아니라 다른 면에 있다. 여기에는 농업생산, 공업(국영, 공사합영과 합작사업을 포함하여)과 수공업 생산, 공업과 교통운수업의 기본건설 규모 및 속도, 상업과 기타 경제부문과의 배합, 과학, 문화, 교육, 위생 등 사업과 각종 경제사업과의 배합 등등이 포함되어있다. 이런 면들에는 모두 정황에 대한 평가가 부족한 결함이 존재하고있는바 이를 비판하고 극복함으로써 전반 정황의 발전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람의 사상은 반드시 변화된 정황에 적응되어야 한다. 물론 어떤 사람이든지 근거없이 허튼생각을 하거나 객관정황이 허락하는 조건을 초월하여 자기의 행동을 계획하여서는 안되며 전혀 할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는 의연히 우경보수사상이 여러 면에서 장난치고있어서 여러 면의 공작이 객관정황의 발전에 적응하지 못하고있는데 있다. 지금의 문제는 노력하면 할수 있는 일도 많은 사람들이 할수 없다고 생각하고있는데 있다. 그러므로 확실히 존

재하고있는 그런 우경보수사상을 부단히 비판하는것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이 책은 농촌에서 공작하는 동지들에게 보이기 위한것이다. 성시에 있는 사람들도 볼수 있는가? 볼수 있을뿐만아니라 보아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일이다. 사회주의사업에서의 새로운 일들이 성시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나타나고있는것과 마찬가지로 농촌에서도 날마다, 시간마다 나타나고있다. 농민들이 무엇을 하고있는가? 농민들이 하고있는 일이 공인계급, 지식분자와 모든 애국인사들이 하고있는 일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있는가? 이런것을 알기 위하여 농촌방면의 재료를 보는것은 유익한 일이다.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의 농촌형편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176편의 재료가운데서 44편을 골라 약 27만자에 달하는 발취본을 넘으로써 이 책 전부를 열독할수 없는 사람들도 이 문제에 접촉할수 있도록 하려 한다.

## 주 해

[1] 이 책 이름은 공개적으로 출판할 때 《중국농촌에서의 사회주의 교조》라고 고쳤다.

[2] 즉 《서언 1》이다.

## 《중국농촌에서의 사회주의 고조》의 평어\*

(1955년 9월, 12월)

### 1

이것은 이 책의 첫편으로 독자들에게 추천할만한 훌륭한 글이다. 이 글의 서두에 묘사된바와 같이 자신이 모르니 남이 물을가봐 겁이 나서 《사를 에돌아가는》 사람이 지금도 각지에 적지 않게 있다. 이른바 《전결히 수축한다》는것, 즉 명령을 내려 합작사를 대량적으로 해산시키는 행위도 《사를 에돌아가는》 일종

모택동동지께서는 《중국농촌에서의 사회주의고조》라는 책을 편집하실 때 104편의 평어를 쓰시었다. 여기서는 43편을 골라서 수록하였다. 1958년 3월에 성도에서 열린 중공중앙 정치국확대회의에서 부분적평어들을 다시 짚었다. 이것을 위하여 모택동동지께서는 1958년 3월 19일에 설명을 쓰시었는데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 글들은 <중국농촌에서의 사회주의고조>의 평어로서 1955년 9월과 12월에 쓴것인데 그가운데의 일부는 오늘날까지도 그 의의를 잃지 않고있다. 그가운데 1955년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판가리싸움에서 기본적인승리를 거둔 한해라고 한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타당하지 못하다. 1955년은 생산관계의 소유제면에서 기본적인승리를 거둔 한해이고 생산관계의 다른 면과 상

의 표현이다. 하지만 그들은 소극적태도를 취하여 피하는것이 아니라 아예 많은 합작사들을 한칼에 《찍어버리는》(이것은 그들의 말이다.)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들은 손에 칼을 들고있는만큼 아예 찍어버리기만 하면 시끄러운 문제들을 피할수 있다. 그들은 합작사를 꾸리는데는 어떠한 어떠한 곤란들이 있다고 말하고있는데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수 없는 곤란들이 있다고 한다. 전국에는 이 론법을 반박하는 사실들이 헤아릴수없이 많다. 하북성 준화현의 경험은 이런 실패 가운데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1952년까지만 하여도 이고장에는 합작사를 어떻게 꾸리는것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의 방법은 학습하는것이였으며 그들의 구호는 《서기가 앞장서고 전당이 합작사를 꾸리자》는 것이였다. 그 결과 《모르던데로부터 아는데로》, 《소수 사람이 알던데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는데로》, 《구간부가 사를 꾸리던데로부터 군중이 사를 꾸리는데로》 이르

충진족의 어떤 면들, 즉 사상전선면과 정치전선면에서는 아직 기본적인승리를 거두지 못하였거나 아직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일후에 더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했어야 할것이다. 우리는 1956년에 국제방면에서 그처럼 큰 풍파가 일어나리라고는 예견하지 못하였으며 또 1956년에 국내방면에서 군중의 적극성을 타격하는 <너무 급격히 나아가는것을 반대하는> 사건이 일어나리라고도 예견하지 못하였었다. 이 두 사건은 우파들이 창궐한 진공을 하도록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이로부터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은 순풍에 돛단것처럼 순조롭게 되지는 않으며 국제국내적으로 일어날수 있는 많은 큰 곤란들에 대처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국제방면을 놓고보거나 국내방면을 놓고보거나 총적형세가 유리하다는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틀림없이 큰 곤란들이 많이 생길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에 대처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렸다. 하북성 준화현 제10구는 11개 향에 4,343호인데 1952년부터 1954년까지의 3년 동안에 반사회주의성질의 계단에서의 합작화를 기본상 완수하였고 입사한 농호가 전 구 농호의 85%에 달하였다. 이 구의 농업, 립업, 목축업 등 생산은 1954년도의 생산량을 1952년도와 대비하면 량곡이 76% 증가되고 립목이 56.4% 증가되고 파수가 62.87% 증가되고 양이 463.1% 증가되었다.

우리는 지금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리유가 있게 되었다. 즉 무엇때문에 이 지방에서는 이렇게 할수 있는데 다른 지방에서는 이렇게 할수 없는가? 만일 할수 없다면 그 리유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보건대 그 리유라면 시끄러워하는것, 솔직하게 말하면 우경기회주의라는 이 한가지밖에 없다. 바로 이 리유때문에 《사를 에들아가게》 된것이며 서기가 앞장서지 않고 전당이 사를 꾸리지 않게 된것이며 모르는데로부터 모르는데로, 소수 사람으로부터 소수 사람으로, 구간부로부터 구간부으로 이르게 된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손에 칼을 들고 성가신 합작사를 보기만 하면 찍어버리게 된것이다. 이와 같은 리유가 존재하기만 한다면 아무런 일도 성사할수 없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령도하며 온건하게 전진하자》, 《전면적 계획을 세우고 령도를 강화하자》는 구호들을 제기하였으며 또 준화현동지들이 제기한 《서기가 앞장서고 전당이 합작사를 꾸리자》는 이 완전히 정확한 구호를 찬성한다. 그래 준화현에서는 《적극적으로 령도하

며 온건하게 전진》하지 않았던가? 《전면적규획을 세우고 정도를 강화》하지 않았던가? 물론 그렇게 하였다. 이것은 위험한것인가? 《너무 급격히 나아가는것》인가? 위험은 《사를 에돌아가는》데 있다. 준화현의 동지들은 이 점을 이미 극복하였다. 위험은 또 《너무 급격히 나아간다》는 구실밑에 합작사를 대량적으로 《찍어버리는》데 있다. 준화현에는 이러한 일이 없다. 이른바 《합작사의 발전속도가 군중의 각성정도와 간부의 정도능력의 수준을 초월하였다》는 이 말을 준화현의 정황에 비추어서는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 그 고장 군중들은 합작화를 요구하였으며 그 고장 간부들은 모르던데로부터 알게 되었다. 누구나 다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 준화현에서 그 어떤 위험성을 찾아볼수 있는가? 3년동안에 한걸음한걸음 합작화를 실현한 결과 량곡이 76% 증가되고 립목이 56.4% 증가되고 과수가 62.87% 증가되고 양이 463.1% 증가된 이것이 그래 위험한것이란 말인가? 이것이 그래 《너무 급격히 나아간것》이란 말인가? 이것이 그래 《군중의 각성정도와 간부의 정도능력의 수준을 초월한것》이란 말인가?

준화현의 합작화운동에서 왕국번합작사라는 합작사가 하나 나타났는데 빈농 23호에 당나귀다리 셋밖에 없어서 《가난뱅이사》라고 불리웠다. 그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3년동안에 많은 생산자료를 《산에서 얻어왔는》데 그것을 참관한 일부 사람들이 감동되어 눈물까지 흘리었다. 나는 이것이 바로 우리 나라 전체의 형상이

라고 생각한다. 6억의 가난뱅이들이 몇십년동안에 자기의 노력으로 부유하고 강대한 사회주의국가를 이룩할수 없단 말인가? 사회적재부는 공인, 농민 및 노동 지식분자들에 의하여 창조되는것이다. 오직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운명을 장악하고 또 맑스-레닌주의적로선을 가지고있으며 문제를 회피하는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로 해결한다면 천하없는 곤난이라도 결국 해결할수 있을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글의 필자에게 감사틀 드려야 하겠다. 그는 만강의 열정과 생동한 필치로 한개 구의 합작화과정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이는 전국의 합작화사업에 대하여 적지 않은 기여로 될것이다. 우리는 성마다, 지구마다, 현마다 다 이와 같은 글을 한편 내지 몇편씩 써내기 바란다.

(《서기가 앞장서고 전당이 합작사를 꾸렸다》에 대한 평어)

## 2

중국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놓고 말하면 1955년은 미신을 타파한 한해라 할수 있다. 1955년 상반기까지만 하여도 이러저러한 일들에서 그렇게도 자기의 신념을 고집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반기에 들어서자 더는 고집하지 못하고 부득불 새로운 사물을 믿어야 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군중들속에서 제기된 《3년에 합작화하

자》는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느니, 합작화를 북방에서는 좀 빨리 할수 있어도 남방에서는 빨리 할수 없다느니, 락후한 향에서는 합작사를 꾸릴수 없다느니, 산간지구에서는 합작사를 꾸릴수 없다느니, 소수민족 지구와 민족잡거지구에서는 합작사를 꾸릴수 없다느니, 재해지구에서는 합작사를 꾸릴수 없다느니, 합작사를 세우기는 쉬워도 공고히 하기는 어렵다느니, 농민들이 너무 가난하여 자금을 모을수 없다느니, 농민들이 무식하기때문에 회계를 구할수 없다느니, 합작사를 많이 꾸릴수록 탈도 더 많이 난다느니, 합작사의 발전속도가 군중의 각성정도와 간부의 경험수준을 초월하였다느니, 당의 량곡통구통소정책과 합작화정책으로 인하여 농민의 생산적극성이 저락되었다느니, 합작화문제에서 공산당이 당장 말에서 내리지 않으면 공농련맹을 파괴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느니, 합작화하면 많은 잉여로동력이 생겨 출로를 찾지 못할것이라느니 하는것들이 그들의 생각이였다. 이러루한것들은 이밖에도 얼마든지 더 들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이런것들은 모두가 미신이였다. 이런 미신들이 1955년 10월 중국공산당 제7기중앙위원회 제6차전체회의(확대회의)의 비판을 거쳐 전부 타파되었다. 지금은 전국 농촌에서 사회주의적개조의 고조가 나타나 군중들이 기쁨에 들끓고있다. 이 일은 모든 공산당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심각한 교훈을 주었다. 군중들속에 이와 같이 큰 사회주의적적극성이 잠재하여있는데 어째서 많은 령도기관에서는 몇달전까지만 하여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거나 그렇게도 적게 느끼었는가? 령도자들의 생각이 어째서 광범한 군중들의 생각과 그렇게도 맞지 않는가? 이것을 교훈으로 삼는다면 앞으로 정황이 이와 비슷한 일과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여야 좋겠는가? 대답은 단 한마디이다. 즉 군중을 탈리하지 말며 본질적면으로부터 군중의 적극성을 발견할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락후한 향, 촌이라 하여 모든것이 다 락후한것은 아니다》에 대한 평어)

### 3

개개의 지방을 놓고 말하면 3년동안에 초급형태의 합작화를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3년동안에 합작화하자는 구호는 군중이 제기한것인데 기회주의자들의 비평을 받았다.)과 늦게 해방된 지구에서도 로해방구와 동시에 합작화할수 있다는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강조성 곤산현의 이 향을 보라! 이 향은 3년동안에 합작화한것이 아니라 2년동안에 합작화하였다. 이 향은 로해방구가 아니라 틀림없는 늦게 해방된 지구이다. 그런데 늦게 해방된 이 지구가 많은 로해방구를 앞서나가고있다. 무슨 방법이 있는가? 그래 그것을 도로 끌어와야 한단 말인가? 물론 그렇게 할수 없다. 기회주의자들은 잘못을 승인하는수밖에 없다. 군중속에는 극히 큰 사회주의적적극성이 잠재하여

있다. 혁명시기에도 어느때처럼밖에 걸을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적극성을 전혀 보지 못한다. 그들은 소경이어서 그들앞에 나타나는것은 암흑뿐이다. 그들은 어떤 때에는 시비를 전도하며 흑백을 혼동하는 정도에 까지 이른다. 그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적게 보았다 말인가? 그냥 어느때처럼밖에 걸을줄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인민의 적극성을 파소평가한다. 어떤 새 사물이 나타나면 그들은 언제나 찬성하지 않고 우선 한바탕 반대한다. 그리고나서는 자기가 잘못되었다는것을 승인하고 자아비평도 좀 한다. 다음에 또 다른 새 사물이 나타나면 그들은 이 두가지 태도를 다시 되풀이한다. 이후에 여러가지 새 사물이 나타날적마다 그들은 언제나 이러한 식으로 대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늘 피동적이다. 그들은 긴요한 교비에 이르면 언제나 그 자리에 서있다가는 다른 사람이 등을 짝 밀어야 앞으로 한걸음 내디딘다. 어느때에 가서야 이런 사람들이 절로 걸으며 또한 제법 견게 되겠는가? 이러한 결점을 고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시간을 좀 내가지고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이 무엇을 생각하고있고 무엇을 하고있는가를 보며 그가운데서 선진경험을 찾아내여 보급시키는것이다. 이것은 우경완고증을 치료하는 효과적인 처방이니 한번 써볼것을 권하는바이다.

(《이 향에서는 2년동안에 합작화하였다》에 대한 평어)

## 4

이것은 훌륭한 글이다. 이 글을 보면 위글족농민들이 합작화의 길을 걸으려는 적극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반사회주의적합작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간부도 이미 배양하여냈다. 어떤 사람은 소수민족가운데서는 합작화를 실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몽고족, 회족, 위글족, 묘족, 좡족 및 기타 일부 민족들이 합작사를, 또는 몇 개 민족 인민의 편합합작사를 적지 않게 꾸렸을뿐 아니라 아주 훌륭한 성적을 거둔것을 이미 목격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소수민족에 대하여 경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의 그릇된 관점을 반박하고 있다.

(《향과 촌의 간부들은 합작사전립공작을 영도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에 대한 평어)

## 5

이것은 매우 훌륭한 글이다. 많은 사람들을 설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방의 당조직은 합작화문제에서 종래로 동요한적이 없었다. 이 지방의 당조직은 합작사를 조직할 때 대한 빈고농민들의 요구를 견결히 지지하여 빈고농민들을 부유중농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게 하였으며 작은 사를 큰 사로 발전시키고 해마다 증산하게 하

였으며 3년도 안되는 동안에 전 촌적으로 합작화를 실현하였다. 부유중농들은 《가난뱅이들이 합작사를 꾸리겠다구, 여태까지 닭털이 하늘로 올라가는걸 보지 못했어》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닭털은 의젓이 하늘로 올라갔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두 길간의 투쟁이다. 중국에 있어서 부농경제는 아주 약하지만(토지개혁시기에 그들에게서 반봉건적인 부분의 토지를 징수하였으며 구부농의 대다수는 이미 머슴이 없게 되었으며 사회적으로 그들에 대한 평판도 아주 나쁘다.) 부유한 중농과 비교적 부유한 중농의 력량은 상당히 강하다. 그들은 농촌인구의 20% 내지 3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농촌에 있어서 두 길간의 투쟁의 그 중요한 방면의 하나는 빈농, 하중농과 부유중농과의 평화적경쟁을 통하여 표현되고있다. 2~3년내에 누가 증산하는가? 개체로 영농하는 부유중농이 증산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빈농과 하중농으로 조직된 합작사가 증산하는가? 초기에는 다만 일부분의 빈농과 하중농으로 조직된 합작사가 개체로 영농하는 부유중농과 경쟁하고 대다수의 빈농과 하중농은 아직 보고만 있는다. 이것은 쌍방이 균형을 쟁탈하고있는것이다. 부유중농의 뒤에는 지주와 부농이 서있다. 그들은 어떤 때에는 공개적으로, 어떤 때에는 비밀리에 부유중농을 지지한다. 합작사측에는 공산당이 서있다. 그들은 마땅히 안양현 남최장의 공산당인들처럼 합작사를 견결히 지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매개 향촌의 당지부가 다 이렇게 하고있는것은 아니다. 이런 정형하에서

혼란이 조성된것이다. 우선 닭털이 하늘로 올라갈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여론문제가 그것이다. 이것은 물론 중대한 문제이다. 수천년래 누가 닭털이 하늘로 올라가는것을 보았던가? 이것은 마치 진리 같기도 하다. 만일 당이 이에 대하여 비평을 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많은 빈농과 하중농들을 미혹시킬것이다. 다음은 간부면에서, 또 그다음은 물질력량면에서, 례컨대 대부금면에서 모두 당과 국가로부터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합작사는 커다란 곤난에 봉착할것이다. 닭털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이따위 예로부터 전하여지는 진리를 부유중농들이 감히 선전하는 그 까닭은 바로 합작사가 아직 증산하지 못하였고 가난한 합작사가 아직 부유한 합작사로 전변하지 못하였으며 개별적이고 고립적인 합작사가 아직 수천수만의 합작사로 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그리고 당이 아직 전국적범위에서 합작화의 우월성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지 못하였고 《닭털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이 고대의 진리가 사회주의시대에는 이미 진리가 아니라는것을 아직 명확하게 지적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번신하게 되었다. 낡은 제도는 멸망하고 새 제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닭털은 확실히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 쓰련에서는 이미 하늘로 올라갔다. 중국에서는 바로 하늘로 올라가고있다. 전 세계에서 모두 하늘로 올라가게 될것이다. 우리의 많은 지방당조직들이 빈고농민들을 견결히 지지하지 못하였는데 이 역시 그들만 나무랄수 없는것이다. 상급에서 아직 기회주의사상에

치명적타격을 가하지 못하였고 합작화에 대한 전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였으며 또한 전국적범위에서 이 운동에 대한 정도를 강화하지 못하였다. 1955년에 우리가 이러한 공작들을 하자 몇달동안에 형세는 완전히 달라졌다. 한쪽에 서서 보고있던 광범한 군중이 뒤에 뒤를 이어 합작화편으로 넘어서고있다. 부유중농도 말투가 달라졌다. 더러는 합작사에 가입할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더러는 합작사에 들어갈 차비를 하고있다. 가장 완고한자들도 닭털이 하늘로 올라갈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감히 론의하지 못하게 되었다. 지주와 부농들은 기가 죽어들었다. 이것은 인민정부가 치안을 파괴하며 합작화를 파괴하는 반혁명분자들을 징벌한것과도 관계된다. 한마디로 말하여 1955년 하반기에 우리나라의 계급력량대비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즉 사회주의는 대대적으로 상승하였고 자본주의는 대대적으로 하강되었다. 이제 1956년 한해동안 더 노력하면 과도기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적개조의 기초가 기본적으로 닦아질것이다.

(《누가 닭털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다더냐》에 대한 쟁어)

## 6

보편적이거나 다름없이 많은 지방에 존재하고있는, 합작화의 길을 걸으려는 광범한 빈농군중과 하중농군중들을 저애하고있는, 당내의 우경기회주의분자들은

사회의 자본주의세력과 서로 호응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런 정형에 대하여 적절하게 묘사하였다고 할수 있다. 필자는 극도로 격분하여 기회주의자들을 질책하였으며 빈고농민들을 지지하였다. 일부 사람들은 비록 공산주의자라는 칭호를 가지고는 있으나 지금 하여야 할 사회주의사업에 대하여서는 별반 흥취를 가지지 않고 있다. 그들은 열의로 들끓는 군중을 지지할 대신 도리어 그들에게 랭수를 끼엿는다. 중국에 있어서 1955년은 바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에 승부를 겨루는 한해였다. 이 판가리싸움은 우선 중국공산당 중앙에서 5월, 7월, 10월에 소집한 세차례의 회의에서 표현되었다. 1955년 상반기에는 공기가 그렇게도 혼탁하고 날씨가 그렇게도 음산하던것이 1955년 하반기에 와서는 판판 달라져 다른 기후가 이루어졌다. 즉 수천만호의 농민군중이 일떠나 당중앙의 호소를 받들고 합작화를 실시하게 되었다. 편집자가 이 몇줄의 글을 쓸 때에는 벌써 전국적으로 6,000만이상의 농호가 합작사에 가입하였다. 이는 대해의 노한 파도이다. 온갖 마귀들은 이 파도에 몽땅 밀려갔다. 사회의 각종 인물들은 그 정체가 아주 똑똑히 드러났다. 당내도 역시 이리하다. 이 한해가 지나면 사회주의의 승리는 충분한 파악이 있게 될것이다. 물론 앞으로 많은 전투가 있을것이며 계속 힘써 싸워야 할것이다.

(《기회주의의 사악한 기운은 사라지고 사회주의의 정당한 기운이 일어서게 되었다》에 대한 평어)

## 7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글이다. 조류를 막으려는 기회주의자들은 거의 어디에나 다 있지만 조류는 도저히 막아낼수 없는것이다. 사회주의는 모든 장애물을 박차고 도처에서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다. 사회는 이와 같이 매일 전진하고있고 사람들의 사상도 개조되고있다. 혁명의 양양기에는 더구나 이려하다.

(《합작화운동에서 공인가족의 적극성이 비  
상히 높다》에 대한 평어)

## 8

이 글은 감동적으로 서술되어있다. 독자들이 한번 잘 읽어보기 바란다. 특히는 광범한 농민군중들에게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려는 적극성이 있다는것을 믿지 않는 동지들과 결핍하면 칼을 들고 합작사를 《찍어버리》려 하는 동지들이 한번 잘 읽어보기 바란다. 지금 전국의 농촌에서는 사회주의적요소가 매일매시각마다 자라나고있고 광범한 농민군중들이 합작사를 조직할것을 요구하고있으며 군중가운데서 총명하고 재능이 있고 공정하고 적극적인 형수인물들이 수많이 용솨음쳐나오고있다. 이런 정형은 사람들을 자못 기쁘게 한



다. 가장 큰 결함은 많은 곳에서 당의 령도가 아직 주동적으로 이 형세에 따라서지 못하고있는것이다. 목전의 임무는 각급 지방당위로 하여금 이 문제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적인 주동적립장에 서서 전반 농업합작화의 임무를 자신이 짊어지고 적극적으로 기뻐하며 환영하며 전력을 다하는 태도로 이 운동을 령도하게 하는것이다. 업공이 룡을 좋아했다는 옛이야기처럼 사회주의에 대하여 오랜 세월을 두고 말하여오다가도 정작 사회주의가 자기앞에 다가오면 도리어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령도자의 뜻을 어기고 군중들자신이 꾸린 합작사》에 대한 평어)

## 9

이 지방에서는 로선이 정확하였다. 이 향에는 5개 농업생산합작사, 7개 련합호조조, 3개 년간호조조, 14개 립시호조조가 있는데 여기에 망라된 농호는 조직되어야 할 농호의 98.4%를 차지한다. 1954년 12월이 전까지는 이 향의 당지부가 아직 자기의 령도공작의 중심을 호조합작방면에 두지 않고있었으며 당원들은 호조조를 령도하는 공작에 있어서 곤난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지부는 《서기가 앞장서고 전당이 합작사를 꾸린》것이 아니라 공작조(우에서 파견한 공작조인듯싶다.)에 의거하고 있었다. 농업합작화문제에 있어서 이

처럼 연약하고 무능한 상태에 있는 농촌당지부가 지금도 전국적으로는 아직 적지 않다. 지부뿐만 아니라 아마 일부 상급당위도 이러한 상태에 있을 것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농업에 대한 사회주의적개조가 국가공업화의 진도에 적응될수 있는가 없는가, 합작화운동이 별반 결함이 없이 전진하게 발전하여 증산을 보장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각급 지방당위의 령도중심이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이방면으로 옮겨질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다. 공작조는 반드시 파견하여야 하지만 그러나 공작조를 파견하는것은 그곳의 당조직을 도와주자는것이 아니라 그곳의 당조직을 대신하여 그들자신은 까딱하지 않고 전적으로 공작조에 의뢰하게 하자는것은 아니라는것을 명백히 말해두어야 한다. 귀주성의 이 향에서는 1954년 12월부터 공작태도를 고친후 5개월 남짓이밖에 안되는 동안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그들은 공작조에 의뢰하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하였으며 당원들도 곤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전변을 가져오려면 우선 각급 당위의 서기——성위와 자치구당위의 서기, 지위와 자치주당위의 서기, 현위와 자치현당위의 서기, 구위서기, 지부서기들에게 의거하여야 한다. 그들은 전반 농업합작화의 임무를 짊어져야 한다. 시끄럽고 힘들다고 하여 이와 같은 위대한 임무에 대하여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그저 농촌공작부나 공작조에만 맡기는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면 임무를 완성할수 없을뿐만 아니라 많은 탈이 생기게 될것

이다.

(《봉강현 승진향에서는 어떻게 당지부의 령도밑에서 호조합작운동을 전개하였는가》에 대한 평어)

## 10

이 글의 필자는 이 합작사가 현에서 합작사주임들의 령석회의를 연후부터 립시로력책임제의 기초우에서 계절로력책임제를 실시하였다고 썼다. 여기서 현의 령도가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알수 있다. 우리는 전국 2천 몇백개 현의 현급령도기관들에서 전 현의 합작화운동의 발전정황에 면밀한 주의를 돌려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연구하여가지고 제때에 전 현의 합작사주임회의 또는 전 현의 중점합작사주임회의를 소집하여 결정을 짓고 신속히 실시하기 바란다. 문제가 쌓이고쌓여 슬한 탈이 생긴 뒤에 해결하려고 하여서는 안된다. 령도는 운동에 뒤떨어지지 말고 반드시 앞서 나가야 한다. 한개 현의 범위내에서는 현당위가 주요한 령도작용을 하여야 한다.

(《계절로력책임제》에 대한 평어)

## 11

이 자료는 아주 설복력있는 글이다. 한 지방에서 전전하게 합작화를 완수한다는 문제는 당의 정책문제

이며 공작방법문제이다. 합작화문제를 취급함에 있어서 우리 당의 각가지 정책이 정확하기만 하면 그리 고 군중을 발동하여 합작사에 가입시킬 때 우리 당이 명령주의를 쓰거나 일을 단순하게 처리해버리는것이 아니라 군중에게 도리를 알려주고 분석해주며 어디까지나 군중의 자각, 자원에 의거하는 공작방법을 취하기만 하면 합작화를 완성하고 증산을 가져오는것이 결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하북성 형대현 동천구 촌은 로해방구이고 전 촌의 70호가 모두 1952년도이전에 호조조에 가입하였으며 강한 당지부가 있고 또 왕지기와 같은 군중의 신임을 받는 령수인물이 있어서 각 방면의 조건이 다 성숙되어있었다. 그렇기때문에 이 촌은 1952년에 불과 한달 남짓한 시간을 들여 합작사를 세우고 반사회주의적합작화를 완성하였다. 조건이 이 촌처럼 구비하지 못한 지방에서는 어떻게 할것인가? 문제는 조건을 마련하는데 있으니 몇달 혹은 1년, 혹은 좀더 긴 시일을 들이면 될것이다. 조건은 한편으로 합작사를 꾸려나가면서 마련할수 있는것이다. 작은 합작사를 얼마간 꾸리면 전 촌, 전 향, 전 구의 합작화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게 된다. 동천구의 이 재로는 또 당지부가 어떻게 군중에게 선전교육공작을 진행하였으며 어떻게 군중의 자각, 자원에 의거하여 합작사를 세웠는가 하는 문제를 치중하여 설명하였다. 그중에서도 이른바 《역선전》(1)이란것은 중시를 돌릴 만한것이다. 로동조직과 로동관리 면의 문제에 관하여 이 재로는 결국에는 해마다 증산되는 거대한 성적이나

타나기까지의 굴곡적변화의 전 과정을 서술하였다. 이 합작사는 건전하다는것을 사실이 증명하고있다. 모든 합작사들에서는 증산여부와 증산의 정도를 자신의 건전여부를 검증하는 주요한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불과 한달 남짓한 동안에 전 촌을 합작화하였다》에 대한 평어)

## 12

이 재료는 아무리 혼란한 상태에 있는 합작사라도 다 정돈할수 있다는 하나의 진리를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합작사에 가입한 사람은 모두가 로동농민이므로 그들 각 계층사이에 아무리 의견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리가 밝혀질수 있기때문이다. 어떤 합작사는 확실히 한동안 혼란하였는데 그 유일한 원인은 당의 령도를 받지 못하였고 당이 군중에게 자기의 정책과 방법을 제대로 해설하여주지 못한데 있었다. 《합작사를 꾸리면 좋다는것을 우리는 알고있다. 그러나 합작사를 꾸려놓아도 현위, 구위, 지부에서는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아마 우리 마을이 가난하여 식사와 잠자리가 좋지 못하다고 우리 사에 오지 않는 모양이다.》라고들 말하고있다. 이른바 혼란이란 다른 원인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원인에서 생긴것이다. 당의 령도를 받지 못하니 혼란하여질것은 물론이다. 령도를 받게만 되면 혼란은 즉시로 해결된다. 이 재

료는 또 락후한 향과 촌에서 합작사를 건립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대답은 할수 있다는것이다. 이 글의 필자가 언급한 이 합작사는 바로 락후한 촌에 있는 합작사이다. 전국적으로 약 5%의 락후한 향과 촌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향과 촌에도 다 합작사를 세워야 하며 합작사를 세우는 투쟁과정에서 이런 지방의 락후한 상태를 가시여버려야 한다.

(《혼란하던 합작사가 훌륭하게 정돈되었다》  
에 대한 평어)

## 13

이것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각급 당위와 그리고 농촌에 파견되어 합작화공작을 지도하고있는 동지들은 이 문제에 충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합작사의 명도기관들에서는 명도기관내에서의 현재의 빈농과 신하중농의 우세를 수립하고 구하중농과 신구상중농들을 보조적력량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만 당의 정책대로 빈농과 중농의 단결을 실현하며 합작사를 공고화하며 생산을 발전시키며 전반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옳게 완성할수 있다. 이 조건이 없이는 중농과 빈농이 단결될수 없으며 합작사가 공고화될수 없으며 생산이 발전될수 없으며 전반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실현될수 없다. 많은 동지들은 이 도리를 모르고있다. 그들은 빈농의 우세를 수립하는 문제

가 토지개혁시기에는 필요하였다고 인정한다. 그때에는 농촌인구의 50%, 60% 내지 70%를 차지하는 빈농이 중농으로 상승하지 못하였고 또 중농은 토지개혁에 대하여 동요하고있었기때문에 확실히 빈농의 우세를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는것이다. 그러나 농업에 대한 사회주의적개조를 실시하고있는 오늘에 와서는 과거의 빈농들이 대부분 신중농으로 상승하였고 또 구중농이 생산자료를 많이 가지고있는만큼 구중농이 참가하지 않고서는 합작사의 생산자료부족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는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동지들은 지금은 빈농에 의거하자거나 빈농의 우세를 수립하자는 구호를 제기하지 말아야 하며 이런 구호는 합작화에 불리하다고 인정하고있다. 우리는 이런 견해는 그릇된것이라고 인정한다. 공인계급과 공산당이 만일 사회주의정신과 사회주의제도로써 전반 농촌에서 소농이 생산자료를 소유하는 제도를 철저히 개조하려면 오직 과거 반무산계급이었던 광범한 빈농군중에 의거하여야만 한다. 그래야만 비교적 순조롭게 될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어려울것이다. 왜냐하면 농촌에서의 반무산계급은 소농이 생산자료를 소유하는 제도를 비교적 고집하지 않으며 사회주의적개조를 비교적 쉽게 접수할수 있는 사람들이기때문이다. 그들가운데서 대부분은 오늘 이미 신중농으로 되었지만 그러나 구중농과 비교하면 일부 신부유중농을 제한의에는 대다수가 정치상에서 비교적 높은 각오를 가지고있으며 지난날의 쓰라린 생활을 쉽사리 회억할수 있다. 그리고 구중농중의 하중농들은

그 경제적지위와 정치적태도가 신중농중의 하중농과 비교적 근사하고 신구중농중의 상중농, 즉 부유한 중농이나 비교적 부유한 중농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합작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1) 지금도 곤난한 처지에 있는 빈농, (2) 신중농중의 하중농, (3) 구중농중의 하중농, —사회주의적개조를 비교적 쉽게 접수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차례와 기를 나누어 합작사에 가입하도록 인도하며 동시에 그들중에서 각성정도가 비교적 높고 조직능력이 비교적 강한 사람들을 약간명 선발하고 훈련시켜 합작사의 명도골간을 구성하기에 주의를 돌려야 하며 특히 현재의 빈농과 신하중농 가운데서 이러한 골간분자들을 선발하기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이것은 농촌에서 계급성분을 새로 획분하는 공작인것이 아니라 합작화과정에서 당지부와 그리고 농촌에 파견되어 공작을 지도하는 동지들이 잘 장악하지 않으면 안될 방침인것이다. 이 방침은 농민군중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우리는 부유중농을 합작사에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것이 아니라 부유중농이 사회주의적각오가 제고되어 합작사에 가입하려 하며 또한 빈농(지금의 빈농과 원래 빈농이었던 신하중농전체를 포함한다.)의 명도에 복종하려 할 때에 가서 그들을 합작사에 받아들여야 한다는것이다. 그들이 합작사에 가입하려 하지 않는데도 그들의 부립소나 농구를 탐내어 강박적으로 가입시켜서는 안된다. 이미 합작사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냥 남겨두며 퇴사할것을 요구하였으나 설복한후에 남아있기



를 원하는 사람도 그냥 남겨둘수 있다. 생산자료가 좀 부족하여도 합작사를 조직할수 있다는 이것은 빈농과 하중농으로 조직된 많은 합작사들에 의하여 이미 증명되었다. 우리는 또 부유중농은 하나도 합작사의 간부로 될수 없다는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적각성정도가 높고 공정하고 유능하며 합작사의 대다수 사람들이 신임하는 개별적부유중농은 간부로 될수도 있다. 그러나 합작사는 반드시 빈농(다시한번 말하거니와 지금의 빈농과 원래 빈농이었던 신하중농전체를 포함한다. 그들은 농촌인구의 다수 혹은 대다수를 차지한다.)의 우세를 수립하여야 한다. 조직구성면에 있어서는, 그들이 3분의 2좌우를 차지하여야 하며 중농(구하중농과 신구상중농을 포함한다.)은 다만 그리고 응당 3분의 1좌우를 차지하여야 한다. 합작사의 지도방침면에 있어서는 빈농과 중농에게 다 유리하게 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하며 어느측의 리익이든지 해쳐서는 안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도 반드시 빈농의 우세를 수립하여야 한다. 중농이 우세를 차지한 합작사는 결국 빈농을 배척하거나 빈농의 리익에 손해를 주게 된다. 호남성장사현 고산향의 경험은 빈농의 우세를 수립하고 그것에 의하여 중농과 튼튼히 단결할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하여, 그리고 이렇게 하지 못하면 그 위험성이 또 어떠한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고있다. 이 글의 필자는 당의 로선을 아주 잘 알고있다. 먼저 긴급한 증산임무를 완성하고 다음에 빈농의 우세한 정도를 확립한 그들의 공작방법도 아주 옳은것이다. 그 결

과 빈농은 의기양양해졌고 중농도 진심으로 탄복하게 되었다. 이 글의 필자는 혼란상태에 있는 합작사를 해산시키는것이 좋은가 그렇지 않으면 혼란상태에서 벗어나 건전해지도록 정돈하는것이 좋은가, 이와 같은 합작사를 정돈공고화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있다. 이 글의 필자는 《3등사》들을 해산시킬것이 아니라 정돈하여야 한다는것을 아주 설복력있게 우리에게 말해주고있다. 정돈공작을 통하여 3등사를 1등사로 얼마든지 전변시킬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장사현 고산향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적지 않게 있다.

(《장사현 고산향 무당농업생산합작사는 어떻게 중농이 우세를 차지하던데로부터 빈농이 우세를 차지하는데로 전변되었는가》에 대한 평어)

## 14

여기에 언급된 문제는 보편적의의를 띠고있다. 중농과는 반드시 단결하여야 하며 중농과 단결하지 않는것은 잘못이다. 그런데 공인계급과 공산당은 농촌에서 누구에게 의거하여 중농과 단결하며 전반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실현할것인가? 더 말할것도 없이 오직 빈농에 의거하여야 한다. 과거 지주와 투쟁하며 토지개혁을 실시할 때에도 그러했거니와 오늘 부농 및

기타 자본주의적요소와 투쟁하며 농업에 대한 사회주의적개조를 실시하는데 있어서도 역시 그러하다. 이 두 혁명시기의 첫계단에 있어서 중농은 언제나 중요하다. 중농은 대세를 보고 혁명이 승리하게 되었을 때에야 혁명측에 가담하게 된다. 빈농은 중농에 대한 공작을 잘하여 중농을 자기측에 묶어세움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혁명을 하루하루 확대하여야 한다. 지금의 농업생산합작사 사무관리위원회에도 이전의 농민협회처럼 구하중농과 각오가 비교적 높고 대표성을 띠고있는 일부의 신구상중농을 참가시켜야 한다. 그러나 인수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약 3분의 1로 하는것이 적당하다. 빈농(지금의 빈농과 원래 빈농이었던 신하중농을 포함한다.)위원의 인수는 약 3분의 2를 차지하게 하여야 한다. 사의 주요령도간부적은 구하중농과 각오가 매우 높고 확실히 공정하고 유능한 약간의 신구상중농에게는 그냥 맡길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빈농(다시한번 말하거니와 지금의 빈농과 원래 빈농이었던 신하중농전체를 포함한다.)이 담임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복건성 복안현에 나타난, 빈농이 령도하는 합작사와 중농이 령도하는 합작사가 사회주의사업에 대하여 서로 다른 태도를 가지고있는 정황을 개별적인 현상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보편적의의를 띠고있는것이다.

(《복안현에 〈중농사〉와 〈빈농사〉가 나타나게 된 교훈》에 대한 평어)

## 15

이것은 보편적으로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는 유용한 재료이다. 이 재료는 농촌 여러 계층의 동태를 묘사하였다. 빈농은 합작화에 대하여 가장 적극적이다. 많은 중농들은 《더 두고보자》고 하며 《밖에서 편히 지내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주로 자기의 생산자료를 합작사에 들여놓는 문제에서 합작사가 자기들에게 손해없도록 해주겠는가 두고보려 한다. 그러다가 그들은 이렇게 할수도 있고 저렇게 할수도 있다. 많은 부유중농들은 합작화에 대하여 저촉정서가 대단하다. 그중에서 태도가 가장 나쁜자는 생산자료를 팔아치우며 자금을 빼돌리며 가짜합작사를 조직한다. 개별적인자는 심지어 지주, 부농과 결탁하여 나쁜짓을 한다. 우리는 각지에서 농촌공작에 종사하고있는 동지들이 자기 지방 각 계층의 동태를 주의하여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정황에 알맞는 정책을 취하기 바란다. 이 재료는 합작사만 중시하고 호조조를 홀시하는 그릇된 경향을 지적하면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고루 돌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는데 이것은 옳은것이다. 《호조합작망》을 이루는것은 좋은 방법이다. 말하자면 합작사와 호조조를 고루 돌보아야 하며 합작사는 호조조와 개인영농호를 진심으로 도와주어 생산에서 부딪친 그들의 당면한 곤란을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빈농기

금은 하루속히 발급하여야 한다. 지금도 아직 합작사가 가입하지 않은 빈농들에게 어느때든 그들이 입사하는 때에는 그 기금을 탈수 있다는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새로운 정황과 새로운 문제》에 대한 평어)

## 16

이 합작사가 취한 방침은 옳다. 모든 합작사들이 다 이렇게 하여야 한다. 각 성에서는 합작화문제에 관한 자기의 결의나 지시에다 모든 합작사는 환과고독, 즉 로동력이 없는 사원들(그들을 입사시켜야 한다.)과 로동력은 있지만 생활이 몹시 구차한 사원들의 곤난을 해결해줄 책임이 있다는것을 지적하여야 한다. 지금 적지 않은 합작사들에서 곤난호를 방조하는 사회주의 정신이 결핍하며 지어는 빈농을 아주 배척해버리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이다. 목전 정부에서는 빈농기금을 이미 설치하였으므로 부립소와 농구가 부족한 곤난을 해결하도록 빈농을 방조해줄수 있다. 그러나 로동력이 결핍한 일부 빈농들의 곤난은 아직 해결할수 없으며 또 보리고개때에 생활자료가 부족되는 일부 빈농들의 곤난도 완전히는 해결할수 없다. 이것은 오직 합작사의 광범한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야만 해결할수 있다.

(《상담현 청풍향 당지부에서는 가난한 사원들의 곤난을 해결해주었다》에 대한 평어)

## 17

이것은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다. 사회주의란 이 새 사물은 낡은 사물과의 치열한 투쟁을 거쳐야만 탄생될수 있는것이다. 사회의 부분적사람들은 한시기는 자기가 걸어오던 길을 그렇듯 완고하게 고수하지만 다른 한시기에 있어서는 또 태도를 고치여 새 사물을 찬성하게 될수 있다. 1955년 상반기까지만 하여도 부유중농의 대다수가 합작화를 반대하고있었으나 하반기에 와서는 일부 사람들이 태도를 고치여 합작사에 가입하려 하게 되었다. 물론 그중에는 합작사의 평도권을 쥐기 위하여 합작사에 가입하려 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 다른 일부 사람들은 입으로는 가입하겠다고 말하나 속으로는 그리 달가와하지 않으면서 몹시 동요한다. 세번째부류의 사람들은 완고하게 아직도 더 두고 보려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농촌의 당조직들은 이 계층에 대하여 참을성있게 기다려야 한다. 일부 부유중농들이 좀 늦게 합작사에 가입하는것은 오히려 평도면에서의 빈농과 신하중농의 우세를 수렴하는데 유리하다.

(《그들은 건결히 합작화의 길을 택하였다》  
에 대한 평어)

## 18

정치공작은 모든 경제공작의 생명선이다. 사회경

제제도에 근본적변혁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더구나 그러하다. 농업합작화운동은 첫시작부터 엄청난 사상적 및 정치적 투쟁으로 되고있다. 어느 합작사나 이러한 투쟁을 거치지 않고서는 창립될수 없다. 새로운 사회제도는 낡은 제도의 기지우에서 수립되게 되는데 이 기지를 깨끗이 청소하지 않으면 안된다. 낡은 제도를 반영하는 낡은 사상의 잔재는 어쨌든 사람들의 머리속에 장기간 남아있으면서 좀처럼 물러가려 하지 않는다. 합작사는 건립된후에도 많은 투쟁을 거쳐야 공고화될수 있다. 공고화된후에도 늦추기만 하면 또 무너질수 있다. 산서성 해우현 삼루사합작사가 바로 공고화된후에 늦추었기때문에 무너질번하였던것이다. 오직 그곳의 당조직이 자기의 착오를 비판하며 다시 사원군중에게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강화할데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정치공작을 회복하였을 때에야 비로소 위기가 극복되고 계속 발전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자사자리적인 자연발생적자본주의경향을 반대하고 집체리익과 개인리익을 결합시키는 원칙을 모든 언론행동의 표준으로 하는 사회주의정신을 제창하는것은 분산적인 소농경제를 점차 대규모적인 합작화경제에로 과도하게 하기 위한 사상적, 정치적 담보로 된다. 이 공작은 간거한 공작이다. 반드시 농민의 생활경험에 근거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여야 하지 조포한 태도와 간단한 방법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이 공작은 경제공작에 결합하여 함께 진행하여야 하지 고립적으로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러

한 공작에서 전국적으로 이미 상당히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이 책에 수록된 작품들은 거의 매편마다 다 이 특점을 보여주고 있다.

(《엄중한 교훈》에 대한 평어)

## 19

이 글은 관점이 정확하다. 합작사에서는 반드시 정치공작을 잘할것을 강조하여야 한다. 정치공작의 기본임무는 농민군중들에게 사회주의사상을 부단히 주입하며 그들의 자본주의적경향을 부단히 비평하는것이다.

(《장박장합작사의 정치공작》에 대한 평어)

## 20

이런 정황은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는것이다. 부유한 농민들에게는 자본주의적경향이 엄중하다. 합작화 운동과정에서, 나아가서는 그후의 매우 오랜 기간에 있어서 우리가 농민에 대한 정치공작을 조금이라도 늦추면 자본주의적경향이 범람하게 될것이다.

(《자본주의적경향과 전결히 투쟁하여야 한다》에 대한 평어)



## 21

이것은 추천할만한 아주 훌륭한 합작사정돈경험이다. 새로운 사회제도가 탄생될 때는 언제나 요란한 웨침소리를 동반하게 된다. 그 웨침소리란 새 제도의 우월성을 선전하며 낡은 제도의 낙후성을 비판하는것을 말한다. 5억이 넘는 우리 나라 농민들이 사회주의적개조를 실시하도록 하는, 이렇듯 하늘땅을 뒤흔드는 사업이 평온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될수는 없는것이다. 그것은 낡은 제도의 보따리를 등에 걸머진 광범한 농민군중들에게 꾸준하고 생동하게, 그리고 그들이 험히 이해할수 있게 선전교육공작을 진행할것을 우리 공산당인들에게 요구하고있다. 목전 전국 각지에서 모두 이런 공작을 진행하고있는데 선전을 잘할줄 아는 농촌공작일군들이 매우 많이 나타났다. 이 글에 소개된 《네가지를 대비하고 다섯가지를 따져보는것》은 두가지 제도중에서 어느것이 좋고 어느것이 나쁜가 하는것을 들으면 인차 알수 있게 농민들에게 해설하여주는 좋은 방법이다. 이런 방법은 강한 설복력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선전을 잘할줄 모르는 일부 동지들처럼 사람을 감동시킬만한것이라곤 전혀 없이 그저 큼직한 모자로 청중들을 내리누르려고 단마디로 《공산당의 길을 걸을것인가 아니면 장개석의 길을 걸을것인가》 하는것이 아니라 당지 농민들의 경험으로써 농민들에게 자세히 분

석하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 설복력을 가지고 있다.

(《합작사를 정돈한 훌륭한 경험》에 대한 평어)

## 22

반혁명분자들이 합작화운동을 파괴하는 것은 귀주성 도운현 제5구 한 지방에만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다른 성의 같은 유형의 출판물에서는 이런 문제가 반영된 것을 보기 드물다. 합작화과정에 있어서 농촌공작에 종사하는 모든 동지들은 반혁명분자들의 파괴활동과 투쟁할데 관한 문제에 충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도운현의 이 구처럼 당원과 단원을 골간으로 하여 합작사내에 보위조직을 건립하여야 한다. 현위의 령도와 감독하에 구당위에서 정황을 연구하고 당내외에 선전과 해석을 잘하여 반혁명분자들의 파괴활동에 대한 군중의 경각성이 제고된 다음 합작사령도기구내에 혼입한 반혁명분자와 기타 나쁜분자들을 심사하여 축출하며 처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진짜반혁명분자와 진짜나쁜분자를 축출하여야 하지 좋은 사람이거나 결점이 약간 있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서는 안된다. 더우기 처리는 타당히 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의 기준을 거쳐야 한다.

(《반혁명분자들의 파괴활동에 대하여 전결히 투쟁하여야 한다》에 대한 평어)

## 23

위대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광범한 부녀군중을 발동하여 생산활동에 참가시키는것은 극히 큰 의의를 가진다. 생산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같은 일에 같은 보수를 주는 원칙을 실현하여야 한다. 진정한 남녀평등은 오직 전반 사회의 사회주의적개조과정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부녀들이 노동전선에 나섰다》에 대한 평어)

## 24

이것은 각지에서 참고할만한 훌륭한 글이다. 청년은 전반 사회력량중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생기있는 일부분 력량이다. 그들은 배우기를 가장 즐기며 보수사상이 가장 적다. 사회주의시대에는 더욱 그러하다. 바라건대 각지의 당조직들은 청년단조직과 협동하여 청년들의 력량을 어떻게 특별히 발휘시킬것인가를 연구하기에 주의를 돌려야 하며 그들을 일반적으로 취급하여 그들의 특점을 말살해버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청년들은 늙은이와 장년들을 따라배워야 하며 될수 있는대로 늙은이와 장년들의 동의밑에서 여러가지

유익한 활동들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늙은이와 장년들에게는 보수사상이 비교적 많다. 그들은 흔히 청년들의 진보적활동을 내리누르다가 청년들이 성과를 올린 뒤에야 비로소 탄복한다. 이 글에는 이와 같은 정황이 아주 잘 묘사되어있다. 보수사상에 대하여서는 물론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한번 시험해보라. 성과가 나타나면 그들도 동의하게 될것이다.

(《중산현 신평향 제9농업생산합작사의 청년들격대》에 대한 평어)

## 25

이 역시 각지에서 참고할만한 훌륭한 글이다. 그 중에서도 중학생과 고급소학교졸업생들을 합작화공작에 참가시킨다고 한 점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 농촌에 가서 일할수 있는 이러한 지식분자들은 누구나 다 기꺼이 농촌으로 가야 한다. 농촌은 광활한 천지로서 거기에는 할 일이 많다.

(《한 향에서 합작화규획을 세운 경험》에 대한 평어)

## 26

여기에 또 진학맹이라는 사람이 있다. 중국에 이런

영웅인물이 어찌 수천수만에 그치랴.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문학가들은 아직 그들을 찾아가지 않고있으며 농촌에 나가서 합작화공작을 지도하는 사람들도 그들을 많이 보면서도 그들에 대한 글은 그다지 쓰지 않고 있다.

(《합작화의 선졸군 진학맹》에 대한 평어)

## 27

이 글은 아주 잘 썼다. 매개 당과 단의 현위, 구위 및 향지부에 추천할만하다. 모든 합작사들에서 다 이렇게 하여야 한다. 필자는 당의 로선을 알고있으며 아주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글도 당팔고의 틀이 없이 알아보기 쉽게 잘 썼다. 여기에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점이 있다. 우리의 허다한 동지들은 글을 쓸 때 당팔고식글을 쓰기를 몹시 좋아하며 글이 생동하지 못하고 형상적이 못되어 독자들을 머리가 아프게 한다. 그들은 마치 독자들을 괴롭히려는 결심이라도 한듯이 문법과 수사법에 주의를 돌리지 않으며 반문언 반백화체를 좋아하며 때로는 쓸데없는 말을 길게 늘어놓고 때로는 되도록 간략하고 옛스러운것을 플라 쓴다. 이 책에 수록된 170여편의 글가운데는 당팔고색채가 농후한 글이 적지 않다. 몇번 수정한후에야 좀 알아보기 쉽게 되었다. 비록 이렇게 하였지만 소수 작품은 여전히 애매하고 알아보기 힘들다. 다만 그 내

용이 중요하기때문에 여기에 선택하여 넣었을뿐이다. 언제 가서야 우리는 사람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당팔고식글을 덜 보게 되겠는가? 이렇게 되자면 우리의 신문과 잡지의 편집동지들이 이 문제에 주의를 돌려 필자에게 생동하고 순통한 글을 쓰도록 요구하며 자기 손으로 직접 그 글을 수정해주어야 할것이다.

(《합작사의 정치공작》에 대한 평어)

## 28

여기에 소개된 합작사는 바로 왕국번이 령도하는 이른바 《가난뱅이사》이다. 근검하게 운영하는것은 전국의 모든 농업생산합작사의 방침으로, 아니, 모든 경제사업의 방침으로 되여야 한다. 근검하게 공장을 운영하며 근검하게 상점을 운영하며 근검하게 모든 국영사업과 합작사업을 운영하며 근검하게 모든 기타 사업들을 운영하며 무슨 일에서나 모두 근검하게 하는 원칙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절약의 원칙이다. 절약은 사회주의경제의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중국은 큰 나라이지만 아직은 펍 가난한만큼 중국을 부강하게 하자면 수십년의 시일이 걸려야 한다. 수십년이후에도 근검의 원칙을 집행하여야 하지만 그러나 근검을 특히 제창하며 절약에 특히 주의를 돌려야 할 시기는 지금의 이 수십년동안이며 지금의 이 몇차 5개년계획기간이다. 지금 많은 합작사들에는 절약에 주의를 돌리지

않는 좋지 못한 작품이 존재하고있다. 이것은 속히 시정하여야 한다. 어느 성, 어느 현에서나 다 근검하게 합작사를 운영하는 실례들을 찾아볼수 있는데 응당 이런 실례들을 보급시켜 모두가 그와 같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검하고 산량이 가장 높고 모든 면에서 다 잘 운영되는 그런 합작사들은 장려하여야 하고 랑비를 하고 산량이 아주 낮고 여러가지 면에서 다 잘 운영되지 못하는 그런 합작사들은 비평하여야 한다.

(《근검하게 합작사를 운영하였다》에 대한 평어)

## 29

이것은 전 향의 1,000여호가 대형합작사(그들은 집체농장이라고 부르는데 즉 합작사이다.)를 건립하고서 세운 7년간의 원경계획인데 각지에서 참고할만하다. 어째서 이와 같은 장원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것은 그 내용을 보면 알수 있을것이다. 인류가 수십만년이나 발전하여왔지만 중국이란 이곳에서는 오늘에 와서야 자기의 경제와 문화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되었다. 이 조건을 가지면서부터 우리나라의 면모는 해마다 달라지게 되었다. 매 5년마다 비교적 큰 변화가 있게 될것이며 몇개 5개년 이 지나면 더욱 큰 변화가 있게 될것이다.

(《홍성집체농장의 원경규획》에 대한 평어)

## 30

이것은 각지 합작사들에서 장기적계획을 세우는데 참고로 삼을수 있는 훌륭한 글로서 한번 읽어볼만하다. 필자는 《생산규획을 제정하는 전 과정은 선진적사상과 보수적사상간의 투쟁과정이다》라고 아주 적절하게 말하였다. 지금 거의 어디에서나 다 보수사상이 장난치고있다. 이런 보수사상을 극복하여 생산력과 생산을 크게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모든 지방, 모든 합작사들에서 다 자기의 장기적계획을 세워야 한다.

(《한 합작사의 3개년생산규획》에 대한 평어)

## 31

이 향에서는 합작화, 증산조치, 수리건설, 정당정단, 문화교육 등 공작에 대한 2개년계획을 세웠다. 전국의 모든 향들에서도 이렇게 하여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이 향에서는 세울수 있었는가? 1956년에 전국의 각 현, 구, 향에서 모두 전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계획보다 더 많은 항목, 폐하면 부업, 상업, 금융, 특화, 위생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좀 거칠고 실제에 잘 부합되지 않는것이라 하더라도 없는것보다는 낫다. 상당히 편



짧은 계획을 세운 현, 구, 향이 한 성에 한두개씩만 있으면 그 계획을 신속히 전파하여 다른 현, 다른 구, 다른 향들에서 본받게 할수 있을것이다. 이러저러하게 들 곤란하다고는 하지만 기실 그렇게 곤란한것은 아니다.

(《기도향의 전면적규획》에 대한 평어)

## 32

이것은 각 현에서 참고할만한 아주 유용한 글이다. 매개 현에서는 자기의 전면적규획을 세울 때 적당한 수리건설규획을 내와야 한다. 수리건설은 농업의 증산을 보장하는데 있어서의 중대한 조치이다. 소형수리시설은 모든 현, 구, 향과 합작사들에서 다 건설할수 있다. 그러므로 이겨낼수 없는 특히 심한 한재나 수재 외에는 가물이 들어도 댈 물이 있고 장마가 저도 배수할수 있는 그러한 수리시설을 몇해동안에 몇기로 나누어 건설할 규획을 세우는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것은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것이다. 합작화의 기초우에서는 군중들에게 거대한 힘이 있다. 수천년을 두고 해결할수 없던 일반적인 수재, 한재 문제가 몇해동안에 해결될 가망이 있다.

(《매인당 1부의 관개지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에 대한 평어)

## 33

돼지를 기르는것은 비료와 육식에 관계되며 수출하여 외화를 바꾸어오는데 관계되는 큰 문제이므로 어느 합작사에서나 다 양돈문제를 자기 계획에 넣어야 한다. 물론 성, 지구, 현, 구에서도 자기의 계획이 있어야 한다. 돼지의 사료는 쉽게 해결할수 있는것이다. 일부 청초와 나무잎 그리고 고구마덩굴과 고구마는 모두 사료로 할수 있는것이다. 꼭 정사료를 먹여야 하는것은 아니며 더구나 정사료를 많이 먹여야 하는것은 아니다. 합작사에서 집체로 기르는외에 매 농가에서 한마리 내지 몇마리씩 기르도록 동원하여야 한다. 몇해에 나누어 이 요구에 도달하여야 한다. 돼지를 기르는것이 금지되어있는 일부 소수민족과 종교습관으로 하여 돼지를 기르려 하지 않는 개별적가정은 물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돈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장려법이 있어야 한다. 절강성 상화합작사의 경험은 각지에서 참고할만한것이다.

(《여기에서는 돼지를 많이 길렀다》에 대한 평어)

## 34

합작화이전에는 전국의 많은 지방에 로동력이 남아도는 문제가 존재하고있었다. 합작화이후에는 수많

은 합작사들에서 로동력부족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전에 전간로동에 참가하지 않던 광범한 부녀군중들을 동원하여 로동전선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였던 중대한 일이다. 이전에 사람들은 합작화하고나면 로동력이 꼭 남아들것이라고만 생각하고있었다. 원래 남아들었는데도 더 남아들면 어떻게 하겠는가! 허다한 지방의 합작화의 실천은 사람들의 이런 념려를 타파하였다. 로동력이 남아도는것이 아니라 부족되는것이다. 어떤 지방에서 합작화이후 한때 로동력이 남아도는감을 느끼게 되는것은 아직 생산규모를 확대하지 못하였고 다종경영을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경작도 알뜰하게 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생산의 규모가 커지고 경영부문이 많아지고 자연계의 넓이와 깊이에로 로동범위가 확장되고 공작이 세밀하게 진행됨에 따라 많은 지방들에서는 로동력이 부족됨을 느끼게 될것이다. 지금은 이러한 정형이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해마다 더 심하여질것이다. 농업이 기계화한후에도 역시 이리할것이다. 장래에 가서는 종래로 상상하지 못하던 여러가지 사업이 나라날것이며 농작물의 산량이 지금의 몇배, 열몇배, 나아가서는 몇십배로 높아질것이다. 공업, 교통과 교환사업은 더구나 이전사람들이 상상할수 없던 속도로 발전할것이다. 과학, 문화, 교육, 위생 등 사업도 역시 이리할것이다. 중국의 부녀는 위대한 인력자원이다. 이러한 자원을 발굴하여 그들이 위대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분투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너를 동원하여 로동에 참가시키려면 반드시 남녀를 불문하고 같은 일에 같은 보수를 주는 원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절강성 건덕현의 경험은 모든 합작사에서 다 받아들일수 있다.

(《부녀들을 동원하여 생산에 참가시킴으로써 로동력이 부족되는 곤란을 해결하였다》에 대한 평어)

## 35

이것도 또한 보편성을 띤 문제이다. 이 두 합작사의 정확에 근거하여보면 지금의 생산조건하에서도 벌써 3분의 1에 가까운 로동력이 남아돈다. 이전에는 제사람이 하던 일을 합작화이후에는 두사람이면 할수 있으니 이것은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보여준다. 남아도는 3분의 1의 로동력, 지어 그보다 더 많은 로동력은 어디서 출로를 찾을것인가? 역시 주로 농촌에서 출로를 찾아야 한다. 사회주의는 낡은 사회로부터 로동자와 생산자료를 해방하였을뿐아니라 낡은 사회에서는 리용할수 없던 광대한 자연계도 해방하였다. 인민군중에게는 무궁무진한 창조력이 있다. 그들은 조직되어 자기의 력량을 발휘할수 있는 모든 지방과 부문으로 진군하며 생산의 깊이와 넓이에로 진군하면서 자신을 위하여 날로 더 많은 복리사업을 창조할수 있다. 여기에는 아직 농업의 기계화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

기계화가 실현되면 로동력이 더 많이 절약될것인데 그래도 로동력에 출로가 있겠는가? 기계로 경작하는 농장들의 경험에 의하면 생산의 범위가 확대되고 부문이 많아지고 일이 세밀해지기때문에 의연히 출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로동력을 쓸데가 없을가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남아도는 로동력이 출로를 찾았다》에 대한 평어)

## 36

이 현의 정황도 농촌에서 남아도는 로동력이 농촌에서 출로를 찾을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한해 동안의 매 남녀로동력의 로동일수는 경영방법이 개진되고 생산부문이 확대됨에 따라 더 증가될수 있다. 이 글에서 말한것처럼 남자는 100여개 로동일, 녀자는 몇십개 로동일을 일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남자는 200여개 로동일, 녀자는 100여개 로동일을 일할수 있거나 혹은 더 많이 할수 있을것이다. 지금 다른 고장의 일부 합작사들에서는 로동일수가 이미 이만한 수효에 달하였다. 부업은 확실한 판로가 있어야 하고 맹목적으로 발전시켜서는 안된다. 이것은 옳다. 농촌의 부업은 전국적으로 볼 때 매우 큰 부분이 농촌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이지만 또 적지 않은 부분은 성시와 수출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할것이며 앞으로는 이 부분이 더 확대될것이

다. 문제는 국가에서 통일적인 계획을 세우고 점차 맹목성을 없애는데 있다.

(《상음현에서는 남아도는 노동력의 출로문제를 해결하였다》에 대한 평어)

## 37

이것은 각지에서 본받을만한것을 쓴 아주 훌륭한 글이다. 《회계를 할 사람이 없다》는것은 합작화의 급속한 발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구실의 하나이다. 전국적으로 합작화를 하자면 회계를 맡을 사람이 수백만명이나 필요한데 어디에 가서 찾겠는가? 기실 사람은 있는것이다. 많은 고급소학교졸업생과 초중졸업생들을 동원하여 이 공작을 맡기면 될것이다. 문제는 그들을 시급히 훈련시키며 공작가운데서 그들의 문화수준과 기술수준을 제고시키는데 있다. 구를 단위로 하여 생산합작사, 공소합작사 및 신용합작사의 회계원들로 회계호조망을 구성하는것이 바로 이런 회계원들의 문화수준과 기술수준을 제고시키는 좋은 방법이다. 창무현 제3구의 회계망은 회계원들의 문화수준과 기술수준을 제고시켜주었을뿐만아니라 경제공작과 정치공작도 많이 하였다. 현과 구의 당조직들에서는 이 공작에 대한 령도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농업생산합작사, 공소합작사 및 신용합작사의 회계원들로 회계호조망을 구성한 경험》에 대한 평어)

## 38

이 경험을 널리 보급시켜야 한다. 레닌은 《문맹의 나라에서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없다》[2]고 말하였다. 우리 나라에는 지금 문맹이 대단히 많은데 그렇다고 하여 문맹을 다 퇴치한후에 가서 사회주의건설을 시작할수는 없는것이다. 이것은 첩예한 모순이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공부할 나이가 된 많은 아동들이 공부할 학교가 없을뿐만아니라 나이가 지난 많은 소년과 청년들도 공부할 학교가 없다. 성년들은 더 말할것도 없다. 이 엄중한 문제는 반드시 농업합작화의 과정에서 해결하여야 하며 또 오직 농업합작화의 과정에서만 해결할수 있는것이다. 합작사를 조직한 농민들은 경제적으로 하여 문화지식을 학습할것을 절박히 요구하고있다. 농민들이 합작사를 조직하고 집체적력량이 있게 되자 정확은 완전히 개변되었다. 즉 그들이 자체로 문화학습을 조직할수 있게 되었다. 처음 제1보로는 기공을 하기 위하여 본 촌과 본 향의 인명, 지명, 도구명, 농사일명칭 및 일부 필요한 단어들을 학습할수 있는데 약 200~300자이면 된다. 그다음에 가서 제2보로 더 많은 글자와 단어들을 배울수 있다. 이러한 두가지 교과서를 편찬하여야 한다. 첫째종류의 교과서는 합작화지도공작에 종사하는 동지들이 당지의 지식분자들을 도와 각기 자기 지방의 합작사의 수요에 맞게 편찬하여야 한다. 각 지방에서 통일적인 교과서를 쓰지 말고

제각기 자체로 편찬하여야 한다. 이런 교과서는 심사할 필요가 없다. 둘째종류의 교과서도 합작화지도공작에 종사하는 동지들이 당지의 지식분자들을 도와 비교적 작은 범위의 지방(례를 들면 한개 현 혹은 한개 지구)의 사물명칭과 단어들에다 전 성(시, 자치구)적인 사물명칭과 단어 및 전국적인 사물명칭과 단어를 더 넣어 편찬하되 역시 몇백자이면 된다. 이런 교과서도 각지의것을 통일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현급, 지구급 혹은 성(시, 자치구)급의 교육기관에서 속히 심사해주어야 한다. 이 두가지 교과서를 편찬한후에 제3보로 각 성(시, 자치구) 교육기관에서 셋째종류의 일반적응용문을 쓴 교과서를 편찬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또 계속적제고를 위한 교과서를 더 편찬하여야 한다. 중앙의 문화교육기관에서는 이 사업을 적당히 지도해주어야 한다. 산둥성 거남현 고가류구촌의 청년단지부에서는 창조적인 공작을 하였다. 이런 정황은 매우 기쁜 일이다. 교원은 있다. 본 향의 고급소학교졸업생이 맡았다. 진도도 빠르다. 두달반동안에 100여명이나 되는 청년과 장년들이 200여자를 배워 자기의 로동장부를 기록할수 있게 되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합작사의 기장원으로 되었다. 기공학습반이란 이 명칭도 아주 좋다. 각지에서는 이런 학습반을 보편적으로 본받아 꾸려야 한다. 각급 청년단조직은 이 공작을 령도하여야 하며 당과 정부의 모든 기관들에서 이 공작을 지지해주어야 한다.

(《거남현 고가류구촌 청년단지부에서 기공 학습반을 꾸린 경험》에 대한 평어)



## 39

여기에 소개된것은 리순달이 령도하는 금성농림목 생산합작사이다. 이 합작사는 조직된지 3년만에 283호를 가진 대형합작사로 되었다. 이 합작사는 태항산의 궁벽한 산골에 자리잡고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노력한 결과 3년동안에 벌써 면모가 개변되기 시작하였다. 로동력의 리용률은 항일이전에 개체적으로 로동할 때보다 110.6%나 제고되었고 합작사를 건립하기전의 호조조때보다도 74%나 제고되었다. 합작사의 공공축적은 이미 첫해의 120원으로부터 1만 1,000여원으로 증가되었다. 1955년도에 사원 매인평균 884근의 량곡을 거두어들였는데 항일이전보다 77%가 증가되었고 합작사를 건립하기전보다 25.1%가 증가되었다. 이 합작사에서는 이미 5개년계획을 세웠는데 3년동안 실시한 결과 생산총액이 벌써 5개년계획의 100.6%에 달하였다. 이 합작사의 경험은 자연조건이 비교적 나쁜 지방에서도 대폭적으로 증산할수 있었는데 무엇때문에 자연조건이 비교적 좋은 지방에서 더욱 대폭적으로 증산하지 못하겠는가 하는것을 우리에게 말하여주고 있다.

(《근검하게 합작사를 운영하며 산간지구를 건설한다》에 대한 평어)

## 40

이 합작사는 아주 훌륭하게 운영되고있다. 여기에서 유익한 경험들을 많이 섭취할수 있다. 공부현은 공자의 고향이다. 그 로인은 여기에서 여러해동안 학교를 꾸려 재능있는 학생을 많이 교양해냈는데 이 일은 아주 유명한것이다. 그러나 그는 인민들의 경제생활에는 그다지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그의 학생 번지가 그에게 농사를 어떻게 짓는가고 물으니 공자는 대답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뒤에서 번지를 《소인》이라고 욕까지 하였다[3]. 지금 그의 고향에 사는 인민들은 사회주의적합작사를 조직하였다. 2,000여년을 내려오면서 그냥 것처럼 빈곤하던 인민들이 합작사를 조직하여 3년 동안에 벌써 경제생활과 문화생활의 면모에 개편을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지금의 사회주의가 실로 전대미문의 위업이라는것을 실증하여준다. 사회주의는 공자의 《경서》보다 몇배나 더 좋은지 모른다. 나는 공자묘와 공자림에 가기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거기로 가는 길에 이 합작사에도 들러볼것을 권고하는바이다.

(《3년동안에 67%를 증산한 농업생산합작사》에 대한 평어)

## 41

이것은 아주 잘 쓴 글이니 한번 읽어볼만하다. 지

금 꾸리고있는 반사회주의적합작사들은 꾸리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 간부와 군중이 신속하게 경험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20~30호로 조직한 소형합작사가 많다. 그러나 소형합작사는 사람이 적고 땅이 적고 자금이 적으므로 대규모적경영을 할수 없고 기계를 사용할수 없다. 이런 소형합작사는 여전히 생산력의 발전을 촉박하게 되므로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점차적으로 합병하여야 한다. 어떤 지방에서는 한개 향을 한개 합작사로 할수 있고 소수 지방에서는 몇개 향을 한개 합작사로 할수 있다. 물론 한개 향에 몇개 합작사를 세운 지방도 많을것이다. 평원지구에서 대형합작사를 꾸릴수 있을뿐만아니라 산간지구에서도 대형합작사를 꾸릴수 있다. 안휘성 불자령저수지가 있는 그 향은 가로세로 수십리가 온통 산지인데도 농업, 립업, 목축업을 종합적으로 경영하는 대규모적인 합작사를 세웠다. 물론 이렇게 합병하는데는 절차가 있어야 하고 적당한 간부가 있어야 하며 군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형합작사의 우월성》에 대한 평어)

## 42

대형합작사와 고급합작사를 꾸리는것이 가장 좋다는 점은 해남도 홍기합작사의 경험에서도 증명되고있다. 이 대형합작사는 아직 력사가 1년밖에 안되지만 벌

짜 고급사로 넘어가려 하고있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합작사들이 다 이대로 하여야 한다는 말은 물론 아니다. 매개 합작사는 여전히 자기 조건의 성숙여부를 보아서 대체 어느때에 합작사를 합병하며 고급사로 넘어가는것이 적당하겠는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3년이면 비슷하다. 중요한것은 농민들에게 본을 보여주는것이다. 농민들은 대형합작사나 고급합작사가 소형합작사나 저급합작사보다 더 좋다는것을 목격하였을 때에는 합작사를 합병하며 고급사로 넘어갈것을 요구하게 될것이다.

(《경산현 제1구 흥기농업생산합작사는 자연 재해 및 자본주의사상파의 투쟁중에서 공고화되었다》에 대한 평어)

## 43

조건이 이미 성숙된 합작사에 대하여서는 생산력과 생산을 한걸음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초급형태로부터 고급형태로 전환시킬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초급형태의 합작사는 반사유제를 보존하고있는데 일정한 시기에 이르면 이런 반사유제가 생산력의 발전을 속박하게 되며 따라서 사람들은 이런 제도를 개변하고 합작사를 생산자료를 완전히 공유화한 집체적경영의 경제단체로 전환시킬것을 요구하게 된다. 생산력이 가일층 해방되면 생산이 더욱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전환

하는 시간을 말하면 어떤 곳에서는 좀 빨리 될수 있고 어떤 곳에서는 좀 늦게 될수도 있다. 대략 건립한지 3년가량 되는 초급합작사는 기본상 이런 조건을 구비하게 된다. 각 성, 각 시, 각 자치구의 당조직들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와 포치가 있어야 하며 1956년과 1957년 2년동안에 군중들이 동의하는 조건하에서 시점적인 고급사를 얼마간 꾸려야 한다. 지금 조직한 합작사들은 일반적으로 소형합작사인데 고급사로 전환할 때에는 군중들의 동의를 얻어 많은 소형합작사들을 대형합작사로 합병하여야 한다. 만일 이 두해동안에 매개 구마다 이런 합작사가 한개 내지 몇개씩 있게 되고 동시에 군중들가운데서 이런 합작사들이 초급사보다 더 큰 우월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이 과시되면 금후 수년간에 합작사를 합병하며 고급사로 넘어가는 공작에 유리한 조건이 갖추어지게 될것이다. 이 공작은 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면적규획과 배합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대형합작사나 고급합작사가 소형합작사나 초급합작사보다 더욱 유리하다는것을 보았을 때, 장기적인 규획을 통하여 자기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물질적 및 문화적 생활수준을 가져다주게 될 전망을 보았을 때 합작사를 합병하며 고급사로 넘어가는데 동의하게 될것이다. 성시교구에서는 좀더 빨리 고급사로 넘어갈수 있다. 북경의 이 합작사의 경험은 정황이 이와 유사한 기타 합작사들에서도 참고할수 있다.

(《초급형태로부터 고급형태로 과도한 합작사》에 대한 평어)

## 주 해

[1] 여기에서 말하는 《역진전》이란 군중들이 보편적으로 발동되어  
분분히 입사할것을 요구하는 때에 합작사들 조직하는 좋은 점과 유리한  
조건을 선전하는의에 또 군중들에게 봉착할수 있는 여러가지 곤란과 불  
리한 정황을 설명해줌으로써 모두가 충분히 고려해본 끝에 자원적으로  
입사하게 하는것을 가리킨다.

[2] 태닌의 《청년단의 임무》에 있다.

[3] 《튼어. 자로제13》을 참조하라.

## 농업17조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1955년 12월 21일)

중앙은 모택동동지가 금년 11월에 항주와 천진에서 각각 14개 성의 성위서기 및 내몽고자치구당위서기와 공동히 상의결정한 17조를 1월 10일 중앙에서 소집하는, 각 성위, 시위, 자치구당위 서기가 참가하는 회의에서 확정함으로써 그것을 1956년의 계획에 넣고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동무들은 이 전보를 받은후 즉시로 자기 산하의 각 지위서기와 일부분 현위서기를 불러다 아래와 같은 점들을 상세히 연구하기 바란다. (가) 전부 다 실현할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일부분은 실현할수 없는가, 매 조항마다 실현할 근거가 충분한가? (나) 17조이외에 더 보렐것이 없는가?(실시할수 있는 것이라면 보래도 좋다.) (다) 이것을 즉시 동무들의 1956년도계획에 넣고 실시하기 시작하려 하는가? 이상 몇가지에 대하여 1956년 1월 3일전으로 다 연구하고 의견을 준비하기 바란다.

17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중공중앙을 위하여 기초하신 상해국, 각 성위, 자치구당위에 보낸 통지이다.

(1) 농업합작화의 진도에 있어서는 1956년 하반기에 초급형태의 합작사 건립공작을 기본상 끝내되 성, 시, 자치구(신강을 제외함) 1급의 지표는 75%의 농호를 입사시키도록 하는것이 적당하다. 그리하여 아래에서 그보다 좀 초과하여 80% 내지 85%좌우에 달할 수 있도록 한다.

합작화의 고급형태는 1960년까지 기본상 완수하도록 하되 1년을 단축하여 1959년까지 기본상 완수하도록 할수 없겠는지? 그러기 위하여서는 1956년에 현에서, 좋기는 구에서 직접 장악하여 현마다 또는 구마다 대형(100호이상)의 고급사를 한개 내지 몇개씩 조직하고 1957년에 가서 또 한차례 조직하여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이 두차례에 조직되는 농호수는 전체 농호의 약 25%를 차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가능하겠는지? 그리고 소형합작사로부터 대형합작사로 넘어갈 때 규모는 어느 정도 큰것이 좋겠는지? 한개 향에 몇개 합작사를 조직하는것, 한개 향을 한개 합작사로 조직하는것, 여러개 향을 한개 합작사로 조직하는것, 이 세가지가 다 무방하겠는지? 전국의 합작사총수는 30만개 또는 40만개 또는 50만개, 이가운데서 대체 어느것을 취하는것이 적당하겠는지? 쓰련에는 10만개 사가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30몇만개거나 40만개로 하는것이 합당하지 않겠는지? 그리고 먼저 사를 합병한후에 고급사로 넘어가는것이 좋겠는지 아니면 사를 합병함과 동시에 고급사로 넘어가는것이 좋겠는지 아니면 먼저 고급사로 넘어간후에 합작사를 합병하는



것이 좋겠는지? 이상 몇가지를 함께 연구하기 바란다.

(2) 지주, 부농을 입사시키는데 있어서는 1956년에는 안휘, 산서, 흑룡강 등 성의 의견대로 하는것이 어떻겠는지? 그것은 즉 좋은자는 입사시키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자는 합작사에서 생산에 참가시키되 사원칭호는 주지 않고 나쁜자는 합작사의 관제밑에서 생산을 하게 하는것이며 간부력량이 강한 오랜 합작사들에서는 다 이렇게 할수 있다는것이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매우 많지만 결점이 하나 있다. 즉 지금까지도 입사하려 하지 않는 상중농들을 싫은대로 입사하지 않을수 없도록 꺾박하게 될것이다. 그런데 상중농을 먼저 입사시킨 다음에 지주, 부농을 입사시켜야 그들의 체면이 유지될수 있는것이다. 이렇게 하는것이 유리하겠는지 혹은 1년을 미루어 1957년에 가서 상술한 방법을 실시하는것이 유리하겠는지? 두가지 방법가운데서 어느것이 유리하겠는가를 연구하기 바란다.

(3) 합작사령도의 구성성분은 지금의 빈농과 원래 빈농이었던 전부의 신하중농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구하중농과 신구상중농이 3분의 1을 차지하도록 한다.

(4) 증산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몇가지 기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내용은 앞으로 토의하되 각지에서 약간 다르게 할수 있다.) (2) 선진경험을 보급시켜야 한다.(해마다 전형적인 실례들을 수집하여 성마다 한책씩 찍어내야 한다.)

(5) 1956년에 모든 성, 지구, 현, 구, 향들에서 필요한 항목이 다 포함된 전면적인 장기적계획을 세우

되 현과 향의 계획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상반년에 초고를 작성하고 하반기에 결정을 지어야 하며 앞으로 더 수정할수도 있다. 계획년한은 적어도 3년으로 하고 제일 좋기는 7년으로 하는 것이며 12년까지 할수도 있다. 이 일은 바싹 틀어쥐어야 할것인데 동무들은 이미 포치하였는지? 경험이 없기때문에 많은 계획들이 주밀하지 못하게 될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소수 현과 향의 계획은 비교적 실제에 가깝게 하여 보급시킬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소, 말, 노새, 나귀, 돼지, 양, 닭, 오리를 보호하고 번식시키기 위한, 특히는 유축을 보호하기 위한 전면적규획을 세워야 한다. 번식계획에 대하여서는 토의해보아야 하겠으니 의견을 준비하기 바란다.

(7) 하천류역에 대한 규획과 결합하여 소형수리시설을 대량적으로 건설함으로써 7년내에 일반적인 수재와 한재를 기본상 소멸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8) 7년내에 농작물에 불리한 10여종의 병충해를 기본상 소멸하여야 한다.

(9) 12년내에 황무지와 민둥산을 기본상 소멸하여야 한다. 모든 집주위, 마을주변, 길가, 물가 그리고 황무지와 민둥산에다, 즉 나무를 심을수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다 규격에 따라 나무를 심어 록화하여야 한다.

(10) 12년내에 대부분 지구에서는 90%의 비료를, 일부분 지구에서는 100%의 비료를 자기 지방과 합작사에서 자체로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12년내에 량곡 무당산량이 황하, 진령, 백룡강, 황하(청해성경내) 이북에서는 400근에 도달하고 황하이남, 회하이북에서는 500근에 도달하고 회하, 진령, 백룡강 이남에서는 800근에 도달하여야 한다. 면화, 유료작물, 콩, 잠사, 차엽, 황마, 사탕수수, 과일 등의 지표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토의할수 있도록 계획수자를 제출하여주기 바란다.

(12) 7년내에 인민과 가축을 가장 엄중하게 해치는 몇가지 질병, 폐를 들면 혈흡충병, 상피병, 폐스트, 뇌염, 소온역, 돼지온역 등을 기본상 소멸하여야 한다. 각 성, 자치구의 지방병가운데서 7년내에 기본상 소멸할수 있는것이 어떤것이고 그보다 더 걸려야 소멸할수 있는것이 어떤것이고 지금은 소멸할수 없는것이 어떤것인가 하는것을 연구하기 바란다.

(13) 4해를 제거하여야 한다. 즉 7년내에 쥐(그리고 기타 해로운 짐승), 참새(그리고 기타 해로운 새, 그러나 까마귀는 소멸하는것이 합당하겠는지 더 연구해보아야 한다.), 파리, 모기를 기본상 소멸하여야 한다[1].

(14) 7년내에 기본상 문맹을 퇴치하여 사람마다 반드시 1,500자 내지 2,000자씩 알게 하여야 한다.

(15) 7년내에 성, 지구, 현, 구, 향의 각종 필요한 길(그중 일부는 공로이고 일부는 큰길이고 일부는 작은 길이다.)을 규격대로 닦아야 한다.

(16) 7년내에 유선방송망을 건립하여 향마다, 합작사마다 다 유선방송을 들을수 있게 하여야 한다.

(17) 7년내에 향과 대형합작사의 전화망을 완성하여야 한다.

이상의 여러 조항들에 대하여 유관동지들과 함께 연구하여 1월 3일전으로 준비를 끝내기 바란다. 중앙에서는 1월 10일에 열리는 회의에 내용을 의견을 준비하기 위하여 아마 1월 4일전후에 먼저 몇개 성의 성 위서기들을 청하여 회의를 열고 며칠간 연구하게 될 것이다.

## 주 해

[1] 1960년 3월 모택동동지께서 중공중앙을 위하여 기초하신, 위생 공작에 관한 지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그리고 또 참새는 잡지 말고 그대신 빈대를 가침하여 <쥐, 빈대, 파리, 모기를 소멸하자>는 구호를 제기하여야 한다.》

## 수공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를 가속화하자\*

(1956년 3월 5일)

(1) 개체수공업에 대한 사회주의적개조는 속도가 좀 더디다고 생각된다. 금년 1월 성위, 시위서기회의 때에 벌써 나는 좀 더디다고 말한적이 있다. 1955년말까지 겨우 200만명밖에 조직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금년 첫 두달동안에 300만명을 발전시켰고\* 금년안으로 기본상 다 끝낼수 있다 하니 대단히 좋은 일이다. 동무들은 3차의 5개년계획기간에 수공업의 생산총액을 해마다 평균 10.9% 장성시키기로 예산하고있는데 좀 낮은것 같다. 제1차5개년계획에서 이것이 낮게 규정되어 다소 손실을 보고있는데 지금 변경시킬 필요는 없더라도 동무들이 공작과정에서 장악하여야 하겠다.

(2) 수공업합작사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100명좌우로 하는것이 좋으며 어떤것은 몇백명으로 할수도 있고 어떤것은 몇십명으로 할수도 있다.

(3) 철공, 목공 합작사를 조직하여 농업생산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며 농촌에 내려가서 농구를 수리하게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국무원 관계부에서 수공업공작정황을 회보할 때에 하신 지시의 일부분이다.

하는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다. 농민들이 틀림없이 환영할것이다. 중국의 수공업에는 몇천년을 내려오면서 이렇게 하여온것이 있다. 합작사를 조직한후 기술이 제고되면 농민을 위하여 더 훌륭히 복무할수 있다.

(4) 수공업을 개조하는 고조가운데서 수리업과 복무업이 집중하여 생산을 하면서 점방을 너무 많이 줄인 결과 군중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동무들이 말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좋지 않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것인가? 《천하대세란 나뉘는지 오래면 반드시 합하고 합한지 오래면 반드시 나뉘는 법이다.》

(5) 수공업생산의 로동생산물을 반기계화, 기계화생산의 로동생산물과 대비하여보면 최고와 최저의 차이가 30여배에 달한다. 1인당 년평균생산액을 놓고보면 국영현대화공업에서는 2만원 내지 3만원이고 반기계화, 기계화한 합작사에서는 5,000원이고 100명이상의 대형합작사에서는 2,000원이고 소형합작사에서는 1,500원이고 개체수공업에서는 800원 내지 900원이다. 로동생산물을 대비하여보면 수공업이 반기계화, 기계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하며 로동생산물을 반드시 높여야 한다는것이 명백하다.

(6) 수공업의 여러 업종들은 모두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거기에는 먹는것도 있고 입는것도 있고 쓰는것도 있다. 그리고 경태람이나 《포도상5처녀》<sup>[1]</sup>의 포도와 같은 공예미술품도 있다. 이밖에 오리구이가 있는데 그 기술은 수출할수 있는것이다. 일부 복무성업종에서는 거리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왕할머니에게 독을 때

주는 등으로 이것저것 수리를 해주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처로 돌아다니다니니 전문이 아주 넓다. 북경의 동효시라는 새벽장에는 6,000여종에 달하는 제품이 나온다.

수공업에는 훌륭한것이 많은데 그런것들을 없애지 말것을 동무들에게 부탁하는바이다. 왕곰보, 장소권의 칼과 가위는 만년후에 가서도 없애버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 고유한 훌륭한 물건들로서 없애버린것이 있다면 꼭 다시 회복하여야 할뿐만아니라 더욱 훌륭하게 만들어야 한다.

(7) 공예미술품의 수준을 높이며 민간의 로공예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대단히 좋으니 시급히 실시하며 좀 다그쳐야 한다. 동무들자체로 기구를 내오고 학원을 세우고 회의를 소집하면 된다. 상아조각을 하는 양사혜는 사실 대단히 고명한 예술가이다. 그는 나와 한상에 마주앉아 밥을 먹었는데 그사이에 나를 보고는 나의 조각상을 조각해낼수 있었다. 나같으면 며칠 두고보아도 화상도 그려내지 못할것 같다.

(8) 국가에서 합작사에 물자를 분배해줄 때는 합리하게 값을 매야 하며 국가의 분배가격대로 하여서는 안된다. 합작사는 국가기업과 같지 않으며 사회주의적 집체소유제는 사회주의적전민소유제와 구별된다. 합작사는 처음에는 경제적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므로 국가에서 방조해주어야 한다. 국가에서 새 기계를 가설하고 뜯어낸 낡은 기계, 공사합영공장의 합병한후에 남아도는 기계와 공장건물을 헐값으로 합작사에 넘겨주

는것은 아주 좋다. 《가지고싶거든 먼저 주라》는 말이 있다. 합작사의 기초가 튼튼해진후에는 국가에서 세금을 더 받아야 하며 원료도 값을 높여야 한다. 그때에 가면 합작사는 형식상에서는 집체소유이나 실제로 있어서는 전민소유로 될것이다.

국가는 합작사가 반기계화 또는 기계화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합작사자체도 반기계화 또는 기계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기계화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동무들의 수공업합작사의 수명은 짧아진다. 동무들의 《나라》가 축소될수록 우리의 사업이 더 잘된다. 동무들은 기계화를 가속화함으로써 국가에 더 많은것을 바치도록 힘써야 한다.

(9) 수공업생산액은 전국 공업생산총액의 4분의 1을 차지하는데 왜 그 공급, 생산, 판매를 국가계획에 넣지 않았는가? 수공업은 이렇게 큰만큼 응당 국가계획에 넣어야 한다.

(10) 어떤 지방의 당위에서는 바쁘다고 수공업을 의사일정에 올려놓지 않는데 이것은 좋지 못하다. 어떤 간부들은 어째서 수공업공작을 그리 하고싶어하지 않는가? 나는 이런 일을 하고싶은 생각이 많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것이다!

(11) 동무들은 6만여개의 수공업합작사조직가운데서 돌출한 실체들을 선택하여 전형재료를 만들어야 한다. 각 지구와 각 업종을 다 포함시키며 좋은것, 나쁜것, 큰것, 작은것, 집중적인것, 분산적인것, 반기계화한것, 기계화한것들을 다 포함시켜 《중국농촌에서의 사



---

회주의고조》와 같은 그런 책을 내야 한다.

## 주 해

[1] 유리포도틀 만드는것으로 이름이 난 북경 수공업공예사 상찌네 다섯 부녀를 가리킨다.

## 10대관계에 대하여\*

(1956년 4월 25일)

최근 몇달동안 중앙정치국에서는 중앙의 공업, 농업, 운수업, 상업, 재정 등 34개 부문의 공작회보를 청취하였으며 그가운데서 사회주의건설과 사회주의적 개조에 관계되는 약간의 문제들을 발견하였다. 종합하면 그것은 도합 10개 문제, 즉 10대관계이다.

여기서 제출하는 이 10개 문제는 모두다 국내외의 모든 적극적인 요소를 동원하여 사회주의사업에 복무시키는 하나의 기본적방침을 둘러싸고 제기되고있는 것이다. 지난날 우리는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의 통치를 종결짓기 위하여, 인민민주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적극적인 요소를 동원하는 방침을 실시하여왔다. 오늘은 사회주의혁명을 진행하며 사회주의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이 방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업에는 말하지 않으면 안될 문

- 
-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중공중앙 정치국확대회의에서 하신 강화이다. 이 강화에서 모택동동지께서는 쓰련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 나라의 경험을 총결하시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중의 10대관계를 론술하시였으며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값이, 빨리, 좋게, 절약하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총로선의 기본사상을 제출하시였다.

제들도 더러 있다. 특히 주의를 돌려야 할것은 최근에 쏘련측에서 드러난, 사회주의건설과정에 있어서의 그들의 일부 결함과 착오들이다. 그들이 걸은 굽은 길을 따라가서야 되겠는가? 지난날 우리는 바로 그들의 경험교훈을 거울로 삼았기에 굽은길을 적게 걸었는데 지금은 물론 더욱더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것이다.

국내외의 적극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국내에서는 공인과 농민이 기본력량이다. 중간세력은 쟁취할수 있는 력량이다. 반동세력은 소극적인 요소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공작을 잘하여 될수 있는대로 이 소극적인 요소를 적극적인 요소로 전화시켜야 한다. 국제상에서는 단결할수 있는 모든 력량을 단결하여야 하며 중립하지 않고있는것은 중립하도록 쟁취할수 있고 반동적인것도 분화시키고 리용할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모든 직접적인 력량과 간접적인 력량을 동원하여 우리나라를 강대한 사회주의나라로 건설하기 위하여 분투하여야 한다.

이제 나는 10개 문제를 말하겠다.

## 1.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과의 관계

중공업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 건설의 중점이다. 생산자료의 생산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것은 이미 확정된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생활자료, 더우기 량곡의 생산을 홀시하여서는 결코 안된다. 만

일 충족한 량식과 기타 생활필수품이 없다면 우선 공인을 먹여살릴수도 없는데 어떻게 중공업의 발전을 운운할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과의 관계를 반드시 옳게 처리하여야 한다.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과의 관계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원칙적인 착오를 범하지 않았다. 우리는 쏘련이나 일부 동구라파나라들보다는 잘 처리하였다. 쏘련에는 량곡산량이 장기간 혁명전의 최고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일부 동구라파나라들에는 경공업과 중공업의 발전이 매우 불균형하여 엄중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편면적으로 중공업에 치중하고 농업과 경공업을 홀시하였으며 따라서 시장에는 물건이 부족하고 화폐도 불안정하다. 우리는 농업과 경공업을 비교적 중시하고있다. 우리는 줄곧 농업을 틀어쥐었고 농업을 발전시켰으며 그리하여 공업발전에 필요한 량곡과 원료를 팬찮게 보장하였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민생일용상품이 비교적 풍부하며 물가와 화폐가 안정하다.

지금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문제는 중공업과 농업, 경공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한층 더 적당히 조절하여 농업과 경공업을 더 많이 발전시키는것이다. 이렇게 하면 중공업을 위주로 하지 않는것이 아닌가? 중공업은 여전히 위주이며 여전히 투자의 중점이다. 그러나 농업과 경공업에 대한 투자의 비례를 좀더 높여야 한다.

비례를 높이면 결과가 어떠하겠는가? 비례를 높이

면 첫째로, 인민생활의 수요에 더 잘 공급할수 있으며 둘째로, 자금의 축적을 더 빨리 증대시킬수 있으며 따라서 중공업을 더 많이, 더 잘 발전시킬수 있다. 중공업에서도 축적을 할수 있지만 우리의 현재의 경제조건 하에서는 경공업과 농업에서 더 많이, 더 빨리 축적된다.

여기에서 한가지 문제가 나선다. 그것은 즉 중공업을 발전시키려는 생각이 대체 정말인가 거짓인가, 그 생각이 간절한가 덜한가 하는것이다. 만일 그 생각이 거짓이거나 덜하다면 농업과 경공업을 타격할것이며 그것들에 좀 적게 투자할것이다. 만일 그 생각이 정말이거나 간절하다면 농업과 경공업에 중시를 돌릴것이며 그리하여 양곡과 경공업원료가 더 많아지고 축적이 더 많아지게 할것이다. 따라서 중공업방면에 투입되는 자금도 앞으로 더 많아지게 될것이다.

지금 중공업을 발전시키는데는 우리에게 두가지 방법이 있을수 있다. 한가지 방법은 농업과 경공업을 덜 발전시키는것이고 다른 한가지 방법은 농업과 경공업을 많이 발전시키는것이다. 장원한 견지에서 보면 전자의 방법은 중공업을 더 적게, 더 더디게 발전시키게 될것이며 따라서 적어도 그 기초가 그리 견고하지 못하게 될것이다. 그러니 몇십년후에 가서 총적으로 따져보면 수지가 맞지 않을것이다. 후자의 방법은 중공업을 더 많이, 더 빨리 발전시키게 될것이며 또한 인민생활의 수요를 보장하기때문에 그 발전의 기초가 더 견고하게 될것이다.

## 2. 연해공업과 내지공업과의 관계

우리 나라의 공업은 과거에는 연해에 집중되어 있었다. 연해라는것은 료녕, 하북, 북경, 천진, 하남성 동부, 산둥, 안휘, 강소, 상해, 절강, 복건, 광둥, 광서를 말한다. 우리 나라의 전체 경공업과 중공업은 어느것이나 다 70%좌우가 연해에 있고 내지에는 30%밖에 없다. 이것은 력사적으로 형성된 불합리한 상태이다. 연해의 공업기지는 충분히 리용하여야 하지만 공업발전의 분포를 균형이 잡히게 하기 위하여서는 내지의 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 량자간의 관계문제에서도 우리는 큰 착오를 범하지 않았다. 문제는 다만 최근 몇해동안에 연해공업에 대한 평가가 좀 부족하였고 그 발전을 그리 충분히 중시하지 않은데 있다. 이 점은 개변하여야 한다.

이전에는 조선에서 아직 싸우고있었고 국제형세도 매우 긴장하여 연해공업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그 영향을 받지 않을수 없었다. 지금은 새로운 중국침략전쟁이나 새로운 세계대전이 짧은 기간내에는 일어나지 않을것으로 예전된다. 아마 10년 또는 그보다 더 긴 평화시기가 있을것이다. 그런데도 연해공업의 설비능력과 기술력량을 충분히 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옳지 않을것이다. 10년이 아니라 5년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역시 연해에서 4년동안은 공업을 잘 꾸려야 하며 5년만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에 옮겨야 한다. 현유의

재료로 보면 경공업공장은 그 건설이나 축적이나 다 일반적으로 빠르다. 완전히 생산에 투입되어 4년이면 그 공장에 투자한것을 회수하는외에 또 그만큼 공장 세개 또는 두개 또는 한개 또는 적어도 반개를 더 벌 수 있다. 이렇게 좋은 일을 왜 하지 않겠는가? 원자단이 이미 우리의 머리에 있으며 몇초사이에 떨어질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형세판단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바 그러한 판단으로부터 연해공업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것은 옳지 않다.

그렇다 하여 새 공장을 다 연해에 세우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공업은 그 대부분을 내지에 배치함으로써 공업분포를 점차 균형이 잡히게 하고 또 전 시준비에도 유리하게 하여야 한다는것은 조금도 의심할바 없다. 그러나 연해에도 약간의 새로운 공장, 광산을 건설할수 있으며 대형적인것도 좀 건설할수 있다. 연해의 기유의 경공업과 중공업의 확건, 개건에 대하여 말하면 지난날 이미 얼마간 확건, 개건하였는데 앞으로 더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연해에 있는 원래의 공업기초를 잘 리용하고 발전시키면 우리는 더욱 큰 힘을 얻어 내지공업을 발전시키며 지지할수 있다. 만일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내지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방해하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또한 내지공업을 발전시키려는 생각이 정말인가 거짓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만일 그 생각이 거짓이 아니고 정말이라면 연해공업, 특히 경공업을 더 많이 리용하고 더 많이 발전시켜야 한다.

### 3. 경제건설과 국방건설과의 관계

국방이 없어서는 안된다. 지금 우리는 일정한 국방력을 가지고있다. 항미원조와 수년간의 정돈훈련을 거쳐 우리의 군대는 강화되어 제2차세계대전이전의 쓰련홍군보다 더 강대하여졌고 장비도 일정하게 개선되었다. 우리의 국방공업은 바로 건설중에 있다. 반고가 천지를 개벽한 이래로 우리는 비행기도 자동차도 만들 줄 몰랐으나 이제부터는 만들수 있게 되었다.

지금 우리에게서 아직 원자탄이 없다. 그러나 과거에도 우리에게서 비행기와 대포가 없었는데 우리는 좁쌀에 보총을 가지고 일본제국주의와 장개석을 격파하였던 것이다. 지금 우리는 과거보다 강대하여졌으나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강대해져야 하며 더 많은 비행기와 대포가 있어야 할뿐만아니라 원자탄도 있어야 한다. 오늘 세계에서 우리가 남에게 멸시당하지 않으려면 이것이 없어서는 안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것인가? 믿음직한 방법은 군정비용의 비례를 적당히 낮추고 경제건설비용을 증가하는것이다. 경제건설이 더 빨리 발전하여야 국방건설이 더욱 큰 진보를 가져올수 있다.

1950년에 당의 7기3중전회에서 이미 우리는 국가기구를 정간하며 군정비용을 감소시킬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것을 우리 나라 재정경제정황의 근본적호전을 가져오기 위한 세가지 조건의 하나로 인정하였던것이 다. 제1차5개년계획기간에는 군정비용이 국가예산총지



출의 30%를 차지한다. 이 비중은 너무 높다. 제2차5개년계획기간에는 그 비례를 20%좌우로 낮추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자금을 떼내어 공장을 더 많이 세우고 기계를 더 많이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한 동안 지나면 우리에게는 많은 비행기와 대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자신의 원자탄도 있게 될것이다.

여기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나선다. 즉 원자탄을 가지려는 생각이 정말이고 간절한가 아니면 간절하지 않고 좀 생각하는데 불과한가 하는것이다. 그 생각이 정말이고 간절하다면 군정비용의 비중을 낮추고 경제건설을 많이 할것이며 그 생각이 정말이 아니고 간절하지 않다면 그냥 이전대로 할것이다. 이것은 전략방침문제이니 군사위원회에서 토론하기 바란다.

지금 우리가 군대를 몽땅 축소해버려도 좋겠는가? 그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아직도 적들이 있고 우리는 아직도 적들에게 멸시당하며 포위되어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반드시 국방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건설을 강화하여야 한다.

#### 4. 국가와 생산단위와 생산자 개인과의 관계

국가와 공장, 합작사와의 관계, 공장, 합작사와 생산자개인과의 관계, 이 두가지 관계를 다 잘 처리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한쪽만 돌볼것이 아니라 국가, 집체, 개인 이 세 방면을 고루 돌보아야 한다. 다

시말하면 우리가 과거 늘 말하던 《군민경고》, 《공사경고》를 하여야 한다. 쏘련과 우리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앞으로 반드시 이 문제를 더 잘 해결하여야 한다.

공인을 놓고 말하면 공인의 로동생산물이 높아짐에 따라 그들의 로동조건과 집체복지도 점차 개선되어야 한다. 종래로 우리는 간고분투할것을 제창하여왔고 개인의 물질적리익을 무엇보다도 높이 보는것을 반대하여왔으며 동시에 우리는 또 군중의 생활에 관심을 돌릴것을 제창하여왔고 군중의 고통에 관심을 돌리지 않는 관료주의를 반대하여왔다. 전반 국민경제가 발전됨에 따라 공자도 적당히 조절하여야 한다. 공자에 관하여서는 최근에 얼마간 증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상하 두방면의 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하여 주로 아래의 공자를, 공인들의 공자를 증가시키기로 하였다. 우리의 공자는 일반적으로 아직 높지 않지만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많아졌기때문에, 물가가 낮고 파동이 없기때문에 그리고 또 기타의 여러가지 조건으로 하여 공인들의 생활이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 무산계급의 정권밑에서 공인들의 정치각오와 로동적극성은 출몰 매우 높다. 작년말에 중앙에서 우경보수를 반대할것을 호소하자 공인군중들은 이를 열렬히 지지하였으며 3개월간 분투하여 금년의 1계도계획을 전례없이 초과완수하였다. 우리는 그들의 이러한 간고분투의 정신을 극력 발양시켜야 하며 또 로동과 생활에서의 그들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한층 주의를 돌려야 한다.

여기에서 통일적평도하에서의 공장의 독립성문제도

말하려 한다. 무엇이나 다 중앙이나 성, 시에 집중시키고 공장에는 조그마한 권력도, 조그마한 기동의 여지도, 조그마한 리익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중앙과 성, 시와 공장의 권력과 리익을 각기 어느 정도로 하면 적당하겠는지 우리에게 는 경험이 많지 않으므로 계속 연구하여야 하겠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통일성과 독립성은 대립물의 통일이다. 그러므로 통일성도 있어야 하고 독립성도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회의를 하고있는것은 통일성이고 회의가 끝난 다음 어떤 사람은 산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책을 보고 어떤 사람은 밥을 먹는데 이것은 독립성이다. 만일 우리가 매개인에게 산회후의 독립성은 주지 않고 끝없이 그저 회의만 계속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리게 될것이 아닌가? 개인이 이럴 뿐아니라 공장과 기타 생산단위도 역시 이렇하다. 어느 생산단위나 다 통일성과 련계된 독립성을 가져야 더욱 활기있게 발전할수 있다.

다음에는 농민에 대하여 말해보자. 우리와 농민과의 관계는 종래로 좋았다. 그러나 량곡문제에서 우리는 착오를 범한적이 있었다. 1954년에 우리 나라 일부 지역에 수재가 들어 감산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량곡 70억근을 더 수매하였다. 이렇게 감산된데다가 더 수매하였으므로 작년봄에 많은 지방들에서 사람마다 량식소리를 하고 집집마다 계획적판매를 운운하게 되었다. 농민들이 의견이 있었으며 당내, 당외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과장

하고 이 기회를 타서 공격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결함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조사가 부족하고 실정을 잘 몰라 70억근을 더 수매한 이것이 바로 결함이다. 우리는 결함을 발견하고 1955년에는 70억근을 적게 수매하였으며 또 《3정》을 실시하였다. 즉 생산량을 정하고 구매량을 정하고 판매량을 정하였다. 거기에 또 풍년까지 들었다. 이렇게 수매량은 감소되고 생산량은 증가되었으므로 농민들 손에 200여억근의 량식이 더 남게 되었다. 그리하여 과거 의견이 있던 농민들도 《공산당은 정말 좋다》고 말하게 되었다. 전당은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선에서는 농민들에게서 가혹하게 굶어가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그들은 소위 의무적 판매제〔1〕 등 방법을 써서 농민이 생산한 것을 너무 많이 가져가고 값은 너무 낮게 준다. 그들이 이런 방법으로 자금을 축적하기 때문에 농민의 생산적극성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닭이 알을 많이 낳기를 바라면서 모이는 주지 않으며 말이 빨리 달리기를 바라면서 여물은 주지 않는다. 세상에 어디 이런 도리가 있는가!

농민들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조선의 그런 정책이 아니라 국가와 농민의 이익을 고루 돌보는 정책이다. 우리의 농업세는 종래로 비교적 경하다. 공업제품과 농산물의 교환에 있어서 우리는 협상가격차를 축소하며 등가교환을 하거나 근사한 등가교환을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우리는 농산물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계획적으로 수매하여 농민들에게 손해를 주지 않을뿐 아니라

또 수매가격을 점차 높이고 있다. 우리는 농민들에게 공업품을 공급하는 면에서는 리윤을 적게 붙이고 많이 팔며 물가의 안정을 유지하거나 가격을 적당히 낮추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량식이 부족한 지역의 농민들에게 량식을 공급하는 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약간 보조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만일 소홀히 대하면 역시 이러저러한 착오를 범할수 있다. 이 문제에서 쓰련이 엄중한 착오를 범한데 비추어 우리는 국가와 농민과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데 더한층 주의를 돌려야 한다.

합작사와 농민과의 관계도 잘 처리하여야 한다. 합작사의 수입중에서 국가는 얼마를 받아가고 합작사는 얼마를 남겨두고 농민은 얼마를 타가며 또 그것을 어떻게 나누겠는가에 대하여 적절한 규정을 지어야 한다. 합작사에 남겨두는 부분은 모두가 직접 농민들을 위하여 사용되는것이다. 생산비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관리비도 필요한것이며 공적금은 확대재생산을 위한것이고 공익금은 농민의 복리를 위한것이다. 그러나 이러한것들을 각각 얼마로 하겠는가에 대하여서는 농민들과 같이 연구하여 합리한 비례를 정하여야 한다. 생산비나 관리비는 극력 절약하여야 한다. 공적금, 공익금도 일정한 통제가 있어야 하며 한해동안에 좋은 일을 다 하려 하여서는 안된다.

특별히 엄중한 자연재해가 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생산의 증가에 기초하여 해마다 90%의 사원들의 수입이 전해보다 증가되고 10%의 사원들의 수입도 중

가되지는 못할망정 감소되지는 않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만일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와 공장, 국가와 공인, 공장  
과 공인, 국가와 합작사, 국가와 농민, 합작사와 농민  
에 대하여 한쪽만 돌보지 말고 고루 돌보아야 한다.  
어느쪽이든 한쪽만 돌보면 사회주의에 불리하고 무산  
계급전정에 불리하다. 이것은 6억 인민에게 관계되는  
큰 문제이므로 전당과 전국 인민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 5.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역시 하나의 모순이다. 이  
모순을 해결함에 있어서 지금 주의를 돌려야 할것은  
중앙의 통일적령도를 공고히 하는 전제하에서 지방의  
권력을 좀 확대하고 지방에다 더 큰 독립성을 주어 지  
방으로 하여금 더 많은 일을 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것  
이다. 이렇게 하는것이 우리가 강대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는데 비교적 유리하다. 우리 나라는 이렇게 크고  
인구가 이렇게 많으며 정황이 이렇게 복잡하므로 중앙  
과 지방 두 방면의 적극성이 있는것이 한 방면의 적극  
성만 있는것보다 훨씬 더 낫다. 우리는 소련에서처럼  
그렇게 모든것을 다 중앙에 집중하고 지방에 대하여서  
는 조금도 기동권을 주지 않고 꼼짝못하게 제한하여  
서는 안된다.

중앙에서도 공업을 발전시키고 지방에서도 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중앙직속공업이라 하더라도 역시 지방의 협조가 필요하다. 농업과 상업에 대하여 말하면 그것은 더구나 지방에 의거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발전시키려면 지방의 적극성을 발휘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중앙을 공고히 하려면 지방의 리익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지금은 수십개의 손이 지방에 뻗어서 지방에서 일을 하기 어렵게 하고있다. 부를 설치한 이상 혁명을 해야 하고 혁명을 하자니 명령을 내리게 된다. 각 부에서 성위, 성인민위원회에 명령을 내리기는 거북하니 성, 시의 청, 국과 수직선을 이루고 매일같이 청과 국에다 명령을 내린다. 이런 명령은 비록 당중앙에서도 모르고 국무원에서 모르고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중앙에서 온것이라 하니 지방에 주는 압력이 대단히 크다. 통계표가 너무 많아 재난을 이룰 지경이다. 이런 상태는 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지방과 토의하여 일을 처리하는 작풍을 제창한다. 당중앙은 일을 처리할 때 언제나 지방과 토의하며 지방과 토의하지 않고서는 무턱대고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 이 방면에서 우리는 중앙의 각 부에서 지방과 관계되는 일은 먼저 지방과 토의하고 합의를 본 후에 명령을 내리도록 충분한 주의를 돌릴것을 희망한다.

중앙의 부문은 두가지 류형으로 나눌수 있다. 한가지 류형은 그의 령도가 직접 기업에까지 미치며 지방

에 설치한 그의 관리기구와 기업을 지방에서 감독하도록 하는것이다. 한가지 유형은 그의 임무는 지도방침을 제기하고 공작규획을 작성하는데 그치고 사업은 지방에 의거하여 진행하며 지방에서 처리하도록 하는것이다.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이것은 우리와 같은 이런 큰 나라, 큰 당을 놓고 말하면 극히 중요한 문제인것이다. 이 문제는 일부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매우 중시되고있다. 그들의 제도는 우리의 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그들의 발전경험은 우리에게도 연구할 가치가 있는것이다. 우리자신의 경험을 놓고 말하면 우리가 전국초기에 실시한 그 대행정구제도는 그 당시에는 필요한것이였으나 결함도 있었다. 후에 있는 고강-요수석반당련맹은 어느 정도 이 결함을 리용하였던것이다. 그후 대행정구를 취소하고 각 성을 중앙에 직속시키기로 결정하였는데 이것은 정확한것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지방의 필요한 독립성까지 취소하는데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역시 그리 좋지 않다. 우리의 헌법에는 립법권은 중앙에 속한다고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중앙의 방침에 위반되지 않는 조건하에서 정황과 공작수요에 따라 지방에서 장정, 조폐, 방법 등을 제정할수 있다. 이것은 헌법이 제한하고있지 않다. 우리에게는 통일성이 필요하며 특수성도 필요하다. 강대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려면 중앙의 강유력한 통일적령도가 있어야 하며 전국적인 통일적계획과 통일적기틀이 있어야 한다. 이런 필요한 통일을 파괴하는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동시에 또 지방의 적극성도 충분



히 발휘시켜야 하며 각 지방에서 당지의 정황에 맞는 특수성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수성은 고강의 그런 특수성이 아니라 전체의 리익을 위하여, 전국의 통일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되는 특수성이다.

이밖에 또 지방과 지방과의 관계문제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것은 주로 지방의 상하급간의 관계문제이다. 성, 시에서 중앙의 부문들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데 지구, 현, 구, 향은 성, 시에 대하여 의견이 없겠는가? 중앙에서 성, 시의 적극성을 잘 발휘시켜야 하거니와 성, 시에서도 지구, 현, 구, 향의 적극성을 잘 발휘시켜야 하며 너무 지나치게 구속해서는 안된다. 물론 하부의 동지들에게 어떤 일은 반드시 통일하여야 하고 제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는것도 알려주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통일하는것이 좋고 또 통일하여야 할것은 반드시 통일하여야 하며 통일하는것이 좋지 않고 또 통일하지 말아야 할것은 억지로 통일하려 해서는 안된다. 정당한 독립성, 정당한 권리는 성, 시, 지구, 현, 구, 향에 다 있어야 하며 또 그것을 다루어야 한다. 전국의 전반적리익에서 출발하여 권리를 다루는 이것은 본위적인 리익에서 출발하여 권리를 다루는것이 아니므로 지방주의라고 할수 없으며 독립성을 부리는것이라고 할수 없다.

성, 시와 성, 시사이의 관계도 역시 지방과 지방과의 관계에 속하며 역시 옳게 처리하여야 하는것이다. 종래로 우리는 전반적국면을 돌보며 서로 돕고 서로 양

보하는 원칙을 제창하여왔다.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과의 관계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경험은 아직 많지 않으며 성숙되지 못하였다. 동무들이 잘 연구, 토론하며 시기시기 경험을 총결함으로써 성적을 발양하고 결함을 극복하기 바란다.

## 6. 한족과 소수민족과의 관계

한족과 소수민족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비교적 온당하며 소수민족들에게서 상당히 찬성을 받고있다. 우리는 치중하여 대한족주의를 반대한다. 지방민족주의도 반대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은 중점이 아니다.

우리 나라의 소수민족은 인수는 적지만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넓다. 인구로 말하면 한족이 94%이며 압도적다수이다. 만일 한족이 대한족주의를 부리어 소수민족을 차별시킨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지 못하다. 그러면 땅은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있는가? 땅은 소수민족이 더 많이 차지하고있으며 50% 내지 60%를 차지하고있다. 중국은 땅이 넓고 물산이 풍부하며 인구가 많은 나라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실지는 한족이 《인구가 많고》 소수민족이 《땅이 넓고 물산이 풍부하다》. 적어도 지하자원에 대하여 말하면 아마 소수민족이 《물산이 풍부》할것이다.

모든 소수민족이 다 중국의 력사에 기여하였다.

한족은 인구가 많은데 그것도 역시 장기간에 걸쳐 여러 민족의 혈통이 혼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력사상의 반동통치자들, 주로는 한족의 반동통치자들이 우리 여러 민족들사이에 이러저러한 간극을 조성하고 소수민족을 멸시하였다. 이러한 정형에 의하여 조성된 영향은 로동인민들사이에서도 단시일내에 제거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부들에게나 인민군중들에게나 할것없이 무산계급의 민족정책교육을 널리, 지구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또 경상적으로 주의를 돌려 한족과 소수민족과의 관계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태전에 한차례 검사하였는데 지금 또 한번 검사하여야 한다. 만일 관계가 정상적이 아니라면 말하는데만 그치지 말고 착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도대체 소수민족지구의 경제관리체제와 재정체제를 어떻게 하는것이 적절하겠는지 잘 연구하여보아야 한다.

우리는 소수민족의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의 발전을 성심성의로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쏘련에서는 로씨야 민족과 소수민족과의 관계가 아주 비정상적이다. 우리는 이 교훈을 섭취하여야 한다. 하늘의 공기, 지상의 삼림, 지하의 자원은 모두 사회주의건설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모든 물질요소는 오직 인적요소를 통하여서만 개발하고 리용할수 있다. 우리는 한족과 소수민족과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 여러 민족들간의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위대한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다같이 힘써야 한다.

## 7. 당과 비당파의 관계

대체 당이 하나인것이 좋은가, 여럿인것이 좋은가? 지금 보기에는 당이 여럿인것이 좋을것 같다. 과거에도 그러했거니와 앞으로도 그러한것이 좋을것이다. 말하자면 장기적으로 공존하며 호상 감독할것이다.

우리 국내에는 일본침략자를 항격하며 장개석을 반대하는 투쟁가운데서 형성된, 민족자산계급 및 그 지식분자들을 위주로 하는 많은 민주당파들이 지금도 계속 존재하고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쏘련과 다르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민주당파를 남겨두고 그들에게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주며 그들에 대하여 단결도 하고 투쟁도 하는 방침을 취한다. 우리에게 선의적으로 의견을 제기하는 모든 민주인사들에 대하여 우리는 단결하여야 한다. 위립황, 옹문호와 같은 애국심이 있는 국민당군정인원들에 대하여 우리는 계속 그들의 적극성을 동원하여야 한다. 룡운, 량수명, 팽일호와 같이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우리는 그들을 먹여살려야 하며 그들이 욕하도록 놓아두고 그 욕에 도리가 없으면 반박하고 도리가 있으면 접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당에 대하여, 인민에 대하여, 사회주의에 대하여 비교적 유리하다.

중국에는 지금 여전히 계급과 계급투쟁이 있는만큼 여러가지 형태의 반대파가 없을수 없다. 모든 민주당파와 무당파민주인사들이 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접

수한다고 표시하고는 있지만 그들가운데의 많은 사람들은 실제상 부동한 정도의 반대파들이다. 《혁명을 끝까지 진행하는》 문제, 항미원조문제, 토지개혁문제 등등에서 그들은 반대하기도 하고 반대하지 않기도 하였다. 반혁명을 진압한데 대하여 그들은 지금까지도 의견이 있다. 그들은 공동강령이 대단히 좋다고 하면서 사회주의류형의 헌법을 제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초안이 나오자 그들은 또 모두가 손을 들어 찬성하였다. 사물이란 흔히 자기의 반면으로 나아가는 법이다. 많은 문제에서 민주당파들이 취한 태도도 역시 이렇하다. 그들은 반대파이며 또 반대파가 아니기도 하다. 그들은 흔히 반대하던데로부터 반대하지 않는데로 나아간다.

공산당이나 민주당파나 다 역사적으로 산생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산생된것은 모두다 역사적으로 소멸된다. 그러므로 공산당도 결국은 소멸되는 날이 있을 것이며 민주당파들도 결국은 소멸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소멸되는것이 그리 불쾌한 일이겠는가? 내가 보기에는 매우 통쾌한 일이다. 공산당과 무산계급전정이 그 어느날 필요없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우리의 임무는 그것들이 하루속히 소멸되도록 촉진하는것이다. 이 도리에 대하여 과거 우리는 이미 여러번 말하였다.

그러나 무산계급정당과 무산계급전정이 지금은 없어서는 안되며 그뿐만아니라 계속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지 않으면 반혁명을 진압할수 없고 제국주

의에 저항할수 없고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없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하였다 하더라도 공고히 할수 없다. 무산계급정당 및 무산계급전정에 관한 레닌의 이론은 절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것처럼 《이미 때가 지난것》이 아니다. 무산계급전정, 그것은 매우 큰 강제성이 없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반드시 관료주의를 반대하여야 하며 기구가 방대해지는것을 반대하여야 한다. 사람이 죽지 않고 일이 중지되지 않는 조건하에서 당 및 정부의 기구를 대대적으로 정간하여 3분의 2를 줄일것을 나는 건의한다.

그렇지만 당 및 정부의 기구를 정간한다 하여 민주당파를 없애야 한다는것은 아니다. 통일전선공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과 우리와의 관계를 개선하며 사회주의에 복무하도록 그들의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기 바란다.

## 8. 혁명과 반혁명과의 관계

반혁명은 어떤 요소인가? 그것은 소극적요소이고 파괴적요소이며 적극적요소의 반대력량이다. 반혁명이 전변될수 있는가? 물론 극히 완고한 일부 반혁명은 전변될수 없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조건하에서는 그들 가운데의 대다수가 앞으로 부동한 정도의 전변을 가져올것이다. 우리가 정확한 정책을 취하였기때문에 지금까지 않은 반혁명분자들이 이미 개조되어 반혁명을 하지 않게 되었으며 더러는 다소 유익한 일까지 하였다.

다음의 몇가지 점을 긍정하여야 한다.

첫째, 1951년과 1952년에 있는 그 반혁명진압은 필요한것이였다는것을 긍정하여야 한다. 그때의 반혁명진압은 하지 않아도 될것이였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런 견해는 그릇된것이다.

반혁명분자를 취급하는 방법으로는 죽이고, 가두고, 관제하고, 놓아두는 등이 있다. 죽인다는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다. 가둔다는것은 가두어놓고 로동개조를 시키는것이다. 관제한다는것은 사회에 두고 군중들의 감독밑에 개조시키는것이다. 놓아둔다는것은 체포하여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될자는 일반적으로 체포하지 않으며 혹은 체포한후에 표현이 좋으면 내어놓는것이다. 반혁명분자에 대하여 부동한 정황에 따라 각이하게 처리하는것은 필요한것이다.

이제 죽이는 문제에 대해서만 말하겠다. 그번 반혁명진압에서 더러 죽였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였는가? 백성들이 매우 중요하고 혈채가 많은 반혁명분자들이였다. 6억 인민의 대혁명에서 《동파왕》, 《서파왕》과 같은자들을 죽이지 않고서는 인민들이 일어날수 없는것이다. 만일 그번의 진압이 없었더라면 오늘에 와서 우리가 관대정책을 취하는데 대하여 백성들은 찬동하지 않을것이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쓰딸린이 일부 사람들을 잘못 죽였다는 말을 듣고 우리가 그번에 죽인 반혁명분자들도 잘못 죽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 과거 죽인것이 근본적으로 옳았다는것을 긍정하는것은 목전에 있어서 실제적의의를 가진다.

둘째, 아직도 반혁명분자가 '있다는것, 그러나 훨씬 적어졌다는것을 긍정하여야 한다. 호풍문제가 발생한 뒤 반혁명분자를 사출한것은 필요하였다. 아직 사출해내지 못한자들은 계속 사출해내어야 한다. 지금도 소수의 반혁명분자들이 있다는것을 긍정하여야 한다. 그들은 아직도 이를테면 소를 죽이고 양곡을 불사르고 공장을 파괴하고 정보를 훔치고 반동표어를 붙이는 등등의 각종 반혁명파괴활동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그러므로 반혁명이 이미 숙청되었으니 태평무사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는것은 옳지 않다. 중국과 세계에 아직 계급투쟁이 있는 한 언제든지 경각성을 늦추어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지금도 반혁명분자가 아주 많다고 하는것도 역시 옳지 않다.

셋째, 앞으로 사회적으로 진행되는 반혁명진압에서 적게 체포하고 적게 죽여야 한다. 사회상의 반혁명분자들은 백성들의 직접적인 원수여서 백성들이 몹시 미워하기때문에 소수 사람들은 역시 죽여야 한다. 그들중의 다수는 농업협작사에 맡겨 관제밑에서 생산에 참가하게 하며 로동개조를 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도 죽이지 않는다고 선포할수 없으며 사형을 폐지할수는 없다.

넷째, 기관, 학교, 부대에서는 반혁명분자를 사출함에 있어서 연안에서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하나도 죽이지 않으며 대부분을 체포하지 않는 방침을 견지하여야 한다. 확실한 근거가 있는 반혁명분자에 대하여서는 기관에서 심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들을 공안



국에서 체포하지 않으며 검찰기관에서 기소하지 않으며 법원에서 재판하지 않는다. 100명의 반혁명분자 가운데서 90명은 이렇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을 체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죽이는 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하나도 죽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을 죽이지 않는가? 호풍, 반한년, 요수석과 같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며 포로된 전쟁범죄자 선통황제, 강택과 같은 사람도 죽이지 않는다. 죽이지 않는것은 그들에게 죽일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죽이면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 죽이면 두번째, 세번째 사람을 그와 비교하게 되어 많은 사람이 목이 떨어지게 된다. 이것이 첫째이다. 둘째는 사람을 잘못 죽일수 있다. 목이 떨어지면 그것을 다시 이을수 없다는것은 역사가 실증해주고있으며 그리고 사람의 목은 부추처럼 베어내어도 또 자라나는것이 아니므로 잘못 베었을 경우에는 착오를 시정하려 하여도 시정할 길이 없다. 셋째는 증거를 없애게 된다. 반혁명을 진압하자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 한 반혁명분자는 흔히 다른 반혁명분자를 증명하는 산 증거로 되는만큼 반혁명안건이 있을 때 그에게 물어볼수 있다. 그런데 그자를 죽여버리면 다시는 증거를 찾지 못하게 될수 있다. 그렇게 되면 반혁명에 유리할뿐이고 혁명에는 불리하다. 넷째는 그들을 죽인다 하여 생산이 증가되는것도 아니고 과학수준이 높아지는것도 아니고 4해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것도 아니고 국방이 강대하여지는것도 아니고 대만이 수복되는것도 아니다. 그들을 죽이면 포

로를 죽였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포로를 죽인다는 것은 이전부터 평판이 나쁜 것이다. 그리고 또 기관내의 반혁명분자는 사회상의 반혁명분자와 다르다. 사회상의 반혁명분자는 인민들의 머리위에 올라앉아 있었지만 기관내의 반혁명분자는 인민들과 좀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일반피해자는 있으나 직접적인 피해자는 많지 않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도 죽이지 않는다 하여 무슨 해로울 점이 있겠는가? 로동개조를 할수 있는자는 로동개조를 시키고 로동개조를 할수 없는자들은 먹여살리면 된다. 반혁명분자는 폐물이고 해충이지만 그러나 일단 손안에 넣은후에는 인민을 위하여 다소 일을 하게 할수 있다.

그러나 기관내의 반혁명분자에 대하여 하나도 죽이지 않는다는 법률조문을 내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의 내부정책인만큼 선포할 필요가 없으며 될수 있는 한 실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가령 어떤 자가 작란을 던져 이 집안의 사람들을 다 죽였거나 혹은 절반 혹은 3분의 1을 죽였다면 그자를 죽여야 하는가 죽이지 말아야 하는가? 그런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기관의 반혁명숙청에서 하나도 죽이지 않는 방침을 실시하는것은 우리가 반혁명분자에 대하여 엄숙한 태도를 취하는데 방어로 되지 않는다. 그와는 반대로 만회할수 없는 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담보할수 있고 착오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시정할 기회를 가질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을 안정시킬수 있으며 당내동지들간의 호상불

신임을 피면할수 있다. 죽이지 않는 이상 밥은 먹여야 할것이다. 모든 반혁명분자들에게 생활출로를 주며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가지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인민의 사업에 유리하며 국제적영향도 좋을것이다.

반혁명진압에는 아직도 간고한 공작이 필요하므로 우리는 해이하여서는 안된다. 앞으로 사회상의 반혁명을 계속 진압하는외에도 기관, 학교, 부대에 혼입한 모든 반혁명분자들을 계속 사출하여야 한다. 반드시 적아를 똑똑히 분별하여야 한다. 만일 적들이 우리 대오내에 혼입하거나 지어 우리의 령도기관에 혼입한다면 그것이 사회주의사업과 무산계급전쟁에 얼마나 엄청난 위협을 가져다주게 될것인가에 대하여서는 모두가 다 똑똑히 알고있는바이다.

## 9. 시 비 관 계

당내에서나 당외에서나 다 시비를 똑똑히 갈라야 한다. 착오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정확한 태도는 착오를 범한 동지에 대하여 《과거를 징계하여 금후를 삼가하게 하며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하는》 방침을 취하고 착오를 시정하도록 그들을 도와주며 그들이 혁명을 계속하는것을 허용하는것이다. 지난날 왕명을 위수로 한 교조주의자들이 권력을 쥐고있을 때 우리 당은 이 문제에서 착오를 범하였으며 쓰딸린의 작풍가운데의 좋지 못한

면을 따라배웠다. 그들은 사회상에서는 중간세력을 배척하였으며 당내에서는 남이 착오를 시정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혁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Q정전》은 훌륭한 소설이다. 나는 이 소설을 본 동지들에게는 한번 더 불것을 권고하며 보지 못한 동지들에게는 자세히 불것을 권고한다. 로신은 이 소설에서 주로 락후하고 각성하지 못한 한 농민을 묘사하였다. 로신은 《혁명하지 못하게 하였다》란 한장을 따로 설정하고 가짜외국놈이 아Q를 혁명하지 못하게 한 이야기를 썼다. 기실 아Q가 당시에 생각한 혁명이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불것을 줌 가지자는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혁명도 가짜외국놈은 용허하지 않았다. 내가 보건대 어떤 사람은 이 점에서 가짜외국놈과 매우 흡사하다. 그들은 착오를 범한 사람들을 혁명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착오와 반혁명간의 계선을 가르지 않고 지어 착오를 범한 일부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였다. 우리는 이 교훈을 명기하여야 한다. 사회상에서 남이 혁명하는것을 못하게 하는것이나 당내에서 착오를 범한 동지들이 착오를 시정하는것을 못하게 하는것이나 다 좋지 못한것이다.

착오를 범한 동지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그가 시정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두고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두고보는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착오를 시정하도록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관찰도 하여야 하며 방조도 하여야 한다. 사람에게에는 방조가 필요하다. 착오를 범하지 않은 사람에게 방조가 필요할뿐

아니라 착오를 범한 사람에게는 더구나 방조가 필요하다. 사람은 아마 착오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다소간 다 착오를 범하게 되는데 착오를 범하면 도와주어야 한다. 두고보기만 하는것은 소극적인것이니 여러가지 조건을 창조하여 시정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시비는 반드시 똑똑히 갈라야 한다. 왜냐하면 당내에서의 원칙적쟁론은 사회상의 계급투쟁이 당내에 반영된것이므로 두리뭉실하게 놓아두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착오를 범한 동지에 대하여 정확에 쫓아 적절하고 실제에 알맞는 비평을 하며 지어는 필요한 투쟁을 진행하는 이것은 정상적인 일이며 착오를 시정하도록 그를 도와주기 위한것이다. 착오를 범한 동지에 대하여 도와주지 않고 도리어 속시원해하는 이것은 종파주의이다.

혁명에 대하여 말하면 어쨌든 사람이 많은것이 좋다. 착오를 범한 사람들중에서 착오를 고집하며 루차 교육하여도 고치지 않는 극소수 사람을 제외한 대다수 사람들은 착오를 시정할수 있다. 마치 장질부사에 걸렸던 사람에게면역력이 생기는것과 마찬가지로 착오를 범한 사람도 착오에서 교훈을 잘 섭취하면 착오를 덜 범할수 있다. 오히려 착오를 범한적이 없는 사람이 착오를 범하기 쉽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꼬리를 쳐들기 쉽기 때문이다. 착오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지나치게 타격하면 흔히 그 타격이 자기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 우리는 주의를 돌려야 한다. 고강은 본래 돌을 들어 남을 까려다가 결국은 제자신을 까넘기고말

있다. 착오를 범한 사람을 호의로 대하면 인심을 사게 되며 단결을 잘할수 있다. 착오를 범한 동지에 대하여 구경 방조하는 태도를 취하는가 아니면 적대시하는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이것은 호의를 가지고있는가 아니면 악의를 가지고있는가를 구별하는 표준으로 된다.

《과거를 징계하여 금후를 삼가하게 하며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하는》 방침은 전당을 단결하는 방침이므로 우리는 이 방침을 견지하여야 한다.

## 10. 중국과 외국과의 관계

우리는 외국을 따라배우자는 구호를 제기하였다. 나는 옳게 제기하였다고 생각한다. 지금 일부 나라의 령도자들은 이 구호를 제기하기 싫어하며 심지어 감히 제기하지 못한다. 제기하려면 좀 용기가 있어야 한다. 다시말하면 무대에서나 부리는 그런 틀을 버려야 한다.

어느 민족에게나 다 장점이, 있다는것을 승인하여야 한다. 장점이 없다면 어떻게 존재할수 있으며 발전할수 있었겠는가? 동시에 또 어느 민족에게나 다 단점이 있다.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는 아주 대단한것이며 결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어디 그럴수 있겠는가? 언제나 우점과 결점 두가지가 있다는것을 승인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지부서기, 부대의 련장, 패장들은 목적에다 오늘 경험을 총결하면 두가지가 있다, 한가지는 우점이고 다른 한가지는 결점이라고 써놓을줄 안다. 그들은 두가지가 있다는것을 다 알고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째서 한가지만 제기하겠는가? 만년후에도 두가지가 있을것이다. 장래에는 장래의 두가지가 있을것이고 오늘은 오늘의 두가지가 있는것이며 각자에게는 각자의 두가지가 있는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한가지가 아니라 두가지이다. 한가지만 있다고 하는것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것이라고 한다.

우리의 방침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장점을 다 따라배우며 정치, 경제, 과학, 기술, 문학, 예술에서 진정으로 훌륭한 모든것들을 다 따라배우는것이다. 그러나 분석적으로, 비판적으로 따라배워야 하지 맹목적으로 따라배워서 안되며 그대로 베껴오거나 기계적으로 옮겨와서는 안된다. 그들의 단점과 결함은 물론 따라배우지 말아야 한다.

조선과 기타 사회주의나라들의 경험에 대하여서도 이런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과거 우리의 일부 사람들은 이 점을 똑똑히 모르고 남의 단점도 따라배웠다. 따라배워서 이만하면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 남은 벌써 그것을 집어던졌다. 그 결과 좌절을 당하고 손오공처럼 곤두박질을 하여 제자리로 돌아왔다. 예를 들면 과거 어떤 사람들은 조선에서 영화부, 문화국을 설치하였는데 우리는 문화부, 영화국을 설치하였으니 우리가 원칙적착오를 범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조선에서도 얼마후에 우리처럼 문화부로 고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던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어떠한 사물에 대하여서나 분석하지 않으며 완전히 《바람》부는대로 움직인다. 오늘 북풍이 불면 북풍파로 되고 래일 서풍이 불

면 서풍파로 되며 후에 또다시 북풍이 불면 또 북풍파로 된다. 자기의 주견이라고는 전혀 없이 흔히 한 극단으로부터 다른 극단으로 넘어간다.

조선에서 지난날 쓰딸린을 만장이나 하늘높이 떠받들던 사람이 오늘은 쓰딸린을 땅속 9천장밑으로 쓸어넣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중앙에서는 쓰딸린은 착오가 3이고 성적이 7이며 총적으로 보아 의연히 위대한 맑스주의자라고 인정하고 이 척도에 따라 《무산계급전정의 역사적경험에 관하여》를 썼다. 3,7로 평가하는것은 비교적 적절하다. 쓰딸린은 중국에 대하여 잘못된 일이 더러 있다. 제2차국내혁명전쟁후기의 왕명《좌》경모험주의, 항일전쟁초기의 왕명우경기회주의는 모두 쓰딸린에게서 온것이다. 해방전쟁시기에 쓰딸린은 내전을 하면 중화민족이 궤멸될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혁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싸움이 일어나자 그는 우리에게 대하여 반신반의하였다. 싸움에서 승리하자 이번에는 또 찌또식승리가 아닌가고 우리를 의심하였다. 1949년과 1950년 이 이태동안에 우리에게 대한 압력이 매우 컸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는 착오가 3이고 성적이 7이라고 인정한다. 이것은 공정한것이다.

사회과학, 맑스-레닌주의에 대하여 쓰딸린이 옳게 말한 면은 반드시 계속 힘써 학습하여야 한다. 우리가 학습하여야 할것은 보편적진리에 속하는것이며 학습할 때에는 반드시 중국의 실제에 결합시켜야 한다. 만약 한마디한마디를——맑스의 말도 포함하여——다 그대



로 옮겨온다면 큰일이 날것이다. 우리의 리론은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진리를 중국혁명의 구체적실천에 결합시킨것이다. 당내의 일부 사람들이 한때 교조주의를 하였는데 그때 우리는 그것을 비평하였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있다. 학술계어나 경제계에나 다 교조주의가 아직 있다.

자연과학면에서 우리는 비교적 락후하므로 외국을 따라배우기에 특히 힘써야 한다. 그러나 역시 비판적으로 따라배워야 하지 맹목적으로 따라배워서 안된다. 기술면에서는 대부분을 우선 그대로 하여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그런것을 장악하지 못하였고 모르므로 배우는것이 비교적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알고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일일이 그대로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외국자산계급의 모든 부패한 제도와 사상작풍을 견결히 배격하고 비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리가 자본주의나라의 선진적인 과학기술과 기업관리방법중의 과학적인 면을 따라배우는데 방해되지 않는다. 공업이 발달한 나라의 기업은 사람을 적게 쓰고 효률이 높으며 장사를 잘하는데 이러한것을 원칙성있게 잘 배워옴으로써 우리의 공작을 개선하는데 유리하게 하여야 한다. 지금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 영어를 연구하지 않으며 학술논문도 영어, 불란서어, 독일어, 일어로 번역하여 남들과 교환하지 않는다. 이 역시 일종의 미신이다. 외국의 과학, 기술, 문화에 대하여 분석없이 일률로 배척하는것이나 앞서서도

말했지만 외국의것에 대하여 분석없이 일률로 옮겨오는 것은 다 맑스주의적태도가 아니며 모두 우리의 사업에 불리하다.

중국에는 두가지 결함이 있는데 그것은 또한 두가지 우점이기도 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첫째, 우리 나라는 과거 제국주의가 아니라 식민지, 반식민지였으며 종래로 남의 침략을 받아왔다. 공농업이 발달하지 못하였고 과학기술수준이 낮았다. 그래서 땅이 넓고 물산이 풍부하며 인구가 많고 력사가 유구하며 문학방면에 《홍루몽》이 있는것 등등을 제외하고는 많은 점에서 남만 못하므로 교오할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종살이를 오래 하다보니 무엇이나 다 남만 못하다고 느끼며 《법문사》에 나오는 가계[2]가 남이 앞으라고 권하는데도 서는것이 버릇이 됐다고 하면서 앞으려 하지 않은것처럼 외국사람앞에서 기를 펴지 못한다. 이 면에서 용기를 북돋우어야 하며 민족자부심을 높여야 하며 항미원조때 제창하였던 《미제국주의를 멸시하는》 정신을 발양하여야 한다.

둘째, 우리의 혁명은 남보다 뒤떨어졌다. 신해혁명에서 황제를 타도한것은 로씨야보다 일렀으나 그때에는 공산당이 없었으며 그때의 혁명도 실패를 당하였다. 인민혁명은 1949년에 승리하였는데 조선의 10월혁명보다 30여년이나 뒤졌다. 이 점에서도 우리는 교오할 자격이 없다. 조선은 우리와 다르다. 첫째, 짜리로씨야는 제국주의였으며 둘째, 후에 또 10월혁명이 있었다. 그러므로 조선의 많은 사람들은 매우 교오하며

표리를 잔뜩 쳐든다.

우리의 이 두가지 결합은 또한 우점이기도 하다. 우리는 《가난하고》 《말끔하다》고 나는 일찍 말하였다. 《가난하다》는것은 공업이 얼마 안되고 농업도 발달하지 못했다는것이며 《말끔하다》는것은 백지와 같고 문화수준과 과학수준이 다 높지 못하다는것이다. 발전의 전지에서 보면 이것은 결코 나쁜것이 아니다. 가난하면 혁명을 하려 하며 부유한자는 혁명하기가 어렵다. 과학기술수준이 높은 나라는 대단히 교오한다. 우리는 백지이므로 글을 쓰기에 알맞다.

그러므로 이 두가지는 모두 우리에게 유리하다. 앞으로 우리 나라가 부강하여져도 우리는 반드시 혁명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하며 겸손하고 근신하여야 하며 남들을 따라배워야 하며 표리를 쳐들지 말아야 한다. 제1차5개년계획기간에 남들을 따라배워야 할뿐만 아니라 몇십차의 5개년계획후에도 남들을 따라배워야 한다. 만년이라도 계속 따라배워야 한다! 그래서 무슨 나쁜 점이 있는가?

모두 열가지를 말하였다. 이 열가지 관계는 다 모순이다. 세계는 모순으로 구성되어있다. 모순이 없으면 세계도 없다. 우리의 임무는 이런 모순들을 옳게 처리하는것이다. 이런 모순들을 실천가운데서 완전히 잘 처리할수 있는가 하는데 대하여서도 두가지 가능성을 예견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 이런 모순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틀림없이 새로운 모순, 새로운 문제들에

부딪치게 될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늘 말하는바와 같이 전진도상에는 언제나 굴곡이 있고 전도는 언제나 광명하다. 우리는 반드시 당내당외, 국내국외의 모든 적극적인 요소, 직접적인 적극적요소와 간접적인 적극적요소를 죄다 동원하여 우리 나라를 강대한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하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 주 해

[1] 의무적판매제는 1933~1957년기간에 소련에서 실시한, 국가에서 농산물을 수매하는 주요한 방법이었다. 집체농장과 개체농호는 해마다 국가에서 규정한 의무적판매 수량과 가격에 따라 국가에 농산물을 제공하여야 하였다.

[2] 가제는 경국 《법문사》에 나오는 명조의 환판 류근의 친신이며 노복이다.

## 미제국주의는 종이범이다\*

(1956년 7월 14일)

미국은 도처에서 반공간판을 내걸고있는데 그것은 남을 침략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이다.

미국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빛을 지고있다. 중부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나라들 및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의 빛을 지고있으며 또 구라파, 대양주 나라들의 빛도 지고있다. 영국도 포함하여 전 세계가 다 미국을 싫어하고있다. 광범한 인민들이 모두다 미국을 싫어하고있다. 일본도 미국이 자기를 압박하고있기때문에 미국을 싫어하고있다. 동방의 여러 나라들은 미국의 침략을 받지 않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 미국은 중국의 대만성을 침략하고있다. 일본, 조선, 비물빈, 월남, 파키스탄은 모두 미국의 침략을 받고있으며 그중에는 미국의 동맹국도 더러 있다. 인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일부 나라의 국가당국도 좋아하지 않고있다.

압박받고있는 민족들은 어느 민족이나 다 독립하려 한다.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두 라틴아메리카인사와 하신 담화의 일부분이다.

모든것이 변화할것이다. 썩어빠진 큰 력량은 신생한 작은 력량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 대다수 사람들이 변할것을 요구하느니만큼 작은 력량은 큰 력량으로 변할것이다. 미국인민들까지도 자국의 정부를 좋아하지 않기때문에 미제국주의는 그 력량이 큰것으로부터 작은것으로 변할것이다.

나는 한평생 이런 변화를 겪어왔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가운데는 청조매 난 사람도 있고 민국매 난 사람도 있다.

청조는 벌써 오래전에 전복되었다. 누가 뒤엎었는가? 손중산이 령도하는 당파 인민이 함께 뒤엎었다. 손중산의 력량은 아주 작았으므로 청조의 관리들은 그를 알잡아보았다. 그는 여러차례 기의하였으나 번마다 실패하였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역시 손중산이 청조를 뒤엎었다. 크다고 하여 겁날것은 없다. 큰것이 작은것한테 전복되고 작은것이 큰것으로 변한다. 청조를 전복한후 손중산은 실패하였다. 그것은 그가 인민들의 요구, 이를테면 토지에 대한 요구와 제국주의를 반대할데 대한 요구에 만족을 주지 못하였기때문이다. 그는 반혁명을 진압할줄도 몰랐다. 그 당시 반혁명이 도처에서 옥실거렸던것이다. 그리하여 손중산은 결국 북양군벌의 두목인 원세개에게 실패당하였다. 원세개는 력량이 손중산보다 컸다. 그러나 력량은 작아도 인민과 련계하는자는 강하고 력량은 크나 인민을 반대하는자는 약하다는 이 법칙을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그 후 손중산의 자산계급민주혁명파와 우리 공산당이 합

작하여 원세개가 남겨놓은 군벌계통을 격파하였다.

장개석은 중국을 통치하는데 있어서 전 세계 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았고 22년 동안이나 통치하였으며 력량이 가장 컸다. 우리는 력량이 작았다. 시초에는 당원이 5만명이던것이 반혁명의 탄압을 받아 겨우 몇천명밖에 남지 않았다. 적들은 도처에서 교란하였다. 그러나 역사이 법칙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 법칙이란 강대한것은 인민을 탈리하고있기때문에 실패하게 되고 약소한것은 인민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있고 인민을 위하여 공작하기때문에 승리하게 된다는 그것이다. 결과는 바로 이러하였던것이다.

항일전쟁때 일본은 아주 강대하였다. 국민당군대는 편벽한 지역으로 쫓기여갔고 공산당이 령도하는 무장력량도 적후의 농촌에서 유격전쟁을 할수 있을뿐이었다. 일본은 중국의 대성시 북경, 천진, 상해, 남경, 무한, 광주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일본군국주의도 그리고 또 독일의 히틀러도 이 법칙대로 몇해 못가서 거꾸러지고말았다.

우리는 술한 곤난들을 겪었다. 남방으로부터 북방으로 쫓기여왔고 몇십만명으로부터 몇만명으로 줄어들었다. 2만5천리장정을 하고나니 2만 5,000명밖에 남지 않았었다.

우리 당의 력사에는 《좌》경로선착오와 우경로선착오가 여러차례 있었다. 그중에서도 진독수의 우경과 왕명의 《좌》경이 가장 엄중하였다. 이밖에도 장국도, 고강 등의 우경착오가 있었다.

착오를 범한데는 좋은 점도 있다. 인민을 교육하며 당을 교육할수 있다. 우리에게서 일본, 미국, 장개석, 진독수, 리립삼, 왕명, 장국도, 고강파 같은 반면교원들이 수두룩하다. 우리는 이런 반면교원들한테서 배우느라고 막대한 대가를 내었다. 역사적으로 영국은 우리와 여러번 전쟁을 하였다. 영국, 미국, 일본, 불란서, 독일, 이태리, 짜리로씨야, 화란은 다 우리의 이 땅덩어리를 탐내었다. 그들은 모두 우리의 반면교원이고 우리는 그들의 학생이다.

항일전쟁시기에 일본과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의 군대는 90만으로 장성하였다. 그후에는 해방전쟁이 있었다. 우리의 무기는 국민당만 못하였다. 국민당군대는 400만인데 3년동안 싸우는 과정에 무게를 내면 도합 800만이 우리에게 소멸되었다. 미제국주의의 방조를 받는 국민당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였다. 강대한것이 이기지 못하고 언제나 약소한것이 승리하는것이다.

지금 미제국주의는 아주 강대하지만 정말 강대한것은 아니다. 미제국주의는 광범한 인민들을 탈리하고 있으며 모두가 그를 싫어하고있으며 미국인민들까지도 그를 싫어하고있기때문에 정치상에서 몹시 취약하다. 겉으로 보기에 아주 강대한것 같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종이범이여서 무서울것 없다. 겉모양을 보면 확실히 범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종이로 만든 범이여서 비바람에 견디지 못한다. 내가 보기에 미국은 틀림없는 종이범이다.

강한것이 약한것에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는 이것은



전반 력사에 의하여, 인류계급사회의 수천년의 력사에 의하여 증명된바이다. 아메리카에서도 역시 이러하다.

제국주의가 소멸되어야만 태평해질수 있다. 종이법이 소멸될 그날은 꼭 오고야말것이다. 그러나 비바람을 맞아야 소멸되지 저절로 소멸되지는 않을것이다.

우리가 미제국주의를 종이법이라고 하는것은 전략상에서 하는 말이다. 전체에 있어서는 그것을 멸시하여야 하지만 매 하나의 국부에 있어서는 그것을 중시하여야 한다. 그것은 발톱이 있고 이발이 있다. 그것을 해결하는데는 하나하나씩 해결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그것이 이발 열대를 가지고있다고 하자. 첫번에 한대를 뽑아버린다. 그러면 그에게 아홉대가 남는다. 또 한대를 더 뽑아버린다. 그러면 여덟대가 남는다. 이발을 몽땅 뽑아치우면 발톱이 남는다. 이렇게 일보일보 착실하게 해나가면 나중에는 결국 해결해버릴수 있게 된다.

전략상에서는 그것을 어디까지나 멸시하여야 한다. 전술상에서는 그것을 중시하여야 한다. 그것과 투쟁할 때 매차례의 싸움마다, 매 한가지의 일마다 중시하여야 한다. 미국은 지금 강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정책을 실시하고있으며 인민들을 압박, 착취하고있기때문에 인심을 잃고있다. 이렇기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전체에서, 장원한 견지에서 본다면 이 법은 반드시 죽어버리고말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무서울것 없고 멸시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 력량이 있으며 해마다 1억여톤의 강철을 생산해내며 도처에서 침략을 감행하고있다. 그러므로 계속 그와 투

쟁하여야 하며 힘껏 싸워 그 진지를 하나하나씩 탈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자면 시간이 걸려야 한다.

보아하니, 아메리카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은 계속 미국과 다투는수밖에 없으며 비바람에 종이범이 찢어질 때까지 그냥 다투는수밖에 없을것 같다.

미제국주의를 반대하기 위하여 중부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나라들의 구라파이주민들은 당지의 인디안인들과 단결하여야 한다. 구라파에서 이주해간 백인들을 두 부류로, 즉 한 부류는 통치자로, 다른 한 부류는 피통치자로 나누어보는것이 좋지 않겠는지. 그렇게 대한다면 압박받고있는 그 부류의 백인들은 원주민들과 같은 처지에 있으므로 첩사리 그들과 접근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라틴아메리카의 벗들 그리고 아세아, 아프리카의 벗들과 같은 처지에 있고 같은 일을 하고있다. 인민을 위하여 일하고있으며 인민에 대한 제국주의의 압박을 덜어주기 위한 일을 하고있다. 이것이 잘되면 제국주의의 압박을 근절할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동지이다.

우리와 당신들과는 거주지역, 민족, 언어가 다를뿐 제국주의의 압박을 반대함에 있어서는 그 성질이 서로 같다. 그러나 우리와 제국주의와는 성질상의 구별이 있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보기만 해도 불쾌하다.

제국주의를 해서는 무엇하겠는가? 중국인민이 제국주의를 요구하지 않을뿐아니라 전 세계 인민도 제국주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국주의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것이다.

## 당의 단결을 강화하며 당의 전통을 계승하자\*

(1956년 8월 30일)

오늘 제8차전국대표대회 예비회의가 열리었다. 이 예비회의는 10여일간 열 예정인데 여기서 할 주요한 일들은 첫째는 대회의 문건들을 준비하는것이고 둘째는 중앙위원회를 예선하는것이고 셋째는 대회의 발원원고들을 준비하는것이다.

이제 나는 몇가지 의견을 말하려 한다.

첫째, 대회의 목적과 취지에 관하여. 이번 대회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며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 하는가? 총적으로 말하면 7차대회이래의 경험을 총결하여 전당을 단결하며 국내외의 단결할수 있는 모든 력량을 단결함으로써 위대한 사회주의중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분투하려는것이다.

경험을 총결할데 대하여 말하면 우리가 쌓은 경험은 매우 풍부하지만 그저 많은 사실들을 라렬하기만 해서는 안되며 중점을 틀어쥐고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맑스주의적관점으로 총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총결은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제8차전국대표대회 예비회의 제1차회의에서 하신 강화이다.

우리 전당에 대한 추동력으로 되어 우리의 공작을 과거보다 더 훌륭히 진행되게 할것이다.

우리 당이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정확한 당이라는 이 점은 전 세계가 공인하는바이다. 지난날 어떤 외국 동지들은 대체 당신들은 무엇을 하는가 하고 우리를 의심하였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민족자산계급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리해하지 못하고있었으며 우리의 정풍 운동에 대하여서도 잘 리해하지 못하고있었다. 지금은 리해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된다. 즉 대개 다 리해하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물론 아직 리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것이다. 국내에도, 지어는 당 내에도 아직 리해하지 못하고 7차대회이래의 로선이 그리 정확한것 같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더러 있을것이다. 그러나 사실이 보여주고있는바와 같이 우리는 두가지 혁명을 진행하여왔다. 그 하나는 전국적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자산계급민주혁명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적개조를 수행하며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는 무산계급사회주의혁명이였다. 7차대회이래의 11년 동안 우리가 달성한 성과가 매우 크다는것은 온 나라가 승인하고 전 세계가 승인하며 지어 외국의 자산계급도 부득불 승인하는바이다. 이 두 혁명은 7차대회때 부터 지금까지의 당중앙의 로선이 정확하다는것을 실증하여준다.

10월혁명이 자산계급을 뒤엎은 이것은 세계적으로 새로운 일이었다. 국제자산계급은 이 혁명에 대하여 사실이야 어떻든 덮어놓고 욕만 퍼부으며 여하튼 나쁘

다고만 하였다. 로씨야자산계급은 반혁명계급이었으므로 당시 그들은 국가자본주의를 접수하지 않고 태업하며 파피하며 총을 들고 대항해나섰다. 로씨야무산계급은 그자들을 소멸해버릴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로 하여 각국의 자산계급이 화가 나서 욕을 퍼붓게 되었던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민족자산계급을 비교적 온화하게 대하기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좀 편해하며 그래도 좋은 점이 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아이젠하워와 델레스는 미국의 신문기자들을 중국에 오지 못하게 하고있다. 이것은 실제상 우리의 정책에 이런 좋은 점이 있다는것을 승인하는것이다. 가령 우리 나라가 뒤범벅이 되었다면 신문기자들이 와보고는 어쨌든 중국을 욕하는 글이나 쓸것이므로 그들이 오는것을 막지 않을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신문기자들이 와서 중국에 대하여 욕만 하지 않고 좋은 말도 좀 하는 글을 쓰게 되면 일이 거북하게 될가봐 두려워하고있는것이다.

지난날에는 중국을 《늪은 대제국》, 《동아의 병부》라고 하였으며 경제가 낙후한가 하면 문화도 낙후하고 위생도 지키지 않고 뽏도 칠출 모르고 수영도 할 줄 모르며 여자들이 종발인가 하면 남자들은 머리태를 땀고 다니고 환관까지 있으며 달도 중국의 달은 그리 밝지 못하고 어쩐지 외국의 달이 더 청명하다고 하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좋지 못한것이 적지 않다는것이였다. 그러나 지난 6년간의 개혁을 거쳐 우리는 중국의 면모를 개변시켰다. 우리의 성적은 그 누구도 부정

할수 없는것이다.

우리의 혁명사업을 령도하는 핵심은 우리의 당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경험을 총결하여 우선 전당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6월현재로 1,073만 당원을 가지고있다. 이 1,000여만명의 당원들에게 교육공작, 설복공작, 단결공작을 광범히 진행하여 그들이 인민들속에서 핵심적작용을 더 잘 일으키게 하여야 한다. 당만으로는 안된다. 당은 핵심이고 그 주위에 반드시 군중이 있어야 한다. 공업, 농업, 상업, 문화교육 등등의 공작을 포함한 우리의 각항 구체 공작에 있어서 그 90%는 당원들이 하는것이 아니라 비당원들이 하고있는것이다. 그러므로 군중들과 잘 단결하여, 단결할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잘 단결하여 함께 공작하여야 한다. 전당을 단결하고 당외인사들을 단결하는 면에서 지난날 우리에게는 많은 결함들이 있었다. 우리는 이번 대회에서 그리고 대회후의 선전교육을 통하여 이 방면의 공작을 잘 개선하여야 한다.

국제상에서 우리는 전 세계의 단결할수 있는 모든 력량과 단결하며 우선 쏘련과 단결하고 형제적당, 형제적나라 및 인민들과 단결하여야 하며 또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 및 인민들과 단결하여야 하며 모든 유용한 력량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번엔 50여개 나라의 공산당의 대표들이 우리의 대회에 참가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과거에는 우리가 전국의 정권을 장악하지 못하였고 두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지 못하였고 건설의 성과도 없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외국의 동지들은 우리를 비교적 존중한다.

우리가 당내외, 국내외의 단결할수 있는 모든 력량을 단결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위대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려는것이다. 우리 나라와 같은 나라는 《위대하다》는 이 몇글자를 붙일수 있으며 또 붙여야 한다. 우리의 당은 위대한 당이며 우리의 인민은 위대한 인민이며 우리의 혁명은 위대한 혁명이며 우리의 건설사업은 위대한 건설사업이다. 6억 인구를 가진 나라는 지구우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우리 나라이다. 지난날 남들이 우리를 깔본데는 리유가 있었다. 그것은 별 공헌이 없었기때문이다. 강철을 놓고보면 1년에 몇십만톤밖에 생산하지 못하였는데 그것마저 일본사람들의 수중에 장악되어있었다. 국민당장 개석이 전정하는 22년동안에는 1년에 겨우 몇만톤밖에 생산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아직 많지는 못하나마 이미 좀더 생산해내기 시작하였다. 금년에는 400여만톤을 생산하고 명년에는 500만톤을 돌파하며 제2차5개년계획에서는 1,000만톤을 초과할것이고 제3차5개년계획에서는 2,000만톤을 초과할수 있을것이다. 우리는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세계에 거의 100개의 나라가 있지만 강철을 2,000만톤이상씩 생산해내는 나라는 몇개밖에 안된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는 건설해놓으면 위대한 사회주의국가로 되어 지난 100여년간 락후하던 그런 정황, 남들에게 깔보이던 그런 정황, 불행을 당하던 그런 정황이 완전히 개변될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자본주의국가, 즉 미국을

따라잡을수 있을것이다. 미국은 인구가 1억 7,000만밖에 안된다. 우리 나라는 인구가 미국보다 몇배나 더 많으며 자원도 풍부하고 기후조건도 그들과 비슷하므로 따라잡을수 있는것이다. 따라잡아야 하는가 따라잡지 말아야 하는가? 두말할것없이 따라잡아야 한다. 6억이나 되는 인구가 무엇을 하고있는가? 잠을 자고있는가? 잠을 자고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일을 해야 하는가? 일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남은 1억 7,000만 인구를 가지고도 강철 1억톤을 생산하는데 6억 인구를 가지고 그때 2억톤, 3억톤을 생산할수 없겠는가? 따라잡지 못한다면 리유가 서지 않을것이고 그다지 영광스럽지 못할것이며 따라서 그리 썩 위대하지는 못할것이다. 미국은 건국한지가 180년밖에 안되며 그의 강철생산량도, 60년전에는 400만톤밖에 안되었으니 우리는 그들보다 60년을 뒤진셈이다. 우리가 이제 50년, 60년을 더 지난다면 두말할것없이 그들을 롱가하여야 한다. 이것은 하나의 책임이다. 것처럼 많은 인구에 그렇게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있고 자원도 풍부하며 게다가 사회주의를 하며 사회주의에는 우월성도 있다는데 50~60년동안 해도 미국을 롱가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꼴이겠는가? 그렇게 되는 날이면 지구에서 제명해버려야 할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을 롱가한다는것은 가능할뿐만아니라 전적으로 필요하고 전적으로 당연한 일이다. 만일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 중화민족은 전세계 여러 민족에 대하여 미안할것이며 인류에 대한 공헌이 크지 못할것이다.



둘째, 당의 전통을 계승할데 관하여.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사상방면 및 작풍방면에서의 우량한 전통을 계속 발양하고 주관주의와 종파주의 이 두가지를 착실히 반대하여야 하며 이밖에 또 관료주의도 반대하여야 한다. 오늘 나는 관료주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주관주의와 종파주의에 대해서만 말하겠다. 이 두가지를 쓸어버리면 또 생겨나군 하는데 생겨나면 또 쓸어버려야 한다.

이른바 착오를 범한다는것은 바로 그 주관이 착오를 범하는것을 말하며 그 사상이 옳지 않다는것을 말한다. 우리는 쓰딸린의 착오를 비평한 많은 글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바로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거나 매우 적게 제기되고있다. 쓰딸린은 왜 착오를 범하였는가? 그것은 일부 문제에서 그의 주관이 객관실제에 부합되지 않았기때문이다. 지금 우리의 공작가운데도 항상 이와 같은 일들이 많다. 주관주의는 객관실제로부터, 현실적가능성으로부터 출발하는것이 아니라 주관념원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의 이번 대회의 문전에 규정하는것이거나 언급하는것은 될수록 중국의 실제에 부합되거나 접근되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의 지난날의 경험에 근거하여 실제에 부합되지 않는 관점들을 비평하여야 한다. 이 주관주의를 비평하여야 하고 이 주관주의를 타격하여야 한다. 이 임무는 우리가 몇해전부터 벌써 제기하였던것이다. 지금 우리가 반대하는것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 있어서의 주관주의이다. 과거 민주혁명에 있어서 우리는 주관주의의 피해

를 장기간 입었고 막대한 징벌을 받아 근거지를 거의 전부 잃었고 혁명력량을 90% 이상 잃었으며 이렇게 된 때에 와서야 비로소 각성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연안정풍을 거쳐 조사연구에 치중하게 되고 실제로부터 출발하게 되어서야 이 문제를 똑똑히 알게 되었다. 맑스주의의 보편적진리는 반드시 중국혁명의 구체적실천에 결합되어야 하며 결합되지 않아서는 안된다. 다시말하면 리론과 실천이 통일되어야 한다. 리론과 실천의 통일은 맑스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의 하나이다. 변증법적유물론에 의하면 사상은 반드시 객관실제를 반영하여야 하며 객관적실천에서 검열되어 진리라는것이 증명되어야만 비로소 진리라 할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진리라 할수 없다. 우리의 이 몇해동안의 공작에 성적이 있는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주관주의의 폐단들이 도처에 다 있다. 주관주의는 지금 있을뿐만아니라 장래에 가서도 있을것이다. 주관주의는 영원히 있을것이며 만년이고 억만년이고 인류가 궤멸되지 않는 한 언제나 있을것이다. 주관주의가 있으면 꼭 착오를 범하게 된다.

이밖에 또 종파주의라고 하는것이 있다. 지방에는 지방의 전반 국면이 있고 나라에는 나라의 전반 국면이 있으며 지구에는 지구의 전반 국면이 있다. 지구이외의 것에 대하여서는 아직 교통이 열리지 않았기때문에 여기서 말하지 않기로 한다. 만일 화성이나 금성에 사람이 산다는것이 발견되면 그때에 가서 다시 그들과 단결하고 통일전선을 결성할데 관한 문제를 교섭하기로

하고 지금은 당내, 국내 및 전 세계의 단결문제를 말하기로 한다. 우리의 원칙은 그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나, 외국의 당에 대하여서나 외국의 비당인사들에 대하여서나 그들이 세계평화와 인류의 진보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있기만 하면 그들과 단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몇십개 공산당과 단결하여야 하며 소련과 단결하여야 한다. 소련에 일부 착오가 생겼다고 하여 이 방면의것을 많이 말하고 많이 퍼뜨리면서 그런 착오를 대단한것처럼 본다면 그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어느 민족이나 착오를 범하지 않을수는 없는것이다. 더구나 소련은 세계의 첫 사회주의국가이고 경력도 그처럼 긴데 착오가 생기지 않는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소련에서 생긴 착오, 이를테면 쓰딸린의 착오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것인가? 그것은 부분적성질의 착오이며 잠시적성질의 착오인것이다. 듣자니 어떤것은 20년전부터 범해오는것이라 하는데 그래도 역시 잠시적인것이고 부분적인것이며 시정할수 있는것이다. 소련의 그 주류, 그 주요한 측면, 그 대다수는 정확한것이다. 로씨야는 레닌주의가 산생된후 10월혁명을 거쳐 첫 사회주의국가로 되었다. 로씨야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파쏘를 다승하고 강대한 공업국으로 되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따라배울만한것들이 많다. 물론 락후한 경험을 따라배울것이 아니라 선진적인 경험을 따라배워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기하여온 구호는 소련의 선진경험을 따라배우자는것이였다. 누가 락후한 경험을 따라배우라고 하였던가? 일부 사람들은 옳고그름

을 가리지 않으며 쓰련사람들이 썩 방귀까지도 다 구수 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주관주의인것이다. 쓰련사람들 자신도 구리다고 하는것이 아닌가! 그렇기때문에 분석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쓰말린에 대하여 3, 7로 갈라 보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들의 주요한것, 많은것들은 좋은것이고 유용한것이며 부분적인것이 그릇된것이다. 우리에게도 부분적으로 좋지 못한것이 있는데 우리 자신이 이런것을 버려야 할것이며 더우기 다른 나라가 이런 나쁜것을 배우게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나쁜 일도 경험이라 할수 있으며 매우 큰 작용을 할수 있는것이다. 우리에게는 진독수, 리립삼, 왕명, 장국도, 고강, 요수석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의 교원이다. 이밖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교원이 있다. 국내를 놓고 말하면 제일 좋은 교원은 장개석이다. 우리가 설복시킬수 없는 사람들도 장개석이 가르치자 설복되는것이였다. 장개석은 어떤 방법으로 가르쳤는가? 그는 기관총, 대포, 비행기로 가르쳤다. 그리고 제국주의라는 교원이 있는데 그는 우리 6억 인민을 교육하였다. 지난 100여년동안 몇개 제국주의강국들이 우리를 압박함으로써 우리를 교육하였다. 그렇기때문에 나쁜 일은 교육적작용을 하며 거울의 작용을 한다.

종파주의를 반대하는데 있어서 특히 말해두어야 할것은 자기와 투쟁한적이 있는 그런 사람들과 단결하여야 한다는 그것이다. 그가 동무와 투쟁하여 동무를 때려엎었고 그로 하여 동무가 옥을 보고 낫을 들지 못하게 되었으며 동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도 동무에게

기회주의자라는 《벼슬》을 봉해주었다고 하자. 물론 옳게 친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한것이다. 당신이 기회주의자인데 무엇때문에 쳐서 안되겠는가? 내가 여기서 말하는것은 잘못 치고 잘못 투쟁한것을 가리킨다. 만일 그런 사람들이 후에 가서 태도를 고치고 잘못 썼다는것을 승인하며 동무를 기회주의왕국의 국왕으로 봉한것이 부당하다는것을 승인한다면 이것만으로 충분한것이다. 만일, 개별적사람들이 아직 승인하지 않는다면 기다릴수 없겠는가? 기다릴수도 있다. 이른바 단결한다는것은 자기와 의견분기가 있고 자기를 업신여기고 자기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와 수가 틀렸고 자기와 투쟁한적이 있고 자기를 육보인 일이 있는 그런 사람들과 단결한다는것이다. 의견이 일치한 사람들과는 이미 단결되어 있는것이니 단결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문제는 바로 아직 단결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과 단결하는데 있다. 이른바 아직 단결하지 못한 사람들이란 바로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거나 결점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를테면 지금 우리 당내에는 조직적으로는 입당하였으나 사상적으로는 아직 입당하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게 있다. 그들은 비록 당신과 다투지도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으나 아직 사상적으로 입당하지 못하였기때문에 틀림없이 그리 타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며 결점이 있게 되거나 나쁜 일을 좀 하게 된다. 이런 부분의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단결하고 교육하며 도와주어야 한다. 이전에도 말한바 있지만 결점이 있는 모든 사람과 착오를 범한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는 그가 시정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두고보아야 할뿐 아니라 시정하도록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 즉 첫째는 관찰하고 둘째는 방조하여야 한다. 만일 어떻게 하는가 어디 두고보자, 잘하면 일없지만 잘못하였다간 욕을 보고야말것이다라는 태도로 가만히 서서 보고만 있는다면 그것은 적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소극적인 태도이다. 맑스주의자들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여야 하며 두고볼뿐만 아니라 도와주어야 한다.

셋째, 중앙위원회의 선거에 관하여. 방금 소평동지는 제8기 중앙위원회의 위원명액을 150명 내지 170명으로 하자고 하였다. 7기 중앙위원회의 위원수는 77명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배 남짓이 된다. 이렇게 하는것이 비교적 타당할것 같다. 몇해후에 가서, 이를테면 5년후에 가서 더 확대하는것이 아마 비교적 유리할것이다. 지금 있는 많은 유용한 인재들은 항일전쟁시기에 배양된 간부, 즉 《38식》이라고 하는 간부들이다. 그들은 지금 우리의 공작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기초이다. 그러나 이런 간부들의 수효가 매우 많기때문에 만일 그들에게 다 자리를 배정해주자면 이번기 중앙위원회의 위원명액을 몇백명으로 증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중앙에서 150명 내지 170명으로 제기한 이 수자가 도대체 타당하겠는지, 도대체 얼마나 하면 좋겠는지 동지들이 고려해보기 바란다.

전기 중앙위원회는 확실히 7차대표대회의 위탁을 저버리지 않고 공작해왔다는것을 긍정하여야 한다. 11년간 그들은 별로 큰 결함이 없이 중국의 민주혁명을

정확히 령도하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정확히 령도하였으며 동시에 각양각색의 기회주의적인 것과 투쟁하고 그릇된것과 투쟁함으로써 혁명에 불리하고 건설에 불리한 각종 요소들을 극복하였다. 착오를 범한 일부 동지들도 포함하여 그들은 성적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중앙위원회전체를 놓고 하는 말이다. 개별적동지들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평가할수 없다. 특히 왕명은 7차대회때에 응부하기 위하여 서면성명을 써서 중앙위원회의 로선이 정확하다는것을 승인하고 7차대회의 정치보고를 승인하였으며 대회의 결정에 복종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후에 그를 찾아 담화할 때 그는 또 나누웠다. 그는 그것들을 잊어버린것이였다. 그는 돌아가 생각해보고 이튿날에는 또 착오를 승인하는 글을 쓴적이 있다고 말하였다. 나는 그를 보고 그때는 승인했으나 지금 승인하지 않는다면 도로 찾아가도 좋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도로 찾아가지는 않았다. 그후 2중전회에서 우리는 그가 자기의 착오를 말할것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른것을 말하였다. 그는 그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찌어찌하게 좋다는것만을 말하였다. 우리가 왕명을 보고 그런 말은 그만두고 자기에게 무슨 착오가 있는가를 말하라고 하였으나 그는 그렇게 할것을 거절하였다. 그는 2중전회가 끝난후에 반성문을 쓰겠다고 승낙하였다. 그러나 후에 와서 그는 또 자기에게는 꼴을 쓰면 안되는 병이 있는데 글을 쓰면 그 병이 재발한다고 말하였다. 고의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그는 그냥 앉고있어 이번 대회에도 참석하지 못하였다. 그를 선거하는것이 어떻겠는지? 그리고 리립삼동지도 선거하겠는지 하지 않겠는지? 리립삼을 랑해하는 사람은 비교적 많으나 왕명을 랑해하는 사람은 비교적 적다. 소평동지가 말한바와 같이 우리가 만일 그들을 선거한다면 7차대회에서 그들을 선거한것과 똑같은 의의를 가진다. 7차대회때도 많은 대표들이 그들을(왕명뿐만아니라 다른 동지도 몇몇 께 되었다.) 선거하려 하지 않았다. 그때 우리는 만일 이런 방침을 취한다면 우리가 착오를 범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우리가 착오를 범한 사람을 선거하지 않는것이 어째서 착오를 범하는것으로 되는가? 그것은 그들의 방법대로 처사하는것이기때문이다. 그들의 방법은 정말 착오를 범한 사람이건 착오를 범한것으로 잘못 인정된 사람이건 하여튼 기회주의라고 선포한 이상에는 그 사람을 배척하는것이다. 만일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로선, 즉 왕명로선 또는 립삼로선을 걷는것으로 된다. 우리는 이런 일은 하지 않는다. 우리를 왕명로선, 립삼로선을 걷게 하는 일은 우리는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당내관계를 이렇게 만들었다. 즉 착오를 범하였거나 또는 자기들과 투쟁하였고 자기들을 기회주의라고 욕한 사람들은 죄다 배척한다. 그들은 100%의 불쉐위크로 자처하였으나 후에 알아보니 그들은 100%의 기회주의였고 그들에게 《기회주의자》라고 불리운 우리가 도리어 맑스주의를 다소 가지고있었던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도리는 그들이 고립적인 개인이 아니라 소자산계급내의 상당히 많은 일부분을 대표하고있다는 그것이다. 중국은 소자산계급중이 아주 많은 나라이다. 소자산계급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일부분의 사람들은 동요한다. 폐컨대 부유중농은 모두가 보다싶이 어느 혁명에서나 늘 동요하고 불견정하며 기쁠 때는 미칠 지경이 되고 비판할 때는 풀이 죽어버린다. 그들이 늘 눈여겨보는것은 극상해야 한두마리의 역축, 한대의 수레, 10몇무의 땅밖에 안되는 그 저그마한 재산이다. 그들은 환득환실하며 이런것들을 잃어버릴가봐 근심한다. 이런 사람들은 빈농과는 다르다. 중국의 빈농은 북방에서는 50%, 남방에서는 7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당은 그 성분을 놓고 말하면 기본상 공인과 빈농으로, 즉 무산계급과 반무산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무산계급도 소자산계급이지만 중농보다는 훨씬 더 견정하다. 우리 당은 일부분의 지식분자도 당에 받아들였다. 1,000여만 당원가운데서 대, 중, 소 지식분자가 대략 100만을 차지한다. 이 100만의 지식분자는 제국주의를 대표한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지주계급을 대표한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판료자산계급을 대표한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민족자산계급을 대표한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들은 소자산계급의 범주에 귀속시키는것이 비교적 적합하다. 그들은 소자산계급의 범주에 속하는 어느 부분의 사람들을 주로 대표하는가? 바로 성시와 농촌에서 생산자료를 비교적 많이 가지고있는 그 부분의 사람, 폐하면 부유중농을 대표하고

있다. 이 부분의 지식분자출신의 당원들은 이것도 무섭고 저것도 겁나서 늘 동요하며 주관주의가 가장 많고 종파주의도 적지 않다. 우리가 왕명로선과 리립삼로선의 이 두 대표인물을 선거하는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것은 우리가 사상적착오를 범한 이런 사람들을 반혁명분자나 분렬파(진독수, 장국도, 고강, 요수석 같은 사람)와는 달리 취급한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북과 징을 울리면서 주관주의와 종파주의를 하며 자기의 정치강령을 들고나와 남을 정복한다. 왕명에게 정치강령이 있었고 리립삼에게도 정치강령이 있었다. 물론 진독수에게도 정치강령이 있었으나 그는 드로즈끼파활동을 하고 분렬활동을 하였으며 당외에서 반당활동을 감행하였다. 장국도는 음모활동과 분렬활동을 감행하다가 국민당편으로 도망쳐갔다. 그러므로 왕명, 리립삼의 문제는 단순히 그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것은 사회적원인을 가지고있다는 그것이다. 이러한 사회적원인은 우리 당내에서 상당한 일부분 사람들이 중요한 고비에 직면하면 동요하는것으로 반영되고있다. 이러한 동요분자가 바로 기회주의이다. 이른바 기회주의란 이것이 유리하면 이것을 하고 저것이 유리하면 저것을 하며 일정한 원칙, 일정한 준칙, 일정한 방향이 없이 오늘은 이랬다가도 래일은 저렇게 하는것이다. 례하면 왕명이 바로 그러하다. 그는 처음에는 극단적《좌》경이던것이 후에는 또 극단적우경으로 되었다.

7차대회때 우리는 왕명, 리립삼을 선거하기 싫어

하는 동지들을 설복하여 그들을 선거하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7차대회후의 이 11년동안에 우리에게 무슨 손실이 있었는가? 조금도 손실이 없었다. 왕명, 리립삼을 선거한것으로 하여 우리의 혁명이 승리하지 못하였거나 몇달 늦게 승리하게 되지는 않았다.

그들을 선거하였다 하여 착오를 범한 사람들이 장려를 받는것인가? 착오를 범한 사람이 중앙위원으로 되었으니 우리도 다같이 착오를 범하는것이 좋겠다, 그러면 어쨌든 중앙위원으로 될 기회를 가지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는가? 그렇지도 않다. 보라, 우리 70 몇명의 중앙위원들은 결코 다시 중앙위원으로 당선되자고 일부러 몇가지 착오를 범하지는 않았다. 《38식》이전의 간부나 《38식》간부나 《38식》이후의 간부나 할것없이 중앙위원으로 당선되지 못한 사람들이 중앙위원으로 되기 위하여 왕명, 리립삼을 본받아 또 두로선을 만들어 네 로선을 이루게 되지 않겠는가? 그럴리 없다. 그들의 착오에 비추어 더 신중해지면 신중해졌지 그렇게 할 사람은 없다.

그리고 또 이전에 소위 《일찍 혁명한것이 늦게 혁명한것만 못하며 혁명을 한것이 혁명하지 않은것만 못하다》는 말들이 돌았는데 그들을 선거하면 당내에서 정확한것이 착오만 못하며 작은 착오가 큰 착오만 못하다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로선착오를 범한 왕명, 리립삼을 중앙위원으로 선거한다면 결국은 정확한 사람이거나 작은 착오를 범한 사람의 자리를 둘이나 내놓아 그들을 올려놓게 되는데 이렇게 처리하는것은 세상에서 가장 불

공정한것이 아니겠는가? 이 면으로부터 본다면 그것은 아주 불공정한것이다. 보다싶이 정확한 사람이거나 작은 착오를 범한 사람이 큰 착오를 범한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하니 이것은 분명히 불공정한것이며 여기에는 공정이라는것이 전연 없다. 만일 이렇게 비긴다면 소위 정확한것이 착오만 못하며 작은 착오가 큰 착오만 못하다는것을 승인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다른 일면으로 볼 때는 이렇지 않다. 그들은 로선착오를 범한것으로 하여 전국에 이름이 났고 전 세계에 이름이 났으니 그들을 선거하는 도리는 바로 그들이 이름이 났다는데 있다. 그들은 이름이 났고, 착오를 범하지 않았거나 작은 착오를 범한 사람들은 그들보다 명성이 높지 못하니 무슨 방법이 있는가! 광범한 소자산계급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들은 기치로 되고있다. 그들을 선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은 그들이 착오를 시정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자리를 들이나 내주기까지 하면서 그냥 그들을 기다리고있다고 말할것이다. 그들이 시정하고 안하는것은 딴 문제이다. 그 문제는 단지 그들 두사람의 문제이므로 그것은 매우 작은 문제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이렇게 많은 소자산계급들이, 우리 당내의 이렇게 많은 소자산계급동요분자들이, 지식분자들중의 이렇게 동요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보기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게 된다는데 있다. 그들은 이 두쪽의 기치가 그대로 있는것을 보면 시름을 놓고 발편잡을 자며 기뻐한다. 이 두쪽의 기치를 넘어뜨리면 그들은 겁을 집어먹는다. 그러므로 왕명, 리립삼이 시정

하고 안하는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들이 시정하고 안하는것은 판계가 크지 않다. 판계가 큰것은 당내의 100만에 달하는, 쉽게 동요하는 소자산계급출신의 사람들 특히는 지식분자들이 왕명, 리립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고있다는 점이다. 바로 우리가 토지개혁에서 부농을 취급하던 경우와 같다. 우리가 부농을 다치지 않으니 중농이 안심하는것이였다. 만일 우리가 8차대회에서 그들 두사람에 대하여 7차대회때와 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 당에 리로울것이며 좋은 점이 있을것이다. 즉 전국의 광범한 소자산계급을 개조하기가 비교적 쉽게 될것이다. 이것은 전 세계에도 영향을 주게 될것이다. 외국에서는 착오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우리와 같은 이런 태도를 취하는 일이 매우 드물며 없다고도 할수 있다.

우리 이번 대회의 예비회의는 그 기간이 오늘부터 계산하여 10여일밖에 안되지만 잘 조직한다면 준비공작을 얼마든지 잘할수 있을것이다. 우리는 이번 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될것이며 대표들의 수준으로 보아 이번 대회가 꼭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을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조심성있고 책임성있게 다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 우리 당의 약간의 역사적경험\*

(1956년 9월 25일)

미제국주의는 당신들의 원수이며 또한 우리의 원수이고 전 세계 인민의 원수이다. 미제국주의가 우리를 간섭하기는 당신들을 간섭하기보다 좀 어려울것이다. 미국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있는것이 그 요인의 하나이다. 그러나 미제국주의는 손을 아주 길게 뻗치고 있다. 미제는 손을 우리 나라의 대만에 뻗치고있으며 일본, 남조선, 남부월남, 비를빈 등지에도 뻗치고있다. 미국은 영국, 불란서, 이태리, 아이슬랜드, 서부독일에도 자기의 군대를 주둔시키고있으며 북아프리카와 중동, 근동에도 자기의 군사기지를 설치하여놓았다. 미제의 손은 전 세계에 뻗치고있다. 미제는 세계적인 제국주의이며 전 세계 인민의 반면교원이다. 전 세계 인민은 단결하여 서로 도우면서 각자의 지방에서 미제의 손을 잘라버려야 한다. 미제의 손을 하나 잘라버리면 그때마다 우리는 그만큼 더 편안하게 된다.

중국도 과거에는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의 압박을 받는 나라였다. 그런만큼 우리는 형편이 서로 비슷

---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라틴아메리카의 일부 정당의 대표들과 하신 담화의 일부분이다.

하다. 한 나라에 농촌인구가 많고 봉건세력이 존재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면도 있지만 무산계급이 평도하는 혁명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또한 좋은 일이기도 하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농민이란 이 광범한 동맹군을 가지게 한다. 10월혁명전의 로씨야에는 봉건주의가 엄청나게 존재하였는데 볼셰위크당은 광범한 농민의 지지가 있었기때문에 혁명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우리 나라는 농업국으로서 5억이상의 인구가 농촌에 있다. 지난날 전쟁에서 우리는 주로 농민에 의거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성시자산계급이 인차 사회주의적개조에 복종하게 된것도 농민들이 조직되고 농업이 합작화되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농민들가운데서의 당의 공작은 매우 중요하다.

봉건주의가 엄청나게 존재하는 나라에서 무산계급정당은 농촌에 가서 농민을 찾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지식분자들이 농촌에 내려가 농민을 대할 때 만일 태도가 좋지 못하면 농민들의 신임을 얻을수 없다. 성시에 있는 지식분자들은 농촌의 사물과 농민의 심리를 잘 모르기때문에 언제나 농민문제를 그리 적절히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장기간에 걸쳐 진정으로 농민들과 한덩어리가 되고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들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한다는것을 믿게 하여야만 승리를 전취할수 있다. 농민들이 대변에 우리를 믿게 되리라고 생각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우리가 농민을 좀 도와주면 그들이 곧 우리를 믿게 되리

라고 생각하여서는 안된다는것을 명기하여야 한다.

농민은 무산계급의 가장 주요한 동맹군이다. 우리 당도 처음에는 농민공작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여 성시공작을 첫자리에 놓고 농촌공작을 둘째자리에 놓았던 것이다. 내가 보전대 아세아의 일부 나라들의 당, 페컨대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당들은 농촌공작을 잘하지 못하고있다.

우리 당도 농민공작에서 처음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지식분자들에게는 다소 틀이 있다. 즉 지식분자들이 있다. 이런 틀이 있으면 농촌에 가기 싫어하며 농촌을 경시하게 된다. 농민들도 지식분자들을 아니꼽게 본다. 우리 당도 당시에는 아직 농촌을 료해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였었다. 후에 다시 농촌에 가서야 농촌을 료해하는 방법을 찾게 되었고 농촌의 각 계급을 분석하였으며 농민들의 혁명적요구를 알게 되었다.

제1시기에 우리는 농촌에 대하여 똑똑히 알지 못하였다. 당시 진독수의 우경기회주의로선은 가장 주요한 동맹군인 농민을 내버리었다. 우리의 많은 동지들은 농촌을 평면적으로 보았고 립체적으로 보지 않았다. 다시말하면 계급적관점으로 농촌을 볼줄 몰랐다. 후에 맑스주의를 장악하게 되어서야 계급적관점으로 농촌을 보게 되었다. 원래 농촌은 평면적인것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잘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사는 사람도 있고 또 가장 못사는 사람도 있었으며 고농, 빈농, 중농, 부농, 지주 등의 구별이 있었다. 이 시기에 나는 농촌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농민운동강습소도 몇



기 꾸렸는데 그때 맑스주의를 다소 알고는 있었으나 농촌을 깊이 들여다보지는 못하였다.

제2시기에 대하여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좋은 선생에게 감사를 드려야 하겠다. 그 선생은 다름아닌 장개석이었다. 그는 우리를 농촌으로 쫓았다. 이 시기는 매우 길었다. 10년내전이 벌어져 우리가 장개석과 10년 동안이나 싸웠다. 그러다보니 우리는 농촌을 잘 연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10년동안에도 처음 몇해동안은 농촌을 그리 심각히 료해하지 못하였으며 나중에야 비교적 료해하게 되었고 또 그 료해가 비교적 심각하여졌다. 이 시기에 구주백, 리립삼, 왕명을 대표자로 하는 세차례의 《좌》경기회주의로선이 우리 당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주었다. 특히 왕명의 《좌》경기회주의로선은 우리 당의 농촌근거지를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게 하였다.

다음은 제3시기, 즉 항일전쟁시기였다. 일본제국주의가 쳐들어오자 우리는 국민당과의 내전을 중지하고 일본제국주의와 싸웠다. 이때 우리의 동지들은 공개적으로 국민당지구의 성시로 들어갈수 있었다. 원래 《좌》경기회주의로선의 착오를 범하였던 왕명이 이때에는 또 우경기회주의로선의 착오를 범하였다. 처음에는 국제공산당의 가장 《좌》적인 방침을 집행한 그가 이때에 와서는 또 가장 우적인 방침을 집행하였다. 그 역시 우리의 아주 훌륭한 반면교원으로서 우리 당을 교육하였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한 훌륭한 반면교원이 있는데 그는 리립삼이었다. 당시 그들의 주요한 착오는 교

조주의로서 외국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옮겨온것이다. 우리 당은 그들의 그릇된 로선을 청산한 뒤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진리를 중국의 구체적정형에 결합시키는 길을 진정으로 찾아내었다. 바로 이때문에 우리는 제4시기에, 즉 장개적이 우리를 진공할 때에 장개적을 타도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할수 있었다.

중국혁명의 경험, 농촌근거지를 진립하여 농촌으로써 성시를 포위하고 나중에 성시를 탈취한 경험이 당신들 여러 나라에 다 적용되는것은 아니겠지만 참고할수는 있을것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중국의 경험을 절대 기계적으로 옮겨가지 말것을 충고하는바이다. 어떠한 외국의 경험이나 그것을 참고할수 있을뿐이지 교조로 삼아서는 안된다. 반드시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진리와 자국의 구체적정형이 두 측면을 결합시켜야 한다.

농민을 생취하며 농민에 의거하려면 농촌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몇주일이란 시일을 들여 한두개 또는 몇개의 농촌을 조사함으로써 농촌의 계급력량, 경제정황, 생활조건 등 문제들을 똑똑히 료해하는것이다. 당의 총서기와 같은 주요한 령도자들이 시간을 좀 짜내어 직접 내려가 한두개의 농촌을 료해하는것은 수지가 맞는 일이다. 참새가 많기는 하지만 모든 참새를 하나하나 다 해부해볼 필요는 없다. 그저 한두마리만 해부해보면 되는것이다. 총서기가 한두개의 농촌을 조사하여 파악이 생기면 농촌에 가서 농촌을 료해하며 농촌의 구체적정황을 똑똑히 알도록 다른 동지들을 도와줄수 있다. 내가 보건대 많은 나라의 당들에서는

총서기가 《참새》를 한두마리 해부하는데 중시를 돌리지 않기때문에 농촌에 대하여 다소 알고는 있어도 깊이 알지 못하고있으며 따라서 농촌정형에 잘 맞지 않는 지시를 내리고있다. 전국성을 띤 령도기관과 성, 현의 령도기관을 망라한 당령도기관의 책임동지들도 직접 한두개 농촌을 조사하며 《참새》를 한두마리 해부하여야 한다. 이것을 《해부학》이라 한다.

조사를 하는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말타고 꽃구경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말에서 내려 꽃구경하는것이다. 말타고 꽃구경하여서는 심입할수 없다. 그것은 꽃이 너무 많기때문이다. 당신들은 라틴아메리카로부터 아세아로 왔는데 이것은 말타고 꽃구경을 한것이다. 당신들의 나라에 꽃이 그렇게도 많은데 피뚝 돌아보고 지나서는 매우 부족하다. 그러므로 말에서 내려 꽃구경하는 두번째방법을 취하여 꽃을 자세히 보아야 하며 《꽃》 한송이를 분석해보아야 하고 《참새》 한마리를 해부해보아야 한다.

제국주의의 압박을 받고있는 나라에는 두가지 자산계급, 즉 민족자산계급과 매관자산계급이 있다. 당신들의 나라에는 이런 두가지 자산계급이 있는가 없는가? 아마 다 있을것이다.

매관자산계급은 어디까지나 제국주의의 주구이며 혁명의 대상이다. 매관자산계급은 또 각기 미국, 영국, 불란서 및 기타 제국주의나라의 독점자본집단에 예속되어있다. 매관집단과의 투쟁에 있어서는 제국주의간의 모순을 리용하여 우선 그중의 하나를 대처하며 당면의

가장 주요한 적을 타격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지난 날 중국의 매관자산계급가운데는 친영파, 친미파, 친일파가 있었다. 항일전쟁시기에 우리는 영국, 미국과 일본간의 모순을 리용하여 우선 일본침략자와 그에 예속된 매관집단을 타도하였다. 그런후에 다시 미, 영 침략세력을 반대하고 친미매관집단과 친영매관집단을 타도하였다. 지주계급내부에도 파벌이 있다. 가장 반동적인 지주는 소수이다. 애국적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데 찬성하는 그런 지주들까지 몰밀어 타도하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대지주와 소지주를 구별하여야 한다. 한시기에 타격하는 적이 너무 많아서 안되고 소수를 타격하여야 하며 지어 대지주에 대하여서도 소수의 가장 반동적인자들만 타격하여야 한다. 어떠한것이냐 다 타격하는것은 보기에 아주 혁명적인것 같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매우 해롭다.

민족자산계급은 우리의 원수이다. 중국에는 《원수가 아니면 마주서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다. 중국혁명에는 하나의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민족자산계급을 대처함에 있어서 신중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민족자산계급은 공인계급과 대립하고있으나 동시에 또 제국주의와도 대립하고있다. 우리의 주요한 임무가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것이고 이 두 적을 타도하지 않고서는 인민이 해방될수 없는만큼 우리는 반드시 제국주의를 반대하도록 민족자산계급을 쟁취하여야 한다. 봉건주의를 반대하는데 대하여는 민족자산계급이 흥취를 가지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이 지주계급과 밀

접한 련계를 가지고있기때문이다. 그들은 또한 공인을 압박하고 착취한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투쟁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제국주의를 반대하도록 민족자산계급을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에 대한 투쟁을 적당한데서 그쳐야 하며 리유가 있고 리점이 있고 절도가 있어야 한다. 즉 투쟁에 도리가 있어야 하고 승리할 자신이 있어야 하며 적당한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는 절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쌍방의 정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공인의 정황도 조사하여야 하고 자본가의 정황도 조사하여야 한다. 공인에 대하여서만 알고 자본가에 대하여서는 모른다면 우리는 자본가와 담판을 할수가 없다. 이 면에서도 역시 전형조사를 하고 《참새》를 한두마리 해부하여야 하며 역시 말타고 쫓구경하는것과 말에서 내려 쫓구경하는 두가지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전반 력사시기에 우리는 민족자산계급을 쟁취하고 단결하여 그들로 하여금 인민의 편에 서서 제국주의를 반대하게 하여야 한다. 반제, 반봉건 임무를 기본적으로 완성한후에도 일정한 기간 그들과의 련맹을 그냥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처하는데 유리하며 생산을 발전시키고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유리하며 자산계급지식분자들을 쟁취하고 개조하는데 유리하다.

지금 당신들은 아직 정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당신들은 정권을 탈취하려고 준비하고있다. 민족자산

계급에 대하여서는 《단결도 하고 투쟁도 하는》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그들과 단결하여 함께 제국주의를 반대하여야 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그들의 모든 언행을 지지하여야 한다. 공인계급과 공산당을 반대하는 그들의 반동적언행에 대하여서는 적당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어느 한 측면만을 취하는것은 잘못이다. 즉 투쟁만 하고 단결을 거부하는것은 《좌》경적착오이고 단결만 하고 투쟁을 거부하는것은 우경적착오이다. 우리 당은 이 두가지 착오를 다 범한적이 있다. 그것은 몹시 뼈저린 경험이였다. 그후에 우리는 이 두가지 경험을 총결하고 《단결도 하고 투쟁도 하는》 정책을 취하여 투쟁하여야 할것은 투쟁하고 단결할수 있는것은 단결하였다. 투쟁하는 목적은 그들을 단결하여 반제투쟁의 승리를 달성하려는데 있었다.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의 압박을 받고있는 나라들에서 무산계급정당이 민족의 기치를 자기 손에 쥐려면 민족단결의 강령이 있어야 하며 제국주의의 주구를 제외한, 단결할수 있는 모든 력량을 단결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전국 인민들에게 공산당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며 얼마나 평화를 사랑하며 얼마나 민족의 단결을 도모하는가 하는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제국주의와 그 주구를 고립시키는데 유리하며 대지주, 대자산계급을 고립시키는데 유리하다.

공산당인은 착오를 범하는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착오는 이중성을 가지고있다. 착오는 한편으로 당을 해치고 인민을 해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좋은 교원이어서 당과 인민을 훌륭히 교육하며 혁명에  
리로운 점이 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실패에  
좋은 점이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성공의 어머니로 되  
겠는가? 착오는 많이 범하면 꼭 그 반면으로 전화된  
다. 이것은 맑스주의이다. 《사물은 극점에 달하면 필  
연적으로 대립면으로 나아가게 된다.》 착오가 쌓이면  
광명이 곧 닥쳐오게 된다.

## 손중산선생을 기념하여\*

(1956년 11월 12일)

위대한 혁명선구자 손중산선생을 기념한다!

중국민주혁명의 준비기에 선명하게 중국의 혁명적 민주파의 립장에 서서 중국의 개량파와 날카롭게 투쟁한 그를 기념한다. 이 투쟁에서 그는 중국의 혁명적 민주파의 기치였다.

신해혁명시기에 인민을 령도하여 군주제를 뒤엎고 공화국을 세운 그의 위대한 업적을 기념한다.

제1차국공합작시기에 구삼민주의를 신삼민주의로 발전시킨 그의 위대한 업적을 기념한다.

그는 정치사상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한것들을 남겨주었다.

현대의 중국사람들은 한줌도 못되는 반동분자들을 제한외에는 모두가 손선생의 혁명사업의 계승자이다.

우리는 손선생이 완수하지 못한 민주혁명을 완수하였으며 또 이 혁명을 사회주의혁명으로 발전시켰었다. 우리는 지금 이 사회주의혁명을 완수하는중에 있다.

---

\* 이것은 토력동동지께서 손중산선생 탄신 90주년을 기념하여 쓰신 글이다.



사물은 언제나 발전한다. 1911년의 혁명, 즉 신해 혁명으로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는 45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중국의 면모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45년이 더 지나 2001년, 즉 21세기에 들어서는 때이면 중국의 면모는 더욱 크게 달라질것이다. 중국은 강대한 사회주의공업국으로 될것이다. 중국은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중국은 960만평방키로메터의 땅과 6억 인구를 가진 나라인만큼 인류에 대하여 보다 큰 공헌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공헌은 지난 오랜 시기에 걸쳐 너무나 적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러나 겸손하여야 한다. 비단 지금 이러하여야 할뿐아니라 45년이후에도 이러하여야 하며 영원히 이러하여야 한다. 국제적교제에 있어서 중국사람은 대국주의를 견결히, 철저히, 깨끗이, 모조리 청산하여야 한다.

손선생은 겸손한 사람이였다. 나는 그의 강연을 여러번 듣는 가운데서 그에게 웅대한 기백이 있다는것을 느끼였다. 그가 중국의 력사적정황과 당면한 사회정황을 주의깊이 연구한다는 면으로부터, 또한 쏘련을 포함한 외국의 정황을 주의깊이 연구한다는 면으로부터 나는 그가 매우 허심한 사람이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그는 중국을 개조하기 위하여 전심전의로 일생의 정력을 다 기울였으며 실로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바치였던것이다.

정면에 서서 시대의 조류를 지도한 많은 위대한 력사적인물들이 거의다 자기의 결함을 가지고있다싶

이 손선생도 자기의 결함을 가지고있었다. 이에 대하여서는 역사적조건으로부터 설명하여 사람들에게 리해시켜야 할 것이며 이전의 사람들에게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 중국공산당 제8기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한 강화

(1956년 11월 15일)

나는 네가지 문제, 즉 경제문제, 국제형세문제, 중  
쏘관계문제, 대민주와 소민주 문제를 말하려 한다.

### 1

우리는 문제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그래야 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할수 있다. 전진하는가 아니면 후퇴하는가, 말을 타는가 아니면 말에서 내리는가 하는것은 모두 변증법에 좇아야 한다. 세상에는 말을 타는것과 말에서 내리는것, 전진하는것과 후퇴하는것이 언제나 있다. 말을 타고 온종일 가기만 하고 말에서 내리지 않는 법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걸음을 걸을 때 두발을 한꺼번에 내디디는것이 아니라 언제나 엇갈아내디딘다. 첫걸음을 내디딜 때는 이쪽 발이 앞에 나가고 저쪽 발은 뒤에 놓이며 다음 걸음을 내디딜 때는 저쪽 발이 앞에 나가고 이쪽 발은 뒤에 놓인다. 영화를 보면 영사막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냥 움직이기만 하나 영화의 필립을 보면 매 한장한장에 나타난

사람들은 죄다 정지상태에 있다. 《장자》의 《천하편》에서는 《날고있는 새의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움직이기도 하고 움직이지 않기도 하는 이것이 세상의 변증법이다. 그냥 움직이지 않는것도 없고 그냥 움직이기만 하는것도 없다. 운동은 절대적이며 정지는 일시적이고 조건적이다.

우리의 계획경제는 균형이 잡히기도 하고 균형이 잡히지 않기도 한다. 균형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이다. 일시적으로 균형이 잡혔다가도 뒤이어 곧 변동이 생긴다. 상반기에 균형이 잡혔다가도 하반기에 가서는 균형이 잡히지 않게 되며 금년에 균형이 잡혔다가도 명년에 가서는 또 균형이 잡히지 않게 된다. 균형이 잡혀있기만 하고 균형이 타파되지 않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우리 맑스주의자들은 불균형, 모순, 투쟁, 발전은 절대적이고 균형, 정지는 상대적이라고 인정한다. 상대적이라는것은 바로 일시적이며 조건적이라는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의 경제문제를 볼 때 대체 우리의 경제가 전진하는가, 후퇴하는가? 우리는 간부들과 광범한 군중들에게 전진도 하고 후퇴도 하지만 주로는 전진한다는것, 그러되 직선적으로 전진하는것이 아니라 파상식으로 전진한다는것을 말해주어야 하며 비록 말에서 내릴 때도 있으나 어쨌든 말을 타는 때가 많다는것을 말해주어야 한다. 우리의 각급 당위, 각 부, 각급 정부는 전진을 추동하는가? 아니면 후퇴를 추동하는가? 근본적으로는 역시 전진을 추동하고있다. 사회는 언제나 전진하는것이다. 전진하는것이 총적추세

이며 발전하는것이 총적추세이다.

제1차5개년계획이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은가? 나는 다음과 같은 의견에 찬성한다. 즉 지난 4년동안의 정형으로부터 똑똑히 알수 있는바와 같이 제1차5개년계획은 근본적으로 정확한것이다. 착오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경험이 없기때문에 피하기 어려운것이다. 앞으로 몇차의 5개년계획을 실시하여 경험이 있게 되어도 착오를 범하겠는가? 그래도 범하게 될것이다. 경험을 배우는데는 끝이 없는것이다. 만년후에는 계획을 세울 때 착오를 조금도 범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만년후의 일은 우리가 상관할바가 아니지만 그때에 가서도 의연히 착오를 범하게 되리라는것은 긍정할수 있다. 청년은 착오를 범하여도 로년은 착오를 범하지 않는단 말인가? 공자는 자기가 70세부터는 무슨 일을 하나 다 객관법칙에 부합되었다[1]고 하였는데 나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허풍이다. 우리의 제1차5개년계획에 들어있는 규정액이상의 건설항목가운데서 일부분은 쓰련이 우리를 도와 설계해준것이고 대부분은 우리자체로 설계한것이다. 그래, 중국사람은 못하는가? 우리도 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일부분은 아직 우리자체로 설계할수 없는만큼 우리는 아직 못하는 점도 있다는 것을 승인하여야 한다. 지난 몇해동안의 건설과정에는 어떤 동지들이 말한것처럼 《빠》에만 주의를 돌리고 《살》에는 그리 주의를 돌리지 못한 문제가 존재한다. 즉 공장건물과 기계설비 등은 건설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시정건설과 복무시설건설은 하지 않았으므로  
장차 문제가 클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이 문제의 영  
향은 제1차5개년계획에서가 아니라 제2차5개년계획에  
서 나타날것이다. 혹은 제3차5개년계획때까지 갈는지도  
모른다. 제1차5개년계획이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은가  
에 대하여서는 지금 다소 결론을 내릴수 있고 명년에  
도 다소 결론을 내릴수 있지만 제2차5개년계획의 말기  
에 가서야 완전한 결론을 내릴수 있을것이다. 이 일  
에서 주관주의를 조금도 범하지 않는다는것은 불가능하  
다. 착오를 좀 범하여도 나쁠것은 없다. 성적에도 이  
중성이 있거니와 착오에도 이중성이 있다. 성적은 사  
람들을 고무격려할수 있지만 동시에 교만하게 할수 있  
으며 착오는 사람들을 좌절되게 하며 속을 태우게 하  
는 원수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훌륭한 교원이기  
도 하다. 총적으로 아직은 제1차5개년계획에서 그 어  
떤 큰 착오거나 그 어떤 근본적인 성질을 띤 착오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간부들과 인민군중들의 적극성을 보호하여야 하며  
그들의 머리에 랭수를 끼이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  
들은 일적 농업의 사회주의적개조문제에서 랭수를 끼  
었다. 그때 《축퇴위원회》라는것이 있었다. 후에 우  
리는 랭수를 끼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촉진회  
를 내세웠다. 원래는 18년동안에 소유제면에서의 사회  
주의적개조를 기본적으로 완수하기로 계획하였는데 한  
번 촉진하자 그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농업발전요강  
초안에는 1958년에 가서 고급형태의 농업합작화를 완

성한다고 써여있는데 지금 보아서는 금년겨울과 명년 봄이면 실현될것 같다. 비록 결함도 적지 않지만 그 축퇴회보다는 나아서 농민들이 기뻐하고 농업에서 증산을 가져왔다. 이 합작화가 없었더라면 금년 같은 큰 재해년에 량곡을 200여억근이나 증산한다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였을것이다. 재해구에서도 합작사가 있어서 생산으로 재해를 극복하는데 편리하게 되었다. 간부들과 인민군중들의 적극성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조건 밑에서 그들의 결점을 비평하고 우리자신의 결점을 비평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힘이 날것이다. 군중들은 할것을 요구하나 당분간 할수 없는 일에 대하여서는 군중들에게 명백히 해설해주어야 하며 또한 명백히 해설해줄수 있는것이다.

매년의 국가예산은 세번 따져보고 결정하여야 한다. 다시말하면 우리 중앙위원회의 동지들이, 그리고 일부 관계부문의 동지들도 참가시켜 세번 회의를 열고 토론한 뒤에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모두가 다 예산의 내용을 알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나 직접 취급하는 동지들이나 비교적 깊이 알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손을 들어 찬동이나 하게 된다. 찬동은 하였으나 그것을 안다고 할수 있는가?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며 그리 명백히 알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러면 세번 따져보고 결정하는 방법을 쓰면 아주 똑똑히 알게 되는가? 그런것도 아니다. 그래도 직접 취급하는 동지들 보다는 못하다. 비유해말하면 그들은 무대우의 연원이고 우리는 관중이여서 그들은 극을 늘줄 알지만 우

리는 극을 놀출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늘 구경하면 잘 놀고 못노는것을 비교적 정확히 판단할수 있다. 극을 잘 노는가 못노는가 하는것은 결국 관중들이 평판하게 된다. 연원의 착오를 시정하려면 관중들에게 의거하여야 한다. 관중의 고명한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관중들이 구경하기 좋아하는 극은 계속 공연할수 있다. 관중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극은 고쳐야 한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중앙위원회내부에는 또 전문가와 비전문가와 의 모순이 있다. 전문가는 전문가로서의 장점이 있고 비전문가는 비전문가로서의 장점이 있다. 비전문가는 옳은것과 그른것을, 감별할수 있는것이다.

1956년의 국가예산에 관한 보고에 《온당한 믿음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앞으로는 《충분한 믿음성》이라고 고칠것을 나는 제의한다. 금년 1월에 열린 지식분자문제에 관한 회의때 나는 《충분한 믿음성》을 가지게 되어야 한다고 제기한바 있다. 온당이라는 말과 믿음성이라는 말은 그 의미로 보아 중복되는것이다. 온당이라는 말로 믿음성이라는 말을 형용하여서는 아무것도 보태지 못하며 또 아무것도 규정하지 못한다. 형용사는 수식어이면서도 규정어이다. 충분한 믿음성이라고 하면 그 정도상에서 믿음성이 규정된다. 즉 그것은 보통의 믿음성이 아니라 충분한 믿음성이라는것이다. 충분한 믿음성을 가지게 되자면 쉬운 일이 아니다. 금년 6월 인민대표대회에서 예산을 통과할 때 모두가 믿음성이 있다고 하였다. 지금 보면 이 예산의 10분의 1이



못되는 부분은 믿음성이 없는데 어떤 항목은 잘못 배정하였고 어떤 항목은 돈이 더 들었다. 그러므로 금후에는 예산의 항목들을 잘 배정하는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항목들이 도대체 잘 배정되었는가 못되었는가에 대하여서는 전문가들이 주의를 돌려야 하는 동시에 우리도 주의를 돌려야 하며 특히 성급의 동지들이 주의를 돌려야 한다. 물론 모두가 다 주의를 돌려야 한다.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의 성, 시, 자치구 당위서기들은 재정을 틀어쥐고 계획을 틀어쥐어야 한다. 이전에 일부 동지들은 잘 틀어쥐지 않았다. 량곡, 돼지고기, 닭알, 채소 등 문제들에 대하여 동지들이 주의를 돌려주기 바란다.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이다. 작년겨울에 량곡생산을 집중적으로 틀어쥐면서부터 부업과 경제작물이 홀시되었다. 그후 또 이 편차를 시정하고 부업과 경제작물을 틀어쥐게 되자, 특히 면화와 량곡의 가격비율, 기름과 량곡의 가격비율, 돼지와 량곡의 가격비율, 담배와 량곡의 가격비율 등등 20가지, 30가지 항목의 가격비율을 정하자 농민들은 부업과 경제작물에 큰 흥미를 가지게 되었으나 량곡생산이 또 올라가지 못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량곡생산에 너무 치우치다가 다음에는 또 부업과 경제작물생산에 너무 치우치게 되었다. 폭가가 낮으면 농민을 해하게 된다. 폭가가 그렇게 낮아서는 농민들이 량곡을 생산하지 않게 된다. 이 문제에 큰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

근접하게 나라를 건설하여야 하며 떠벌려랑비하는 것을 반대하여야 하며 간고소박하고 교락을 같이할것

을 제창하여야 한다. 동지들은 공장장이나 교장도 막 집에서 살수 있다고 제기하였는데 그 방법이 좋을것 같다. 어려운 시기에는 더구나 그렇게 하는것이 좋다. 우리가 장정도상에서 초지를 지날 때는 집이라고는 전혀 없어 밖에서 잤고 주총사령도 40일동안 초지를 걸 으면서 역시 밖에서 잤으며 그래도 다 견디어냈던것이다. 우리 부대는 식량이 없으면 나무껍질과 나무잎을 먹었다. 인민들하고 복을 같이 누리고 화를 같이 겪는 이것은 우리가 지난날 해온것인데 어째서 오늘에 와서는 그렇게 할수 없겠는가? 오직 이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는 군중을 탈리하지 않게 된다.

신문을 들어줘야 한다. 중앙이나 각급 당위나 할것없이 신문을 발간하는 곳에서는 신문푸리는 일을 중대한 일로 간주하여야 한다. 금년에 들어서서 신문들은 인민의 생활을 개선할데 대하여는 편면적으로, 실제에 맞지 않게 선전하면서 근검하게 나라를 건설할 것, 떠벌려랑비하는것을 반대할것, 간고소박하며 고락을 같이할것을 제창할것 등등에 대하여서는 매우 적게 선전하고있는데 금후에는 신문의 선전중점을 이면에 돌려야 한다.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내용도 아마 신문에서 온것일것이다. 그러므로 신문기자, 신문공작인원과 방송공작인원들을 불러다 회의를 열고 그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그들에게 선전방침을 알려주어야 한다.

여기서 반혁명진압문제도 말하여야 하겠다. 최악이 극히 큰 토호렬신, 악패, 반혁명을 죽여야 하는가 죽이지 말아야 하는가? 죽여야 한다. 일부 민주인사들

은 잘못 죽었다고 하고 우리는 잘 죽었다고 한다. 이것은 말하자면 서로 상반되는 대립면을 이루고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 우리는 늘 민주인사들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 우리가 죽인것은 《작은 장개석》들이다. 《큰 장개석》, 례컨대 선통황제, 왕요무, 두울명 같은 사람은 우리는 하나도 죽이지 않는다. 그러나 《작은 장개석》들은 죽이지 않으면 우리 발밑에서 매일과 같이 《지진》이 일어나 생산력이 해방될수 없고 로동인민이 해방될수 없다. 생산력에는 로동자와 도구 두가지가 있다. 반혁명을 진압하지 않으면 로동인민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소도 좋아하지 않고 호미도 좋아하지 않으며 땅도 언짢아한다. 그것은 소, 호미, 땅을 다루는 농민들이 좋아하지 않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반혁명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일부를 죽여야 하며 그리고 또 일부를 체포하여야 하며 일부를 관제하여야 한다.

## 2

국제형세는 총적으로 보아 좋다. 그까짓 몇개 제국주의가 다 무엇이겠는가? 몇십개 제국주의가 더 있다 하여도 두려울것 없다.

지금 두곳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한곳은 동구라파이고 한곳은 중동이다. 파란, 웅그리아에서 소동이 일어났고〔2〕 영국과 불란서가 애급에 대하여 무력적침략을 감행하였는데 이런 나쁜 일들은 또한 좋은 일이기도 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맑스주의자의 견지에서 볼

때 나쁜 일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일》이라는 글자앞에 《나쁜》이라는 글자가 있는것을 보고 그것을 나쁜것으로만 여기고있다. 우리는 거기에는 또 다른 한가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즉 그것은 또한 좋은 일이기도 하다. 이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것이 바로 그런 뜻이다. 무릇 실패, 좌절, 착오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수 있는것이다. 과란이나 웡그리아에 불이 있는 이상 어쨌든 타오르기 마련이다. 타오르는것이 좋은가 타오르지 않는것이 좋은가? 종이로는 불을 짚수 없는것이다. 지금 타올랐는데 그것은 좋은것이다. 웡그리아에 있는 그 많은 반혁명들이 그 바람에 폭로되었다. 웡그리아사건은 웡그리아인민들을 교육하였으며 동시에 쏘련의 일부 동지들을 교육하였고 우리 중국의 동지들도 교육하였다. 베리야 문제가 나오자 사람들은 사회주의나라에서 베리야가 나오다니! 하고 깜짝 놀랐고 고강문제가 나오니 또 크게 놀랐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런 사건들은 의례 있을수 있는 일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수 있는 일이다.

장차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가 죄다 타도되고 계급이 소멸된 다음에는 혁명이 없게 되겠는가? 여전히 혁명을 하여야 할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회제도를 개혁하여야 할것이므로 《혁명》이라는 말은 의연히 쓰게 될것이다. 물론 그때에 가서는 혁명의 성질이 계급투쟁시대의 혁명과는 다를것이다. 그때에 가셔도 생산

관계와 생산력간의 모순, 상층건축과 경제기초간의 모순이 있을것이다. 생산관계가 적응되지 않으면 그것을 뒤엎어야 한다. 상층건축(여기에는 사상, 여론이 포함된다.)이 만일 인민들이 싫어하는 생산관계를 보호한다면 인민들은 그것을 개혁할것이다. 상층건축도 일종의 사회관계이다. 상층건축은 경제기초우에 건립되어 있다. 이른바 경제기초란 바로 생산관계를 말하며 주로는 소유제를 말한다. 생산력은 가장 혁명적인 요인이다. 생산력이 발전하면 언제나 혁명을 일으키게 된다. 생산력에는 두가지가 포함되어있는데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도구이다. 도구는 사람에 의하여 창조된다. 도구가 혁명하려 할 때에는 그것은 사람을 통하여, 노동자를 통하여 말함으로써 낡은 생산관계를 파괴하며 낡은 사회관계를 파괴한다. 《군자는 말로 하고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말로 하는것이다. 좋게 말해도 듣지 않는 경우에는 무력으로 말하게 된다. 무기가 없는 때에는 어떻게 하는가? 노동자들에게는 도구가 있다. 도구가 없으면 돌맹이를 들수 있으며 돌맹이도 없으면 두주먹이 있는것이다.

우리의 국가기관은 무산계급전정의 국가기관이다. 법령을 놓고 말하면 그것은 반혁명에 대처하기 위한것이지만 그러나 순전히 반혁명만 대처하는것도 아니고 인민내부의 많은 분규도 처리하게 된다. 그러니 법령은 만년후에도 필요할것 같다. 계급이 소멸된후에도 의연히 선진과 낙후간의 모순이 있을것이고 사람들 사이에 투쟁이 있을것이고 싸움이 있을것이며 여러가

지 소동도 생길수 있을것인데 법정이 없어서야 어찌 되겠는가! 그렇지만 투쟁은 성질이 개변되어 계급투쟁과는 다르게 될것이다. 법정도 그 성질이 달라질것이다. 그때에도 상층진축에서 문제가 생길수 있다. 이를테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착오를 범하여 결국은 투쟁에서 이기지 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밀려나가고 고물가가 올라았으며 요수석이 올라았게 될수도 있을것이다. 이런 일이 없겠는가? 내가 보기에는 천년, 만년후에 가서도 있을것이다.

### 3

세상의 모든 사물은 다 대립물의 통일이다. 이른바 대립물의 통일이란 성질이 각이한 대립되는 사물의 통일을 말한다. 레킨대 물은 두 원소, 즉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어 이루어졌다. 만일 수소만 있고 산소가 없거나 산소만 있고 수소가 없다면 물이 되지 않는다. 듣전대 지금까지 이름지은 화합물만 하여도 100여만종이라 하는데 이름짓지 않은 화합물이 또 얼마이겠는지 모른다. 화합물은 모두 성질이 각이한 사물의 대립물의 통일이다. 사회의 일들도 역시 이러하다. 중앙과 지방도 대립물의 통일이고 이 부와 저 부도 대립물의 통일이다.

두 나라도 대립물의 통일이다. 중국과 소련 두 나라는 다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점이 없는가? 있는것이다. 소련과 중국은 그 민족이 다르다. 그리

고 쏘련에서는 39년전에 10월혁명이 일어났으나 우리는 전국적정권을 취득한지가 불과 7년밖에 안된다. 하여놓은 일들을 보면 다른 점들이 매우 많다. 폐컨대 우리가 농업집체화에서 몇개의 절차를 거치는 점이 그들과 다르며 자본가를 대하는 우리의 정책이 그들과 다르며 우리의 시장물가정책이 그들과 다르며 농업, 경공업과 중공업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처리법이 그들과 다르며 우리 군대내의 제도와 당내의 제도도 그들과 다르다. 일찍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는 당신들의 일부 일들에 동의하지 않으며 당신들의 일부 방법들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한적이 있다.

일부 동지들은 변증법을 무시하며 분석을 하지 않고 쏘련의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좋다고 하면서 쏘련의 모든것을 기계적으로 옮겨온다. 사실은 중국의것이나 외국의것이나 다 분석해보아야 한다. 분석해보면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것도 있다. 매개 성의 공작도 역시 그러하다. 거기에는 성적도 있고 결점도 있다. 우리 매개 사람들도 역시 그러하다. 모두가 우점도 있고 결점도 있으며 한가지만 있는것이 아니라 두가지가 다 있다. 일점론이 예로부터 있었는가 하면 이점론도 예로부터 있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형이상학과 변증법이다. 중국의 옛사람은 《음도 있고 양도 있는것이 도이다》[3]라고 하였다. 음만 있고 양이 없거나 양만 있고 음이 없을수는 없다는것이다. 이것이 고대의 이점론이다. 형이상학은 일점론이다. 지금 일점론이 적지 않은 동지들에게서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있다. 그

들은 문제를 일면적으로 보고 쓰련의것은 다 좋다고 여기면서 무엇이냐 다 그대로 몽땅 옮겨오고있으며 옮겨오지 말아야 할것도 적지 않게 옮겨왔다. 잘못 옮겨 온것들, 우리 중국땅에 맞지 않는것들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여기서 《외국과 내통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하겠다. 우리 중국에 중앙을 기이고 외국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가? 나는 있다고 본다. 고강이 바로 그중의 한사람이다. 이것은 많은 사실들이 증명하고있는것이다.

1953년 12월 24일, 고강을 적발하는 중앙회의에서 나는 이렇게 선포한 일이 있다. 북경에는 두개 사령부가 있다. 하나는 우리들의 사령부인데 이 사령부는 정당한 바람을 일으키며 정당한 불을 달고있다. 다른 사령부는 지하사령부로서 거기서도 바람을 일으키며 불을 달고있는데 그것은 음흉한 바람을 일으키며 음흉한 불을 달고있다. 우리의 옛사람인 립대옥은 동풍이 서풍을 압도하지 않으면 서풍이 동풍을 압도한다고 하였다. 지금은 어떤가? 정당한 바람, 정당한 불이 음흉한 바람, 음흉한 불을 압도하지 않으면 음흉한 바람, 음흉한 불이 정당한 바람, 정당한 불을 압도하게 된다. 그들이 음흉한 바람을 일으키며 음흉한 불을 다는 그 목적은 정당한 바람을 압도하고 정당한 불을 꺼버리며 많은 사람들을 때려엎으려는것이다.

우리의 고급간부, 중급간부들중에는 이밖에도 외국과 내통하는 개별적사람들이 있다(많지 않다). 이



것은 좋지 않은것이다. 나는 동지들이 중앙 각 부문의 당조나 당위에서 그리고 성, 시, 자치구 당위급에서 이 문제를 여러 사람들에게 똑똑히 말하여 이런짓을 하지 않게 할것을 희망한다. 당중앙에서는 이미 쏘련측에 우리가 쏘련의 어떤 일들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것을 여러번 말하였다. 어떤 문제들은 아직 말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말하려 한다. 할 말이 있으면 중앙을 통하여 말하여야 한다. 정보는 내통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정보는 오직 해로울뿐 아무런 쓸데도 없는것이다. 그것은 두 당, 두 나라의 관계를 파괴하는것이다. 이런짓을 하는 사람은 자기자신도 아주 난처하게 된다. 당을 속였으니 언제나 마음에 가책을 받게 되기때문이다. 정보를 보낸 사람은 보냈다고 제절로 내놓으면 그만이다. 제절로 내놓지 않으면 조사하여야 하며 사출되면 적당한 처분을 주어야 한다.

쏘련공산당 제20차대표대회에 관하여 좀 말하려 한다. 내가 보기에는 두자루의 《칼》이 있는데 한자루는 레닌이라는 칼이고 한자루는 쓰딸린이라는 칼이다. 지금 쓰딸린이라는 이 칼은 로씨야사람들이 내버렸다. 고물까와 웨그리아의 일부 사람들은 이 칼을 주어들고 쏘련을 찌르며 이른바 쓰딸린주의를 반대하여나섰다. 구라파의 많은 나라의 공산당들에서도 쏘련을 비평하고있는데 그 령수는 톨리앗티이다. 제국주의도 이 칼을 가지고 사람을 찌르고있는데 바로 델레스가 이 칼을 가지고 한바탕 휘둘렀던것이다. 이 칼은 빌려준것이 아니라 내버린것이다. 우리 중국에서는 내버리지

않았다. 우리는 첫째로는 쓰딸린을 보호하며 둘째로는 쓰딸린의 착오를 비평도 한다. 그리하여 《무산계급전정의 역사적경험에 관하여》라는 글을 썼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처럼 쓰딸린을 모독하고 훼손하는것이 아니라 실지정형에 따라 처사한다.

레닌이란 이 칼도 지금 쓰련의 일부 평도자들이 더러 내버리지 않았는지? 내가 보기에는 역시 상당히 많이 내버린것 같다. 10월혁명이 의연히 효험이 있는가 없는가? 의연히 각국의 모범으로 될수 있는가 없는가? 흐루쇼브는 쓰련공산당 제20차대표대회에서 한 보고에서 의회의 길을 통하여 정권을 잡을수 있다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다른 나라들이 10월혁명을 따라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이 문을 열어놓으면 레닌주의는 기본상 내버린것으로 되고만다.

레닌주의학설은 맑스주의를 발전시켰다. 어떤 면에서 발전시켰는가? 첫째로 세계관면에서, 다시말하면 유물론과 변증법 면에서 맑스주의를 발전시켰으며 둘째로 혁명적리론과 혁명적책략 면에서, 특히 계급투쟁과 무산계급전정과 무산계급정당 등 문제에서 맑스주의를 발전시켰다. 레닌에게는 또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학설이 있다. 1917년 10월혁명으로부터 시작하여 혁명하면서 건설도 진행하였는데 이 면에서 레닌에게는 7년동안의 실천이 있다. 이것은 맑스에게는 있어본적이 없는것이다. 우리가 배운것은 바로 맑스-레닌주의의 이런 기본적인원리이다.

우리는 민주혁명과 사회주의혁명에서 균중을 발동

하여 계급투쟁을 진행하였으며 투쟁을 통하여 인민군중을 교육하였다. 우리가 계급투쟁을 진행하는것은 10월혁명에서 배워온것이다. 10월혁명은 성시에서나 농촌에서나 다 군중을 충분히 발동하여 계급투쟁을 진행하였다. 지금 조선에서 여러 나라들에 전문가로 파견한 사람들은 10월혁명당시에는 겨우 몇살 또는 열몇살밖에 안되던 사람들인데 그중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있다. 어떤 나라의 동지들은 중국의 군중로선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그 은사관점을 배우기를 좋아한다. 그들이 그것을 배우려 하는데는 별 방법이 없다. 여하튼 우리는 평화공처5항원칙을 지키며 호상내정을 간섭하지 않으며 호상 침범하지 않는 원칙을 지킨다.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도 평도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중화인민공화국 한 나라만을 평도한다.

동구라파 일부 나라들에 존재하는 기본문제는 계급투쟁을 잘하지 않아서 것처럼 많은 반혁명들이 숙청되지 않고있으며 계급투쟁에서 무산계급을 적아를 가르며 시비를 가르며 유심론과 유물론을 가를줄 알도록 혼란시키지 못하고있는 그것이다. 지금은 어떠한가, 그 필연적악과로 제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었다.

그들에게 대체 밀천이 얼마나 있는가? 레닌이 있고 쓰딸린이 있을뿐이다. 그들은 쓰딸린을 내버렸고 레닌도 거의다 내버렸다. 레닌의 발을 없애버리고 머리만 남겼거나 아니면 레닌의 한손을 찍어버리고 한손만 남겼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를 학습하며 10월혁명을 학습한다. 맑스도 많은것을 썼고 레닌도 많은것

을 쓰지 않았는가! 군중에 의거하며 군중로선을 걷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서 배워온것이다. 군중에 의거하여 계급투쟁을 진행하지 않고 적아를 가르지 않는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 4

사국장급의 몇몇 지식분자출신간부들은 대민주를 주장하면서 소민주로는 만족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이 하자는 《대민주》란것은 서방자산계급의 국회제도를 취하고 서방의 《의회민주》, 《신문자유》, 《언론자유》따위를 본받자는것이다. 그들의 이런 주장은 맑스주의관점, 계급관점이 결핍한것으로서 그릇된것이다. 그러나 대민주니 소민주니 하는 말은 아주 형상적인것이므로 우리도 이 말을 빌어쓴다.

민주란 일종의 방법인데 문제는 그것을 누구에게 적용하며 어떤 일에 사용하는가에 있다. 우리는 대민주를 좋아한다. 우리가 좋아하는것은 무산계급평도하에서의 대민주이다. 우리는 군중을 발동하여 장개적과 싸웠으며 20여년을 싸워서 그를 때려엮었다. 토지개혁운동에서는 농민군중이 일떠나 지주계급을 투쟁하였으며 3년간 투쟁하여 땅을 찾았다. 이것은 다 대민주이다. 《3반》에서는 자산계급에게 부식당한 공작인원을 투쟁하였고 《5반》에서는 자산계급을 투쟁하였으며 그들을 아주 호되게 투쟁하였다. 이런 투쟁은 다 기세드높은 군중운동이며 또한 대민주인것이다. 며칠전에 군

중들이 중국주재 영국대판처에 가서 시위하고 북경 천안문광장에서 몇십만명이 대회를 열고 영국, 불란서의 침략에 저항하는 애급을 성원하였다. 이것도 대민주이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기 위한 대민주이다. 이러한 대민주를 우리가 왜 좋아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확실히 이것을 좋아한다. 이러한 대민주를 누구에 대처하기 위한것인가?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에 대처하며 자본주의에 대처하기 위한것이다. 사영공업에 대한 사회주의적개조는 자본주의에 대처하기 위한것이다. 농업의 사회주의적개조는 소생산적사유제를 폐지하기 위한것인데 그 성질로 보면 역시 자본주의에 대처하기 위한것이다. 우리는 균중운동의 방법으로 농업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진행하였는데 농민을 발동하여 그들자신이 조직하도록 하였으며 주로는 빈농과 하중농들이 우선 조직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니 상중농도 찬성할수밖에 없었다. 자본가들이 뺨파리를 치고 복을 울리면서 사회주의적개조를 찬성하게 된것은 농촌의 사회주의적고조가 닥쳐왔고 또 공인균중들이 밑에서 그들을 올리뜨기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한것이다.

지금 또 대민주를 한다 하여도 나는 찬성한다. 동무들은 균중들이 거리에 떨쳐나올가봐 두려워하는데 나는 두렵지 않다. 몇십만명이 나와도 두렵지 않다. 《이 몸이 룡지처참을 당하더라도 저 황제를 말에서 끌어내리리라.》 이것은 옛사람의 말인데 왕희봉이라는, 또 일명 봉저라고도 하는 사람이 한 말이다. 무산계급이 발동하는 대민주를 계급의 원쑤에 대처하기 위한것

이다. 민족의 원수(다름아닌 제국주의와 외국독점자산 계급)도 계급의 원수이다. 대민주는 또 관료주의자들에 대처하는데도 쓸수 있다. 방금 나는 만년후에도 혁명이 있게 될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때에 가서도 대민주를 할 가능성이 있는것이다. 어떤 사람이 만일 살기가 귀찮아서 관료주의를 부리며 군중을 보면 좋은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욕만 하며 군중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그는 틀림없이 타도당하고말것이다. 지금 이러한 위험성이 존재한다. 만일 군중을 탈리하고 군중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농민들은 벨대를 들고 일어날것이고 공인들은 거리로 떨쳐나와 시위를 할것이며 학생들은 소동을 일으킬것이다.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우선 좋은 일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나는 바로 이렇게 본다.

몇해전에 하남성의 어느 한 고장에 비행장을 닦게 되었는데 사전에 농민들을 잘 안치하지 않고 또 그들에게 사유도 잘 말해주지 않고서 이사를 하라고 강박한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그 마을 농민들은 말하기를, 장대로 나무우의 새둥지를 쑤셔서 허물어뜨리면 새들도 썩썩거릴것이라고 하였다. 등소평동무에게도 둥지가 있다고 할 때 내가 동무의 둥지를 마사버리면 동무는 아무 소리도 없이 가만있겠는가? 그래서 그고장의 군중들은 세겹으로 방어선을 쳤다. 제1선에는 아이들을, 제2선에는 녀성들을, 제3선에는 남성청년과 장년들을 배치하였다. 거기에 측량하러 갔던 사람들은 다 쫓겨나고 결국 농민들이 승리하였다. 후에 농민들에

게 사유를 잘 설명해주며 그들을 안치해주자 그들은 이사를 갔고 비행장을 그냥 댕게 되었다. 이런 일이 적지 않다. 지금 제세상이 되었으니 시름을 놓고 제멋대로 세도를 부려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군중이 그들을 반대하여 돌질을 하며 호미로 족친다 하여도 내가 보기에는 옹당할 것 같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을 대단히 환영한다. 그리고 또 때로는 싸워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공산당은 교훈을 섭취하여야 한다. 학생들이나 공인들이 거리에 뿔쳐나가 시위를 하는 이러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 동지들은 그것을 좋은 일로 보아야 한다. 성도에서 100여명의 학생들이 청원하러 북경에 오다가 한 열차를 탄 학생들은 사천성 광원역에서 제지당하고 다른 열차를 탄 학생들은 랑양까지 오고 북경에는 오지 못하였다. 나의 의견도 그렇고 주총리의 의견도 그런데 그들을 옹당 북경에 오게 하여 관계부문을 방문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었다. 공인들의 파업을 허용하며 군중들의 시위를 허용하여야 한다. 시위행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 헌법을 수정할 때 파업의 자유를 보충함으로써 공인들의 파업을 허용할 것을 나는 주장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군중, 공장장과 군중과의 모순을 해결하는데 유리하다. 결국은 모순에 불과하다. 세계는 모순으로 충만되어 있다. 민주혁명에서 제국주의, 봉건주의, 판료자본주의와의 모순을 해결하였다. 지금은 소유제면에서 민족자본주의 및 소생산과의 모순도 기본상 해결하였다.

그렇게 되자 다른 방면의 모순이 또 두드러지게 되고 새로운 모순이 또 생기게 되었다. 현위이상의 간부가 몇십만이나 되는데 나라의 운명이 그들의 손에 장악되어 있다. 그들이 만일 잘하지 않고 군중을 탈리하며 간고분투를 하지 않는다면 공인, 농민, 학생들은 그들을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 우리는 반드시 경각성을 높여 관료주의작풍이 자라나지 않게 하여야 하며 인민을 탈리한 귀족계층으로 되지 말아야 한다. 그 누구나 관료주의를 부리어 군중들의 문제는 해결해주지 않고 그저 군중을 욕이나 하고 억누르거나 하며 그냥 고치기 않는다면 군중들은 그를 바꾸어치울 이유가 있다. 그러한 사람을 바꾸어치우는것은 매우 좋은 일이며 또 응당 바꾸어치워야 할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 민주당파, 자산계급은 무산계급의 대민주를 반대한다. 다시한번 《5반》을 진행한다면 그들은 찬성하지 않을것이다. 그들은 대민주를 하면 민주당파가 소멸되고 장기적으로 공존할수 없게 될것이라고 여겨 매우 두려워한다. 교수들은 대민주를 좋아하는가? 그렇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내가 보건대 그들은 좀 경각성을 높이고있으며 역시 무산계급의 대민주를 두려워한다. 그들이 자산계급의 대민주를 하며 하면 우리는 정풍을, 즉 사상개조를 할것을 제기한다. 학생들을 몽땅 발동하여 그들을 비평하게 할것이며 학교마다 관문을 설치하여 그들이 그 관을 넘게 하며 넘기전에는 그만두지 않을것이다. 그러므로 교수들도 역시 무산계급의 대민주를 두려워하는것이다.



여기에서 달레에 대한 문제도 좀 말하려 한다. 석가모니가 죽은지 2,500년이라 지금 달레는 인도에 참배하러 가려 한다. 가게 할것인가, 가지 못하게 할것인가? 중앙에서는 그를 가게 하는것이 좋지 가지 못하게 하는것은 좋지 않다고 인정한다. 며칠후에 그는 곧 떠나게 된다. 비행기를 타고 가라고 권고하였으나 그는 비행기는 싫고 자동차를 타고 가겠다고 한다. 자동차는 까론부(4)를 거쳐가게 되는데 까론부에는 여러 나라의 정탐들과 국민당의 특무들이 있다. 달레가 돌아오지 않을수 있다는것을 예견하여야 한다. 돌아오지 않을뿐만아니라 《공산당이 서장을 침략하였다》느니 뭐니 하고 매일과 같이 욕을 퍼부으며 지어 인도에서 《서장독립》을 선포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또 그는 서장의 상층반동분자들을 사촉하여 호소를 하고 우리를 몰아내려고 대소동을 일으키고는 자기는 거기에 있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능성은 나쁜 면으로부터 착안하여 고려한것이다. 이런 나쁜 정황이 나타나더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우리의 서장공작위원회와 군대는 이에 대처할 준비로서 보루를 쌓고 식량과 물을 좀 많이 마련해두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군대가 그저 그만큼 있을뿐이고 여하튼 썩방이 다 자기대로 할 자유가 있으니 그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방어하고 그들이 공격하면 우리는 수비할것이다. 우리는 아무튼 먼저 공격하지 말고 그들이 먼저 공격하도록 놓아두었다가 반공격을 하여 그 진공자들을 호되게 족쳐야 한다. 달레 하나가 도망친다고 하여 내가 상

심하겠는가? 아홉을 더 보태서 열이 도망친다 하여도 나는 상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서 한가지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장국도가 도망친 것이 나쁜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억지로 동여매놓아서 부부가 되는 법은 없다. 그가 이고장이 싫어서 도망치려고 한다면 도망치게 놓아두는 것이 좋다. 그가 도망친다 하여 우리에게 해로울 것이 무엇인가? 해로울 것은 없다. 기껏해야 육이나 먹을 것이다. 우리 공산당은 적들에게서 35년 동안이나 육을 먹었는데 그저 공산당은 《흉악하기 그지 없다》느니 《공산공처한다》느니 《잔인무도하다》느니 하는 따위에 불과하였다. 이제 또 달래 하나가 더 우리를 육하고 다른 어떤 사람이 더 육한다고 하여도 별로 대단할 것은 없다. 이제 35년을 더 육한다 하더라도 겨우 70년밖에 안 된다. 육을 먹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기밀이 누설될까 봐 겁내는데 장국도에게도 많은 기밀이 있었지만 장국도가 기밀을 누설해서 우리의 일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우리 당에는 백만으로 헤아리는 경험있는 간부들이 있다. 우리의 이 간부들은 대다수가 토배기로서 군중과 잘 연계하며 오랜 투쟁의 시련을 겪은 훌륭한 간부들이다. 우리에게서 당창건시기의 간부, 북벌전쟁시기의 간부, 토지혁명전쟁시기의 간부, 항일전쟁시기의 간부, 해방전쟁시기의 간부, 전국 해방이후의 간부들이 있는데 이들은 다 우리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동구라파의 일부 나라들이 그리 안정하지 못한 중요한 원

인의 하나는 바로 그들에게 이러한 간부들이 없는것이다. 우리는 각이한 혁명시기의 시련을 겪은 이러한 간부들이 있기때문에 《풍량이 일건말건 태연히 배에 앉아 낚시질을 할》수 있는것이다. 이러한 신심을 가져야 한다. 제국주의도 두렵지 않은데 대민주가 두려우며 학생들의 시위가 두렵겠는가? 그러나 우리 당원가운데의 일부분 사람들은 대민주를 두려워하는데 이것은 좋지 않다. 대민주를 두려워하는 관료주의자들은 맑스주의를 잘 학습하여야 할것이며 관료주의를 고쳐야 할것이다.

우리는 명년에 정풍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그리하여 세가지 작풍을 바로잡으려 한다. 주관주의를 바로잡으며 종파주의를 바로잡으며 관료주의를 바로잡으려 한다. 중앙에서 결정을 지은 뒤 먼저 통지를 내여 그 조목들을 알릴것이다. 이를테면 관료주의만 하여도 거기에는 간부나 군중들과 접촉하지 않는것, 아래에 내려가 정형을 료해하지 않는것, 군중들과 고락을 같이하지 않는것, 그리고 탐오, 랑비 등등 많은것들이 포괄되어있다. 상반년에 통지를 내고 하반년에 정풍을 하게 되면 중간에 몇달동안의 시간이 있게 된다. 그러니 탐오를 한 사람들은 착오를 승인하고 이 기간에 그것을 반환하거나 혹은 후에 몇차례로 나누어 반환하여야 한다. 혹은 몇차례로 나누어서도 확실히 반환할 방법이 없다면 면제할수밖에 없다. 어느것이냐 다 좋다. 그러나 어쨌든 착오를 승인하고 자기절로 그 액수를 말하여야 한다. 이것은 그가 다락에서 천천히 내려오

도록 그에게 총계를 놓아주는것이다. 기타의 착오에 대하여서도 역시 이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교육도 하지 않고 벌을 주는》것이 아니라 사전에 교시를 내고 때가 되면 정풍을 하는데 이것은 소민주의 방법이다.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을 쓰면 하반년에 가서는 별로 바로잡을것이 없겠다고 한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기를 바라며 정풍을 정식으로 진행할 그때에 가서는 주관주의, 종파주의, 관료주의가 많이 줄어들기를 바라는것이다. 정풍은 우리의 력사에서 효과를 낸 방법이다. 앞으로 인민내부의 일이나 당내의 일은 모두 무력으로가 아니라 정풍의 방법, 비평과 자아비평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는 화풍세우를 주장한다. 물론 정풍에서 개별적사람은 좀 격렬하게 되지 않을수 없겠지만 그래도 총적으로는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하는데 기울어져야 하며 그저 말하는데만 그칠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하는 이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첫째로 그를 보호하여야 하고 둘째로 그를 비평하여야 한다. 우선 그를 보호하여야 한다. 그것은 그가 반혁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것이 바로 단결의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비평과 자아비평을 거쳐 새로운 기초우에서 새로운 단결에 도달하는것이다. 인민내부에서는 착오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보호도 하고 비평도 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 이렇게 하면 민심을 얻게 되고 전국 인민을 단결할수 있으며 6억 인구의 모든 적극적요소를 사회주의건설에 동원할수 있다.

나는 평화시기에 군대간부와 군대이외의 간부들과의 봉급차이를 점차적으로 축소하자는데 찬성한다. 그러나 완전한 평균주의를 하자는것은 아니다. 나는 종래로 군대는 간고분투하여야 하며 또 그 모범으로 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왔다. 1949년에 여기서 회의를 할 때에 우리의 한 장군이 군대의 봉급을 높일것을 주장하였고 많은 동무들이 찬성하여나섰는데 나는 반대하였다. 그는 자본가는 한끼에 반찬을 다섯가지씩 먹고 해방군은 소금물에다 쌀채를 좀 넣어 먹는다는 실태를 들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하는것이였다. 나는 그것이 바로 좋은 일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다섯가지 반찬을 먹고 우리는 쌀채를 먹지만 바로 이 쌀채에서 정치가 나오며 모범이 나오는것이다. 해방군이 민심을 얻게 된것은 물론 기타의 원인도 있지만 바로 이 쌀채를 먹기때문이다. 지금은 부대의 식사가 개선되여 쌀채만 먹던 때와는 달라졌다. 그러나 근본적인것은 우리가 간고분투를 제창하는데 있다. 간고분투하는것은 우리의 정치적본색이다. 금주는 사과가 나는 고장이다. 료서전역때는 바로 가을이여서 백성들의 집에 사과가 많았다. 그러나 우리의 전사들은 그것을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 나는 그 보도를 읽고 매우 감동되였다. 이 문제에서 전사들은, 이 사과는 인민들의것이므로 먹지 않으면 매우 고상하고 먹으면 매우 비렬하다는 자각을 가지고있었던것이다. 우리의 기쁨은 바로 이 자각성우에 세워져있다. 이것은 우리 당에서 령도하고 교육한 결과이다. 사람에게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 무

산계급의 혁명정신은 바로 이런 자각성에서 온 것이다. 사과를 먹지 않아서 굶어죽었는가? 굶어죽지 않았다. 좁쌀에 쌀채가 있는 것이다. 필요할 때에는 이 자리에 모인 동무들도 막집에서 살아야 한다. 초지를 지날 때는 막집이 없어도 살았다. 지금은 막집이 있는데 어째서 거기서 살수 없겠는가? 군대는 이 며칠동안 연 회의에서 자기를 억제하고 절약할 용의를 아주 격양된 심정으로 표시하였다. 군대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더욱 간고분투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군대가 장군을 칠 것이다. 이 자리에는 문인도 있고 군인도 있는데 우리는 군인들을 통하여 문인들에게 장군을 치려 한다. 해방군은 훌륭한 군대이다. 나는 이 군대를 몹시 좋아한다.

정치공작을 강화하여야 한다. 문무를 불문하고 공장, 농촌, 상점, 학교, 군대, 당정기관, 군중단체 할 것없이 각 방면에서 다 정치공작을 크게 강화하여 간부와 군중들의 정치수준을 높여야 한다.

## 주 해

[1] 여기에서는 공자가 《70이 되어서부터는 하고싶은대로 해도 법규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 말을 가리킨다. 《론어·위정제2》에 있다.

[2] 1956년 6월 파란의 뽀즈난시에서 일어난 소란사건과 그해 10월에 헝그리아에서 일어난 반혁명폭동사건을 가리킨다.

[3] 《주역·계사상》에 있다.

[4] 까론부는 인도동북부 변경에 있는 작은 시가지로서 우리 나라 서장의 야동과 멀지 않다.

# 성, 시, 자치구당위서기회의 에서 한 강화

(1957년 1월)

## 1. 1월 18일의 강화

이번 회의에서는 주로 세가지 문제, 즉 사상동향 문제, 농촌문제, 경제문제를 토론하게 된다. 오늘 나는 사상동향문제에 대하여 말하겠다.

우리는 사상동향문제를 틀어쥐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것을 첫째문제로 제기한다. 지금 당내와 사회상의 사상동향에는 특히 주의를 돌려야 할 문제들이 나타났다.

한가지 문제는 우리 집안에서 나타난것이다. 이를테면 지금 일부 간부들은 명리를 다투며 리익만 추구하고있다. 급을 평하는 과정에 한급을 올려주니 만족되지 않아하고 지어 두급이나 올려주어도 자리에 드러누워 울며불며 야단치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도 세급쯤 올려주어야 일어날것 같다. 이렇게 말썽을 부리자 한가지 문제가 해결되었다. 즉 간부의 평급 같은것은 아예 걸어치우게 되었다. 공자는 대체적으로 고르게 하고 약간 차이를 두면 되는것이다. 이전에 북양군별정부에

당소의라는 내각총리가 있었는데 후에 그는 광동성 중산현의 현장노릇을 하였다. 구사회의 내각총리도 현장노릇을 할수 있었을라니 어찌하여 우리의 부장들은 현장노릇을 할수 없겠는가? 내가 보건대 급별이나 따지고 올라가야만 되고 내려가서는 안된다는 사람들은 이점에 있어서는 이 구사회의 관료보다도 못하다. 그들은 누가 더 간고한가, 누가 일은 많이 하고 향수는 적게 받는가를 비기는것이 아니라 누가 더 호사스러운가를 비기고 급별을 비기며 지위를 비긴다. 이러루한 사상이 지금 당내에서 대단히 자라나고있으므로 우리는 이에 주의를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농업합작화는 대체 가망성이 있는가 없는가? 합작사가 좋은가 아니면 개체경제가 좋은가? 이 문제도 다시 제기되었다. 지난해에 풍작을 이룬 곳들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고 재해를 심하게 입은 곳들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바로 재해는 입었으나 심하지 않은 합작사와 소출은 있으나 풍작을 이루지 못한 합작사들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러한 합작사들에서는 원래 한공에 얼마씩 돌아가겠는가 하는것을 높게 예산하였는데 후에 그렇게 되지 않아 자원들의 수입이 늘어나지 못하였거나 지어는 줄어들게 되었다. 그래서 합작사가 좋은가 나쁜가, 계속 꾸려나아갈것인가 걷어치울것인가 하는 논의가 생기게 된것이다. 이런 논의는 당내의 일부 간부들에게도 반영되었다. 어떤 간부들은 합작사는 아무런 우월성도 없다고 말한다. 어떤 부장도 농촌에 내려가 한번 돌아보고는 북경에 돌아와서



농민들이 맥이 타 풀려 농사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합작사가 막 붕괴될 지경에 빠지기라도 한듯이 좋지 못한 공기를 퍼뜨린다. 어떤 합작사의 사장은 상급의 비평을 받을뿐아니라 신문지상에서까지도 비평을 받고 가는 곳마다에서 욕을 먹다보니 머리도 쳐들지 못한다. 어떤 당위의 선전부장은 합작사의 우월성을 감히 선전하지 못하고있다. 농업부의 부장이자 당중앙 농촌공작부의 부부장인 료로언의 말에 의하면 그자신뿐만아니라 자기 수하에 있는 책임간부들도 맥이 풀렸으니 어쨌든 일이 다 끝났고 농업발전요강40조도 소용없게 되었다고 한다. 맥이 풀렸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것은 해결하기 쉬운 일이다. 맥이 풀렸으면 맥을 좀 북돋우어주면 된다. 지금 신문지상에서 선전 방향을 돌려세워 합작사의 우월성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좋다는것만 선전하고 나쁘다는 선전은 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몇달동안 해나가면서 맥을 좀 북돋우어주면 될것이다.

제작년에는 우경을 반대하였고 작년에는 《너무 급격히 나아가는것》을 반대하였는데 《너무 급격히 나아가는것》을 반대한 결과 또 우경이 나타났다. 내가 말하는 이 우경은 사회주의혁명문제에서의 우경, 주로는 농촌의 사회주의적개조문제에서의 우경이다. 우리의 간부들속에서 이런 바람이 태풍과도 같이 불고있었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각별한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 우리의 부장, 부부장, 사장과 국장, 성급간부들중의 상당한 일부분은 지주, 부농 및 부유중농 가정의 출신이며

일부 사람들의 아버지는 지주로서 지금까지도 선거권을 가지지 못하고있다. 이런 간부들은 집에 돌아가게 되면 집식구들에게서 듣는 말이란 모두가 합작사는 글러먹었다느니 합작사는 오래 갈수 없다느니 하는 나쁜 말들뿐이다. 부유중농은 동요하는 계층이어서 지금 그들의 개체영농사상이 또 머리를 쳐들고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퇴사하려 한다. 우리의 간부들가운데서 불고있는 이 바람은 이런 계급과 계층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것이다.

합작화는 틀림없이 잘되어나갈것이지만 1, 2년내에 완전히 잘된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당, 정, 군, 민 각계의 동지들에게 이 점을 똑똑히 말해주어야 한다. 합작사는 력사가 아직 매우 짧으며 대다수 합작사가 겨우 1년 내지 1년반의 력사를 가지고있을뿐이어서 경험이란 별로 없다. 한평생 혁명하여온 사람들도 착오를 범할라니 1년 내지 1년반의 경력밖에 없는 사람에게 어찌 착오를 조금도 범하지 말라고 요구할수 있겠는가? 조금만 어찌도 합작화는 글렀다고 하는데 이런 사상자체가 바로 큰 착오인것이다. 사실 다수의 합작사는 잘 꾸러지고있거나 비교적 잘 꾸러지고있다. 잘 꾸러진 합작사 하나만 가지고도 합작화를 반대하는 모든 기괴한 본조들을 물리칠수 있다. 어째서 이 합작사는 잘 꾸릴수 있는데 다른 합작사는 잘 꾸릴수 없겠는가? 어째서 이 합작사에는 우월성이 있는데 다른 합작사에는 우월성이 없겠는가? 잘 꾸러진 이 합작사의 경험을 이르는 곳마다에서 대대적으로 선전하면

된다. 어느 성이나 이러한 전형을 여하튼 찾아낼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원래부터 조건이 좋은 합작사를 고르지 말고 조건이 제일 못하고 지세가 좋지 못하며 지난날 산량이 매우 낮고 몹시 가난하던 그런 합작사를 골라야 한다. 물론 전형을 몇십개 내놓아도 좋지만 하나라도 온전한 전형을 내놓으면 승리인것이다.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겼는데 많은 곳에서 학생들이 소동을 일으켰다. 석가장의 한 학교에서는 졸업생의 일부가 당분간 취직할수 없으므로 1년간 더 학습시키기로 한 결과 학생들의 불만을 자아내게 되었다. 소수의 반혁명분자들이 이 틈을 타서 선동을 하여 시위행진을 조직하였는데 그들은 석가장방송국을 탈취하여 《웨그리아》처럼 할것을 선포하자고 하는것이였다. 그들은 표어를 가득 내붙였는데 그중에서도 《파쑈를 타도하자!》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요구한다!》 《사회주의에는 우월성이 없다!》는것이 제일 뚜렷한 세가지 구호였다. 그들의 말대로 하면 공산당은 파쑈이니만큼 우리 같은 사람들을 다 타도하여야 한다는것이다. 그들이 들고나온 구호가 너무도 반동적이므로 공인이나 농민이나 각 방면의 군중들이 다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다. 북경 칭화대학의 한 학생은 《이 어른은 어느때진 수천수만명을 죽여버리고야말겠다!》고 드러내놓고 말하였다. 백화제방, 백가쟁명이 시작되자 이런 일《가》도 뛰쳐나왔던것이다. 등소평동지는 이 대학에 가서 연설하면서 네가 수천수만명을 죽여버리려 하면 우리는 전정을 실시하겠다고 말하였다.

북경시에서 조사한데 의하면 우리의 고등학교학생들은 지주, 부농, 자산계급 및 부유중농의 자녀가 대다수이고 공인계급, 빈하중농 출신의 학생은 20%도 안된다. 아마 전국적으로도 이와 비슷할것이다. 이런 상태를 개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자면 시일이 걸려야 한다. 일부분 대학생들가운데서는 고물가가 대단히 환영을 받고있으며 찌또, 까다르도 대단히 환영을 받고있다. 오히려 농촌에 있는 지주, 부농과 성시에 있는 자본가, 민주당파들이 다수가 비교적 순종하는편이다. 그들은 파란과 웅그리아에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소란을 일으킨 일이 없고 수천수만명을 죽여버리겠다고 날뛰는 일도 없었다. 그들이 이렇게 순종하고있는데 대하여서는 분석을 해보아야 한다. 그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까닭은 그들에게 그럴 밀천이 없어졌고 공인계급과 빈하중농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 지반이 텅 비여있기때문이다. 만일 세상에 어떤 사변이 일어나 원자탄이 북경, 상해를 재더미로 만든다면 그들이 가만있겠는가? 그것은 담보하기 어렵다. 그때에는 지주, 부농, 자산계급, 민주당파가 다 분화될것이다. 그들은 처세술에 능란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잠자코 숨어있는것이다. 그들의 자녀들이 철부지학생들은 경험이 없다보니 《수천수만명을 죽여버리고야 말겠다》느니 《사회주의에는 우월성이 없다》느니 하는것들까지 들고나왔던것이다.

일부 교수들가운데서도 공산당은 싫다느니 공산당은 저들을 평도할수 없다느니 사회주의는 좋지 않다느

니 뭐니 하는 이러루한 괴상한 론조가 떠돌고있다. 그들은 이러한 사상들을 가지고있으면서도 그전에는 말하지 않고있었는데 백가쟁명에서 그들더러 말하도록 하자 이러한 말들을 하게 되었다. 동무들은 영화 《무훈전》을 보았는가? 거기에는 《문화인》을 상징하는, 길이 몇십자나 되는 붓이 나오는데 그것을 한번 휘두르기만 하면 그 위력이야말로 대단하다. 그들은 지금 뛰쳐나오려 하는데 아마 우리를 쓸어엿애려는 모양이다. 북벽을 꿈꾸는것이 아닌가?

지난 한해동안에 국제적으로 몇차례의 대소동이 일어났다. 쏘련공산당 제20차대표대회에서 쓰딸린을 대적으로 반대하였고 그뒤를 이어 제국주의가 두차례나 대규모적인 반공소동을 일으켰으며 국제공산주의 운동가운데서도 두차례나 대규모적인 변론소동이 일어났다. 이 몇차례의 소동에서 구라파와 아메리카의 일부 당들은 상당히 큰 영향과 손실을 받았는데 동방 각국의 당들은 비교적 적게 받았다. 쏘련공산당 20차대회가 있자 이전에는 대단히 적극적으로 쓰딸린을 옹호하던 일부 사람들이 이때에 와서는 또 기를 쓰고 반대해나섰다. 내가 보건대 이런 사람들은 맑스-레닌주의를 하지 않으며 문제를 분석하지 않으며 혁명적도덕도 없는 사람들이다. 맑스-레닌주의에는 무산계급의 혁명적도덕도 포함되어있다. 이전에 그렇게 옹호하던 사람이 오늘 이렇게 돌아서자면 어쨌든 이유가 좁 있어야 할것이 아닌가! 그전에는 쓰딸린을 그리도 옹호하였건만 이제 와서는 종래로 옹호한적이 없는듯

이 아무런 리유도 없이 갑자기 180도로 돌아서고 있다. 쓰말린문제는 국제공산주의운동전반에 관련되고 있으며 모든 나라의 당에 다 관련되고 있다.

쑨런공산당 20차대회에 대하여 우리 당내의 절대 다수의 간부들은 쓰말린을 너무 지나치게 내리갔다고 인정하며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정상적인 정서이며 정상적인 반영이다. 그러나 뒤흔들린 사람도 얼마간 있다. 태풍이 불어올 때마다 비가 내리기 직전이면 개미들이 굴에서 기여나온다. 개미는 《후각》이 아주 예민하며 기상학을 알고 있다. 쑨런공산당 20차 대회의 태풍이 불자 중국에서도 개미들이 굴에서 기여나왔다. 이들은 당내의 동요분자로서 기회만 있으면 동요한다. 그들은 쓰말린을 단매에 때려눕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몹시 속시원해하면서 뒤흔들려넘어가 만세를 불렀으며 흐루쇼브가 하는 일은 다 옳다느니 자기는 이전부터 그렇게 할것을 주장해왔다느니 뭐니 하였다. 그후 제국주의가 몇곤장을 안기고 국제공산주의운동내부에서도 몇곤장을 안기여 흐루쇼브마저 어조를 고치지 않으면 안되게 되자 그들은 또 뒤흔들려 되넘어왔다. 대체가 그러하니 되넘어오지 않으면 안되었다. 담장우에 난 풀은 바람이 부는대로 흔들린다. 뒤흔들리어 되넘어오는것은 본심이 아니고 뒤흔들려넘어가는것이야말로 본심인것이다. 당내에서나 당외에서나 파란사건과 웅그리아사건을 올리추는 사람들은 잘도 올리웠다! 그들은 말끝마다 뽀즈난이요, 웅그리아요 하였다. 이번에야 정체가 드러났다. 개미가 굴에서

기어나왔으며 별의별 잡동사니들이 다 뛰쳐나왔다. 그들은 고물가의 지휘봉을 따라 움직이면서 고물가가 대민주를 부르짖으면 그들도 덩달아 대민주를 부르짖었다. 지금은 사태가 달라져서 그들이 입을 다물고있다. 입을 다물고있는것은 본심이 아니다. 그들의 본심은 역시 입을 열려는것이다.

태풍이 불면 동요분자들이 건디여내지 못하고 뒤흔들리게 되는데 이것은 법칙이다. 나는 동무들이 이 문제에 주의를 돌릴것을 권하는바이다. 어떤 사람들은 몇번 뒤흔들리다가 경험을 얻은 다음에는 흔들리지 않는다. 벼와 같은 농작물처럼 영원히 흔들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다. 벼와 같은 농작물은 대가 가늘어서 바람만 불면 흔들린다. 수수나 옥수수는 대가 비교적 굵기때문에 좀 낫다. 오직 큰 나무만이 우뚝 서서 끄떡하지 않는다. 태풍이 해마다 있는가 하면 국내국제적인 사상태풍, 정치태풍도 해마다 있다. 이것은 사회의 일종 자연현상이다. 정당이 바로 일종의 사회이며 일종의 정치적사회이다. 정치적사회에 있어서 제1류에 속하는것은 당파이다. 당은 계급적조직이다. 우리 중국공산당은 무산계급정당으로서 주로 공인과 반무산계급인 빈농출신의 사람들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지주, 부농, 자본가 가정출신이거나 부유중농과 성시소자산계급 출신의 당원들도 적지 않다. 그들중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여러해동안 간교분투하여 단련되기는 하였지만 맑스주의를 많이 배우지 못하여 사상적, 정신적 면에서 의연히 벼대처럼 바람만 불면 뒤흔들린다.

어떤 당원들은 지난날 온갖 고비를 다 넘어왔지만 사회주의라는 이 고비는 넘기 어려워한다. 설신이 그런 전형적인물중의 한사람이다. 그 여자는 원래 하북성 성위부서기 겸 부성장이었다. 그는 어느때에 중요하였는가? 바로 통구통소를 실시하기 시작한 그때였다. 통구통소는 사회주의를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중요한 절차의 하나이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견결히 반대하였으며 여하튼 반대하려 하였다. 또 한사람은 전국공소 합작총사 부주임 맹용잠이다. 그는 언사소를 써올려 역시 통구통소를 견결히 반대하였다. 농업합작화를 실시하자 당내에는 또 그것을 반대하여나선 사람이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내에는 사회주의라는 이 고비를 넘지 못하고 중요하는 고급간부들이 있다. 이런 일들이 더는 없겠는가? 아니다. 10년후에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해져서 사회주의를 진정으로 믿게 되겠는가? 그렇지도 않을것이다. 10년후에도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그들은 아마 나는 벌써부터 그럴줄 알았다고 말할것이다.

군대내의 일부 간부들의 사상동향을 반영한 재료한부를 동무들에게 발급한다. 이런 간부들의 의견가운데는 일부 간부들의 공자가 너무 높은데 대하여 농민들이 눈뜰사나와한다는것과 같은 합리한 부분도 더러 있지만 그들의 의견은 총적방향이 틀렸고 근본로선이 틀렸다. 그들은 우리 당의 정책이 농촌에서는 《좌》적이고 성시에서는 우적이라고 비평한다. 중국은 그 면적이 960만평방키로메터나 되지만 통털어말하면 농촌



과 성시란 두 지역으로 이루어져있으니 그들의 말대로 하면 어디에서나 다 틀렸다는것으로 된다.

이른바 농촌정책이 《좌》적이라는것은 농민의 수입이 많지 못하며 공인의 수입보다 적다는것이다. 이것은 분석해보아야 하며 수입만 보아서 안된다. 공인의 수입은 일반적으로 농민의 수입보다 많다. 그렇지만 그들이 생산해낸 가치가 농민이 생산해낸 가치보다 크며 생활에 수요되는 지출도 농민의 지출보다 많다. 농민은 주로 자신의 힘으로 생산을 힘써 발전시킴으로써 자기의 생활을 개선한다. 정부에서도 수리시설을 수축한다든가 농업대부금을 내어준다든가 하는 등으로 농민을 극력 도와준다. 부업세를 포함한 우리의 농업세는 농민의 생산총액의 약 8%를 차지하며 세금을 받지 않는 부업항목이 아주 많다. 우리는 량식을 정상적인 가격에 따라 계획적으로 구매한다. 국가가 공업제품과 농산물을 교환할 때에 농민들에게서 얻는 리윤도 아주 적다. 우리에게서와 같은 의무적판매제도가 없다. 공농업생산품의 교환에 있어서 우리는 쏘련에서처럼 협상가격차를 확대하는것이 아니라 축소한다. 우리의 정책은 쏘련의 정책과 많이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의 농촌정책이 《좌》적이라고 할수 없는것이다.

우리 군대의 고급간부들중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집에 돌아갔을 때거나 또는 찾아온 친족들을 만났을 때 부유중농, 부농, 지주들의 말을 듣고는 충동을 받아 농민들을 대신하여 우는소리를 하는것 같다. 1955년 상반기에 당내에는 량수명따위들과 서로 호응하여 마치

자기들이나 량수명과 같은 사람들만이 농민을 대표하고 농민의 고통을 알고있는듯이 농민들을 대신하여 우는소리를 한 사람들이 퍼그나 많았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우리 당중앙은 농민을 대표하고있지 않으며 성위도 농민을 대표하고있지 않고 당원의 대다수도 농민을 대표하고있지 않다는것이다. 강소성에서 한 조사에 의하면 어떤 지구에서는 현, 구, 향 3급 간부중에서 농민들을 대신하여 우는소리를 하고있는 사람이 30%나 되었다. 후에 조사해보니 농민들을 대신하여 우는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집이 비교적 부유하여 팔여유량식이 있는 사람들이였다. 이런 사람들이 우는소리를 하는것은 여유량식이 있다는것이다. 이른바 《농민을 도와준다》거나 《농민을 관심한다》는것은 여유량식을 국가에 팔지 말게 하자는것이다. 우는소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 대체 누구를 대표하고있는가? 그들은 광범한 농민군중을 대표하고있는것이 아니라 소수의 부유한 농민을 대표하고있는것이다.

성시정책이 우적이라고 하는것은 보기에선 그런것 같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본가를 다 책임지며 그들에게 7년동안 고정리식<sup>[1]</sup>까지 주기때문이다. 7년후에는 어떻게 할것인가? 그때에 가서 다시 보아야 한다. 좋기는 꼬리를 남기여 계속 고정리식을 줌 주는것이 좋을것이다. 요만한 돈을 내여 이러한 계급을 하나 사는것이다. 이 정책에 대하여 중앙에서는 면밀하게 고려하였던것이다. 자본가들, 그리고 그들과 련계를 가지고있는 민주인사 및 지식분자들은 일반적으로 비교

적 높은 문화기술지식을 소유하고있다. 우리는 이 계급을 수매하여 그들의 정치적자본을 박탈함으로써 그들의 입을 막아버린다. 박탈하는 방법은 하나는 돈을 내어 수매하는것이고 하나는 그들을 배치하여 일을 시키는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자본이 그들의 수중에 있지 않고 우리의 수중에 있게 된다. 우리는 그들의 정치적자본을 깡그리 박탈하려는것이며 깡그리 박탈하지 못한것은 계속 박탈할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시정책이 우적이라고 말할수도 없는것이다.

우리의 농촌정책은 정확한것이며 우리의 성시정책도 정확한것이다. 그러므로 웅그리아사건과 같은 전국적인 대소란은 일어나지 못한다. 그저 소수의 사람들이 이른바 대민주를 실시하자고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말썽을 좀 일으킬수 있을따름이다. 대민주도 두려울것은 없다. 이 문제에서 어떤 동지들은 몹시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다. 대민주를 한다 해도 첫째로는 두려울것 없으며 둘째로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가를 분석해보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른바 대민주를 하는 경우에 그 나쁜 사람들은 틀림없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하며 옳지 못한 말을 하게 되고 저들자신을 폭로하며 고립시키게 될것이다. 《수천수만명을 죽여버리는》것이 인민내부의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인가?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찬성을 받을 수 있는가? 《파쑈를 타도하자》, 《사회주의에는 우월성이 없다》는 이 말은 헌법을 공공연하게 위반하는것이 아닌가? 공산당과 그리고 공산당이 령도하는 정권

은 혁명적이고 사회주의에는 우월성이 있다는 이것은 다 헌법에 기재되어있는 것이며 전국 인민이 공인하는 바이다.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좋다! 전쟁을 호소하여보라, 통털어 그 몇사람 뿐이니 그들은 병사가 부족하며 군관도 잘 훈련되어있지 않다. 이 철부지들은 정말 미쳤다! 석가장의 그 학교에서 이 세가지 구호를 토론에 붙이자 70명의 대표중에서 불과 10여명이 찬성하고 50여명이 반대하였다. 그 후 또 이 몇개 구호를 4,000명의 학생들속에서 토론에 붙였는데 결국에는 모두가 찬성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그 10여명은 고립되고말았다. 그 몇개 구호를 제출하였고 또 그것을 견지하는 극단적반동분자는 몇밖에 안되었다. 그들이 그 무슨 대민주라는것을 하지 않고 곳곳에 표어를 내붙이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몰랐을것이다. 그들은 대민주를 하자 꼬리를 잡히게 되었다. 헝그리아사건의 좋은 점이란 바로 그것이 우리 중국의 이러한 개미들을 굴에서 끌어낸것이다.

헝그리아에서는 대민주가 일어나자 당, 정부, 군대가 모조리 와해되었다.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생길수 없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순전한 밥통이 아닌 이상 몇몇 철부지학생들이 달려든다 해서 당, 정부, 군대가 몽땅 와해될수는 없다. 그러므로 대민주를 겁내지 말아야 한다. 소란이 일어나면 그 종치를 해결하기 쉽게 될것이니 그것은 좋은 일인것이다. 우리는 이전에 제국주의를 겁내지 않았거니와 지금도 겁내지 않는다. 우리는 장개석도 종래로 무서워한적이 없다. 그

런데 지금 대민주를 무서워하겠는가? 나는 겁낼것 없다고 생각한다. 만일 그 무슨 대민주라는것으로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며 공산당의 경도를 뒤엎으려는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자들에 대하여 무산계급전정을 실시할것이다.

지금 지식분자문제에서는 배치하는데만 중시를 돌리고 개조하는데는 중시를 돌리지 않으며 배치는 많이 하였으나 개조한 사람은 적은 편향이 나타나고있다. 백화제방, 백가쟁명을 하게 되자 감히 지식분자를 개조하지 못하고있다. 우리는 자본가도 감히 개조하는데 어찌서 지식분자와 민주인사를 감히 개조하지 못하겠는가?

백화제방문제에 있어서 나는 여전히 개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동지들은 향화만 피게 하여야 하고 독초가 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견해는 그들이 백화제방, 백가쟁명의 방침에 대하여 너무도 리해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반혁명언론은 물론 내놓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반혁명적면모로 나타나는것이 아니라 혁명적면모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것을 내놓게 할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여야만 그것을 감별하고 그것과 투쟁하는데 유리하다. 밭에서는 두가지가 자라는데 한가지는 곡식이고 한가지는 잡초이다. 잡초는 해마다 매버려야 하며 한해에도 몇번씩 매야 한다. 향화만 피게 하고 독초는 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밭에서 곡식만 자라고 풀은 한포기도 나지 못하게 하여

야 한다는 것과 같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밭에 가본 사람이라면 김을 매지 않으면 사실은 여전히 풀이 많게 된다는 것을 알고있을 것이다. 잡초도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놓으면 비료로 된다. 그래 그것이 쓸모 없단 말인가? 무용지물을 유용지물로 만들수 있는 것이다. 농민들이 해마다 밭의 잡초와 싸워야 한다면 우리 당의 작가, 예술가, 평론가, 교수들도 해마다 사상 영역의 잡초와 싸워야 한다. 단련되었다는 말은 분투하여왔다는 말이다. 풀이 자라면 매여버린다. 이 대립면은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다. 잡초는 만년후에 가서도 있을 것이므로 우리도 만년을 싸울 작정을 하여야 한다.

한마더로 말하면 지난해는 일이 많이 벌어진 한해였다. 국제적으로는 호무쑤브, 고물까가 소동을 일으킨 한해였고 국내적으로는 사회주의적개조가 아주 치렬하게 진행된 한해였다. 지금도 여전히 일이 많이 벌어지고있는 시기여서 온갖 사상이 계속 폭로될 것이므로 이에 주의를 돌릴 것을 동지들에게 희망한다.

## 2. 1월 27일의 강화

이제 나는 몇가지 의견을 말하려 한다.

첫째, 성적을 충분히 평가하여야 한다.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는 결함과 착오도 있으나 성적이 주요한 것이다. 그만한 성적을 과장해서는 안되지만 그것을 과소평가하면 착오를 범하게 되며 큰 착오를 범할수도

있다. 이 문제는 8기2중전회에서 이미 해결된 문제인데 이번 회의에서 또 여러번 언급되는것으로 보아 일부 동지들에게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사상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특히 민주인사들속에서는 《당신들은 언제나 성적이 기본적인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성적이 기본적이라는것을 누가 모르는가. 결합과 착오도 있지 않는가!》 하는 론의들이 돌고있다. 그렇지만 확실히 성적이 기본적인것이다. 이것을 긍정하지 않으면 맥이 풀리게 된다. 합작화에 대해서 맥이 풀린 일이 있지 않았는가!

둘째,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고루 돌보며 각각 적당한 자리를 차지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부터 실시해오던 방침이다. 연안에 있을 때 벌써 이 방침을 취하였다. 대공보는 1944년 8월에 사론을 발표하여 《땀살림을 꾸리지 말아야 한다》느니 뭐니 하였다. 중경담판기간에 나는 대공보의 책임자를 보고 당신의 그 말에 대단히 찬동되기는 하지만 먹는 문제를 책임져야 할 장위원장이 우리에게 밥을 주지 않으니 땀살림을 꾸리지 않고 어찌겠는가고 말하였다. 그때 우리가 장개석에게 제기한 구호가 바로 각각 적당한 자리를 차지하게 하자는것이였다. 지금은 우리가 일을 주관하게 되였다. 우리의 방침은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고루 돌보며 각각 적당한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당이 남겨놓은 군정인원까지 다 책임지며 대만에 달아난 사람들도 돌아오면 받아준다. 반혁명분자도 죽이지 않을자에 대하여서는 모두 개조

하며 생활출로를 준다. 민주당파는 남겨두고 그들과 장기적으로 공존하며 그 성원들에게 일자리를 준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전국의 6억 인구를 죄다 돌본다. 통구통소를 폐로 들면 우리는 모든 성시인구와 농촌의 결량호를 다 돌본다. 또 성시청년들을 폐로 들면 그들을 학교에 보낸다든가 농촌에 보낸다든가 공장에 보낸다든가 변강에 보낸다든가 여하튼 배치해준다. 그리고 취직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가정들에 대하여서는 구제해준다. 어쨌든 굶어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모든것은 다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고루 돌보는것이다. 이것은 어떠한 방침인가? 사회주의건설에 모든 적극적인 력량을 다 동원하자는것이다. 이것은 전략적방침이다. 이런 방침을 실시하는것이 비교적 좋으며 소란이 비교적 적게 생길수 있다.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고루 돌본다는 이 사상을 사람들에게 명백히 말해주어야 한다.

가경시동지는 모든 방법을 다 대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아주 옳은 말이다. 바로 그 말대로 모든 방법을 다하여 곤난을 해결하여야 하는것이다. 이 구호를 응당 선전하여야 한다. 우리가 지금 봉착하고있는 곤난은 그리 큰 곤난이라고 할수 없다. 그것이 쫓겨 그리 대단한가! 만리장정에서 설산초지를 지나던 때보다는 어쨌든 좀 나을것이 아닌가. 장정도중에 대도하를 건너던 뒤에는 북쪽은 온통 높은 산인데다가 또 인가가 매우 희소하므로 대체 어떻게 갈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였는데 그때 우리는 천방백계로 곤난을 극복하자



고 제기하였다. 무엇을 천방백계라 하는가? 천방이란 999 방도에 1 방도를 합친것이며 백계란 99 계책에 1 계책을 합친것이다. 동무들은 아직 방도와 계책을 몇가지 내놓지 못하였다. 각 성, 중앙 각 부에 도대체 방도와 계책이 얼마나 되는가? 모든 방법을 다하기만 하면 곤란은 해결할수 있는것이다.

셋째, 국제문제. 중동에서는 수에즈운하사건이 일어났다. 나쎄르라고 하는 사람이 운하를 국유화하였다. 그러자 이든이라고 하는 다른 한사람이 그곳을 치려고 출병하였다. 뒤이어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세번째사람이 영국사람들을 쫓아버리고 그곳을 독차지하려고 하였다. 영국자산계급은 예로부터 적당한 시기에 타협하는데 이골이 튼 간활한 계급이다. 그런데 오늘 영국자산계급은 중동을 미국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였다. 이것은 여간한 착오가 아니다! 그들의 력사에서 이러한 착오를 몇이나 찾아볼수 있는가? 이번에는 어찌하여 현훈중에 걸려 이런 착오를 범하게 되었는가? 미국의 흑심한 압력에 참고있을수 없어서 중동을 탈환하고 미국을 막아버리려 하다가 그렇게 된것이다. 영국의 예봉이 주로 애급에 돌려지고있는가? 아니다. 영국의 심산은 미국에 대처하자는것이고 미국은 영국을 대처하자는것이다.

이 사건으로부터 오늘날 세계투쟁의 중점을 볼수 있다. 물론 제국주의국가와 사회주의국가간의 모순이 매우 심각한 모순이다. 그러나 지금 제국주의국가들은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명의를 빌어 기반을 쟁탈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지반을 쟁탈하고 있는가? 10억 인구를 가진 아세아, 아프리카의 지반을 쟁탈하고 있다. 목천 그들간의 쟁탈은 중대한 전략적의의가 있는 중동이  
 란 이 지구, 특히는 애굽의 수에즈운하 지구에 집중되고 있다. 그곳에서는 두가지 모순과 세가지 력량이 충돌되고 있다. 두가지 모순이란 하나는 제국주의와 제국주의간의 모순, 즉 미국과 영국, 미국과 불란서간의 모순이고 다른 하나는 제국주의와 피압박민족간의 모순이다. 세가지 력량이란 첫째로는 제일 큰 제국주의인 미국이고 둘째로는 2등급의 제국주의인 영국과 불란서이고 셋째로는 피압박민족이다. 지금 제국주의의 주요한 쟁탈지점은 아세아, 아프리카이다. 이런 지구들에는 다 민족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비군사적 방법도 쓰고 군사적 방법도 쓰고 있는데 중동에서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들이 싸우는 것은 우리에게 유리하다. 우리의 방침은 사회주의 국가를 공고히 하여 한치의 땅도 내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누가 우리를 보고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와 싸워야 한다. 이 범위밖의 것은 그들더러 싸우고 싶은 대로 싸우게 내버려둔다. 그러면 우리는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말은 하여야 한다. 우리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투쟁과 각국 인민의 혁명투쟁을 지지하여야 한다.

제국주의 국가와 우리 사이에는 그들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 속에 그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의 나라에서의 인민혁명을 지지하고 그들은 우리 나라에서 전복할

동을 하고 있다. 그들속에 우리의 사람이 있다는것은 그 나라의 공산당과 혁명적 공인, 농민, 지식분자 그리고 진보적인사들을 말한다. 우리속에 그들의 사람이 있다는것은 중국을 놓고 말하면 자산계급내와 민주당파내의 많은 사람들을 말하며 그리고 또 지주계급을 말한다. 지금 이런 사람들은 말을 잘 듣는듯하며 아적은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가령 원자탄이 북경에 떨어진다면 그들은 어떠한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가만있겠는가? 결코 가만있으리라고 말할수 없는것이다. 로동개조범들이나 석가장의 그 학교에서 소란을 일으킨 령수인물들이나 수천수만명을 죽여버리겠다고 버르던 북경의 그 대학생은 더구나 말할것도 없을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소화해버려야 하며 지주, 자본가를 로동자로 개조하여야 한다. 이것도 하나의 전략적방침이다. 계급을 소멸하자면 장구한 시일이 걸리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제문제를 관찰해볼 때 우리는 여전히 제국주의가 서로 싸우며 서로 식민지를 쟁탈하는 이 모순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그들은 우리와의 모순을 빌어 저들사이의 모순을 덮어감추고 있다. 우리는 그들사이의 모순을 리용할수 있다. 여기에는 리용할만한것이 매우 많다. 이것은 우리의 대외방침에 관계되는 중대한 일이다.

중미관계에 대하여 좀 말하겠다. 이 회의에서 우리는 장개석에게 보낸 아이젠하워의 편지를 찍어 발급하였다. 나의 견해에 의하면 이 편지는 주로 장개석에

게 랭수를 끼얹었고 그런 다음에 또 다소 힘을 북돋우어준 것이다. 편지에서는 격동하지 말고 랭정하여야 한다고, 다시말하면 싸우지 말고 련합국에 의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랭수를 끼얹은 것이다. 장개석은 다소 격동하고 있다. 힘을 북돋우어주었다는 것은 공산당에 대하여 계속 강경한 정책을 취하며 또한 우리 내부의 소란에 희망을 두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그는 소란이 이미 일어났으며 공산당은 그것을 막아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각기 제 견지에서 관찰하라고 하자!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과는 외교관계를 몇해 더 늦게 건립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비교적 유리하다. 소련은 10월혁명이 있은지 17년만에 미국과 외교관계를 건립하게 되었다. 1929년에 폭발된 세계적경제위기는 1933년까지 지속되었다. 1933년에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올라왔고 미국에서는 루즈벨트가 올라왔는데 그때에야 소련과 미국이 외교관계를 건립하였다. 우리는 아마 제3차5개년계획이 끝난 뒤, 다시말하면 18년 또는 그보다 더 긴 시일이 지난 뒤에야 미국과 외교관계를 건립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외교관계를 건립하는데 조급해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련합국에 들어가는 데 대하여서도 조급해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방침을 취하는 것은 되도록 미국의 정치적자본을 박탈하여 미국을 도리없고 고립된 지위에 빠지게 하려는데 있다. 우리를 련합국에 들여놓지 않고 우리와 외교관계를 맺지 않는 데 그러면 좋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그만큼 우리에게 빛을 더 지게 될

것이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도리가 더 없어져서 미국국내에서와 국제여론에서 더욱 고립당하게 될것이다. 나는 연안에 있을 때 한 미국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한적이 있다. 당신네 미국이 100년동안 우리의 이 정부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하자, 101년이 되어서도 그냥 승인하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미국은 조만간에 우리와 외교관계를 맺게 될것이다. 그때에 가서 미국사람들은 중국에 와보고는 후회막급을 느끼게 될것이다. 그것은 중국이란 이곳이 변모하여 점점이 깨끗이 청소되고 《4해》도 제거되어서 그들이 벗을 찾아볼래야 얼마 찾아볼수 없을것이며 세균을 좀 뿌린다 해도 별로 작용이 없을것이기때문이다.

제2차세계대전이후로 자본주의국가들은 매우 불안정하고 혼란하며 민심이 불안하다. 중국도 포함한 세계 각국이 다 불안하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그들보다는 좀 안정하다. 잘 연구하여보라. 사회주의국가와 제국주의국가와의 사이, 주로는 미국과의 사이에서 대체 누가 누구를 무서워하는가? 나는 어느쪽이나 다 무서워한다고 본다. 문제는 누가 누구를 좀더 무서워하는가 하는데 있다. 나는 제국주의가 우리를 좀더 무서워한다고 보는 경향을 가지고있다. 이렇게 평가하면 모두가 시름을 놓고 드러누워서 며칠이고 잠만 잘 위험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언제나 두가지 가능성을 예견하여야 한다. 좋은 가능성외에 또한 나쁜 가능성, 즉 제국주의가 미쳐날뛴 가능성도 있다. 제국주의는 심사가 고약해서 어쨌든 음흉한짓을 하게 마련이

다. 물론 제국주의가 오늘날 세계대전을 일으킨다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대전을 일으켰다가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그들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중쏘관계에 대하여 좀 말하겠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시비가 있을 것 같다. 공산당 사이에는 시비가 없으리라고 생각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 시비가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맑스주의란 바로 시비를 따지는 주의로서 모순과 투쟁을 논한다. 모순은 언제나 존재하며 모순이 존재하면 투쟁이 있게 된다. 지금 중쏘간에는 모순이 좀 있다. 그들의 사고방식과 처사 방법, 그들의 력사적 습관이 우리와 다르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한 공작을 하여야 한다. 나는 그전부터 동지에 대하여서는 공작을 하여야 한다고 말하여왔다. 어떤 사람은 다 같은 공산당원이라면 의례 똑같이 좋아야 할 것인데 어째서 또 그들에 대한 공작을 하여야 하는가, 공작을 한다는 것은 통일전선을 하고 민주인사들에 대한 공작을 하는 것이겠는데 어째서 또 공산당원에 대한 공작을 하는가고 한다. 이런 견해는 옳지 않다. 공산당 가운데도 역시 각이한 의견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조직적으로는 당에 들어왔지만 사상적으로는 아직 달통되지 않고 있으며 지어 어떤 로간부들도 우리와 언어가 일치하지 않다. 그러므로 늘 속심을 나누며 개별적으로나 집체적으로 상의하며 회의도 여러번 열어 사상을 달통시키는 공작을 하여야 한다.

내가 보건대 형세는 일부 사람들보다 위력이 크며 지어 큰 판리보다도 위력이 크다. 형세의 펍박에 의하여 쏘련의 그 완고분자들은 대국배타주의를 계속할수 없게 되었다. 우리의 목전의 방침은 의연히 그들 앞에서 직접 말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주는것이다. 이번에 우리의 대표단은 쏘련에 가서 그들에게 일부 문제들을 발가놓았다. 나는 전화로 은래동지에게 이런 사람들은 리육에 눈이 어두웠으니 그들에 대한 방법은 한바탕 된육을 퍼붓는것이 제일일것이라고 하였다. 리육이란 어떤것인가? 그것은 극상해야 5천만톤의 강철, 4억톤의 석탄, 8천만톤의 석유에 불과한것이다. 그것이 다 무엇인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까짓것을 보고서 머리가 그렇게까지 팽창되어서야 그게 무슨 공산당원이며 맑스주의자이겠는가! 이보다 10배, 100배 더 많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말하고싶다. 극상해야 지구에서 약간한것을 캐여내어 강재를 만들고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것을 만들어낸데 지나지 않는데 그것이 그리 대단하겠는가!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도 큰 보따리로 삼아 걸머지고 혁명적원칙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있으니 이것이 리육에 눈이 어두운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벼슬이 커져도 리육에 눈이 어두워질수 있다. 제1서기노릇을 하는것도 일종의 리육이여서 쟁사리 머리가 혼미해질수 있는것이다. 몹시 혼미해졌을 경우에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그에게 한바탕 된육을 퍼부어야 한다. 이번에 은래동지는 모스크바에서 사정을 두지 않고 그들과 쟁론을 걸었다. 그러자 그들도

우리와 걸고들었다. 이것은 잘된 일이다. 직접 맞대고 시비를 켈수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려 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영향을 주려 한다. 우리는 모든것을 다 발가놓은것도 아니다. 범보를 단번에 다 쓰지 않고 좀 남겨두었다. 모순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므로 목전에 있어서는 이력저력 지낼수만 있다면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보류할수 있다. 부동한것들은 두었다가 앞으로 다시 말하면 된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기어이 이대로 나아가려 한다면 조만간에 모조리 다 발가놓아야 할것이다.

우리자신으로 말하면 대외선전에서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어느때든지 겸손하고 근신하여야 하며 꼬리를 좀 사리여야 한다. 쏘련의것은 역시 따라배워야 한다. 그러나 락후한것을 따라배울것이 아니라 선진적인것을 골라서 따라배워야 한다. 락후한것에 대하여서는 다른 학습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의 그릇된것을 알면 우리는 그런 착오를 범하지 않을수 있다. 우리에게 유용한것은 꼭 따라배워야 한다.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의 유익한것들을 다 따라배워야 한다. 지식은 여러 곳에 가서 찾아야지 한 곳에서만 찾으면 단조롭게 된다.

넷째, 백화제방, 백가쟁명에 대하여. 이 방침은 호풍반혁명집단을 비판한 뒤에 제기한것인데 내가 보건대 그것은 여전히 옳은것이며 변증법에 부합되는것이다.

변증법에 관하여 레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변증법을 간단히 대립물의 통일에 관한 학설이라고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변증법의 핵심을 파악할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해석과 발전이 필요하다.»〔2〕우리가 할 일은 바로 해석을 가하고 발전시키는것이다. 해석을 가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에 대한 해석이 너무도 적다. 그리고 또 발전시켜야 하는데 우리는 혁명가운데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므로 응답 이 학설을 발전시켜야 한다. 레닌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립물의 통일(일치, 동일, 균등)은 조건적이며 일시적이며 잠존적이며 상대적이다. 호상 배치하는 대립물의 투쟁은 발전, 운동이 절대적인것처럼 절대적이다.»〔3〕우리는 이런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백화제방, 백가쟁명이라는 이 방침을 내놓았다.

진리는 오유와 대비되며 또 그것과 투쟁하는 과정에 발전하는것이다. 아름다운것은 미운것과 대비되며 또 그것과 투쟁하는 과정에 발전하는것이다. 착한것과 악한것도 역시 그러하다. 착한 일, 착한 사람은 악한 일, 악한 사람과 대비되며 또 그것과 투쟁하는 과정에 발전하는것이다. 요컨대 향화는 독초와 대비되며 또 그것과 투쟁하는 과정에 발전하는것이다. 사람들을 오유적인것, 추악한것, 적대적인것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며 유심주의적인것, 형이상학적인것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며 공자의것, 로자의것, 장개석의것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은 위험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사람들을 사상이 쇠퇴하고 한가지 일밖에 할줄 모르고 세상물정을 모르며 부동한 의견을 허용하지 않게 만들것이다.

철학에서 유물주의와 유심주의는 대립물의 통일로

서 이 량자는 호상 투쟁한다. 또 변증법과 형이상학이라는 두가지가 있는데 이것 역시 대립물의 통일로서 호상 투쟁한다. 철학을 말할 때에는 이 두쌍의 대립물을 빼어놓을수 없다. 쏘련에서는 지금 쌍이라는것을 건어치우고 《개체호》만 남기고있다. 향화만 피게 하고 독초는 나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서 사회주의국가에 유심주의와 형이상학이 존재한다는것을 승인하지 않는다. 사실 어느 나라에나 다 유심주의가 있고 형이상학이 있으며 독초가 있다. 쏘련에서는 많은 독초들이 '향화'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며 많은 피상한 논의들이 모두 유물주의라거나 사회주의적현실주의라는 모자를 쓰고 나온다. 우리는 유물주의와 유심주의, 변증법과 형이상학, 향화와 독초간의 투쟁을 공개적으로 승인한다. 이러한 투쟁은 영원히 계속될것이며 계단마다 한걸음씩 더 전진하게 될것이다.

나는 이 자리에 모인 동지들에게 만일 유물주의와 변증법을 습득하였다면 그 대립면인 유심주의와 형이상학도 좀 배워들것을 권하는바이다. 칸트와 헤겔의 책, 공자와 장개석의 책 같은 이런 반면적인것들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유심주의와 형이상학을 모르며 이런 반면적인것들과 투쟁해보지 않았다면 동무의 그 유물주의와 변증법은 공고하지 못한것이다. 우리의 일부 공산당원과 공산당의 지식분자들의 결점은 바로 반면적인것을 너무도 모르는 그것이다. 맑스의 저서를 몇권 읽고는 그것을 그대로 옮겨놓는다면 그것은 비교적 단조로운것이며 연설을 하거나 글을 써도 설복력이

없게 된다. 반면적인것을 연구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론박해낼수 없는것이다. 맑스, 엥겔스, 레닌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그 시대와 력사상의 여러가지것들을 애써 학습하고 연구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쳤다. 맑스주의의 세 구성부분은 자산계급의것을 연구하고 독일의 고전철학, 영국의 고전경제학, 불란서의 공상적사회주의를 연구하고 또 그것들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산생된것이다. 쓰딸린은 이면에서 비교적 부족하였다. 레닌대 그는 자기의 활동년대에 독일의 고전적유심주의철학을 불란서혁명에 대한 독일귀족들의 반동이라고 하였다. 이런 결론을 내림으로써 독일의 고전적유심주의철학을 전반적으로 부정해버리게 되었다. 그는 독일의 군사학을 부정하면서 독일사람들이 패전하였으니 그 군사학도 못쓸것으로 되었으며 클라우제위츠(4)의 책도 읽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쓰딸린에게는 형이상학이 많으며 그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형이상학을 하도록 가르쳐주었다. 그는 《쏘련공산당(불체위크) 력사간략독본》에서 맑스주의적변증법에는 네가지 기본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첫째특징으로 사물의 련관성에 언급하면서 마치 어떤 것이나 다 아무런 인연도 없이 련관되어있는듯이 말하였다. 대체 어떤것이 련관되어있는가? 대립되는 두 측면이 련관되어있다. 어떠한 사물이나 다 대립되는 두 측면이 있다. 그는 넷째특징으로 사물의 내재적모순에 언급하면서 역시 대립되는 측면들의 투쟁만 말하고 대

립되는 측면들의 통일은 말하지 않았다. 대립물의 통일이라는 이 변증법의 근본적인 법칙에 의하면 대립되는 측면들은 투쟁하면서도 통일되어있고 호상 배척하면서도 호상 련관되어있으며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호상 전화하는것이다.

또런에서 편찬한 《철학소사전》 제4판의 동일성에 관한 조목에는 쓰말린의 관점이 반영되어있다. 사전에는 이렇게 써여있다. 《전쟁과 평화, 자산계급과 무산계급, 생과 사 등등과 같은 현상은 동일한것일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호상 근본적으로 대립되고있으며 호상 배척하기때문이다.》 다시말하면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이런 현상들은 맑스주의적인 동일성이 없으며 그것들은 호상 배척만 하고 호상 련결되어있지 않으며 일정한 조건하에서 호상 전화할수 없다는것이다. 이런 론법은 근본적으로 그릇된것이다.

그들이 보기에 전쟁은 어디까지나 전쟁이고 평화는 어디까지나 평화이며 그 량자는 서로 배척만 하고 전혀 련관성이 없는것으로서 전쟁이 평화로 전화될수 없고 평화가 전쟁으로 전화될수 없다. 레닌은 《전쟁이란 다른 일종의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다》라고 한 클라우제위츠의 말을 인용한적이 있다[5]. 평화시기의 투쟁이 정치이고 전쟁도 역시 정치이지만 그것은 특수한 수단이 적용되는 정치이다. 전쟁과 평화는 호상 배척하면서도 호상 련결되어있으며 일정한 조건하에서 호상 전화한다. 평화시기가 전쟁을 은양하지 않는다면 어찌하여 갑자기 전쟁이 일어날수 있겠는가? 전쟁과정

이 평화를 온양하지 않는다면 어찌하여 갑자기 평화가 올수 있겠는가?

생과 사가 호상 전화할수 없다면 묻고싶다, 생물은 어디에서 왔는가? 지구에는 원래 무생물밖에 없었다. 생물은 후에 생겨난것이며 무생물, 즉 죽은 물건으로부터 전화된것이다. 생물은 모두 신진대사를 하고 있으며 성장하고 번식하고 사망한다. 생명의 활동과정에서도 생과 사가 끊임없이 호상 투쟁하며 호상 전화한다.

자산계급과 무산계급이 호상 전화할수 없다면 어찌하여 혁명을 거쳐 무산계급이 통치자로 변하고 자산계급이 피통치자로 변하겠는가? 례를 들면 우리와 장개석국민당은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대립되는 쌍방이 호상 투쟁하고 호상 배척한 결과 우리와 국민당의 지위에 다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은 통치자이던것이 피통치자로 되고 우리는 피통치자이던것이 통치자로 되었다. 국민당가운데서 대만으로 도망친자는 10분의 1에 불과하고 대륙에 남은자가 10분의 9나 된다. 대륙에 남은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그들을 개조하고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정황하에서의 대립물의 통일이다. 대만으로 간 그 10분의 1에 대하여 말하면 우리와 그들은 여전히 대립물의 통일이며 역시 투쟁을 거쳐 그들을 전화시켜야 한다.

쓰딸린은 대립되는 측면의 이런 투쟁과 통일을 편판시켜 생각지 못하였다. 쓰련의 일부 사람들은 사상이 형이상학적이고 것처럼 경화되어 이것이 아니면 저것

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립물의 통일을 승인하지 않는다. 그렇기때문에 정치상에서 착오를 범하게 되었다. 우리는 대립물의 통일의 관점을 견지하여 백화제방, 백가쟁명의 방침을 취한다. 향화를 피게 할 때 필연적으로 독초도 자라나게 될것이다. 이것은 두려울것 없다.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유익하기도 하다.

어떤 현상들은 한시기는 불가피하지만 그것을 개방한 뒤에는 방법이 생기게 된다. 폐하면 지난날에는 극종들을 너무 엄하게 통제하고 이런것도 공연하지 못하게 하고 저런것도 공연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제 와서 개방하니 《오분기》며 《천퇴보》며 온갖 잡귀신들이 다 무대에 뛰어나왔다. 이런 현상들이 어떠한가? 나는 좀 뛰어나오는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잡귀신극을 본적이 없으므로 그런 추악한 형상을 보고서야 무대에 내놓지 말아야 할것도 내놓았다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그런후에는 이런 극들에 대하여 비판, 개조하거나 금지하게 될것이다.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 어떤 지방극은 좋지 못하여 그 지방 사람들까지도 반대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런 극을 좀 공연해도 괜찮다고 본다. 도대체 그 극이 발을 붙일수 있는가 없는가, 또 관중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것을 실천이 판단하게 해야 할것이고 그것을 금지하기에 바빠 서둘 필요는 없다.

지금 우리는 당내나 당외에서 모두 《참고소식》을 볼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발행부수를 2,000부로부터 40만부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공산당이 제국주의를 대신하여 신문을 발간하는것으로서 이 신문

에는 우리를 육한 반동언론까지도 실는다. 무엇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그 목적은 우리 동지들앞에, 그리고 인민군중과 민주인사들 앞에 독초와 비맑스주의적인것, 반맑스주의적인것을 내놓음으로써 그들을 단련시키자는것이다. 봉쇄하지 말아야 한다. 봉쇄하면 오히려 위험하다. 이 면에서 우리의 방법은 쓰련의 방법과 다르다. 왜 우두를 놓는가? 그것은 한가지 병독을 인위적으로 인체에 들여보내어 《세균전》을 벌리고 그것이 사람과 싸우게 함으로써 인체에 일종 면역력이 생기게 하려는것이다. 《참고소식》을 발간하며 기타 반면교재를 출판하는것은 바로 《우두를 놓아》 간부와 군중들의 정치적면역력을 증강시키려는것이다.

해로운 언론들에 대하여서는 제때에 유력한 논박을 가하여야 한다. 례하면 인민일보에 실린 《〈불가피하다〉에 대하여》라는 글은 우리의 공작중의 착오는 결코 불가피한것이 아닌데 우리가 《불가피하다》는 말로 우리 공작중의 착오를 용서하고있다고 썼다. 이것이 바로 일종 해로운 언론이다. 이 글은 실지 않을것을 실은것 같다. 그리고 실으려거든 제때에 논박하며 대립면을 내세울 준비를 하여야 할것이다. 우리가 혁명과 건설을 함에 있어서 어쨌든 착오를 좀 범하는것이 불가피하다는것은 력사의 경험에 의하여 증명된바이다. 《무산계급전정의 력사적경험을 재차 론함》이란 글이 바로 아주 큰 불가피론이다. 우리 동지들이 누가 착오를 범하고 싶어하겠는가? 착오는 사후에 알게 되는것이다. 처음에는 모두가 자기의것을 100%의 맑스주의라고 여기는것이

다. 물론 착오가 불가피하다고 해서 좀 범하는것쯤은 무방하다고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공작가운데서 착오를 범하지 않기는 확실히 불가능하다는것도 승인하여야 한다. 문제는 착오를 좀 적게 범하며 큰 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것이다.

사회의 나쁜 기풍은 반드시 물리쳐야 한다. 당내에서나 민주인사들가운데서나 청년학생들가운데서나 나쁜 기풍은, 다시말해서 개별적사람의 착오인것이 아니라 기풍으로 형성되고있는것은 꼭 물리쳐야 한다. 물리치는 방법은 도리를 따지는것이다. 설복력만 있으면 나쁜 기풍을 물리칠수 있다. 설복력이 없이 욱지거리나 하여서는 나쁜 기풍이 갈수록 더 심해지기만 할것이다.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충분한 준비를 하였다가 파악이 있을 때에 가서 설복력이 강한 론박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서기가 직접 신문을 관리하며 직접 글을 써야 한다.

통일물의 호상 대립되며 호상 투쟁하는 두 측면가운데는 언제나 주요한 측면과 차요한 측면이 있다. 우리 무산계급전정의 국가에서는 물론 독초를 도처에서 범람하게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 당내에서나 사상계 및 문예계에서나 반드시 향화, 맑스주의가 주요하고도 통치적인 지위를 차지하도록 힘써야 한다. 독초, 비맑스주의적인것과 반맑스주의적인것들은 피통치적지위에 놓여야만 한다. 일정한 의미에서 말할 때 이것은 원자가운데의 원자핵과 전자와의 관계에 비길수 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 두 부분으로 나뉜다. 원자핵은 매우



작지만 대단히 무겁다. 전자는 매우 가벼워 무게가 가장 가벼운 원자핵의 약 1,800분의 1밖에 안된다. 원자핵도 분할할수 있지만 비교적 튼튼히 결합되어있다. 그런데 전자는 몇이 떨어져나갈수도 있고 몇이 들어올수도 있으므로 좀 《자유주의》적이라고 할수 있다. 원자핵과 전자와의 관계도 대립물의 통일로서 주요한 측면과 차요한 측면이 있다. 이런 관점으로부터 보면 백화제방, 백가쟁명은 유익할뿐 해로운 점은 없는것이다.

다섯째, 소동을 일으키는 문제. 사회주의사회에서 소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는것은 새로운 문제이므로 잘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것이다.

사회의 일은 언제나 대립물의 통일인것이다. 사회주의사회도 역시 대립물의 통일로서 인민내부의 대립물의 통일이 있는가 하면 적아간의 대립물의 통일이 있다. 우리 나라에는 아직 소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일이 있는데 그 기본원인은 사회에 여전히 여러가지 대립되는 측면——정면과 반면이 있고 여전히 대립되는 계급, 대립되는 사람, 대립되는 의견이 있기때문이다.

우리가 생산자료의 소유제에 대한 사회주의적개조를 기본적으로 완수하였으나 아직도 자산계급이 있고 지주, 부농이 있으며 악패와 반혁명이 있다. 그들은 수탈당한 계급이다. 지금 우리가 그들을 압박하고있으므로 그들은 앙심을 품고있으며 그중 많은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발작하게 된다. 헝그리아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헝그리아가 란장판으로 되기를 희망하였

으며 좋기는 중국도 판장판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그들의 계급적본성이다.

일부 민주인사들과 교수들이 내놓은 피상한 논의들도 우리와 대립되는 것이다. 그들은 유심론을 주장하고 우리는 유물론을 주장한다. 그들은, 공산당은 과학을 관리할수 없으며 사회주의는 우월성이 없으며 합작화는 매우 나쁘다고 말하고 우리는, 공산당은 과학을 관리할수 있으며 사회주의는 우월성이 있으며 합작화는 매우 좋다고 말한다.

학생들가운데도 우리와 대립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지금 대학생의 대다수가 착취계급가정출신이므로 그중에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것은 조금도 이상할것이 없다. 이런 사람은 북경에도 있고 석가장에도 있으며 기타 지방에도 있다.

사회에는 또 우리의 성위를 《굳어진 송장》이라고 욕하는 사람까지 있다. 성위가 굳어진 송장인가? 내가 보건대 우리의 성위는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굳어졌겠는가? 우리의 성위를 《굳어진 송장》이라고 욕하는 것과 우리가 성위는 굳어진 송장이 아니라고 하는것도 역시 대립되는 것이다.

우리 당내에도 각종 대립되는 의견이 있다. 례하면 쓰련공산당 20차대회에서 쓰달린을 단매에 때려눕힌데 대하여 반대하는것과 옹호하는것의 두가지 대립되는 의견이 있다. 당내에는 부동한 의견이 늘 생기게 된다. 의견이 방금 일치해졌다가도 한두달이 지나면 또 새로운 부동한 의견이 나타나게 된다.

사람들의 사상방법에 있어서 실사구시와 주관주의는 대립되는것이다. 나는 어느해에나 다 주관주의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만년후에 가면 주관주의가 전혀 없겠는가? 나는 그러리라고 믿지 않는다.

한 공장, 한 합작사, 한 학교, 한 단체, 한 가정,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곳에나 어느때나 다 대립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사회의 소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일은 해마다 있을수 있다.

소동을 일으키는것이 구경 두려운가 두렵지 않은가? 우리 공산당은 제국주의, 장개석국민당, 지주계급, 자산계급에 대하여도 종래로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오늘에 와서 학생들이 소동을 일으키는것을 두려워하고 농민이 합작사소동을 일으키는것을 두려워한다면 이야말로 피상한 일이 아닐수 없다! 군중이 소동을 일으키는 데 대하여는 단기서나 장개석만이 두려워한다. 이밖에 웅그리아와 쑨옌에서도 일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소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는데 대하여 우리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여야 하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여서는 안된다. 다시말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를 하고있어야 한다. 두려워해서는 좋은 수가 없다. 겁을 낼수록 귀신이 더 달려든다. 소동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신적 준비가 있어야 피동에 빠지지 않게 된다. 나는 큰일이 일어나리라는 데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큰일에 대처할 준비가 있으면 일어나지 않을수도 있지만 큰일에 대처할 준비가 없다면 소란이 일어나게 될것이다.

사태는 좋은데로 발전하거나 나쁜데로 발전할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 국제문제에 대해서나 국내문제에 대해서나 모두 두가지 가능성을 예견하여야 한다. 금년에는 태평무사하리라 하는데 태평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예견에 기초하여 공작을 하여서는 좋지 못하다. 최악의 경우에 기초하여 타산하여야 한다. 국제상에 있어서는 기껏해야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원자탄이 떨어질것이다. 국내에 있어서는 기껏해야 전국적인 대소란이 일어나고 《헝그리아사건》이 발생하여 수백만명이 들고일어나서 우리를 반대하며 몇백개 현을 점령하고 나아가서는 북경에까지 쳐들어오게 될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기껏해야 연안으로 되돌아가게 될것이다. 우리는 원래 그곳에서 왔다. 우리는 이미 북경에서 7년이나 살았는데 8년만에 또다시 연안으로 돌아가라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 끝장이구나 하고 울며불며 야단을 치겠는가? 물론 우리는 지금 《창을 들이 찌르는척하고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는》 격으로 연안에 돌아갈 생각은 결코 없다. 7차대회때에 나는 열일곱가지 곤란을 예견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가운데는 적지천리의 큰 재해가 들어 먹울것이 없고 모든 현소재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수도 있다는것이 포함되어있다. 우리는 이렇게 충분히 예견하였기때문에 시종 주동적지위에 설수 있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정권을 장악하였지만 역시 최악의 가능성으로부터 타산하여야 한다.

소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는것은 더러는 령도

에 관료주의와 주관주의가 존재하여 정치적 또는 경제적 면에서 정책상의 착오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이밖에 더러는 정책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공작방법이 잘못되고 너무 딱딱하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가지 요인은 반혁명분자와 나쁜분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소수 사람이 소동을 일으키는것을 완전히 방지하기는 어렵다. 이것도 역시 불가피론이다. 그러나 큰 로선착오를 범하지만 않으면 전국적인 대소란은 일어나지 않을것이다. 설혹 큰 로선착오를 범하여 전국적인 소란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재빨리 평정될것이고 나라가 망할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을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우리가 잘하지 못한다면 력사가 좀 뒤걸음치고 좀 되돌아가게 될 가능성은 많다. 신해혁명이 바로 뒤걸음질쳤던것이다. 황제를 타도하였는데 또다시 황제가 나타났고 군벌이 나타났던것이다. 문제가 있기때문에 혁명을 하게 되며 혁명을 한 다음에는 또 문제가 생긴다. 만일 전국적인 대소란이 일어난다면 어쨌든 군중과 그들의 령수인물이——그것은 우리일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수도 있다——나와서 시국을 수습하게 될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한번 것처럼 큰 소란을 거쳐 종치가 더진 다음에는 우리 나라가 더욱 공고해질뿐일것이다. 중국은 아무튼 전진하게 될것이다.

소수 사람이 소동을 일으키는데 대하여 말하면 첫째로는 제창하지 않으며 둘째로는 기여이 소동을 일으키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으키게 놓아두는것이다. 우리는 헌법에다 행진과 시위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파업의

자유가 있다고는 규정하지 않았으나 금지한다고도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파업하는것이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그 누가 파업하려 하고 청원하려 하는 경우에 억지로 제지시키는것은 좋지 못하다. 내 생각에는 소동을 일으키려거든 일으키게 하고 한달이 모자라면 두달도 좋으니 얼마동안이건 소동을 일으키고싶은대로 일으키게 하는것이 좋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실컷 해보기 전에는 수습하지 말아야 한다. 조급히 수습해버리면 그들은 아무때 가서나 또 소동을 일으키려 할것이다. 학생들이 소동을 일으킨 학교에서는 방학을 하지 말고 적벽의 싸움마냥 결전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이렇게 하면 문제를 충분히 폭로할수 있고 시비를 똑똑히 밝힐수 있으며 그리하여 여러 사람이 단련되고 도리가 없는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이 패배당하게 할수 있다.

이러한 정도예술을 배워야 하지 아무 일이나 그저 눌러놓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누가 피상한 말을 하고 파업을 하고 청원을 하면 어쨌든 그것을 세상에 있어서는 안될 일로 생각하여 단박에 내리까고마는데 그것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면 어째서 생겼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있기 마련인 일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파업이나 청원이나 나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덮어놓고 내리누르기만 한다면 결국은 라코시로 되고말것이다. 당내에서나 당외에서나 할것없이 다 그러하다. 이러저러한 피상한 말, 피상한 일, 모순은 폭로하는것이 좋다. 모순을 폭로하고 모순을 해결하여야 한다.

소동에 대하여서는 몇가지 정형을 분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 소동이 옳은것이라면 우리는 착오를 승인하고 시정하여야 한다. 소동이 옳지 않은것이라면 그것을 반박해버려야 한다. 그 소동이 도리가 있는것이라면 그것은 응당한 소동일것이고 도리가 없는것이라면 아무리 해보아도 별로 회한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것이다. 그리고 옳은 면도 있고 그른 면도 있는 소동이라면 우리는 옳은 면에 대하여서는 접수하여야 하고 그른 면에 대하여서는 비평을 가하여야 할것이며 걸음마다 뒤로 물러서면서 아무 원칙도 없이 무슨 요구나 다 들어주어서는 안된다. 대규모적인 진짜반혁명폭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는외에는 경솔히 무력을 사용하지 말며 총을 쏘지 말아야 한다. 단기서는 그가 빚어낸 《3.18》 참안에서 총을 쏘는 방법을 썼으므로 결국 그자신이 타도되고말았다. 우리는 단기서의 방법을 따라배워서 안된다.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공작을 잘하여 그들을 분화시키며 다수의 사람과 소수의 사람을 구별하여야 한다. 다수의 사람에 대하여서는 잘 인도하고 교육함으로써 그들이 점차 전변하도록 하여야 하며 물이 죽게 하여서는 안된다. 나는 어디나 다 두 끝이 작고 중간이 크다고 본다. 중간파를 차츰차츰 쟁취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우세를 차지하게 된다. 앞장에 나서서 소동을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서는 분석해보아야 한다. 앞장에 나서서 소동을 일으키는 파감성을 가진 일부 사람들은 교육을 거치면 유용한 인재

로 될수도 있다. 소수의 나쁜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가장 엄중한 범죄자를 내놓고는 붙잡지 말고 가두지 말며 제명하지 말아야 한다. 원단위에 그냥 남겨두고 그의 일체 정치자본을 박탈함으로써 그를 고립시키며 그를 반면교원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수천수만명을 죽여버리겠다고 버르던 그 청화대학학생에 대하여 우리의 등소평동지는 그 학교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그를 교원으로 초빙하였다. 그런 사람에게는 무장도 없고 권총도 없는데 무서워할것이 무엇인가? 그를 당장 제명해 버리면 거기가 아주 깨끗하여지기는 하겠지만 인심을 얻지 못하게 된다. 거기에서 제명해 버리면 그는 다른 데 가서 취직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급급히 제명하는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동계급을 대표하고있는것이며 그들의 문제는 개별적사람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들을 간단하게 처리하면 시원하기는 하겠지만 반면교원의 작용을 제대로 리용하지 못하게 된다. 쏘련에서는 대학생들이 소동을 일으키면 명수인물 몇을 제명해버린다. 그들은 나쁜 일이 우리에게 유용한 교재로 될수 있다는것을 모르고있다. 물론 웅그리아사건과 같은 그런 반혁명폭동을 일으킨 극소수인에 대하여서는 전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민주인사에 대하여 말하면 우리는 그들이 대립면을 이루고 대담하게 우리를 비평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가 만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민당과 다소 흡사하게 된다. 국민당은 비평을 몹시 두려워하는지라 참정



회를 열 때마다 겁이 나서 절절맨다. 민주인사들의 비평도 틀린것과 틀리지 않은것 이 두가지를 벗어나지 못한다. 틀리지 않은 비평은 우리의 단점을 미봉할수 있다. 틀린 비평은 반박하여야 한다. 량수명, 팽일호, 장내기 같은자들이 방귀를 끼려거든 끼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유리하다. 모두가 그것이 구수한가, 구린가 냄새를 맡아보게 하고 토론을 거쳐 다수를 쟁취하고 그들을 고립시킬수 있는것이다. 그들이 떠들고 싶은대로 실컷 떠들게 하여야 한다. 의롭지 못한 일을 많이 하면 필연코 자멸하는 법이다. 그들이 틀린 말을 하면 할수록 좋고 착오를 크게 범하면 범할수록 좋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더욱 고립되고 더욱더 반면으로부터 인민을 교육하게 된다. 우리는 민주인사들에 대하여 단결도 하고 투쟁도 하여야 하며 정황을 분별하여 일부에 대하여서는 주동적으로 대책을 취하여야 하고 일부에 대하여서는 그들자신이 자신을 폭로하게 하여야 하며 선손을 쓰지 말고 후손을 써야 한다.

자산계급사상과의 투쟁, 나쁜 사람, 나쁜 일과의 투쟁은 수십년 지어는 수백년이 걸리는 장기적인 투쟁이다. 공인계급과 노동인민 그리고 혁명적지식분자들은 투쟁가운데서 경험을 얻고 단련을 받을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유익한 일이다.

나쁜 일은 이중성을 가지고있다. 한편으로는 나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것이다. 이 점을 많은 동지들은 아직도 똑똑히 알지 못하고있다. 나쁜 일가운데는 좋은 요소가 내포되어있다. 나쁜 사람, 나쁜 일

을 다만 나쁜것으로만 간주하는것은 변증법적으로 문제를 관찰하는것이 아니라 일면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문제를 관찰하는것이며 그것은 맑스주의관점이 아니다. 나쁜 사람, 나쁜 일은 나쁜 일면도 있고 좋은 역할을 노는 다른 일면도 있다. 례하면 왕명 같은 나쁜 사람은 반면교원으로서의 좋은 역할을 놓고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좋은 일에도 나쁜 요소가 내포되어있다. 례하면 해방후 7년래의 대승리, 특히 지난 1년간의 대승리는 일부 동지들로 하여금 머리가 팽창되어 교오하게 하였다. 따라서 갑자기 소수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자 그들은 그것을 상상외의 일로 생각하게 되었다.

소동에 대하여 겁을 내고 간단하게 처리하게 되는 근본적원인은 사상상에서 사회주의사회는 대립물의 통일이며 거기에는 모순, 계급 및 계급투쟁이 존재하고 있다는것을 승인하지 않는데 있다.

쓰딸린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의 생산관계와 생산력간의 모순, 상층건축과 경제기초간의 모순을 장기간 승인하지 않았다. 그는 서거하기 1년전에 쓴 《쏘련에서의 사회주의경제문제》란 저서에서 비로소 사회주의 제도하에서의 생산관계와 생산력간의 모순을 흐리마리하게 제기하면서 만약 정책이 옳지 않고 조절을 잘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의연히 사회주의제도하에서의 생산관계와 생산력간의 모순, 상층건축과 경제기초간의 모순을 전면적인 문제로 제기하지 못하였으며 이런 모순이 사회주의사회의 발

전을 추동하는 기본모순이라는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는 자기의 그 천하가 안정하며 공고하다고 생각하였다. 우리는 천하가 안정하며 공고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안정하고 공고하면서도 또 안정하지 못하고 공고하지 못한것이다.

변증법에 의하면 사람이 결국에 가서는 죽는것과 마찬가지로 력사적현상으로서의 사회주의제도도 결국에는 사멸하게 되며 공산주의제도에 의하여 부정당하게 된다. 만일 사회주의제도는 사멸하지 않으며 사회주의의 생산관계와 상층건축은 사멸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무슨 맑스주의이겠는가? 그것은 종교의 교리와 같은것이거나 하느님은 불멸한다고 선전하는 신학과 같은것이 아닌가?

사회주의사회의 적아모순과 인민내부모순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것은 착실히 연구할 가치가 있는 일종의 과학이다. 우리 나라의 정황을 놓고 말하면 오늘의 계급투쟁은 적아모순으로 표현되는것이 부분적이고 인민내부의 모순으로 표현되는것이 대량적이다. '지금 소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있는 이것이 바로 이런 상태를 반영하고있다. 가령 만년후에 지구가 쪼개질것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만년동안에는 소동문제가 외연히 존재할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만년이란 아득한 장래의 일까지 상판할수는 없다. 우리는 몇차의 5개년 계획기간내에 이 문제의 처리경험을 잘 쌓아야 한다.

우리의 공작을 강화하며 우리의 착오와 결점을 시정하여야 한다. 어떤 공작을 강화할것인가? 공, 농,

상, 학, 병, 정, 당 모든 부문에서 다 정치사상공작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금 모두가 업무에 매달리고 경제사무요, 문교사무요, 국방사무요, 당의 사무요 하는 사무에 매달려 정치사상공작은 하지 않고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 지금 우리의 총서기 등소평동지가 직접 청화대학에 가서 보고를 하였는데 동무들도 모두가 직접 나서기를 바라는바이다. 중앙과 성, 시, 자치구 당위의 령도동지들이 다 직접 나서서 정치사상공작을 하여야 한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쏘련공산당과 동구라파 일부나라의 당들은 맑스주의의 기본원칙을 강조하지 않았다. 계급투쟁, 무산계급전정, 당의 령도, 민주집중제, 당과 군중과의 련계, 이러한것들에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지 않았으며 이러한것들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농후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웅그리아사건이 일어났다. 우리는 반드시 맑스주의의 기본리론을 견지하여야 한다. 매개 성, 시, 자치구들에서는 모두 리론공작을 틀어쥐며 맑스주의 리론가와 평론가들을 계획적으로 배양하여야 한다.

기구를 정간하여야 한다. 국가는 계급투쟁의 도구이다. 계급이 국가와 동일한것은 아니다. 국가는 통치적지위에 있는 계급이 일부분의 사람(소수인)을 내여 구성한것이다. 기관공작에 사람이 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수요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지금 국가기구가 방대하고 부문이 매우 많으며 많은 사람들이 할일없이 기관에 들어앉아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첫째, 사람을 줄여야 한다. 둘째, 줄이기로 된 사람들을

적당히 배치함으로써 그들에게 적당한 일자리가 있게 하여야 한다. 당, 정부, 군대에서 모두 이렇게 하여야 한다.

아래에 내려가 문제를 연구하여야 한다. 나는 중앙의 동지들과 각 성, 시, 자치구, 각 부의 주요한 책임동지들이 다 이렇게 할것을 바란다. 듣건대 지금 많은 책임동지들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좋지 않다. 중앙기관은 몹시 구차해서 여기서는 아무런 지식도 얻을수 없다. 지식을 얻으려면 기관에 들어앉아있어서는 얻을수 없다. 진정으로 지식을 낚는 곳은 공장, 합작사, 상점이다. 공장과 합작사와 상점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것은 기관에 앉아있어서는 알수 없는것이다. 상층일수록 속이 더 텅 비어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꼭 자기자신이 내려가거나 아래에 있는 사람을 청해오거나 해야 한다. 내려가지도 않고 아래에 있는 사람을 청해오지도 않는다면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나는 성, 시, 자치구 당위서기가 어느 현의 현위서기거나 어느 공장 또는 학교의 당위서기를 겸하며 지위서기와 현위서기도 어느 하급단위의 서기를 겸할것을 건의한다. 이렇게 하면 경험을 쌓아 전반을 지도할수 있다.

군중과 밀접히 련계하여야 한다. 군중을 탈리하고 관료주의를 부리면 기필코 얻어맞을것이다. 헝그리아의 령도자들은 조사연구를 하지 않았고 군중의 정황을 몰랐으므로 큰 소란이 일어난 다음에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지금 우리의 일부 부와 성,

시, 자치구 당위의 령도들은 군중의 사상동태를 알지 못하며 일부 사람들이 소동과 폭동을 준비하고있다는것을 전혀 모르고있으므로 일이 생기면 미처 손쓸 사이가 없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꼭 거울로 삼아야 한다. 중앙의 동지들과 각 성, 시, 자치구, 각 부의 주요책임동지들은 해마다 한동안 공장, 합작사, 상점, 학교 등 기층단위에 내려가 조사연구를 하여 군중의 정황이 어떠한가, 선진적인 사람, 중간상태의 사람, 락후한 사람이 각각 얼마나 되며 우리의 군중공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똑똑히 료해함으로써 심중에 파악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공인계급에 의거하고 빈농, 하중농에 의거하고 선진분자들에게 의거하여야 하며 아무튼 의거하는데가 있어야 한다. 이래야만 웅그리아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을 피면할수 있는것이다.

여섯째, 법제문제. 반드시 법을 지켜야 한다는것, 반드시 반혁명을 숙청하여야 한다는것, 반드시 반혁명 숙청에서 거둔 성적을 긍정하여야 한다는것, 이 세가지에 대하여 말하려 한다.

반드시 법을 지켜야 하며 혁명적법제를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법률은 상층건축에 속한다. 우리의 법률은 로동인민자신이 제정한것이다. 우리의 법률은 혁명질서를 수호하며 로동인민의 리익을 보호하며 사회주의경제기초를 보호하며 생산력을 보호하는것이다. 우리는 민주인사들에게만 법을 지킬것을 요구하는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혁명적법제를 준수할것을 요구한다.

반드시 반혁명을 숙청하여야 한다. 반혁명숙청계획을 완수하지 못한 곳에서는 금년내에 완수하여야 한다. 만일 채 완수하지 못하여 좀 남게 되면 명년에는 꼭 완수하여야 한다. 반혁명을 숙청하기는 하였으나 깨끗이 숙청하지 못한 일부 단위에서는 투쟁가운데서 점차 깨끗이 숙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반혁명이 많지 않게 되었다는 이 점을 긍정하여야 한다. 소동이 일어난 지방에 있어서 광범한 군중들은 반혁명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며 따라갈 사람은 다만 부분적일 것이며 그것도 잠시적일 것이다. 이와 동시에 반혁명이 아직 존재하고 있으며 숙반공작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긍정하여야 한다.

반드시 반혁명숙청에서 거둔 성적을 긍정하여야 한다. 반혁명숙청에서 거둔 성적은 위대하다. 착오도 있는데 그것을 엄숙하게 대하여야 할것은 물론이다. 숙반공작을 하는 간부들을 받들어주어야 한다. 일부 민주인사들이 욕을 한다고 해서 주저하여서는 안된다. 그들은 밥을 먹고는 할 일이 없어서 날마다 욕이나 퍼붓는것을 일삼고있는데 하고싶은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된다. 내가 보건대 욕하면 욕할수록 좋다. 내가 말한 이 세가지는 어쨌든 욕으로 부정해버릴수는 없는것이다.

공산당은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모른다. 국민당은 우리를 《공산비적》이라고 욕하고 남들이 우리와 련계를 가지면 《비적과 내통한다》고 하였다. 그래도 결국에는 《비적》이 《비적》이 아닌 그들보다 나왔다. 자

고로 선진적인것이 첫시작부터 환영을 받는 일은 없었다. 그것들은 어쨌든 육을 먹기 마련이었다. 맑스주의와 공산당은 탄생된 그날부터 육을 먹어왔다. 만년후에도 선진적인것이 시초에는 육을 먹게 된다.

반혁명숙청은 견지하여야 하며 반혁명분자가 있으면 반드시 숙청하여야 한다. 법제는 준수하여야 한다. 법률에 쫓아 처사하라는것은 손발을 얹어매놓는것과는 다르다. 반혁명이 있는데도 숙청하지 않고 손발을 얹어매놓는것은 옳지 않다. 법률대로 손발을 풀어놓아야 한다.

일곱째, 농업문제. 금년에 풍작을 따내기에 힘써야 한다. 금년에 풍작을 따내면 민심이 안정되고 합작사가 상당히 공고해질수 있다. 쏘련과 동구라과의 일부 나라들에서는 합작화를 하면 량곡이 여러해동안 감산되는것이 통례로 되어있다. 우리는 여러해동안 합작화를 하여왔고 지난 1년동안은 대대적으로 하였으나 량곡이 감산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증산되었다. 만일 금년에 또 풍작을 이룬다면 그것은 합작화의 력사에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에서 전례없는 일로 될것이다.

전당은 반드시 농업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농업은 국제민생과 아주 큰 관계를 가지고있다. 량곡을 틀어쥐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량곡을 틀어쥐지 않으면 조만간에 천하가 아주 소란하게 될것이다.

첫째로, 농업은 5억 농촌인구의 먹는 문제, 고기와



기름 문제 그리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비상품 성농산물문제와 관계된다. 농민들이 자급하는 이 부분은 그 수량이 극히 많다. 이를테면 작년에 3,600여 억근의 량곡을 생산하였는데 공량을 포함한 상품량곡은 약 800여억근으로서 총산량의 4분의 1도 안되고 4분의 3이상이 농민에게 돌아갔다. 농업을 잘하여 농민들이 자급할수 있게 되면 5억 인구가 안정될수 있다.

둘째로, 농업은 성시 및 공장광산구역 인구의 먹는 문제와도 관계된다. 상품성농산물이 발전하여야만 공업인구의 수요에 공급할수 있으며 공업을 발전시킬수 있다. 농업생산의 발전에 기초하여 농산물, 특히는 량곡의 상품률을 점차 제고하여야 한다. 먹을것이 있으면 학교와 공장에서 소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킨다 해도 겁날것이 없다.

셋째로, 농업은 경공업원료의 주요한 래원이고 농촌은 경공업의 중요한 시장이다. 농업이 발전하여야만 경공업생산이 충족한 원료를 얻을수 있으며 경공업제품이 광활한 시장을 가질수 있다.

넷째로, 농촌은 또한 중공업의 중요한 시장이다. 이를테면 화학비료, 여러가지 농기계, 부분적인 전력, 석탄, 석유가 농촌에 공급되고있으며 철로, 공로와 대형수리시설도 농업을 위하여 복무하고있다. 지금 우리는 사회주의적농업경제를 건립하였으므로 경공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나 중공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나 농촌이 극히 큰 시장으로 되고있다.

다섯째로, 지금 수출하는 물자는 주로 농산물이다.

농산물을 주고 외화를 바꾸면 각종 공업설비를 수입할 수 있다.

여섯째로, 농업은 축적의 중요한 태원이다. 농업이 발전되면 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정한 의미에서는 농업이 바로 공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농촌을 상대하고 농업을 지원하도록 공업부문들을 설복하여야 한다. 공업화를 잘하려면 응당 이렇게 하여야 한다.

농업자체의 축적과 국가가 농업에서 얻는 축적이 합작사의 수입가운데서 각기 얼마만한 비율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지? 동무들이 연구해보고 적당한 비율을 내오기 바란다. 그 목적은 농업이 확대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이 공업의 더욱 큰 시장으로 되며 더욱 많은 축적의 태원으로 될 수 있게 하려는데 있다. 우선 농업자체가 축적을 많이 한 다음에야 공업을 위한 축적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공업을 위해서만 축적하고 농업자체를 위한 축적은 너무 적거나 없다면 그것은 늪을 말리며 고기를 잡는 격이어서 도리어 공업발전에 불리하다.

합작사의 축적과 사원의 수입간의 비율에도 주의를 돌려야 한다. 합작사는 가치법칙에 의하여 경제혁신을 하여야 하며 근검하게 합작사를 운영하며 점차적으로 축적을 증가하여야 한다. 금년에 만일 풍작을 이룬다면 작년보다 많이 축적하여야 한다. 그러나 너무 많아서는 안되며 우선 농민들이 배불리 먹게 하여야

한다. 풍년에는 많이 축적하고 흉년이거나 반흉년에는 축적하지 않거나 적게 축적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축적은 파상식 혹은 라선식으로 하여야 한다. 세상의 사물은 모두 모순되고있으며 대립물의 통일이기때문에 그것들은 모두 파상식으로 운동하고 발전한다. 태양이 빛을 뿌리는것을 광파라 하고 방송국에서 발사하는것을 전파라 하고 소리가 전파되는것을 음파라고 한다. 물에는 물결이 있고 열에는 열파가 있다. 일정한 의미에서 말한다면 길을 걷는것도 물결형상이라 할수 있는데 한걸음한걸음 걷는것이 바로 물결형상이다. 노래를 부르는것도 물결형상이라 할수 있는데 첫구절을 다 부른 다음에 두번째구절을 부르지 단숨에 일여덟구절을 다 부르지는 않는다. 글을 쓰는것도 물결형상이라 할수 있다. 한글자를 다 쓴 다음에 다음글자를 써야지 몇백자를 단꺼번에 쓸수는 없는것이다. 이것이 사물의 모순운동의 꼭질성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변증법에 좇아 처사하여야 한다. 이것은 등소평동지가 한 말이다. 내가 보건대 전당이 모두 변증법을 학습하여야 하며 변증법에 좇아 처사하도록 제창하여야 한다. 전당은 모두 사상리론공작에 주의를 돌려 맑스주의리론대오를 건립하며 맑스주의리론에 대한 연구와 선전을 강화하여야 한다. 대립물의 통일에 관한 맑스주의학설을 운용하여 사회주의사회의 계급모순과 계급투쟁의 새로운 문제를 관찰하고 처리하여야 하며 국제투쟁중의 새로운 문제를 관찰하고 처

리하여야 한다.

## 주 해

[1] 고정리식이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개조과정에 국가가 민속자산계급의 생산자료에 대하여 축대정책을 실시한 일종 형식이다. 1956년에 자본주의적공상업에서의 전 업종적인 공사합영이 실시된후부터 국가에서 자본가들에게 그 자산에 따라 일정한 기간 해마다 고정적인 리들의 리식을 지불하였는데 이것을 고정리식이라고 한다. 고정리식은 의연히 착취의 성질에 속한다.

[2] 레닌의 《해결의 저서 <론리학>의 적요》에 있다.

[3] 레닌의 《변증법문제에 관하여》에 있다.

[4] 클라우제위츠(1780~1831년)는 독일의 유명한 자산계급군사리론가이다. 그의 주요한 저서로는 《전쟁론》이 있다. 클라우제위츠에 대한 쓰딸린의 평론에 관하여서는 쓰딸린의 《라센동지에게 보낸 답서》를 참조하라.

[5] 레닌의 《전쟁과 혁명》에 있다.

##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 문제에 관하여\*

(1957년 2월 27일)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 문제에 관하여  
——이것이 총제목이다. 서술의 편리를 위하여 열두개의  
소제목으로 나누었다. 여기에서 적아간의 모순문제  
도 언급하게 되지만 중점은 인민내부의 모순문제를 토  
론하는데 있다.

### 1. 성질이 부동한 두가지 모순

우리 나라는 지금 전례없이 통일되어있다. 자산계  
급민주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승리 그리고 사회주의건  
설의 성과는 구중국의 면모를 신속히 개변시켰다. 조  
국의 더욱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앞에 놓여있다. 인민  
들이 염오하던, 국가가 분열되고 혼란하던 국면은 다  
시 돌아오지 않을 과거사로 되었다. 우리 나라의 6억

-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최고국무회의 제11차(확대)회의에서 하  
신 강화이다. 후에 모택동동지께서는 당시의 기록에 근거하여  
정리하고 약간 보충하여 1957년 6월 19일부 《인민일보》에 발표  
하시었다.

인민은 공인계급과 공산당의 령도하에서 일치단결하여 위대한 사회주의건설을 진행하고있다. 국가의 통일, 인민의 단결, 국내 각 민족의 단결, 이것은 우리 사업이 필연코 승리하게 되는 기본적인담보이다. 그렇다 하여 인제는 우리의 사회에 아무런 모순도 없다는 말은 아니다. 모순이 없다는 생각은 객관적실체에 부합되지 않는 천진한 생각이다. 우리앞에는 두가지 사회적모순이 있는데 그것은 즉 적아간의 모순과 인민내부의 모순이다. 이것은 성질이 완전히 다른 두가지 모순이다.

적아간의 모순과 인민내부의 모순, 이 두가지 부동한 모순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먼저 인민이란 무엇이며 적이란 무엇인가를 똑똑히 밝혀야 한다. 인민이란 이 개념은 부동한 국가 및 매개 국가의 부동한 력사시기에 있어서 부동한 내용을 가진다. 우리 나라의 정황을 놓고 말하면 항일전쟁시기에는 항일하는 모든 계급, 계층과 사회집단은 모두 인민의 범위에 속하였고 일본제국주의, 한간, 친일파는 모두 인민의 적이였다. 해방전쟁시기에는 미제국주의와 그의 주구, 즉 관료자산계급, 지주계급 및 이 계급들을 대표하는 국민당반동파는 모두 인민의 적이였고 이 적들을 반대하는 모든 계급, 계층과 사회집단은 모두 인민의 범위에 속하였다. 현계단에 있어서는, 사회주의건설시기에 있어서는 사회주의건설사업을 찬성하고 옹호하며 사회주의건설사업에 참가하는 모든 계급, 계층과 사회집단은 모두 인민의 범위에 속하고 사회주의혁명에 반항하며 사회주의건설을 적대시하고 파괴하는

모든 사회세력과 사회집단은 모두 인민의 적이다.

적아간의 모순은 대항적모순이다. 인민내부의 모순은, 로동인민간에 있어서는 비대항적이며 피착취계급과 착취계급간에 있어서는 대항적일면을 가지고있는외에 비대항적일면도 가지고있다. 인민내부의 모순은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생긴것이 아니다. 그러나 각개 혁명시기에 있어서는 그 모순은 사회주의건설시기와 다른내용을 가지고있었다. 우리 나라의 현조건하에서 이른바 인민내부의 모순에는 공인계급내부의 모순, 농민계급내부의 모순, 지식분자내부의 모순, 공인계급과 농민계급간의 모순, 공인, 농민과 지식분자간의 모순, 공인계급, 기타 로동인민과 민족자산계급간의 모순, 민족자산계급내부의 모순 등등이 포괄되어있다. 우리의 인민정부는 진정으로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부이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부이다. 그러나 인민정부와 인민군중사이에도 일정한 모순이 있다. 이 모순에는 국가의 리익, 집체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간의 모순, 민주와 집중간의 모순, 령도와 피령도간의 모순, 국가기관의 일부 공작인원의 관료주의작풍과 군중간의 모순이 포괄되어있다. 이러한 모순도 역시 인민내부의 모순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인민내부의 모순은 인민의 리익이 근본적으로 일치한 기초우에서의 모순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공인계급과 민족자산계급간의 모순은 인민내부의 모순에 속한다. 공인계급과 민족자산계급간의 계급투쟁은 일반적으로 인민내부의 계급투쟁에 속한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민족자산계급에게

량면성이 있기때문이다. 자산계급민주혁명시기에는 그들에게 혁명적인 일면이 있었는가 하면 타협적인 일면도 있었다. 사회주의혁명시기에는 그들에게 공인계급을 착취하여 리윤을 얻는 일면이 있는가 하면 헌법을 옹호하며 사회주의적개조를 접수하려는 일면도 있다. 민족자산계급은 제국주의, 지주계급, 관료자산계급과는 다르다. 공인계급과 민족자산계급간에는 착취와 피착취와의 모순이 존재하고있는데 이것은 원래 대항적 모순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조건하에서 이 두 계급의 대항적모순은 타당하게 처리한다면 비대항적모순으로 전화될수 있으며 평화적방법에 의하여 해결될수 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타당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민족자산계급에 대하여 단결, 비평, 교육의 정책을 취하지 않거나 민족자산계급이 우리의 이 정책을 접수하지 않는다면 공인계급과 민족자산계급간의 모순은 적아간의 모순으로 전화될수 있다.

적아간의 모순과 인민내부의 모순은 성질이 같지 않으며 따라서 그 해결방법도 같지 않다. 간단히 말하면 전자는 적아를 똑똑히 가르는 문제이고 후자는 시비를 똑똑히 가르는 문제이다. 물론 적아문제도 일종의 시비문제이다. 예를 들면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 등 이런 내외반동파들과 우리사이에 도대체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하는것도 시비문제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민내부의 문제와는 성질이 같지 않은 다른 한 종류의 시비문제이다.

우리의 국가는 공인계급이 명도하는, 공농련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전정의 국가이다. 이 전정은 무엇을 하는것인가? 전정의 첫째작용은 국가내부의 반동계급과 반동파 그리고 사회주의혁명에 반항하는 착취자들을 압박하며 사회주의건설을 파괴하는자들을 압박하는것으로서 이것은 국내의 적아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것이다. 례를 들면 일부 반혁명분자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형벌에 처하며 일정한 기간 지주계급분자와 관료자산계급분자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으며 그들에게 언론자유의 권리를 주지 않는것 등이 모두 전정의 범위에 속한다. 사회질서와 광범한 인민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절도법, 사기법, 살인방화법, 류망집단 그리고 사회질서를 엄중히 파괴하는 각종 나쁜분자에 대하여서도 전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정에는 또 두번째작용이 있는데 그것은 국외의 적들의 전복활동과 있을수 있는 침략을 방어하는것이다. 이런 정황이 나타났을 때 전정은 대외적으로 적아간의 모순을 해결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전정의 목적은 전체 인민의 평화적로동을 보위하며 우리 나라를 현대적공업, 현대적농업, 현대적과학문화를 소유한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하려는데 있다. 누가 전정을 행사하는가? 물론 공인계급과 그의 령도하에 있는 인민이다. 전정의 제도는 인민내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민자신이 자신에 대하여 전정할수 없으며 일부분 인민이 다른 일부분 인민을 압박할수는 없다. 인민가운데의 범죄분자도 법적제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인민의 적을 압박하는 전정과는 원칙적으로 구별된다. 인민내부에서는 민

주집중제를 실시한다. 우리의 헌법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행진, 시위, 종교 신앙 등등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우리의 헌법에는 또 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를 실시하며 국가기관은 반드시 인민군중에 의거하여야 하고 국가기관공작인원은 반드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우리의 이 사회주의적민주는 그 어떤 자본계급국가에도 있을수 없는 가장 광범한 민주이다. 우리의 전정은 공인계급이 령도하는, 공농련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전정이라 한다. 이것은 인민내부에서는 민주제도를 실시하고 공인계급이 공민권을 가진 전체 인민, 우선 농민과 단결하여 반동계급, 반동파 그리고 사회주의적개조와 사회주의건설에 반항하는 분자들에 대하여 전정을 실시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소위 공민권을 가진다는것은 정치면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권리를 가진다는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자유는 령도가 있는 자유이며 이 민주는 집중지도하의 민주로서 무정부상태가 아니다. 무정부상태는 인민의 리익과 념원에 부합되지 않는다.

웡그리아사건이 발생된후 우리 나라의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였다. 그들은 중국에서도 그런 사건이 생겨서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 인민정부를 반대하기를 희망한다. 그들의 이러한 희망은 인민군중의 리익에 위반되는것으로서 인민군중의 지지를 받을수 없는것이다. 웡그리아의 일부 군중은 국내외의 반혁명력량에 기만당하여 그릇되게도 폭력행위로써 인민정부

에 대립하였는데 그 결과 국가와 인민에게 모두 손해를 주었다. 몇주일동안의 소란이 경제면에 준 손실은 긴 시일이 걸려야 회복될수 있다. 우리 나라의 다른 일부 사람들은 헝그리아문제에서 동요하였는데 그것은 세계의 구체정황을 모르기때문이다. 그들은 우리의 인민민주제도하에서는 자유가 너무도 적으며 서방의 의회민주제도보다 자유가 많지 못하다고 여긴다. 그들은 한당이 집정하면 다른 당은 재야하는 서방의 량당제를 실시할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런 소위 량당제는 자산계급전정을 수호하는 한가지 방법에 지나지 않는것으로서 그것은 절대 로동인민의 자유권리를 보장할수 없다. 실제상 세상에는 구체적자유와 구체적민주가 있을뿐이고 추상적자유와 추상적민주는 없다. 계급투쟁이 있는 사회에서는 착취계급에게 로동인민을 착취할 자유가 있으면 로동인민에게는 착취를 받지 않을 자유가 없으며 자산계급의 민주가 있으면 무산계급과 로동인민의 민주는 없다. 일부 자본주의국가에서는 공산당의 합법적존재를 용허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자산계급의 근본적리익을 해치지 않는것을 한도로 하고있으며 이 한도를 벗어나면 용허하지 않는다. 추상적자유와 추상적민주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민주를 목적으로 인정하면서 민주가 수단이라는것을 승인하지 않는다. 민주라는것은 때로는 목적같이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한가지 수단에 불과하다. 맑스주의는 우리에게 민주는 상층진축에 속하며 정치라는 이 범주에 속한다는것을 알려주고있다. 다시말하면 민주란 결국 경제기초

를 위하여 복무하는것이다. 자유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민주와 자유는 절대적인것이 아니라 상대적인것이며 모두 역사적으로 발생, 발전하는것이다. 인민내부에 있어서 민주는 집중에 대하여 말하는것이고 자유는 기물에 대하여 말하는것이다. 이것들은 한 통일체의 모순되고있는 두 측면으로서 모순되면서도 또 통일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편면적으로 어느 한 측면만 강조하고 다른 한 측면을 부정하여서는 안된다. 인민내부에 자유가 없어도 안되고 기물이 없어도 안되며 민주가 없어도 안되고 집중이 없어도 안된다. 이런 민주와 집중의 통일, 자유와 기물의 통일이 곧 우리의 민주집중제이다. 이 제도하에서 인민은 광범한 민주와 자유를 향수하고있으며 동시에 또 사회주의적기물로 자기자신을 단속하지 않으면 안된다. 광범한 인민군중은 이 도리를 알고있다.

우리는 령도가 있는 자유를 주장하며 집중지도하의 민주를 주장한다. 이것은 그 어떤 의의에서든지 인민내부의 사상문제와 시비의 식별문제를 강제적방법으로 해결할수 있다고 하는것은 아니다. 행정명령의 방법으로, 강제적방법으로 사상문제와 시비문제를 해결하려 하여서는 효력이 없을뿐만아니라 해롭다. 우리는 행정명령으로 종교를 소멸할수 없으며 사람들에게 종교를 믿지 말라고 강제할수 없다. 사람들에게 유심주의를 포기하라고 강제할수 없으며 맑스주의를 믿으라고 강제할수도 없다. 무릇 사상적성질을 띤 문제, 인민내부의 쟁론에 속하는 문제들은 오직 민주적방법으로,

오직 토론의 방법, 비평의 방법, 설복교육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있을뿐 강제적, 억압적 방법으로서는 해결할수 없다. 인민은 생산과 학습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며 생활을 질서있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정부, 생산령도자, 문화교육기관의 령도자들에게 강제성을 띤 각종 적당한 행정명령을 발포할것을 요구한다. 이런 행정명령이 없이는 사회질서를 유지할수 없다는것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있는것이다. 이것과 설복교육의 방법으로 인민내부의 모순을 해결하는것은 서로 의존하고 서로 보충하고 서로 촉진하는 두 측면이다. 사회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내린 행정명령에도 설복교육이 따라가야 하며 단순히 행정명령에만 의거하여서는 많은 경우에 그 목적을 달성할수 없다.

1942년에 우리는 인민내부의 모순을 해결하는 인민주적방법을 《단결——비평——단결》이라는 공식으로 구체화하였다. 좀 상세히 말한다면 이것은 단결의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비평 혹은 투쟁을 거쳐 모순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초우에서 새로운 단결에 도달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이것은 인민내부의 모순을 해결하는 정확한 방법이다. 1942년에 우리는 이 방법을 취하여 공산당내부의 모순, 즉 교조주의자와 광범한 당원군중간의 모순, 교조주의사상과 맑스주의사상간의 모순을 해결하였다. 《좌》경교조주의자들이 과거에 취한 당내투쟁의 방법은 《잔혹한 투쟁, 무자비한 타격》이라는것이였다. 이것은 그릇된 방법이다. 우리는 《좌》경교조주의를 비평할 때 이 낡은 방법을 취하지

않고 단결의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비평 혹은 투쟁을 거쳐 시비를 똑똑히 가르고 새로운 기초우에서 새로운 단결에 도달하는 새로운 방법을 취하였다. 이 방법은 1942년 정풍때 취한 방법이다. 몇해를 지나 1945년에 중국공산당이 제7차전국대표대회를 열었을 때에는 과연 전당적단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그리하여 인민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취득하였다. 여기에서는 우선 단결의 념원으로부터 출발할것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주관상 단결의 념원이 없다면 투쟁에서 틀림없이 사태를 혼란하게 만들어 수습할수 없게 되기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잔혹한 투쟁, 무자비한 타격》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렇고서야 어찌 당의 단결을 운운할수 있겠는가? 이 경험에서 우리는 단결——비평——단결의 공식을 찾아냈다. 이것을 과거를 징계하여 금후를 삼가하게 하며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하는것이라고도 말한다. 우리는 이 방법을 당외에도 보급하였다. 각 항일근거지에서 우리는 평도와 군중간의 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군민관계, 관병관계, 몇부분 군대간의 관계, 몇부분 간부간의 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모두 이 방법을 취하였으며 그리하여 위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문제는 우리 당의 력사에서 더 멀리 거슬러올라가 찾아볼수 있다. 1927년에 우리는 남방에서 혁명군대와 혁명근거지를 건립할 때부터 당과 군중과의 관계, 군민관계, 관병관계 및 기타의 인민내부의 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 방법을 취하였던것이다. 그런데 항일시기에 와서는 우리가 이 방법을 더욱 자

각적인 기초우에 올려세우게 되었다. 전국이 해방된 후 우리는 민주당파와 공상계에 대하여서도 《단결——비평——단결》의 방법을 취하였다. 오늘 우리의 임무는 전체 인민내부에 이 방법을 계속 보급하고 더 잘 운용하는 것이며 모든 공장, 합작사, 상점, 학교, 기관, 단체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6억 인구 전체가 이 방법으로 자기들내부의 모순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정황하에서 인민내부의 모순은 대항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부적당하게 처리하거나 경각성을 잃고 마비되어 소홀히 한다면 대항적인 것으로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정황은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는 보통 국부적이며 잠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가 소멸되었고 인민의 리익이 근본상 일치하기 때문이다. 웡그리아사건에서 나타난, 범위가 상당히 넓은 그런 대항적행동은 내외의 반혁명적요소가 작용한데서 생긴 것이다. 이것은 특수한 현상이며 또한 잠시적인 현상이다. 사회주의국가내부의 반동파는 제국주의자와 서로 결탁하고 인민내부의 모순을 리용하여 리간시키며 풍랑을 일으켜 자기들의 음모를 실현하려 시도하고 있다. 웡그리아사건의 이러한 교훈에 대하여 모두가 주의를 돌려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민주적방법으로 인민내부의 모순을 해결할데 관한 문제가 제출된 이것을 새로운 문제로 여긴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맑스주의자는 종래로 무산계급의 사업은 오직 인민군중에 의거하여야 하며 공

산당인은 로동인민속에서 공작할 때 민주적설복교육의 방법을 취하여야 하고 결코 명령주의적태도와 강제적수단을 취하여서는 안된다고 인정하여왔다. 중국공산당은 맑스-레닌주의의 이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고있다. 종래로 우리는 인민민주전정하에서 성질이 부동한 두가지 모순인 적아간의 모순과 인민내부의 모순을 해결함에 있어서 전정과 민주란 이 두가지 부동한 방법을 취할것을 주장하여왔다. 이 견해는 과거 우리 당의 허다한 문건에서와 당의 많은 책임자들의 언론에서 많이 제출되였었다. 나는 1949년에 쓴 《인민민주전정을 논함》이란 글에서 《인민내부에 대한 민주와 반동파에 대한 전정이 서로 결합된것이 곧 인민민주전정이다》라고 하였으며 인민내부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쓰는 방법은 강박하는 방법이 아니라 민주적방법, 즉 설복하는 방법이다》라고 하였다. 1950년 6월 제2차정치협상회의에서 한 강화에서 나는 또 《인민민주전정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적에 대하여서는 전정의 방법을 쓴다. 즉 필요한 기간 그들을 정치활동에 참가시키지 않고 인민정부의 법률에 복종하도록 강박하며 그들을 로동에 종사하도록 강박하는 동시에 로동과정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개조하는것이다. 인민에 대하여서는 이와 반대로 강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민주적방법을 쓴다. 즉 반드시 그들을 정치활동에 참여하게 하며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강박하는것이 아니라 민주적방법으로 그들을 교육하며 설복하는 공작을 진행한다. 이런 교육공작은 인민내부에서의 자아교육공



작이고 비평과 자아비평의 방법은 바로 자아교육의 기본방법이다»라고 하였다. 과거 우리는 민주적방법으로 인민내부의 모순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이 문제를 여러 번 말하였으며 공작에서도 기본상 이렇게 하였는바 많은 간부와 인민은 실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지금 일부 사람들이 이것을 새로운 문제라고 여기게 되는가? 그것은 과거에는 국내외의 적아간의 투쟁이 몹시 첨예하여 인민내부의 모순이 지금처럼 사람들의 주의를 일으키지 못하였기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적아간의 모순과 인민내부의 모순, 이 두가지 성질이 부동한 모순을 똑똑히 분간하지 못하고 쉽사리 혼동한다. 이 두가지 모순을 때로는 혼동하기 쉽다는것을 승인하여야 한다. 우리도 과거의 공작에서 이것을 혼동한적이 있었다. 반혁명분자를 숙청하는 공작에서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잘못 취급한 일은 이전에도 있었거니와 지금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착오가 확대화되지 않은것은 우리가 정책에다 적아를 똑똑히 갈라야 하며 잘못되었으면 시정하여야 한다는것을 규정하여놓았기때문이다.

맑스주의철학은 대립물의 통일의 법칙을 우주의 근본적법칙으로 인정한다. 이 법칙은 자연계어나 인류사회에나 사람들의 사상에나 할것없이 모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모순되는 대립면은 통일도 되고 투쟁도 한다. 이리하여 사물의 운동 및 변화가 추동된다. 모순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것이지만 사물의 성질이 부동

함에 따라 모순의 성질도 같지 않게 된다. 그 어떤 구체적사물이든지 대립물의 통일은 조건적이고 일시적이고 과도적이며 따라서 상대적인것이고 대립물의 투쟁은 절대적인것이다. 레닌은 이 법칙에 대하여 아주 똑똑히 말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이 법칙을 리해하는 사람이 차차 많아지고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법칙을 승인하는것과 이 법칙을 응용하여 문제를 관찰, 처리하는것이 서로 같지 않은 딴 문제로 되고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나라 인민내부에 아직 모순이 존재하고있으며 바로 이러한 모순이 우리의 사회를 앞으로 발전하도록 추동하고있다는것을 감히 공개적으로 승인하지 못하고있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주의사회에도 여전히 모순이 있다는것을 승인하지 않는 탓으로 사회적모순앞에서 어쩔바를 몰라 피동적지위에 빠지고있으며 모순을 부단히 정확하게 처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사회주의사회내부의 통일과 단결이 날로 더 공고해진다는것을 모르고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인민들, 우선 간부들에게 이것을 해석하여줌으로써 사회주의사회내부의 모순을 인식하는 동시에 정확한 방법으로 이런 모순을 처리하도록 인도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사회의 모순은 구사회의 모순, 폐를 들면 자본주의사회의 모순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은 치렬한 대항과 충돌로 표현되며 치렬한 계급투쟁으로 표현된다. 그런 모순은 자본주의제도 자체로써는 해결할수 없고 오직 사회주의혁명에 의하여서만 해결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의 모순은 그렇지

않다. 자본주의사회의 모순과는 정반대로 그것은 대항적모순이 아니며 그것은 사회주의제도자체에 의하여 부단히 해결될수 있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 있어서 기본적인 모순은 의연히 생산관계와 생산력간의 모순, 상층건축과 경제기초간의 모순이다. 다만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이런 모순들은 구사회의 생산관계와 생산력간의 모순, 상층건축과 경제기초간의 모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질과 정황을 가지고있을따름이다. 우리 나라의 지금의 사회제도는 구시대의 사회제도보다 훨씬 우월하다. 만일 우월하지 않다면 낡은 제도가 전복되지 않았을것이며 새 제도가 전립될수 없었을것이다.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구시대의 생산관계보다 생산력발전의 성질에 더욱 적응된다는것은, 생산력을 구사회에서는 볼수 없던 속도로 급속히 발전하게 할수 있으며 그리하여 생산을 부단히 확대되게 함으로써 부단히 장성되는 인민들의 수요를 점차 만족시킬수 있다는 이런 정황을 가리킨다. 구중국은 제국주의, 봉건주의 및 관료자본주의의 통치하에서 생산력의 발전이 줄곧 매우 더디였다. 해방전 50여년간 동북을 제외한 전국의 강철년산량은 그냥 몇만톤밖에 되지 않았으며 동북까지 합쳐도 전국의 최고년산량이 90여만톤에 불과하였다. 1949년에 전국의 강철산량은 10몇만톤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국이 해방되어 7년밖에 되지 않는 동안에 강철년산량은 4백몇십만톤에 달하였다. 구중국에는 기계제조업이 거의 없었고 자동차제조업과 비행기제조업은 전혀 없었다. 그렇던

것이 지금은 이런 것들이 모두 있게 되었다. 인민들이 제국주의, 봉건주의 및 관료자본주의의 통치를 전복한 후 중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자본주의에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에 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상은 똑똑하지 못하였다.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오직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다는 해답을 주었다. 사회주의제도가 우리 나라 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을 촉진하였다는 이 점은 지어 국외의 적들까지도 승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제도는 방금 건립되었을 뿐 아직 완전히 건립되지 못하였으며 아직 완전히 공고화되지 못하였다. 공상업의 공사합영기업에서는 자본가가 아직 고정리식을 받고 있다. 즉 아직도 착취가 있다. 소유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런 기업은 아직 완전한 사회주의적 성질을 띠는 것이 아니다. 농업생산합작사와 수공업생산합작사도 일부분은 아직 반사회주의적 성질을 띠고 있으며 완전히 사회주의화한 합작사도 소유제의 일부 개별적 문제들을 계속 해결하여야 한다. 각 경제부문에 있어서의 생산과 교환의 상호관계는 아직 사회주의 원칙에 의하여 점차 건립되는 과정에 있으며 점차 비교적 적당한 형태를 찾고 있는 중이다. 전민 소유제 경제와 집체 소유제 경제의 내부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사회주의 경제 형태 사이에 있어서 축적과 소비의 분배 문제는 복잡한 문제로서 역시 단번에 완전히 합리하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이미 건립되었으며 그것이 생산력의 발

전에 적응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꽤 불완전하며 이런 불완전한 면이 또 생산력의 발전과 모순되고 있다. 생산관계와 생산력발전이 서로 적응되면서도 서로 모순되는 이런 정황외에 또 상층건축과 경제기초가 서로 적응되면서도 서로 모순되는 정황도 있다. 인민민주전정의 국가제도와 법률, 맑스-레닌주의에 의하여 지도되는 사회주의적의식형태, 이런 상층건축은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개조의 승리와 사회주의적로동조직의 건립에 적극적인 추동작용을 하고있으며 사회주의의 경제기초, 즉 사회주의적생산관계에 적응되고 있다. 그러나 자산계급적의식형태의 존재, 국가기구내의 일부 관료주의 작풍의 존재, 국가제도의 일부 환절에 있어서의 결함의 존재는 또 사회주의의 경제기초와 모순되고 있다. 우리는 금후 구체정황에 쫓아 상술한 각종 모순들을 계속 해결하여야 한다. 물론 이런 모순들을 해결한후에는 또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날것이다. 새로운 모순은 또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께를 들면 객관적으로 장기간 존재하게 될 사회적생산과 사회적수요간의 모순은 항상 국가계획을 통하여 조절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해마다 한번씩 경제계획을 작성하고 축적과 소비간의 적당한 비례를 규정함으로써 생산과 수요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소위 균형이란 모순의 일시적, 상대적 통일이다. 1년이 지나면 전체를 두고 말할 때 이러한 균형이 모순의 투쟁에 의하여 타파되고 이러한 통일이 변화된다. 그리하여 균형은 불균형으로 되고 통일은 불통일로 되어 또 다음해의 균형과

통일을 요구하게 된다. 이것이 곧 우리의 계획경제의 우월성이다. 사실에 있어서는 달마다, 계도마다 이러한 균형과 통일이 국부적으로 타파되고있으므로 국부적으로 조절하여야 한다. 때로는 주관적규정이 객관적정황에 부합되지 않아 모순이 생기여 균형을 파괴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 착오를 범하였다고 한다. 모순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끊임없이 해결되는것은 사물발전의 변증법적법칙이다.

지금의 정황은 이러하다. 즉 혁명시기의 폭풍우와 같은 대규모적인 군중적계급투쟁은 기본적으로 끝났지만 계급투쟁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며, 광범한 군중들은 한편 새로운 제도를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 그리 습관되지 않아하며, 정부공작인원들도 경험이 아직 풍부하지 못하므로 일부 구체정책문제에 대하여서는 계속 고찰하고 탐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말하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아직 계속 건립 및 공고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인민군중에게는 아직도 이 새로운 제도에 습관되는 과정이 필요하며 국가공작인원에 게도 학습하고 경험을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때에 전국 각 민족 인민을 단결하여 새로운 전쟁——자연계와의 투쟁을 전개하여 우리의 경제를 발전시키며 우리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전체 인민으로 하여금 비교적 순조롭게 지금의 과도기를 넘게 하며 우리의 새 제도를 공고히 하며 우리의 새 국가를 건설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적아간의 모순과 인민내부의 모순, 이 두가지 모순의 계선을 나눌것을 제출하며 인민

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 문제를 제출하는것은 매우 필요한것이다.

## 2. 숙반 문제

반혁명분자를 숙청하는 문제는 적아모순의 투쟁 문제이다. 인민내부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숙반문제에 대하여 다소 같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의견이 우리 의견과 같지 않다. 우경사상이 있는 사람들은 적아를 가르지 않고 적을 자기 편으로 여긴다. 광범한 군중들이 적으로 보는 사람을 그들은 도리어 벗으로 여긴다. 《좌》경사상이 있는 사람들은 적아모순을 확대하여 일부 인민내부의 모순마저 적아모순으로 간주하며 원래 반혁명이 아닌 일부 사람까지도 반혁명으로 간주한다. 이 두가지 견해는 모두 그릇된것인바 이런 견해로써는 숙반문제를 정확히 처리할 수도 없거니와 우리의 숙반공작을 정확히 평가할수도 없다.

우리 나라의 숙반공작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나라에 대한 웨그리아사건의 영향을 살펴보는것도 무방할것이다. 웨그리아사건이 일어난후 우리나라의 일부분 지식분자들속에서 불온상태가 좀 보이기는 하였지만 그 어떤 풍랑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때문인가? 우리가 상당히 철저하게 반혁명을 숙청한것이 그 원인의 하나라고 말하여야 할것이다.

물론 우리 나라가 공고하여진 첫째원인이 반혁명

을 숙청한데 있는것은 아니다. 우리 나라가 공고하여진것은 무엇보다도먼저 우리에게 수십년간의 혁명투쟁에서 단련된 공산당과 해방군이 있으며 수십년간의 혁명투쟁에서 단련된 로동인민이 있기때문이다. 우리의 당과 군대는 군중속에 뿌리를 박고있으며 장기적인 혁명의 불길속에서 단련되였으며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인민공화국은 돌연히·건립된것이 아니라 혁명근거지로부터 점차 발전된것이다. 일부 민주인사들도 갈지 않은 정도로 단련을 겪었으며 우리와 환난을 같이하였다. 일부 지식분자들은 제국주의와 반동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단련을 겪었고 많은 사람들은 해방후 적아계선을 똑똑히 가르는것을 목표로 하는 사상개조를 거치였다. 이밖에도 우리 국가가 공고하여진것은 또 우리의 경제조치가 근본적으로 정확한것, 인민의 생활이 안정되였을뿐더러 점차적으로 개선되고있는것, 민족자산계급과 기타 계급에 대한 우리의 정책 역시 정확한것 등등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나 반혁명을 숙청하는 방면에서의 우리의 성과는 의심할바없이 우리나라가 공고하여진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된다. 이 모든것으로 하여 우리의 대학생들은 비록 허다한 사람이 비로동인민가정출신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소수를 제한외에는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고 사회주의를 옹호하며 웅그리아사건시기에 파동이 없었다. 민족자산계급도 역시 이러하다. 공농기본군중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해방후에 우리는 반혁명분자를 한차례 숙청하였다. 죄행이 엄중한 일부 반혁명분자들은 사형에 처하



였다. 이것은 완전히 필요한 것이었으며 이것은 광범한 군중의 요구였으며 이것은 반혁명분자와 각종 악패분자들의 압박을 장기간 받아온 광범한 군중을 해방하기 위한 것, 말하자면 생산력을 해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인민군중은 머리를 들지 못하였을 것이다. 1956년 이래 정황은 근본적으로 개편되었다. 전국을 놓고 말하면 반혁명분자의 주요한 력량은 이미 숙청되었다. 우리의 근본적 임무는 생산력을 해방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생산관계하에서 생산력을 보호하며 발전시키는 것으로 전변되었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의 오늘의 정책은 오늘의 정황에 알맞으며 과거의 정책은 과거의 정황에 알맞았다는 것을 리해하지 못하고 오늘의 정책을 리용하여 과거의 것을 번안하려 하며 과거의 숙반공작에서 이룩한 거대한 성적을 부정하려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그릇된 것이며 인민군중이 용허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숙반공작은 성적이 주요한 것이지만 착오도 있다. 지나치게 한 것도 있고 놓친 것도 있다. 우리의 방침은 《반혁명분자가 있으면 반드시 숙청하고 착오가 있으면 반드시 시정한다》는 것이다. 숙반공작에 있어서의 우리의 로선은 군중적으로 반혁명을 숙청하는 로선이다. 군중로선을 취하더라도 공작하는 가운데서 물론 결함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함이 비교적 적을 것이며 착오도 비교적 쉽게 시정될 것이다. 군중은 투쟁 가운데서 경험을 얻었다. 정확히 한 것에서는 정확히 한 경험을 얻었고 또 착오를 범한 것에서는 착오를 범

한 경험을 얻었다.

우리는 이미 발견된 숙반공작에서의 모든 착오에 대하여 시정하는 절차를 취하였거나 취하고있다. 발견하지 못한 착오는 발견되는 즉시로 곧 시정하려 한다. 본래 어느 범위에서 잘못 처리한것이라면 역시 그 범위에서 시정을 선포하여야 한다. 금년 혹은 명년에 숙반공작을 한번 전면적으로 검사하고 경험을 총결하여 옳은 기풍을 발양하고 나쁜 기풍을 타격할것을 나는 제의한다. 중앙에서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회에서 장악하고 지방에서는 성, 시 인민위원회와 정치협상회의위원회에서 장악하여야 한다. 공작을 검사할 때 우리는 광범한 간부와 적극분자들에게 랭수를 끼엿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광범한 간부와 적극분자들에게 랭수를 끼엿는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나 착오를 발견하면 반드시 시정하여야 한다. 공안부문에서나 검찰부문에서나 사법부문에서나 감옥에서나 로동개조관리기관에서나 모두 이런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우리는 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과 정치협상회의의 위원과 인민대표로서 이러한 검사에 참가할수 있는 사람이면 모두가 다 참가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우리의 법제를 건전히 하며 반혁명분자와 기타 범죄분자를 정확히 처리하는데 도움이 있을것이다.

목적 반혁명분자의 정황에 관하여서는 아직도 반혁명분자가 있으며 그러나 많지는 않다는 이 두마디 말로 설명할수 있다. 우선 아직도 반혁명분자가 있다는것이다. 어떤 사람은 반혁명분자가 없어졌고 천하가 태

평해졌으니 배개를 높이 고이고 잘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사실은 아직 반혁명분자가 있으니(물론 매개 지방, 매개 단위에 다 있다고 하는것은 아니다.) 계속 그들과 투쟁하여야 한다. 숙청되지 않고 숨어있는 반혁명분자들은 단념하지 않고 기어이 틈을 타서 교란하려 하리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미제국주의자와 장개석집단은 아직도 늘 우리에게 특무를 파견하여 파괴활동을 하고있다. 원래 있던 반혁명분자들이 숙청된후에도 일부 새로운 반혁명분자들이 나타날수 있다. 만일 우리가 경각성을 상실한다면 그들의 피임에 넘어가 큰 해를 보게 될것이다. 어떠한 지방을 물론하고 반혁명분자의 교란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들을 전결히 소멸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말하면 반혁명분자는 확실히 많지 않다. 전국에 아직도 반혁명분자가 매우 많다고 말한다면 이 견해도 그릇된것이다. 만일 이런 평가를 접수한다면 결과는 역시 일을 그르치게 될것이다.

### 3. 농업합작화문제

우리 나라에는 5억이상의 농업인구가 있다. 농민의 정황이 어떠한가 하는것은 우리 나라 경제의 발전과 정권의 공고화에 대하여 관계가 극히 크다. 나는 정황이 근본상 좋다고 인정한다. 합작화의 완성은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공업화와 개체농업경제간의 큰 모순을 해결하였다. 합작화가 신속히 완성되는것을 보

고 어떤 사람들은 결합이 생기지나 않을가 근심하였다. 결합이 약간 있기는 하나 다행히도 크지 않으며 기본상 건전하다. 농민들은 생산열의가 아주 높다. 작년에 수재, 한재, 풍재가 지난 몇해동안의 그 어느해보다도 심하였지만 전국적으로 량곡은 의연히 증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사람들은 합작화가 좋지 못하며 합작화는 우월성이 없다고 말하고있다. 이리하여 작은 태풍이 일어나게 되었다. 합작화가 대체 우월성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 회장에서 발급한 문건에 하복성 준화현 왕국번합작사에 관한 재료가 있는데 모두들 한번 읽어보기 바란다. 이 합작사는 산간지대에 있는데 몹시 가난하여 해마다 인민정부에서 량식을 날라다 구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1953년에 합작사를 꾸리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이사를 《가난뱅이사》라고 하였다. 그러나 4년동안의 간고분투를 거쳐 형편이 해마다 나아졌으며 절대다수의 사원들이 여량호로 되었다. 왕국번합작사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 이상 다른 합작사에서도 정상적인 정황하에서는 그렇게 할수 있어야 할것이며 혹은 시간은 좀더 걸리더라도 그렇게 할수 있어야 할것이다. 이로부터 합작화가 좋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론의는 근거가 없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로부터 또한 합작사는 반드시 간고분투하는 가운데서 건립되어야 한다는것을 알수 있다. 어떠한 신생사물의 성장이나 다 간난곡절을 경과하게 된다. 사회주의사업에서 간난곡절을 겪지 않고 커다란 노력을

들이지 않고 언제나 순풍에 돛을 단듯이 순조롭게 일하려 하며 쉽게 성공하려 한다면 이러한 생각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합작사를 적극 옹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절대다수의 빈농과 하중농이다. 그들은 농촌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나머지 사람들도 대다수가 합작사에 희망을 두고 있다. 정말 싫어하는 사람은 극소수를 차지할 따름이다. 허다한 사람들은 이런 정황을 분석하지도 않고 합작사의 성적과 결점 그리고 결점이 산생된 근원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고찰하지도 않고 국부적이고 편면적인것을 전체로 간주하고 있다. 이리하여 일부 사람들속에서 소위 합작사는 우월성이 없다는 작은 태풍이 일어났다.

얼마만한 시일이 걸려야 합작사가 공고해질수 있으며 합작사는 우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론의가 끝나게 될것인가? 허다한 합작사들이 발전되어온 경험에 근거하여보면 대개 5년 혹은 그보다 좀더 긴 시일이 걸려야 할것이다. 지금 전국의 대다수 합작사들은 1년 남짓한 역사를 가지고있을뿐인데 그렇게 훌륭하기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불합리한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제1차5개년계획기간에 합작사를 건립하고 제2차5개년계획기간에 합작사가 공고화될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것이다.

합작사는 점차 공고해지는 과정에 있다. 합작사에 해결하여야 할 약간의 모순들이 아직 존재하고있다. 예를 들면 국가와 합작사간에, 합작사내부에, 합작

사와 합작사 상호간에 모두 해결하여야 할 약간의 모순들이 있다.

우리는 생산문제와 분배문제에서 상술한 모순을 처리하기에 늘 주의하여야 한다. 생산문제에서 한편으로 합작사경제는 국가의 통일적경제계획의 령도에 복종하여야 하고 동시에 국가의 통일적계획과 정책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의 일정한 령활성과 독립성을 보전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합작사에 참가한 매개 가정들은 자유지와 기타 일부분의 개체로 경영하는 경제에 대하여 자체로 적당한 계획을 세울수 있는의에는 합작사 혹은 생산대의 총적계획에 복종하여야 한다. 분배문제에서 우리는 국가의 리익, 집체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을 고루 돌보아야 한다. 국가의 세금수입, 합작사의 축적, 농민의 개인수입, 이 3자의 관계를 적당히 처리하여야 하며 그것들간의 모순을 조절하는데 항상 주의를 돌려야 한다. 국가에서도 축적하여야 하고 합작사에서도 축적하여야 하지만 너무 많이 하여서는 안된다. 우리는 될수록 농민들로 하여금 세월이 정상적인 조건하에 생산을 증가하는 가운데서 해마다 개인수입을 증가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농민들은 구차하다고 말하는데 이런 견해가 옳은가? 한편으로 볼 때는 옳다. 즉 우리나라가 제국주의자와 그들의 대리인에게 100여년동안이나 압박과 착취를 받아 극히 빈궁한 나라로 되었으므로 농민들의 생활수준이 낮을뿐만아니라 공인과 지식분자들의 생활수준도 낮으며 몇십년동안 간고한 노력

을 거쳐야만 전체 인민의 생활수준을 점차 높일수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구차하다》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다. 다른 한편으로 볼 때에는 옳지 않다. 즉 해방되어 7년동안에 농민의 생활은 개선되지 않고 단지 공인의 생활만 개선되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기실 공인, 농민의 생활은 극소수 사람들외에는 모두가 일정한 개선을 가져왔다. 해방후 농민들은 지주의 착취로부터 벗어났으며 생산은 해마다 발전되었다. 량곡을 페로 든다면 1949년도에는 전국의 량곡산량이 2천1백몇십억근에 불과하였으나 1956년도에는 량곡산량이 3천6백몇십억근에 달하여 근 1천5백억근이나 증가되었다. 국가에서 징수하는 농업세는 중한편이 아니며 매년 3백여억근밖에 안된다. 매년 정상적가격으로 농민들에게서 사들이는 량곡도 5백여억근밖에 안된다. 이 두가지를 합하면 8백몇십억근이다. 이런 량곡중 농촌과 농촌부근의 진에 판매되는 수량이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이로부터 볼 때 농민의 생활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할수는 없다. 우리는 몇해동안에 징량과 구량의 수량을 대략 8백몇십억근의 수준에 온정시켜놓음으로써 농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합작사를 공고히 하며 아직까지 존재하고있는 농촌중의 소부분의 결량호가 다시는 식량이 부족되지 않게 하며 경제작물을 전문으로 경영하는 일부 농호들을 제외하고는 모두다 여량호 혹은 자급호로 되게 하며 농촌에 빈농이 없게 하고 전체 농민들로 하여금 모두 중농 및 중농이상의 생활수준에 도달하게 하려 한다. 단순히 농민들의 매인당 매년 평균

소득과 공인들의 매인당 매년 평균소득을 대비하여 하나는 낮고 하나는 높다고 하는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공인들의 로동생산물은 농민보다 훨씬 높으며 농민들의 생활비는 성시의 공인들보다 훨씬 덜 든다. 그러므로 공인이 특별히 국가의 우대를 받는다고 말할수 없다. 소부분 공인들의 공자와 일부 국가기관공작인원들의 공자는 확실히 좀 높다. 농민들이 이것을 보고 불만스러워하는것은 리유가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정확을 참작하여 적당히 조절하는것은 필요하다.

#### 4. 공상업자문제

우리 나라는 사회제도의 개혁에 있어서 농업합작화와 수공업합작화를 제한외에 사영공상업을 공사합영기업으로 개변하는것도 1956년에 완성하였다. 이 일이 이렇게 신속하고 순조롭게 된것은 우리가 공인계급과 민족자산계급간의 모순을 인민내부의 모순으로 처리한것과 긴밀히 련관되어있다. 이 계급적모순이 완전히 해결되었는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하였다. 아직도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완전히 해결될수 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사람들은 자본가가 거의 공인이나 다름없이 개조되었으니 더 개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본가는 공인보다도 더 고명하다고 말하고있다. 또 어떤 사람은 만약 개조하여야 한다면 왜 공인계급은 개조하지 않는가고 말한다. 이러한 론의들이 옳은가? 물론 옳지 않다.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다 개조하여야 한다. 착취자도 개조하여야 하며 로동자도 개조하여야 한다. 누가 공인계급은 개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는가? 물론 착취자의 개조와 로동자의 개조는 성질이 부동한 두가지 개조로서 혼동할수 없는 것이다. 공인계급은 계급투쟁에서와 자연계와의 투쟁에서 전반 사회를 개조하며 동시에 자기자신도 개조한다. 공인계급은 공작중에서 부단히 학습하면서 점차 자기의 결점을 극복하여야 하며 영원히 이것을 정지하여서는 안된다. 우리들자신을 놓고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약간의 진보를 가져오고있다. 다시말하면 해마다 개조되고있다. 나자신도 이전에는 여러가지 비맑스주의적인 사상이 있었다. 맑스주의는 후에 접수한 것이다. 나는 서적에서 맑스주의를 좀 학습하고 자기의 사상을 초보적으로 개조하였다. 그러나 주로는 역시 장기적인 계급투쟁에서 개조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학습하여야 좀더 진보할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락후하게 될것이다. 그래 자본가가 그렇게 고명하여 도리어 더 개조할 필요가 없단 말인가?

어떤 사람은 이제는 중국의 자산계급에게는 광면성이 없고 일면성만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니다. 한편으로 자산계급분자는 이미 공사합영기업의 관리인원으로 되어 착취자로부터 자기의 로동에 의하여 살아가는 로동자로 변하는 전변과정에 처하여있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아직도 공사합영기업에서 고정리식을 받고있다. 다시말하면 그들의 착취

의 뿌리가 아직 뽑히지 않았다. 그들은 공인계급의 사상감정, 생활습관과 아직 적지 않은 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찌 양면성이 없어졌다고 할수 있겠는가? 고정리식을 받지 않고 자산계급의 모자를 벗어버렸다고 하여도 의연히 상당한 기간 계속 사상개조를 진행하여야 한다. 만약 자산계급에게 양면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한다면 자본가의 개조임무와 학습임무도 없게 될 것이다.

이런 견해는 공상업자의 실정에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대다수 공상업자들의 념원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하여야 할것이다. 과거 수년동안 대다수 공상업자들은 학습하려 하였으며 또 현저한 진보를 가져왔다. 공상업자의 철저한 개조는 일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들은 기업내에서 직공들과 함께 로동하며 기업을 자아개조의 기지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학습을 통하여 자신의 일부 낡은 관점들을 개변하는것도 중요하다. 공상업자의 학습은 자원에 기초하여야 한다. 많은 공상업자들은 강습반에서 수십일간 학습하고 공장에 돌아간후 공인군중 및 국가측 대표와의 사이에 더욱 많은 공통한 언어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함께 공작할 조건이 개선되었다. 그들은 몸소 겪은 경험에서 계속 학습하고 계속 자신을 개조하는것이 자기들에게 유익하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방금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학습할 필요가 없고 개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는 공상업자들중 소수 사람의 견해일 따름으로서 결코 대다수 사람들의 견해를 대표할수 없다.

## 5. 지식분자문제

우리 나라 인민내부의 모순은 지식분자들가운데서도 표현되고있다. 과거 구사회를 위하여 복무하던 수백만 지식분자들이 오늘날 새 사회를 위하여 복무하는 데로 돌아섰는데 여기에는 그들이 어떻게 새 사회의 수요에 적응하는가 하는 문제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새 사회의 수요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가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것 역시 인민내부의 모순이다.

우리 나라 지식분자의 대다수는 지난 7년동안에 현저한 진보를 가져왔다. 그들은 사회주의제도에 대하여 찬성을 표시하고있다. 그들중의 많은 사람들은 맑스주의를 열심히 학습하고있으며 일부분 사람들은 이미 공산주의자로 되었다. 이런 부분의 사람들이 목전에는 아직 소수이지만 점차 증가되고있다. 물론 지식분자중 일부 사람들은 지금도 의연히 사회주의를 의심하거나 동의하지 않고있다. 이런 부분의 사람들은 소수를 차지할따름이다.

우리 나라의 간거한 사회주의건설사업은 될수 있는대로 많은 지식분자들이 이 사업을 위하여 복무할것을 요구한다. 진정으로 사회주의사업을 위하여 복무하려는 모든 지식분자들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그들을 신임하여야 하며 그들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그들을 도와 해결하여야 할 각종 문제를 해결해줌으로써 그들이 자기의 재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도록 하여

야 한다. 우리의 많은 동지들은 지식분자들과 잘 단결할 줄 모르며 딱딱한 태도로 그들을 대하며 그들의 로동을 존중하지 않으며 과학문화공작에서 간섭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 부당하게 간섭하고있다. 이러한 모든 결점들은 극복하여야 한다.

광범한 지식분자들은 비록 진보를 가져오기는 하였지만 이로 하여 자만하지는 말아야 한다. 새 사회의 수요에 충분히 적응하기 위하여, 공인농민과 일치단결하기 위하여 지식분자들은 계속 자신을 개조하여 점차 자산계급적세계관을 포기하고 무산계급적, 공산주의적 세계관을 수립하여야 한다. 세계관의 전변은 근본적인 전변이다. 다수의 지식분자들은 아직 이 전변을 완성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지식분자들이 계속 전진하며 자신의 공작과 학습 과정에서 점차 공산주의적세계관을 수립하며 점차 맑스-레닌주의를 습득하며 점차 공인, 농민과 한덩어리로 되기를 희망하는바이며 중도에서 중지하지 말며 더우기는 뒤로 물러서지 말기를 희망한다. 뒤로 물러서서는 출로가 없다. 우리 나라의 사회제도에 변화가 일어났고 자산계급사상의 경제적기초가 기본적으로 소멸된 결과 대량의 지식분자들은 세계관을 개변할 필요성이 있게 되었을뿐더러 개변할 가능성도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관의 철저한 개변은 매우 긴 시일이 걸려야 하는것이므로 우리는 참을성있게 공작하여야 할것이며 조급해하여서는 안된다. 사실에 있어서 사상적으로 끝까지 맑스-레닌주의를 접수하려 하지 않으며 공산주의를 접수하려 하지 않는 일

부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의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과도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국가의 요구에 복종하고 정상적인 노동에 종사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공작할 적당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식분자와 청년학생들 가운데서는 최근 한시기 사상정치공작이 약화되어 일부 편향들이 나타났다. 일부 사람들은 정치이니 조국의 전도이니 인류의 리상이니 하는것에는 관심을 돌릴 필요가 없는듯이 보고있으며 맑스주의는 한시기 성행하였으나 지금은 그다지 성행하지 않는듯이 보고있다. 이런 정황에 비추어 지금 사상정치공작을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 지식분자나 청년학생이나 모두 학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업을 학습하는외에 사상적으로 진보하여야 하며 정치적으로도 진보하여야 한다. 이러자면 맑스주의를 학습하며 시사와 정치를 학습하여야 한다. 정확한 정치관점이 없는것은 령혼이 없는것과 같다. 과거의 사상개조는 필요한것이였으며 적극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방법상 좀 거칠어서 일부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좋지 못하다. 이 결점을 금후에는 피면하여야 한다. 사상정치공작은 각 부문에서 모두 책임져야 한다. 공산당이 책임져야 하고 청년단이 책임져야 하고 정부의 주관부문에서 책임져야 하며 학교의 교장, 교원들은 더구나 책임져야 한다. 우리의 교육방침은 교육받는 자들을 덕육, 지육, 체육 등 몇가지 면에서 모두 발전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사회주의적각오와 문화가 있는

로동자로 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근검하게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제창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는 아직도 매우 빈궁한 나라이며 또한 이런 상태를 단시일내에 근본적으로 개변할 수는 없다는 것, 전적으로 청년과 전체 인민들이 수십년 동안 단결분투하면서 자기의 두 손으로 부강한 나라를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전체 청년들이 다 알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제도의 건립은 우리에게 리상의 경지에 도달하는 길을 개척하여 주었다. 그러나 리상의 경지는 우리의 부지런한 로동에 의하여서만 실현되는 것이다. 어떤 청년들은 사회주의사회에 들어섰으니 무엇이든지 다 좋아야 하고 힘을 들이지 않고도 이미 마련된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이 못되는 생각이다.

## 6. 소수민족문제

우리 나라 소수민족은 3천여만 명으로서 전국 총인구의 6%밖에 차지하지 않으나 그들의 거주지구는 광대하여 전국 총면적의 약 50~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족과 소수민족간의 관계를 반드시 잘 처리하여야 한다. 이 문제의 관건은 대한족주의를 극복하는데 있다. 동시에 지방민족주의가 있는 소수민족 가운데서는 지방민족주의를 극복하여야 한다. 대한족주의거나 지방민족주의거나를 물론하고 모두 각 민족 인민의 단결에 불리한 것이며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인민내

부의 모순이다. 이 방면에서 우리는 약간의 공작들을 하였는바 대다수 소수민족지구의 민족관계는 이전보다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해결되어야 할 약간의 문제들이 의연히 존재하고있다. 일부 지구에는 대한족주의와 지방민족주의가 아직 엄중하게 존재하고있는데 이에 충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각 민족 인민의 수년간의 노력을 거쳐 우리 나라 소수민족지구의 절대대부분은 민주개혁과 사회주의적개조를 기본적으로 완수하였다. 서장은 조건이 성숙되지 못하였기때문에 아직 민주개혁을 진행하지 않고있다. 중앙과 서장지방정부간의 17개조의 협의에 의하면 사회제도의 개혁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할것이지만 어느때 실시하는가 하는것은 서장의 대다수 인민군중과 그 평수인물들이 실시할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가서야 결정할수 있는것이므로 성급해하지 말아야 한다. 제2차5개년계획기간에는 개혁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하였다. 제3차5개년계획기간에 개혁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도 그때에 가서 정황을 보아야만 결정할수 있다.

## 7.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고루 돌보며 적당히 안배하는 문제

여기에서 말하는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고루 돌본다는것은 6억 인구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고루 돌본다는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일을 처리하고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 우리 나라에는 6

억 인구가 있다는 이 점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절대 이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무엇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출하는가, 그래 아직도 우리 나라에 6억 인구가 있다는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알기는 하지만 일을 처리할 때면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적을수록 더 좋고 울타리를 좁힐수록 더 좋은듯이 생각하고있다. 이런 작은울타리주의를 가지고있는 사람들은 모든 적극적인 요소를 동원하며 모든 단결할수 있는 사람들과 단결하는 동시에 될수 있는 한 소극적인 요소를 적극적인 요소로 전변시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 이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는 사상과는 저촉된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시야를 넓혀 우리 나라에 6억 인구가 있다는것을 진정으로 승인하며 이것이 객관적존재이며 이것이 우리의 밀천이라는것을 승인하기를 바란다. 우리 나라에 인구가 많은것은 좋은 일이다. 물론 곤난도 있다. 우리의 각 방면의 건설사업은 모두가 생기발랄하게 발전하고있으며 성적이 매우 크다. 그러나 오늘 사회가 크게 변동되고있는 과도기에 있어서 곤난한 문제도 의연히 많다. 발전도 하고 곤난도 있는 이것은 모순이다. 어떠한 모순이나 해결하여야 할뿐만아니라 또한 완전히 해결할수 있는것이다. 우리의 방침은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고루 돌보며 적당히 안배하는것이다. 량곡문제, 재해문제, 취직문제, 교육문제, 지식분자문제, 각종 애국력량의 통일전선문제, 소수민족문제와 기타 각항 문제들은 모두 전체 인민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고루 돌보는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당시당지의 실제 가능한 조건에 따라 각 방면의 사람들과 협상하여 각종 적당한 안배를 하여야 한다. 절대로 사람이 많고 사람이 락후하고 일이 시끄럽고 하기 어렵다는것을 꺼려 밀어버려서는 안된다. 그러면 이 말은 모든 사람, 모든 일을 정부에서 도맡으려 한다는 뜻인가? 물론 그런 뜻이 아니다. 많은 사람, 허다한 일에 대하여는 사회단체에서 대책을 강구할수 있고 군중이 직접 대책을 강구할수 있다. 그들은 좋은 대책을 많이 강구해낼수 있다. 이것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고루 돌보며 적당히 안배하는 방침내에 포함되므로 우리는 사회단체와 각지 군중을 이렇게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8. 백화제방, 백가쟁명, 장기공존, 호상감독에 관하여

백화제방, 백가쟁명, 장기공존, 호상감독이란 이 몇개 구호는 어찌하여 제출된것인가? 그것은 중국의 구체정황에 근거하여 제출된것이며 사회주의사회에 여전히 여러가지 모순이 존재하고있다는것을 승인하는 기초우에서 제출된것이며 경제 및 문화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와야 할 국가의 절박한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것이다. 백화제방, 백가쟁명의 방침은 예술의 발전과 과학의 진보를 촉진하는 방침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 문화의 번영을 촉진하는 방침이다. 예술상의 각이한 형식과 풍격은 자유로이 발전할수 있으며 과학상의 각

이한 학파는 자유로이 논쟁할수 있다. 행정적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한가지 풍격, 한가지 학파만을 내세우고 다른 풍격, 다른 학파를 금지하는것은 예술과 과학의 발전에 해로운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한다. 예술과 과학에서의 시비문제는 예술계와 과학계의 자유토론을 통하여, 예술과 과학의 실천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하여서는 안된다. 옳은것과 그른것을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왕왕 그것을 고립하여 볼 시간이 필요하다. 력사상에서 새롭고 옳은것은 흔히 초기에는 다수 사람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투쟁가운데서 꼭절을 거쳐 발전하는수밖에 없다. 옳은것, 좋은것도 사람들은 초기에는 흔히 향화로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독초로 간주한다. 태양계에 관한 코페르니쿠스의 학설[1], 다윈의 진화론[2]은 한때 그릇된것으로 간주되었으며 간고한 투쟁을 거쳤던것이다. 우리나라 력사에도 이와 같은 실례들이 많다. 구사회와 비교하면 사회주의사회에 있어서는 신생사물의 성장조건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훨씬 나아졌다. 그러나 신생력량을 억압하며 합리적인 의견을 억압하는 일이 여전히 늘 생기게 된다. 고의적으로 억압하는것이 아니고 단지 잘 감별하지 못하여도 신생사물의 성장을 방해할수 있다. 그러므로 과학 및 예술상의 시비에 대하여는 경솔하게 결론을 짓지 말고 신중한 태도를 가지며 자유토론을 제창하여야 한다. 이런 태도를 취하면 과학 및 예술의 보다 순조로운 발전을 방조할수 있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맑스주의도 역시 투쟁가운데서 발전하여왔다. 맑스주의는 초기에 가지가치의 타격을 받았으며 독초로 인정되었다. 지금도 맑스주의는 세계의 허다한 지방에서 계속 타격을 받고있으며 의연히 독초로 인정되고있다.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맑스주의의 지위가 다르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라 하여도 비맑스주의사상이 존재하고있으며 반맑스주의사상도 존재하고있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사회주의적개조는 소유제면에서 말하면 기본적으로 완수되었고 혁명시기의 폭풍우와 같은 대규모적인 균중적계급투쟁은 이미 기본적으로 끝났지만 전복당한 지주매관계급의 잔재가 아직 존재하며 자산계급이 아직 존재하고있으며 소자산계급은 금방 개조되기 시작하였다. 계급투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무산계급과 자산계급간의 계급투쟁, 각파 정치력량간의 계급투쟁, 무산계급과 자산계급간의 의식형태면에서의 계급투쟁은 의연히 장기적이며 목절적이며 때로는 지어 매우 치렬하다. 무산계급은 자기의 세계관에 따라 세계를 개조하려 하며 자산계급도 자기의 세계관에 따라 세계를 개조하려 한다. 이 면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 진정으로 해결되지 못하고있다. 전체 인구가운데서나 지식분자들가운데서나 맑스주의자는 의연히 소수이다. 그러므로 맑스주의는 여전히 투쟁가운데서 발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맑스주의가 투쟁가운데서만 발전할수 있다는것은 과거에 그러하였을뿐아니라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반드시 그러할것이다. 옳은것은 언제나 그릇

된것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발전한다. 참된것, 착한것, 아름다운것은 언제나 거짓인것, 악한것, 미운것과의 비교에 의하여 존재하며 그것과 투쟁하면서 발전한다. 그 어떤 그릇된것이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포기당하고 그 어떤 진리가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접수되었을 때 더욱 새로운 진리가 또 새로운 그릇된 의견과 투쟁하게 된다. 이런 투쟁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것이다. 이것은 진리의 발전법칙이며 물론 맑스주의의 발전법칙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의식형태면에서의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가 하는 투쟁은 아직도 상당히 긴 시일이 걸려야 해결될수 있다. 이것은 자산계급의 영향과 구사회에서 온 지식분자의 영향이 앞으로도 우리 나라에 장기간 존재하며 그것이 계급적의식형태로서 앞으로도 우리 나라에 장기간 존재할것이기때문이다. 만일 이런 형세에 대하여 인식이 부족하거나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면 극히 큰 착오를 범하게 되며 필요한 사상투쟁을 홀시하게 될것이다. 사상투쟁은 기라의 투쟁과는 달라 조포하고 강제적인 방법을 취하여서는 안되고 도리를 밝히는 세밀한 방법을 취하여야만 한다. 지금 사회주의는 의식형태면의 투쟁에 있어서 승리할 조건을 가지고있다. 정권의 기본력량은 무산계급의 령도하에 있는 로동인민의 손에 장악되어있다. 공산당은 강대한 력량과 아주 높은 위신을 가지고있다. 우리의 공작에 결점도 있고 착오도 있기는 하지만 모든 공정한 사람들은 우리가 인민에게

충성하며 우리가 인민들과 함께 조국을 잘 건설할 결심과 능력을 가지고있으며 우리가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동시에 더욱 거대한 성과를 계속 거두게 되리라는것을 알수 있을것이다. 자산계급분자와 구사회에서 온 지식분자의 절대다수는 애국적이며 룡성발전하는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복무하려 한다. 그들은 또 사회주의사업을 떠난다면, 공산당이 령도하는 로동인민을 떠난다면 의지할데가 없게 되고 그 어떤 광명한 전도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알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맑스주의가 이미 대다수 사람에게 지도적사상으로 인정되고있는데 그것을 비평할수 있는가고 사람들은 묻고있다. 물론 비평할수 있다. 맑스주의는 과학적진리이므로 비평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일 맑스주의가 비평을 두려워하며 비평에 의하여 거꾸러지게 된다면 맑스주의는 쓸데없는것일것이다. 사실상 유심주의자들은 매일 각종 형식으로 맑스주의를 비평하고있지 않는가? 자산계급사상, 소자산계급사상을 견지하면서 이를 개변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도 각종 형식으로 맑스주의를 비평하고있지 않는가? 맑스주의자는 어떠한 사람의 비평이든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반대로 맑스주의자는 바로 사람들의 비평속에서, 투쟁의 풍파속에서 자기를 단련하며 자기를 발전시키며 자기의 진지를 확대하여야 한다. 그릇된 사상과 투쟁하는것은 마치 우두를 놓아 왓쩍의 작용에 의하여 인체에 면역력을 증강시키는것과 같다. 온실에서 자라난것은 강한 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 백화제방, 백가쟁명

의 방침의 실시는 사상계에 있어서의 맑스주의의 정도적지위를 약화시키는것이 아니라 이와는 반대로 그의 이런 지위를 강화하게 될것이다.

비맑스주의사상에 대하여서는 어떤 방침을 취하여야 하는가? 확연한 반혁명분자, 사회주의사업을 파괴하는 분자에 대하여서는 처리하기 쉽다. 그들의 언론자유를 박탈하면 그만이다. 인민내부의 그릇된 사상에 대하여 말하면 정형이 다르다. 이런 사상을 금지하며 이런 사상을 발표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아서 되겠는가? 물론 안된다. 인민내부의 사상문제에 대하여, 정신세계의 문제에 대하여 간단한 방법으로 처리한다면 효과를 거둘수 없을뿐만아니라 극히 해롭다. 그릇된 의견을 발표하지 못하게 하여도 그 그릇된 의견은 결국 그냥 존재하게 된다. 정확한 의견이 만약 온실에서 자라난것으로서 비바람을 겪지 못하였고 면역력을 얻지 못하였다면 그릇된 의견과 부딪쳤을 때에 승리할수 없을것이다. 그러므로 토론하는 방법, 비평하는 방법, 도리를 설명하는 방법을 취하여야만 진정으로 정확한 의견을 발전시키고 그릇된 의견을 극복할수 있으며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자산계급과 소자산계급은 반드시 자기들의 사상의식을 반영할것이며 반드시 정치문제에서와 사상문제에서 각종 방법으로 자기자신을 완강히 표현할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반영하지 못하게 하거나 표현하지 못하게 한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압제하는 방법으로 그들더러 표현하지 못하게 할것이 아니라 반대

로 그들더러 표현하게 하여야 하며 동시에 그들이 표현하였을 때에 그들과 변론하며 적당한 비평을 가하여야 한다. 조금도 의심할바없이 우리는 각양각색의 그릇된 사상을 비평하여야 한다. 그릇된 사상이 도처에 범람하는것을 보기만 하고 비평하지 않으며 그것들이 시장을 점령하도록 방임하여서는 물론 안된다. 착오가 있으면 비판하여야 하고 독초가 있으면 투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런 비평은 교조주의적이어서는 안되고 형이상학적방법을 써서는 안되며 극력 변증법적방법을 써야 한다. 과학적분석이 있어야 하며 충분한 설복력이 있어야 한다. 교조주의적비평으로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우리는 일체 독초를 반대한다. 그러나 무엇이 진짜독초이며 무엇이 진짜향화인가를 신중하게 식별하여야 한다. 우리는 균중과 함께 향화와 독초를 신중히 식별하는것을 배워야 하며 동시에 균중과 함께 정확한 방법으로 독초와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는 교조주의를 비판할 때 반드시 수정주의에 대한 비판에도 동시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수정주의 혹은 우경기회주의는 일종의 자산계급사조로서 그것은 교조주의보다 더 큰 위험성을 가지고있다. 수정주의자, 우경기회주의자도 입으로는 맑스주의를 외우며 역시 《교조주의》를 공격한다. 그러나 그들이 공격하는것은 바로 맑스주의의 가장 근본적인것이다. 그들은 유물론과 변증법을 반대하거나 혹은 외곡하며 인민민주전정과 공산당의 령도를 반대하거나 혹은 약화시키려 시도하며 사회주의적개조와 사회주의건설을 반대하거

나 혹은 약화시키려 시도한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기본적으로 승리한 뒤에도 사회에는 여전히 자본주의제도를 회복시키려고 몽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바 그들은 공인계급에 향하여 사상면에서의 투쟁을 포함한 각 방면에서의 투쟁을 진행할것이다. 그런데 이 투쟁에서 수정주의자는 그들의 가장 좋은 조수로 된다.

백화제방, 백가쟁명의 이 두 구호는 글자를 놓고 보면 계급성이 없는것으로서 무산계급도 그것을 리용할 수 있고 자산계급도 그것을 리용할수 있고 기타 사람들도 그것을 리용할수 있다. 소위 향화와 독초에 대하여서도 각 계급, 계층과 사회집단은 자기 자기의 견해를 가지고있다. 그러면 광범한 인민군중의 관점에서 볼 때는 도대체 무엇이 오늘날 우리가 향화와 독초를 식별하는 표준인가? 우리 나라 인민의 정치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언론과 행동의 시비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 나라 헌법의 원칙에 근거하고 우리 나라 최대다수 인민의 의지와 우리 나라 각 당파가 여러번 선포한 공동의 정치주장에 근거하여 이런 표준을 대체로 다음과 같이 규정할수 있다고 여긴다. (1) 인민을 분렬시키는것이 아니라 전국 각 민족 인민을 단결시키는데 유리한것, (2) 사회주의적개조와 사회주의건설에 불리한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개조와 사회주의건설에 유리한것, (3) 인민민주전정을 파괴하거나 약화시키는것이 아니라 이 전정을 공고히 하는데 유리한것, (4) 민주집중제를 파괴하거나 약



화시키는데가 아니라 이 제도를 공고히 하는데 유리한 것, (5) 공산당의 령도를 벗어나거나 약화시키는데가 아니라 이 령도를 공고히 하는데 유리한 것, (6) 사회주의의 국제적단결과 전 세계 평화애호인민의 국제적 단결에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단결에 유리한 것이다. 이 여섯가지 표준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길과 당의 령도 이 두가지 표준이다. 이런 표준을 제출하는 것은 각종 문제에 대한 인민들의 자유토론의 발전을 돕기 위한 것이지 이런 토론을 방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런 표준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 변론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에게 명확한 표준이 있으면 비평과 자아비평이 정확한 궤도에 따라 진행되게 할 수 있으며 이 표준들로 사람들의 언론행동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도대체 그것이 향화인가 그렇지 않으면 독초인가를 감별할 수 있다. 이것은 정치적표준들이다. 과학상의 론점이 옳은가 그른가, 예술작품의 예술수준이 어떠한가를 감별하기 위하여서는 물론 또 각기 그자체의 표준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여섯가지 정치적표준은 어떠한 과학, 예술의 활동에 대하여서도 다 적용된다. 우리 나라와 같은 사회주의국가에서 그래 이 몇개 정치적표준에 위반되는 유익한 과학, 예술 활동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상에서 말한 관점은 모두 우리 나라의 구체적력사조건에서 출발한 것이다. 각 사회주의국가와 각국 공산당은 정확히 각기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중국의 방법을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거나 응당 취하

여야 한다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장기공존, 호상감독》이란 이 구호도 우리 나라의 구체적력사조건의 산물이다. 이 구호는 갑자기 제기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년간의 온양을 거친것이다. 장기공존의 사상은 존재한지 꽤 오래다. 작년에 와서 사회주의제도가 기본상 건립된데서 이 구호가 명확히 제기되었다. 무엇때문에 자산계급과 소자산계급의 민주당파를 공인계급의 정당과 장기적으로 공존하게 하는가? 이것은 확실히 인민과 단결하여 사회주의사업에 힘쓰며 인민의 신임을 받고있는 모든 당파에 대하여 우리가 장기공존의 방침을 취하지 않을 리유가 없기때문이다. 나는 1950년 6월 제2차정치협상회의에서 이렇게 말한바 있다.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여 힘을 바치려 하며 인민이 곤난에 직면하고있는 시기에 확실히 도움을 주었고 좋은 일을 하였으며 또한 중도에서 그만두지 않고 일관적으로 그런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인민과 인민정부는 그를 배척할 리유가 없으며 그에게 생활할 기회와 힘을 바칠 기회를 주지 않을 리유가 없다.》 여기에서 말한 이것이 바로 각 당파가 장기적으로 공존할수 있는 정치적기초이다. 공산당이 각 민주당파와 장기적으로 공존하려는것은 우리의 념원이며 또한 우리의 방침이다. 각 민주당파가 장기적으로 존재할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은 단지 공산당 한 방면의 념원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 각 민주당파자신의 표현을 보아야 하며 그들이 인민의 신임을 받는다 받지 못하는가를 보아야 한다. 각 당파가 호상

감독하는 사실도 오래전부터 있던것이다. 즉 각 당파가 호상 의견을 제기하며 비평하여온것이 그것이다. 초위 호상감독은 물론 일방적인것이 아니다. 공산당이 민주당파를 감독할수 있고 민주당파도 공산당을 감독할수 있다. 어째서 민주당파에게 공산당을 감독하게 하는가? 이것은 당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부동한 목소리를 듣는것이 매우 필요하기때문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공산당은 주로 로동인민과 당원군중이 감독한다. 그러나 민주당파가 있으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물론 각 민주당파와 공산당간에 서로 제기하는 의견과 진행하는 비평도 오직 우리가 앞에서 말한 여섯가지 정치적표준에 부합되는 경우에라야 호상감독의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민주당파가 사상개조에 주의를 돌려 공산당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공존하며 호상 감독함으로써 새 사회의 수요에 적응할것을 희망한다.

## 9. 소수인이 소동을 일으키는 문제에 관하여

1956년에 개별적지방에서 소수의 공인과 학생들이 파업하고 동맹휴학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러한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킨 직접적원인은 일부 물질적요구가 만족되지 못한데 있다. 이러한 요구들중에서 어떤것은 해결되어야 하고 또 해결될수 있는 요구이며 어떤것은 부당한 요구이며 당분간 해결할수 없는 지나친 요구

이다. 그러나 소동이 일어나게 된 더 중요한 요인은 령도상의 관료주의이다. 이러한 관료주의적착오중에서 일부는 상급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하며 모조리 하급만 나무랄수는 없는것이다. 소동이 일어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은 공인과 학생들에 대한 사상정치교육이 결핍한데 있다. 1956년에 소수의 합작사자원들이 합작사문제에서 소동을 일으킨 사건도 있었는데 그 주요한 원인도 역시 령도상의 관료주의에 있으며 군중에 대한 교육이 결핍한데 있다.

일부 군중은 왕왕 당면한, 국부적, 개인적 리익에 주의를 돌리고 장원한, 전국적, 집체적 리익은 모르거나 그리 잘 모른다는것을 승인하여야 한다. 적지 않은 청년들은 정치경험과 사회생활경험이 결핍한탓으로 구중국과 신중국을 대비할줄 모르며 우리 나라 인민들이 어떻게 천신만교의 투쟁을 거쳐 제국주의와 국민당반동과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났는가 하는것과 아름다운 사회주의사회를 건립하려면 어떤 장기간의 간고한 로동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것을 깊이 리해하기 어렵다. 그렇기때문에 군중속에서 생동하고 절실한 정치교육을 일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또한 발생한 곤난에 대하여 그들에게 일상적으로 사실대로 설명하여주며 그들과 더불어 곤난을 해결할 방법을 연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소동을 일으키는것을 찬성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민내부의 모순은 《단결——비평——단결》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있는것이고 소동을 일으키면 어쨌든 일부 손실을 조성하게 되어 사회주의사업의 발전에 불

리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광범한 인민군중은 사회주의를 옹호하며 기물을 잘 지키며 사리에 밝으므로 결코 까닭없이 소동을 일으키지 않으리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러나 이렇다 하여 우리 나라에는 군중이 소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말하는것은 아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1) 소동이 일어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소멸하기 위하여서는 판료주의를 견결히 극복하고 사상정치교육을 잘 강화하고 각종 모순을 타당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기만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것이다. (2) 우리의 공작이 잘되지 못한탓으로 소동이 일어났다면 소동을 일으킨 군중을 정확한 길로 인도하여야 하며 그것을 공작을 개선하며 간부와 군중을 교육하는 일종 특수한 수단으로 리용하여 평상시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소동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간단한 방법으로 처리하지 말며 《경솔하게 처벌》하지 말고 세밀한 공작을 하여야 한다. 소동에 앞장선 인물에 대하여서는 형법을 범한 분자와 현행반혁명분자를 법에 의하여 처리하는외에는 경솔하게 제명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큰 우리 나라에서 소수인이 소동을 일으키는것은 크게 놀랄것이 못되며 도리어 우리들이 판료주의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도 공공리익을 돌보지 않으며 횡포무리하며 흥행을 하여 법을 범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방침을 리용, 외곡하고 고의로 무리한 요구

를 제출하여 군중을 선동하거나 고의로 요언을 날조하여 사건을 일으킴으로써 사회의 정상적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방임하는것을 찬성하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반드시 필요한 법적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이런 사람들을 징벌하는것은 사회의 광범한 군중의 요구이며 그들을 징벌하지 않는것은 군중의 념원에 위반되는것이다.

## 10.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변할수 있는가?

우에서 말한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군중들이 소동을 일으키는것은 나쁜 일이며 우리가 찬성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건은 그것이 발생된후에는 또 우리들로 하여금 교훈을 접수하고 판료주의를 극복하게 할수 있으며 간부와 군중을 교육할수 있다. 이 점에서 말하면 나쁜 일이 좋은 일로 전화될수도 있다. 소동은 이중성을 띠고있다. 우리는 모든 소동을 이러한 관점으로 대할수 있다.

헝그리아사건이 좋은 일이 아니라는것은 모두가 잘 아는바이다. 그러나 이 사건도 이중성을 띠고있다. 헝그리아동지들이 사건의 발전과정에서 처리를 옳게 한 결과 헝그리아사건은 나쁜 일로부터 좋은 일로 전화되었다. 지금 헝그리아는 과거보다 공고히 되었으며 사회주의진영의 각국에서도 모두 교훈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1956년 하반기에 발생한 세계적인 반

공, 반인민적 풍조도 물론 나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각국 공산당파 공인계급을 교육하고 단련시켰으므로 좋은 일로 전화되었다. 많은 나라들에서 일부 사람들이 이 풍조속에서 당으로부터 탈퇴하였다. 일부 당원들의 퇴당으로 하여 당의 인수가 감소된것은 물론 나쁜 일이다. 그러나 역시 좋은 일면도 있다. 그런 동요분자들은 계속해나가기 싫어서 물러나갔지만 대다수의 견정한 당원들은 더욱 잘 단결하여 분투하게 되었는데 어째서 좋지 않겠는가?

총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문제를 전면적으로 볼출 알아야 한다. 사물의 정면을 보아야 할뿐만아니라 반면도 보아야 한다.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나쁜것이 좋은 결과를 초래할수 있으며 또 좋은것이 나쁜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 로자는 2천여년전에 《화속에 복이 들어있고 복속에 화가 숨어있다》〔3〕고 말하였다. 일본이 중국에 쳐들어온것을 일본사람은 승리하였다 하고 중국의 팽활한 강토가 강점당한것을 중국사람은 실패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실패가운데는 승리가 들어있었고 일본의 승리가운데는 실패가 들어있었다. 그래 력사가 이것을 실증하지 않았단 말인가?

지금 세계 각국 사람들은 제3차세계대전이 일어나겠는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를 론의하고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정신적준비도 하여야 하며 분석도 하여야 한다. 우리는 평화를 견지하고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나 제국주의가 기어이 전쟁을 발동한다

하여도 우리는 두려워할것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일체 《소동》을 대하는 태도와 마찬가지로 첫째는 반대하는것이고 둘째는 두려워하지 않는것이다. 제1차세계대전후에 2억 인구를 가진 소련이 나타났으며 제2차세계대전후에는 9억 인구를 가진 사회주의진영이 나타났다. 만일 제국주의자들이 기어이 제3차세계대전을 발동한다면 그 결과는 필연코 또 수억 인구가 사회주의측으로 넘어오게 되고 제국주의의 지반은 얼마 남지 않게 될것이며 지어 제국주의제도전체가 몽땅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고 단언할수 있다.

모순되고있는 대립면의 쌍방은 호상 투쟁한 결과 일정한 조건하에서 호상 전화하지 않는것이 없다. 여기서 조건이 중요하다. 일정한 조건이 없이는 투쟁하는 쌍방이 전화할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자신의 지위를 개변시키려고 하는자는 무산계급이며 그다음은 반무산계급이다. 왜냐하면 하나는 소유한것이 전혀 없고 하나는 있다 하더라도 많지 못하기때문이다. 지금 미국이 련합국의 다수표를 조종하고있고 세계의 많은 지방을 제압하고있는 국면은 잠시적일따름이다. 이 국면은 조만간에 변화되고야말것이다. 중국의 빈궁한 나라로서의 지위와 국제상에서의 무권리한 지위에도 변화가 일어나 빈궁한 나라는 부강한 나라로, 무권리는 유권리에로, 즉 반대방향으로 전화할것이다. 여기서 결정적인 조건은 사회주의제도이며 인민들이 일치단결하여 분투하는것이다.



## 11. 절약에 관하여

나는 여기서 절약문제를 말하려 한다. 우리는 대규모적건설을 진행하려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의연히 매우 가난한 나라이다. 이것은 모순이다. 전면적으로, 지구적으로 절약을 려행하는것은 이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1952년의 《3반》운동에서 우리는 탐오, 낭비와 관료주의를 반대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치중하여 탐오를 반대하였다. 1955년에 절약을 제창하였다. 그 중점은 비생산적기본건설에서는 너무 높은 표준을 반대하는 것이였고 공업생산에서는 원료를 절약하는 것이였는데 성적이 매우 컸다. 당시에는 절약방침이 국민경제 각 부문에서 착실히 실시되지 못하였으며 일반 기관, 부대, 학교, 인민단체들에서도 착실히 실시되지 못하였다. 금년에는 전국의 각 방면에서 절약을 제창하고 낭비를 반대할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건설공작에서 경험이 아직 결핍하다. 과거 수년동안에 매우 큰 성적이 있었지만 동시에 낭비도 있었다. 우리는 일정한 수량의 규모가 큰 현대화한 기업들을 점차 건설하여 골간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골간이 없으면 우리 나라를 수십년 내에 현대화한 공업강국으로 건설할수 없다. 그러나다수의 기업들을 이렇게 하여서는 안된다. 중소형기업들을 더욱 많이 건설하여야 하며 동시에 구사회가 남겨놓은 공업기초를 충분히 리용하고 절약에 힘쓰며 보

다 적은 돈으로 보다 많은 일을 하여야 한다. 작년 11월 중공2중전회에서 절약을 려행하고 낭비를 반대하는 방침을 더욱 치중하여 제출한후 수개월이래 이미 효과를 나타내고있다. 이번 절약운동은 철저하게, 지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낭비를 반대하는것도 기타의 결점이나 착오를 비판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이룰때면 세수하는것과 같은것이다. 사람은 날마다 세수를 하지 않는가? 중국공산당, 민주당파, 무당파민주인사, 지식분자, 공상업자, 공인, 농민, 수공업자, 총적으로 말하여 우리 6억 인구가 모두 증산절약을 하여야 하며 떠벌려 낭비하는것을 반대하여야 한다. 이것은 경제상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질뿐더러 정치상에서도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지금 우리의 허다한 공작인원들 가운데서 군중과 고락을 같이하려 하지 않고 개인의 명리를 따지기 좋아하는 위험한 경향이 자라나고있는데 이것은 매우 좋지 못하다. 우리가 증산절약운동에서 기관을 정간하고 간부를 하방시켜 상당히 많은 간부들을 생산터로 보내는것은 이런 위험한 경향을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대국이지만 또한 경제가 낙후한, 빈궁한 나라이며 이것은 매우 큰 모순이라는것을 전체 간부와 전체 인민들이 항상 념두에 두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면 수십년동안 간고분투하여야 하는데 그중에는 절약을 려행하고 낭비를 반대하는 이런 근검하게 나라를 건설하는 방침을 집행하는것도 포괄되어있다.

## 12. 중국의 공업화의 길

여기에서 말하는 공업화의 길이라는 문제는 '주로 중공업, 경공업과 농업 발전의 관계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건설은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다는 이 점을 반드시 긍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농업과 경공업을 발전시키는데 충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우리 나라는 대농업국으로서 농촌인구가 전국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공업을 발전시키는데는 반드시 농업의 발전이 동시에 병진되어야만 공업에 원료와 시장이 있게 되며 강대한 중공업을 건립하기 위한 보다 많은 자금을 축적할수 있게 된다. 다 알다싶이 경공업과 농업은 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다. 농업이 없으면 경공업이 있을수 없다. 중공업이 농업을 중요한 시장으로 한다는 이 점은 아직 사람들에게 똑똑히 인식되지 못하고있다. 그러나 농업에서의 기술개혁이 점차 발전되며 농업이 날로 현대화함에 따라 농업에 복무하는 기계, 비료, 수리건설, 전력건설, 운수건설, 민용연료, 민용건축재료 등등이 나날이 많아질것이며 중공업이 농업을 중요한 시장으로 한다는 정황이 사람들에게 쉽게 리해될것이다. 제2차5개년계획과 제3차5개년계획 기간에 우리의 농업이 더욱 크게 발전되며 따라서 경공업이 이에 상응하게 더욱 많이 발전된다면 그것은 전반 국민경제에 유익할것이다. 농업과 경공업이 발전되면 중공업에 시장과 자금이 있게 되어 중공업이 더

욱 빨리 발전하게 될것이다. 이러면 보기에는 공업화의 속도가 좀 더딜것 같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더디지 않거나 오히려 더 빠를수도 있다. 3차의 5개년계획 또는 그보다 좀더 오랜 시일을 거치면 우리나라의 강철산량은 해방전 최고년산량, 즉 1943년의 90여만톤에서 2천만톤으로 발전하거나 그보다 좀더 발전할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성시와 농촌의 인민들은 모두 좋아할것이다.

경제문제에 관하여서는 오늘 많이 말하려 하지 않는다. 경제건설을 우리는 겨우 7년밖에 진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아직 경험이 결핍하다. 앞으로 계속 경험을 더 쌓아야 한다. 혁명에 있어서도 우리는 시초에 경험이 없었는데 실패를 당하고 경험을 얻은 다음에야 전국적승리를 가져왔다. 우리는 경제건설방면의 경험을 얻는 시일이 혁명경험을 쌓을 때보다 좀 짧을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그렇게 높은 대가를 내지 않기를 요구한다. 대가는 어쨌든 내게 마련인데 다만 혁명시기에 낸 대가처럼 그렇게 높지 않을것을 바라는바이다. 이 문제에서는 모순, 즉 사회주의사회경제발전의 객관적법칙과 우리의 주관적인식간의 모순이 있다는것과 이것은 실천중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이 모순은 또 사람과 사람사이의 모순, 즉 객관적법칙을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는 일부 사람들과 객관적법칙을 비교적 부정확하게 반영하는 일부 사람들간의 모순으로 표현될것이다. 그러므로 이것도 역시 인민내부의 모순이다. 일체 모순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것이다. 우리의 임무는 그것을 되도록 정확히 반영하고 해결하

는것이다.

우리 나라를 공업국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조선의** 선진경험을 참답게 학습하여야 한다. **조선**은 사회주의를 건설하여온지가 40년이나 된다. **조선**의 경험은 우리에게 매우 보귀한것이다. 보라,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중요한 공장들을 설계해주고 장비해주었는가? 미국이 우리에게 해주었는가? 영국이 우리에게 해주었는가? 그들은 모두 해주지 않았다. 오직 **조선**만이 이렇게 해주었다. 그것은 **조선**은 사회주의국가이며 우리의 동맹국이기때문이다. **조선**을 제한외에 동구라파의 일부 형제국가들도 우리에게 일정한 방조를 주었다. 사회주의국가거나 자본주의국가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나라의 좋은 경험들을 우리가 죄다 배워야 한다는것은 틀림없으며 이 점은 긍정적인것이다. 그러나 주로는 **조선**을 따라배워야 한다. 학습에는 두가지 태도가 있다. 한가지는 교조주의적태도로서 우리 나라의 정황이야 어떻든 적용되는것이나 적용되지 않는것이나 몽땅 옮겨오는것이다. 이런 태도는 좋지 못하다. 다른 한가지 태도는 학습할 때 머리를 써서 우리 나라 정황에 맞는것을 배우는것, 즉 우리에게 유익한 경험을 받아들이는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이와 같은 태도이다.

**조선**과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주의국가들과의 단결을 공고히 하는것은 우리의 기본방침이며 여기에 우리의 기본리익이 있다. 그다음으로 우리는 아세아, 아프리카 국가 그리고 일체 평화애호국가 및

인민들과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 두가지 력량과의 단결이 있으면 우리는 고립되지 않는다. 제국주의국가에 대하여 말하면 우리는 역시 그 나라의 인민들과 단결하여야 하며 또 그 나라들과 평화적 공치를 하며 장사를 하며 일어날수 있는 전쟁을 제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들에 대하여 실제적이 못되는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된다.

## 주 해

[1] 코페르니쿠스(1473~1543년)는 파란의 유명한 천문학자이다.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운행설》이라는 저작에서 지구가 자기의 축을 중심으로 하여 회전하며 다른 행성들과 함께 태양의 주위를 회전한다는것을 증명함으로써 약 2천년래의 지구부동설을 뒤엎어놓았다.

[2] 다윈(1809~1882년)은 영국의 유명한 생물학자이다. 다윈은 자기의 저작《종의 기원》등에서 진화론의 학설을 제기하여 생물의 기원, 변이 및 발전의 법칙을 제시하였다.

[3] 《로자. 58장》에 있다.

## 중국공산당 전국선전공작회의 에서 한 강화

(1957년 3월 12일)

동지들! 이번 회의는 훌륭하게 진행되었다. 회의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출되어 우리는 많은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지금 동지들이 토론한 문제들에 대하여 몇가지 의견을 말하려고 한다.

오늘 우리는 사회의 대변혁의 시기에 처하여있다. 중국사회는 오래전부터 대변혁속에 처하여있다. 항일전쟁시기도 대변혁의 시기였고 해방전쟁시기도 대변혁의 시기였다. 그러나 그 성질로 보면 오늘의 변혁은 지난날의 변혁보다 훨씬 더 심각한것이다.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다. 수억만사람이 사회주의적개조운동에 들어섰다. 전국 각 계급들간의 상호관계도 변화를 일으키고있다. 농업과 수공업 방면의 소자산계급과 공상업자자산계급도 다 변화가 일어났다. 사회경제제도는 변화되어 개체경제가 집체경제로 전화되었으며 자본주의적사유제가 사회주의적공유제로 전화되고있다. 이러한 대변혁은 물론 사람들의 사상에 반영되지 않을수 없다.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 부동한 계급, 계층, 사회집단의 사람들은 이 사회제도의 대변

력에 대하여 각종 부동한 반향을 일으키고있다. 광범한 인민군중은 이 대변력을 열렬히 옹호하고있다. 왜냐하면 현실생활은 사회주의가 중국의 유일한 출로라는것을 증명하고있기때문이다. 낡은 사회제도를 전복하고 새로운 사회제도, 즉 사회주의제도를 건립하는것은 위대한 투쟁이며 사회제도 및 인간의 상호관계에 있어서의 대변력이다. 사태는 기본적으로 건전하다고 말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제도는 방금 건립되었으므로 아직 그것을 공고화할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제도가 건립되자마자 그것을 완전히 공고한것이라고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점차적으로 공고화하여야 한다. 그것을 종국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하여서는 국가의 사회주의적공업화를 실현하고 경제전선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을 견지하여야 하며 또한 정치전선과 사상전선에서 일상적이고 간고한 사회주의혁명투쟁과 사회주의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러한것들을 제한외에도 또한 여러가지 국제적조건들이 배합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화하기 위한 투쟁,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누가 누구를 이기는가 하는 투쟁은 아직도 매우 오랜 역사적시기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새로운 사회주의제도가 반드시 공고화되리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현대적공업, 현대적농업, 현대적과학문화를 소유한 사회주의국가를 반드시 건설할것이다. 이것이 내가 말하려는 첫째문제이다.

둘째, 우리 나라의 지식분자들의 정황에 관하여.



중국에 대해 지식분자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데 대하여서는 정확한 통계가 없다. 어떤 사람의 추산에 의하면 고급지식분자와 일반지식분자를 포함한 여러가지 부류의 지식분자들이 약 500만가량 될것이라 한다. 이 500만좌우의 지식분자들중 그 절대다수는 애국적인 사람들로써 우리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사랑하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려 하며 사회주의국가를 위하여 복무하려 한다. 소수의 지식분자는 사회주의제도를 그다지 환영하지 않으며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지식분자들은 사회주의에 대하여 아직 의심을 품고있지만 그러나 제국주의와 맞섰을 때에는 역시 애국적이다. 우리 나라에 대하여 적대적인 정서를 가지고있는 지식분자는 극소수이다. 이러한자들은 우리의 이 무산계급전정의 국가를 싫어하며 구사회에 미련을 두고있다.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풍랑을 일으켜 공산당을 뒤엎고 구중국을 회복하려 할것이다. 이러한자들은 무산계급로선과 자본계급로선중에서, 사회주의로선과 자본주의로선중에서 완고하게 후자의 로선을 걸으려고 하는자들이다. 이 후자의 로선은 실제상 실현될수 없는것이다. 때문에 그들은 사실상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와 관료자본주의에 투항하려는자들이다. 이러한자들은 정치계, 공상계, 문화교육계, 과학기술계, 종교계 등 그 어디에나 다 있다. 그들은 극히 반동적인자들이다. 이러한자들은 500만가량 되는 지식분자들중에서 대략 1, 2, 3%를 차지하고있을뿐이다. 500만중에서 90%이상을 차지하는 절대대부분의 지식분자들은 정도는 다르지만 모

두가 사회주의제도를 옹호한다. 사회주의제도를 옹호하는 이러한 사람들중 많은 사람들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어떻게 공작하여야 하며 많은 새로운 문제들을 어떻게 리해하며 어떻게 취급하며 그것에 어떻게 대답할것인가에 대하여 아직 그다지 명확하지 못하다.

500만좌우의 지식분자들을 만일 맑스주의에 대하여 취하는 그들의 태도에 의하여 본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수 있을것이다. 즉 그중에서 공산당원과 당외의 동정자들까지 포함하여 약 10여%되는 사람들은 맑스주의를 비교적 잘 알고있을뿐만아니라 무산계급립장에 발을 튼튼히 붙이고있다. 500만이란 총수를 놓고 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소수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핵심이며 유력하다. 다수는 맑스주의를 학습하려 하며 또 다소 배우기도 하였으나 아직 잘 알지는 못하고있다. 그중 어떤 사람들은 아직 의심을 가지고있고 아직 립장이 튼튼하지 못하여 풍량이 일면 좌우로 흔들린다. 500만이라는 총수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있는 이러한 지식분자들은 여전히 중간상태에 처하여있다. 맑스주의를 견결히 반대하고 맑스주의에 대하여 적대시하는 태도를 가지고있는 사람들은 극소수를 차지하고있다. 어떤 사람들은 맑스주의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이 앞으로도 오래동안 존재하게 될것인바 우리는 그들이 찬성하지 않는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일부 유심주의자들은 사회주의적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는 찬성할수 있지만 그러나 맑스

주의적세계관은 찬성하지 않는다. 종교계의 애국인사들도 역시 그러하다. 그들은 유신론자이고 우리는 무신론자이다. 우리는 맑스주의적세계관을 접수하라고 그들에게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총적으로 500만좌우의 지식분자들이 맑스주의를 어떻게 대하고있는가 하는데 대하여 이렇게 말할수 있다. 즉 맑스주의를 찬성하며 또 그것을 비교적 잘 알고있는 사람은 소수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소수이며 다수는 찬성은 하나 잘 알지 못하고 찬성하는 정도도 매우 다르다. 여기에는 견정한 립장, 동요하는 립장, 반대하는 립장 등의 세가지 립장이 있다. 이러한 상태가 앞으로 오래동안 그냥 존재하리라는것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태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남에 대하여서는 지나친 요구를 하게 되고 자기의 임무는 저하시키게 될것이다. 선전공작을 하는 우리의 동지들은 맑스주의를 선전할 임무가 있다. 이 선전은 점차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남들이 기꺼이 접수할수 있도록 잘하여야 한다. 맑스주의를 접수할수 있도록 설복하여야 하지 그것을 접수하라고 강박하여서는 안된다. 앞으로 몇차의 5개년계획기간에 우리의 지식분자들중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맑스주의를 접수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작과 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계급투쟁의 실천과 생산의 실천과 과학의 실천을 통하여 맑스주의를 더 많이 알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희망하는바이다.

셋째, 지식분자의 개조문제. 우리 나라는 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나라이다. 지식분자가 500만좌우라는 것은 우리 나라와 같은 이러한 큰 나라에 있어서는 너무 적은것이다. 지식분자가 없이는 우리의 사업이 잘될수 없으므로 우리는 그들과 잘 단결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 있어서 사회의 주요한 성원은 세가지 부류의 사람들, 즉 공인, 농민, 지식분자들이다. 지식분자는 정신로동자이다. 그들이 공작하는것은 인민을 위하여, 다시말하면 공인과 농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이다. 지식분자들은 그 대다수를 놓고보면 구중국을 위하여 복무할수도 있고 신중국을 위하여 복무할수도 있으며 자산계급을 위하여 복무할수도 있고 무산계급을 위하여 복무할수도 있다. 구중국을 위하여 복무하던 시기에 지식분자들중의 좌익은 반항하였고 중간파는 동요하였으며 우익만이 견정하였다. 새 사회를 위하여 복무하게 된 오늘에 와서는 그와 반대로 되었다. 즉 좌익은 견정하고 중간파는 동요하며(이러한 동요는 과거의 동요와는 다르다. 그것은 새 사회에서의 동요인것이다.) 우익은 반항한다. 지식분자는 또한 교육자이다. 우리의 신문들은 매일과 같이 인민들을 교육하고있다. 우리의 문학예술가, 우리의 과학기술인원, 우리의 교수, 교원들은 모두 인민들을 교육하며 학생들을 교육하고있다. 그들은 바로 교육자이며 선생인 까닭에 먼저 교육을 받아야 할 임무가 있다. 사회제도에 대변혁이 일어나고있는 오늘 이 시기에 있어서는 더구나 먼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 몇해동안 그들은 맑스주의교육을 다소 받았으며 어떤 사람들은 노력이 커서 과거보다

펴 진보하였다. 그러나 다수를 놓고보면 무산계급세계관으로써 자산계급세계관을 완전히 대체하자면 아직도 멀었다. 일부 사람들은 맑스주의서적을 좀 읽고서는 제판에는 학문이 있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그것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였고 머리속에 뿌리박지 못하여 응용할 줄 모르며 낡은 계급적감정을 그대로 가지고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매우 교만하여 책을 몇줄 읽고서는 대단한것 같아서 꼬리를 잔뜩 쳐들지만 일단 풍랑에 부딪치면 그들의 힘장은 공인이나 대다수의 노동농민들과는 아주 다르다. 전자는 동요하고 후자는 견정하며 전자는 애매하고 후자는 선명하다. 그렇기때문에 만약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고 더 학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만약 사회주의적개조는 오직 다른 사람만, 지주와 자본가나 개체생산자만 개조하는것이고 지식분자들은 개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지식분자들도 개조하여야 한다. 기본립장이 아직 전변되지 못한 사람들이 개조하여야 할뿐만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학습하여야 하며 다 개조하여야 한다. 내가 말하는 모든 사람들가운데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포함된다. 정황은 부단히 변화되고있는만큼 자기의 사상을 새로운 정황에 적응시키기 위하여서는 학습하여야 한다. 맑스주의를 비교적 많이 알고있는 사람이나 무산계급립장이 비교적 견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역시 더 학습하여야 하며 새로운 사물을 접수하고 새로운 문제를 연구하여야 한다. 지식분자들이 만일 자기 머리속에 있는 부당

한것을 없애버리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교육하는 임무를 감당할수 없다. 우리는 물론 가르치는 한편 배우며 선생노릇을 하는 한편 학생노릇을 하여야만 한다. 선생노릇을 잘하자면 우선 학생노릇을 잘하여야 한다. 많은것들은 단지 서적에만 의거해서는 배울수 없는만큼 생산자들에게서 즉 공인들에게서 배워야 하고 농민들에게서 배워야 하며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서, 자기의 교육대상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의 지식분자들중에는 배우려는 사람이 다수인것 같다. 우리의 임무는 그들이 학습하려고 자원하는 기초우에서 그들의 학습을 호의적으로 도와주며 적당한 방식으로 도와주는것이다. 강압적인 방법으로써 학습을 억지로 시켜서는 안된다.

넷째, 지식분자들이 공농군중과 결합하는 문제. 공농군중을 위하여 복무하려고 하는 이상 지식분자들은 무엇보다도먼저 공인, 농민에 대하여 알지 않으면 안되며 그들의 생활과 공작 및 사상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지식분자들이 군중속으로 들어갈것을 제창하며 공장으로, 농촌으로 갈것을 제창한다. 만일 한평생 공인이나 농민과 접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지 못한것이다. 우리의 국가기관의 공작인원, 문학가, 예술가, 교원, 과학연구인원들은 될수 있는대로 온갖 기회를 리용하여 공인, 농민과 접근하여야 한다. 어떤 사람은 공장이나 농촌에 가서 한바퀴 돌아봐도 좋다. 이것을 《말타고 꽃구경하는것》이라 하는데 어쨌든 가보지 않기보다는 나은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공장이나 농촌에 가서 몇달 묵으면서 조사도 하고 밭도 사귀고 하는것이 좋다. 이것을 《말에서 내려 꽃구경하는것》이라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이를테면 2년이나 3년이나 또는 더 오랜 기간 내려가 거주하면서 생활해도 좋다. 이것을 《자리잡고 사는것》이라고 한다. 일부 지식분자들은 본래 공인이나 농민들 속에서 생활하고있다. 예를 들면 공업기술인원들은 본래 공장에 있고 농업기술인원들과 농촌학교교원들은 본래 농촌에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물론 공작을 잘하면서 공인, 농민들과 한덩어리로 되어야 한다. 우리는 공농군중과 접근하는것을 기풍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많은 지식분자들이 이렇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100%로 다 갈수는 없다. 일부 사람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하여 내려가지 못할수도 있지만 될수 있는대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려갈것을 우리는 희망한다.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일시에 내려갈수는 없으므로 점차적으로 몇번에 나누어 내려가는것이 좋을것이다. 지식분자들을 공인, 농민들과 직접 접촉하도록 하는것은 과거 연안에 있을 때에도 실시한적이 있었던것이다. 당시 연안에 있는 수많은 지식분자들은 사상이 매우 혼란하여 여러가지 괴이한 론의들이 많았다. 우리는 회의를 열고 그들을 군중속에 들어가라고 권고하였다. 그후 많은 사람들이 군중속에 들어가서 훌륭한 효과를 거두었다. 지식분자들이 서적에서 얻은 지식은 그것이 실천과 결합되기전에는 불완전하거나 매우 불완전한 지식인것이다. 지식분자들은 이전사람들의 경

힘을 주로 독서에 의하여 받아들인다. 책도 물론 읽지 않으면 안되지만 그러나 책을 읽는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반드시 당면정황을 연구하여야 하며 실제적 경험과 자료를 연구하여야 하며 공인, 농민을 벗으로 사귀어야 한다. 공인, 농민을 벗으로 사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도 일부 사람들이 공장이나 농촌에 내려가고있지만 그 결과를 보면 어떤 사람은 수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확이 없다. 여기에는 립장문제 또는 태도문제, 다시말하면 세계관문제가 있다. 우리는 백가쟁명을 제창한다. 어떤 학술부문에나 여러 학파와 여러 류파들이 있을수 있지만 그러나 세계관으로 보면 현대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무산계급파와 자산계급파 두파가 있을뿐이다. 무산계급세계관이 아니면 자산계급세계관인것이다. 공산주의적세계관이란 그 어떤 다른 계급의 세계관인것이 아니라 바로 무산계급의 세계관인것이다. 지금 우리의 대다수 지식분자들은 구사회에서 왔으며 비로동인민가정출신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공인, 농민 가정출신이기도 하지만 해방전에 받은 교육이 자산계급적교육이어서 그 세계관이 기본적으로 자산계급적이며 역시 자산계급지식분자에 속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과거의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무산계급세계관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공인, 농민과 관점도 다르고 립장도 다르고 감정도 달라 공인, 농민과 전혀 어울리지 못할것이며 공인, 농민도 자기들의 속심을 그들에게 말하지 않을것이다. 지식분자가 공농군중과 결합하고 그들을 벗으로 사귀



면 서적에서 배운 맑스주의를 자기의것으로 만들수 있다. 맑스주의를 배우자면 서적에서도 배워야 하지만 주로는 계급투쟁, 공작실천 및 공농군중과의 접촉을 통하여 배워야만 진정으로 배워낼수 있다. 만일 우리의 지식분자들이 맑스주의서적을 좀 읽고 또 공농군중과의 접촉을 통하여, 자기의 공작실천을 통하여 그것을 리해하게 되면 우리는 공통한 언어를 가지게 될것이다. 애국주의면에서의 공통한 언어와 사회주의제도면에서의 공통한 언어를 가지게 될뿐만아니라 또한 공산주의적세계관면에서의 공통한 언어도 가질수 있게 될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동무들의 공작이 틀림없이 훨씬 더 잘되어나갈것이다.

다섯째, 정풍에 관하여. 정풍이란 사상작풍과 공작작풍을 바로잡는것을 말한다. 공산당내에서의 정풍은 항일시기에 한번 진행하였고 해방전쟁시기에도 한번 진행하였으며 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초기에도 한번 진행하였다. 지금 공산당중앙은 금년에 당내에서 정풍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외의 인사들은 자유이다. 참가하기 싫은 사람은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정풍에서는 주로 몇가지 그릇된 사상작풍과 공작작풍을 비평하며 한다. 그 하나는 주관주의이고 하나는 관료주의이며 또 하나는 종파주의이다. 이번 정풍에서도 항일시기의 정풍에서와 같은 방법을 취한다. 즉 먼저 문건들을 연구한 다음 각자가 문건을 학습한 기초우에서 자기의 사상과 공작을 검사하고 비평과 자아비평을 전개하여 결점이나 그릇된 면을 폭로

하고 우적이나 정확한 면을 발양하는 것이다. 정풍과정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엄숙하고 참다운 태도를 취함으로써 착오나 결점에 대하여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반드시 참다운 비평과 자아비평을 진행하고 그것을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단체 때려눕히는》 방법을 반대하고 온화한 방법, 과거를 정계하여 금후를 삼가하게 하며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우리의 당은 위대한 당이며 영광스러운 당이며 정확한 당이다. 이것은 반드시 긍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결점도 있다. 이 사실도 긍정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것을 다 긍정할것이 아니라 정확한것만 긍정하여야 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것을 다 부정할것이 아니라 그릇된것만 부정하여야 한다. 우리의 공작에 있어서 성적이 주요한것이지만 결점과 착오도 아직 적지 않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정풍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자기에게 있는 주관주의, 관료주의, 종파주의를 자기로 비평한다면 우리 당의 위신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럴리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오히려 당의 위신이 더 높아질것이다. 항일시기에 진행한 정풍이 이 점을 증명하여주고있다. 그것은 당의 위신을 높였고 동지들의 위신, 로간부들의 위신을 높였으며 신간부들도 거기에서 커다란 진보를 가져왔던것이다. 공산당과 국민당, 이 두 당을 비교하면 어느쪽이 비평을 두려워하는가? 국민당이 비평을 두려워한다. 국민당은 비평을 금지하였으나 결국은 자기의 실패를 만회

할수 없었다. 공산당은 비평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맑스주의자이며 진리가 우리 편에 있고 공농기본군중이 우리 편에 있기때문이다. 우리가 과거에도 말하였지만 정풍운동은 《보편적인 맑스주의적교육운동》<sup>[1]</sup>이다. 정풍이란 전당적으로 비평과 자아비평을 통하여 맑스주의를 학습하는것이다. 정풍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맑스주의를 더 많이 배우게 될것이다.

중국의 개혁과 건설은 우리가 령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작풍을 잘 바로잡으면 우리는 공작에서 더욱 주동적이 될것이며 우리의 능력이 더 커질수 있으며 공작을 더 잘하게 될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인민을 위하여 성심으로 복무하며 사회주의사업을 위하여 성심으로 복무하며 개혁하려는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 우리 공산당원들은 모두가 다 이러한 사람이여야 한다. 이전에 구중국에서는 개혁을 주장하면 범죄자로 몰리고 목이 달아나고 감옥살이를 하였던것이다. 그러나 당시에 개혁하려는 지향을 가진 일부 사람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각종 곤난한 조건하에서 서적이나 신문, 잡지를 출판하고 인민을 교육하고 인민을 조직하여 굴함없는 투쟁을 진행하였던것이다. 인민민주전정의 정권은 우리 나라의 경제와 문화의 신속한 발전에 길을 열어놓았다. 우리의 정권은 건립된지 불과 몇해밖에 안되지만 모두가 보고있는바와 같이 벌써 경제면에서나 문화, 교육, 과학 면에서나를 막론하고 전례없는 번영의 국면이 나타나고있다. 신중국을 건설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라면 우리 공산당인들은

아무런 곤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에게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방향에 따라 우리의 사회를 개혁,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두려움없이 분투할수 있는 당외의 인인지사들이 또한 필요하다. 수억만 중국사람들을 잘살게 하며 경제적으로 낙후하고 문화적으로 낙후한 우리나라를 부유하고 강성하고 고도의 문화를 소유한 나라로 건설하는것은 매우 간거한 임무이다. 우리가 정풍을 하며 지금 정풍을 할뿐만아니라 앞으로 정풍을 하여 우리 몸에 있는 그릇된것들을 부단히 없애버려야 하는것은 바로 이 임무를 더 잘 감당하며 개혁하려는 지향을 가진 당외의 모든 인인지사들과 함께 더 잘 공작하기 위하여서이다. 철저한 유물주의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분투하는 모든 사람들이 용감히 책임을 짊어지고 곤란을 극복하며 좌절도, 남들의 시비나 조소도 두려워하지 말며 또 우리 공산당인에 대하여 비평하고 건의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것을 희망한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 몸이 뭉지처참을 당하더라도 저 황제를 말에서 끌어내리리라》는 이러한 두려움없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 공산당인측에서는 이러한 합작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어야 하며 그들과 공동히 공작함에 있어서 동지적인 훌륭한 관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그들과 단결하여 함께 분투하여야 한다.

여섯째, 편면성문제. 편면성이란 사상상에서 절대화하는것이며 형이상학적으로 문제를 보는것이다. 우

리 공작에 대하여 일체를 긍정하거나 일체를 부정하는 견해는 다 편면적인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보는 사람들은 공산당내에 아직도 적지 않으며 당외에도 아주 많다. 일체를 긍정한다는것은 좋은것만 보고 나쁜것을 보지 못하는것이며 찬양만 해야 하고 비평해서는 안된다는것이다. 마치 우리의 모든 공작이 다 잘되고있는듯이 말하는것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모든것이 다 잘되고있는것이 아니라 결점과 착오도 있다. 그러나 모든것이 다 잘못되었다고 하는것도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분석해보아야 한다. 일체를 부정한다는것은 아무런 분석도 없이 모든 일이 다 잘못되고있다고 여기며 사회주의건설이란 이 위대한 사업을, 수억의 사람들이 진행하고있는 이 위대한 투쟁을 잘된것이란 하나도 없는 란장판처럼 생각하는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비록 사회주의제도에 대하여 적의를 품고있는 사람들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러한 견해는 매우 그릇된것이고 매우 해로운것이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심을 잃게 할뿐이다. 일체를 긍정하는 관점으로나 또는 일체를 부정하는 관점으로 우리의 공작을 보는것은 모두다 잘못이다. 문제를 편면적으로 보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응당 비평을 하여야 한다. 물론 과거를 징계하여 금후를 삼가하게 하며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하는 태도로써 비평하여야 하며 그들을 방조하여야 한다.

어떤 사람은 정풍을 하는 이상, 모든 사람들더러 의견을 제기하라고 하는 이상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편

면성이 있게 되는데 편면성을 극복하라고 하는것은 마치 말을 하지 말라는것과 같다고 한다. 이러한 말이 옳은가?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도 편면성을 띠지 않도록 요구하기는 어렵다.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의 경험에 의하여 문제를 관찰하고 문제를 처리하고 의견을 발표하는만큼 때로는 편면성을 좀 띠지 않을수 없다. 그렇다고 편면성을 점차 극복하고 문제를 좀더 전면적으로 관찰하라고 요구할수도 없겠는가? 나는 응당 그렇게 요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보다 전면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을 장악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담보할 것이며 편면성을 긍정하는것으로 될것이며 정풍의 요구를 어기게 될것이다. 편면성이라는것은 변증법에 위반되는것이다. 우리는 변증법을 점차 보급시킬것을 요구하며 모두가 다 변증법이란 이 과학적방법을 점차 습득할것을 요구한다. 지금 우리의 어떤 글들은 기세는 등등하나 내용이 없으며 문제를 분석하지 못하고 도리를 말하지 못하여 설복력이 없다. 이러한 글들은 차츰 없애버려야 한다. 글을 쓸 때에는 언제나 《내가 얼마나 고명한가》 하고 생각하지 말고 독자와 완전히 평등한 지위에 있다는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혁명에 참가한지 오래다 하더라도 말을 틀리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역시 논박하게 되는것이다. 틀을 차리면 차릴수록 남들이 그를 더 거들떠보지 않고 그의 글을 점점 더 보기 싫어한다. 우리는 허장성세로 사람을 놀래지 말

고 성실하게 일하며 사물에 대하여는 분석을 가하고 글은 설복력있게 써야 한다.

어떤 사람은 장편대론을 쓰면 편면성을 피할수 있으나 짤막한 잡문을 쓴다면 편면성을 면할수 없다고 한다. 잡문이면 꼭 편면성을 띠게 되는가? 우에서도 이미 말한바이지만 편면성은 흔히 피하기 어려운 것이며 또 편면성이 좀 있다고 하여도 그리 큰 문제인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제를 아주 전면적으로 보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비평의 발전을 방해할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역시 문제를 보다 전면적으로 보도록 노력하며 긴 글이나 짧은 글이나, 잡문도 포함하여, 편면성을 띠지 않도록 노력할것을 요구한다. 어떤 사람은 수백자나 1,000~2,000자밖에 안되는 잡문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겠는가고 한다. 왜 할수 없겠는가? 로신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분석의 방법이 변증법적방법이다. 분석이라는것은 사물의 모순에 대한 분석을 말한다. 생활을 잘 모르고서는, 론의하고있는 모순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서는 적절한 분석을 가할수 없다. 로신의 후기의 잡문들이 아주 심각하고 유력하면서도 편면성을 띠지 않은것은 그가 그 시기에 이미 변증법을 습득하였기때문이었다. 레닌의 론저에도 잡문이라고 할수 있는 글들이 더러 있는데 풍자를 섞어가면서 신랄하게 썼으나 거기에는 편면성이 없다. 로신의 잡문들은 그 절대대부분이 적을 상대로 하고있으며 레닌의 잡문들에는 적을 상대로 한것도 있고 동지를 상대로 한것도 있다. 로신식의 잡문으로 인민내

부의 착오와 결점을 취급할수 있는가? 할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적아를 똑똑히 갈라야 한다. 적대적인 령장에 서서 적을 대하는 태도로 동지를 대하여서는 안된다. 반드시 인민의 사업을 수호하며 인민의 각오를 제고시키려는 태도를 가지고 끊어넘치는 열정으로 말하여야 하며 조소하거나 공격하는 태도로 말하여서는 안된다.

감히 글을 쓸수 없는 경우에는 어찌겠는가? 어떤 사람은, 쓸것이 있어도 못쓰겠다, 쓰면 미움이나 사고비평이나 받는다고 말한다. 이것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정권은 인민민주정권이다. 이것은 인민을 위하여 글을 쓰는데 있어서 유리한 환경으로 되고있다. 백화제방, 백가쟁명의 방침은 과학과 예술의 발전에 새로운 담보를 주고있다. 만일 옳게 썼다면 아무런 비평도 두려워할것 없으며 변론을 통하여 자기의 정확한 의견을 가일층 천명할수 있다. 만일 잘못 썼다면 비평하는것은 그 잘못을 시정하도록 도와줄수 있으므로 나쁠것이 없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비평과 반비평은 모순을 폭로하고 모순을 해결하며 과학과 예술을 발전시키며 각항 공작을 잘하기 위한 훌륭한 방법인것이다.

일곱째, 《개방》이나 《제한》이나? 이것은 방침문제이다. 백화제방, 백가쟁명은 일시적인 방침이 아니라 기본적인 방침인 동시에 장기적인 방침이다. 동지들은 토론과정에 제한하는것을 찬성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 의견이 매우 옳다고 본다. 당중앙의 의견도 오직 개방



하여야 하지 제한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국가를 령도함에 있어서는 각이한 두가지 방법, 바꾸어말하면 각이한 두가지 방침을 취할수 있다. 그것은 즉 개방하는것과 제한하는것이다. 개방이란 사람들이 서슴없이 자기의 의견을 말하게 하여 모두가 과감히 말하고 과감히 비평하고 과감히 론쟁할수 있게 하며, 그릇된 론의나 독소있는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여러가지 의견들간의 호상론쟁과 호상비평을 발전시키고 비평의 자유도 용허하는 동시에 비평자에 대한 비평의 자유도 용허하며, 그릇된 의견에 대하여서는 압제하는것이 아니라 설복하며 리치로써 설득시키는것을 말한다. 제한이란 부동한 의견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그릇된 의견을 발표하지 못하게 하며 발표하면 《단매에 때려눕히는》것을 말한다. 이것은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모순을 확대하는 방법이다. 개방이나 제한이나 하는 두가지 방침중에서 반드시 어느 하나를 취하여야 한다. 우리는 개방하는 방침을 취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나라의 공고화와 문화의 발전에 유리한 방침이기때문이다.

우리는 이 개방하는 방침으로써 수백만의 지식분자들을 단결하여 그들의 지금의 면모를 개변시키려고 한다. 우에서 이미 말한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절대대부분의 지식분자들은 진보하려 하고 개조하려 하며 또한 개조할수 있다.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방침을 취하는가 하는것이 크게 작용한다. 지식분자문제는 우선 사상문제이다. 사상문제에 대하여 조포한 방법,

압제하는 방법을 취하는것은 리모운 점은 없고 해롭거나 한것이다. 지식분자들의 개조, 특히 그들의 세계관의 전변은 장기적인 과정을 요한다. 사상개조공작은 장기적이고 꾸준하고 세밀한 공작으로서 강의나 몇차례 하고 회의나 몇차례 해서 수십년동안의 생활과정에서 형성된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변시키려고 시도하여서는 안된다는것을 우리 동지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남을 설득시키려면 설복하여야만 하고 압제하여서는 안된다. 압제하여서는 아무리 하여도 설득시킬수 없다. 힘으로 남을 복종시키려 하여서는 안된다. 적을 대하는데는 이렇게 할수 있지만 동지나 벗을 대하는데는 절대 이 방법을 쓸수 없다. 설복할줄 모르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다면 학습하여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변론하는 방법, 도리를 밝히는 방법에 의하여 여러가지 그릇된 사상을 극복할줄 알아야 한다.

백화제방은 예술을 발전시키는 방법이고 백가쟁명은 과학을 발전시키는 방법이다. 백화제방, 백가쟁명이란 이 방침은 과학과 예술을 발전시키는 훌륭한 방법일뿐만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은 우리의 모든 공작에서도 훌륭한 방법으로 되는것이다. 이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착오를 덜 범하게 할수 있다. 많은 일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다가도 변론과정에서, 투쟁과정에서 그러한 일들을 알게 되며 따라서 그 해결방법을 알게 된다. 여러가지 다른 의견들이 변론을 거치면 그 결과에 가서는 진리가 발전하게 된다. 독소를 가지고있는 반맑스주의적인것들에 대하

여서도 이 방법을 취할수 있다. 그것은 그러한 반맑스주의적인것과 투쟁하면 맑스주의가 발전할수 있기때문이다. 이것은 대립면의 투쟁과정에서의 발전이며 변증법에 부합되는 발전이다.

사람들은 옛날부터 참된것, 착한것, 아름다운것을 추구하여오지 않았던가? 참된것, 착한것, 아름다운것의 반면은 거짓인것, 악한것, 미운것이다. 거짓인것, 악한것, 미운것이 없으면 참된것, 착한것, 아름다운것이 있을수 없다. 진리는 오유와 대립되는것이다. 인류사회와 자연계에 있어서 통일체는 언제나 부동한 부분으로 갈라진다. 단지 부동한 구체적조건하에서 내용이 다르고 형식이 다를뿐이다. 언제나 그릇된것이 존재하며 언제나 추악한 현상이 존재한다. 좋은것과 나쁜것, 착한것과 악한것, 아름다운것과 미운것의 대립은 언제나 존재한다. 향화와 독초도 역시 그러하다. 그것들간의 관계는 대립물의 통일이며 대립물의 투쟁이다. 대비가 있어야 감별할수 있다. 감별과 투쟁이 있어야 발전할수 있다. 진리는 오유와의 투쟁에서 발전하는것이다. 맑스주의는 바로 그렇게 발전해온것이다. 맑스주의는 자산계급, 소자산계급 사상과의 투쟁에서 발전하였으며 또한 오직 투쟁중에서만 발전할수 있다.

우리는 개방하는 방침을 주장하는데 지금 너무 많이 개방한것이 아니라 아직 개방이 부족하다. 개방하는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비평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독초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맑스주의는 과학적진리로서 비평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비평

하여 넘어뜨릴수 없는것이다. 공산당과 인민정부도 이와 마찬가지로 역시 비평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역시 비평하여 넘어뜨릴수 없는것이다. 그릇된것은 언제나 있게 되는데 그것은 결코 무서운것이 아니다. 최근 한 시기 일부 잡귀신들이 무대에 나타났다. 어떤 동지들은 그것을 보고 매우 조급해한다. 나는 조금 있는것쯤은 일없다고 생각한다. 수십년후에 가서는 지금 무대에 나타난것과 같은 이러한 잡귀신들이 다 없어져서 볼래야 볼수 없을것이다. 우리는 옳바른것을 제창하고 그릇된것을 반대하여야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릇된것과 접촉하는것을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한다. 단지 행정명령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비정상적인 현상이나 추악한 현상이나 그릇된 사상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잡귀신들을 보지 못하게 하여서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물론 나는 잡귀신들을 발전시킬것을 제창하는것이 아니라 《조금 있는것쯤은 일없다》는것이다. 일부 그릇된것이 존재하는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며 또 두려워할것도 없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것과 더 잘 투쟁할줄 알도록 할수 있는것이다. 거센 풍랑도 무서운것이 아니다. 인류사회는 바로 거센 풍랑속에서 발전되어온것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자산계급사상과 소자산계급사상 및 반맑스주의적사상은 아직 장기간 존재할것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우리 나라에서 이미 기본적으로 건립되었다. 우리는 생산자료소유제의 개조면에서는 이미 기본적인 승리를 달성하였으나 정치전선과 사상전선 면

에서는 아직 완전한 승리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무산계급과 자산계급간의 의식형태면에서의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 진정으로 해결되지 못하였다. 우리는 계속 자산계급사상 및 소자산계급사상과 장기간 투쟁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황을 모르고 사상투쟁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일체 그릇된 사상, 독초, 잡귀신들에 대하여서는 절대 그것들이 제멋대로 범람하게 내버려둘것이 아니라 모조리 비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조포하게, 관료주의적으로 또는 형이상학적으로, 교조주의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충분히 사리를 밝히고 분석을 가하면서 설복력있게 하여야 한다.

장기간 사람들은 교조주의에 대하여 많은 비판을 하여왔다. 이것은 응당한 일이다. 그러나 수정주의에 대한 비판은 흔히 홀시되었다. 교조주의와 수정주의는 다 맑스주의에 위반되는것이다. 맑스주의는 반드시 발전할것이며 실천의 발전에 따라 발전할것이며 제자리에 머물러있지 않을것이다. 머물러있어 언제나 그 모양 그대로라면 그것은 생명이 없어진다. 그러나 또한 맑스주의의 기본원칙을 여기에서는 안되며 여기면 착오를 범하게 된다. 형이상학적관점으로 맑스주의를 보며 그것을 경화된것으로 간주하는것은 교조주의이다. 맑스주의의 기본원칙을 부정하고 맑스주의의 보편적진리를 부정하는것은 수정주의이다. 수정주의는 일종의 자산계급사상이다. 수정주의자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구별을 말살하며 무산계급전정과 자산계급전정의

구별을 말살한다. 그들이 주장하는것은 실제에 있어서 사회주의로선이 아니라 자본주의로선이다. 지금의 정황하에서 수정주의는 교조주의보다 더 해로운것이다. 오늘날 사상전선에 있어서의 우리의 중요한 임무는 수정주의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각 성, 시, 자치구의 당위에서는 사상문제를 틀어쥐어야 한다. 이 점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일부 동지들이 나더러 말해달라고 한것이다. 지금 많은 지방의 당위에서는 아직 사상문제를 틀어쥐지 않았거나 틀어쥐는것이 펍 부족하다. 그것은 주로 다망하기때문이다. 그러나 반드시 틀어쥐어야 한다. 《틀어쥬다》는것은 이 문제를 의사일정에 올려놓고 연구한다는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혁명시기의 폭풍우와 같은 대규모적인 군중적계급투쟁은 이미 기본적으로 끝났지만 계급투쟁, 주로 정치전선과 사상전선에 있어서의 계급투쟁은 의연히 존재할뿐만아니라 매우 첨예하다. 사상문제는 지금 비상히 중요한 문제로 되었다. 각지 당위의 제1서기들은 사상문제를 직접 틀어쥐지 않으면 안된다. 오직 이 문제를 중시하고 연구하여야만 이 문제를 정확히 해결할수 있다. 각 지방들에서는 이번 선전회의와 같은 회의를 소집하여 당지의 사상공작과 사상공작에 관련되는 각 방면의 문제들을 토론하여야 할것이다. 이러한 회의에는 당내의 동지들뿐만아니라 당외의 사람들도 참가시켜야 하며 부동한 의견을 가지고있는 사람들도 참가시켜야 한다. 우리의 이번 회의의 경험은 그렇게 하는것이 회의의

진행에 유익할뿐이고 해로운 점은 없다는것을 증명하고있다.

## 주 해

[1] 본 선집 제3권에 수록된 《군대에서의 생산자급을 통합과 아울러 정풍 및 생산 2대운동의 중요성을 통합》에 있다.

## 계속 간고분투하며 군중과 밀접히 연계하자'

(1957년 3월)

### 1

지금 우리 당은 정풍운동을 전개하려고 한다. 정풍은 비평과 자아비평으로 당내의 모순을 해결하는 일종 방법이며 또한 당과 인민간의 모순을 해결하는 일종 방법이다. 이번 정풍에서는 세가지 작풍을 바로잡는다. 즉 관료주의, 종파주의, 주관주의를 바로잡는다. 정풍을 통하여 우리 당의 간고분투하는 전통을 잘 발양시켜야 한다. 혁명의 승리로 인하여 부분적동지들은 혁명적의지가 어느 정도 쇠퇴되었으며 혁명적열정이 다소 식었으며 전심전의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신이 적어졌으며 과거 적과 싸울 때의 그러한 결사적 정신이 적어졌으며 그와 반면에 지위를 탐내며 명예를 탐내며 잘먹고 잘입는것을 추구하며 봉급의 높고낮음을 비기며 명리를 다투는 등 이러루한것들이 많아졌다.

---

여기의 (1)은 모택동동지께서 1957년 3월 18일에 제남의 당원간부회의에서 하신 강화의 일부분이고 (2)는 모택동동지께서 1957년 3월 19일에 남경의 당원간부회의에서 하신 강화의 일부분이다.



든자니 작년에 굶을 평할 때 어떤 사람들은 울며불며 야단을 쳤다고 한다. 사람들에게는 두눈이 있지 않는가? 두눈안에는 눈물이라는것이 있는데 평한 굶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 두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한다. 장개석과 싸울 때나 항미원조를 할 때나 토지개혁을 할 때나 반혁명을 진압할 때에는 눈물 한방울 흘리지 않았고 사회주의를 할 때에도 눈물 한방울 흘리지 않던 사람이 자기개인의 이익에 저촉되자 두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리고 또 사흘동안 밥을 먹지 않은 일도 있었다고 한다. 내 생각에는 사흘동안 먹지 않아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일주일동안 밥을 안먹는다면 그것은 좀 위험할것 같다. 한마디로 말하면 명예를 다투며 지위를 다투며 봉급을 비기며 먹고 입을것을 비기며 향수를 비기는 이러한 사상들이 나타났다. 개인의 이익때문에 단식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것도 인민내부의 모순이라 할수 있다. 《림충이 밤도와 달아나다》<sup>[1]</sup>라는 극이 있다. 이 극의 가사에는 《사나이 좀처럼 눈물 흘리지 않음은 다만 가슴아픈 때가 오지 않았음이라》라는 말이 있다. 지금 우리의 일부 동지들도 사나이인데(녀성도 있을수 있다.) 그들로 말하면 사나이 좀처럼 눈물 흘리지 않음은 다만 굶을 평할 때가 오지 않았음이라 할수 있다. 이런 작품도 바로잡아야 한다. 눈물은 있어도 좀처럼 흘리지 않는것은 옳다. 가슴아픈 때란 어느때인가? 그것은 공인계급과 광범한 로동인민이 생사존망의 위급한 처지에 이르렀을 때인데 그때에는 눈물을 좀 흘려도 된다. 굶이 어느 굶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실혹 그 급이 잘못 평하여졌다 하더라도 눈물을 삼켜버려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고 속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여야 할것이다. 세상에는 공정하지 못한일이 많다. 급이 잘못 평하여졌을수도 있겠지만 야단을 칠 필요는 없다. 그것은 큰일에는 별로 관계가 없는것이다. 먹고 살수 있으면 되는것이다. 혁명당인만큼 굶어죽지 않을 정도이면 되는것이다. 사람은 굶어죽지 않는 한 혁명공작을 하여야 하며 분투하여야 한다. 만년후에도 분투하여야 한다. 공산당이란 분투하여야 하는것이며 반침반의 또는 3분의 2의 마음, 3분의 2의 뜻으로가 아니라 전심전의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혁명적의지가 쇠퇴한 사람은 정풍을 통하여 다시금 떨쳐일어서야 한다.

## 2

우리는 지난 혁명전쟁시기의 그런 기세, 그런 혁명적열정, 그런 결사적정신을 보전하여 혁명공작을 끝까지 하여야 한다. 결사적이란 어떤것인가? 《수호전》에는 결사적인셋째 반명삼랑 석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결사적》을 가리킨다. 지난날 우리가 혁명을 할 때에는 결사적정신이 있었다. 사람마다 다 생명을 가지고있는데 명이 긴가 짧은가에 따라 60살, 70살, 80살 또는 90살을 산다. 오직 공작을 할수만 있다면 다소라도 공작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작을 하는 한 혁명적열정이 있어야 하며 결사적정신이 있어야

한다. 어떤 동지들은 이런 열정이 결핍하고 이런 정신이 결핍하여 멈춰서고말았다. 이런 현상은 좋지 않다. 이런 동지들에게는 교육을 주어야 한다.

전당적으로 정치사상공작을 강화하여야 한다. 오늘 회의에는 군대의 동지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부대에서 어떤한가? 평시의 정치공작은 전시의 정치공작과 좀 다르지 않은지? 전시에는 군중과의 편계를 밀접히 하여야 하며 관병이 한명어리로 되어야 하며 군민이 한명어리로 되어야 한다. 그런 때에는 우리에게 결점이 좀 있어도 인민들은 양해해준다. 지금은 평상시여서 싸움을 하지 않고 훈련만 하는데 만일 군중과의 밀접한 편계를 전지하지 않는다면 인민들이 우리의 결점을 그리 잘 용서하지 않을것은 물론이다. 지금은 군사칭호제도[2]와 기타 일부 제도를 실시하고있다. 그러나 여전히 상급이 하급과 한명어리로 되어야 하고 간부가 병사와 한명어리로 되어야 하며 여전히 하급이 상급을 비평하고 병사가 간부를 비평하는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당대표대회를 열고 그들에게 비평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반》때 진의동지는 아주 잘 말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여러해동안 명령을 내리며 지휘를 하여왔는데 지금 하급에게 우리를 비평하라고, 한주일동안 비평하라고 해서 안되겠는가고 하였다. 그의 의사는 응당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나는 이 말에 찬동한다. 하급이 우리를 한주일동안 비평하게 하는것이 좋겠다. 그 비평이 시작되기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하여 보고를 좀 하고 자기에게 어떤 결점들

이 있다는것을 말하여야 한다. 결점이라야 1, 2, 3, 4 몇조목에 불과할것이다. 그런 다음에 동지들에게 발언을 시켜 보충도 하고 비평도 하게 하여야 한다. 군중은 공정한만큼 우리의 역사를 말살하지는 않을것이다. 편장과 패장도 전사들에게 비평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좋기는 1년에 한번씩 그렇게 며칠간 비평회를 여는것이 좋다. 일찌기 우리는 군대내에서 이런 민주를 실시하였었는데 그 결과가 유익하였다. 군사칭호제도와 기타 일부 제도가 있음으로 하여 상급과 하급, 군관과 병사, 군대와 인민, 군대와 지방간의 밀접한 관계가 손상을 받아서는 안된다. 의심할바없이 상하급간의 관계는 밀접하여야 하며 동지적관계여야 한다. 간부는 전사들과의 관계가 밀접하여야 하며 그들과 한덩어리로 되어야 한다. 군대와 인민, 군대와 지방당정조직과의 관계도 밀접하여야 한다.

우리의 동지들은 관직이나 높은 직위나 오랜 경력을 믿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경력이 오래다는것을 놓고 말하면 다년간 혁명하였으니 그 경력을 믿을만도 하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지는 말아야 한다. 수십년의 오랜 경력을 가진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느때든 옳지 않게 처사하거나 덜된 말을 한다면 인민은 역시 량해하지 않을것이다. 과거에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하였고 직위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오늘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옳게 해결하지 못하여 인민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인민은 결코 이점을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동지들은

오랜 경력을 믿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데 의거하여 살아가야 한다. 경력에 의거할 것이 아니라 정확히 처사하는데 의거하여야 한다. 경력을 믿고 살아갈 수는 없으니 아예 그것을 믿지 말고 자기에게 아무런 관적도 없는 것과 같이 여겨야 한다. 즉 나으리의 틀과 관료배의 틀을 차리지 말며 틀을 버리고 인민들과 접촉하며 하급과 접촉하여야 한다. 이 점에 대하여 우리의 간부들, 특히 로간부들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신간부들은 이런 보따리가 없어서 비교적 자유롭다. 로간부는 신간부와 평등한 지위에 서야 한다. 많은 면에서 로간부들은 신간부들보다 못하다. 그러므로 신간부를 따라 배워야 한다.

## 주 해

[1] 《림중이 밤도와 달아나다》는 명조매의 사람이 쓴 끈꾸《보검거》의 한막이다.

[2] 군사칭호제도는 1955년 9월부터 실시되었다가 1965년 5월에 취소되었다.

## 사태는 변화되고있다\*

(1957년 5월 15일)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은 사회생활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투쟁의 결과 자기의 반면으로 나아가 새로운 통일을 이루며 그리하여 사회생활이 일보 전진하게 된다.

공산당의 정풍은 한 통일체내에서의 두가지 작용간의 투쟁이다. 공산당내부에서 그러하거니와 전체 인민내부에서도 역시 그러하다.

공산당내에는 여러가지 사람들이 있다. 그가운데 맑스주의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들에게도 결점이 있으나 엄중하지는 않다. 일부분 사람들에게는 그릇된 교조주의사상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대부분이 당과 나라를 위하여 성심으로 사업하는 충직한 사람들인데 다만 문제를 보는 방법에 《좌》적편면성이 있다. 이런 편면성을 극복하면 그들은 크게 진보할것이다. 또 일부분 사람들에게는 그릇된 수정주의사상 또는 우경기회주의사상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비교적 위험하다. 그것은 그들의 사상이 당내에 있어서의 자

---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쓰신 글인데 당내간부들에게 발부하였던것이다.

산계급사상의 반영이며 그들은 자산계급적자유주의를 동경하고 일체를 부정하며 사회의 자산계급 지식분자들과 천만갈래로 련계되어있기때문이다. 이 몇달동안 사람들은 교조주의는 비판하고있으나 수정주의는 내버려두고있다. 교조주의는 응당 비판을 받아야 한다. 교조주의를 비판하지 않으면 허다한 잘못을 시정할수 없다. 이제부터는 수정주의를 비판하는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교조주의가 반면으로 나아가게 되면 혹은 맑스주의로 되거나 혹은 수정주의로 된다. 우리 당의 경험에 의하면 전자로 되는 경우가 많고 후자로 되는 경우는 다만 개별적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자산계급의 열광적관점에 몰든, 무산계급의 한 사상파벌이기때문이다. 《교조주의》로 공격받는 어떤것은 실상 공작가운데 존재하는 일부 착오이다. 또 《교조주의》로 공격받는 어떤것은 실상 맑스주의인데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교조주의》로 잘못 인정하고 공격하는것이다. 진짜교조주의분자들이 《좌》경이 우경보다 낫다고 여기는데는 원인이 있다. 그것은 그들이 혁명하려 하기때문이다. 그러나 혁명사업에 끼치는 손실로 볼 때는 《좌》경이 우경보다 더 나은 점이 없으므로 그것을 견결히 시정하여야 한다. 어떤 착오는 중앙의 방침을 집행하였기때문에 범한것이므로 하급을 너무 책망하여서는 안된다. 우리 당에는 지식분자출신의 신당원이 많은데(청년단원중에는 더 많다.) 그중 일부분은 확실히 수정주의사상이 상당히 엄중하다. 그들은 신문의 당성과 계급성을 부인하면서 무산계급신문사업과 자산계급신

문사업과의 원칙적구별을 혼동하며 사회주의국가의 집체경제를 반영하는 신문사업과 자본주의국가의 무정부상태 및 독점집단경제의 경제를 반영하는 신문사업을 혼동한다. 그들은 자산계급적자유주의를 찬양하고 당의 명도를 반대한다. 그들은 민주를 찬성하고 집중을 반대한다. 그들은 계획경제의 실현을 위하여 문화교육사업(신문사업도 포함하여)에 실시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되 지나치게 집중하지는 않는 필요한 명도와 계획과 통제제를 반대한다. 그들은 사회의 우익지식분자들과 서로 호응하고 한데 련결되어 친형제처럼 가까이 지낸다. 교조주의를 비판하는 사람가운데는 여러가지 부류가 있다. 그중에는 공산당인——맑스주의자가 있으며, 팔호안의 《공산당인》 즉 공산당의 우파——수정주의자가 있으며, 사회의 좌파, 중간파, 우파가 있다. 사회의 중간파는 대량적이어서 대략 전체 당외지식분자의 70%좌우를 차지하고 좌파는 대략 20%좌우를 차지하며 우파는 정황에 따라 다른데 대략 1%, 3%, 5% 내지 10%를 차지한다.

최근에 민주당파중에서와 고등학교에서 우파들이 아주 완고하게, 아주 창렬하게 나타나고있다. 그들은, 중간파를 자기네 사람으로 인정하고 중간파들이 공산당을 따라가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실로 꿈을 꾸는것이다. 중간파중에서 일부 사람들은 동요하고있다. 즉 좌로 기울어지기도 하고 우로 기울어지기도 한다. 지금 우파들이 창렬하게 진공하는 그 성세하에서 그들은 좀 기다려보자고 입을 다물고있다. 지금



우파들의 진공은 아직 절정에 달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창 기뻐날뛰고있다. 당내, 당외의 우파들은 모두 사물은 극점에 달하면 필연적으로 대립면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변증법을 모른다. 우리는 여전히 그들이 한동안 더 발광하도록, 그들이 절정에까지 나아가도록 내버려두어야 한다. 그들이 발광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유리하다. 사람들은 낚시질을 할가봐 무섭다느니, 혹은 적을 깊이 유인해들여 포위섬멸하려는것이라느니 하고들 말하고있다. 지금 많은 고기들은 제절로 물우에 떠올라왔다. 낚을 필요가 없는것이다. 이러한 고기는 보통고기가 아니라 아마도 날카로운 이발을 가지고있고 사람을 잡아먹기 좋아하는 상어인것 같다. 사람들이 먹는 어시라는것이 바로 이 고기의 지느러미로서 그의 헤엄치는 기관이다. 우리와 우파간의 투쟁은 중간파를 쟁탈하는데 집중되어있는데 중간파는 쟁취할수 있는 것이다. 인민민주전정을 옹호하오, 인민정부를 옹호하오, 사회주의를 옹호하오, 공산당의 령도를 옹호하오 하는 우파들의 말은 온통 거짓이니 절대 믿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파내의 우파이거나 교육계의 우파이거나 문학예술계의 우파이거나 신문계의 우파이거나 과학기술계의 우파이거나 공상계의 우파이거나를 물론하고 다 그러하다. 두개의 파가 가장 견결한데 그것은 좌파와 우파이다. 그들은 서로 중간파를 쟁탈하고있으며 서로 중간파에 대한 령도권을 쟁탈하고있다. 우파들의 시도는 먼저 국부를 쟁탈한후에 전부를 쟁탈하려는것으로서 먼저 신문계, 교육계, 문예계, 과학기술계의 령도

권을 쟁탈하려 한다. 그들은 이런 방면들에서는 공산당이 자기네보다 못하다는것을 알고있으며 또 사실도 바로 그러하다. 그들은 《나라의 보배》이여서 건드리지 못한다는것이다. 이전에 《3반》이요, 속반이요, 사상개조요 하였는데 어디 될 말인가! 날벼락을 맞을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있는것이다. 그들은 또 많은 대학생들이 지주, 부농, 자산계급의 자녀들이라는것을 알고있으며 그러한 사람들을 우파들의 호소를 받들고 일어날수 있는 군중으로 생각하고있다. 우경사상을 가지고있는 일부 학생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다수 학생들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는것은 꿈을 꾸는것이다. 그리고 신문계의 우파들은 공농군중들에게 정부를 반대하라고 선동하려는 징조도 보이고있다.

사람들은 모자를 씌우는것을 반대하는데 그것은 다만 공산당이 그들에게 모자를 씌우는것을 반대할때뿐이다. 그러나 그들이 공산당에 모자를 씌우거나 또 민주당파중의 좌파와 중간파, 사회 각계의 좌파와 중간파에게 모자를 씌우는것은 일없다는것이다. 몇달동안 신문지상을 통하여 우파들에게서 날아온 모자가 얼마나 많은가! 모자를 씌우는것을 중간파들이 반대하는것은 진정인것이다. 우리가 이전에 중간파에게 씌운 일체 부당한 모자는 다 벗겨버려야 하며 이후에도 함부로 씌우지 말아야 한다. 《3반》에서나 반혁명숙청에서나 사상개조에서 개별적으로 확실히 잘못 처리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어떤 사람에 대한것이냐 다 공개적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모자를 씌우는 문제에 한해서 우파에 대

하여는 따로 취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역시 옳게 쓰워야 하며 확실한 우파에게만 우파라는 이 모자를 쓰워야 한다. 개별적인 계를 제한외에는 구체적으로 이름을 지적할 필요가 없으며 적당한 조건하에서 타협할수 있도록 그들에게 일정한 선회의 여지를 남겨주어야 한다. 우파가 1%, 3%, 5% 내지 10%라고 하는것은 짐작에 불과한바 그보다 좀 많을수도 있고 좀 적을수도 있다. 각 단위사이에도 정황이 서로 다를것이므로 확실한 증거에 근거하여야 하고 실사구시적이어야 하며 지나쳐서는 안된다. 지나치면 잘못이다.

자산계급과 알찌기 구사회를 위하여 복무한적이 있는 지식분자들중의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자신을 완강하게 나타내려 하며 언제나 자기들의 낡은 세계에 미련을 가지고있으며 새 세계에 대하여서는 어쨌든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그들을 개조하는데는 오랜 시일이 걸려야 하며 또한 조포한 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가 해방초기보다는 많이 진보하였다는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제출한 비평은 대부분이 옳은것이므로 접수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것은 일부분뿐인데 이에 대하여서는 해석해주어야 한다. 그들이 자기들을 신임해줄것을 요구하며 직무뿐만아니라 권리도 줄것을 요구하는것은 옳은것이므로 그들을 신임하여야 하며 권리와 직책을 주어야 한다. 우파의 비평가운데도 옳은것이 더러 있으므로 일물로 말살해버려서는 안된다. 옳은것이면 채납하여야 한다. 우파의 특징은 그들의 정치적태도가 우적인

것이다. 그들은 우리와 형식상에서 합작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합작하지 않는다. 어떤 일에서는 합작하고 어떤 일에서는 합작하지 않는다. 평시에는 합작하지만 지금처럼 틈탈 기회만 있으면 사실상 합작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공산당의 명도를 받겠다고 한 자기의 약속을 저버리고 공산당의 명도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한다. 그런데 이런 명도가 없다면 사회주의가 건설될 수 없으며 우리 민족이 막대한 재난을 당하게 될것이다.

전국에는 자산계급과 일찌기 구사회를 위하여 복무하던 지식분자들이 몇백만이나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사업하는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가일층 개선함으로써 그들을 사회주의사업에 더 효과적으로 복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들을 가일층 개조하여 점차적으로 공인계급화하고 현상태의 반면에로 나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대다수 사람들은 꼭 이 목표에 도달할수 있을것이다. 개조한다는 것은 단결도 하고 투쟁도 하며 투쟁의 수단으로 단결을 가져온다는것이다. 투쟁은 호상간의 투쟁인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투쟁하고있는 때이다. 신문에는 발표되지 않은 북경대학 부응교수의 그 침예한 비평도 포함하여 다수 사람들의 비평은 합리하거나 또는 기본상 합리하다. 이러한 사람들이 비평하는 목적은 바로 호상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것이다. 그들의 비평은 선의적이다. 우파들의 비평은 흔히 악의적이다. 그들은 적대적정서를 품고있다. 선의적인가 악의적인가 하는것은 어렵짐작인것이 아니라

보아낼수 있는것이다.

이번 비평운동과 정풍운동은 공산당이 발동한것이다. 독초와 향화가 같이 자라며 잡귀신과 좋은 사람이 같이 나서리라는것은 우리가 이미 예측한바이며 또한 우리가 희망하는바이다. 결국은 좋은 사람이 다수이고 나쁜 사람이 소수이다. 어떤 사람들은 큰 고기를 낚는것이라고 하고 우리는 독초를 매는것이라고 하는데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르게 말하고있는것이다. 반공정서가 있는 우파분자들은 저들의 시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불문하고 중국의 이 땅우에서 폭식을 해치며 집을 무너뜨리는 7급이상의 태풍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들은 도리에 어긋나게 행동하면 할수록 이전에 그들이 우리와 합작하며 공산당의 평도를 접수하는체하고 가장하던 그 반면으로 더 빨리 나아가게 될것이며 그리하여 인민들은 그들이 한숨도 못되는 반공, 반인민적인 잡귀신에 불과하다는것을 인식하게 될것이다. 그때에 가서는 그들자신이 자기를 매장할것이다. 이것이 무엇이 나쁜가?

우파들에게는 두가지 출로가 있다. 하나는 표리를 사리고 잘못을 고치고 옳은 길에 들어서는것이다. 하나는 계속 함부로 날뛰다가 자멸하는것이다. 우파선생들, 어느 길을 택하겠는가, 주동권은(단시일내에 있어서는) 당신들에게 있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자산계급과 자산계급지식분자들이 정치상에서 진실한가 허위적인가, 선의적인가 악의적인가 하는것을 식별하는 몇가지 표준이 있다. 주

로는 그들이 진정으로 사회주의를 요구하는가 또 진정으로 공산당의 평도를 받으려 하는가를 본다. 이 두가지는 그들이 오래전에 승인한것인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번안하려 한다. 그것은 안된다. 그들이 이 두가지를 번안하기만 한다면 중화인민공화국에는 그들의 자리가 없다. 그것은 서방세계(일명 자유국가라고도 한다.)의 리상이니 당신들은 그리로나 가는것이 좋겠다!

대량적인 악렬한 반동적인론들을 어째서 신문에 신도록 허용하는가? 그것은 인민들로 하여금 이런 독초와 독기를 알도록 함으로써 그것을 매버리고 소멸해 버리기 위해서이다.

《당신들은 이러한것을 어째서 일찍 말하지 않았는가?》 어디 일찍 말하지 않았는가? 일체 독초는 반드시 매버려야 한다고 우리는 일찍 말하지 않았는가?

《당신들은 사람들을 좌, 중, 우로 획분하는데 사실에 어긋나지 않는가?》 사막을 제외하고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다 좌, 중, 우가 있으며 만년후에도 이러할것이다. 어째서 사실에 어긋나겠는가? 그렇게 획분하면 군중들이 사람을 관찰하는데 방향이 있게 되므로 중간을 쟁취하고 우파를 고립시키는데 유리하다.

《어째서 우파를 쟁취하지 않는가?》 쟁취하려 한다. 그러나 오직 그들이 고립되었다는것을 느꼈을 때라야 쟁취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그들이 꼬리를 잔뜩 쳐들고 공산당을 소멸하려고 망상하고있는데 순순히 말을 들을리가 있는가? 고립되면 분화가 생길것이다. 우리는 우파를 꼭 분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종래로 사람

들을 좌, 중, 우로 또는 진보, 중간, 낙후로 나누어 왔다. 이것은 오늘에야 시작한것이 아닌데 문제는 다만 일부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린데 있다.

크게 《족치려는것》이 아닌가? 그것은 우파선생들의 금후의 행동을 보고 결정할것이다. 독초는 매버려야 하는데 이것은 의식형태에서의 독초를 매버리는것이다. 사람을 《족치는것》은 다른 문제이다. 《엄중하게 위법란기하였다》고 할 정도까지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족치지》 않을것이다. 《엄중하게 위법란기하였다》는것은 어떤것인가? 그것은 '루차 경고하여도 듣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다가 국가의 리익과 인민의 리익에 엄중한 손실을 빚어낸것을 말한다. 기타 일반적으로 착오를 범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더구나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하는 방침을 취한다. 이것은 아주 적절한 한계이며 당내에서나 당외에서나 일률로 이렇게 한다. 《족치는》것도 역시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하자는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 당의 정풍임무를 완성할수 있는가? 지금의 사태는 진전이 매우 빨라 당과 군중과의 관계가 신속히 개선될것인데 아마 어떤 곳에서는 몇 주일, 어떤 곳에서는 몇달, 어떤 곳에서는 1년좌우(예컨대 농촌)이면 완성할수 있을것 같다. 맑스주의를 학습하고 사상수준을 제고하는것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야 할것이다.

우리가 자산계급 및 지식분자들과 단결도 하고 투쟁도 하는것은 장기적인 일이다. 공산당의 정풍을 한

단락 지은후에 우리는 민주당파와 사회 각계에서도 정풍을 하도록 건의할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진보를 가속화하게 될것이며 소수의 우익분자들을 교정시키기가 보다 더 쉽게 될것이다. 지금은 당외인사들이 우리의 정풍을 방조하고있다. 좀 지나서는 우리가 당외인사들의 정풍을 방조할것이다. 즉 호상 방조하여 나쁜 기풍을 없애버릴것이며 나쁜 기풍이 반면으로 나아가 옳은 기풍으로 변하게 할것이다. 인민들은 바로 이렇게 할것을 우리에게 희망하고있으니 우리는 응당 인민들의 희망을 만족시켜야 한다.



## 중국공산당은 전 중국 인민의 령도적핵심이다\*

(1957년 5월 25일)

동무들의 회의는 아주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나는 동무들이 단결하여 전국 청년들의 령도적핵심으로 되기를 바란다.

중국공산당은 전 중국 인민의 령도적핵심이다. 이러한 핵심이 없이는 사회주의사업은 승리할수 없다.

동무들의 이 회의는 단결의 회의로서 전 중국의 청년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될것이다. 나는 동무들에게 축하를 드린다.

동지들, 단결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견결히, 용감히 분투하자. 사회주의에 어긋나는 모든 언론과 행동은 완전히 그릇된것이다.

---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중국신민주주의청년단 제3차전국대표대회 회의 전체 대표들을 접견하시었을 때 하신 강화이다.

## 력량을 조직하여 우파분자들의 창렬한 진공에 반격을 가하자\*

(1957년 6월 8일)

성급, 시급 기관과 고등학교의 대명대방기간은 대략 15일이면 넉넉할것이다. 이 기간에 반동분자들은 창렬하게 진공한다. 당원과 단원 가운데의 동요분자들은 혹은 배반하고 혹은 동요하면서 배반하려 한다. 광범한 당단원중의 적극분자들과 중간군중들은 일떠나서 대항한다. 쌍방은 대자보를 전투의 무기로 삼아 투쟁하는 가운데서 경험을 쌓으며 인재를 단련해낸다. 반동분자들은 인수가 몇%에 불과하며 극히 발광적인 분자는 1%밖에 안되므로 두려워할것 없다. 하늘땅이 캄캄해지는것 같은 일시적현상에 절집하지 말아야 한다. 반동분자들이 자기 기관, 자기 학교 이외의 공장이나 학교에 가서 활동할것이므로 그들이 오면 막도록 미리 포치하여야 한다. 공장의 주요간부와 로공인들의 회의를 소집하여 지금 좋지 못한 일부 자본가와 좋지 못한 일부 지식분자 및 사회의 반동분자들이 공인계급과 공산당을 창렬하게 진공하면서 공인계급이 령도하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중공중앙을 위하여 기초하신 당내지시이다.

는 정권을 뒤엎으려 하고있는데 그자들의 피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명심하여야 한다는것을 설명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선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아버리며 거리에 반동표어가 붙으면 군중을 동원하여 찢어버리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인들은 대세를 똑똑히 간파하고 사단을 일으키지 말며 이 기간에는 복리나 공자같은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다같이 반동파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 민주당파내에 있는 반동분자들의 창렬한 진공에 주의를 돌리기 바란다. 각 당파들이 자체로 좌담회를 열게 하되 좌, 중, 우의 사람들을 다 참가시켜 정면적의견과 반면적의견을 다 폭로하게 하고 기자를 파견하여 그것을 보도하여야 한다. 우리는 씩씩있게 좌파와 중간파들을 추동하여 발언하게 함으로써 우파를 반격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당보마다 몇십편의 글을 준비해두었다가 당지의 고조가 저락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륑속 발표하여야 한다. 중간파와 좌파들이 글을 쓰도록 조직하는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그러나 고조가 저락되기전에는 당보에 정면적인 글을 적게 실어야 한다(중간파의 글을 실을수 있다). 대자보는 반드시 군중이 반박하게 하여야 한다. 고등학교들에서는 교수들의 좌담을 조직하여 당에 의견을 제기하게 하고 될수록 우파들이 일체 독소를 다 내뿜도록 하여 그것을 신문에 실어야 한다. 그들이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게 하고 학생들이 자유로 태도를 표시하게 할수 있다. 제일 좋기는 반동적인 교수, 강

사, 조교 및 학생들로 하여금 독소를 다 내뿜게 하며 하고싶은 말을 다 하게 하는것이 좋다. 그들은 가장 유용한 교원이다. 적당한 시기가 되었을 때 즉시 당원과 단원들의 회의를 각각 열고 어떤것이 건설적 비평이고 어떤것이 파괴적비평인가를 분별하여 건설적 비평은 접수하고 자기의 착오와 결함을 시정하여야 하며 파괴적비평은 반박하여야 한다. 동시에 일부 당의 인사들의 강연을 조직하여 그들이 정면적인 말을 하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비교적 위신이 있는 당책임자가 분석이 있고 설복력이 있는 총결적연설을 함으로써 분위기를 완전히 돌려세워야 한다. 잘되면 전반 파정은 한달좌우이면 넉넉할것이다. 그런 다음에 은화한 방법으로 당내정풍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위대한 정치투쟁이며 사상투쟁이다. 오직 이 투쟁에 의하여서만 우리 당은 주동을 장악하고 인재를 단련하고 균중을 교육하고 반동파를 고립시키며 반동파를 피동에 빠뜨릴수 있다. 지난 7년동안에 형식상에서는 우리가 주동이였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적게 쳐도 절반은 가짜주동이였다. 반동파는 가짜로 투항하였으며 중간파의 많은 사람들도 진심으로 기꺼이 복종하는것은 아니였다. 지금은 형세가 개변되기 시작하여 형식상에서는 우리가 피동에 처하여있는것 같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주동이 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우리가 참답게 정풍을 하고있기때문이다. 반동파들은 머리가 팽창되어 창렬하게 날뛰는품이 아주 주동인것 같지만 자기의 지나친 행동으로 하여 민심을 잃기 시작

하였으며 피동에 빠지기 시작하였다. 각지의 정황이 같지 않으므로 동무들이 령활하게 책략을 운용하며 령활하게 포치하는것이 좋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한차례의 대전(전쟁터가 당내에도 있으며 당외에도 있다.)으로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없으며 또한 《헝그리아사건》이 일어날 위험성도 어느 정도 있게 된다. 우리가 지금 주동적으로 정풍을 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헝그리아사건》을 주동적으로 끌어내고 그것을 분할하여 각 기관과 각 학교들에서 각기 연습하고 처리하도록 하며 그것을 많은 작은 《헝그리아》로 분할시키며 또한 당과 정부가 기본적으로는 혼란에 빠지지 않고 일소부분만이 혼란에 빠지게 하는것(이 부분이 혼란에 빠지는것은 바로 종처에서 고름을 짜내는 격이여서 아주 좋다.)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즉 사회에 반동파가 존재하고 또 중간분자들이 오늘과 같은 교훈을 얻지 못하였고 당이 지금 받고있는것과 같은 단련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소란은 조만간에 일어나게 마련인것이다.

지금 국내형세는 대단히 좋다. 우리는 공인, 농민, 당, 정부, 군대 및 대다수 학생들을 튼튼히 장악할수 있다. 국제형세도 대단히 좋다. 미국은 곤난한 처지에 처하여있다.

## 문화보의 자산계급방향은 응당 비판하여야 한다\*

(1957년 7월 1일)

본 편집부에서 6월 14일에 《문화보의 한동안의 자산계급방향》이라는 글을 발표한 이래 문화보와 광명일보는 모두 이 문제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다.

광명일보의 공작인원들은 여러번 회의를 열고 사장 장백균과 총편집 저안평의 방향적착오를 엄숙하게 비판하였는데 그것은 태도가 명랑하고 립장이 근본적으로 전변된 비판이었다. 그리하여 장백균, 저안평의 반공적, 반인민적, 반사회주의적 자산계급로선으로부터 혁명적사회주의로선으로 전변되었다. 이로부터 독자들의 신임을 다시 받게 되었으며 사회주의적신문답게 되었다. 그런데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점은 신문의 편집배치의 기교면이다. 편집배치의 기교성과 정치성은 서로 다른 문제로서 광명일보를 놓고 말하면 전자는 부족하고 후자는 남음이 있다. 기교문제는 얼마든지 고칠수 있는것이다. 편집배치의 기교면에서 개선하여 그 면모가 새로와지면 독자들은 기뻐할것이다. 그러나 이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인민일보》를 위하여 쓰신 사론이다.

렇게 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본보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하려고 마음먹어왔고 다소 진전도 가져왔지만 아직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있다.

문화보는 검토하는 글을 썼고 그 방향이 개변된듯 하며 또 정면적로선을 반영하는 많은 소식과 글들을 써내었는데 이런것들은 물론 좋은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감을 느낀다. 마치 극을 늘 때 어떤 연원들이 반면인물의 역을 늘면 아주 신통하지만 정면인물의 역을 늘면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것처럼 억지로 꾸며대는품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동풍이 서풍을 압도하지 않으면 서풍이 동풍을 압도한다. 로신문제에서는 타협할 여지가 없다. 편집과 기자 가운데의 많은 사람들은 낡은 궤도에서 생활하는데 습관되었기때문에 대번에 고치기는 껴 어려운것이다. 대세가 기울어져 고치기 싫어도 고쳐야 하는데 이것은 마지못해 하는 일이며 불쾌한 일이다. 거뿐하고 유쾌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수 있는 레철의 성질을 띤 말이다. 이것은 사람의 상정이니 량해하여야 한다. 엄중한것은 문화보편집부인데 이 편집부는 이 신문이 자산계급방향을 요란스럽게 고취하는 기간에 통수로 나섰으므로 좀처럼 벗어버리기 어려운 무거운 보따리를 짊어지고있다. 공격하는 사람들은 통수우에 통수가 있다고 하고 변호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하며 또한 공격하는 사람들은 장백균-라룡기동맹의 라룡기가 통수라고 이름까지 지적하고있다. 두 통수사이에는 또 다른 한 통수가 있는데 그것은 문

회보의 북경주재 판사처 책임자인 아주 재간있는 너장포회수이다. 문회보에는 라룽기——포회수——문회보 편집부, 바로 이러한 민주동맹우파계통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고있다.

민주동맹은 백가쟁명과정에서나 정풍과정에서 특히 악렬한 역할을 늘고있다. 그들에게는 조직이 있고 계획이 있고 강령이 있고 로선이 있는데 이런것들은 모두가 인민을 멀리하는것이며 공산당을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반대하는것이다. 그리고 농공민주당도 그들과 한본새이다. 이 두 당은 이번 대풍랑에서 특별히 들출하다. 풍랑은 장백군-라룽기동맹이 일으킨것이다. 다른 당파들도 일으키고있으며 그중의 어떤 사람들은 매우 악렬하다. 그러나 그 인수는 비교적 적으며 계통성도 뚜렷하지 않다. 민주동맹과 농공민주당도 그 성원들을 놓고보면 전부가 그런것이 아니며 또 다수가 그런것도 아니다. 풍우를 몰아오고 풍랑을 일으키며 혹은 밀실에서 음모를 꾸미고 혹은 기층에서 불을 달며 아래우로 련락하고 서로 호응해나서면서 천하의 대혼란이요, 정권탈취요, 점차적실시요, 대업의 종국적성취요 하는것들로써 시국을 평가하며 또 그것을 최종목적으로 삼는자는 결국 비교적 소수뿐이다. 즉 이른바 자산계급우파인물들뿐이다. 일부 사람은 명석하고 다수 사람은 기만당하였고 소수가 우익골간들이다. 그들은 우익의 골간이므로 인수는 적지만 활동력은 대단히 크다. 봄내 중국의 하늘에는 난데없는 먹장구름이 어지러이 떠돌았는데 그 근원은 대체로 장백군-라



통기동맹에 있다.

신문기자협회에서는 회의를 두차례 열었는데 한번은 부정을 하였고 한번은 부정의 부정을 하였다. 그사이 는 불과 1개월 남짓이밖에 안되었으니 이것은 중국 시국의 변화가 빠르다는것을 반영하고있다. 회의는 잘 열리였다. 첫번째회의에서는 실로 먹장구름이 금시 성곽을 무너뜨리리라도 할듯한 기세로 반동적인 자산계급적신문로선을 내세웠다. 근일에 열린 두번째회의에서는 그 분위기가 달라져 우파들이 여전히 완고하게 저항하고는 있었으나 다수 사람들은 옳은 방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수 있다.

문회보는 6월 14일에 자아비평을 하고 자기들이 일부 착오를 범하였다는것을 승인하였다. 자아비평을 하는것은 좋은 일이므로 우리는 환영한다. 그러나 우리는 문회보가 한 자아비평은 부족하다고 인정한다. 그런데 이 부족한것이 근본적인 성질을 띠고있다. 다시 말하면 문회보는 근본상 자아비평을 하지 않았다. 그와 반대로 문회보는 14일부 사론에서 자기의 착오를 변호하였다. 《우리는 당의 생명개방정책을 편면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생명개방을 무조건 고무격려하는것이 당의 정풍을 돕는것이라고 여겼으며 정면적의견을 많이 싣거나 그릇된 의견에 대하여 반비평을 하면 생명개방에 지장을 주게 되리라고 여겼다.》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다. 봄에 문회보는 민주동맹중앙의 반공적, 반인민적, 반사회주의적 방침을 집행하여 무산계급에 향하여 창렬하게 진공하였으며 공산당의 방침과 배치되는 길

로 나아갔다. 그 방침은 공산당을 넘어뜨리고 천하의 대혼란을 조성함으로써 자기들이 정권을 탈취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그래 정말 《정풍을 돕는》 것이었던 말인가? 그것은 거짓이며 순전한 기만이다. 한동안 정면적의견을 실지 않거나 적게 실으며 그릇된 의견에 대하여 반비평을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인가? 본보와 모든 당보들은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의 기간에 중공중앙의 지시를 집행하여 바로 이렇게 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한 목적은 요괴와 괴물, 온갖 잡귀신들이 《대명대방》을 하며 독초들이 잔뜩 자라나게 하여 인면들이 그것을 보고 세상에 는 이따위 것들도 있었구나 하고 깜짝 놀라게 함으로써 이 추악한 것들을 섬멸하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하면 공산당은 자산계급과 무산계급간의 이 계급투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간파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자산계급과 자산계급지식분자들이 이 전쟁을 발동하게 놓아두고 신문들은 한동안 정면적의견을 실지 않거나 적게 실으며 반동적자산계급우파들의 창렬한 진공에 반격을 가하지 않으며 정풍을 하고 있는 모든 기관과 학교의 당조직들에서도 이런 창렬한 진공에 대하여 한동안 일률적으로 반격을 가하지 않음으로써 균중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의 비평이 선의적이고 어떤 사람의 소위 비평이 악의적인가를 똑똑히 보게 하며 그리하여 력량을 모으고 시기가 성숙되기를 기다려 반격을 가하기로 하였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음모라고 한다. 우리는 이것을 양모라고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전에 적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즉 잡귀

신은 뛰어나오게 하여야만 섬멸하기 쉬우며 독초는 땅에서 나오게 하여야만 매기 쉽다고 알려주었다. 농민들은 해마다 김을 몇벌씩 매지 않는가? 풀은 매여서 비료로 할수도 있다. 계급의 적들은 꼭 기회를 타서 자기자신을 나타내게 된다. 그들은 자기 정권의 멸망과 공산에 대하여 달가와하지 않는다. 공산당이 사전에 아무리 경고하고 근본적전략방침을 공개적으로 알려주어도 적들은 의연히 진공하게 된다. 계급투쟁은 객관적존재로서 사람들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불가피한것이다. 사람들의 의사가 그것을 피하려 하여도 피할수 없는것이다. 오직 사태발전의 추세에 따라 잘 인도하여 승리를 쟁취하는수밖에 없는것이다. 반동적인 계급적원썬들은 어째서 제절로 그물에 걸려드는가? 그것은 그자들이 리육에 눈이 어두운 반동적사회집단이여서 무산계급의 절대적우세를 절대적렬세로 보기때문이다. 사처에 불을 달면 공인, 농민을 선동할수 있다, 학생들의 대자보는 학교를 접수하는데 유리하다, 대명대방을 하고있으니 일촉즉발의 형세이다, 천하가 삼시에 대혼란에 빠지게 될것이고 공산당은 당장 끝장이 날것이다——이것이 바로 6월 6일에 장백군이 북경에 있는 6명의 교수에게 한 목전형세에 대한 평가이다. 이것이 그래 리육에 눈이 어두운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리육》이라는것은 권력을 탈취하자는것을 말한다. 그들이 내는 신문이 적지 않은데 그가운데의 하나가 문회보이다. 문회보는 앞에서 말한 반동적방침에 쫓아 행사하고서도 6월 14일에는 마치 선의에

서 출발한 것처럼 인민을 기만하려 하였다. 문회보는 《이와 같은 그릇된 인식이 생기게 된것은 신문을 꾸리는데 있어서 자산계급사상이 우리의 머리속에 아직 남아있기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아니다, 《남아있다》는 말을 《가득차있다》는 말로 고쳐야 한다. 몇달동안 무산계급을 창렬하게 진공하는 반동파의 후설노릇을 하였고 신문의 방향을 반공적, 반인민적, 반사회주의적 방향, 즉 자산계급적방향으로 고쳤는데 그래 자산계급사상이 다소 남아있는 정도에서 그렇게 할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무슨 논리인가? 개별성의 전제에서 보편성의 결론을 얻었다는 이것이 문회보의 논리이다. 문회보는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자기들이 사실에 어긋나는 반동적소식을 대량적으로 보도한데 대하여, 반동적언론을 대량적으로 실은데 대하여, 무산계급을 진공하는 도구로서 반동적인 편집배치를 대량적으로 채용한데 대하여 비판하려 하지 않고있다. 신민보는 다르다. 신민보는 이미 비교적 참다운 많은 자아비판을 하였다. 신민보가 범한 착오는 문회보보다 작다. 신민보는 자기가 착오를 범하였다는것을 발견하자 즉시 참답게 시정하였는데 이것은 인민의 사업에 대한 이 신문의 책임자와 기자들의 책임감을 보여주는것이다. 그리하여 이 신문은 독자들앞에서 주동이 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문회보의 책임감은 어데 갔는가? 당신들은 어느때에 가서 신민보처럼 하려는가? 빛은 갠아야 하는것이다. 문회보는 어느때에 가서야 이 빛을 갠것는가? 아마도 신민보의 자아비판은 문회보앞에 수두룩한 난제들을 내

놓은것 같다. 독자들은 문회보에 언제 가서야 신민보를 따라잡겠는가고 물을것이다. 문회보는 지금 완전히 피동적인 지위에 처하여있다. 문회보는 신민보가 자아비판을 하기전에는 그래도 이력저력 지낼수 있을것 같았으나 신민보가 자아비판을 한후로는 처지가 아주 딱하게 되었다. 피동은 주동으로 전화될수 있는것이다. 이렇게 되자면 신민보를 스승으로 삼고 참답게 신민보처럼 하여야 한다.

이제 또 《자산계급우파》라는 이 명칭에 대하여 말해보기로 하자. 자산계급우파란 바로 앞에서 말한 반공적, 반인민적, 반사회주의적인 자산계급반동파이다. 이것은 실제정황에 맞는 과학적인 설명이다. 한줌도 못되는 이런자들은 민주당파, 지식분자, 자본가, 청년학생들중에 있으며 공산당파 청년단체내에도 있는데 이번 대풍랑가운데서 드러났다. 그들은 인수는 매우 적지만 민주당파내에서, 특히 몇몇 민주당파내에서는 력량이 있으므로 경시하여서는 안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언론이 있을뿐아니라 행동이 있으며 죄가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말한 사람은 죄가 없다》는 말이 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들은 말한 사람일뿐아니라 행동한 사람이다. 그들을 징벌하여야 하는가? 지금 보아서는 그럴 필요는 없을것 같다. 왜냐하면 인민의 국가가 매우 튼튼하며 그들가운데의 많은 사람들은 또 이름있는 인물들이기때문이다. 따라서 너그럽게 대하여 징벌하지 않을수 있는것이다. 일반적으로 《우파분자》라고 부르면 될것이고 반동파라고 부를 필요는 없

다. 그러나 한가지 정황만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여러번 경고하였는데도 듣지 않고 계속 파괴활동을 하여 형법을 범한자는 징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거를 징계하여 금후를 삼가하게 하며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한다는 원칙과 소극적인 요소를 적극적인 요소로 전화시킨다는 원칙은 그들에게도 의연히 적용된다. 또 언론만 있고 행동은 없는 다른 일종의 우파가 있는데 이들의 언론은 앞에서 말한 우파들의 언론과 비슷하나 파괴적행동은 없다. 이런 '사람에 대하여서는 더구나 관대히 대하여야 한다. 그릇된 언론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철저히 비판하여야 하며 사정을 두지 말아야 하지만 그들이 자기의 의견을 보류하는것은 허락하여야 한다. 앞에서 말한 여러가지 사람에 대하여 여전히 언론의 자유를 허락한다. 위대하고 공고한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조금 남겨두어도 광범한 군중이 그들의 착오를 안후에는 별로 해로운 점이 없을것이다. 우파는 반면으로부터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이 점에서 독초는 공로가 있다. 독초의 공로라면 바로 그것이 독을 가지고있고 또 그 독을 퍼뜨려 인민을 해쳤다는 그것이다.

공산당은 정풍을 계속하고있으며 각 민주당파들도 정풍을 시작하였다. 창렬히 진공하던 우파들이 인민에 의하여 격퇴된후에는 정풍이 순조롭게 진행될것이다.

## 자산계급우파의 진공을 물리치자\*

(1957년 7월 9일)

3월달에 나는 이곳에서 당내의 일부 간부들에게 강화를 한적이 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미 백날이 되었다. 이 백날동안에 시국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가 자산계급우파들과 싸움을 하였고 인민들의 각오가 제고되었으며 그것도 상당한 정도로 제고되었다. 우리는 그때 벌써 이렇게 되리라고 예견하였었다. 이를테면 나는 여기서 이렇게 말한적이 있다. 사단들이 비평하기 시작하면, 다시말해서 불이 확 달리게 되면 고통스럽지 않겠는가? 지그시 꼴을 들이대고 버티어야 한다. 사람의 여기를 꼴이라고 한다. 지그시 꼴을 들이대고 버틴다는것은 누가 비평을 하면 지그시 참고 듣기만 하며 한동안 들은 다음에는 그것을 분석하고 답복을 하며 옳은 말에 대하여서는 접수하고 틀린 말에 대하여서는 비평하라는것이다.

전 세계에 있어서나 우리 중국에 있어서나 다수의 사람은 좋은 사람들이라는것을 우리는 언제나 믿어야 한다. 이른바 다수의 사람이라는것은 51%의 사

---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상해의 간부회의에서 하신 강화이다.

람을 가리키는것이 아니라 90%이상의 사람을 가리키는것이다. 우리 나라의 6억 인구중에서 공인과 농민은 우리의 기본군중이다. 공산당내에서, 청년단체에서, 민주당파내에서 그리고 학생과 지식분자중에서 다수의 사람은 여하튼 좋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교활하거나 떠심보를 가지고있는것이 아니라 어쨌든 마음이 선량하며 성실하다. 이 점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점은 매차의 운동에서 다 실증된것이다. 폐컨대 이번 운동에서 학생들을 놓고보아도 북경대학의 학생 7,000여명중에서 우파는 다만 1%, 2%, 3%밖에 안된다. 1%, 2%, 3%란 어떤 사람인가? 견결한 골간분자, 경상적으로 발성을 일으키며 하늘땅을 뒤엎을듯이 소란하게 구는 자는 시종 50몇명밖에 안되는데 1%도 안된다. 그외의 1%, 2%의 사람들은 그 골간분자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그들을 옹호하는자들이다.

제몸에 불을 단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듣건대 지금 이곳의 어떤 동지들은 불을 세계 달지 않은것을 후회한다고 한다. 내가 보건대 상해에서는 불을 꽤 잘 단것 같다. 하기는 좀 부족하며 좀 성차지 않은감이 있다. 이렇게 신통한줄을 진작 알았더라면 왜 불을 세계 달지 않았겠는가? 독초들이 자라나게 내버려두며 잡귀신들이 뛰쳐나오게 내버려둘것이지 두려워할게 무엇인가? 3월달에 벌써 나는 두려울것 없다고 말하였다. 우리 당내의 일부 동지들은 천하가 대혼란에 빠질가봐 두려워한다. 이런 동지들은 당과 나라에 충직하기는 한데 큰 국면을 내다보지 못하며 대다수의



사람, 즉 90%의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는것을 생각하지 못하는것이 문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군중은 우리편이므로 군중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우리를 욕은 하여도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을것이다. 우파는 극소수밖에 안된다. 금방 말한 북경대학과 같이 우파는 1%, 2%, 3%밖에 안된다. 이것은 학생을 두고 말하는것이다. 교수, 부교수들을 놓고 말하면 좀 다르다. 그들중에는 우파가 대략 10%쯤 될것이다. 좌파도 역시 10%가량 된다. 이 두 방면은 실력이 서로 대등하다. 중간파는 대략 80%를 점한다. 두려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일부 동지들은 어떤지 겁이 좀 많아서 겁이 허물어질가봐 두려워하며 하늘이 무너질가봐 두려워한다. 자고로 다만 《기나라의 사람이 하늘이 무너져 내려앉지나 않을가 하여 걱정하였다》(1). 즉 그 하남사람만이 하늘이 무너질가봐 두려워하였던것이다. 그 사람외에는 종래로 하늘이 무너질가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었다. 겁을 말하더라도 내가 보건대 이 겁은 무너지지 않을것 같다. 지은지 오래지 않은데 어떻게 그리 쉽게 무너지겠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곳을 물론하고 90%의 사람들은 우리의 벗이고 동지이니 두려워할것 없다. 왜 군중을 두려워하겠는가? 군중을 두려워하는것은 도리가 없는것이다. 평도인물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소조장, 반장, 지부서기, 학교의 교장, 당위서기들이 평도인물이며 또 가경시동지도 평도인물이다. 나도 그중의 하나라고 할수 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하튼 인

민을 위하여 얼마간 일을 하였다는 그런 정치자본을 좀 가지고있다. 지금 불을 달고있는데 90%이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동지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달구어내려 하는것이다. 우리의 동지들은 누구나 다 결함을 좀 가지고있다. 결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성현이 아닌 이상 누구에게 잘못이 없겠는가.》 누구나 다 말을 좀 잘못하거나 일을 좀 잘못 처리하는 때가 있다. 즉 관료주의 같은것이 있을수 있다. 이런것들은 흔히 는 저도 모르게 범하는것이다.

정기적으로 《불을 달아야 한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는가? 동무들의 생각에는 1년에 한번씩 불을 다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3년에 한번씩 다는것이 좋은가? 내 생각에는 윤년, 윤달이 3년에 한번, 5년에 두번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5개년계획기간에 적어도 두번은 다는것이 좋겠다. 손오공도 태상로군의 팔패로에서 단련을 겪고나자 더 훌륭해졌다. 손오공은 아주 대단한 인물이 아니였는가? 사람들은 그를 《제천대성》이라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그는 팔패로에 자기 몸을 달구어내었다. 단련을 한다고 말하지 않는가? 《단》이라는것은 메로 두드린다는것이고 《련》이라는것은 용광로에서 선철을 제련하고 평로에서 강철을 제련하는것을 말한다. 강철을 제련해낸 다음에는 단조한다. 지금은 단조를 증기함마로 한다. 그것이야말로 대단한것이다! 사람도 단련을 하여야 한다. 어떤 동지들은 단련하는데 찬성하는가고 물으면 《그렇다, 나는 결함이 있으니 정말 좀 단련했으면 좋겠다》고 하며 매우 찬성한다. 누구나

다 단련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평시에 단련을 이야기할 때는 아주 험하게 말하지만 정작 단련을 시키면, 정작 중기합마로 두드리려 하면 그는 겁을 집어먹고 하지 않으려 한다. 이번은 바로 한차례의 단련이다. 한동안은 천지가 캄캄하며 일월이 빛을 잃었었다. 두가닥의 바람이 불어왔던것이다. 하나는 대다수의 좋은 사람들이 공산당에 결점이 있으니 고쳐야 한다고 하면서 대자보를 붙이는것이였고 다른 하나는 극소수의 우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것이였다. 두측의 진공방향은 같았다. 그렇지만 다수 사람들이 한 진공은 마땅한것이였으며 또 옳은것이였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일종의 단련으로 된다. 우파들의 진공도 우리에게서 역시 일종의 단련으로 된다. 진정한 단련을 말하면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우파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할것이다. 우리당에 대하여, 광범한 군중에 대하여, 공인계급, 농민, 청년학생 그리고 민주당파에 대하여 우파들이 준 교육이 가장 크다. 어느 성시에나 다 우파들이 있는데 이 우파들은 우리를 타도하려 하는것이다. 이 우파들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 포위토벌을 하고있다.

우리의 혁명은 인민의 혁명이며 '무산계급이 령도하는 6억 인민의 혁명'이며 인민의 사업이다. 민주혁명이 인민의 사업이며 사회주의혁명이 인민의 사업이며 사회주의건설이 인민의 사업이다. 그러면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좋은가 나쁜가? 성과가 있는가 없는가? 성과가 주요한것인가 아니면 착오가 주요한것인가? 우파들은 인민사업의 성과를 부정한다. 이것이

첫째이다. 둘째,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쪽으로 나아가면 사회주의이고 저쪽으로 나아가면 자본주의이다. 우파들은 바로 이 방향을 되돌려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려 한다. 셋째, 사회주의를 하는데 있어서 누가 평도할 것인가? 무산계급이 평도할 것인가 아니면 자산계급이 평도할 것인가? 공산당이 평도할 것인가 아니면 자산계급우파가 평도할 것인가? 우파들은 공산당이 평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내가 보건대 이번은 한차례의 대변론인데 바로 이 세계 문제에서 대변론을 하는 것이다. 한번 변론하는 것이 좋다. 이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변론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민주혁명은 장기간의 변론을 경과하였었다. 청조 말년으로부터 시작하여 신해혁명, 원세개를 반대하는 투쟁, 북벌전쟁, 항일전쟁에 이르기까지 모두 변론을 경과하였다. 항일을 하여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서 한파는 무기유일론을 주장하면서 중국은 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항할수 없다고 하였고 다른 한파는 두려울것 없다, 역시 사람이 위주인만큼 무기가 남보다 못하더라도 역시 싸울수 있다고 하였다. 그 후에 뒤이어 진행된 해방전쟁도 역시 변론을 경과하였다. 중경담판, 중경의 구정치협상회의, 남경담판, 이러한것들은 모두 변론이었다. 장개석은 우리의 의견, 인민의 의견을 하나도 듣지 않았으며 그냥 싸움을 하려 하였다. 싸운 결과 그는 지고말았다. 그러므로 그 민주혁명은 변론을 경과하였으며 장기간의 정신적준비를 경과하였던 것이다.

사회주의혁명은 급속하게 진척되고 있다. 6~7년 동안에 자본주의적소유제와 소생산자의 개체소유제에 대한 사회주의적개조가 기본적으로 완수되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개조는 다소 개조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멀었다. 사회주의적개조에는 두 방면이 있는데 한 방면은 제도에 대한 개조이고 다른 한 방면은 사람에 대한 개조이다. 제도에는 소유제뿐만아니라 상층건축——주로는 정권기관과 의식형태——도 있다. 켈렌대 신문은 의식형태범위에 속한다. 어떤 사람은 신문은 계급성이 없으며 계급투쟁의 도구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 말은 틀린 것이다. 적어도 제국주의가 소멸되기전에는 신문은, 의식형태에 속하는것들은 모두 계급관계를 반영한다. 학교교육이나 문학예술은 모두 의식형태에 속하고 상층건축에 속하며 모두 계급성을 가지고 있다. 자연과학은 두개 면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자연과학 그 자체로 말하면 계급성이 없지만 그것을 누가 연구하고 리용하는가 하는데는 계급성이 있다. 대학교에서 유심론이 제일 많은것은 중문계와 력사계이다. 신문을 꾸리는 사람에게 유심론이 제일 많다. 동무들은 사회과학면에만 유심론이 많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자연과학면에도 유심론이 많다. 자연과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계관에 있어서는 유심론적이다. 물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 하는데 있어서는 그들은 유물론적이다. 즉 물은 두가지 원소로 구성되었다고 하며 그 실제정형에 따라 일을 한다. 그러나 사회를 어떻게 개조할것인가 하는데 있어서는 그들은 유심론적이다.

우리는 정풍은 공산당을 훌륭하게 정돈하려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들중의 일부 사람들은 공산당을 소멸하겠다고 한다. 이번에 이러한 정형들이 드러났다.

우파들이 진공할 때에 있어서의 우리의 정책은 그저 듣기만 하고 말하지 않는 것이었다. 몇주일동안 지그시 참고 귀를 강구어 듣기만 하고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단원들에게도, 당원들에게도 알려지 않고 지부서기에게도, 지부위원회에도 알려지 않고 그들이 혼전하면서 각기 자기 주견대로 하게 내버려두었다. 학교의 당위나 총지에는 일부 적들이 혼입하였다. 청화대학에서는 바로 당위위원들속에 적이 끼여들어있었다. 이쪽에서 회의를 하면 그는 그것을 적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었다. 이런자를 《기의분자》라고 부른다. 기의한 장군이 있지 않은가? 이것은 《기의한 문인》인 것이다. 이 일에 대해서는 적들도 우리도 다 좋아하였다. 적측에서는 공산당원이 《기의》한것을 보고 공산당이 《붕괴》되게 되었다고 매우 기뻐하였다. 이번에 얼마나 붕괴되었는가? 상해는 모르겠으나 북경에서는 학교에서 당원들이 대략 5%가량 붕괴되었다. 단원은 그보다 좀 많이 붕괴되었는데 10%쯤 되거나 그보다 좀 더될 것이다. 이러한 붕괴는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10%이든, 20%이든, 30%이든, 40%이든 여하튼 붕괴된데 대하여 나는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머리속에 자산계급사상과 유심론이 가득차고 공산당과 청년단체에 기여들어온 그런자들은 명색은 공산주의자라 하지만 실상은 반공산주의분자이거나

동요분자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측에서 《기의》하는것을 보고 우리도 역시 기빠하는것이다. 그 언제 청당, 청단에서 이렇게 깨끗이 청리한적이 있었는가? 그들은 우리가 청리하지도 않았는데 제절로 달아났다. 그러나 지금은 정황이 변화하여 '정반대로 되었다. 우리가 우파를 포위하자, 그리고 우파들과 련계를 가지고 있으나 우파는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적발을 하자 그들은 《기의》하지 않게 되었다. 지금은 우파들이 배겨내기 어렵게 되었으며 일부 우파들은 기의하였다. 3월에 내가 여기서 강화한 이후의 백날동안에 시국에는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번 반우파투쟁은 그 성질로 보아 주로 정치투쟁이다. 계급투쟁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번은 군사투쟁이나 경제투쟁인것이 아니라 주로 정치투쟁인것이다. 사상투쟁의 성분은 없는가? 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정치투쟁이 주요한 성분을 차지한다. 사상투쟁은 주로 다음 계단에 있게 되며 그것은 화풍세우의 방식으로 하게 된다. 공산당에서 정풍을 하고 청년단에서 정풍을 하는것은 사상투쟁이다. 여기서 한층 더 제고하여야 하며 진정으로 맑스주의를 좀 학습하여야 한다. 진정으로 호상 도와주어야 한다. 어떤 결점이 있는가——주관주의가 좀 있지 않는가? 관료주의가 좀 있지 않는가? 우리는 진정으로 머리를 써서 생각하며 필기도 좀 하면서 몇달동안 하여 맑스주의수준, 정치수준과 사상수준을 한층 더 제고하여야 한다.

우파에 대한 반격은 아직 몇십일 또는 한달가량 더

걸릴지도 모른다. 우파의 언론을 금년 한해, 명년 한해, 후년 한해 이렇게 신문에다 그냥 실는다는것도 말이 아니다. 우파가 그만큼밖에 안되고 우파언론도 그만큼 실었으면 비슷하며 이제는 더 실을것도 그리 없다. 앞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좀 실고 드러나게 좀 실으며 있으면 좀 실고 없으면 실지 말아야 한다. 내가 생각하건대 7월은 여전히 우파를 반격하는데 있어서 긴장한달일것 같다. 우파들은 질풍폭우를 제일 좋아하고 화풍세우를 제일 싫어한다. 우리는 화풍세우를 제창하지 않는가? 그들은 매우가 매일 내리면 모들이 썩어서 재해가 들게 되니 화풍세우는 질풍폭우보다 못하다고 한다. 동무네 상해에 《까마귀가 <대낮>에 까옥까옥한다》는 글을 쓴 사람이 있지 않는가? 그 《까마귀》가 이런론의를 내놓았던것이다. 그들은 또 말하기를, 당신네 공산당은 공정하지 못하다, 이전에 당신들이 우리를 죽칠 때는 질풍폭우의 방식을 쓰던것이 지금 자신을 죽치게 되니 화풍세우의 방식을 쓴다고 한다. 사실 이전에 초적과 량수명에 대한 비평도 포함하여 사상개조운동을 진행할 때 우리는 언제나 화풍세우의 방식을 취하라고 우리 당내에 지시를 내렸던것이다. 세상의 일이란 언제나 굴곡이 있는것이다. 이를테면 길을 걷는것도 늘 이렇게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걷게 된다. 동무들은 막간산에 가본 일이 있는지? 그 산을 오를 때거나 내릴 때는 다 열여덟굽이를 돌아야 한다. 사회의 운동은 언제나 나선형으로 전진한다. 지금도 늦추지 말고 우파를 계속 파내야 하며 여전히 질풍폭우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



다. 그것은 그들이 질풍폭우의 방식을 썼기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보복하는것 같다. 우파들은 이제야 비로소 화풍세우가 좋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가라앉게 되었으므로 풀 한대라도 보이면 저머취려고 한다. 마치 황포강에 빠져서 곧 죽게 된 사람처럼 지푸래기 하나라도 있으면 다 거머취려 하는것이다. 아마 그 《까마귀》도 지금은 화풍세우를 매우 환영할것이다. 지금은 폭우가 내리는 때인데 7월이 지나서 8월에 들어서면 그때는 별로 파낼것이 없을것이므로 화풍세우의 방식을 취할수 있다.

우파는 훌륭한 반면교원이다. 우리 중국에는 종래로 정면교원도 있었고 반면교원도 있었다. 사람은 정면교육도 받아야 하고 반면교육도 받아야 한다.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의 첫번째로 가는 가장 좋은 반면교원이었다. 그전에는 청조정부가 있었고 원세개가 있었고 북양군벌이 있었으며 그후에는 장개석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우리의 훌륭한 반면교원들이었다. 그들이 없었더라면 중국인민을 교육해내지 못했을것이다. 단지 공산당이 정면교원을 하는것만으로는 부족하였을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많은 말을 그들은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고 하는것은 어떤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것인가? 많은 중간인사들이 듣지 않으며 특히는 우파들이 듣지 않는다. 중간인사들은 반신반의한다. 우파들은 전혀 듣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에게 많은것들을 말하여주었는데 그들은 듣지 않고 단판으로 하였다. 예를 들면 우리는 《단결——비평——단결》

을 주장하였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다. 우리는 반혁명속청에서 성적이 주요하다고 하였는데 그들은 또 듣지 않았다. 우리는 민주집중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무산계급이 령도하는 인민민주전정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들은 또 듣지 않았다. 우리는 여러 사회주의나라들과 연합하여야 하며 전 세계 평화애호인민들과 연합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들은 역시 듣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것들을 다 말하여주었는데 그들은 다 듣지 않았다. 그들이 특히 듣지 않는것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독초를 매버려야 한다는것이다. 잡귀신들은 뛰쳐나오게 내버려두었다가 뛰쳐나온 다음에 그것을 전람하며 전람한후에 여러 사람들이 잡귀신을 나쁘다고 하면 그것을 타도하여야 한다. 독초는 나오게 내버려두었다가 나온 뒤에 매버려야 한다. 매버리면 그것은 비료로 될수 있다. 이런 말을 한적이 없는가? 말한적이 있지 않는가? 그래도 독초는 의연히 나오는것이였다. 농민들은 해마다 풀을 보고 말하지만, 즉 해마다 몇번씩 매버리지만 그 풀들은 전혀 듣지 않고 계속 자라나온다. 만년을 매도 풀은 계속 나올것이며 억년을 매도 계속 나올것이다. 우파들은 매버리는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강화를 하던 그때에는 독초를 매버려야 한다는 말을 하였을뿐이고 직접 손을 대지는 않았기때문이며 또 그들이 자기들은 독초가 아니라 향화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독초이며 자기들은 매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니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매버려야 한다고 인정하였기때문이다. 매버려야 할

것은 바로 그들자신이라는것을 그들은 생각지 못하였던것이다.

지금은 우에서 내가 말한 그 세가지 문제를 변론하고있다. 사회주의혁명이 급속하게 진척되었기때문에 과도기의 당의 총로선에 대하여 충분한 변론을 거치지 못하였다. 당내에서도 충분히 변론하지 못하였고 사회에서도 충분히 변론하지 못하였다. 마치 소가 여물을 먹을 때 먼저 대수대수 씹어서 한 주머니속에 삼켜넣었다가 다시 천천히 새김질하는것과 같다. 우리는 제도면에서, 첫째로는 생산자료소유제면에서, 둘째로는 정치제도와 의식형태를 포함한 상층건축면에서 사회주의혁명을 진행하였으나 충분한 변론은 전개하지 못하였다. 이번에는 신문을 통하여, 좌담회를 통하여, 대회를 통하여, 대자보를 통하여 변론을 전개하고있다.

대자보는 좋은것이니 내 생각에는 그것을 대대로 전하여야 할것 같다. 공자의 《론어》가 전하여왔고 《5경》, 《13경》이 전하여왔고 《24사》도 전하여왔는데 이 대자보를 전하지 않겠는가? 나는 꼭 전하여야 된다고 본다. 이를테면 앞으로 공장에서 정풍을 할 때 대자보를 사용할것인가 사용하지 않을것인가? 내가 보기에는 대자보를 사용하는것이 좋겠다.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좋을것이다. 언어에 계급성이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대자보에도 계급성이 없다. 백화도 계급성이 없다. 우리도 백화로 연설하고 장개석도 백화를 사용하며 지금은 누구나 다 문언을 사용하지 않는다. 《배워서 때때로 익히면 이 아니 기쁠소냐》, 《먼곳에서 벗이 오면 이

아니 즐거울소냐》 하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무산계급도 백화를 사용하고 자산계급도 백화를 사용한다. 무산계급도 대자보를 리용할수 있고 자산계급도 대자보를 리용할수 있다. 다수의 사람들은 무산계급의 편에 서있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그러므로 대자보란 이 도구는 무산계급에게 유리하고 자산계급에게는 불리하다. 한동안은, 두세주일동안은 천지가 캄캄하며 일월이 빛을 잃어서 마치 자산계급에게 유리한것 같았다. 우리가 지그시 꼴을 들이대고 버티라고 한것도 바로 그 두세주일동안을 두고 말한것이다. 그때에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던것이다. 동무들은 단련한다고 하지 않는가? 몇주일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이것이 바로 단련이다. 단련이라 해서 정말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달구는것은 아니다.

많은 중간인사들이 동요하였는데 그것도 매우 좋은 일이다. 동요를 하고나서 그들은 경험을 얻게 되었다. 중간파의 특징이 바로 동요하는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때문에 중간파라고 하겠는가? 이쪽은 무산계급이고 저쪽은 자산계급이며 또 많은 중간파들이 있는데 량쪽이 작고 중간이 크다. 그러나 중간파는 결국은 좋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무산계급의 동맹군이다. 자산계급도 그들을 동맹군으로 쟁취하려 하는데 한동안은 그들이 그렇게 되는것 같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중간파들도 우리를 비평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비평은 선의적인 비평이다. 중간파들이 우리를 비평하

는것을 보고 우파들은 교란을 하였다. 동무네 상해에서 는 왕조시요, 룩이요, 진인병이요, 팽문응이요 그리고 또 오인이요 하는 이러무한 우파인물들이 나와서 교란 하였다. 우파들이 교란을 하자 중간파들은 어리뻑뻑해 졌다. 우파들의 조상은 장백균, 라룽기, 장내기이며 그 발원지는 다 북경이다. 북경은 혼란해지면 혼란해 질수록 좋으며 철저히 혼란해질수록 좋다. 이것은 하나의 경험이다.

방금 대자보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이것은 방식문제이며 어떤 형식을 취하여 작전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대자보는 작전무기의 일종으로서 보총, 단총, 기관총따위 경무기와 같다. 비행기나 대포를 발한다면 그것은 아마 《문화보》 같은것일것이다. 그리고 《광명일보》도 이런 류에 속하고 다른 일부 신문들도 이런 류에 속할것이다. 한동안은 공산당의 신문에도 우파언론들을 실었다. 우리는 모든 우파언론들을 그대로 실이라고 명령하였었다. 우리는 이런 방식과 기타 여러가지 방식을 운용하여 광범한 군중들이 정면과 반면으로부터 교육을 받게 하였다. 례를 들면 《광명일보》와 《문화보》의 공작인원들은 이번에 매우 심각한 교육을 받았다. 과거 그들은 어떤것이 무산계급신문이고 어떤것이 자산계급신문이며 어떤것이 사회주의신문이고 어떤것이 자본주의신문인가를 분별하지 못하였다. 한때 그들의 우파령도자들은 신문을 자산계급신문으로 꾸리었다. 이런 우파령도자들은 무산계급을 적대시하며 사회주의를 적대시하였다. 그들은 학교를 무산계급방향

에로 이끄는것이 아니라 자산계급방향으로 이끌어가려 하였다.

자산계급과 구사회에서 넘어온 지식분자들을 개조 하여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들은 개조를 무척 두려워하면서 개조하면 《자비심》이라는 일종의 감정이 생기여 개조할수록 더 자비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릇된 말이다. 개조하면 할수록 더 자부하여야 하며 자존심이 생겨야 한다. 왜냐하면 그자신에게 개조하여야 하겠다는 각성이 생겼기때문이다. 그 사람들은 《계급각오》가 매우 높아서 자기자신들은 개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며 반대로 무산계급을 개조하려 한다. 그들은 자산계급의 면모에 따라 세계를 개조하려 하며 무산계급은 무산계급의 면모에 따라 세계를 개조하려 한다. 내가 보건대 다수의 사람, 90% 이상의 사람들은 주저하고 고려하고 그리 내켜하지 않고 동요하는 등 이런 과정들을 거쳐 결국은 개조하려는데로 나아갈것이다. 개조하면 할수록 개조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될것이다. 공산당은 지금도 개조하고있는데 정풍을 하는것이 곧 개조하는것이다. 앞으로도 또 정풍을 할것이다. 이번에 정풍을 하였다 하여 다시는 정풍을 하지 않겠는가? 이번에 정풍을 하였다 하여 관료주의가 다시는 없겠는가? 2~3년만 지나면 정풍하던 일이다 잊어지고 그 관료주의가 또 생기게 될것이다. 사람에게는 잘 잊어버리는 버릇이 있다. 그러므로 한시기가 지나면 또 정풍을 하여야 한다. 공산당도 정풍이 필요한데 자산계급과 구사회에서 넘어온 지식분자들에

게 정풍이 필요하지 않고 개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들에게는 정풍이 더욱 필요하며 개조가 더욱 필요한 것이다.

지금 각 민주당파들에서 정풍을 하고있지 않는가? 전반 사회가 한번 정풍을 하여야 한다. 정풍을 하는 것이 무엇이 나쁜가? 더구나 자질구레한 일을 정돈하는 것도 아니고 대사를 정돈하며 로선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아닌가. 지금 민주당파의 정풍에서는 로선문제를 바로잡는 것, 자산계급우파의 반혁명로선을 비판하는 것이 중점이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금 공산당의 정풍은 로선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중점이 아니라 작풍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중점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파에게 있어서는 작풍문제는 두번째이고 어느 로선으로 나아가는가 하는 문제가 주요하다. 장백균, 라룽기, 장내기, 진인병, 팽문응, 룩이, 손대우들의 그 반혁명로선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로선을 따라갈 것인가? 우선 이 문제부터 명확히 하여야 하며 내가 말한 세가지 문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즉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성적, 수억만 인민들이 한 일이 도대체 좋은가 나쁜가? 사회주의길을 따라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길을 따라 나아갈 것인가? 사회주의를 하려 한다고 한다면 어느 당이 령도하여야 하는가, 장백균-라룽기동맹이 령도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공산당이 령도하여야 하는가? 대변론을 전개하여 로선문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공산당에도 로선문제가 있다. 그 《기의분자》, 즉

공산당과 청년단내의 우파들에 대하여 말하면 그것은 로선문제이다. 지금 교조주의는 로선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것이 로선으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당의 역사에는 몇차례의 교조주의로선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교조주의가 제도, 정책, 강령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지금의 교조주의는 제도, 정책, 강령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굳은것이 얼마간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메로 치고 불로 달구니 좀 누그러졌다. 각 기관, 학교, 공장의 령도자들이 《다락에서 내려오고》있지 않는가? 그들은 그 국민당작풍과 나으리습성을 버리려 하며 나으리노릇을 하지 않으려 한다. 합작사의 주임이 군중들과 함께 발갈이를 하고 공장의 공장장, 당위서기가 차간에 내려가 공인들과 함께 로동을 하게 되자 관료주의가 크게 감소되고 있다. 이 정풍은 앞으로도 하여야 한다. 대자보를 내붙이며 좌담회를 열고 시정 또는 비평하여야 할 문제들을 분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그다음에는 또 한층 더 제고하며 맑스주의를 좀 학습하여야 한다.

우리 중국의 다수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며 우리 중화민족은 훌륭한 민족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우리 민족은 사리에 매우 밝으며 매우 열정적이며 매우 총명하며 매우 용감한 민족이다. 나는 집중통일도 있고 생동활발하기도 한 국면, 집중도 있고 민주도 있으며 기쁨도 있고 자유도 있는 그러한 국면이 형성되기를 희망한다. 한 측면만이 아니라 두 측면이 다 있어야 한다. 기쁨만 있거나 집중만 있어서 말을 못하도록 사람들의



입을 봉해놓고 본래 틀린것도 비평을 못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말을 하도록 제창하여야 하며 생동활발하게 되어야 한다. 선의적으로 비평의견을 제기하였다면 말한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아무리 침예하게 제기하고 아무리 욕을 하였다 하더라도 죄가 없으며 비판받게 되지 않으며 은근한 타격을 받게 되지 않는다. 은근한 타격을 받으면 불쾌한것이다. 지금은 어떤 사람을 타격하는가? 우리는 지금 우파들을 타격하고있다. 우파들을 좀 타격하는것은 필요하다.

군중을 두려워하지 말고 군중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어떤 동지들은 물을 겁내듯이 군중을 두려워한다. 동무들은 수영을 하는지? 나는 가는 곳마다에서 수영을 제창한다. 물이란 좋은 물건이다. 더도 말고 하루에 한시간씩만 계속 배우면, 즉 중단함이 없이 오늘도 가고 래일도 가고 이렇게 백날만 하면 수영을 배워낼수 있다고 장담할수 있다. 그런데 첫째는 선생을 모시지 말며, 둘째는 구명환을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한다. 구명환을 가지고는 배워내지 못한다. 《그러나 빠져죽으면 어찌겠는가, 나는 헤엄을 칠줄 모르는데!》 그렇다면 먼저 얕은 물에서 배우면 된다. 가령 백날동안 배운다고 할 때 얕은데서 30일을 배우면 배워낼수 있을것이다. 헤엄칠줄 알게 된 다음에는 장강에 가나 태평양에 가나 다 마찬가지이다. 그저 다 같은 물이며 그저 그러한것이다. 어떤 사람은 수영장에서 빠져 인차 전져낼수 있어 죽을 념려가 없지만 장강에 가서 수영한다는것은 위험하다, 물살이 그렇게 센데 빠져면 어

데가 찾겠는가고 하면서 사람을 놀래우고 있다. 이것은 문외한이 하는 말이다. 우리의 수영영웅, 수영장의 교원과 교수들도 본래는 장강에 감히 들어가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얼마든지 들어간다. 지금 동무네 그 황포강에서도 수영하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황포강이나 장강은 돈 한푼 들일 필요가 없는 수영장이다. 비유를 하면 인민은 물과 같고 각급 령도자들은 헤엄치는 사람과 같으니 물을 떠나지 말아야 하며 그 물을 거스를것이 아니라 그 물을 따라야 한다. 군중을 욱하지 말아야 한다. 군중을 욱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공인군중, 농민군중, 학생군중, 민주당파의 다수 성원들, 지식분자의 다수를 욱해서는 안되며 군중들과 대립하여서는 안되며 언제나 군중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군중들도 착오를 범할수 있다. 그들이 착오를 범하였을 때에는 차근차근 도리를 설명하여주어야 하며 그래서 듣지 않을 경우에는 좀 기다렸다가 기회가 있으면 또 이야기하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수영을 할 때 물을 떠날수 없듯이 그들을 탈리하여서는 안된다. 류비가 공명을 만난것을 《고기가 물을 만난 격》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사실이였다. 소설에 그렇게 써여있을뿐만 아니라 력사에도 그렇게 써여있으며 정말 고기와 물과의 관계와 같았던것이다. 군중이 바로 공명이고 령도자가 바로 류비이다. 하나는 령도를 하고 하나는 령도를 받는다.

지혜는 다 군중속에서 오는것이다. 나는 지식분자가 제일 지식이 없다고 말하여왔다. 이것은 결국에 있

어서 그렇다는 것이다. 지식분자들이 꼬리를 쳐들면 손행자의 꼬리보다 더 길다. 손행자는 72가지 문갑을 하여 마지막에는 꼬리를 기대로 변화시켰는데 그 길이는 기대만하였다. 그런데 지식분자들이 꼬리를 쳐들면 정말 대단하다! 《내가 이 세상에서 첫째는 못가도 둘째는 문제없다》, 《공인, 농민이 다 뭇이란 말인가? 당신네들은 <아두>이다. 글자도 몇자 모르지 않는가.》라고 한다. 그러나 큰 문제는 지식분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적으로는 노동자들이 결정하며 그것도 노동자중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인 무산계급이 결정한다.

무산계급이 자산계급을 평도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자산계급이 무산계급을 평도하여야 하는가? 무산계급이 지식분자를 평도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지식분자가 무산계급을 평도하여야 하는가? 지식분자는 무산계급의 지식분자로 되어야 하지 그밖에는 다른 출로가 없다. 《가죽이 없어졌는데 털이 어디에 붙어있겠는가.》(2) 과거 지식분자란 이 《털》은 다섯장의 《가죽》에 붙어있었으며 다섯장의 가죽에 붙어 살았다. 첫장의 가죽은 제국주의소유제이다. 둘째장의 가죽은 봉건주의소유제이다. 셋째장의 가죽은 관료자본주의소유제이다. 민주혁명이 세계의 큰 산을 뒤엎지 않았는가? 바로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를 타도하였다. 넷째장의 가죽은 민족자본주의소유제이다. 다섯째장의 가죽은 소생산소유제, 즉 농민과 수공업자의 개체소유제이다. 과거의 지식분자들은 첫 석장의 가죽에 붙었거나 마지막 두장의 가죽에 가 붙어있었으며 그

가죽에 붙어서 살았다. 지금도 이 다섯장의 가죽이 있는가? 《가죽이 없어졌다.》 제국주의는 달아났고 그들의 산업을 다 가져왔다. 봉건주의소유제는 소멸되었고 토지는 농민에게 돌리였으며 지금은 또 합작화를 하였다. 판료자본주의기업은 국유화되었다. 민족자본주의 공산업은 공사합영을 실시하여 기본상(아직 완전하지는 못하나) 사회주의적인것으로 되었다. 농민과 수공업자의 개체소유제는 집체소유제로 변화되었다. 물론 이 제도가 아직 공고하지는 못하며 몇해 더 있어야 공고화될수 있을것이다. 이 다섯장의 가죽이 다 없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 《털》에 영향을 주고있다. 이 자본가들에게 영향을 주며 이 지식분자들에게 영향을 주고있다. 그들은그 몇장의 가죽을 언제나 머리속에 잊지 않고있으며 꿈속에서까지도 잊지 않는다. 구사회에서, 낡은 제도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언제나 그 이전생활, 낡은 습관에 미련을 두고있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개조는 더 긴 시일이 요구된다.

지금은 지식분자들이 무슨 가죽에 붙어있는가? 공유제란 가죽에 붙어있으며 무산계급의 몸에 붙어있다. 누가 그들을 먹여살리는가? 공인과 농민이다. 지식분자는 공인계급과 노동자들이 초빙한 선생이다. 당신이 그들의 자녀를 가르치고있으면서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의것을 가르치며 팔고문을 가르치고 공자나 혹은 자본주의적인것들을 가르쳐 반혁명을 배양해낸다면 공인계급은 가만두지 않을것이다. 즉 당신을 사퇴시키고 다음해에는 초빙장을 내지

않을것이다.

백날전에 나는 이곳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구사회에서 넘어온 지식분자들에게는 기초가 없어졌다. 그들은 원래의 사회경제적기초를 상실하였다. 다시말하면 그 다섯장의 가죽이 없어졌으며 새로운 가죽에 붙는것밖에는 다른 수가 없게 되었다. 지금 일부의 지식분자들은 갈팡질팡하고있다. 그들은 허공에 떠서 하늘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땅에 내려오지도 못하고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들보우의 군자》라고 부른다. 그들이 들보우에서 날아 옛자리로 되돌아가려고 하나 그 옛자리에는 그 다섯장의 가죽이 없어져서 텅 비여있으므로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게 되었다. 고향집은 없어졌으나 무산계급의 몸에 붙는것은 또 달가워하지 않는다. 무산계급의 몸에 붙으려면 무산계급의 사상을 연구하여야 하며 무산계급과 감정이 얼마간이라도 통하여야 하며 공인, 농민들과 사귀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 옛자리가 텅 비었다는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그리워하고있다. 지금 우리는 그들에게 각성할것을 권고하고있다. 이번의 대비관을 경과하면 그들이 얼마간 각성할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중간상태에 있는 지식분자들은 각성하여야 하며 꼬리를 너무 쳐들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지식은 유한한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지식분자이기도 하고 지식분자가 아니기도 하므로 반지식분자라고 부르는것이 비교적 타당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그들의 지식이

그저 그만큼밖에 안되어 대도리를 말하게만 되면 착오를 범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파지식분자들에 대해서는 말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반동파인것이다. 중간파지식분자들이 범하는 착오는 동요하고 방향을 똑똑히 보지 못하며 환동안 방향을 잃는 그것이다. 지식이 그렇게도 많다는데 어째서 착오를 범하는가? 그렇게도 대단해서 꼬리를 잔뜩 쳐들었는데 어째서 동요하는가? 담장우의 풀은 바람부는대로 넘어간다. 그러니 그들의 지식이 그리 많지 못하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면에서 지식이 많은것은 공인이며 농민중의 반무산계급이다. 손대우의 그따위 수작이 옳지 않다는것을 그들은 대뜸 간파한다. 보라, 누가 지식이 더 많은가? 그래도 글을 잘 모르는 그들이 지식이 많다. 큰 국면을 결정하고 대방향을 결정하는데는 무산계급을 청하여야 한다. 나는 바로 그렇게 한다. 무슨 일을 처리하거나 무슨 큰일을 결정할 때에는 꼭 공농군중에게 물으며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과 의논하며 그들과 가까이 있는 간부들과 의논하여 되겠는가 안되겠는가를 고려한다. 이렇게 하자면 여러 지방으로 다녀야 한다. 늘 북경에만 박혀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북경에서는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 거기에는 원료가 없다. 원료는 모두 공인, 농민들에게서 가져오며 지방에서 가져온다. 중공중앙은 가공공장과 같아서 이런 원료를 가지고 제조하는데 제조를 잘하여야 하지 잘하지 못하면 착오를 범하게 된다. 지식은 군중속에서 온다.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해결한다는것은 어떤것을 말하는가? 실

사구시하며 균중로선을 걷는것을 말한다. 결국은 균중로선이라는 이 네글자이다. 균중을 탈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와 균중과의 관계는 고기와 물과의 관계와 같으며 수영하는 사람과 물과의 관계와 같은것이다.

우파를 단매에 때려눕혀야 하는가? 매를 몇개 때리는것은 아주 필요하다. 매를 몇개 때리지 않으면 그들은 죽은체한다. 이런 사람에 대하여 그래 공격을 하지 말아야 하고 추격을 하지 말아야 하겠는가? 공격하는것은 필요한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그들을 공격하여 되돌아서게 하려는데 있다. 우리가 여러가지 방법을 취해서 면바로 공격하여 그들을 완전히 고립시킨다면 그들을 쟁취할수 있다. 전부는 몰라도 어쨌든 일부 사람은 쟁취하여 전변시킬수 있을것이다. 그들은 지식분자들이며 일부는 대지식분자들이므로 쟁취하면 쓸모가 있다. 그들을 쟁취하여 다소라도 일을 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그들은 반면교원으로 되어 반면으로부터 인민을 교육하였으니만큼 우리를 크게 도와주었다. 우리는 그들을 황포강에 밀어넣으려는것이 아니다. 우리는 의연히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하는 태도를 취한다. 아마 넘어오려 하지 않는 사람도 더러 있을것이다. 손대우와 같은 사람은 만일 완고하기 그지없어 고치려 하지 않는다면 내버려두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은데 매일 공격만 하며 한 50년동안 그냥 공격만 하고있어서야 어떻게 되겠는가! 일부 사람들은 한사코 고치려 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관속에 가지고 들어가 썬라대왕을 만나는것이 좋을것이다.

염라대왕을 만나서 나는 다섯장의 가죽의 수호자로서 매우 《주대》가 있다, 공산당과 인민군중이 나를 투쟁하여도 나는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냈다 하고 말하라. 그런데 지금은 염라대왕도 바뀌었다는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이 염라대왕은 첫째로는 맑스이고 둘째로는 엔겔스이며 셋째로는 레닌이다. 지옥도 지금은 두개로 나뉘어있다. 자본주의세계의 염라대왕은 아마 이전의 그것들이겠지만 사회주의세계의 염라대왕은 이런분들이 하고있다. 완고하기 짝이 없는 우파는 백년후에도 역시 투쟁을 받게 될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 주 해

[1] 《별자.천서》에 있다.

[2] 《좌전.회공14년》에 있다.



## 1957년 하기의 형세\*

(1957년 7월)

우리 나라 사회주의혁명시기에 있어서 반공적, 반인민적, 반사회주의적인 자산계급우파와 인민파의 모순은 적아모순이며 대항적이고 비타협적이고 사활적인 모순이다.

공인계급과 공산당을 미친듯이 진공하는 자산계급우파는 반동파이며 반혁명파이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우파라고 부르는것은 첫째로는 중간파를 생취하는데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둘째로는 우파를 분화시키는데 유리하도록 하며 그리하여 일부분 우파분자들이 전변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끝까지 전변할수 없는 그 부분의 자산계급우파분자들은 완고파이지만 오직 그들이 특무질을 하지 않으며 파괴활동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역시 그들에게 할 일을 줌 주고 공민권도 박탈하지 않는다. 이것은 많은 력사적사건들에서 극단적인 정책을 취한 후파가 좋지 않았던 사실을 고려한것이다. 우리는 멀리 내다보아야 한

---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1957년 7월 청도에서 열린 성위, 시위서기회의기간에 쓰신 글이다. 이 글은 그 회의에서 인쇄하여 발급하였었고 그해 8월에는 또 당내령도간부들에게 발급하였다.

다. 수십년이 지난후에 이 사건을 돌이켜본다면 우리가 자산계급우파분자들을 이렇게 대하는것이 무산계급혁명사업에 심원한 영향과 거대한 리익을 준다는것을 알수 있을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집중도 있고 민주도 있으며 기쁨도 있고 자유도 있으며 통일적의지도 있고 개인의 심정도 유쾌하고 생동활발하기도 한 그런 정치적국면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 리롭게 하며 곤난을 비교적 용이하게 극복하고 우리 나라의 현대적공업과 현대적농업을 비교적 빨리 건설하며 당과 국가가 보다 더 공고화되어 비교적 풍광을 겪어낼수 있도록 하려는것이다. 총제목은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하며 적아모순을 정확히 처리하자는것이다. 방법은 실사구시하며 균중로선을 걷는것이다. 파생적인 방법은 당내외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 대정방침에 관한 회의를 열며 공개적으로 정풍을 하며 당과 정부의 많은 착오와 결점을 신문지상에서 비평하는것이다. 민주당파, 교육계, 신문계, 과학기술계, 문예계, 위생계, 공상계, 공인계급, 농민계급의 각 계층, 수공업공인파 기타 성향로동자들에 대하여서는 모두 정풍과 사회주의교육을 진행하되 기와 차례를 나누어 점차 전개하여야 한다. 이것은 자산계급과 자산계급지식분자들에게 있어서는 사회주의적개조를 접수하는 문제이고 소자산계급(농민과 성향독립로동자), 특히 부유중농에게 있어서는 역시 사회주의적개조를 접수하는 문제이며 공인계급과 공산당의 기본대오에 있어서는 작풍을 바로잡

는 문제이다. 이것은 성질이 다른 두개의 사회적범주에 속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다른데 어째서 다 정풍이란 동일한 구호를 쓰는가? 그것은 정풍이라는 구호가 다수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접수될수 있기때문이다. 공산당과 공인계급도 정풍을 하는데 그래 당신들은 정풍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인가?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하면 여간 주동이 아니다. 정풍의 방법은 비평과 자아비평을 전개하며 사실을 내놓고 도리를 따지는것이다. 정풍의 목적은 정치방향을 바로잡으며 사상수준을 높이며 공작중의 결함을 시정하며 광범한 균중을 단결하며 자산계급우파와 모든 반사회주의분자들을 고립, 분화시키는데로 투쟁의 방향을 이끄는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산계급우파에는 공산당내와 청년단체에 혼입한, 정치면모가 당외, 단외의 우파분자들과 똑같은 사람들도 포함된다. 그들은 무산계급혁명사업을 배반하고 당에 향하여 미친듯이 진공하고있으므로 그들을 충분히 적발하고 몰아냄으로써 당조직과 단조직을 순결히 하여야 한다.

반드시 균중의 다수, 우선 공농기본균중의 다수를 굳게 믿어야 한다는 이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공상계와 지식계를 놓고보더라도 우파들이 미친듯이 진공하는 시기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한동안 미혹되어 동요할수 있지만 몇주일후 우파에 대한 반격이 전개되면 다수 사람들은 역시 각성하여 다 넘어오게 된다. 그러므로 공상계와 지식계의 다수 사람들도 결국에는 믿을수 있다. 그들은 개조를 접수할수 있는것이

다. 과거 적지 않은 동지들은 무산계급의 력량을 과소평가하고 자산계급우파의 력량을 과대평가하는 착오를 범하였었다. 지금 지구, 현, 구, 향 및 공장의 간부들 가운데는 아직도 이러한 사람이 적지 않게 있으니 그들을 잘 설복하여 자기측의 력량을 과소평가하지 말며 적측의 력량을 과장하지 말게 하여야 한다. 농촌에서 지주, 부농들은 지금 개조되고있는데 그중의 일부분 사람들은 여전히 교란하고있으므로 그들에 대하여 반드시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부유중농은 다수가 합작사에 남아있으려 하나 소수는 합작사에서 나가려고 야단치며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려 한다. 우리는 그들을 갈라보아야 한다. 농촌에서는 반드시 계급로선에 주의를 돌려야 하며 반드시 원래의 빈고농이 령도기관에서 우세를 차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중농과 련합하는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나는 중앙에서 속히 지시를 내려 전체 농촌인구중에서 한차례 대규모적인 사회주의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당내의 우경기회주의사상을 비판하며 일부 간부들의 본위주의사상을 비판하며 부유중농의 자본주의사상과 개인주의사상을 비판하며 지주, 부농의 반혁명행위를 타격하는데 찬성한다. 그 주요한 예봉은 동요하는 부유중농에게 돌려 그들의 자본주의사상에 대하여 도리를 따지는 방법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앞으로 구, 향 간부의 정풍에 배합하고 제3류사의 정돈에 배합하여 매년 한차례씩 도리를 따지는 건정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합작사를 점차 공고히 하여야 한다. 농촌에서도 먼저 농민들로 하여금 《명방》을

하게 하여야 한다. 즉 의견을 제기하며 논의하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옳은것은 채납하고 그른것은 비판하여야 한다. 이것은 농촌의 정풍을 장악하도록 당지간부를 협조할 공작조가 상급에서 파견된 조건하에서 점차 수행하여야 한다. 성시와 마찬가지로 농촌에도 의연히 사회주의이나 자본주의이나 하는 이 두 길간의 투쟁이 존재한다. 이 투쟁은 매우 긴 시일이 걸려야만 철저한 승리를 달성할수 있다. 이것은 전반과도기의 임무이다. 농촌에서는 살림을 근검하게 할 문제를 합작사를 근검하게 꾸릴것과 같이 제기하여야 하며 나라를 사랑하고 합작사를 사랑할 문제를 집을 사랑할것과 같이 제기하여야 한다. 살림을 근검하게 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특히 부녀단체의 공작에 의거하여야 한다. 최근 몇해동안 350억근의 정량과 500억근의 구매량을 견결히 받아들여야 하며 이보다 적게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흉풍에 따라 적당히 조절할수는 있다. 농촌에서 해마다 증산하고 해마다 결량호가 감소됨에 따라 국가에서 농촌에 파는 량식수량도 해마다 감소되어야 한다. 성시에서도 량식판매량이 너무 많은데서는 적당히 감소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있을수 있는 긴급수요에 적응하도록 국가의 량폭예비를 해마다 증가시킬수 있다. 만일 850억근최우의 량폭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시장물가에 영향을 주게 되며 전반 국민경제계획을 순조롭게 수행하는데 영향을 주게 되며 긴급한 정황에 대처할수 없게 될것이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금년 추수전에 농촌에서 국가리익과

집체리익을 돌보지 않는 개인주의와 본위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하여야 한다.

반혁명이 있으면 꼭 숙청하여야 한다. 사람을 적게 죽여야 하지만 절대 사형을 폐지하지 말아야 하며 절대 대사를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 형기가 차서 석방된후 다시 죄를 범한자는 다시 체포하여 재차 판결하여야 한다. 사회의 류망, 불량배, 절도범, 살인범, 강간범, 탐오범, 사회질서파괴자, 엄중한 위법란기분자 등 엄중한 범죄자 및 공중이 악질분자라고 공인하는자는 반드시 징벌하여야 한다. 지금 정법부문의 어떤 공작인원들은 자기의 직책을 잊고 응당 체포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람도 체포처리하지 않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경한 죄를 중하게 판결하는것도 옳지 않거니와 중한 죄를 경하게 판결하는것도 옳지 않다. 현시기에 있어서 위협은 후자에 있다. 도박을 금지하여야 한다. 회도문에 대한 취체를 엄격히 실시하여야 한다. 우파학생두목은 철저히 비판하여야 하되 일반적으로는 원단위에 남겨두고 관제교육하면서 《교원》노릇을 하게 하는것이 좋다. 이상의 몇가지는 과도기에 적용되는것으로서 모두 성위, 시위, 자치구당위에서 책임져야 한다. 중앙의 정책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조건하에서 지방의 정법, 문교 부문에서는 성위, 시위, 자치구당위와 성, 시, 자치구 인민위원회의 지시를 들어야 하며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하자는것은 하나의 총제목이다. 이것을 늘 강조하여 습관화되면 헤사롭게

생각하게 된다. 인민내부의 모순을 해독하고 해설할 수 있으며 약간의 문제를 정확히 처리하여 효과를 거두고 경험을 얻으면 더는 두렵지 않게 된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이른바 인민내부모순을 정확히 처리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당이 이전부터 늘 말하여 오던 그 균중로선을 걷는 문제이다. 공산당원은 균중과 잘 상의하여 일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어느때나 균중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당과 균중과의 관계는 마치 고기와 물과의 관계와 같다. 만일 당과 균중과의 관계가 잘 되지 못한다면 사회주의제도가 건립될 수 없으며 사회주의제도가 건립되었다 하더라도 공고화될 수 없다.

군대에서는 여러차례 정풍을 하여 3대기풍, 8항주의를 실시하였고 군사, 정치, 경제 3대민주를 실시하였으며 전시에는 반에 호조조를 건립하였고 군관과 병사, 군대와 인민이 한덩어리가 되게 하였으며 사람을 때리고 욕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도주병을 총살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때문에 사기가 왕성하며 천하무적으로 되었다. 총을 든 군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째서 공장, 농촌, 기관, 학교들에서는 민주를 발양할 수 없으며 억압의 방법이 아니라 설복의 방법으로 자기의 문제(모순)를 해결할 수 없겠는가?

제국주의도 무섭지 않는데 어째서 백성이 무섭겠는가? 백성을 무서워하며 인민군중은 경우가 밝지 않으니 억압하여야만 하고 설복할 수는 없다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은 진정한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정풍가운데서 변절자나 엄중한 위법란기분자를 제

한회의 모든 당원, 단원들에 대하여서는 보호하여야 하며 그들이 착오와 결함을 시정하고 공작방법을 개선하며 공작능력을 제고하며 정치수준을 제고하며 사상수준을 제고하도록 힘껏 성심성의로 도와주어야 한다. 공산당원은 반드시 생기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건강한 혁명적의지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곤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철불굴의 의지로 온갖 곤난을 극복해나가는 정신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개인주의, 본위주의, 절대적 평균주의, 자유주의를 극복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명실이 부합되는 공산당원이 아니다. 생기와 혁명적의지를 잃었고 착오를 고집하는 일부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무차 교육해도 고치지 않는 경우에 당위에서 정당한 처리를 하여야 하며 엄중한자에 대하여서는 기물적처분을 주어야 한다.

성위, 시위, 자치구당위의 제1서기는(기타 서기들도) 반년 내지 1년동안에 직접 한 합작사, 한 공장, 한 상점, 한 학교를 연구하여 지식을 얻으며 발언권을 얻음으로써 전반 공작을 지도하는데 리롭게 하여야 한다. 지구, 현, 구의 당위서기들도 이렇게 하여야 한다.

이번에 자산계급우파를 비판하는 의의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정치전선과 사상전선에서의 위대한 사회주의혁명이다. 1956년에 있는 경제전선에서의(생산자료소유제면에서의) 사회주의혁명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며 그것이 공고하지도 못하다. 웅그리아 사건이 곧 그 증명으로 된다. 이밖에 반드시 정치전선과 사상전선에서의 철저한 사회주의혁명이 있어야 한



다. 공산당은 민주당파, 지식계, 공상계의 일부분 사람(우파)가운데서는 물론 정도권이 있을수 없다. 그것은 그들이 적이기때문이다. 다수 사람(중간파)가운데서는 그 정도권이 공고하지 못하다. 어떤 문교단위는 아직 당의 정도가 전혀 수립되지 않았다. 반드시 중간파에 대한 공고한 정도권을 수립하여야 하며 될수 있는대로 조속히 그것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 자산계급과 자산계급지식분자들은 공산당에 대하여 진심으로 복종하지 않으며 그들중의 우파분자들은 우리와 겨루어 불 결심을 하고있다. 겨루어보아 실패한 뒤에야 그들은 자기들의 대세가 이미 기울어졌으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것이다. 이때에야 그들가운데의 다수 사람(중간파 및 일부분 우파)들이 점차 수그러들것이며 점차 자기의 자산계급립장을 버리고 무산계급측으로 넘어오게 될것이며 무산계급에 의거하여 살아가려는 결심을 내리게 될것이다. 소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고치지 않을것인데 그들에 대하여서는 자기의 반동관점을 관측에까지 가지고 들어가게 내버려둘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그들이 기회만 있으면 또 풍랑을 일으키리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이 투쟁은 지금으로부터 아마 10년 내지 15년은 더 지속될것이다. 잘하면 이 시간이 단축될수도 있다. 10년이나 15년후에는 계급투쟁이 없어진다는것은 물론 아니다. 세계에 제국주의와 자산계급이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의 반혁명분자와 자산계급우파분자들의 활동은 언제나 계급투쟁의 성질을 띠는것만아니라 언제나 국제상

의 반동파들과 서로 호응하게 된다. 목전의 투쟁은 한 동안의 필요한 시기가 지난 후에는 질풍폭우의 형식으로부터 화풍세우의 형식으로 전변시켜야 하며 그리하여 사상면에서 더욱 심각히, 더욱 철저히 진행되게 하여야 한다. 결정적인 첫 전투는 지난 몇달동안에, 주로는 최근 두달동안에 있었으며 이미 우리가 승리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몇달동안 깊이 파내야 완전한 승리를 거둘수 있으므로 절대 소홀하게 철병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사회주의는 가망이 없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전 인민적인 대변론은 혁명과 건설 공작이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은가(혁명과 건설의 성과가 주요한것인가 주요한것이 아닌가), 사회주의길을 걸어야 하는가 걷지 말아야 하는가, 공산당이 정도하여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무산계급전정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민주집중제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 나라의 외교정책이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은가 하는 등의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하였거나 해결하고있다. 이러한 전 인민적인 대변론이 일어나게 되는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대변론이 쏘련에서는 20년대에 발생하였었으며(한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뜨로쯔끼 등과 변론하였다(1).) 우리 나라에서는 50년대의 일곱번째해에 발생되었다. 만일 우리가 이 변론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전진할수 없을것이다. 우리가 변론에서 승리하면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개

조와 사회주의건설은 대대적으로 촉진될 것이다. 이것은 세계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건이다.

우리 나라에서 현대화한 공업의 기초와 현대화한 농업의 기초를 건립하자면 지금으로부터 10년 내지 15년이 더 걸려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직 10년 내지 15년동안 사회생산력이 비교적 충분한 발전을 가져와야만 우리의 사회주의적 경제제도와 정치제도가 자기의 비교적 충분한 물질적기초를 얻었다고 할수 있으며(지금 이 물질적기초는 아직 매우 불충분하다.) 우리의 국가(상층건축)가 충분히 공고화되었다고 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사회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건립되었다고 할수 있다. 아직은 완전히 건립되지 않았으며 아직 10년 내지 15년의 시일이 더 걸려야 한다. 사회주의를 완전히 건립하기 위하여서는 공인계급은 자기의 기술간부대오가 있어야 하며 자기의 교수, 교원, 과학자, 신문기자, 문학자, 예술가, 맑스주의리론가의 대오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방대한 대오로서 사람이 적어서는 안된다. 이 임무는 금후 10년 내지 15년내에 기본상 해결되어야 한다. 10년 내지 15년이후의 임무는 생산력을 가일층 발전시키며 공인계급 지식분자의 대오를 가일층 확대하며 그리하여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 점차 과도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준비하며 8~10차의 5개년 계획으로써 경제면에서 미국을 따라잡고 능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산당원, 청년단원과 전체 인민은 모두가 이 임무를 알아야 하며 모두가 학습에 힘써야 한다. 조건이 있는 사람은 기술학습, 업무학습, 리론학

습에 노력하여 공인계급 지식분자의 새 부대(이 새 부대에는 구사회에서 넘어온, 진정으로 개조를 거쳐 공인계급의 립장에 튼튼히 선 모든 지식분자들이 포함된다.)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것은 력사가 우리에게 부여한 위대한 임무이다. 이 공인계급 지식분자의 방대한 새 부대가 형성되기전에는 공인계급의 혁명사업이 충분히 공고화될수 없는것이다.

중앙과 성, 시 두급에서 정풍을 하고 우파를 비판하고 중간상태의 균중을 쟁취하는 이 세가지 임무면에서 경험을 얻은것은 중대한 일이다. 이 경험이 있으니 일은 험하게 되었다. 금후 몇달내의 임무는 지구, 현 두급에서 경험을 얻도록 가르쳐주는것이다. 지금으로부터 금년겨울과 명년봄까지 점차 구, 향 두급에서 경험을 얻도록 가르쳐주어야 한다. 성시에서는 구급, 공장, 광산의 기층과 가도거민위원회에서 경험을 얻도록 가르쳐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앞이 확 트이게 될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균중로선이 빈말로 되지 않을것이며 인민내부모순이 비교적 쉽게 해결될것이다.

성위, 시위, 자치구당위의 제1서기와 당위전체는 이 위대한 투쟁을 완전히 장악하여야 한다. 민주당파(정치계), 교육계, 신문계(모든 신문과 잡지를 포함한다), 과학기술계, 문예계, 위생계, 공상계의 정치개조공작과 사상개조공작을 완전히 자기 수중에 장악하여야 한다. 각 성, 시, 자치구에서는 자기의 맑스주의 리론가, 자기의 과학가와 기술인재, 자기의 문학가, 예술가, 문예리론가를 가져야 하며 자기의 신문과 잡

지의 우수한 편집과 기사를 가져야 한다. 제1서기는 (기타 서기들도) 회피하지 말고 신문과 잡지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하며 신문과 잡지를 저마다 적어도 각각 다섯가지씩은 보면서 그것들을 대비해보아야 한다. 그래야 자기의 신문과 잡지를 개진할수 있을것이다.

우파를 비판하는 일은 전체 민주당파, 지식계, 공상계에 대하여 진동이 아주 크다. 그들가운데의 다수(중간파)는 사회주의길과 무산계급의 령도를 접수하는 경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보아야 한다. 이런 경향은 각 부류의 사람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다. 그들이 진정으로 사회주의길을 접수하며 진정으로 무산계급의 령도를 접수한다는 이 기본점에 있어서 아직은 경향을 가지고있는데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런 경향이 있는 한 그들은 자산계급적립장으로부더 공인계급적립장으로 이르는 긴 행정에서 첫발자국을 떼것으로 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만일 1년이란 정풍기간(금년 5월부터 명년 5월까지)을 거치게 되면 한걸음 크게 내디디게 될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과거에는 사회주의혁명에 참가하려는 정신적준비가 없었다. 이 혁명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돌연적인것이다. 공산당원들중에도 그러한 상태의 사람들이 일부 있다. 우파를 비판하며 정풍을 하는것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광범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심각한 사회주의교육으로 될것이다.

대자보는 상점의 문시부, 농촌(구, 향), 소학교, 군대의 영과 련을 제한외에는 어디서나 다 사용할수 있다. 우리 나라의 조건하에서 대자보는 무산계급에게

유리하고 자산계급에게 불리한 투쟁형식이다. 대자보를 무시워하는것은 근거가 없는것이다. 고등학교에 있어서, 중앙, 성과 시, 지구, 현의 기관 및 성시의 대기업에 있어서 대자보, 좌담회, 변론회는 모순을 폭로하고 극복하며 사람들의 진보를 추동하는 아주 좋은 세가지 형식이다.

정풍과정에 그 어느때를 물론하고 생산과 공작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각지에서는 모든 소속단위들에서 정풍을 동시에 진행하여서는 안되고 기와 차례를 나누어 진행하여야 한다.

사나운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그시 꼴을 들이대고 견디여내야 한다. 한 단위를 놓고 말하면 약 2~3주일이면 고조가 지나갈것이며 따라서 우파를 반격하는 새로운 계단으로 들어갈수 있는것이다. 2~3주일 동안 각 단위의 령도자들은 우파들의 창궐한 진공에 대하여 지그시 꼴을 들이대고 듣기만 하고 반박하지 말며 정신을 가다듬고 분석연구하며 력량을 집결하면서 반공격을 준비하며 좌파를 단결하고 중간파를 쟁취하며 우파를 고립시켜야 한다. 이것은 아주 좋은 맑스주의적책략이다.

대명대방계단(정돈하는 한편 개정도 한다), 우파를 반격하는 계단(정돈하는 한편 개정도 한다), 치중하여 정돈개정하는 계단(대명대방을 계속한다), 매개인이 문건을 연구하며 비평, 반성하며 자기를 제고하는 계단——이것이 중앙, 성과 시, 지구, 현 4급의 정풍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네개 계단이다. 이밖에 또 성

시와 농촌의 기층에서도 정풍을 한다. 이렇게 한차례 정풍을 하면 전당과 전국 인민의 면모가 틀림없이 일신될것이다.

8월에 성위, 시위, 자치구당위급과 지위급의 제1서기들은 9월 중앙전회의 준비를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떼내여 농촌의 합작사정돈, 생산, 량식 등 문제를 료해하기 바란다. 40조농업요강에 대하여 수정할것이 없는지 조목마다 연구하기 바란다.

## 주 해

- [1] 《쓰련공산당(불쉐위크) 역사간략독본》 제9장 제5절을 참조하라.

## 혁명의 촉진파가 되자\*

(1957년 10월 9일)

이번 회의는 아주 잘 열리었다. 이렇게 확대된 중앙전회는 성위의 동지들과 지위의 동지들이 참가하였으므로 실지는 3급간부회의이다. 따라서 방침을 명확히 하며 경험을 교류하며 의지를 통일하는데 좋은 점이 있다.

이런 회의는 아마도 1년에 한번씩은 소집하는것이 필요할것이다. 그것은 우리 나라처럼 이렇게 큰 나라에서는 사업이 매우 복잡하기때문이다. 작년에는 이런 회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를 보았다. 즉 우경이 나타나게 되었다. 재작년에는 고조가 일어났으나 작년에는 해이하어졌다. 물론 작년에는 8차대회를 열었으므로 시간도 없었다. 앞으로 이런 회의를 소집할 때는 소수의 현위서기들과 일부 대성시의 구위서기들도 약간 참가시키는것이 좋겠다. 이를테면 100명쯤 더 참가시켜도 될것이다. 나는 각 성에서도 전 성적인 3급 혹은 4급간부회의를 열고 그 회의에 일부분의 합작사간부들도 참가시켜서 문제를 푼뚝히 토론할것을 건의한다. 이것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제8기중앙위원회 확대된 제3차전체회의에서 하신 강화이다.



이 첫째이다.

둘째, 정풍에 대하여 말하려 한다. 대담하게, 철저히하게, 건결하게 개방하여야 하며 대담하게, 철저히하게, 건결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할 결심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파를 대대적으로 반격하여야 한다는것을 하나 더 가하여야 하는가? 가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우파에 대한 반격이 이미 궤도에 올랐으며 어떤 지방에서는 이미 끝났기때문이다. 지금의 중점은 기층에서의 개방과 기층에서의 개정이다. 즉 현, 구, 향 3급에서 쟁명하고 개방하며 정돈하고 개정하는것이다. 중앙 및 성, 시급에서는 아직 일부 부문에서 더 개방하여야 하겠지만 그러나 개정하는 문제가 중점이다.

금년에 군중들은 대명, 대방, 대변론, 대자보라는 혁명형식, 군중투쟁의 형식을 창조하였다. 지금 우리의 혁명의 내용은 자기의 매우 적합한 형식을 찾게 되었다. 이러한 형식이 과거에는 나타날수 없었다. 과거에는 전쟁, 5대운동[1], 3대개조를 진행하고있었으므로 이렇게 여유있게 변론하는 형식이 나타날수 없었던것이다. 그 당시에는 1년동안이나 사실을 내놓고 도리를 따지면서 여유있게 변론하는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지금은 허용된다. 우리는 지금의 군중투쟁의 내용에 알맞으며 지금의 계급투쟁의 내용에 알맞으며 인민내부모순을 정확히 처리하는데 알맞는 이러한 형식을 찾게 되었다. 이 형식을 장악하였으므로 앞으로의 일이 훨씬 더 쉽게 되었다. 원칙적시비문제나 일반적

시비문제나 혁명문제나 건설문제나 다 이 쟁명, 개방, 변론의 형식으로 해결할수 있을것이며 또한 그것이 비교적 빨리 해결될것이다. 좌파들은 중간파들과 더불어 쟁명, 개방, 변론할수 있을뿐만아니라 또한 완전히 공개적으로 우파들과 더불어 쟁명, 개방, 변론할수 있으며 농촌에서는 지주, 부농들과 더불어 쟁명, 개방, 변론할수 있다. 《추태》가 드러날가봐 두려워하지 말고 《공산당의 세상》이라느니, 《공산당은 자리를 내놓으라》느니, 《가마에서 내리라》느니 뭐니 하는것들을 신문에다 공개적으로 실어야 한다. 금방 《가마에 올라앉자》 우파들은 우리를 보고 《가마에서 내리라》고 한다. 이런 대명, 대방, 대변론, 대자보의 형식은 군중의 주동성을 발휘시키고 군중의 책임감을 높이는데 가장 적합하다.

우리 당은 민주의 전통을 가지고있다. 민주의 전통이 없이는 이런 대명, 대방, 대쟁론, 대변론, 대자보를 접수할수 없다. 연안정풍때에 필기도 하고 자아반성도 하고 서로 방조하기도 하면서 7~8명이 한 소조로 되어 몇달동안을 정풍하였다. 내가 접촉한 사람들은 모두 그때의 정풍에 감사를 드리면서 주관주의를 개변하기 시작한것이 그때부터라고 말하는것이였다. 토지개혁때 일이 있으면 군중들과 함께 상론하고 사상을 타개하였다. 우리 군대내에서는 련장이 전사들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전사들과 평등하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연안정풍, 토지개혁, 군대내에서의 민주생활 그리고 또 《3사3정》<sup>(2)</sup>, 그후의 《3반》, 《5반》과 지식분자

에 대한 사상개조 등이 모든것들속에는 풍부한 민주형식이 들어있다. 그러나 이렇게 대명, 대방, 대쟁론, 대변론을 진행하고나서 또 화풍세우의 방식으로 상론하고 계발하는 이러한 형식은 오직 오늘에 와서야 산생될 수 있는것이다. 이런 형식을 찾게 된것은 우리의 사업에 대단히 리로울것이며 따라서 령도간부가 주관주의, 관료주의, 명령주의(이른바 명령주의란 사람을 때리고 욕하고 강박적으로 집행하게 하는것을 말한다.)를 극복하고 군중과 한덩어리로 되기가 쉽게 될것이다.

우리의 민주전통은 금년에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다. 앞으로 대명, 대방, 대변론, 대자보 형식을 그냥 전해나가야 한다. 이런 형식은 사회주의적민주를 충분히 발휘시킬수 있다. 이러한 민주는 사회주의나라에만 있을수 있고 자본주의나라에는 있을수 없다. 이런 민주의 기초우에서는 집중이 약화되는것이 아니라 집중제가 더욱 공고히 되며 무산계급전정이 강화된다. 왜냐하면 무산계급전정은 광범한 동맹군에 의거하여야 하고 무산계급 한 계급의 힘만으로써는 불가능하기때문이다. 중국의 무산계급은 수효가 적어 겨우 천여만밖에 안된다. 그러므로 무산계급은 수억만의 빈농, 하중농, 성시빈민, 빈곤한 수공업자와 혁명적지식분자들에 의거하여야만 전정을 실시할수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전정을 실시할수 없다. 지금 우리가 그들의 적극성을 동원하였으므로 무산계급전정이 공고하여졌다.

셋째, 농업에 대하여. 농업발전요강40조는 이미 수정을 거쳤는데 오래지 않아 발급할것이다. 농촌에서

동지들이 변론과 토론을 한차례 잘 조직하기 바란다. 나는 일부 동지들에게 지구급에서도 농업계획을 세워야 하는가고 물었는데 그들은 역시 세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구급에서도 세워야 하는가? 역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향에서도 세워야 하는가? 역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합작사에서든 세워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다음과 같은 몇급의 계획이 있게 된다. 즉 성, 지구, 현, 구, 향, 합작사 등 6급의 계획이 있게 된다. 동무들이 이 농업계획을 중점적으로 틀어쥐고 속히 세우기 바란다. 계획과 계획은 같은 말인데 습관이 되었으면 계획이라 하여도 된다. 전면적계획을 세우고 평도를 강화하며 서기가 앞장서고 전당이 사를 꾸리는 것을 견지하여야 한다. 작년 하반기에는 전당이 사를 꾸리지 않았고 서기가 별로 앞장서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을 견지하여야 한다.

계획을 대체 어느때에 다 세울수 있는가? 나는 일부 동지들에게 물어보았는데 어떤 지방에서는 다 세웠고 어떤 지방에서는 채 세우지 못하였다. 지금 치중해서 하여야 할 것은 성, 지구, 현 3급인데 금년겨울이나 명년봄이면 다 세울수 있지 않겠는지? 만일 다 세우지 못한다면 명년에는 여하튼 다 세워야 하며 6급에서 모두 계획을 다 세워야 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몇해동안 쌓은 경험이 있고 전국농업발전요강40조도 비슷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농업발전요강40조, 성의 계획과 기타 각급의 계획을 모두 농촌에 가져가서 토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끝가지 계획을 한꺼번에 토

론하자면 너무 많으므로 기와 차례를 나누어 군중속에서 쟁명개방하며 변론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장원한 계획을 두고 말하는것이다. 계획을 세웠다가 앞으로 가서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경험을 몇해 더 쌓은 다음에 또 수정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40조》는 몇해후에 다시 수정하여야 한다. 수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보건대 대략 3년만에 조금 수정하고 5년만에 크게 수정하는것이 좋겠다. 계획이 있으면 어쨌든 없기보다는 낫다. 도합 12년인데 2년이 지났으니 이제 10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바싹 틀어쥐지 않는다면 《40조》에 규정된, 세가지 지구의 무당 량곡산량이 각각 400근, 500근, 800근에 도달하여야 한다는 계획 지표가 실현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바싹 틀어쥐면 완성될 가능성이 있는것이다.

내가 보건대 중국은 정경세작에 의거하여 살아야 할것이다. 앞으로 중국은 세계에서 단위면적산량이 가장 높은 나라로 되어야 할것이다. 어떤 현은 지금 벌써 무당산량이 1,000근에 달하였는데 반세기동안에 무당 2,000근으로 높일수 없겠는가? 앞으로 무당산량을 황하이북은 800근으로, 회하이북은 1,000근으로, 회하이남은 2,000근으로 할수 없겠는가? 21세기초에 가서 이 지표에 도달하자면 아직 몇십년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정경세작에 의거한다면 사람이 좀더 많다 해도 역시 먹고 살수 있는것이다. 내가 보건대 매인당 3무라는 땅은 너무 많은것 같다. 앞으로는 매인당 몇푼이면 넉넉히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생육은 그냥 절제하여야 한다. 나는 생육을 장려하려는 것은 아니다.

동지들은 농민들이 량식을 사용하는 실정을 알아보기 바란다. 축적이 있게 하기 위하여 근검하게 살림을 꾸리며 량식을 절약할 것을 제창하여야 한다. 국가에 축적이 있어야 하고 합작사에 축적이 있어야 하고 가정에 축적이 있어야 한다. 이 세가지 축적이 있으면 우리는 부유해지게 된다. 그렇지 않고 몽땅 다 먹어버린다면 어떻게 부유해질 수 있겠는가?

금년에는 풍작을 거둔 지방과 재해를 입지 않은 지방에서는 축적을 좀 증가하여야 한다. 풍작으로 흉작을 미봉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어떤 성의 합작사들에서는 공적금(5%), 공익금(5%), 관리비외에 생산비가 생산총액의 20%를 차지하며 그중에서 기본건설비용이 또 생산비의 20%를 차지한다. 나는 다른 성의 동지들과 상의해보았는데 그들은 기본건설비용이 좀 많은 것 같다고 하였다. 내가 오늘 동무들에게 말한 것은 다 건의성을 띤 의견이므로 할 수 있는 것이면 그대로 하고 할 수 없는 것이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성마다, 현마다 다 똑같이 하지도 말아야 한다. 동무들이 연구해보기를 바란다. 합작사의 관리비는 이전에 어떤 지방에서는 그 비율이 너무 컸는데 그것을 1%로 축소하여야 한다. 소위 관리비란 합작사간부들의 보조비와 사무비용이다. 관리비를 축소하고 농토기본건설비용을 증가하여야 한다.

중국사람은 기개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전국의

성시와 농촌의 매 사람들을 교육하여 모두다 원대한 목표를 가지게 하여야 하며 기개를 가지게 하여야 한다. 되는대로 막 두드러먹고 마시며 몽땅 먹어버리는 것을 기개라고 할수 있겠는가? 그것은 기개라고 할수 없다. 근검하게 살림을 꾸려야 하며 장원한 타산이 있어야 한다. 며느리를 본다든가 사람이 죽었다든가 하는 관혼상제에 출상을 크게 차리는것은 정말 필요없는 일이다. 이런데서 낭비를 하지 말고 절약하여야 한다. 이것은 낡은 습관을 개혁하는 문제이다. 이런 습관을 고치자면 대명대방을 하거나 혹은 소명소방을 하여 한바탕 변론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 도박문제가 있는데 이러한것을 이전에는 금지할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것은 오직 대명대방을 하여 변론을 거쳐야 고칠수 있는것이다. 나는 낡은 습관을 개혁하는것도 계획에 넣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4해를 제거하고 위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쥐, 참새, 파리, 모기 등 네가지를 소멸하는데 대하여 나는 매우 주의를 돌린다. 이제 10년밖에 남지 않았으니 금년에 준비를 하고 동원을 하여 명년봄에 착수하는것이 어떻겠는지? 그것은 파리가 바로 그때 생겨나기때문이다. 내 생각에는 이런것들을 소멸해버리는것이 좋겠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위생이 아주 잘 될것이다. 이것은 문화이다. 이 문화를 크게 제고시켜야 한다. 경쟁을 벌리고 기어이 그것들을 소멸해버려야 하며 사람마다 깨끗하고 위생을 잘 지켜야 한다. 성마다, 현마다 그 보조가 달라도 된다. 여하튼 앞으

로 누가 영웅인가를 알게 될것이다. 중국은 네가지가 없는 나라로 되어야 한다. 즉 쥐가 없고 참새가 없고 파리가 없고 모기가 없는 나라로 되어야 한다.

계획적생육도 10년규획을 세워야 한다. 소수민족 지구에서는 보급하지 말아야 하며 사람이 적은 지방에서도 보급하지 말아야 한다. 인구가 많은 지방이라 하더라도 시험적으로 해보고 점차적으로 보급하여 점차 보편적으로 계획적생육을 하게 되어야 한다. 계획적생육에 관하여서는 공개적으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것 역시 대명대방, 대변론을 진행할수밖에 없다. 인류는 생육에 있어서 완전히 무정부상태에 처해있으며 자신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있다. 앞으로 완전한 계획적생육을 하게 되자면 사회적력량이 없어서는 안되며 모두가 동의하고 모두가 다같이 하지 않으면 안되는것이다.

또 종합적계획문제가 있다. 내가 방금 말한것은 농업계획에 대한것인데 그밖에도 공업계획, 상업계획, 문화교육계획이 있다. 공, 농, 상, 학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 완전히 필요한바 종합하여 호상 배합되게 하여야 한다.

시험전을 가꾸는 경험은 보편적으로 보급시킬만하다. 현, 구, 향과 합작사의 령도간부들은 누구나 자그마한 시험전을 만들어가지고 다수확을 거둘수 있는가, 무슨 방법으로 거둘수 있는가를 실험해보아야 한다.

우리는 농업기술의 실정을 조사해보아야 한다. 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술을 배우지 않아서는 안되는것



이다. 정치와 업무는 대립물의 통일이다. 정치는 주요한 것이며 제1차적인것이므로 반드시 정치를 불문하는 경향을 반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치만 하고 기술이나 업무를 몰라도 안된다. 우리의 동지들은 공업을 하거나 농업을 하거나 상업을 하거나 문화교육사업을 하거나 모두 기술과 업무를 좀 배워야 한다. 이것도 10년규획을 세워야 할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 각 방면의 간부들은 모두 기술과 업무에 정통하도록 힘써으로써 능수가 되며 붉어도 지고 전공도 하여야 한다. 소위 먼저 전공하고 후에 붉어진다는것은 먼저 흰색이 되고 후에 붉은색이 된다는것으로서 그릇된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흰색이 되려는것이고 후에 붉은색이 된다는것은 공담에 지나지 않기때문이다. 지금 일부 간부들은 붉어지려는 사상마저 없고 부농사상을 가지고있다. 일부 사람들은 흰색이다. 페킨대 당내의 우파는 정치상에서는 흰색이며 기술상에서도 전공하지 않는다. 일부 사람들은 회색이다. 또 일부 사람들은 분홍색이다. 우리의 오성붉은기와 같이 그렇게 정말 진붉은 사람은 좌파이다. 그러나 붉기만 해서도 안된다. 업무도 알아야 하고 기술도 알아야 한다. 지금 많은 간부들은 그저 붉기만 하고 전공은 하지 않으며 업무를 모르고 기술을 모른다. 우파들은 우리가 령도를 할수 없으며 《문외한은 능수를 령도할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우파들을 반박하여 우리가 능히 령도할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능히 할수 있다고 하는것은 정치상에서 능히 할수 있다는것이다. 기술에 대하

여 말한다면 우리는 아직 모르는것이 많다. 그러나 기술이라는것은 배울수 있는것이다.

무산계급은 자기의 방대한 기술대오와 이론대오가 없이는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없다. 우리는 이 10년내로(과학규획도 12년이니 아직 10년이 남아있다.) 무산계급의 지식분자대오를 건립해야 한다. 우리의 당원파당외적극분자들은 모두 무산계급의 지식분자로 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각급, 특히 성, 지구, 현 3급에서는 무산계급의 지식분자를 배양하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났는데도 인재는 배양해 내지 못하게 될것이다. 중국에는 《나무는 10년이 걸려야 재목이 되고 사람은 100년이 걸려야 인재가 된다》는 속담이 있다. 사람은 100년이 걸려야 인재가 된다고 하는데 90년을 줄여서 10년동안에 인재를 배양해내야 한다. 나무는 10년이 걸려야 재목이 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남방에서는 25년이 걸려야 하고 북방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시일이 걸려야 한다. 오히려 10년동안에 인재를 배양해낸다는것이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이미 8년을 경과하였는데 10년을 더하여 18년이면 맑스주의사상을 가진 공인계급의 전문가대오를 기본상 육성할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10년후에는 이 대오를 확대하고 제고하여야 한다.

농업과 공업과의 관계를 놓고 말한다면 물론 중공업을 중심으로 하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 점은 추호도 의심할바 없으며 조금도 동요할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그 전제하에서 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병진시켜야 하며 그리하여 현대화한 공업과 현대화한 농업을 점차 건립하여야 한다. 이전에 우리는 우리 나라를 공업국으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늘 말하여 왔는데 기실 거기에는 농업의 현대화도 포함되어있는 것이다. 지금은 치중하여 농업을 선전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소평동지도 말하였다.

넷째, 두가지 방법에 대하여. 일을 하는데는 적어도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한가지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비교적 더디고 비교적 못한것이고 한가지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비교적 빠르고 비교적 좋은것이다. 하나는 속도문제이고 하나는 질문제이다. 한가지 방법만 고려하지 말고 항상 두가지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폐컨대 철도를 부설할 때 선로를 선택하는데 몇가지 방안을 작성하여 몇갈래의 선로중에서 어느 하나를 골라야 한다. 몇가지 방법을 비교해볼수 있는데 적어도 두가지 방법을 비교해볼수 있다. 폐컨대 대명대방을 할것인가 아니면 소명소방을 할것인가? 대자보를 쓰게 할것인가 아니면 대자보를 쓰지 못하게 할것인가? 이 두가지 방법중에서 대체 어느 방법이 더 좋은가? 이러루한 문제는 대단히 많다. 그런데 개방하지 못하는것이 문제다. 북경에 고등학교가 34개나 있는데 어느 학교에서도 개방하지 못하였으며 어느 한 학교에서도 통쾌하게 개방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자기 몸에 불을 다는 문제이기때문이다! 개방하게 하려면 충분히 설득하여야 하며 또한 상당한 압력을 가하여야 한다. 즉 공개적으로 호소하고 많은 회의를 열어 장군을

침으로써 《부득이 량산에 오르게》 하여야 한다. 이전에 혁명할 때 이런 방법이요, 저런 방법이요, 이런 정책이요, 저런 정책이요 하며 당내에 갈지 않은 의견이 매우 많았으나 결국 우리가 정황에 비교적 적합한 정책을 취하였기때문에 항일전쟁시기와 해방전쟁시기에는 이전의 그 어느 시기보다도 진보하였던것이다. 건설의 방침도 이렇게도 할수 있고 저렇게도 할수 있는데 우리는 역시 정황에 비교적 적합한 방침을 취하여야 한다.

쏘련의 건설경험은 비교적 완전하다. 완전하다고 하는데는 착오를 범한것도 포함되어있다. 착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완전하다고 할수 없다. 쏘련을 따라배운다고 해서 모든것들을 덮어놓고 다 그대로 옮겨오는것은 아니다. 교조주의는 덮어놓고 다 그대로 옮겨온다. 우리는 교조주의를 비판한후에 쏘련을 따라배울것을 제창하였기때문에 위험이 없다. 연안정풍후에, 7차대회후에 우리는 쏘련을 따라배울것을 강조하였는데 이렇게 한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없었으며 유리하였다. 혁명면에서는 우리에게 경험이 있다. 건설면에서는 우리는 이제 첫시작에 불과하며 8년밖에 안된다. 건설에 있어서 우리는 성적이 주요하지만 착오가 없는것은 아니다. 착오는 앞으로도 범할수 있겠지만 좀 덜 범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쏘련을 따라배우는데는 쏘련의 착오를 연구하는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쏘련의 착오면을 연구하면 굽은길을 덜 걸을수 있다. 우리는 쏘련이 걸은것과 같은 그런 굽은길을 걸지 않고 쏘련보다 속

도가 더 빠르게, 쓰런보다 질이 더 좋게 할수 없겠는가? 이 가능성을 쟁취하여야 한다. 켈를 들면 우리가 3차의 5개년계획 또는 좀더 긴 기간에 강철산량을 2,000만톤에 달하게 할수 없겠는가? 노력하면 가능한것이다. 그렇게 하자면 소형강철공장을 많이 세워야 한다. 내가 보건대 년산량 3만~5만톤, 7만~8만톤의 강철공장들을 많이 세우는것이 매우 쓸모가 있을것 같다. 그리고 년산량 30만~40만톤의 중형강철공장도 세워야 한다.

다섯째, 작년에는 몇가지를 쓸어버렸다. 한가지는 많이, 빨리, 좋게, 절약하면서 한다는것을 쓸어버렸다. 많이 한다는것을 버렸고 빨리 한다는것을 버렸으며 좋게 하고 절약한다는것도 결달아 쓸어버렸다. 내가 보건대 좋게 하고 절약한다는데 대하여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데 많이 하고 빨리 한다는데 대하여서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며 일부 동지들은 그것을 《너무 급격히》 하는것이라고 한다. 원래 좋게 하고 절약한다는것은 많이 하고 빨리 한다는것을 제한하는것이다. 좋게 한다는것은 질이 좋아야 한다는것이고 절약한다는것은 돈을 적게 쓴다는것이며 많이 한다는것은 일을 많이 한다는것이고 빨리 한다는것도 역시 일을 많이 한다는것이다. 이 구호자체가 바로 그자체를 제한하고있는것이다. 왜냐하면 좋게 하고 절약하면서 한다고 하였으니 질도 좋아야 되고 돈도 적게 써야 하는만큼 실제에 맞지 않게 많이 하고 빨리 하는것은 불가능하게 되기때문이다. 내가 기쁘게 생각하는것은 이 회의에서 한두어 동무가 이 문제에 언급하였다

는 점이다. 그리고 나는 신문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글을 한편 보았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주관주의적으로 많이, 빨리, 좋게, 절약하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사구시적으로 실제에 알맞게 많이, 빨리, 좋게, 절약하면서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쨌든 될수 있는 한 좀더 많이, 좀더 빨리 하도록 쟁취하려 하며 단지 주관주의적인 소위 많이, 빨리 한다는것만을 반대한다. 작년 하반기에 한바탕 바람이 불어 이 구호를 쓸어버렸는데 나는 그것을 회복시키고저 한다. 가능성이 있는지? 모두들 연구해보기 바란다.

그리고 농업발전요강40조도 쓸어버렸다. 이 《40조》는 작년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지금 또 《복벽》하였다.

그리고 또 추진위원회를 쓸어버렸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적이 있다. 공산당중앙위원회, 각급 당위원회 그리고 국무원, 각급 인민위원회——총적으로 말해서 《회》가 매우 많은데 그중에서도 주요한것은 당위원회이다——는 그 성질로 보아 구경 추진위원회인가 아니면 축퇴위원회인가? 마땅히 추진위원회로 되어야 한다. 내가 보건대 국민당은 축퇴위원회이고 공산당은 추진위원회이다. 작년의 그 바람이 쓸어버린 추진위원회를 지금 회복시키는것이 어떻겠는지? 만일 동무들이 모두다 회복하는것을 찬성하지 않고 기어이 축퇴위원회를 조직하려 한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퇴하려 하는데는 나도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보면 모두다 추진하려 하며 아무도 축퇴하여야 한다고

연설한 사람은 없다. 우리를 축퇴시키려는 사람들은 바로 그 우파 장백균-라퉁기동맹이다. 그 어떤것이 확실히 너무 빨리 나아갔고 적당하지 않게 나아갔다면 그것은 잠시 국부적으로 축퇴시켜도 무방할것이다. 다시말하면 한걸음 양보하며 한걸음 늦추어도 무방할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총적방침은 언제나 축퇴하는것이여야 한다.

여섯째, 무산계급과 자산계급간의 모순, 사회주의길과 자본주의길간의 모순, 이것은 의심할바없이 목전 우리 나라 사회의 주요모순이다. 지금 우리의 임무는 과거와 다르다. 과거에는 주로 무산계급이 인민대중을 령도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봉건주의를 반대하는것이였는데 그 임무는 이미 끝났다.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 주요모순이 무엇인가? 지금은 사회주의혁명을 하고있고 혁명의 예봉이 자산계급에 들러지고있으며 동시에 소생산제도를 변경하고있는만큼, 즉 합작화를 실현하고있는만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 집체주의와 개인주의간의 모순, 개괄하여말하면 사회주의길과 자본주의길간의 모순이 주요모순이다. 8차대회의 결의에는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8차대회의 결의에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탁후한 사회생산력간의 모순이 주요모순이라고 한 대목이 있다. 이런 제기법은 옳지 않다. 우리는 7기2중전회에서 전국적으로 승리한후에 있어서 국내적으로는 공인계급과 자산계급간의 모순이 주요모순이고 국외적으로는 중국과 제국주의간의 모순이 주요모순이라고 제기하였다. 그후에 공개적으로 제

기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그렇게 하여왔다. 혁명이 이미 사회주의혁명으로 진입하였으며 우리가 하고있는 일은 다름아닌 사회주의혁명이다. 3대개조는 사회주의 혁명이며 주로는 생산자료소유제면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인데 이것은 이미 기본상 완성되었다. 이것은 첨예한 계급투쟁이다.

작년 하반기에 계급투쟁이 완화되었는데 그것은 의식적으로 완화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완화시키자 자산계급, 자산계급지식분자, 지주, 부농 그리고 일부분 부유중농들은 우리를 향하여 진공하여왔다. 이것은 금년의 일이다. 우리가 완화시키자 그들이 진공하였으니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 우리가 주동이 되었다. 인민일보의 한 사론에 썩여있다싶이 《나무는 고요히 서있으려 하나 바람이 몇지 않는다》(3). 그들이 바람을 일으키려 하였으니 말이다! 그들은 몇급의 태풍을 일으키려 하였다. 그러면 좋다, 우리는 그래서 《방풍림대》를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우파를 반격하는 것이며 정풍을 하는 것이다.

정풍에는 두가지 임무가 있다. 한가지 임무는 우파를 반격하는것인데 여기에는 자산계급사상을 반대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 한가지 임무는 정돈하고 개정하는 것인데 여기에도 두 로선간의 투쟁이 포함된다. 주관주의, 관료주의, 종파주의는 자산계급의것이다. 우리 당내에 이 세가지가 존재하고있는데 이것은 자산계급에게서 온것이다. 1, 2백년 이후에도 여전히 자산계급에게서 온것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그때에 가서는 아마



그렇다고 하기 어려울것 같다. 그때에도 관료주의, 주관주의가 있겠는가? 여전히 있을것인데 그것은 락후한 데서 온것이라고 하여야 할것이다. 사회에는 언제나 좌, 중, 우가 있으며 언제나 선진, 중간, 락후가 있다. 그때에 가서 누가 관료주의, 주관주의를 범한다면 그는 바로 락후한 사람이다.

정풍운동은 명년 5월 1일까지 하여야 하는데 아직도 시간이 적지 않게 있다. 5월 1일후에는 또 완화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보기에는 또 완화시켜야 한다. 완화시키는것은 우경인가? 내가 보건대는 우경이 아니다. 회의에다 비유할수 있는데 회의를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반년동안을 그냥 계속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버릴것이다. 그러므로 공작은 정확에 따라 때로는 긴장하게 하고 때로는 완화시켜야 한다.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큰 승리를 얻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하며 팽파리를 치고 북을 두드리면서 경축하였는데 우리가 좀 완화시키지 않는다는것은 말이 안되며 리유가 불충분하다. 우리는 소유제문제가 기본상 해결되었다고 하였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는 하지 않았다. 계급투쟁이 식멸되지는 않았다. 그렇기때문에 원칙적인 양보를 한것이 아니라 좀 완화시키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었던것이다.

내 생각에는 정풍을 명년 5월 1일까지 하고 하반기에 가서는 그만두는것이 좋겠다. 농촌에서 명년 하반기에 정풍과 변론을 한차례 더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그때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보아야 할것

이니 명년에 가서 다시 연구하는것이 좋겠다. 후년에는 한차례 하여야 한다. 만일 우리가 후년에도 정풍을 하지 않으며 몇해 정풍을 하지 않는다면 로우파, 신우파, 지금 나타난 우파들이 또 준동할것이며 일부 우적으로 기울어진 중우분자, 중간파, 심지어 일부 좌파도 변하게 될것이다. 세상에는 좀 늦추기만 하면, 좀 오래 늦추기만 하면 우경정서가 발작하며 좋지 못한 론의, 우파언론들을 내뿜는 그런 괴상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 군대에서는 3대기물, 8항주의에 대한 교육을 경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몇달동안만 이런 교육을 진행하지 않으면 해이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1년에 몇차례씩 기운을 북돋우어주어야 한다. 신전사가 오면 그들에게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로전사, 로간부라 하더라도 정풍을 하지 않으면 사상이 변하게 된다.

여기서 부대적으로 우리와 쓰딸린과의 부동한 견해를 좀 말하겠다. 우선 쓰딸린문제에서 우리와 흐루쇼브간에는 모순이 있다. 그가 쓰딸린을 그렇게도 형편없이 만드는데 대하여 우리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것은 쓰딸린을 너무도 모독하였기때문이다! 이것은 쓰딸린한 나라의 일인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일이다. 우리가 천안문앞에다 쓰딸린의 초상을 거는것은 전 세계 로동인민의 념원에 부합되는것이며 우리와 흐루쇼브간의 기본적분기를 보여주는것이다. 쓰딸린에 대하여서도 3, 7로 평가하여야 할것이 아닌가! 쓰딸린의 성적을 7로 치고 그 착오를 3으로 쳐야 할것이다. 이 비례도 꼭 맞는다고는 할수 없다. 착오가 2일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으며 또는 좀 더될수도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쓰딸린에게 있어서는 성적이 주요한것이고 결함과 착오는 차요한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흐루쇼브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있다.

그리고 또 평화적과도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흐루쇼브네들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있다. 우리는 그 어떤 나라의 무산계급정당이든지 첫째로는 평화, 둘째로는 전쟁, 이 두가지 구호를 내들어야 한다고 인정한다. 첫째로, 공산당은 통치계급에게 평화적전변을 요구하여야 한다. 레닌이 2월혁명으로부터 10월혁명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제기하였던 그 구호를 따라배워야 한다. 우리도 장개석에게 평화담판을 하자는 문제를 제기한적이 있다. 이 구호는 자산계급앞에서는, 적들앞에서는 방어적구호이다. 그것은 우리가 전쟁을 요구하지 않고 평화를 요구한다는것을 표시하는것으로서 균중을 쟁취하는데 유리하다. 이것은 주동적구호이며 책략적성질을 띤 구호이다. 그러나 자산계급은 결코 자진하여 정권을 내놓으려 하지 않을것이며 폭력을 사용하게 될것이다. 그렇게 되면 둘째구호를 취한다. 즉 그들이 싸우려 하며 첫총질을 한 이상 우리는 싸울수밖에 없다는것이다.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한다는 이것은 전략적구호이다. 기어이 평화적과도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사회당과 별로 다른 점이 없다. 일본 사회당이 바로 그러하다. 그들에게는 영원히 폭력적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단 한가지 구호뿐이다. 전 세계의 사회당이 모두 그러하다. 무산계급정당은 일반적으로

역시 두가지 구호가 있어야 한다. 즉 군자는 말로 하고 손을 쓰지 않는다는 이것이 첫째이고 둘째는 소인이 손을 쓰면 이 어른도 손을 쓴다는것이다. 이러한 제기법은 전면적인것이므로 폐단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어떤 나라의 당, 레컨대 영국 공산당은 평화적과도란 구호만 제기하고있다. 우리는 영국당의 평도자들과 이야기하여보았는데 아무리해도 설득시킬수가 없었다. 그들은 물론 교조하고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평화적과도를 어찌 흐루쇼브가 제기한것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벌써 제기한것인데!

이밖에 백화제방, 백가쟁명의 방침에 대하여 쏘련동지들은 이해하지 못하고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것은 사회주의범위내에서의, 인민내부에서의 백화제방, 백가쟁명이지만 반혁명은 이 범위에 들지 않는다. 물론 인민내부도 분화되어 일부분이 적으로 될수 있다. 예를 들면 우파는 지난날에는 인민이였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3분의 1의 인민에 3분의 2의 반혁명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들의 선거권을 박탈하여야 하는가? 법에 의하여 징벌하여야 하며 로동개조를 시켜야 할 개별적인 사람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는외에 일반적으로는 박탈하지 않는것이 좋다. 어떤 사람은 또한 정치협상회의위원을 시켜도 된다. 어쨌든 정치협상회의위원을 한 1,000명쯤 두어도 된다. 우파는 형식상에서는 의연히 인민내부에 속하지만 사실상에서는 적인것이다. 그들은 적이며 우리와 그들간의 모순은 적아모순이라는것을 우리는 공개적으로 선포한다. 왜냐하면 그

들이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의 령도를 반대하고 무산계급전정을 반대하기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섯가지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것은 독초이다. 인민내부에서는 그 어느때이든지 아무튼 독초가 좀 나오기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신을 가다듬고 공력을 들여 학습하여야 한다. 공력을 들여야 한다. 반드시 정신을 가다듬고 많은 공력을 들여야 한다. 지금 우리의 많은 동지들은 공력을 들이지 않으며 어떤 동지들은 공작후의 나머지 정력을 주로 트럼프, 마작, 춤추기 등에 돌리고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것 같다. 공작후의 나머지 정력을 주로 학습에 돌려야 하며 학습하는 습관을 양성하여야 한다. 무엇을 학습할것인가? 맑스-레닌주의를 학습하며 기술과학을 학습하며 자연과학을 학습하여야 한다. 또한 문학도 학습하여야 하는데 주로는 문예리론을 학습하여야 한다. 령도간부는 반드시 이것을 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또 신문학, 교육학 같은 학문도 좀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여 학문은 다방면인데 대체적으로 조금씩은 알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령도하여야 하기때문이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무슨 가라고 부르는가? 정치가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것들을 모르며 이런것들을 령도하지 않아서야 어찌되겠는가? 성마다 다 신문을 내는데 과거에는 그것을 틀어쥐지 않았다. 그리고 또 문예잡지, 문예단체도 있는데 지난날에는 이것도 틀어쥐지 않았다. 또 통일전선, 민주당파도 틀어쥐지 않았고 교

육도 틀어쥐지 않았다. 이런것들을 틀어쥐지 않은 결과 바로 이런 방면들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런것들을 틀어쥐자 몇달동안에 정황이 개변되었다. 라퉁기는 무산계급의 소지식분자가 어떻게 소자산계급의 대지식분자를 령도할수 있겠는가고 하는데 이 말은 틀린 말이다. 그는 자기를 소자산계급이라고 하나 기실 그는 자산계급이다. 무산계급의 《소지식분자》는 기어 이 자산계급의 대지식분자를 령도하여야 하는것이다. 무산계급에게는 자기를 위하여 복무하는 지식분자들이 있는데 그 첫사람이 맑스이며 그다음은 앵겔스, 레닌, 쓰딸린이고 그다음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며 이밖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무산계급은 가장 선진적인 계급으로서 전 세계의 혁명을 령도하여야 한다.

## 주 해

[1] 토지개혁, 항미원조, 반혁명숙청, 3반5반, 사상개조 등 5대운동을 가리킨다.

[2] 본 선집 제4권 《군대내부의 민주운동》의 주해 [1]을 보라.

[3] 서한사람 한영의 《한시외전》 권9에 있다.

## 군중의 대다수를 굳게 믿어야 한다

(1957년 10월 13일)

지금 정풍의 한가지 형식을 찾아내었는데 그것은 즉 대명, 대방, 대변론, 대자보이다. 이것은 군중들이 창조한 새로운 형식으로서 우리 당이 력사상에서 취하여 오던 형식과는 다르다. 연안정풍때에도 대자보가 더러 나오기는 하였지만 그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제창하지 않았다. 그후에 있는 《3사3정》에서도 이런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 혁명전쟁시기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급여를 내여주는 사람도 없고 총포를 제조하는 공장도 없었는데 우리 당과 군대는 전사들에게 의거하고 당지인민들에게 의거하고 군중에 의거하였다. 그러므로 장기간에 걸쳐 민주작풍이 형성되어있었다. 그렇지만 그때에는 지금과 같은 대명, 대방, 대변론, 대자보가 없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이였는가? 그때는 바로 치열한 전쟁시기여서, 계급투쟁이 것처럼 첨예한 시기여서 만일 내부에서 이렇게 크게 법석인다면 좋지 못할것이기 때문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대만성을 제외하고는 전국이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최고국무회의 제13차회의에서 하신 강화이다.

다 해방된 지금은 형편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형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새로운 혁명적내용은 새로운 형식을 요구한다. 지금의 혁명은 사회주의혁명이다.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 혁명은 이런 새로운 형식을 찾아내었다. 이런 형식은 재빨리 보급시킬수 있고 재빨리 배울수 있다. 몇달이면 배울수 있는것이다.

대명, 대방, 대변론, 대자보에 대하여 주로 두가지를 두려워하는것 같다. 하나는 혼란이 생길가봐 두려워하는것이다. 동무들은 혼란이 생기는것이 두렵지 않은가? 내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는것 같다. 다른 하나는 궁경에 빠질가봐 두려워하는것이다. 공장의 공장장, 합작사의 주임, 학교의 교장, 당위의 서기를 책임진 사람들은 개방하였다가 불이 달리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두려워한다. 지금은 설득시키기 쉽게 되었지만 지난 5월달에는 설득시키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북경의 34개 고등학교들에서는 여러번 회의를 열어서야 개방하게 되었다. 어째서 두려울것 없는가? 어째서 개방하는것이 유리한가? 대명대방을 하는것이 유리한가 아니면 소명소방을 하는것이 유리한가? 혹은 쟁명도 개방도 하지 않는것이 유리한가? 쟁명도 개방도 하지 않으면 불리하며 소명소방을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으니 역시 대명대방을 하여야 한다. 대명대방을 하여도 혼란은 생기지 않을것이며 궁경에 빠지게 되지도 않을것이다. 물론 개별적인 사람은 예외이다. 례를 들면 정령은 궁경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



고 풍설봉도 공산당을 대위축일 목적으로 불을 놓았으니 궁경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사람들은 소수로서 우파이다. 기타 사람들은 궁경에 빠지지 않을것이니 두려워할것 없다. 결국은 판료주의, 종파주의, 주관주의 따위 결합일것이니 있으면 고쳐야 할것이며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 토대는 군중의 대다수를 믿고 인민가운데의 대다수가 좋은 사람이라는것을 믿는것이다. 공인의 대다수는 좋은 사람이고 농민의 대다수는 좋은 사람이며 공산당이나 청년단 가운데의 대다수는 좋은 사람이다. 그들은 우리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려는것이 아니다. 자산계급 지식분자, 자본가, 민주당파성원의 다수는 개조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란이 생길가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혼란이 생기지 않을것이며 생길리도 없는것이다. 마땅히 다수를 믿어야 한다. 여기서 다수라고 하는것은 51%를 두고 말하는것인가? 아니다. 90% 내지 98%를 두고 말하는것이다.

사회주의혁명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혁명이다. 우리는 지난날 민주혁명밖에 해보지 못하였는데 그것은 자산계급성질의 혁명이여서 개체소유제를 파괴하지 않았고 민족자본주의적소유제를 파괴하지 않았으며 단지 제국주의적소유제, 봉건주의적소유제, 관료자본주의적소유제만 파괴하였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민주혁명이라는 이 고비를 넘을수 있었다. 그런데 이가운데는 철저한 민주혁명에 대하여 열성이 적어서 이 고비를 겨우 넘어온 사람들도 있고 열성을 다하면

서 이 고비를 넘어온 사람들도 있다. 지금은 사회주의 고비를 넘어야 하겠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 고비를 넘기 어려워한다. 례를 들어 호북성에는 3대를 내려오며 결식하면서 살아온 고농출신의 당원이 하나 있는데 해방후 그는 변신하여 잘살게 되었으며 구급의 간부로 되었다. 이번에 그는 사회주의를 대단히 싫어하며 합작화를 기어코 찬성하지 않으면서 《자유》로 할것을 주장하고 통구통소를 반대하였다. 지금 그 사람에 관한 전람회를 열고 계급교육을 진행하고있는데 그는 통곡을 하면서 착오를 고치겠다고 표시하였다. 어째서 사회주의고비는 넘기 어려운가? 그것은 이 고비가 자본주의적소유제를 파괴하고 그것을 사회주의적전민소유제로 개변시키며 개체소유제를 파괴하고 그것을 사회주의적집체소유제로 개변시키는것이기때문이다. 물론 이 투쟁은 여러해동안 진행될것이다. 대체 과도기가 얼마나 긴 시일을 요하는가는 아직은 확정하기 어렵다. 금년은 투쟁의 한개 고조기이다. 이런 고조가 황하에 해마다 큰 홍수가 지는것처럼 앞으로도 해마다 나타나겠는가? 내 생각에는 그렇게 될것 같지 않다. 그러나 이런 고조가 이후에도 나타나기는 할것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사회주의를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대체 얼마나 되는가? 나는 지방의 여러 동지들에게 알아보았는데 전국 총인구가운데서 사회주의를 찬성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약 10%를 차지한다. 여기에는 지주계급, 부농, 일부분의 부유중농, 일부분의 민족자산계급, 일부분의 자산계급지식분자, 일부분의

성시상층소자산계급이 포함되며 지어 개별적인 공인, 빈하중농도 포함되어있다. 6억 인구의 10%이면 얼마인가? 6,000만명이다. 이 수효는 적지 않은것이므로 경시하여서는 안된다.

우리가 군중의 대다수를 굳게 믿어야 한다고 하는데는 두가지 출발점이 있다. 첫째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회주의를 찬성하는 사람이 90%나 된다. 여기에는 무산계급, 농촌의 반무산계급인 빈농, 하중농 그리고 상층소자산계급의 다수, 자산계급지식분자의 다수 및 일부분의 민족자산계급이 망라되어있다. 둘째로, 사회주의를 찬성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사람들가운데서 극단적인 우파분자, 반혁명분자, 파피분자 그리고 파피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우 완고하여 아마도 완고한 머리를 가지고 관속에 들어가게 될자들을 망라한 가장 완고한 분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대략 2%좌우밖에 안될것이다. 전국 인구의 2%이면 얼마인가? 1,200만명이다. 1,200만명이 한데 모여 총을 든다면 그것은 대단한 군대일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천하가 큰 혼란에 빠지지 않는가? 그것은 그들이 이 합작사와 저 합작사, 이 농촌과 저 농촌, 이 공장과 저 공장, 이 학교와 저 학교, 공산당의 이 지부와 저 지부, 청년단의 이 지부와 저 지부, 민주당과의 이 지부와 저 지부에 분산되어있고 여기저기 분산되어있어 한데 모일수 없기때문이다. 그래서 천하가 큰 혼란에 빠지지 않는것이다.

사회주의혁명은 어느 범위에서의 혁명이며 어떤 계급들간의 투쟁인가? 무산계급이 로동인민을 령도하

여 자산계급과 진행하는 투쟁이다. 우리 나라의 무산계급은 수효가 비교적 적지만 광범한 동맹군을 가지고 있다. 이 동맹군가운데서 가장 주요한것은 농촌의 빈농, 하중농이며 그들은 농촌인구의 70%를 차지하거나 혹은 그보다 좀 더된다. 부유중농은 대략 농촌인구의 20%를 차지한다. 지금의 부유중농은 대체로 세 부분으로 나눌수 있다. 즉 합작화를 찬성하는 사람이 40%를 차지하고 동요하는 사람이 40%를 차지하며 반대하는 사람이 20%를 차지한다. 최근 몇해동안에 교육과 개조를 거쳐 지주, 부농도 분화되어 지금은 사회주의를 완전히는 반대하지 않는 사람도 있게 되었다. 자산계급과 자산계급지식분자들에 대하여서도 분석을 가하여야 하며 그들전체가 다 사회주의를 반대한다고 보지 말아야 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전국의 총인구가운데서 사회주의를 찬성하는 사람이 90%이다. 우리는 이 다수를 믿어야 한다. 공작을 통하여, 대변론을 통하여 또 8%를 쟁취할수도 있으니 찬성자가 98%로 된다. 사회주의를 건결히 반대하는 완고파는 2%밖에 안된다. 물론 등소평동지가 방금 말한바와 같이 이들은 여전히 매우 큰 역량이라는 점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부농은 농촌의 자산계급이므로 농촌에서는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별로 없다. 지주는 더구나 명성이 나쁘다. 매관자산계급은 오래전에 벌써 명성이 나빠졌다. 그러나 자산계급과 자산계급지식분자, 농촌의 상층소자산계급(부유중농), 성시의 상층소자산계급(비교적 부유한 소경영주들)과 그들의 지식분자들은 약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식분자들은 무슨 일에서나 그들이 없으면 안 되므로 잘 쓰이고 있다. 학교를 꾸리자면 대학교교수, 중소학교교원이 있어야 하며 신문을 꾸리자면 신문기자가 있어야 하며 극을 늘자면 연원이 있어야 하며 건설을 하자면 과학자, 공정사, 기술인원이 있어야 한다. 지금 지식분자가 500만명이고 자본가가 70만명이니 합하면 한 600만명가량 된다. 한집에 식솔이 다섯이라고 치면 오륙은 삼십 3,000만명이나 된다. 자산계급과 그들의 지식분자들은 비교적 높은 문화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우파들이 표리를 쳐드는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 라퉁기는 무산계급의 소지식분자는 소자산계급의 대지식분자인 자기를 령도할수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는 자기를 자산계급이라 하지 않고 기어이 소자산계급이라고 하며 소자산계급의 대지식분자라고 한다. 내가 보기에는 무산계급의 소지식분자뿐만아니라 글을 몇자 모르는 공인, 농민이라 하더라도 라퉁기보다 훨씬 더 고명하다.

자산계급과 그들의 지식분자, 상층소자산계급과 그들의 지식분자중의 우파와 중간파는 공산당과 무산계급의 령도에 대하여 달가와하지 않는다. 공산당을 옹호하고 헌법을 옹호하는 문제를 말하면 옹호한다고 말도 했고 손도 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리 달가와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구별이 있다. 우파는 대항하며 중간파는 절반쯤 달가와하고 절반은 달가와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공산당은 이것도 령도할수 없고 저것도

평도할수 없다고 하지 않는가? 이런 사상은 우파들에게만 있는것이 아니라 일부 중간파에게도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그들의 논법대로 하면 거의 끝장이 났으니 공산당은 외국으로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안되고 무산계급은 다른 별나라로 가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이것도 할수 없고 저것도 할수 없다고 하니 말이다! 그 어떤 일에 대하여 말하든지간에 우파들은 모두 당신네는 할수 없다고 한다. 이번에 하는 변론의 주요한 목적은 절반쯤 달가와하고 절반은 달가와하지 않는 중간파를 쟁취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회발전법칙이 도대체 어떤것인가를 알게 하며 그래도 문화수준이 높지 않은 무산계급의 말을 들어야 하고 농촌에서는 빈농, 하중농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것을 알게 하려는데 있다. 문화수준을 놓고 말하면 무산계급, 빈농, 하중농이 그들보다 못하나 혁명을 놓고 말하면 무산계급, 빈농, 하중농이 잘 안다. 이것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설복시킬수 없겠는가? 설복시킬수 있는것이다. 자산계급의 다수, 자산계급지식분자의 다수, 상층소자산계급의 다수는 설복시킬수 있다. 대학교교수, 중소학교교원, 예술가, 문학가, 과학자, 공정사 가운데의 다수는 설복시킬수 있는것이다. 그다지 달가와하지 않는 사람들도 몇해 지나면 차차 달가와하게 될것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옹호하고있는 이런 기초우에서 오늘 이때에 대명, 대방, 대변론, 대자보 같은 이런 형식이 나온것은 유익한 점이 많다. 이런 형식에는 계급성이 없다. 대명이요, 대방이요, 대자보

요 하는것은 우파들도 리용할수 있다. 《대》자는 우파들이 발명한것이므로 그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하겠다. 나는 금년 2월 27일에 한 강화에서는 대명이요, 대방이요, 대변론이요 하는 말들을 하지 않았으며 이 《대》자를 붙이지 않았다. 작년 5월에 우리가 여기에서 회의를 열고 백화제방, 백가쟁명에 관하여 말하였는데 백화제방은 그저 《방》자 하나이고 백가쟁명은 그저 《명》자 하나이지 《대》자를 붙이지 않았다. 그뿐만아니라 그것은 문학예술에서의 백화제방, 학술문제에서의 백가쟁명에 국한하였던것이다. 그후 우파들이 그것을 정치면에까지 끌고가서 어떤 문제나 다 쟁명개방하려 하면서 쟁명개방시기라 하였을뿐만아니라 대명대방을 하자고 하였다. 여기서 이 구호는 무산계급도 리용할수 있고 자산계급도 리용할수 있으며 좌파도 리용할수 있고 중간파도 리용할수 있고 우파도 리용할수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대명, 대방, 대변론, 대자보는 도대체 어느 계급에게 유리한가? 결국에는 무산계급에게 유리하고 자산계급우파에게 불리하다. 그 원인은 90%의 사람들이 나라가 혼란해지는것을 싫어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할것을 바라고있으며 사회주의를 찬성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10%의 사람들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고있고 사회주의를 건결히 반대하는 분자는 2%밖에 안되기때문이다. 그런데 혼란이 일어날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대명대방의 구호나 대명, 대방, 대변론, 대자보의 방식과 방법은 결국 다수 사람들에게 유리하며 다수 사람들의 자아개조에 유리하

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 두 길가운데서 결국은 사회주의에 유리하다.

우리는 혼란이 생길가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궁경에 빠질가봐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한다. 우파는 궁경에 빠지게 되지만 또 벗어날수도 있는것이다. 변증법에 의하면 우파도 양분될것이라고 나는 본다. 아마도 상당히 많은 우파분자들이 대세가 기울어짐에 따라 사상이 타개되고 천번되어 비교적 온순하여질것이며 그리 완고하지 않게 될것이다. 그때에 가서는 모자를 벗겨주고 우파라 부르지 않을것이며 또 공작도 배치해줄것이다. 소수의 극단적완고분자들은 한사코 회개하려 하지 않아서 우파모자를 쓴채 관속에 들어갈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해도 그리 대수로울것은 없다. 이러한 사람은 언제나 있기 마련인것이다.

우파들이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는데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사회주의를 찬성하는 사람이 90%이며 98%까지 쟁취할 가능성이 있다는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를 찬성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10%이고 그중 사회주의를 견결히 반대하는 완고파는 2%밖에 안된다는 이러한 실정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실정을 알면 파악이 있게 된다. 무산계급정당의 평도하에, 다수의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기초우에서 우리의 이 대명, 대방, 대변론, 대자보의 방법을 리용하면 웅그리아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수 있으며 지금 파란에서 발생하고있는것과 같은 그러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할수 있다. 우리는 파란에



사처럼 어느 한 잡지를 폐간시킬것 없이 다만 당보에 사론을 한두편 발표하면 된다. 문회보에 대하여 우리는 사론 두편을 써서 비평하였다. 첫번째사론은 철저히 못하고 문제를 투철히 말하지 못하였으므로 우리는 다시 두번째사론을 발표하였다. 그랬더니 문회보는 스스로 개정하였다. 신민보도 역시 스스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파란에서는 이렇게 할수 없었다. 그곳에서는 반혁명문제, 우파문제, 어느 길로 나아가는가 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데다가 또 자산계급사상에 대한 투쟁을 틀어쥐지 않았으므로 잡지 하나를 폐간시키자 소동이 일어났다. 나는 중국의 일은 잘되어나갈수 있다고 본다. 나는 종래로 비판하지 않는다. 혼란이 생길수 없으며 혼란이 생길가봐 두려워할것 없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소동은 좋은 일로 변할수 있다. 철저히 개방한 곳들에서는 귀신들이 한때 떠들어대고 한바탕 대혼란이 일어난 다음에는 일이 더 잘되어나갈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해방전에 산업공인이 400만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공인이 1,200만이다. 공인계급은 수효가 비록 적지만 오직 이 계급만이 전도가 있다. 다른 계급은 다 과도적계급으로서 모두 공인계급측으로 과도하게 될것이다. 농민은 제1보로는 집체화한 농민으로 과도하고 제2보로는 국영농장의 공인으로 변하게 된다. 자산계급은 소멸해야 한다. 그것은 사람을 소멸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계급을 소멸한다는 말이다. 사람은 개조해야 하는것이다. 자산계급지식분자를 개조하여야 하고

소자산계급 지식분자도 개조하여야 하며 또 점차 개조하여 무산계급 지식분자로 되게 할 수 있다. 나는 《가죽이 없어졌는데 털이 어디에 붙어있겠는가》, 만일 지식분자가 무산계급의 몸에 붙지 않는다면 《들보우의 군자》로 될 위험성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회에 가입하였다. 어떤 사람은 공회에 가입하였으니 공인계급으로 되지 않았는가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어떤 사람은 공산당에 가입하고도 공산당을 반대한다. 정령, 풍설봉은 공산당원으로서 공산당을 반대하지 않았는가? 공회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공인계급으로 된 것은 아니다. 아직도 개조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파의 성원, 대학교교수, 문학가, 작가들은 공인, 농민을 벗으로 사귀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큰 결점이다. 폐를 들어 비효통은 고급 지식분자들 속에서 벗을 200여명이나 사귀었는데 북경, 상해, 성도, 무한, 무석 등지에 다 그의 벗이 있다. 그는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의식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조직하고 이런 사람들을 대표하여 대명대방을 하였다. 그는 바로 이 점에서 랑패를 보았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걸 좀 고치는 것이 어떤가? 그 200명을 사귀지 말고 공인, 농민들 속에 가서 새로 200명을 사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식분자들은 공농군중 속에 가서 벗을 사귀어야 할 것이며 진정한 벗은 공인, 농민들 속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로공인을 벗으로 사귀어야 한다. 농민들 속에서는 경솔하게 부유중농을 벗으로 사귀지 말고 빈농, 하중농을 벗으

로 사귀어야 한다. 로공인들은 방향을 아주 똑똑히 가릴 줄 알며 빈농, 하중농들은 방향을 아주 똑똑히 가릴 줄 안다.

정풍에는 개방, 반격, 개정, 학습 등 네 계단이 있다. 즉 하나는 대명대방을 하는 계단이고 하나는 우파를 반격하는 계단이고 하나는 정돈개정을 하는 계단이며 마지막 하나는 맑스-레닌주의를 학습하고 화풍세우의 방식으로 소조회를 열고 비평과 자아비평을 전개하는 계단이다. 금년 5월 1일에 중공중앙에서 발표한 정풍문건에서는 화풍세우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주로는 우파들이 찬성하지 않았다. 그들은 질풍폭우의 방식으로 하자고 하였다. 그 결과는 유익한 점이 아주 많았다. 그 당시에 도 우리는 이 점을 예견하였었다. 그것은 연안에서 있던 정풍이 바로 그러하였기 때문이다. 화풍세우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결국에는 질풍폭우의 방식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에 가서는 결국 화풍세우의 방식으로 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개 공장에서 몇천장의 대자보가 나붙을 때는 그 공장의 령도자도 매우 마음이 괴로울것만 사실이다. 한 열흘 동안의 일인데 어떤 사람은 견뎌내지 못하겠다, 밥도 맛이 없고 잠도 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만두고 사직을 하려 하였다. 북경에 있는 대학의 당위서기들이 바로 밥맛을 잃고 잠을 자지 못하였다. 그때 우파들은 저들이 쟁명개방할수 있을뿐 반박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우리 역시 그들이 하는대로 내버려두고 반박

하지 말라고 하였다. 때문에 우리는 5월에 반박하지 않았으며 6월 8일 이전까지 일물로 반박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충분히 생명개방하게 되었다. 생명개방에서 나온 것들이 대략 90% 이상은 정확한 것이었으며 몇%는 우파언론이었다. 그때는 머리를 지그시 들이대고 듣기만 하다가 후에 가서 반격하여야 하였다. 단위마다 다 이 계단을 거쳐야 하였다. 이 정풍은 공장마다 합작사마다 다 하여야 하였다. 지금 군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정풍을 하지 않으면 《자유시장》이 또다시 발전하게 된다. 세상의 어떤 일들은 피상하기도 하여 3년만 정풍을 하지 않으면 공산당, 청년단, 민주당파, 대학교교수, 중소학교교원, 신문기자, 공정사, 과학자들 속에서 또 슬한 피상한 논의들이 나오며 자본주의사상이 또다시 머리를 쳐들게 된다. 이를테면 방을 매일 소제하고 얼굴을 매일 씻듯이 정풍도 앞으로 대체로 한해에 한번씩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번에 한달가량 하면 될 것이다. 그때에 또 얼마간의 큰 파도가 일어날 지도 모른다. 지금의 이 큰 파도는 우리가 조성한 것이 아니라 우파들이 조성한 것이다. 우리가 말하지 않았던가? 공산당내부에서 고강이 나왔는데 당신들 민주당파에는 고강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겠는가?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지금 공산당내에서 또 정령, 풍설봉, 강풍 같은 사람들이 나왔으며 당신들 민주당파내에서도 이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는가?

자산계급과 자산계급 지식분자들은 자신을 개조할

필요성을 승인하여야 한다. 우파는 자신을 개조할 필요성을 승인하지 않을뿐만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다지 개조하고싶어하지 않도록 영향을 주고있다. 자기들은 이미 다 개조되었다는것이다. 장내기는, 개조하다니 어디 될 말인가고 하면서 그것은 힘줄을 뽑고 껌질을 바르는것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환골탈태하여야 한다고 말하니 그는 환골탈태하노라면 힘줄을 뽑고 껌질을 바르게 된다고 말하였다. 이 선생이여, 누가 힘줄을 뽑고 껌질을 바른다던가?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어째서 이렇게 하는가, 사회주의에는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는가 하는것을 망각하고있다. 어째서 사상개조를 하여야 하는가? 그것은 자산계급지식분자로 하여금 무산계급세계관을 수립하게 하며 무산계급지식분자로 개조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새로운 지식분자들이 일떠졌기때문에 로지식분자들은 전변하지 않을래야 않을수 없게 되었다. 학문을 놓고 말하면 지금 새로운 지식분자들에게는 능력이 없다고들 하지만 장래에 가서는 이들이 유능하게 될것이다. 이 새로운 사람들의 출현은 로과학가, 로공정사, 로교수, 로교원들에게 장군을 칭셈으로서 그들을 전진하지 않을래야 않을수 없게 뵈박하고있다. 우리가 짐작하건대 그 대다수 사람들은 전진할수 있을것이며 일부분은 무산계급지식분자로 개조될수 있을것이다.

자산계급이 자기의 지식분자대오를 육성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무산계급도 자기의 지식분자대오를 육성하여야 한다. 어느 계급의 정권이나 자기의 지식분자가

없이는 유지될수 없는것이다. 미국에 그와 같은 지식 분자들이 없다면 그들의 자산계급전정이 어떻게 유지 되어나갈수 있겠는가? 무산계급전정을 실시하는 우리는 반드시 무산계급자신의 지식분자대오를 육성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낡은 사회에서 넘어온, 개조를 거쳐 진정으로 공인계급의 립장에 튼튼히 선 모든 지식분자가 포함된다. 우파가운데서 전변하기 싫어하는자를 말하면 아마 장내기가 그축에 들것이다. 그를 보고 무산계급지식분자로 되라고 하면 그는 거부하면서 자기는 전변한지 오래며 《홍색자산계급》으로 전변되었다고 한다. 자보공의가 아닌가, 그러니 그자신이 자보하는것은 좋지만 또 여러 사람이 공의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신은 아직 멀었다, 장내기 당신은 백색자산계급이다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먼저 전공하고 후에 붉어지겠다고 한다. 소위 먼저 전공하고 후에 붉어진다는것은 먼저 흰색이 되고 후에 붉은색이 된다는것이다. 그는 지금 붉어지지 않고 장내에 가서 붉어지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는 지금 무슨 색이겠는가? 흰색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식분자는 동시에 붉어도 되고 전공도 하여야 한다. 붉어지려면 결심을 내리고 자기의 자산계급세계관을 철저히 개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자면 꼭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것이 아니라 무산계급이란 무엇인가, 무산계급전정이란 무엇인가, 어째서 무산계급만이 전도가 있고 기타의 계급들은 모두 과도적계급인가, 어째서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길을 걸어야 하고 자본주의길을 걸어서는 안되는가, 어째서 반드시

시 공산당이 령도하여야 하는가 하는 등등의 문제들을 진정으로 똑똑히 알아야 한다.

4월 30일에 한 나의 말들을 많은 사람들이 귀등으로 듣고있다. 《가족이 없어졌는데 털이 어디에 붙어있겠는가?》 중국에는 다섯장의 가족이 있었다고 나는 말하였다. 이전의것이 석장인데 제국주의적소유제, 봉건주의적소유제, 판료자본주의적소유제가 그것이다. 과거 지식분자들은 바로 이 석장의 가족에 의거하여 살았다. 이밖에 그들은 또 민족자본주의적소유제와 소생산자소유제 즉 소자산계급적소유제에도 의거하였다. 우리의 민주혁명은 앞의 석장의 가족에 대하여 혁명하였는데 립측서때로부터 계산하면 100여년동안 혁명하였다. 사회주의혁명에서는 후의 두장, 즉 민족자본주의적소유제와 소생산자소유제에 대하여 혁명하였다. 이 다섯장의 가족은 지금 모두 없어졌다. 석장의 낡은 가족은 없어진지 오래며 나머지 두장도 이제는 없어졌다. 지금은 무슨 가족이 있는가? 사회주의적공유제라고 하는 가족이 있다. 물론 이것이 또 전민소유제와 집체소유제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지금은 누구에게 의거하여 살것인가? 민주당파거나 대학교교수거나 과학가거나 신문기자거나 모두 공인계급에 의거하고 집체농민에 의거하고 전민소유제와 집체소유제에 의거하여 살아야 한다. 총적으로 말해서 사회주의적공유제에 의거하여 살아야 한다. 그 다섯장의 낡은 가족이 없어지니 그 털들은 어찌되었는가? 지금 하늘에서 날아다니고있으며 내리봐도 든든히 붙지 못하고있다. 지식분자

들은 아직도 이 새 가축을 깔보고있으며 무산계급이요, 빈농, 하층농이요 하지만 그들은 실로 너무도 고명하지 못하여 우로는 천문을 모르고 아래로는 지리를 모르며 《3교9류》〔1〕가 다 자기만 못하다고 여긴다. 그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접수하려 하지 않는다. 이 맑스-레닌주의에 대하여 과거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다. 제국주의가 반대하였고 장개석도 《공산주의는 중국의 국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매일과 같이 반대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이것을 몹시 두려워하였다. 지식분자들이 맑스-레닌주의를 접수하고 자기의 자산계급세계관을 무산계급세계관으로 개조하자면 일정한 과정이 필요할뿐만아니라 사회주의적사상혁명운동이 있어야 한다. 금년에 진행하는 이 운동은 바로 이 길을 개척하는 것이다.

지금 어떤 기관과 학교에서는 우파를 반격하고나서 풍량이 잠잠해지자 발편잠을 자면서 제출된 많은 정확한 의견에 대하여 그대로 고치려 하지 않는다. 바로 북경의 일부 기관과 학교들에서 이런 일이 생기고있다. 이번의 정돈개정에서도 한차례의 쟁명개방조를 일으켜야 할것 같다. 어째서 개정하지 않는가고 대자보를 써붙여 장군을 쳐야 할것이다. 이 장군은 큰 작용을 일으킬수 있다. 정돈개정은 짧은 시일이면 된다. 이를테면 한두달이면 될것이다. 또 학습을 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를 학습하며 화풍세우의 방식으로 비평과 자아비평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네번째계단의 일이다. 물론 이 학습은 한두달에 끝날것이 아니



다. 여기서는 다만 학습에 대한 흥취를 불러일으키고 이 운동을 한단락 짓는다는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우파에 대한 반격은 조만간 한단락을 지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에 대하여 어떤 우파는 예견하고 있었다. 그는 이 풍량이 조만간에 지나가고야말것이라고 말하였다. 아주 정확히 말하였다. 그냥 반우파투쟁만 하고있을수는 없으며 날마다, 해마다 계속할수는 없는것이다. 례컨대 지금 북경에서는 반우파투쟁이 어지간히 되였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그다지 농후하지 않다.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늦추지는 말아야 한다. 지금 어떤 우파들은 죽어도 투항하려 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라룡기, 장내기 같은자들이 죽어도 투항하려 하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에는 그들을 좀더 설복해보아야 하겠지만 몇번 설복하여도 그냥 듣지 않는다면 날마다 그들을 앉혀놓고 회의만 할수는 없지 않은가? 일부 극단적완고파들이 영원히 회개하려 하지 않는다면 내버려둘수밖에 없다. 그들은 인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대로 몇십년 내버려두고 어찌는지 보는수밖에 없다. 다수 사람들은 어쨌든 전진하게 될것이다.

우파분자들을 바다에 던져버리는가? 우리는 그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우파는 공산당을 반대하고 인민을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반대하기때문에 적대적인 력량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들을 지주나 반혁명 분자처럼 취급하지는 않는다. 그 기본표징은 그들의 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것이다. 개별적사람에 한해서 는 선거권을 박탈하고 로동개조를 시킬수도 있을것이

다. 우리는 체포하지 않고 선거권도 박탈하지 않는 방법을 취하여 그들에게 돌아설 여지를 줌으로써 그들을 분화시키는데 유리하게 한다. 방금 두 부류로 나눌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한 부류는 개정후 우파분자의 모자를 벗어버리고 인민의 대오에 돌아올수 있을 것이고 다른 한 부류는 염라대왕을 만날 때까지 끝끝내 완고할것이다. 그들은, 나는 투항하지 않았습디다, 염라대왕님께서 보십시오, 내 얼마나 《주대》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것이다. 이런자는 자산계급의 충신이다. 우파는 봉건잔재, 반혁명과 련계되어있으며 서로 기맥이 통하며 서로 호응한다. 지주는 그 문회보를 보고 하도 기뻐서 그것을 사다가 농민들에게 읽어주면서 보란말이야, 신문에 실린걸! 하며 농민들을 위협하였다. 그들은 역청산을 하려 하였다. 또 제국주의와 장개석도 우파들과 기맥이 통하고있다. 례하면 대만과 향항의 반동파는 저안평의 《공산당의 세상》, 장백균의 《정치설계원》, 라퉁기의 《잘못 처리한것을 시정하는 위원회》에 대하여 매우 옹호한다. 미제국주의도 우파를 매우 동정하고있다. 나는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적이 있다. 가령 미국사람이 북경까지 쳐들어온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어떤 태도를 취하겠는가? 어떻게 할 작정인가? 미국사람과 함께 유지회를 조직하겠는가? 아니면 우리를 따라 산에 오르겠는가? 나의 주장은 산에 오르자는것, 제1보로는 장가구에 가고 제2보로는 연안에 가자는것이다. 이 말은 최악의 경우를 두고 말한것이고 문제를 철저히 말한것이며 란리가 두렵

지 않는다. 그것을 말한 것이다. 미국이 중국 절반을 점령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일본이 중국을 절반 이상이나 점령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우리는 투쟁끝에 새 중국을 전취하지 않았는가? 나는 일본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일본제국주의에게 감사를 드려야 하겠다. 그들의 그 침략은 우리에게 좋은 점이 매우 많았다. 그것은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도록 우리 전 민족을 불러일으켰으며 우리 나라 인민의 각성을 높여 주었던 것이다.

우파들은 진속말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성실하지 못하며 우리를 속이고 나쁜 일을 한다. 장백균이 나쁜 일을 그렇게 많이 한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내가 보진대 이런 사람들은 벼슬이 높을수록 소란을 더 크게 일으킨다. 장백균-라퉁기동맹은 장기공존, 호상감독 및 백화제방, 백가쟁명이란 이 두 구호를 제일 좋아한다. 그들은 이 두 구호를 리용하여 우리를 반대한다. 우리가 장기공존을 하자고 하면 그들은 단기공존을 하며 우리가 호상 감독하자고 하면 그들은 감독을 접수하지 않는다. 한동안은 그들이 몹시 미쳐날뛰었는데 그 결과 반면으로 나아가 장기공존이 단기공존으로 되어버렸다. 장백균이 부장을 그냥 할수 있겠는가? 아마 부장은 할것 같지 못하다. 우파가 부장을 하면 인민들이 찬성하지 않을것이다! 이밖에 일부 저명한 우파들은 원래 인민대표였는데 지금 어떻게 할것인가? 아마도 그냥 시키기 어려울것 같다. 례하면 정령은 인민대표로 될수 없다. 일부 사람에게 대하여는 아무런 직무도 주지 않

교 아무런 공작도 시키지 않아서는 좋지 못할것이다. 케하면 전위장은 부교장은 할수 없어도 교수질은 계속 할수 있을것이다. 또 일부 사람들은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을것이므로 아마 당분간은 교수질도 하지 못할것이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할것인가? 학교에서 다른 공작을 좀 시키면서 개조하게 하고 몇해후에 다시 글을 가르치게 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죄다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시끄러운 문제이다. 혁명이란 그자체가 바로 시끄러운 일인것이다. 우파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안배하겠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의논해보기 바란다.

각 민주당과의 정황이 어떠한가 기층의 정황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아마 책임자들인 여러분도 잘 알지 못하고있는것 같다. 견결한 우파분자들이 한동안 일부 단위에서 물을 잔뜩 흐리워놓아 우리가 그 바닥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될수도 있다. 조사해보면 기실은 1~2%밖에 되지 않는다. 명반 한줌을 넣으면 바닥이 들여다보인다. 이번 정풍이 바로 명반을 넣은것과 같다. 대명, 대방, 대변론을 하고나니 그 바닥이 들여다보이게 되었다. 공장과 농촌에서 바닥이 들여다보이고 학교에서 바닥이 들여다보였으며 공산당, 청년단, 민주당파에 대하여서도 바닥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이제 나는 농업발전요강40조에 대하여 말하겠다. 2년간의 실적을 거뒀는데 기본적인요구를 의연히 4, 5, 8로 한다. 즉 량곡의 무당산량을 황하이북은 400근, 회하이북은 500근, 회하이남은 800근으로 한다. 12년동

안에 이 목표에 도달하여야 한다. 이것이 기본점이다. 전반 요강은 기본상 고치지 않고 소수의 조문만 고쳤다. 어떤 문제들은 이미 해결되었다. 예를 들면 합작화문제는 기본상 해결되었으므로 이에 상응되는 조문을 수정하였다. 농업기계, 화학비료와 같은것은 이전에 강조하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할것이므로 이것을 조문에서 강조하였다. 그리고 조문의 순서도 일부 변동시켰다. 수정한 이 농업발전요강초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회 련석회의의 토론을 거친후 다시 공포하고 전국의 농촌에서 토론하도록 할것이다. 공장에서도 토론할수 있으며 각계, 각 민주당파에서도 토론할수 있다. 이 농업발전요강초안은 중국공산당이 제기한것이고 중공중앙이란 이 정치설계원에서 설계한것이 지 장백균의 그 《정치설계원》에서 설계한것은 아니다.

전체 농민을 발동하여 이 농업발전요강을 토론하는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힘을 버쩍 내어야 하겠다. 작년 하반년과 금년 상반년에 맥을 놓은데다 성시와 농촌의 우파들이 소란을 일으켰으므로 맥이 더 풀렸었는데 지금 정풍을 하며 우파를 반격하자 다시 힘을 북돋우게 되었다. 나는 농업발전요강40조는 주관주의가 아니라 비교적 중국의 국정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원래 주관주의가 좀 들어있던것들은 이번에 고치였다. 총적으로 말해서 이 요강은 실현할 가망이 있는것이다. 우리 중국은 개조할수 있다. 즉 지식이 없으면 지식이 있게 개조할수 있으며 생기가 없으면 생기가 있게

개조할수 있다.

요강에는 쥐, 참새, 파리, 모기 등 4해를 제거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있다. 나는 이 일에 매우 흥취를 느끼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다. 아마 여러분도 흥취를 느낄것이다! 4해를 제거하는것은 대규모적인 위생청결운동이며 미신을 타파하는 운동이다. 이 몇가지를 없애버린다는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4해를 제거함에 있어서도 대명, 대방, 대변론, 대자보를 리용하여야 한다. 만일 전체 인민을 동원하여 4해를 제거하는데서 성과를 좀 올린다면 내가 보건대 사람들의 심리상태가 변할것이며 우리 중화민족의 정신이 생기를 띠게 될것이다. 우리는 우리 민족이 생기를 띠게 하여야 한다.

계획적생육도 잘될 가망이 있다. 이 일도 대변론을 거쳐야 하며 몇해동안 시점을 해보고 몇해동안 보급시키며 몇해동안에 보편화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매우 많다. 농업발전요강 40조에만 해도 하여야 할 일들이 많이 적혀있다. 그런데 이것은 농업계획일 따름이고 이밖에 또 공업계획과 문교계획이 있다. 3차의 5개년계획이 완수된후이면 우리 나라는 면모가 개변될것이다.

우리는 3차의 5개년계획을 거쳐 강철의 년산량이 2,000만톤에 달하게 할수 있으리라고 예견한다. 금년의 생산량은 520만톤인데 이제 10년이면 아마 이 목표에 도달할수 있을것이다. 인도는 1952년에 강철산량이 160만톤이던것이 지금 170몇만톤이니 5년동안에 10몇만

톤밖에 증가되지 못하였다. 우리는 어떠한가? 1949년에 19만톤밖에 안되던것을 3년회복시기에 100여만톤으로 올렸고 다시 5년이 지나서는 520만톤에 도달되게 하였다. 즉 5년동안에 300여만톤이나 증가되었다. 이제 5년 동안 더 하면 1,000만톤을 초과하거나 좀더 많으면 1,150만톤에 도달할수 있을것이다. 그런후에 제3차5개년계획을 실시하면 2,000만톤에 도달할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가능한것이다.

나는 우리 나라는 확실히 전망이 크다고 본다. 우파들은 전망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그릇된것이다. 그들은 신심이 없다. 그들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만큼 신심이 없을것은 물론이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견지하고있는만큼 완전히 신심이 있는것이다.

## 주 해

[1] 3교란 유교, 도교, 불교를 가리킨다. 9류란 유가, 도가, 음양가, 법가, 명가, 묵가, 종횡가, 잡가와 농가를 가리킨다. 후에 와서는 종교와 학술상의 각종 류파를 두루 가리켜 《3교9류》라 하였다. 이 말이 구사회에서는 사치로 떠돌아다니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두루 이르는때도 사용되었다.

## 당내단결의 변증법적방법\*

(1957년 11월 18일)

단결문제에 있어서 나는 방법문제를 좀 말하려 한다. 동지에 대하여서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간에 적대분자나 파괴분자가 아닌 이상 단결하는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들에 대하여 형이상학적방법을 취할것이 아니라 변증법적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변증법적방법이란 어떤것인가? 그것은 일체에 대하여 분석을 가하며 사람은 어쨌든 착오를 범할수 있다는 것을 승인하는것을 가리키며 착오를 범한 사람이라 하여 그의 일체를 부정해버리지는 않는것을 가리킨다. 레닌은 착오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나 다 다른 사람의 지지가 없어서는 안된다. 호한도 조력군 몇이 받들어주어야 하고 올바른 자도 말뚝 몇을 박아야 설수 있다. 편뿔이 아름답다 해도 푸른 잎사귀가 받쳐주어야 한다. 이것은 중국의 성구이다. 중국에는 또 구두쟁이 셋이 모이면 제갈량보다 낫다는 성구가 있다. 제갈량 혼자만으로는 아무리 어찌도 완전하지는 못하며 결함이 있기 마련이다. 보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모스크바 공산당및공인당대표회의에서 하신 발언의 절록이다.



다싶이 우리의 12개국선언은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초고까지 나왔으며 아직도 문자적수정을 끝내지 못하고있다. 내가 보건대 자신을 하느님과도 같은 전지전능으로 자처한다면 그런 생각은 타당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즉 착오를 범한 동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가? 분석을 가하며 변증법적방법을 취하여야 하지 형이상학적방법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일찌기 우리 당은 형이상학——교조주의에 빠져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면 완전히 훼손시킨적이 있었다. 후에 우리는 교조주의를 비판하고 점차적으로 변증법을 좀더 많이 배우게 되었다. 변증법의 기본관점은 대립물의 통일이다. 이 관점을 승인하는 한 착오를 범한 동지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착오를 범한 동지에 대하여서는 첫째로는 투쟁하여야 하며 그릇된 사상을 철저히 숙청하여야 한다. 둘째로는 또 그물 도와주어야 한다. 말하자면 투쟁도 하고 도와도 주어야 한다. 선의로부터 출발하여 그가 착오를 시정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출로를 주어야 한다.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사정이 다르다. 이를테면 드로즈끼 같은 사람이나 중국의 진독수, 장국도, 고강 같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도와주는 태도를 취할수 없다. 그것은 그들이 만회할수 없는 사람들 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히틀러, 장개석, 짜리도 만회할수 없으며 타도할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대하여 말하면 절대적으로 상호 배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의미에서 말하면 그들에게는 단일성만 있고

이중성이 없다. 제국주의제도, 자본주의제도도 중국적으로 말하면 이와 같다. 그것들은 중국에 가서는 필연코 사회주의제도에 의하여 대체되고말것이다. 의식형태면에서도 이리하다. 즉 유물론으로 유심론을 대체하고 무신론으로 유신론을 대체하여야 한다. 이것은 전략적목적에서 말하는것이다. 책략적계단에 있어서는 이와 다르며 거기에는 타협이 있게 된다. 우리는 조선의 38선에서 미국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았던가? 월남에서 불란서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았던가?

개개의 책략계단에서는 투쟁도 할줄 알고 타협도 할줄 알아야 한다. 이제 동지적관계로 되돌아가 말해보자. 나는 동지간에 간극이 있으면 담판할것을 제의한다. 어떤 사람은 공산당에 들어오면 모두가 성인이여서 분기도 없고 오해도 없고 분석을 가할것도 없으므로, 다시말하면 철석같이 한덩이로 되어있고 하나같이 가쁜하므로 담판할것이 없는듯이 생각한다. 마치 공산당에 들어오면 100%의 맑스주의여야 하는것처럼 생각한다. 기실은 각양각색의 맑스주의자가 있다. 즉 100%의 맑스주의자도 있고 90%의 맑스주의자도 있고 80%의 맑스주의자도 있고 70%의 맑스주의자도 있고 60%의 맑스주의자도 있고 50%의 맑스주의자도 있으며 10%나 20%의 맑스주의밖에 없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자그마한 방안에서 두사람이거나 몇사람이 이야기할수 없겠는가? 단결로부터 출발하여 방조하는 정신으로 담판할수 없겠는가? 이것은 물론 제국주의와 담판하는것이 아니다(제국주의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역

시 담판하려 한다). 이것은 공산주의내부의 담판이다. 예를 한가지 들겠다. 이번에 우리 열두 나라가 담판하고있는것이 아닌가? 60몇개 당이 담판하고있는것이 아닌가? 실제에 있어서는 담판을 하고있는것이다. 다시 말하면 맑스-레닌주의에 존장을 주지 않는 원칙하에서 남의 의견을 접수할수 있는것은 접수하고 자기의 의견을 포기할수 있는것은 포기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두가지 방법이 있게 된다. 두가지 방법은 즉 착오를 범한 동지들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투쟁하며 한편으로는 단결하는것이다. 투쟁하는 목적은 맑스주의원칙을 견지하려는데 있다. 이것을 원칙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가지 방법이다. 다른 한가지 방법은 단결을 도모하는것이다. 단결하는 목적은 그에게 출로를 주며 그와 타협하려는데 있다. 이것을 령활성이라 한다. 원칙성과 령활성의 통일은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이다. 이것은 대립물의 통일이다.

어떠한 세계나 다 모순으로 충만되어있다. 물론 계급사회는 특히 그러하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주의사회에서도 모순을 《찾을수》 있다고 말하는데 나는 이런 제기법이 옳지 않다고 본다. 모순을 찾을수 있고없는 문제가 아니라 모순이 충만되어있는것이다.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으며 분석을 가할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만일 분석을 가할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승인한다면 그것은 형이상학이다. 보다싶이 원자는 모순의 통일로 충만되어있다. 거기에는 원자핵과 전자란 두 대립물의 통일이 있다. 원자핵에는

또 질자와 중자의 대립물의 통일이 있다. 질자에는 또 질자와 반질자가 있고 중자에는 또 중자와 반중자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립물의 통일은 존재하지 않는게 없다. 대립물의 통일에 관한 관념에 대하여, 변증법에 대하여 광범히 선전하여야 한다. 내 말은 변증법이 철학가의 울타리로부터 벗어나 광범한 인민군중속으로 가야 한다는것이다. 나는 각국 당의 정치국 회의에서와 중앙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론하며 당의 각급 지방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론할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기실 우리의 지부서기들은 변증법을 알고있다. 그들은 지부대회에서 보고를 하려고 준비할 때면 흔히 목책에다 첫째로는 우점, 둘째로는 결점, 이렇게 두가지를 적는다. 하나가 둘로 나뉘어지는것, 이것은 보편적현상이다. 이것이 바로 변증법이다.

## 일체 반동파는 모두 종이범이다\*

(1957년 11월 18일)

1946년에 장개석이 우리를 진공하기 시작하였을 때 우리의 많은 동지들과 전국 인민들은 전쟁에서 이길수 있겠는가를 몹시 근심하였다. 나 자신도 이 일을 근심하였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심이 있었다. 그때 안나 루이스 스트롱이라고 하는 미국기자가 연안으로 왔다. 나는 그와 담화할 때 장개석, 히틀러, 일본, 미국, 원자탄 등등과 같은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였다. 나는 소위 강대하다고 하는 일체 반동파들은 죄다 종이범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인민을 탈리하였기때문이다. 보라, 히틀러가 종이범이 아니었는가? 히틀러가 타도되지 않았는가? 나는 짜리도 종이범이며 중국의 황제도 종이범이며 일본제국주의도 종이범이라고 하였다. 보다싶이 그들은 모두 꺼꾸러지고말았다. 미제국주의는 꺼꾸러지지 않았고 또 원자탄까지 가지고있지만 내가 보기에 는 마찬가지로 꺼꾸러질것이

---

이것은 모택동동지께서 모스크바 공산당및공인당대표회의에서 하신 발언의 절록이다.

며 역시 종이범이다. 장개석은 매우 강대하였고 400여만의 정규군을 가지고있었다. 그때 우리는 연안에 있었다. 연안이란 곳에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가? 7,000명이 있었다. 우리에게는 군대가 얼마나 있었는가? 우리에게는 90만의 유격대가 있었는데 그나마 모두가 장개석에 의하여 몇십개 근거지에 분할되어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장개석은 종이범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가 꼭 그를 싸워이길수 있다고 말하였다. 적들과 싸우기 위하여 우리는 장기간에 걸쳐 하나의 개념을 형성하였는데 그것은 즉 전략상에서는 모든 적을 멸시하여야 하며 전술상에서는 모든 적을 중시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다시말하면 전체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들을 멸시하여야 하며 하나하나의 구체적문제에서는 반드시 그들을 중시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만약 전체에 있어서 적을 멸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회주의적착오를 범하게 될것이다. 맑스, 엥겔스는 단 두사람뿐이었지만 당시에 벌써 천 세계에서 자본주의는 타도될것이라고 단언하였다. 그러나 구체적문제에서, 개개의 적들을 대하는 문제에서 만일 그것들을 중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험주의적착오를 범하게 될것이다. 싸움은 한차레한차레씩 할수밖에 없고 적은 한부분한부분씩 소멸할수밖에 없다. 공장은 하나하나씩 세울수밖에 없고 농민은 밭을 한패기한패기씩 갈수밖에 없다. 밥을 먹는것도 역시 그러하다. 우리는 전략상에 있어서는 이 밥을 다 먹을수 있다고 멸시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먹을 때에는 한술한술씩 먹어야 하지 한상의 음식을 한입에

---

들이삼킬수는 없는것이다. 이것을 각개해결이라고 하는데 군사서적에서는 각개격파라고 한다.

本书根据人民出版社1977年4月第1版北京第1次印刷版本翻译出版。

이 책은 인민출판사 1977년 4월 제1판 북경 제1차인쇄본에 의하여 번역출판한다.





# 毛泽东选集

## 第五卷

(朝鲜文)

\*

民族出版社出版 新华书店发行

民族印刷厂印刷

1977年6月第1版

1977年6月北京第1次印刷

开本：850×1168毫米 1/32 印张，24 插页，3

平装本定价：0.93元

书号：M1049(6) 273